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발 간 사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에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하이 콘셉트’(high concept)과 ‘하이 터치’(high touch)를 꼽았습니다. 하이 콘셉트는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창출하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이 터치는 마음의 공감과 즐거움을 끌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종합해보면,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창조성과 감성적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성과 감성적인 소통 모두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다가오는 시대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 경제적 성취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당장은 계량화할 수 없으나 인간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4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천명하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기조로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문화가 더 이상 국민 삶과 행복에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 영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은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첫 해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추진한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 기조와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의 혜안이 담긴 조선왕조실록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기록은 미래의 문화 발전에 통찰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가 향후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목 차

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1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3

1. 국정기조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3

2. 문화융성 전략 및 과제 5

제2절 2013년 문화예술정책 9

1. 2013년 문화예술정책 과제와 목표 9

2. 2013년 문화예술정책 주요성과 11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31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33

1. 연혁 및 역할 33

2. 조직 및 기능 35

1) 장차관 직속기관 39
2) 기획조정실 40
3) 종무실 40
4) 문화콘텐츠산업실 40
5) 국민소통실 42
6) 문화정책국 44
7) 예술국 44
8) 관광국 45
9) 체육국 47
10) 미디어정책국 47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8
12)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49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50

1. 국립문화예술기관 50

1) 한국예술종합학교 50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50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50
4) 국립중앙박물관 50
5) 국립국어원 51
6) 국립중앙도서관 51
7) 해외문화홍보원 51
8) 국립중앙극장 51
9) 국립현대미술관 52
10) 국립국악원 52
11) 국립민속박물관 52
12) 예술원 사무국 52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14) 한국정책방송원 53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53

1) 예술의전당 53
2) 한국문학번역원 53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4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4
5) 세종학당재단 54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4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5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5
9) 아시아문화개발원 56

3. 민법상 법인 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56

1) 국립극단 56
2) 국립발레단 56
3) 국립오페라단 57
4) 국립예술자료원 57
5) 국립합창단 57
6) 국립현대무용단 57

목 차

7) 명동 · 정동극장 58
8) 서울예술단 58
9) 예술경영지원센터 58
1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8
11) 한국공연예술센터 59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9
13) 국악방송 59
1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60
15)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60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0
17) 한국문화정보센터 61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법령 62

1. 법령체계 62

1) 문화기본법 62
2) 문화예술 및 민족문화 관련 법제 63

2. 2013년도 주요 법령정비 현황 64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3. 7. 16) 65
2) 문화기본법 제정(2013. 12. 30) 65
3)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3. 12. 30) 65
4) 공연법 개정(2013. 12. 30) 6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3. 12. 30) 66

3. 법령별 주요 내용 66

1) 문화기본법 66
2) 문화예술진흥법 67
3) 국어기본법 67
4) 공연법 68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69
6) 예술인 복지법 69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70
8) 대한민국예술원법 70
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70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11) 도서관법 72
12) 작은도서관 진흥법 72
13) 독서문화진흥법 73
14) 지방문화원진흥법 73

제4절 문화예술 재정 74

1. 중앙정부 문화재정 74
2. 국립문화예술기관 재정 75
3. 문화예술진흥기금 76
1) 설치근거 및 배경 76
2) 기금 개요 77
3) 기금 조성 77
4) 적립 및 지원 현황 79
4. 문화예술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방향 (2013~2017) 81

제3장 문화정책 83

제1절 문화정책 일반 85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85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87
1) 문화기본법 제정 87
2)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87
3) 여가문화 활성화 88
4)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91
5) 문화다양성 정책 110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9

목 차

제2절 국어정책 125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125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27

1)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27
2)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신설 131
3) 해외 한국어 보급 132
4) 한글문화큰잔치 136
5)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138
6)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41

3. 국립국어원 144

1) 조직 현황 144
2) 주요 성과 146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148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148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48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149
2) 전통 · 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173
3)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제정 추진 179
4)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180

제4절 국제문화정책 181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181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81

1)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화 추진 181
2) 재외문화원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183
3)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 확대 188
4) 문화 분야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203

제5절 도서관정책 210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10

2. 일반현황 213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 수 213
2) 전국 도서관 수 213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214

3. 정책현황 및 주요 성과 215

1) 도서관 및 독서관련 법제도 정비 215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20
3) 독서문화 진흥 225
4)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227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230

4. 국립중앙도서관 235

1) 조직현황 235
2) 주요성과 236

제6절 박물관정책 253

1. 기본방향 및 박물관현황 253

1) 기본방향 253
2) 박물관현황 254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56

1)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256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256
3)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257

3. 국립중앙박물관 259

1) 조직현황 259
2) 주요성과 261

목 차

4. 국립민속박물관 283
1) 조직현황 283
2) 주요성과 285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99
1) 조직현황 299
2) 주요성과 299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321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21
2. 추진 성과 322

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325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25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28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28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331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334
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349

제4장 예술정책 353

제1절 예술정책 일반 355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55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57
1)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마련 357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358
3)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361
4)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365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367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370

3. 주요기관 372

1) 한국예술종합학교 37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8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83

제2절 문학정책 386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86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86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386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388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391
4) 문학관 건립 지원 393
5) 한국문학번역원 395

제3절 공연예술정책 407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407

2.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408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408
2)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415

3. 공연예술 단체 및 기관 418

1) 국립극단 418
2) 국립발레단 420
3) 국립오페라단 422
4) 국립예술자료원 426
5) 국립중앙극장 430
6) 국립합창단 434
7) 국립현대무용단 437

목 차

8)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441
9) 서울예술단 447
10) 예술경영지원센터 450
11) 예술의전당 455
12)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460
13) 한국공연예술센터 462
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65

제4절 전통예술정책 467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467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467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467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475

3. 전통예술 단체 및 기관 487

1) 국립국악원 487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491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495
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502
5) (재)국악방송 506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511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511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513

1) 시각예술 정책 513
2) 디자인공간문화정책 533

3. 국립현대미술관 551

1) 설립목적 및 연혁 551
2) 조직 및 예산 551
3) 추진성과 553

4.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555
1) 개관 555
2)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557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559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559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561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61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68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및 정책공감 사업 575
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579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599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07

부록 613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 (2013) 615
1) 2013년 기본과제 615
2) 2013년 특별과제 617
3) 2013년 조사과제 617
4) 2013년 수탁과제 618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록 (2013) 620
1) 2013년 언론보도 목록 620
2)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해명 보도자료 목록 640
3. 문화체육관광 승인통계 목록 (2013) 642

목 차

표차례

〈표 1-1-1〉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내용 7
〈표 1-2-1〉 문화이용권: 주요 개선 내용 15
〈표 1-2-2〉 세종학당 현황 20
〈표 1-2-3〉 2013년 주요 계기행사 추진실적 21
〈표 1-2-4〉 2013년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3
〈표 1-2-5〉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간 역할 및 사업분담 기본 원칙 25
〈표 1-2-6〉 국립세종도서관 자료현황 29
〈표 1-2-7〉 201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주요 프로그램 29
〈표 1-2-8〉 201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지원현황 30
〈표 1-2-9〉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절차 30
〈표 2-3-1〉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정 · 개정 현황(2013) 65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74
〈표 2-4-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75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76
〈표 2-4-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78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79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79
〈표 2-4-7〉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80
〈표 2-4-8〉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2013~2017) 81
〈표 2-4-9〉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82
〈표 3-1-1〉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정책의 전략과 과제 86
〈표 3-1-2〉 주요 여가정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 89
〈표 3-1-3〉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선정기업 90
〈표 3-1-4〉 문화나눔 사업별 내용 92
〈표 3-1-5〉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현황(2013년) 94
〈표 3-1-6〉 문화이용권 :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96
〈표 3-1-7〉 문화이용권 : 연도별 주요 개선 내용 97
〈표 3-1-8〉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연령별 현황(2013년) 98
〈표 3-1-9〉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대상별 발급 현황(2013년) 98
〈표 3-1-10〉 문화이용권 : 시도별 문화이용권 예산 집행 및 카드실적 현황(2013년) 98
〈표 3-1-11〉 문화이용권 :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3년) 100
〈표 3-1-12〉 문화이용권 : 지역별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3년) 100
〈표 3-1-13〉 문화이용권 : 나눔 티켓 지원 현황(2013년) 102

〈표 3-1-14〉 문화이용권 : 나눔 티켓 장르별 프로그램 지원 현황(2013년) 102
〈표 3-1-15〉 사랑티켓: 지역별 수혜자 수와 지원 금액 (2013) 103
〈표 3-1-16〉 장르별 사랑티켓 참가작품 수(2013) 104
〈표 3-1-17〉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13) 105
〈표 3-1-18〉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수혜자 수(2013) 106
〈표 3-1-19〉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2013) 108
〈표 3-1-20〉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성과목표 달성률(2013) 108
〈표 3-1-21〉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예산대비 성과 108
〈표 3-1-2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주요내용 112
〈표 3-1-23〉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대구문화재단) 115
〈표 3-1-24〉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인천문화재단) 116
〈표 3-1-25〉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116
〈표 3-1-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목록 (2013) 120
〈표 3-1-27〉 문화예술지식정보 오프라인 콜로키움 (2013년) 123
〈표 3-1-28〉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 123
〈표 3-1-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술대회 공동개최 (2013) 124
〈표 3-2-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126
〈표 3-2-2〉 청각장애인용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2008~2013) 130
〈표 3-2-3〉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31
〈표 3-2-4〉 국어문화원 지정현황 131
〈표 3-2-5〉 한국어 국외 보급 132
〈표 3-2-6〉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 133
〈표 3-2-7〉 세종학당 현황 134
〈표 3-2-8〉 역대 한글 주간 개요 136
〈표 3-2-9〉 세종문화상,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개요 137
〈표 3-2-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현황 및 추진 방향 139
〈표 3-2-11〉 2010년~2013년 추진실적 139
〈표 3-2-12〉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143
〈표 3-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150
〈표 3-3-2〉 문화이모작 운영실적(2013) 152
〈표 3-3-3〉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3) 153
〈표 3-3-4〉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153
〈표 3-3-5〉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5~2013) 154
〈표 3-3-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2005~2013) 157
〈표 3-3-7〉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2009~2013) 157

목 차

〈표 3-3-8〉 지역별 인구수 및 공공문화시설 수 159
〈표 3-3-9〉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13) 161
〈표 3-3-10〉 수원 못골시장 · 강릉 주문진 시장 문화 프로그램 163
〈표 3-3-11〉 연도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64
〈표 3-3-12〉 2013 지역특화 문화행사 내용 166
〈표 3-3-13〉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167
〈표 3-3-14〉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170
〈표 3-3-15〉 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현황 172
〈표 3-3-16〉 한 스타일 사업 추진경과(2005~2013) 176
〈표 3-3-17〉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177
〈표 3-3-18〉 문화원형 콘텐츠 주요 활용사례 178
〈표 3-4-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2013) 184
〈표 3-4-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주요 추진실적 총괄표(2013) 188
〈표 3-4-3〉 2013년 수교 계기 문화행사 추진실적 총괄표 191
〈표 3-4-4〉 한 · 일 문화교류회의 200
〈표 3-4-5〉 2013 해외 주요인사 초청 실적 202
〈표 3-4-6〉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2013) 203
〈표 3-4-7〉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2013) 205
〈표 3-4-8〉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2013) 206
〈표 3-4-9〉 문화예술봉사단 사업 실적(2005~2013) 207
〈표 3-4-10〉 유네스코 협력사업 209
〈표 3-5-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212
〈표 3-5-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 1관당 인구 수 213
〈표 3-5-3〉 전국 도서관 수 213
〈표 3-5-4〉 공공도서관 현황 214
〈표 3-5-5〉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215
〈표 3-5-6〉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217
〈표 3-5-7〉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주요 정책과제) 219
〈표 3-5-8〉 작은 도서관 조성실적 및 예산액 221
〈표 3-5-9〉 민간기업 후원 현황 222
〈표 3-5-10〉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222
〈표 3-5-11〉 2013년 시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223
〈표 3-5-12〉 시 · 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 지정 현황 (도서관진흥과, 2013.12.31) 224
〈표 3-5-13〉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아 수 현황 (2013년 현황) 225
〈표 3-5-14〉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 (2013년 현황) 225

〈표 3-5-15〉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연도별 추진실적 226
〈표 3-5-16〉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현황 227
〈표 3-5-17〉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구비 지원 현황 228
〈표 3-5-18〉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228
〈표 3-5-19〉 취약지역 도서 보급처 현황(2013) 229
〈표 3-5-20〉 취약지역 보급 도서 선정종 수(2013) 229
〈표 3-5-21〉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229
〈표 3-5-22〉 지난 3년간 관종 별 도서관 평가 참여 현황 233
〈표 3-5-23〉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2013) 233
〈표 3-5-24〉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2013) 235
〈표 3-5-2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238
〈표 3-5-26〉 2013년 '길 위의 인문학' 현장탐방 일정표 244
〈표 3-5-27〉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 (2013) 245
〈표 3-6-1〉 연도별 박물관 현황(1999~2013) 255
〈표 3-6-2〉 지역별 박물관현황 (2013) 255
〈표 3-6-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257
〈표 3-6-4〉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추진 실적(2013) 258
〈표 3-6-5〉 (사)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운영 활성화 258
〈표 3-6-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260
〈표 3-6-7〉 보존처리 현황(2013) 264
〈표 3-6-8〉 분석조사연구 현황(2013) 265
〈표 3-6-9〉 환경조사 현황(2013) 265
〈표 3-6-10〉 유적 발굴 · 학술조사 현황(2013) 267
〈표 3-6-11〉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현황(2013) 268
〈표 3-6-12〉 2013년 기획전 개최현황 270
〈표 3-6-13〉 2013년 특별전 · 테마전 개최현황 271
〈표 3-6-14〉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3) 273
〈표 3-6-15〉 문화행사 현황(2013) 274
〈표 3-6-16〉 도서발간 현황(2013) 276
〈표 3-6-17〉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현황 277
〈표 3-6-18〉 2013년 국외전시 현황 279
〈표 3-6-19〉 2013년 해외 전문가 초청사업 280
〈표 3-6-20〉 2013년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280
〈표 3-6-21〉 2013년 한 · 일 학술인적교류사업 280
〈표 3-6-22〉 2013년 지방박물관 특성화 사업 283

목 차

〈표 3-6-23〉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284
〈표 3-6-24〉 2013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285
〈표 3-6-25〉 2013년 등록 문화재 소장 현황 285
〈표 3-6-26〉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287
〈표 3-6-27〉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 290
〈표 3-6-28〉 2013년도 세시행사 운영 현황 293
〈표 3-6-29〉 2013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293
〈표 3-6-30〉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2013) 296
〈표 3-6-31〉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2013.12.31 기준) 298
〈표 3-6-32〉 2013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298
〈표 3-6-33〉 2013년 등록문화재 소장 현황 300
〈표 3-6-34〉 보존처리 현황(2013) 302
〈표 3-6-35〉 환경조사 현황(2013) 303
〈표 3-6-36〉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305
〈표 3-6-37〉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310
〈표 3-6-38〉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발간 현황 310
〈표 3-6-39〉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311
〈표 3-6-40〉 2013년도 교육 운영 현황 315
〈표 3-6-41〉 역사기념일 체험행사 현황 315
〈표 3-6-42〉 2013년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 기관' 317
〈표 3-6-43〉 2013년 MOU 체결 현황 318
〈표 3-6-44〉 2013년 홍보 실적 320
〈표 3-7-1〉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안내 322
〈표 3-7-2〉 전시공간구성 계획 323
〈표 3-7-3〉 국립한글박물관 연도별 한글자료 수집 현황 324
〈표 3-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327
〈표 3-8-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원 및 시설 구성 330
〈표 3-8-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331
〈표 3-8-4〉 7대 문화권 사업 336
〈표 3-8-5〉 예술진흥사업 주요성과 337
〈표 3-8-6〉 '문화콘텐츠 기획 ·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의 최종 제작물 347
〈표 4-1-1〉 창작산실 추진내역 362
〈표 4-1-2〉 문화소외지역 지원사업 및 성과 363
〈표 4-1-3〉 전국 문예회관 운영현황 364
〈표 4-1-4〉 시도별 공연장 등록현황 364

〈표 4-1-5〉 소공연장 권역별 안전점검 지원실적 365
〈표 4-1-6〉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373
〈표 4-1-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3. 12. 31. 기준) 374
〈표 4-1-8〉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3. 12. 31. 기준) 374
〈표 4-1-9〉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년도 세부 추진성과 376
〈표 4-1-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9~2013) 380
〈표 4-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핵심사업 추진현황(2013) 380
〈표 4-1-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384
〈표 4-2-1〉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실적(2009~2013) 388
〈표 4-2-2〉 2013년 문학작가 파견사업 참여 도서관(70개관) 389
〈표 4-2-3〉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394
〈표 4-2-4〉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398
〈표 4-2-5〉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398
〈표 4-2-6〉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출간지원 현황(2001~2013) 399
〈표 4-2-7〉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LTI Korea 포럼' 399
〈표 4-2-8〉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401
〈표 4-2-9〉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현황 402
〈표 4-2-10〉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본원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 현황 (2003-2013) 403
〈표 4-2-11〉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404
〈표 4-2-12〉 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404
〈표 4-3-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409
〈표 4-3-2〉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관광기금) 409
〈표 4-3-3〉 공연예술행사지원(문예기금) 410
〈표 4-3-4〉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문예기금) 412
〈표 4-3-5〉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3) 413
〈표 4-3-6〉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현황(2004~2013) 413
〈표 4-3-7〉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414
〈표 4-3-8〉 공연예술 창작기반 지원현황 417
〈표 4-3-9〉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사업 실적 440
〈표 4-3-10〉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부대사업 현황 441
〈표 4-3-11〉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442
〈표 4-3-12〉 명동예술극장 생활예술사업 〈명례방 프로젝트〉 443
〈표 4-3-13〉 명동예술극장 관객 현황 445
〈표 4-3-14〉 정동극장 관객 현황 446
〈표 4-3-15〉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446

목 차

〈표 4-3-16〉 서울예술단 주요 추진성과(2013) 449
〈표 4-3-17〉 공연예술 국제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451
〈표 4-3-18〉 2010~2013년도 센터스테이지코리아 수혜단체 외화 수입 451
〈표 4-3-19〉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 452
〈표 4-3-20〉 2006~2013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453
〈표 4-3-21〉 2007~2013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수강자 수 453
〈표 4-3-22〉 예술경영 및 국제교류 지식 · 정보 제공 454
〈표 4-3-23〉 예술의전당 예산 456
〈표 4-3-24〉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457
〈표 4-3-25〉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08~2013) 459
〈표 4-3-26〉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실적 464
〈표 4-3-27〉 한국공연예술센터 관객 현황 465
〈표 4-4-1〉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468
〈표 4-4-2〉 연도별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실적 470
〈표 4-4-3〉 연도별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 결과 471
〈표 4-4-4〉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472
〈표 4-4-5〉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473
〈표 4-4-6〉 연도별 창작연희 작품공모 경연 결과 474
〈표 4-4-7〉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477
〈표 4-4-8〉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477
〈표 4-4-9〉 연도별 아리랑 세계화 사업 실적 479
〈표 4-4-10〉 연도별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실적 481
〈표 4-4-11〉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483
〈표 4-4-12〉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484
〈표 4-4-13〉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485
〈표 4-4-14〉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2013년) 494
〈표 4-4-15〉 201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500
〈표 4-4-16〉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성과(2013) 503
〈표 4-4-17〉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506
〈표 4-4-18〉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3년 10월) 509
〈표 4-4-19〉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510
〈표 4-5-1〉 국내미술 전시 횟수(2005~2012) 511
〈표 4-5-2〉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2005~2012) 511
〈표 4-5-3〉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2008~2013) 514
〈표 4-5-4〉 연도별 정부미술품 구입 내역 (2012~2013) 515

〈표 4-5-5〉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08~2013) 515
〈표 4-5-6〉 연도별 정부미술품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2~2013) 516
〈표 4-5-7〉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 율 516
〈표 4-5-8〉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2008~2013) 517
〈표 4-5-9〉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현황(2006~2013) 518
〈표 4-5-10〉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 520
〈표 4-5-11〉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2003~2013) 522
〈표 4-5-12〉 국제 아트 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13) 524
〈표 4-5-13〉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528
〈표 4-5-14〉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콘텐츠 수집 · 가공 · 제공 성과 529
〈표 4-5-15〉 2013년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대상 관 명단 532
〈표 4-5-1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534
〈표 4-5-17〉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학교 538
〈표 4-5-18〉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추진현황 540
〈표 4-5-19〉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요내용(2013) 541
〈표 4-6-1〉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560
〈표 4-6-2〉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3~2013) 562
〈표 4-6-3〉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563
〈표 4-6-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2012-2013) 567
〈표 4-6-5〉 사회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4~2013) 569
〈표 4-6-6〉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2013) 569
〈표 4-6-7〉 군 ·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3) 570
〈표 4-6-8〉 '창의예술캠프' 운영 현황(2013) 572
〈표 4-6-9〉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운영 현황 573
〈표 4-6-10〉 2013년 명예교사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 573
〈표 4-6-11〉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06~2013) 574
〈표 4-6-12〉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2013) 575
〈표 4-6-13〉 학교 · 사회예술강사 연수 추진 성과표(2013) 580
〈표 4-6-1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2013) 582
〈표 4-6-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현황(2013) 584
〈표 4-6-16〉 문화예술교육사 권역별 설명회 운영 현황 584
〈표 4-6-17〉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현황 585
〈표 4-6-18〉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 지정 현황 586
〈표 4-6-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관계자 내방 현황(2013) 587
〈표 4-6-20〉 해외 전문가 초청워크숍(2013) 588

목 차

〈표 4-6-21〉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2013) 589
〈표 4-6-22〉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웹사이트(APAH) 운영 현황(2013) 590
〈표 4-6-23〉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기관(2012-2013) 590
〈표 4-6-24〉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뉴스레터(Arts Talk) 기획 및 제작(2013) 591
〈표 4-6-25〉 2013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운영(2013) 592
〈표 4-6-26〉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국가별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보고서 성과(2013) 593
〈표 4-6-27〉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분석 개요 593
〈표 4-6-28〉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2013) 594
〈표 4-6-29〉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594
〈표 4-6-30〉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 지표 597
〈표 4-6-31〉 콘텐츠 개발 연구(2011년~2013년) 600
〈표 4-6-32〉 기초 및 정책 연구(2011년~2013년) 601
〈표 4-6-33〉 평가 · 통계 연구(2011년~2013년) 602
〈표 4-6-34〉 아르떼 영상보고서 604
〈표 4-6-35〉 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2012년~2013년) 605
〈표 4-6-36〉 문화예술교육 총서 성과 606
〈표 4-6-3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608
〈표 4-6-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2013) 608

그림차례

[그림 1-1-1]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5
[그림 1-2-1]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수혜자 확대 27
[그림 2-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38
[그림 3-1-1] 2010년-2012년 소득별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93
[그림 3-1-2] 문화이용권 비이용자와 이용자의 관람률, 관람의향 비교 93
[그림 3-1-3] 문화이용권 : 사업 체계도 97
[그림 3-1-4] 공연 나눔: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개념 107
[그림 3-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2013) 109
[그림 3-1-6] 2013년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114
[그림 3-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 (2013년) 120
[그림 3-1-8]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122
[그림 3-2-1]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심사 체계 135
[그림 3-2-2] 국립국어원 조직도 145
[그림 3-3-1] 인구 100만 명 당 공공문화시설 수 159
[그림 3-3-2] 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방향 163
[그림 3-5-1] 오픈엑세스 지식정보의 유통 흐름 231
[그림 3-5-2] u-도서관 서비스 지원 환경 구성도 231
[그림 3-6-1]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과 그 목표 253
[그림 3-6-2] 박물관 정책 4대 추진방향 254
[그림 3-6-3]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284
[그림 3-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도 299
[그림 3-7-1] 국립한글박물관 상징 표시 321
[그림 3-8-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329
[그림 3-8-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330
[그림 3-8-3] 문화도시 환경조성·문화산업육성 사업 기본방향 및 내용 335
[그림 3-8-4]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본 방향 335
[그림 4-1-1] 예술정책의 목표와 방향 356
[그림 4-1-2]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전 372
[그림 4-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373
[그림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379
[그림 4-1-5] 2013년도 기부 건수 및 월별 모금 현황 381
[그림 4-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 383
[그림 4-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384
[그림 4-2-1]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392

목 차

[그림 4-2-2]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393
[그림 4-2-3] 한국문학번역원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396
[그림 4-2-4]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397
[그림 4-3-1]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408
[그림 4-3-2] 국립극단 조직도 418
[그림 4-3-3] 국립발레단 조직도 420
[그림 4-3-4]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423
[그림 4-3-5] 국립예술자료원 조직도 427
[그림 4-3-6]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431
[그림 4-3-7] 국립중앙극장의 비전 및 주요 사업 432
[그림 4-3-8] 국립합창단 조직도 435
[그림 4-3-9]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438
[그림 4-3-10]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조직도 442
[그림 4-3-11] 서울예술단 조직도 448
[그림 4-3-12]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450
[그림 4-3-13] 현장배치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고용 안정 효과(2013) 454
[그림 4-3-14] 예술의전당 조직도 456
[그림 4-3-15]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460
[그림 4-3-16] 한국공연예술센터 조직도 463
[그림 4-3-17] 한국공연예술센터 대관 형태별·장르별 비율(건수 기준) 464
[그림 4-3-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조직도 465
[그림 4-4-1] 국립국악원 조직도 488
[그림 4-4-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조직도 492
[그림 4-4-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496
[그림 4-4-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502
[그림 4-4-5] (재)국악방송 조직도 507
[그림 4-5-1]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552
[그림 4-5-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556
[그림 4-5-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556
[그림 4-6-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559
[그림 4-6-2]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성과 562
[그림 4-6-3] 언론보도 실적 (2008~2013) 578
[그림 4-6-4] 「스마트 문화예술 교육 허브로의 기반」마련 596
[그림 4-6-5] 「아르떼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기능개선 596
[그림 4-6-6] 「아르떼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환경개선 598
[그림 4-6-7]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599

사진차례

[사진 1-2-1]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12
[사진 1-2-2] 2013년 문화의 달 행사 13
[사진 1-2-3] 2013년 한글문화큰잔치 14
[사진 1-2-4]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컨퍼런스 17
[사진 1-2-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추진 성과 18
[사진 1-2-6] 2013년 신설 문화원 21
[사진 1-2-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 및 개관작품전 26
[사진 1-2-8] 국립세종도서관 28
[사진 3-1-1] 문화이용권 : 지역별 기획사업 프로그램 사진 101
[사진 3-1-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현장 모습 112
[사진 3-1-3]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13
[사진 3-1-4]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118
[사진 3-2-1] 온라인 점자강의 점자세상 129
[사진 3-2-2] 누리-세종학당 134
[사진 3-2-3]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 '언어 정보 나눔터' 140
[사진 3-2-4] 국립국어원 147
[사진 3-3-1] 2013년 향토사대중화사업 156
[사진 3-3-2] 2013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156
[사진 3-3-3] 2013년 문화의 달 행사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 165
[사진 3-3-4] 지역특화 문화행사 166
[사진 3-3-5]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68
[사진 3-4-1] 재외문화원 운영 성과(2013) 187
[사진 3-4-2] 스미소니언박물관 미국 신진예술가 공연 189
[사진 3-4-3] 중국 한중경제인 오찬공연 190
[사진 3-4-4] 한-독일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3
[사진 3-4-5] 한-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4
[사진 3-4-6] 한- 핀란드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4
[사진 3-4-7] 한-EU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5
[사진 3-4-8]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5
[사진 3-4-9] 한-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6
[사진 3-4-10]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197
[사진 3-4-11] 터키-이스탄불 한국문화페스티벌 198
[사진 3-4-12] 한일축제 한마당 201

목 차

[사진 3-6-1] 2013년 신규 수증유물 262
[사진 3-6-2] 2013년 신규 구입 문화재 263
[사진 3-6-3] 덕수2153-1,2,3,4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 263
[사진 3-6-4] 국내외 유적발굴(2013) 267
[사진 3-6-5] 상설전시실 269
[사진 3-6-6]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72
[사진 3-6-7]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273
[사진 3-6-8] 2013년 국제교류 사업 279
[사진 3-6-9] 한일 학술인적교류 281
[사진 3-6-10] 2013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프로그램 281
[사진 3-6-11] 2013 박물관 협력망 사업 282
[사진 3-6-12]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288
[사진 3-6-13] 어린이박물관 289
[사진 3-6-14] 교육 프로그램 운영 290
[사진 3-6-15] 2013년 주요 수집자료 300
[사진 3-6-16] 조오수호통상조약문 보존처리 302
[사진 3-6-17] 기획·특별전 〈한 눈에 보는 식목일〉 305
[사진 3-6-18] 기획·특별전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306
[사진 3-6-19] 기증 특별전 〈아름다운 공유〉 306
[사진 3-6-20] 국내외 미공개 자료 발굴 및 소개 307
[사진 3-6-21] 국제 학술교류 활동 308
[사진 3-6-22] 국내 학술교류 활동 309
[사진 3-6-23]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의 공개와 보급 309
[사진 3-6-24] 유아·어린이 교육 313
[사진 3-6-25] 청소년 교육 313
[사진 3-6-26] 우리역사 보물창고 314
[사진 3-6-27] 역사기념일 체험행사 316
[사진 3-6-28] 문화행사 317
[사진 3-6-29] 2013 ICOM 총회 학술회의 운영 319
[사진 3-8-1] 2013년 공예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사업 교육 성과물 341
[사진 3-8-2]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350
[사진 4-2-1]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해외교류행사 400
[사진 4-2-2]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Plus+list Books from Korea' 405
[사진 4-3-1]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414
[사진 4-3-2] 한국공연예술 해외진출 사례 415

[사진 4-3-3] 국립극단 공연 420
[사진 4-3-4]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라 바야데르' 421
[사진 4-3-5] 문화나눔사업 426
[사진 4-3-6]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428
[사진 4-3-7]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429
[사진 4-3-8] 국립예술자료원 내부 전경 430
[사진 4-3-9]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2013 434
[사진 4-3-10] 국립현대무용단 2013 해외안무가초청공연 〈증발〉 439
[사진 4-3-11] 국립현대무용단 2013 국내안무가초청공연 〈11분〉 439
[사진 4-3-12] 명동예술극장 생활예술사업 444
[사진 4-3-13]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447
[사진 4-3-14] 한국 창작 가무극 개발 448
[사진 4-3-15] 홍콩 한국시월문화제 개막공연 449
[사진 4-4-1] 국립국악원 491
[사진 4-4-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495
[사진 4-4-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501
[사진 4-5-1]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강원 정선 521
[사진 4-5-2] 2013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523
[사진 4-5-3] 2013년 Korean Art Show 526
[사진 4-5-4] 온라인 가상미술관 웹사이트 527
[사진 4-5-5] 온라인 가상미술관 VR 전시장 예 527
[사진 4-5-6] 온라인 매거진 Art Museum(www.artmuseums.kr) 531
[사진 4-5-7] 포천 아트밸리 534
[사진 4-5-8] 대구 예술발전소 535
[사진 4-5-9]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535
[사진 4-5-10]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536
[사진 4-5-11]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전·후 538
[사진 4-5-12]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진 541
[사진 4-5-13] 2013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543
[사진 4-5-14] 2013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544
[사진 4-5-15] 2013년 타이포잔치 행사 사진 544
[사진 4-5-16] 201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546
[사진 4-5-17]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작 547
[사진 4-5-18] 2013 제8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548
[사진 4-5-19]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세계화·산업화 550

목 차

[사진 4-5-2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557
[사진 4-6-1]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576
[사진 4-6-2]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365' (www.arte365.kr) 579
[사진 4-6-3]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89
[사진 4-6-4] 201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현장사진 592
[사진 4-6-5]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현장사진 595
[사진 4-6-6]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604
[사진 4-6-7]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토론회(2013년) 605

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제2절 2013년 문화예술정책

01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1 국정기조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 또는 독립한 85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인내하고 고군분투한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성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적 성취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5억 달러로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으나, 2013년 9월에 UN에서 발표한 2013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41위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국내외 조사통계에서 한국인의 행복 체감도 순위는 경제 관련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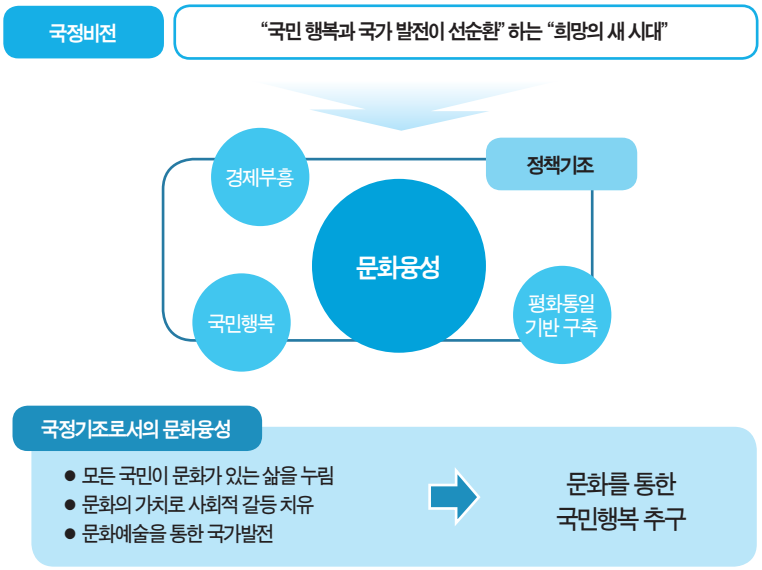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등 기존의 국가 중심 발전모델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천명하였다.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구조 확립을 국정철학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정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기조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더 이상 문화가 국민의 삶과 생존에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및 교육, 안보 등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영역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문화융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화의 융성”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며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의는 “문화를 통한 융성”이다. 이는 문화의 융성이 사회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외의 여러 영역에 자극이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문화융성의 시대란 단순히 문화가 융성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 발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정책기조로 천명된 문화융성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국정비전에 걸맞게 실현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장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던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하게 된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와 같이 문화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며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는 가치로서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림 1-1-1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2 문화융성 전략 및 과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다. 문화 향유, 창조, 참여 등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 수준에서는 삶의 질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가치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뤄지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문화융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융성의 3대 전략, "문화참여 확대", "문화 · 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제시하였고 3대 전략 실현을 위해 10대 과제도 제시하였다.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인 "문화참여 확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역량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문화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각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총 4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문화기본법 제정 및 문화재정 2% 달성'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문화 관련 법은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중에서도 특정 영역에 한정된 법들이었다. 이러한 법제로는 국정 운영 및 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실효적 정책수단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융성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중 문화재정 비중을 2%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이다. 이는 경제 위기, 재정 압박의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통하여,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문화 향유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문화와 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 협력 확대' 이다. 글로벌 · 다문화 환경 속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제 문화교류 · 협력을 확대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거, 공원 녹지, 하천 등 생태휴식 공간 확대 및 일상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전략은 "문화 · 예술 진흥" 이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사회 분야 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3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이다. 이는 그동안 미비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이다. 기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유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그 가치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인문 · 정신문화의 진흥'이다. 이는 문화를 특정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인문 · 정신문화 전반으로 확장시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특히 한국형 인문 · 정신문화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한다.

문화융성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문화 · 산업의 융합"으로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 · 관

광 ·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가 찾는 한국 스타일을 만들며 국민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킬러콘텐츠 육성,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고부가가치의 융 · 복합 한국관광이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산업 육성'이다. 한국 스타일이 담긴 고성장 · 고부가가치 콘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창업지원, 킬러콘텐츠 육성,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공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부가가치 융 · 복합 한국관광 실현'이다. 전시 · 컨벤션과 관광 등이 결합된 마이스(MICE)산업을 필두로, 의료 관광, 한류 문화콘텐츠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 세 번째 과제는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이다. 꾸준히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한다.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대 과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1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내용

전략	과제	내용
문화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정의 비중을 2%로 늘리기로 함 - 문화융성과 문화국가 실현의 토대인 문화기본법 제정 추진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	-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 향유의 지원치계 구축 -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 협력 확대	-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고무 - 남북한의 문화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추진 - 한국문화의 전문적인 해외 홍보 강화
	생활문화공간 조성	- 도심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생태공간의 생태적 건강성의 복원 추진 - 산책용 길, 휴식 문화공간, 놀이터, 도서관 등 기초 생활인프라에 대한 지원 추진 - 도심지 주거 생활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전략	과제	내용
문화예술 진흥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순수예술 및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 시행 - 문화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 유도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확대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획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조치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및 '아리랑의 날' 제정
	인문 · 정신문화의 진흥	- 한국형 인문정신문화 진작 및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정신문화포럼' 설치 및 정례화 등 정신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관련 부처 간의 노력
문화와 산업 융합	'한국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지원 및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설치 및 문화콘텐츠 투 · 융자 확대 -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문화기술 기획평가시스템 제도 강화
	고부가가치 융 · 복합 한국관광 실현	- 마이스 산업 및 다양한 관광산업의 개발과 운영 지원 - 국제 관광협력 강화 및 ODA 확대 도모 - 외국인관광객 출입국 편의 지원 실시 계획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공공스포츠클럽의 문화법인화 도모 -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안정적인 스포츠 일자리 창출

제2절 2013년 문화예술정책

1 2013년 문화예술정책 과제와 목표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문화융성 원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를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한국을 구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제 문화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모든 사회, 문화, 교육, 복지시설을 통해 각자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한 2013년 문화예술정책은 국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정착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그 기본 목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 · 제도적 기반 구축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정비는 새 정부의 문화융성 및 문화예술정책의 과제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필요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여 문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단순한 문화예술 분야를 뜻하던 종래의 '문화'의 개념을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 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한편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를 토대로 한 문화융성 정책과제의 설정을 위해 출범된 대통령 직속 기관인 문화융성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를 토대로 한 문화융성 정책과제의 설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문화가치의 제고, 문화의 위상 진흥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2)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먼저 소외계층 등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방방곡곡 문화순회, 그리고 소외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공연,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티켓 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문화향유의 길을 넓히도록 한다. 나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영유아,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 노인층을 각각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3) 예술인 복지체계 정비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과 개정에 따라 새롭게 예술인 복지체계와 예술인 복지사업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먼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무계약 · 불공정 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등을 추진한다.

4)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에서 가장 중시되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유 · 무형의 문화유산에 담긴 정신문화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을 계획한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2013년에는 특히 '책 읽는 사회'를 향한 각종 독서문화 진흥책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의 우수도서 선정 · 보급 사업이 크게 강화되고, '제 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발표를 통해 향후 독서진흥책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설정한다. 더불어 문화유산과 예술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 계획 및 추진이 진행되어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 개관이 추진되고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한다.

5) 한국문화의 국제 홍보 강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지속적인 개설과 수강생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동시에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 소재한 한국문화원의 설립과 확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뿐 아니라 한복, 한국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를 외국 현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노력한다.

2 2013년 문화예술정책 주요성과

1) 문화융성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구축

(1) 「문화기본법」제정 및 문화융성 토대 마련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문화권과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크다. 「문화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문화융성위원회 설립 및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 발표

새 정부 4대 국정운영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2013년 7월 25일에 출범하였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각 문화예술계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19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기본 운영방향은 문화융성 국가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동력 확보, 문화가치의 정립 및 문화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 확산, 현장 중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문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이다.

사진 1-2-1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문화융성위원회 제1차 회의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지역문화현장 토론회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

위원회는 출범 후 2013년 10월 25일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융성정책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8대 정책 과제는 ① 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②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③ 문화 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 ④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 ·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⑤ 창작 · 매개(유통) · 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 ⑥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 ⑦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⑧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1) 문화의 달, 한글문화큰잔치 등 성공적 개최

국민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더불어 매년 10월 개최되는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예술발전 기여자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의 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종합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각 지역 순회 개최를 하였고, 문화융성시대 원년의 해를 맞이한 2013년에는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 · 개최하였다.

2013년 문화의 달 대표 행사인 '공간을 빌려드립니다'는 사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문화동아리가 자신들의 문화 활동을 공연 · 전시 · 참여 등의 형태로 소개하는 자리였고, '일상문화 아지트'는 6명의 작가가 지역공동체의 생활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꾸민 국민참여형 전시회였다. 또한, 소규모 시민 문화공연이 펼쳐진 '골목공연장', 가져온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주는 공중전화부스도서관의 '책을 바꿔드립니다', 다양한 나라의 인형 조형물을 껴안아보는 '안아 주세요' 및 한글 자모음을 활용하여 만들어보는 '내가 만드는 문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를 중심으로 열려 국민 스스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사진 1-2-2 2013년 문화의 달 행사

사진 출처 : http://www.facebook.com/munhwamon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드높이고자 2008년부터 한글날을 앞뒤로 한 글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하여 '한글아 놀자'라는 주제로 공연 · 전시 · 참여행사 등 놀이를 통한 국민참여형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한글날을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사진 1-2-3 2013년 한글문화큰잔치

한글문화큰잔치의 밤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사진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사진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사진

(2) 저소득층, 노년층 등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개정으로('13.12.30)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을 수립,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인식이 강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문화이용권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495억 원으로 2012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의 대폭적 확대에 이어 지속적 증액 추세를 보이고 있다.('10년 67억 원→'11년 340억 원→'12년 487억 원→'13년 493억 원) 선기명식 카드제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문화

예술단체(지역주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문화소외 대상자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문화예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였다.

특히, 민간 제휴 및 외부 협력을 통한 할인혜택을 확대하고(CGV, 메가박스, 엠넷닷컴, KT올레뮤직, 롯데월드, 예술의전당 등), 디지털 영화 · 음악, e-book, 중고도서 등 문화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 및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사업특성상 대상자별 타깃홍보를 실시한 결과, 문화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2013년도에는 97.8%까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고 이용률도 90%를 넘어서면서 문화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 1-2-1 문화이용권: 주요 개선 내용

문화이용권 사업	2012년	2013년	의 의
사업 예산	487억 원	493억 원	문화복지 실효성 제고
수혜인원	160만 명/317만 명 (50.4%)	163만 명/332만 명 (49%)	저변 확대 및 체감도 제고
추진 방식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연계 시도 및 지역주관처의 역할 강화 이용대상 및 부가서비스 확대	지역 여건 고려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배분율 조정, 시도 차등 적용	집행체계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전담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12.8.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문 3개 이용권 총괄 운영(문화,여행, 스포츠관람)	법정사업에 대한 사업의 책임성 강화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은 2100여 개의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54만 여 명의 주민들에게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랑티켓' 제도로 45만 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 및 노인들에게 공연 · 전시 관람을 지원하였으며 9000여 명의 장애아에게 미술관 소풍 등 미술관 프로그램 관람 지원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05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449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문화학교, 문화나눔 봉사단,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3) 인문학 진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사회적 확산 추진

새 정부는 인문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가 공유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인문정신문화는 기존의 인문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가치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사회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화 · 체육 · 관광 ·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를 발족하였다. 4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재청)와 12개 소속 · 산하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국제교류재단)으로 구성된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는 2013년 총 2회의 진흥협의회를 거쳐 인문정신문화와 문화산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 고전 번역 및 번역물의 국내외 확산 강화, 진흥협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협의회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3년 12월 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주최로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제작자 원동연 대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역사콘텐츠가 어떻게 저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구축한 DB 중심의 설명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 및 일반 대중이 쉽게 역사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주관기관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및 각 기관의 연구 성과, 인문자료 연계서비스 구축, 2014년 이후에 진행될 중 · 장기 과제 등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진 1-2-4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컨퍼런스

(2)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추진

인문정신문화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함께 함양되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하여 유아들에게 선현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나눔과 배려, 상생의 정신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2년도 386명에 불과하였던 이야기할머니를 2013년에는 917명으로 확대하여 전국 2,690개 유아교육기관의 18만 명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과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안동국학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인문캠프는 "이 한 번뿐인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 시인 고은 선생, 고전시가 연구가 황병익 교수의 강연과 청년의 시대정신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이육사문학관 현장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과 스펙에 사로잡힌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인문정신문화포럼'은 대 주제별 공개포럼과 함께 전문가 현장 워크숍을 운영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미래한국의 대들보가 될 한국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오늘의 삶의 문법에 맞게 재해석하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사진 1-2-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추진 성과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2013 인문정신문화 결산포럼

4) 한국어, 한국문화 가치 재인식 및 세계적 확산

(1)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 · 발전시키는 창조경제 · 문화융성의 토대이다. 그러나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축약 · 변형 등 국어의 오 · 남용과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 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화되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비속어, 저속어 및 폭력적 언어가 확산되고, 청소년의 언어생활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언어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이 출범(2013. 12. 18)하고, 언어의 유희적 속성과 문화 창조력, 디지털 언중의 감성을 고려한 다양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안녕! 우리말'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운동명(캠페인명)으로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답게 맞이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녕! 우리말' 운동은 '공공언어, 방송 · 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 등 전략적으로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다양한 국민 참여 문화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2)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구성 · 운영, 건축 준공 등 운영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5월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개관위원회는 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자 한글 관련 학계 연구자 및 관련 단체장뿐

아니라 전시 · 디자인, 언론 · 홍보, 문화예술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과 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국어학회 회장과 한국어학회 회장,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장을 지낸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위원에는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 박창원 국어학회 회장 등 학계 인사와 관련 단체장, 안상수 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재준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박영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이상봉 패션디자이너 등 디자인계 인사, 이숙재 밀물무용예술원 이사장,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위촉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개관위원회를 통해 한글의 문화적 가치 보존 및 확산하고,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한글을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건축공사가 준공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건축은 한글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각 층에 형상화하여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전시 계획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 · 체험 · 연구 · 교육을 연계하여 조성 및 운영을 할 것이며, 자료수집은 국가 및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의 고문헌, 생활용구 등을 대상으로 구입, 기증, 이관, 복제, 대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3년 7월까지 총 기증 7,450여 점, 1차 공개 구매를 통해 1,176점의 자료를 확보해놓을 상태이다.

(3)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 한국 문화 보급 확대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세종학당에 대한 전략적 확대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해외 현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한국어 교육의 지역별 편중 및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어 보급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거울삼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 ·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2년 전 세계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 ·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을 출범하였고, 2013년 12월 기준 전 세계 52개국 120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세종학당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표준 교재 〈세종한국어〉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2 세종학당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 세종학당 수	3개국 13개소	4개국 14개소	6개국 17개소	13개국 23개소	24개국 41개소	36개국 68개소	46개국 93개소
수강자 수(명)	740	2,906	4,301	6,016	9,348	16,590	22,135
문화원 세종학당 수	-	-	-	-	16개국 19개소	19개국 22개소	23개국 27개소
수강자 수(명)	-	-	-	-	9,160	12,203	15,042
합계	740	2,906	4,301	6,016	18,508	28,793	37,177

또한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한국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단계별, 지역별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 독일 본, 영국 런던 지역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현지 학생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한국문화 해외 진출 지원 토대 구축 및 국제교류 강화

(1) 재외 문화원 확충

정부에서는 문화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 한국문화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1979년 동경과 뉴욕에 처음 설립된 이후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재외 문화원 확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고, 2013년 말 현재 23개국에 총 27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한국문화의 해외진출 기반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태국, 브라질, 벨기에 등 3개의 문화원이 개원함으로써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우리 문화를 더욱 가깝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사진 1-2-6 2013년 신설 문화원

주태국 한국문화원(방콕)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상파울루)

주벨기에 한국문화원(브뤼셀)

(2) 한류 확산 지원 및 국가 간 문화교류 협력 강화

2013년에는 전 세계 27개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해 K-POP,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순수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대통령 순방, 국가 간 수교 기념 계기 등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현지에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1-2-3 2013년 주요 계기행사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시기	내용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 행사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만찬 행사	5월	미국 신진예술가 공연(피아노, 바이올린), 전시(미디어아트), 테이블 장식 등
	중국 양국 경제인 오찬 연주회	6월	양국 전통악기 해금과 얼후 협주
	한중우정콘서트 (K-POP 공연)	6월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EXO 등 8팀 및 중국 2팀
	중국 서안 병마용갱 방문	6월	병마용갱 방문 및 방명록 서명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9월	족두리전시, 양국전통악기 공연,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인도네시아 한-인도 현대미술 교류전	10월	작가 환담회 및 전시(기획전 및 양국 미디어아트 교류전)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파티	11월	한류팬 6명 환담 및 한류팬 공연관람, 무대 인사
	프랑스 오르세박물관 방문	11월	인상파작가, 자연주의 작가 등 오르세 상설관 관람
	제8회 런던 국제 한국 영화제 특별시사회	11월	양국 영화관계자 10명 환담, 영화 시사회 참석 등

구분	사업명	시기	내용
국가간 수교 기념 행사	한-독일 수교 130주년 행사	5월~12월	(개막)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폐막) Jazz Korea-korean-German Jazz Exchange
	한-영국 수교 130주년 행사	6월	k-뮤직페스티벌(국립국악관연학단, 안숙선 명창, 양국 밴드 합동공연 등), 정전 60주년 기념 전시 '어느 노병의 이야기' 등
	한-핀란드 수교 40주년 행사	5월~6월	난타 공연(4개 도시, 7회공연)
	한-EU 수교 50주년 행사	11월~12월	(벨기에) 전통무용, 판소리, 현지예술가 합동공연 등 (네덜란드) 문굿, 태평무, 탈춤, 삼도농악가락, 판굿 등 (독일) 사물놀이, 전통무용 합동공연 등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행사	6월~7월	우리의 전통과 현대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소개하는 종합공연(남해안별신굿, 전통연희, 현대무용, 창작국악, 성악, 태권도, 비보이)
	한-인도 수교 40주년 행사	10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현지예술가와의 협연(아리랑 환상곡, 인도영화음악 등 7작품)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행사	11월	우리의 전통 · 창작음악과 파키스탄 전통음악 협연

6) 예술인 복지 개선

(1) 예술인 복지사업 첫 시행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 프로그램연계 창작준비 지원' 사업과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 예술인 창작 지원금 지급과 강좌형 · 맞춤형 · 바우처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종) 개발 · 보급을 통해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4 2013년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명		교육내용
강좌형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과정	① 매체 · 장르융합형 기획자 양성 ② 소셜 큐레이션 제작자 양성 ③ 앱 · 웹기획자 양성 ④ 아트&퍼스널 브랜딩 과정
	중견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① 카메라워크 트레이닝 ② 보컬 · 댄스 트레이닝 ③ 융합 시대, 무대기술 과정 ④ 융합 시대, 시각예술 과정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과정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갈등을 예술을 매개로 해소하고 조정하는 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사회적 · 지역적 이슈에 대한 긍정적 제안을 제시하고 예술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연 · 전시 · 참여프로그램 기획 · 시행 (그룹형, 15~20명)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① (예술인) 함께 하고 싶은 예술인과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계획 · 진행하면서 예술역량과 현장 감각 배양(5명 이상)
		② (예술단체) 예술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역량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 · 운영하여 예술인의 현장훈련 지원(10명 이상)
		③ (예술공간) 예술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직접 기획 ·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10명 이상)
바우처	교육지원 바우처	예술창작활동, 직업능력개발, 일자리연계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수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의 일부 지원

(2) 「예술인 복지법」개정 (2013.12.30)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3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의 이유는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 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및 제17조 제1항 제2호 신설).

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마. 예술인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7) 문화예술재정운용방식 개선

민간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국고와 기금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기초예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난 수년간 계속 되어왔다. 그러다가 박근혜 새 정부에 들어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재정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전면적으로 개편토록 하였다.

우선, 정부(일반회계)는 국가차원의 예술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평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위원회(문예기금)는 예술현장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등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13.9.17)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수행하던 문학나눔, 전시나눔, 창작나눔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창작뮤지컬, 창작산실,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등 소위 예술가(단체)의 창작지원 활동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사업 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 주재원인 문예기금 지원방식도 다음과 같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복합 예술지원, ④ 유사 · 중복사업 조정 및 간접지원 확대, ⑤ 지역협력형 사업의 재원 확대 및 자율성 강화로 개선기본원칙을 정함으로서 "문화융성"의 실천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대관료, 홍보 및 공연전문인력 지원 등, 108억원), "공연연습장 조성 · 운영(100억원) 등이 주요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었고, 창작뮤지컬 지원, 문학 및 미술분야 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 등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대되었다.

표 1-2-5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간 역할 및 사업분담 기본 원칙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국고(일반회계) 지원대상
㉠ 공개지원신청 · 다자간경쟁 등 공모 절차 및 그 일반 원칙에 따른 지원이 적절한 순수 문화예술 사업	ⓐ 국가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집중적 또는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대상이 고정된 문화예술 사업 또는 단체
㉡ 순수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창작 · 보급 · 연구조사 등 고유목적 사업	ⓑ 인프라 구축 등 문화여건 조성 사업
㉢ 실험적 · 대안적 경향의 문화예술 사업	ⓒ 불특정다수 또는 전 국민 대상 문화향수 및 문화복지 사업
㉣ 국내 · 국제교류 문화예술 사업 중 민간 주도형 사업	ⓓ 국내 · 국제교류 문화예술 사업 중 국가 주도형 사업(국가적 행사 포함)
㉤ 전국규모 예술행사 중 민간 주도형 사업	ⓔ 전국규모 예술행사 중 국가 주도형 사업
㉥ 지자체 예산 동시 투입 사업 중 민간 주도형 사업	ⓕ 지자체 예산 동시 투입 사업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주도형 사업
㉦ 전통문화 사업 중 위 해당 사업	ⓖ 전통문화 등 국가 문화정체성 계승 · 유지 · 보존 사업 중 위 해당 사업

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2009년 1월 15일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2010년 건축 아이디어 공모, 2011년 착공을 시작으로 4년여의 공사를 통해 드디어 2013년 11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였다. 서울관은 '열린 미술관'을 추구하는 개방형 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관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관람자들이 다양한 공간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군도형 미술관을 지향한다. 또한 주변 경복궁,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광화문 등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실을 비롯하여 자료관, 프로젝트 갤러리, 영화관, 다목적 홀뿐만 아니라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뮤지엄숍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예술장르를 수용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개관 이래 서울관은 동시대 미술의 발견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술 수용, 작가 · 관람객 · 미술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미술관교육으로 각 관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문화나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시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사진 1-2-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 및 개관작품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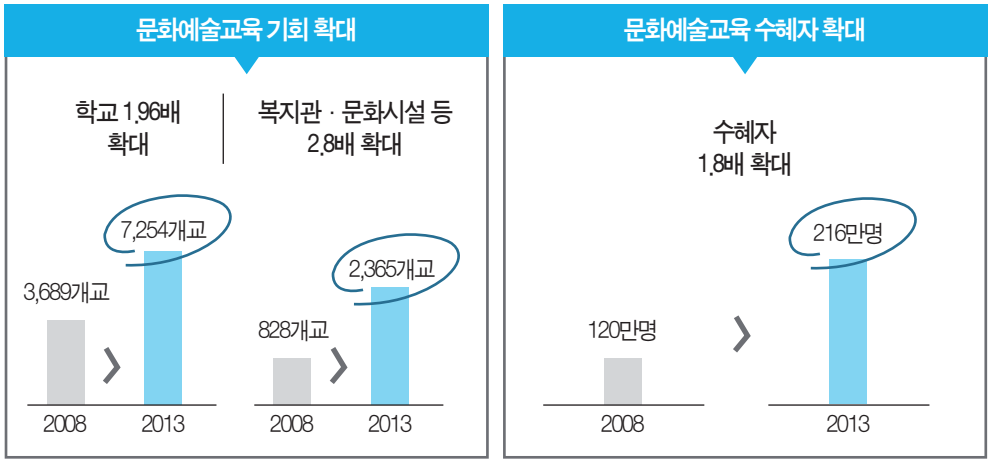
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국 초 · 중 · 고 7,254개교에 국악 · 무용 · 연극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학교에 '예술꽃 씨앗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를 확대하였으며 휴무 토요일을 활용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창의 · 인성 함양, 가족 간 원활한 소통,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아동 · 노인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군 장병, 수형자, 위기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명예교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수혜자를 넓히고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1-2-1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수혜자 확대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예술강사 등 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ODA',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 및 국제 포럼 ·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제교류 ·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10) 도서관 발전정책 및 독서문화진흥기반 마련

(1) 도서관발전종합진흥계획 및 독서진흥기본계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도서관 진흥과 독서를 통한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과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발전종합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였다.

2013년 「도서관발전종합진흥계획」 추진 실적은, 첫째로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확충하였고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독서 ·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가 2013년 계획(201,265명) 대비 137%의 275,452명으로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공서관의 장서를 2013년에 6,330천책을 확충하여 총장서량 83,237책, 인구 1인당 1.63책의 장서량을 달성하였다. 둘째로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 학술 · 연

구를 위한 2013년 전국 학교도서관 수를 총 11,390개(학교 수 대비 설치율 99.8%)로 확충하였다. 셋째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군인, 고령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를 구현하였다. 나아가 사서자격제도 개선,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점진적 확충 등을 통해 국내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제 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월부터 4월까지 기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독서 · 출판 · 도서관 ·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5개 분과 TF를 7월 구성하여 2013년 7~10월 사이에 4회의 전체회의 4회의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였다.

(2) 국립세종도서관 건립

2013년 12월 12일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도서관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권역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필요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 정책 분야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시설을 지상 4층, 지하 2층,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정책정보자료실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회의실, 강의실 등을 보유하여 공공기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1-2-8 국립세종도서관

표 1-2-6 국립세종도서관 자료현황

자료실	장서량
어린이 자료실	도서 20,000책, 비도서 2,000점, 연속간행물 30종
일반자료실(장애인서비스코너, 청소년자료코너)	도서 25,000책
정책자료실, 일반자료실2 (신문 · 연속간행물코너, 멀티미디어코너)	도서 30,000책, 비도서 6,000점, 연속간행물 350종
합계	도서 75,000책, 비도서 8,000점, 연속간행물 380종

11) 박물관진흥정책 추진

(1)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연 관람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하여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서관 · 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인문학 진흥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3년 8월 처음으로 시작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창의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초 · 중학생들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이들이 창조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4개월간, 65개 박물관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박물관 전시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교육 속에서 배려와 나눔 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표 1-2-7 201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주요 프로그램

201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주요 프로그램
전곡선사박물관(경기) : 떠나요! 동굴벽화 속으로 한국도량형박물관(충남) : 도량형과 함께하는 과학이야기 한국문인인장박물관(충남) : 인장, 문학의 각인, 삶의 흔적 평강성서유물박물관(서울) : 청동거울과 향유 만들기 목포대학교박물관(전남) : 만들고(古 Go), 배우고(考 GO) 국제성서박물관(인천) : 고대문자의 세계, 옛날 왕들의 도장이야기 연기향토박물관(세종) :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 나들이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은 공립박물관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건립비, 시설 리모델링비 등이 해당된다. 1996년부터 시작된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현재 총 133개 관을 지원하여 108관이 운영 중이며, 2013년은 7개 지자체 10개 박물관에 9,72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과 체계적인 계승, 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육의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2-8 201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지원현황

201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부산시립박물관 수장고 건립(부산) : 2,500, 대전역사박물관 수장고 증축(대전): 1,300 하남역사박물관 건립(경기) : 1,371, 김중업박물관 건립(경기) : 885, 여주박물관 건립(경기) ; 1,000 고흥운대분청사기문화관 건립(전남) : 600, 청송수석박물관(경북 청송) : 480 소수박물관 증축(경북 영주) : 1,050 창원산업사박물관(경남 창원) : 500, 김만덕기념관(제주) : 1,000

표 1-2-9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절차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절차						
신청		평가, 컨설팅 및 선정		예산편성 신청		지원
사전평가제	⇨	타당성 평가, 컨설팅 및 지원기관 선정	⇨	광특예산 편성시 반영	⇨	익년도 국비 보조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법령
제4절 문화예술 재정

02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1 연혁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 · 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 ·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민정부 이후 특히 주목해 온 정책 영역 및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부 출범이후 문민정부(~'97년)까지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을 준비하는 성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문화 · 체육 공간 확충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관광 개발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육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90~'92/체육청소년부)이 수립 · 추진되었으며, 도서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91)되었다. 연극, 춤 등 11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의 해' 사업이 진행('91~'01)되었으며, '93년에는 문화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 · 추진되었다. '94년에는 문화산업국이 신설되고,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었으며, '94년에는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96년

에는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정부('98~'02년)에서는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98년 발표된 '새문화관광정책'에 반영되었으며, 문화예산의 정부 예산 1% 달성으로 뒷받침되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는 예술지원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지역문화관, 창작 스튜디오 등 특화된 예술창작 인프라를 지원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강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 증진의 주요수단으로 전략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문화산업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게임산업개발원('99), 영화진흥위원회('00)와 문화콘텐츠진흥원('01)을 잇따라 설립하였다. 한편, IMF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관광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03~'07년)는 디지털화 · 융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적 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 및 방향은 「창의한국」(2005)을 통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문화정책의 범주 내로 포괄된 바, 공간문화 · 공공디자인 정책, 학교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새롭게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민간 중심의 예술영역 지원 구조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예술인 중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광주, 전주, 경주, 부산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취지 아래 작은도서관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도서관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체계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문화정책 영역을 '선진화'라는 기조 아래 효율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분리, 분산되어 있던 기관들을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고, 기능이 중복, 혼선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고('09.5.7)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 것은 ('09.7.23) 이러한 정책방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이 예술지원

'사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 부분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시스템 개선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최저학력제'를 도입, 201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하여 녹색생활로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녹색문화, 녹색관광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천명하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지원, 문화기본법 제정 등 법령 정비,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 등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조직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서 기관의 기본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의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당시 문화부는 정원 316인(정무직 2인, 1급 2인, 2급 10인, 3급 1인, 4급 26인, 5급 62인, 6급 80인, 7급 52인, 기능직 81인)으로 2실, 4국, 11담당관, 18과로 구성되었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정원 1,784인,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하고,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편되어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개 소속기관의 조직으로 명실공히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3월 13일 새로 건립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였고, 이어서 4월 16일 장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어 7월 1일 개방형 직위였던 청소년국장을 청소년수련과장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대체하였다. 총무과의 인사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대체하는 조직개편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기능조정방안을 토대로 21세기 문화비전 실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11월 1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5년 3월 31일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관리실을 설치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를 위해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교류단을 신설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처를 신설하였고, 12월 9일에는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은 2006년 7월 25일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2일 도서관정책정보기획단과 5월 22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되었으며 기존의 1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팀), 11개 소속기관을 두었다. 7월 3일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인력 32명을 지식경제부에서 이관 받았으며 10월 13일은 영남지역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 분원인 부산국악원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4일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간 소화를 위한 대국대과제를 실시하여 본부 62과(팀)를 54과(팀)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운영부(디지털도서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어 10월 19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개칭하였다.

2010년 1월 1일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2일 홍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문화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확대(고공단6개→8개, 과장급 19개)하였으며, 국제문화과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2월 8일 온라인 정책홍보기능 강화필요에 따라 홍보지원국에 온라인홍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의 고고부와 역사부를 통합하고 학예연구관련 업무를 조정하였다.

2011년 1월 1일에는 '10년에 이어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6월 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대비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 기능 강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국악 악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다문화 ·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업무를 종무1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민족문화과 · 지역문화과를 국어정책과 · 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23209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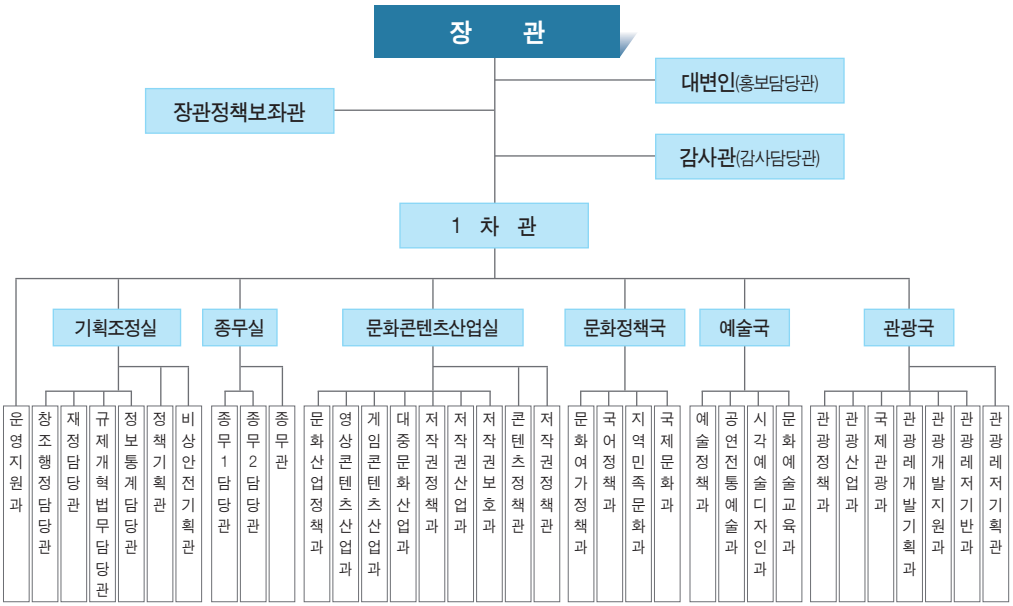
2012년 2월1일,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의 총괄 · 조정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였으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 조정기능을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이관, 문화정책관 소관 문화예술교육기능을 예술정책관 ·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국가서지 품질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서지과가 신설되었으며, 9월에는 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07년 신설)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신설되었으며,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년 5월 23일 발표)의 박물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7일 문화예술국에 박물관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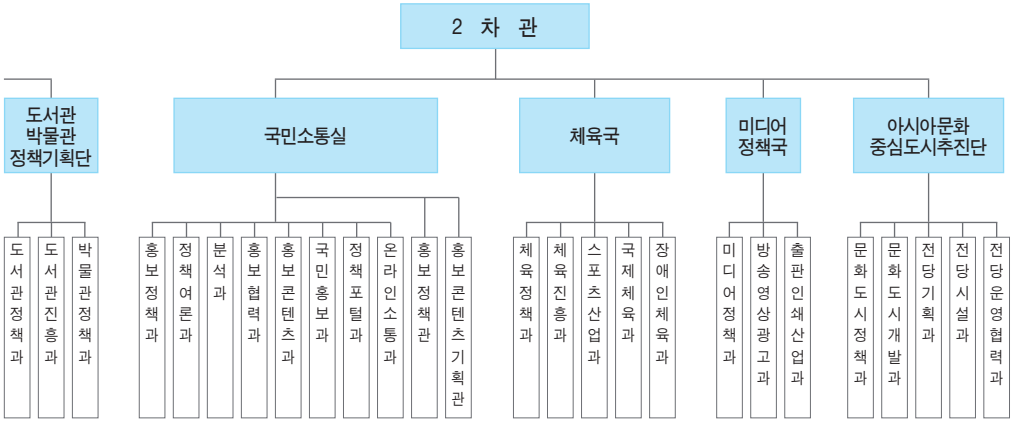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3월 23일에는 디지털콘텐츠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예술국을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 관광산업국을 관광국으로 개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기획단으로 개편, 국립국악원에 기획운영단을 설치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 자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13년 9월 12일에는 문화융성 정책자문 기관으로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나주박물관을 각각 신설하였다. 2013년 12월 12일에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축소, 계약직 및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 스포츠산업과 신설 및 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인력을 안전행정부로 이체, 범 부처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인력 감축 등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은 2차관, 4실, 5국, 2단, 54과, 16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그림 2-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1) 장차관 직속기관

장관 직속기관 하부조직으로 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을 두고 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 검토, 부내와 일반국민의 정책 의견 수렴 및 기타 장관의 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한다. 대변인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 점검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 심사 및 병역신고,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차관 직속기관으로는 운영지원과가 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직 등 임용, 교육 훈련 등 능력 발전, 상훈 · 인사 제도 및 운영 관리의 혁신,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소속 공무원의 연금 · 급여 · 복지후생 및 보안, 관인, 행정자료의 관리,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국유재산, 물품 관리,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 자금의 운용 · 회계,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 기획 총괄, 예산, 조직, 성과관리, 국회 대응,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하부조직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을 두고 있다.

창조행정담당관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 조정,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 및 관리, 조직과 정원의 관리, 공공기관 관리,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 집행 및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담당한다.

재정담당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점검, 예산의 운영 및 결산, 기금운영업무를 총괄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안의 심사, 행정심판업무, 소송사무의 총괄,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규제개혁,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통계담당관은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및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재난 · 재해 관리, 안전관리 ·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종무실

종무실은 우리나라 종교문화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부조직으로 보좌기관인 종무관과 종무1담당관, 종무2담당관을 두고 있다.

종무1담당관은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불교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지원, 종교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 · 연구, 종교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무2담당관은 유교 등 민족종교 및 기독교 ·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업무 지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향교재산의 보존 및 관리,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4)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의 기반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의 정책자원과 수단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2009년 4월 17일 미디어정책관이 2차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미디어정책국이 신설되었

으며,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기능개편에 따라 콘텐츠정책관실내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대중문화산업팀을 과로 승격 · 개편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크게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 · 음악 · 애니메이션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 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과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저작권정책관은 콘텐츠 보호의 경찰 역할로서 저작권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인증 및 불법 저작물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정책관 하부조직으로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정책관 하부조직으로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를 두고 있다.

문화산업정책과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문화산업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영, 문화산업진흥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금융제도,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 문화산업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 총괄과 문화 · 체육 · 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문화기술(CT)대학원의 설립 · 지원업무와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 · 비디오물 · 애니메이션 · 음악 산업 및, 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영상콘텐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창작 ·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영상산업의 제작 · 배급 · 상영 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영화 · 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 신고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육성,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과,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게임물 · 게임산업 · 캐릭터 · 만화산업(이하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게임물 · 게임산업 분야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게임물 ·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분야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게임물 ·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의적 제작활동과 관련단체의 지원, 게임물 ·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투자활성화, 게임물 · 게임 · 캐릭터 · 만화 등 콘텐츠 판매촉진활동 지원, 게임물 ·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 게임물 ·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 조정, e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활성화,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과 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 게임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중문화산업과는 음악 · 만화 · 대중문화예술 · 패션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 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유통구조 개선 · 정보화 · 투자활성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사항, 한류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사 · 연구, 반한류 대책, 한류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 제도개선, 문화콘텐츠 발굴 및 이야기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권정책과는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추진,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 · 연구, 동향 분석,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및 후속 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저작권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저작권산업과는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유통기반의 식별번호 활용 서비스구축 사업 추진, 등록저작물의 아카이빙 구축 및 저작권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권정보화사업 추진, 저작권기술 연구과제(R&D)를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보호기반의 핵심기술과 혁신서비스 기술과제 추진, 저작물유통기반의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기준 개발 및 기술적용 점검, 저작권 이용허락 및 유통 활성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도 · 감독,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공유 및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온 ·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등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과태료부과 업무 등을 수행한다.

5) 국민소통실

국정홍보 총괄 기능이 부여된 국민소통실은 정책홍보에 대한 능동적인 총괄 ·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소통실은 크게 홍보정책관과 홍보콘텐츠기획관으로 구성되며, 홍보정책관 하부조직으로 홍보정책과, 정책여론과, 분석과, 홍보협력과를 두고 있으며 홍보콘텐츠기획관 하부조직으로 홍보콘텐츠과, 국민홍보과, 정책포털과, 온라인소통과를 두고 있다.

홍보정책과는 국정홍보 업무의 총괄 기획,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홍보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 교육 등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역량 지원,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여론과는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및 활용,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 · 지원,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 · 제작 및 보급,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 · 협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분석과는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및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채널 등 유선방송 그 밖의 방송매체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 논평의 수집 및 분석,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 분석 및 대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홍보협력과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 · 조정 및 협력,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회의 운영,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구성 ·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홍보콘텐츠과는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 개발 및 성과 분석,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 · 개발 및 보급, 국정홍보 간행물 기획 · 제작, 국정보도사진 촬영 · 제작 및 배포,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홍보과는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 · 계층별 소통을 위한 행사 기획 및 개최,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행사 기획 및 개최,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 · 설명회 개최,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교류 · 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 · 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정책 관련 민간 부문 행사를 활용한 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포털과는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및 활용, 정책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 관리, 민간 포털과의 정책홍보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온라인소통과는 온라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 홍보 협의 · 조정 및 협력,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회의 운영,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 ·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국은 우리나라 문화 · 여가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언어정책 및 국어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상호 문화 교류 확대 등 문화 융성시대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부조직으로는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국제문화과가 있다.

문화여가정책과는 문화 ·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문화 · 여가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 증진 및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도 · 감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어정책과는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을 추진하고, 국어 · 언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와 어문규범의 정비,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개선,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한글박물관 건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민족문화과는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문화 · 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 지방 문화원의 육성 · 지원,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국제문화과는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 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조정, 평가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7) 예술국

예술국은 2013년 3월 23일에 문화예술국에서 문화정책국과 분리되었으며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를 두고 있다.

예술정책과는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및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술지원사업의 평가,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문학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 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예술영재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개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대한민국예술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연전통예술과는 음악 · 무용 · 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 · 전통무용 · 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연 · 전통예술 관련 시설확충 · 공간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예술분야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및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관련 사항,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예술의 유통구조의 개선,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 ·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분야의 조사 · 연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개발 및 보급, 전통예술 대중화 · 산업화 · 세계화, 국립중앙극장 · 국립국악원 · 예술의전당 · 명동정동극장 · 국립발레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 서울예술단 · 국립극단 ·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시각예술디자인과는회화 · 조각 · 사진 · 디자인 · 공예 · 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 개선,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 국립 · 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 · 기관 및 단체 지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관광국

관광국은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일반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내 관광 기회 확대, 관광지 및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운영개선, 국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 보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및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궁극적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부조직으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국제관광과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광레저기획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관광개발기획과, 관광개발지원과, 관광레저기반과를 두고 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 및 관광 진흥개발기금의 조성 · 운영, 관광종사원 양성, 남북관광 교류 · 협력 증진, 관광산업 정보화 및 국내관광 촉진, 관광 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관광학술 · 연구단체의 육성, 관광복지 증진, 관광연차보고 및 통계의 종합,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산업과는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전문인력 양성,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음식 및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자원의 조사 · 개발 · 지원, 관광숙박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여행업 · 관광숙박업 · 카지노업, 관광객 편의시설업 · 이용시설업 ·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크루즈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국제관광과는 해외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로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중화권 · 일본 · 아중동 · 구미주 등 권역별 해외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의료 · 한류 · 공연 · 스키관광 등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해외광고를 통한 한국관광 브랜드 육성 · 지원, 국제 관광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 외래관광객 환대서비스, 국제관광 박람회 및 관광 관련 국제행사 지원, 관광객 출입국 통계 및 관광시장 마케팅,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개발기획과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 · 조정,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문화 · 예술 · 민속 · 레저 ·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 ·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 · 시행,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 · 보급,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개발지원과는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 · 연구 및 활용, 관광지 ·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특구의 육성,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 · 보급 및 적용,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레저기반과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 해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취소 및 대체 지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 관광레저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섬 관광 활성화,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체육국

체육국은 국민체육 향상,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 진흥, 국제경기 유치 · 지원 및 국제체육교류, 스포츠산업 진흥, 생활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진흥 등을 담당하며, 하부조직으로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를 두고 있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정책에 관한 장 · 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 · 경정사업, 전문체육 진흥, 학교체육 활성화,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의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 · 육성,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회의 진흥, 스포츠클럽 육성 · 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 배치, 전통무예진흥계획 수립 · 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 지원,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지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프로스포츠 활성화, 주최단체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 교류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 개최 및 참가지원,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보급,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국제체육교류 및 협력,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 · 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 배치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력 · 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10)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국은 방송 · 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한 체계적 미디어산업 육성과 방송영상 · 광고 기반구축 및 육성, 출판인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미디어정책국 하부조직으로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를 두고 있다.

미디어정책과는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진흥정책의 개발,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과 신문 · 정기간행물의 납본, 해외정기간행물 지사 · 지국의 설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방송영상광고과는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진흥 관련 법 · 제도 정비 및 조사 · 연구, 방송영상 인프라 확충 및 제작 · 유통 지원, 독립제작사 육성, 공익적 광고사업 지원,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출판인쇄산업과는 출판 · 인쇄산업 진흥 관련 법 · 제도 정비 및 조사 · 연구, 유통구조개선, 인력양성지원, 인프라구축, 우수도서 출판지원 및 출판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인쇄업 · 출판업 신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1세기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개발' 위주의 도시발전계획에서 탈피하여 '문화'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되는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아시아 각국의 동반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직제는 최초 1단 2국 7팀(2007.5.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2.29)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존 1단 2국 7팀의 직제는 1단 1국 6과 1팀 체제로 변경되었다.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교류협력과'의 명칭이 '전당운영협력과'로 변경되었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여 41명으로 개편되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추진단의 조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도시정책관이 폐지되고, 2009년 5월 4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전당운영협력과, 전시공연설비과, 문화환경지원팀이 통 · 폐합되었다. 전당운영협력과는 전당운영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시공연설비과는 전당시설과로, 문화환경지원팀은 문화도시개발과로 통 · 폐합되어, 문화도시정책과 · 문화도시개발과 · 전당기획과 · 전당시설과, 전당운영협력팀의 1단 4과 1팀이 되었으며 2012년 전당운영협력팀

이 전당운영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화도시정책과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중심 조성사업의 총괄 · 기획 및 조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도시개발과는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 ·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이전시책수립, 민자개발,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및 시민문화사업 교육프로그램 · 홍보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당기획과는 문화전당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총괄, 문화전당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당시설과는 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문화전당 건축 · 토목공사의 관리 · 감독 및 설비시설 설계 · 관리감독 ·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당운영협력과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제협력 ·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업무와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2)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 지식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문화복지권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및 박물관, 독서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 통합하고,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을 통한 비전과 목표설정,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다각도의 진흥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하부 조직으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 박물관정책과를 두고 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도서관 관련 법령 제 ·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 · 지원 등을 담당한다.

도서관진흥과는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 · 지원,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의 구축 및 개선,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박물관정책과는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조사연구, 공립 · 사립 박물관의 육성 · 지원,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 · 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1 국립문화예술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영재 교육 및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는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제정(2012.5.23.)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 1일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2012년 5월 23일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4)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 · 사립박물관의 지원 · 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문화재의 수집 · 보존 · 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 · 관리를 총괄하며, 전통

문화의 교육 · 홍보 · 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2개 국립 지방박물관이 있으며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5)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 · 연구,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정보자원 구축 · 관리, 전문용어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체계 구축, 국어 및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순화 등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6)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관리와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업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주제별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전국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와 전국 도서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 외국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서직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전국의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을 선도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6), 국내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제 개발 및 조사 · 연구 업무를 수행할 도서관연구소(2007)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국가시책을 수립 · 시행할 국립장애인도서관(2012)으로 개편 되었다.

2013년에는 정부정책 수립 활용 및 지원에 특화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을 개관(2013.12.12. 세종정부청사 내)하였다.

7)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해외문화 · 홍보 계획 수립,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활동지원, 한국소개행사, 해외 인사초청, 해외홍보용 간행물 및 영상자료 제작,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 운영, 해외언론의 한국관련 취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8)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에

근거하여 1950년에 설립되어 민족예술의 진흥과 무대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었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가 속해 있으며 2010년에는 공연예술박물관이 개관하였다.

9)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미술작품 자료수집 · 보존 · 전시 ·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 미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10) 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 · 가 · 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 · 연구를 통한 전통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고 2004년에 국립남도국악원, 2008년에는 부산국악원을 개원하였다.

11)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 · 제도 등에 관한 조사 · 연구와 동 · 서양의 민속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승 · 보급, 민속유물의 구입 · 수집 ·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2) 예술원 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 · 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조사 ·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의 체계적 수집 · 보존 및 전시, 국내외 근현대사 박물관과 교류 · 협력, 근현대사 소장자료 아카이브 구축, 근현대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고 있다.

14) 한국정책방송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 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 ·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1) 예술의전당

1988년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현행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의전당은 관내 시설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과 조사 · 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국립예술단체와 협력,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2) 한국문학번역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6일 (재)한국문학번역금고를 처음 설립한 이후 2001년 3월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를 근거로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2010년 6월 기관 근거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의2로 이관되면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 · 출판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 · 조사 업무,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 · 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 · 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세종학당이 현지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재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누리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해외 한국어 교원 · 학습자 초청 연수, 한국문화 교육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 · 연구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3월에 설립(출범 당시 기관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였으며, 2010년 5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면경)된 이후, 「문화예술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특수법인화 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 · 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27일 설립하였다. 과거 간행물의 심의 등 규제 중심이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환경의 변화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위축된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직무는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 조사 · 기획, ②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③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④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⑤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⑥ 전자출판의 육성 · 지원, ⑦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⑧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이다. 한편, 간행물의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부설하여 간행물의 심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간행물수입추천제도를 2012. 7. 27 폐지한 대신에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간행물수입업자로부터의 의견문의제도를 신설하였다.

9) 아시아문화개발원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 · 유통 활성화와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제28조에 의하여 2011년 12월 26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개발원의 주요 업무로는 ① 아시아문화콘텐츠 제작 · 유통 활성화, ② 아시아문화콘텐츠 연구 · 기획 · 개발, ③ 아시아문화콘텐츠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④ 아시아문화콘텐츠 등 OSMU상품 기획 · 개발 및 문화콘텐츠 자원의 상품화, ⑤ 아시아문화콘텐츠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추진, ⑥ 아시아문화콘텐츠 대외협력, 홍보 및 브랜드 전략 수립, ⑦ 아시아문화콘텐츠 라이센싱 비즈니스 등 지적재산권 활용 기획 · 개발, ⑧ 아특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기획 · 제작 등이 있다.

3 민법상 법인 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민법상의 법인 형식의 문화기관으로 정부 재정지원 하에 운영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설치된다.

1) 국립극단

국립극단은 2010년 6.18일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극단이며,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우리말의 보전 및 세계화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2)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발레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발레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발레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발레아카데미 운영, 발레 예술영재 발굴 지원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오페라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오페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오페라 아카데미 운영, 오페라 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국립예술자료원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에 설립된 예술 기록 전문 기관이다.

2010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하여 2010년 3월 설립되었으며,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연예술 현장의 중심인 대학로에서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극 · 무용 자료 중심의 대학로 분원을 2010년 12월 개원하였다.

5)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합창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합창음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합창음악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합창학교 운영, 성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6)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설립된 신설 재단법인으로 창작 현대무용작품 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현대무용예술의 발전을 선도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현대무용공연 관람을 통하여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명동 · 정동극장

재단법인 명동 · 정동극장은 연극전문제작극장을 표방하는 명동예술극장과 전통예술 중심의 정동극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동정동극장은 무대예술작품 제작 · 공연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사업, 문화예술의 국내 · 외 교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기타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8)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 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전통을 현대화하는 한국적 창작음악극 제작 사업, 오늘의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제작 및 개발사업, 해외 교류사업,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주요 업무로 한다.

9)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국제교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예술경영 종사자들을 위한 연구 · 조사, 컨설팅과 아카데미, 지식정보를 통해 예술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 ·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1985년 3월 30일 출범하였고, 1987년 7월 국립극장 전속교향악단 약정, 1989년 3월 (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 2000년 5월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약정체결, 2001년 3월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여 연간 10회의 자체 연주회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전담하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1)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대학로공연예술센터로 설립된 후,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센터'를 비전으로 아르코예술극장을 무용중심으로, 대학로예술극장을 연극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연의 중심 대학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과 주제별 공연 등을 기획하여 공연 트렌드와 공연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연구기관이다(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었으며, 2007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관광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 · 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13) 국악방송

국악 FM방송은 한국전통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3월 개국하였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 · 경기와 전북 남원, 전남 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 전주, 부산, 강릉, 대구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광주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07년 2월 1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국악문화재단으로 시작, 2009년 5월 28일 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단훈은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자!'이며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보전, 진흥 및 국민문화 향유 확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인력양성 및 연수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등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 ·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 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 · 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을 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전시 · 교육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을 위해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후 2010년,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명칭을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의 범위도 중앙박물관에서 전국 국립박물관으로 확대했다. 1국 1부 7팀 정원 45명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박물관문화재단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13년 97억 원의 예산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내의 극장 '용' 운영을 비롯해 전국 8개의 박물관과 대한민국 국회 등에서 문화상품점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상의 박물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문화정보센터는 2002년 12월 설립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문화 분야의 정보화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 · 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산하기관 ·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 사업 지원을 통해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창의적인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문화정보화 추진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화정책 연구개발 및 문화정보화 전문컨설팅,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통한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제공, 문화영상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문화PD 양성사업 및 정보화교육,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 유용성 ·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문화통계개발 및 서비스, 소규모 문화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문화정보통합센터(IDC) 운영, 각종 사이버 침해로부터 문화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운영지원,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등이 있다.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법령

1 법령체계

문화 관련 법령 중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목적은 첫째,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거점별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한국문화예술을 키워나가고자 함이다.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 증진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1) 문화기본법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써 문화산업의 성장은 물론,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구현과 더불어 '인간 중심주의'의 국민행복실현과 문화적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맞추어 문화적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 및 정책수단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기존의 법체계 및 법률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13년 12월 30일 「문화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사회문화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를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광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향 및 원칙을 제시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복잡다기한 문화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문화관련 법률에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 관련 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모법(母法)기능을 담당할 역할로서 「문화기본법」제정의 의의를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법 제정의 의의를 바탕으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

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정책 수립 · 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문화 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화예술 및 민족문화 관련 법제

문화예술 및 민족문화 관련 법제는 우리 민족문화의 보존 · 계승 · 발전과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문화예술활동과 인류 · 역사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 · 보존하는 박물관 ·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 그리고 종교단체에 속하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과 유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등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시설 민족문화에 관한 법률로는 ① 문화예술공간설치, 문화예술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문화예술기관 운영 체계 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②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어기본법」, ③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연활동과 공연장의 설치 · 운영 및 무대예술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④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예술인 복지법」, ⑥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 창조 ·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적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⑦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그들의 창작활동을 우대 ·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법」, ⑧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⑩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⑪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⑫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 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 향교재산에 관한 법률로는 ①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의 지정 · 관리 · 보호 · 공개 ·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②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고도(古都)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④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법」, ⑤ 문화재수리 · 실측설계 · 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⑥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 · 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⑦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발전과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⑧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⑨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향교재산법」 등이 있다.

2 2013년도 주요 법령정비 현황

2013년에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추진 사항을 명시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문화가 국가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정의에 '만화'를 포함하였으며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산재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령, 예술인복지재단의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연법」을 개정하여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여 학예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등을 정하였고 기부금품의 접수를 허용하는 조항 내용을 변경하였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1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정 · 개정 현황(2013)

비고	현황 (공포일자)
제정	○ 문화기본법(2013. 12. 30)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3. 7. 16) ○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3. 12. 30) ○ 공연법 개정(2013. 12. 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3. 12. 30)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3. 7. 16)

최근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어문(語文) 및 출판을"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로 개정하였다.

2) 문화기본법 제정(2013. 12. 30)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3)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3. 12. 30)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이 201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

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연법 개정(2013. 12. 30)

현재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상 기본구상과 재정 투자 · 융자 심사에서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공연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 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3. 12. 30)

현행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립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학예사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법령별 주요 내용

1) 문화기본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가치의 사회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문화"의 개념, "문화권"의 개념 및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영향평가 시행,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추진, 문화인력의 양성,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제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 · 육성, 문화지구의 지정 · 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의 날 설정 및 문화강좌 설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나 문화예술재화 · 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등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에는 '만화'를 문화예술의 정의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8월 6일 시행되었는데, 이는 최근 만화가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3)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제5장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 시행하고,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2년

마다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국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어기본법」 제정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제적 보급 및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공연법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률은 공연장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및 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건립 목적 · 운영인력 ·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제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 장비, 문화예술교육사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 · 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동 법률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문화시설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6)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술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의 개발 ·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 창조 ·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하였으며, 총 9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치가 소통하는 창조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 도시성, 문화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지원체계 등에서 문화정책 및 국가정책 전반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과 관계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계획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통합적 법제를 제정하게 되었다.

8)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과 선출,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예술원 회원의 수를 75인에서 100인으로 증원하였고, 2005년 학벌주의 조장의 우려가 있는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하였다.

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은 동학농

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의 등록,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였고,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전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동법에서는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 · 기념탑의 건립 및 관련 학술 연구 및 교류, 유적지의 정비,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9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 ·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 · 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 · 공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 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등 동 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박물관 · 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 · 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 도서관법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총 9장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사항과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수행업무, 운영 및 지원, 지도 ·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책무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 · 시행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제3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작은도서관을 설치 ·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과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 육성, 국유 ·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 · 관 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고 독서진흥 관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5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역 · 학교 · 직장의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 · 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설립, 설립인가 기준, 기준 시설,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절 문화예술 재정

1 중앙정부 문화재정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09년 2조 8,746억 원에서 2013년 4조 1,048억 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2009년 1조 6,665억 원에서 2013년 2조 2,201억 원으로 33%, 기금은 2009년 1조 1,2081억 원에서 2012년 1조 8,847억 원으로 56% 증가했다.[1)]

2013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2년도에 비해 568억 원(3.5%) 증가한 1조 6,793억 원이며, 이는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한글박물관 건립,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인프라 확충 등에 기인했다.

2013년도 관광부문은 재정은 1조 964억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1,135억 원(11.5%) 증가했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투자유치지원, 관광숙박시설 육성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유통지원,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복지관광 활성화, 해외관광유치활동사업 등 국내관광 진흥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과 수용태세 개선,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기인했다.

2013년도 체육부문은 재정은 1조 744억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2,110억 원(24.4%) 증가했는데,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태권도공원 건립지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등의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육성 및 후보선수 육성, 체육인복지사업,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등에 기인했다.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합계(지출규모)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ㅇ 예산	16,665	18,167	19,604	20,933	22,201	7.4%
ㅇ 기금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11.8%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ㅇ 문화예술부문*	11,275	13,266	14,552	16,225	16,793	10.5%
ㅇ 관광부문	8,944	8,901	9,257	9,829	10,964	5.2%

1) 2012년 예산기금운용계획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ㅇ 체육부문	6,431	7,303	8,403	8,634	10,744	13.7%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096	2,277	2,346	2,506	2,548	5.0%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2-4-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점유율(A/B)	0.95	1.08	1.12	1.14	1.19	5.8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A)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정부재정(B)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 예산+기금

2 국립문화예술기관 재정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역량 강화 및 국립문화예술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총 금액 감소 사유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의 연차별 소요액 반영 등에 기인). 각 기관들의 2013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관명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	%	비고
합계	500,620	491,464	△9,156	△1.8	
1. 예술원사무국	3,477	3,502	25	0.7	
2. 한국예술종합학교	38,947	42,666	3,719	9.5	
3. 국립중앙박물관	92,214	103,729	11,515	12.5	
4. 국립국어원	13,436	14,676	1,240	9.2	
5. 국립중앙도서관	54,773	57,837	3,064	5.6	
6. 해외문화홍보원	29,920	26,125	△3,795	△12.7	
7. 국립중앙극장	26,788	33,577	6,789	25.3	* 책임운영기관
8. 국립현대미술관	103,789	81,240	△22,549	△21.7	* 책임운영기관
9. 국립국악원	55,977	50,124	△5,853	-10.5	
10. 국립민속박물관	20,575	21,479	904	4.4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1,771	11,507	△10,264	△47.1	
12. 한국정책방송원	25,800	26,141	341	1.3	* 책임운영기관
13. 국립국악중고	7,179	11,455	4,276	59.6	
14. 국립전통예술중고	5,974	7,406	1,432	24.0	

3 문화예술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배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 보호 · 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설정과 문예진흥의 추진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 · 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개원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 · 사적지 · 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2) 기금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기금 조성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기금 설치 이후, 그 동안(1973.7~2010.12) 모금한 총액 4,186억 원과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1조 9,41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조 6,137억 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산평가에 의한 조정 등 117억 원이 차감되어 2010년 12월말 기준 3,162억 원을 적립하였다.

기금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여 2003년까지 모금하였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모금이 폐지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이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금조성보다는 지원비중이 높았던 관계로 기금조성액이 매우 적었다. 다음은 국고 출연금인데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였다. 2013년 12월말 기준 재원별 조성실적을 보면 국고 출연금이 1,847억 원, 공익자금 1,673억 원, 복권기금 4,261억 원, 경륜경정수익전입금 985억 원이 지원되었다. 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고, 복권기금과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2004년 모금폐지 이후 대체재원으로 전입된 사업자금이며, 이 밖에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의 기타재원도 있다.

표 2-4-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단위: 백만 원, %)

	197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모금	269,960	38,276	48,434	53,582	7,943	268	70	27	-	-	31	-	-	-	418,591	18.7
국고	184,722	-	-	-	-	-	-	-	-	-	-	-	-	-	184,722	8.2
방송 발전 기금	158,907	2,000	1,583	2,000	1,700	1,100	-	-	-	-	-	-	-	-	167,290	7.5
복권 기금	-	-	-	-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426,108	19.0
경륜 경정 수익 전입	-	-	-	-	-	-	-	-	-	-	24,264	25,387	27,712	21,102	98,465	4.4
민간 출연금	3,999	109	252	5,546	4,709	6,509	9,057	7,854	10,542	10,403	13,497	14,275	14,725	19,454	120,931	5.4
이자	320,064	37,559	29,721	26,570	28,376	28,909	25,972	34,201	25,922	17,306	20,069	14,402	10,793	6,836	626,700	27.9
기타	59,603	9,097	18,274	8,825	9,039	8,848	9,540	7,959	8,642	8,315	6,554	6,483	6,080	32,655	199,914	8.9
계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2,242,721	100.0

※ 기타 내역 :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성액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운용액	621,879	61,921	62,703	26,755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63,254	144,273	127,535	150,911

4) 적립 및 지원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이 매년 수행되는 지원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종자금(種子金)으로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와 지원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2005년부터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13년 말 기준 약 2,395억 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국고출연금이 1,847억 원(8.2%),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이 1,673억 원(7.5%)으로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원재성의 일정부분(15.7%)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적립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단위: 백만 원, %)

연도 / 구분	1973~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비고
■ 수입(A)														
국고 출연	184,722	-	-	-	-	-	-	-	-	-	-	184,722	8.2	
공익 자금	164,490	1,700	1,100	-	-	-	-	-	-	-	-	167,290	7.5	방송 발전 기금
기타	929,871	94,651	94,9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1,890,709	84.3	
계	1,279,08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2,242,721	100.0	
■ 지출(B)														
계	773,258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45,860	161,667	127,535	150,911	2,003,217		
■ 적립금액(A-B)														
계	505,825	21,430	△34,341	△38,127	△21,174	△24,532	△35,144	△57,745	△53,120	△10,825	△12,743	239,504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의 자체 조성분과 타 재원 출연분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고나 공익자금이 집중적으로 출연된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타 재원(국고 및 공익자금) 비중이 최하 65.3%(1996년)에서 최고 99.4%(1991년)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금수입 이외의 특별한 기금조성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연금, 공익자금 등을 통해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보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표 2-4-7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단위: 백만 원)

연도	총 적립액 (A)	자체 적립액 (B)	비율 (B/A)	자체적립 내역		타재원 (D)	비율 (D/A)	타 재원내역		
				결산잉여	예산편성			국고	공익자금	기타
1973 ~1989	67,177	37,177	55.3	17,893	19,284	30,000	44.7	20,000	-	10,000
1990	23,856	3,856	16.2	1,856	2,000	20,000	83.8	-	20,000	-
1991	25,151	151	0.6	151	-	25,000	99.4	5,000	20,000	-
1992	24,289	4,289	17.7	3,989	300	20,000	82.3	-	20,000	-
1993	27,079	7,357	27.2	7,057	300	19,722	72.8	19,722	-	-
1994	36,465	6,465	17.7	5,465	1,000	30,000	82.3	30,000	-	-
1995	38,006	3,006	7.9	6	3,000	35,000	92.1	30,000	5,000	-
1996	30,647	10,647	34.7	3,647	7,000	20,000	65.3	20,000	-	-
1997	12,316	12,316	100	8,316	4,000	-	-	-	-	-
1998	7,591	7,591	100	3,591	4,000	-	-	-	-	-
1999	32,603	30,603	93.9	12,103	18,500	2,000	6.1	-	2,000	-
2000	48,160	45,160	93.8	25,160	20,000	3,000	6.2	-	3,000	-
2001	27,156	27,156	100	485	26,671	-	-	-	-	-
2002	35,560	35,300	99.3	-	35,300	260	0.7	-	-	260
2003	69,768	69,768	100	44,230	25,538	-	-	-	-	-
2004	21,430	21,430	100	21,430	-	-	-	-	-	-
2005	△34,341	△34,341	-	-	-	-	-	-	-	-
2006	△38,127	△38,127	-	-	-	-	-	-	-	-
2007	△21,174	△21,174	-	-	-	-	-	-	-	-
2008	△24,532	△24,532	-	-	-	-	-	-	-	-
2009	△35,144	△35,144	-	-	-	-	-	-	-	-
2010	△75,139	△75,139	-	-	-	-	-	-	-	-

연도	총 적립액 (A)	자체 적립액 (B)	비율 (B/A)	자체적립 내역		타재원 (D)	비율 (D/A)	타 재원내역		
				결산잉여	예산편성			국고	공익자금	기타
2011	△35,726	△35,726	-	-	-	-	-	-	-	-
2012	△10,825	△10,825	-	-	-	-	-	-	-	-
2013	△12,743	△12,743	-	-	-	-	-	-	-	-
계	239,504	34,521	14%	155,379	166,893	204,982	81%	124,722	70,000	10,260

4 문화예술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방향 (2013~2017)

방송 · 통신의 융합, 유비쿼터스의 도래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의력과 상상력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콘텐츠기반 경제가 도래하고, 주5일 근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에 따라 국민의 문화 · 관광 ·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다문화 사회 등 우리사회의 장기적 ·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 요구되고, 세계화 ·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다양성, 균형성, 정체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선진화의 핵심동력인 문화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와 경제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구현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대 ·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재정투자(예산+기금)는 문화체육관광부 중기사업계획 기간(2013~2017) 중 연평균 12.7%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은 연평균 17.3%, 기금은 연평균 6.4%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2.5%, 관광 3.9%, 체육 3.9%, 문화 및 관광 일반 4.4%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표 2-4-8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2013~2017)

(단위: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ㅇ 예산	22,201	22,837	26,269	31,685	41,978	17.3%
ㅇ 기금	18,847	21,195	22,944	23,999	21,669	3.5%
합계	41,049	44,032	49,213	55,684	63,647	11.6%
■ 문화예술 부문	16,793	18,480	21,953	27,626	37,790	22.5%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 관광 부문	10,964	12,426	12,443	12,960	12,793	3.9%
■ 체육 부문	10,744	10,463	12,062	12,205	10,032	△1.7%
■ 문화및관광 일반부문	2,548	2,663	2,755	2,893	3,032	4.4%

이 중 문화예술부문의 재정투자 계획은 주로 종교문화지원, 콘텐츠 및 문화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한 육성 및 환경 지원, 예술의 창의성과 진흥 도모를 위한 지원, 국정홍보, 각종 문화예술 기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재정투자 항목 및 2013년 이후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4-9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문화예술부문-	16,793	18,480	21,953	27,626	37,790	22.5%
ㅇ 예산	14,367	15,491	18,934	24,220	34,464	24.5%
ㅇ 기금	2,426	2,990	3,019	3,406	3,325	8.2%
■ 종교문화지원	608	529	526	499	485	△5.5%
■ 콘텐츠산업 육성	2,760	3,453	4,459	5,299	6,703	24.8%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416	538	605	803	1,195	30.2%
■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593	1,155	1,922	2,414	3,713	23.6%
■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283	2,371	2,630	2,887	3,236	9.1%
■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3,501	4,061	4,754	5,376	5,656	12.7%
■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47	0	0	0	0	△100.0%
■ 국정홍보기획	194	210	178	172	169	△3.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63	1,789	1,302	1,048	1,041	△6.5%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345	518	1,886	5,815	12,133	143.5%
■ 국립문화예술기관	3,683	3,857	3,692	3,312	3,459	△1.6%

제3장
문화정책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제1절 문화정책 일반
제2절 국어정책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제4절 국제문화정책
제5절 도서관정책
제6절 박물관정책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03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 일반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 그리고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의 시대라 밝히며 문화를 통한 국민의 가치 있는 삶, 또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문화국가 한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문화융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수립되기까지는 사회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있었다. 먼저 계층 · 지역 · 세대 간 문화격차가 커져가면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 세대, 계층마다 맞춤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요구와 장애인, 차상위계층과 같은 소외계층 대상의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문화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둘째로 경기 침체와 사회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어 오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양적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표면적인 경쟁력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정거래 환경

정립 등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요구의 증대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킴과 동시에 국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정신문화와 인문학에 기초한 사회갈증 해소와 통합 추진, 국외와의 문화교류, 협력 확대 및 한류와 관련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 실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먼저 '문화융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과 같은 법안들의 제 · 개정이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한다. 또한 문화융성의 전문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독립적 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

둘째로 문화로 국민행복을 가꾸고 보편적인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 유 · 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로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점의 쌍방향 문화교류 · 협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문화의 가치로 풀어가고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코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대간 · 지역간 · 계층간의 갈등과 다양한 복합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부처 간 문화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3-1-1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정책의 전략과 과제

전략	추진과제
'문화융성' 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문화융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 문화융성을 위한 전문적 독립 기구 설치
문화로 국민행복을 가꾸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문화국가 만들기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나 행복수준은 OECD 36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이며,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비하여 문화향유 기회는 적고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및 한국 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문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가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기본 원리로 작동 되도록 새 정부 4대 국정운영기조로 문화융성을 설정하였고, 문화융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1)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새 정부 4대 국정운영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2013년 7월 25일에 출범하였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문화예술계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19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0인으로 출범하였으며, 참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문화예술 · 전통문화 · 문화산업 · 문화가치확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의 기본 운영방향은 문화융성 국가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및 추진동력확보, 문화가치의 정립 및 문화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 확산, 현장 중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문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이다.

(2) 8대 정책과제 발표

위원회는 출범 후 2013년 8월 13일부터 전국 9대 권역 지역문화현장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문화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25일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융성정책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문화가 있는 삶' 정책에 제시된 정책방안은 문화현장의 목소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국민 밀착형 · 생활 문화형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8대 정책 과제는 ① 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②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③ 문화 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 ④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 ·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⑤ 창작 · 매개(유통) · 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 ⑥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 ⑦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⑧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지정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8대 정책과제를 통하여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3) 여가문화 활성화

(1) 여가관련 R&D 시행

소득 증가, 주 5일제 수업, 주 40시간 근무제, 대체휴일제 등에 따라 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적 여가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여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정책적 대응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도에 여가문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해 "문화여가행복지수 개발 연구",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3-1-2 주요 여가정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비고
문화여가행복지수개발연구	○ 문화여가행복지수 산출 위해 제안된 지표에 근거하여 구체적 자료를 수집, 적용 및 계층별 비교 분석 ○ 문화여가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수의 분포도 분석에 따라 문화여가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	○ 문화여가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측정 - 문화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 문화여가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 - 문화여가행복지수의 지수화를 위한 5개 영역(문화여가여건지수, 문화여가자원지수, 문화여가참여지수, 문화여가경력지수, 문화여가태도 및 만족도 지수)에 대한 지표 개발 - 전국단위(17개 시 · 도) 설문조사 실시 및 자수화 과정(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 ○ 문화여가행복지수의 계층별 비교분석 - 한국인의 특성별(성, 연령, 가구소득, 지역크기 등) 문화여가행복지수 산출 - 5개 영역의 지수값의 균형수준 비교 분석 ○ 문화여가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	○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일과 여가의 균형' 추구의 필요성 제기 ○ 기업의 다양한 경영방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일-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노력과 연계 필요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 인증제도의 개념, 유형 및 관련 사례 - 기업의 여가지원제도의 개념, 내용 및 관련 사례(해외 사례 포함)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평가지표 개발 - 여가지원제도, 운영기반, 만족도 등 인증 평가지표의 개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활용방안 - (인증제 운영) 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및 등록(홍보) - (여가친화지수) 기업의 여가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활용 - (유사인증제 통합) '가족친화인증제(여성가족부)' 에 '여가'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추진 제안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비고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 국민들의 문화 · 여가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 규명 ○ '문화여가사' 에 대한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방안 제안 및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전망	○ 문화여가 서비스 시장 분석 - 문화여가 서비스관련 시장 및 특성 분석 - 문화여가 서비스 수급 현황 조사 및 일자리 전망 ○ (가칭)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제도 도입 방안 제안 - (가칭)문화여가사 개념 및 직무(범위) - (가칭)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방법 제안(시행령안) ○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2)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제고

현대사회는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 개인의 여가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행복이나 생활 만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일과 삶의 조화는 근로자가 일과 그에 부가되는 영역에 투자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주5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삶의 조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일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가활동은 직무 만족 뿐 아니라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으나, 현대 사회 속에서 여가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직장인들이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여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여가기반 마련으로 직장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2012년 10개 기업 선정, 2013년 4개 기업 선정)

표 3-1-3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선정기업

연도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2012년	KT, 여행박사, 아모레퍼시픽, KTB투자증권, 다음커뮤니케이션, 휴비츠, 마미로봇, 안랩, 대상, 한국애보트
2013년	벽산엔지니어링, 엠엘씨월드카고, 코리아드라이브, 핸드스튜디오

(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 배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어 그간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11년 도입 당시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문화복지 기관에 배치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복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문화이용권 사업을 연계하여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 제한으로 인해 문화복지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문화복지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된 기관의 문화이용권 발급률과 이용률이 이전에 비해 각각 7.9%,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13년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및 이들을 배치받은 기관이 해당지역의 문화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기획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받은 기관은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2013년 전국 85개 기관에 배치되었던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100명이다.

4)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1)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의 창조적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나눔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화이용권 사업, 사랑티켓, 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문화나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책 읽는 사회문화 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 박물관협회 등 다양한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이용권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공공박물관 · 미술관특별전시 프로그램지원, 장애인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은 201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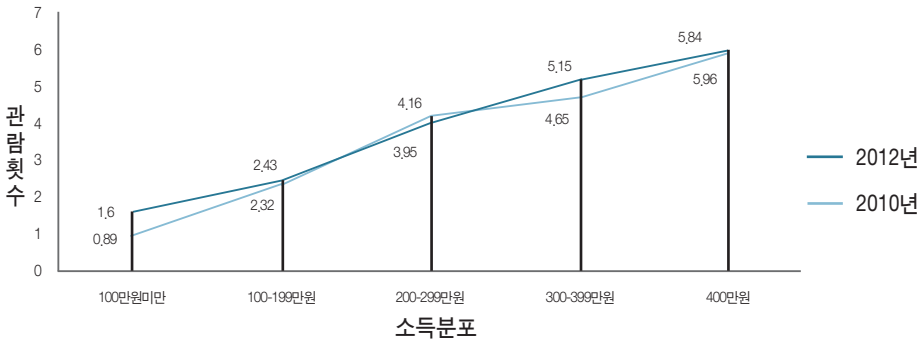
표 3-1-4 문화나눔 사업별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대상 공연 · 전시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 및 도서 및 음반 구입 등을 지원
소외계층 문화순회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등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를 지원
사랑티켓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공연, 전시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사람당 연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 (공연 7,000원 / 전시 5,000원 지원, 단체는 1회에 한함)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소외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 국립 예술단 우수공연 및 문예회관 기획 ·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출처 : 문화 나눔 홈페이지(www.lotteryar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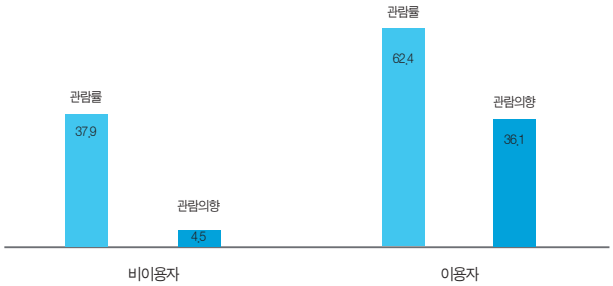
위 문화나눔 사업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은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소득 간 예술행사 관람횟수 격차 통계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가 전체 관람 횟수의 평균과 비교하여 2008년 9배, 2010년에 4.5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전체 관람 횟수 평균 4.9회 대비 1.6회)으로 나타나 소득 간 문화향수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들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문화서비스 지출 증가를 이끌어냈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도 점차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2010년-2012년 소득별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또한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문화예술경험 및 이용욕구는 비이용자 관람률 37.9% 대비 1.65배인 62.4%에 달하며, 비이용자 관람의향 4.5%의 8.02배 수준인 36.1%에 달하였다. 이 역시 문화복지 사업의 이용자라 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의 격차를 감소시킨 문화복지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 문화이용권 비이용자와 이용자의 관람률, 관람의향 비교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역 · 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른 문화향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 ·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기 시행되어 온 문화복지 사업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국정과제 43-2「맞춤형 고용복지」"(문화)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따라 문화이용권,여행이용권,스포츠관람이용권으로 각기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방식에서 하나의 단일카드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한 것이다. 새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 단계로 2013년 2월부터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12년까지 한국관광공사 주관), 스포츠관람이용권('12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등 각기 별도로 운영되던 3개 이용권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 운영하게 하여 3개 이용권 운영기관 일원화 구조를 안착화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이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3-1-5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현황(2013년)

구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
① 예산	493.46억 원 (기금 349.46, 지방비 144)	94억 원 (기금 67, 지방비 27)	5억 원
② 재원	• 복권기금(70%) • 지방비(30%)	• 관광진흥개발기금(70%) • 지방비(30%)	•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③ 사업기간	2013.3월 ~ 2014.1월	2013.1월 ~ 2014.1월	2013.4월 ~ 2013.12월
④ 사업목적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행 기회를 가지기 힘든 여행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저소득층의 스포츠관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계층 간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스포츠복지사회」구현
⑤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내 청소년(10~19세) • 복지시설거주자(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개인 및 가구 • 복지시설(단체)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가구 • 복지시설(단체)
⑥ 수혜자수	1,638,737명	68,333명	22,558명
⑦ 시행주체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관 : 16개 지역주관처 후원 : 기획재정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관('13년 2월)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관('13년 2월)
⑧ 대상자 선정방식	신청 인증	선정 통지 (시 · 군 · 구 지자체)	신청 인증

구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
⑨ 지원내용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 도서 및 음반 구입, 온라인콘텐츠 다운로드	국내 모든 여행상품, 숙박시설, 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시설 이용 및 기차 · 항공표 구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야구, 축구, 농구, 배구, F1)
⑩ 지원금액	가구당 5만원 (청소년 10~19세 개인당 5만원)	개인당 15만원 (가구당 2인 이내)	가구당 최대 12만원
⑪ 사업방식	전용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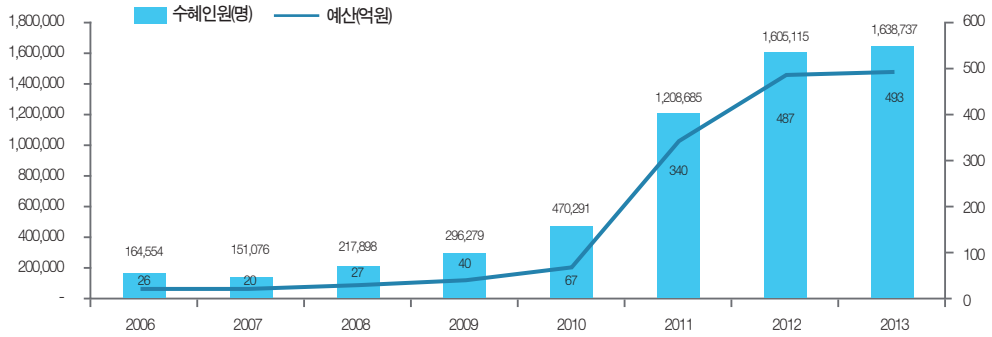
(2) 문화이용권사업

문화이용권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2005년 국고 4억 원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2006년 26억 원(국고 20억 원, 기금 6억 원)에서 2013년 493억 원(기금 349억 원, 지방비 1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비 매칭(30%)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 · 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욕구를 끌어내고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제고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바우처 성격의 제도로써 유일한 사업인 문화이용권 사업은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꾸준히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493억 원으로 2011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래 계속해서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년 67억 원→'11년 340억 원(507%)→'12년 487억 원(143%)→'13년 493억 원(101%))

표 3-1-6 문화이용권 :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2011년 문화이용권 사업에서 문화카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12년에는 선기명식 카드제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 실시간 카드 발급, 전국 모든 주민 센터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사업명 순화(기존 문화바우처 → 문화이용권/ * 외래어 순화 및 문예진흥법 상 법정 용어 적용), 지역 여건 고려한 시 · 도별 카드/기획사업 비율 차등화, 행복e음망(보건복지부 대상자 자격검증시스템) 및 OK주민서비스(안전행정부 세대 검증) 실시간 연계 등 사업 제도의 지속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문화예술단체(지역주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문화소외 대상자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문화예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였다. 또한, 예술의전당 등 공연장, 영화관, 서점 등 공공 및 민간 제휴 외부 협력을 통한 할인을 확대하고, 디지털 영화 · 음악, e-book, 중고도서 등 문화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 및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표 3-1-7 문화이용권 : 연도별 주요 개선 내용

문화이용권 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 예산	340억 원	487억 원	493억 원
수혜인원	121만 명/327만 명 (37%)	160만 명/332만 명 (48.2%)	163만 명/332만 명 (49%)
추진 방식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분리 중앙 주도의 카드 집행 · 관리 카드이용대상 한정	▶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연계 시도 및 지역주관처의 역할 강화 이용대상 및 부가서비스 확대	▶ 지역 여건 고려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배분율 조정, 시도 차등 적용
전담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총괄운영기관으로 지정 ('11.7.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12.8.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문 3개 이용권 사업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총괄 운영

그림 3-1-3 문화이용권 : 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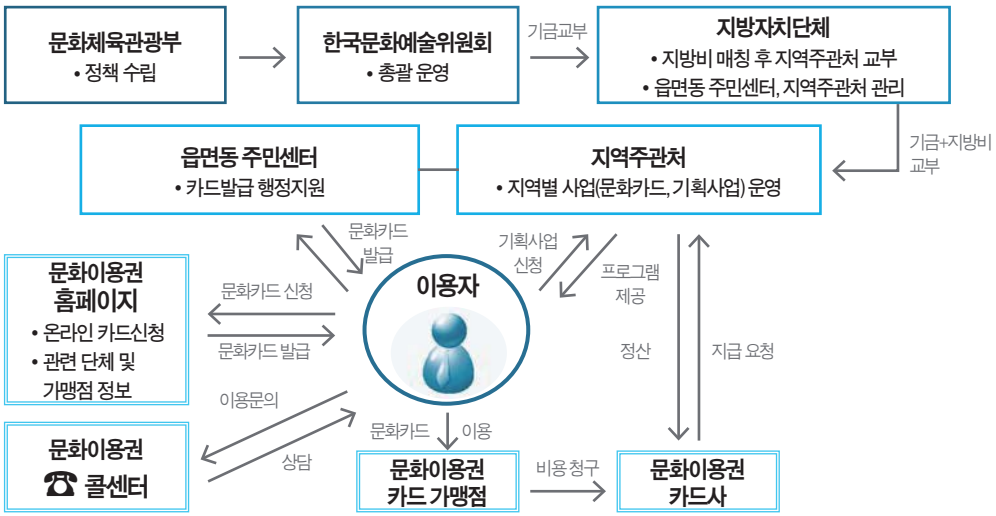


표 3-1-8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연령별 현황(2013년)

연령 구분	출생년도	인원(명)	비율(%)
10대이하	2004~2013	7,960	1.2
10대	1994~2003	254,065	38.3
20대	1984~1993	21,321	3.2
30대	1974~1983	52,272	7.9
40대	1964~1973	135,458	20.4
50대	1954~1963	87,539	13.2
60대이상	~1953년 이전	105,153	15.8
합계		663,768	100

표 3-1-9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대상별 발급 현황(2013년)

발급 대상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우선 돌봄 차상위	차상위 장애 연금	복지 시설 거주자	합계
발급 매수 (매)	331,560	46,404	42,880	144,909	7,726	20,891	50,485	14,914	3,154	845	663,768

표 3-1-10 문화이용권 : 시도별 문화이용권 예산 집행 및 카드실적 현황(2013년)

(단위: 천원, %)

지역	예산액	예산 집행액				카드발급실적			카드이용실적		
		소계	%	문화카드	기획 사업	발급 가능매수	발급 매수	발급률 (%)	이용액	이용률	
										발급 대비	예산 대비
서울	6,756,000	6,220,949	92.1	4,254,748	1,966,201	94,584	96,528	102.1	4,254,748	88.2	90.0
부산	4,626,000	4,270,031	92.3	2,908,449	1,361,582	64,764	64,764	100.0	2,908,449	89.8	89.8
대구	3,415,000	3,263,653	95.6	2,239,153	1,024,500	47,810	49,146	102.8	2,239,153	91.1	93.7
인천	2,342,000	2,214,432	94.6	1,530,563	683,869	32,794	34,074	103.9	1,530,563	89.8	93.3

지역	예산액	예산 집행액				카드발급실적			카드이용실적		
		소계	%	문화카드	기획 사업	발급 가능매수	발급 매수	발급률 (%)	이용액	이용률	
										발급 대비	예산 대비
광주	2,318,610	2,253,840	97.2	1,793,871	459,969	37,135	38,714	104.3	1,793,871	92.7	96.6
대전	1,520,600	1,473,772	96.9	1,018,248	455,524	21,290	22,097	103.8	1,018,248	92.2	95.7
울산	634,478	617,301	97.3	426,973	190,328	8,883	9,189	103.4	426,973	92.9	96.1
세종	91,821	87,508	95.3	59,987	27,521	1,286	1,320	102.6	59,987	90.9	93.3
경기	6,512,000	5,853,542	89.9	4,003,782	1,849,760	91,168	89,836	98.5	4,003,782	89.1	87.8
강원	1,841,023	1,774,899	96.4	1,224,823	550,076	25,774	26,578	103.1	1,224,823	92.2	95.0
충북	1,743,600	1,656,779	95.0	959,613	697,166	20,924	20,924	100.0	959,613	91.7	91.7
충남	1,876,868	1,806,257	96.2	1,243,239	563,018	26,277	27,394	100.0	1,243,239	90.8	94.6
전북	3,368,000	3,314,199	98.4	1,966,999	1,347,200	40,416	42,339	104.8	1,966,999	92.9	97.3
전남	3,153,000	3,046,815	96.6	1,785,635	1,261,180	37,836	37,681	99.6	1,785,635	94.8	94.4
경북	3,724,000	3,488,678	93.7	1,999,078	1,489,600	44,688	44,171	98.8	1,999,078	90.5	89.5
경남	3,232,300	3,196,434	98.9	2,226,784	969,650	45,253	47,582	105.1	2,226,784	93.6	98.4
제주	844,700	825,682	97.7	530,082	295,600	10,982	11,431	104.1	530,082	92.7	96.5
계	48,000,000	45,364,771	94.5	30,172,027	15,192,744	651,864	663,768	101.8	30,172,027	90.9	92.6

*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을 예산 5% 초과 발급하여, 발급률이 100% 초과달성한 지역이 있음

또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사업을 2011년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 방문 서비스 2개 유형에서 2012년부터 지역별 고유프로그램,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4개 유형으로 확대 및 특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민의 문화카드 이용 불편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고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3-1-11 문화이용권 :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3년)

(단위: 건)

장르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전통	문화일반	무용	영화	대중공연	계
프로그램 수	492	912	540	330	853	2,471	154	206	1,092	7,050
비율(%)	7	13	8	5	12	35	2	3	15	100

표 3-1-12 문화이용권 : 지역별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3년)

(단위: 건)

구분	지역 주관 처	기획사업 대표사업	프로그램
서울	서울문화재단	서울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사진탐방', '문화공간 탐방'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사랑의 문화나눔'	404
부산	부산문화재단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참여하여 문화표현과 창작활동 지원 '문화공작소' 재가복지세대에 방문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착한그물'	2,044
대구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지원 '해피티켓'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지원 '해피핸즈'	724
인천	인천문화재단	'섬마을 영화상영회' 문화멘토 대상자들이 문화예술체험하는' 문화나들이'	257
광주	광주문화재단	광주지역 미술관, 박물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문화투어'	185
대전	대전문화재단	과학과 예술을 활용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아티언스랩투어'	196
울산	울산 문화바우처 협의회	햇빛기행 움직이는 역사문화탐방	117
세종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충남이 보유한 백제 문화재 답사프로그램 '백제문화체험'	20
경기	경기문화재단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특별한 문화공명 프로그램 '활생공명'	484
강원	강원문화재단	맞춤형 관람 프로그램 '박물관 나들이', 오지마을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영상제작 체험제공 '오지마을 영상제작 체험'	159
충북	충북문화재단	지역 문화기반시설 관람 및 문화체험 '3색문화탐방'	520
충남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충남이 보유한 백제 문화재 답사프로그램 '백제문화체험'	178
전북	(사)문화연구창	지역 예술가 중심으로 격오지,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예술프로그램 지원 '행복예술관'	763
전남	전남문화예술재단	섬지역을 찾아가 프로그램 제공 '섬마을 가설극장' 도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체험 '남도문화탐방'	537

구분	지역 주관 처	기획사업 대표사업	프로그램
경북	성주금수문화예술 마을	사진 촬영 참여 프로그램 '23빛깔 무지개' 문화 인프라가 낮은 마을 정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쉬어가는 정자'	145
경남	경남문화 예술진흥원	산간벽지, 도서지역 분교 등에 연령층에 맞는 교육, 체험, 전시지원 '반딧불 미술관, 사진관'	187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가복지 방문 생일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지역 예술가와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 기획 '문화가치누리'	130

사진 3-1-1 문화이용권 : 지역별 기획사업 프로그램 사진

충북

대전

경기

인천

남도문화탐방

섬마을

문화이용권 제도는 문화이용권 소지자들이 나눔티켓(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 ·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43,070명의 문화이용권 소지자 및 저소득층 회원들이 동 사업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았다.

표 3-1-13 문화이용권 : 나눔 티켓 지원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나눔 회원 (문화이용권 회원 및 저소득층)	교사회원 (교사/사회복지사)	참가단체회원	청소년 (초/중/고등생)	계
인원(명)	43,070	4,098	147	672	47,987
비율(%)	89.8	8.5	0.3	1.4	100

표 3-1-14 문화이용권 : 나눔 티켓 장르별 프로그램 지원 현황(2013년)

(단위: 건)

구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문화일반	전통	대중공연	계
무료티켓	139	42	128	9	28	20	25	27	418
할인티켓	303	106	102	11	20	11	12	60	625
계	442	148	230	20	48	31	37	87	1,043

2013년에는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63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문화이용권 수혜자 만족도는 85.7점으로 2011년 82.5점, 2012년 84점에 비해 지속 상승하였다.

문화이용권 사업 인지도는 60.2%('11년), 63.6%('12년)에서 2013년 63.8%로 지속 상승하였고, 특히 문화카드에 대한 인지도는 97.8%('13년)에 달하였다.

「문화이용권」 사업의 홍보를 위해 대상자 특성을 감안한 타깃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자(주민 센터 공무원, 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와 사용자(교사 및 청소년, 임대주택단지 거주자, 어르신) 별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함께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 스티커 부착 및 우리 동네 가맹점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TV방송 및 라디오 공익광고, 전광판, 지하철 PDP모니터, 버스정류장, 무료일간지 등 저소득층이 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 인지도를 함께 제고하였다. 장애인, 노령층 등 사각지대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물 '보이스 아이' 심벌과 점자카드발급,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와 노인용 리플릿 제작 발급 등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그 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를 집중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관처 및 지자체와 연계 · 협력하여 지역별 대상자 발급 및 이용 안내 홍보에 주력하였다.

(3) 사랑티켓

사랑티켓은 1991년('연극, 영화의 해')부터 문예 진흥 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함으로서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 · 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관람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화접근성 제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적 잠재관객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연 · 전시 관람료의 일부(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총 37억여 원(복권기금:1,956백만 원, 지자체 매칭기금:1,738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445,496명이 혜택을 받았다.

표 3-1-15 사랑티켓: 지역별 수혜자 수와 지원 금액 (2013)

(단위: 명)

지역		개인인원	단체인원	총 수혜자 수
지역 사랑 티켓 (16)	강원	938	8,830	9,768
	경기	6,649	34,970	41,619
	경남	767	7,914	8,681
	경북	1,720	3,995	5,715
	광주	3,153	16,598	19,751
	대구	2,523	13,429	15,952
	대전	5,656	12,206	17,862
	부산	4,730	14,697	19,427
	서울	38,023	175,235	213,258
	울산	1,280	6,033	7,313
	인천	1,214	17,500	18,714
	전남	1,037	9,862	10,899
	전북	3,670	5,683	9,353
	제주	1,294	11,661	12,955
	충남	2,536	9,053	11,589
	충북	2,151	14,449	16,600
	KB지원금	3,988	-	3,988
	객석나눔 이벤트	2,052	-	2,052
총 합계		83,381	362,115	445,496

* 총 이용자 수 : 445,496명 (지원금 : 439,456명, KB 지원금 3,988명, 객석나눔 이벤트 2,052명)

사랑티켓 사업에 참가하는 작품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가작품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정기심의와 매주 진행하는 수시심의를 통해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음악, 전통, 전시 등 다양한 장르로 선정되며 2013년에는 총 2,676개의 작품이 참가하였다.

표 3-1-16 장르별 사랑티켓 참가작품 수(2013)

(단위: 명)

지역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음악	전통	전시	합계
지역 사랑 티켓 (16)	서울	364	160	290	27	45	13	32	931
	부산	121	44	52	8	20	2	0	247
	대구	34	19	18	4	20	4	3	102
	인천	28	11	87	3	10	4	3	146
	광주	13	20	30	1	9	1	0	74
	대전	45	17	18	10	60	4	3	157
	울산	20	11	10	3	17	4	0	65
	경기	9	30	203	3	29	4	1	279
	강원	19	3	54	0	2	1	0	79
	충북	24	17	34	0	2	3	0	80
	충남	2	4	68	0	16	0	1	91
	전북	30	9	48	15	19	9	1	131
	전남	5	18	60	1	1	0	0	85
	경북	33	5	29	1	3	1	1	73
	경남	12	3	69	0	2	3	1	90
	제주	2	16	21	0	5	2	0	46
총 합계		761	387	1,091	76	260	55	46	2,676

2013년에는 지자체 업무협조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랑티켓 가운데 전시구매 및 중고등학교 단체 이용률이 급증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실명확인 대신 아이핀 서비스(I-PIN)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정보 누출 방지 및 사업 주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4) 소외계층 문화순회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 원, 2008년 46.3억 원, 2009년 6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80억 원, 2012년 93억 원)을 받아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 · 시각 체험프로그램 등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95.3억 원을 지원하여 198개 단체가 2,127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535,065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표 3-1-17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13)

(단위: 명, 개, 회, 천원)

사업유형	관객수(명)	단체수(개)	순회횟수(회)	예산(천원)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128,768	78	800	3,227,099
농산어촌 순회사업	187,602	70	670	2,754,115
임대주택 순회사업	47,262	21	210	877,164
다문화대상 순회사업	3,546	2	18	72,000
교정시설 순회사업	17,150	10	85	357,594
군부대 순회사업	108,947	17	169	739,112
기타시설 순회사업	41,790	(95)	175	742,916
홍보비	-	-	-	30,466
경상비	-	-	-	729,534
계	535,065	198	2,127	9,530,000

* 기타시설 순회사업 참여단체(75개 단체)는 정기공모 선정단체(199개 단체)가 추가 순회함.

2013년 문화순회사업 전체 수혜자 535,065명 중 경기지역 수혜자가 96,1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52,963명, 강원지역이 51,408명, 경북지역이 50,953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울산과 세종이 각각 6,315명과 2,943명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관람하였다.

표 3-1-18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수혜자 수(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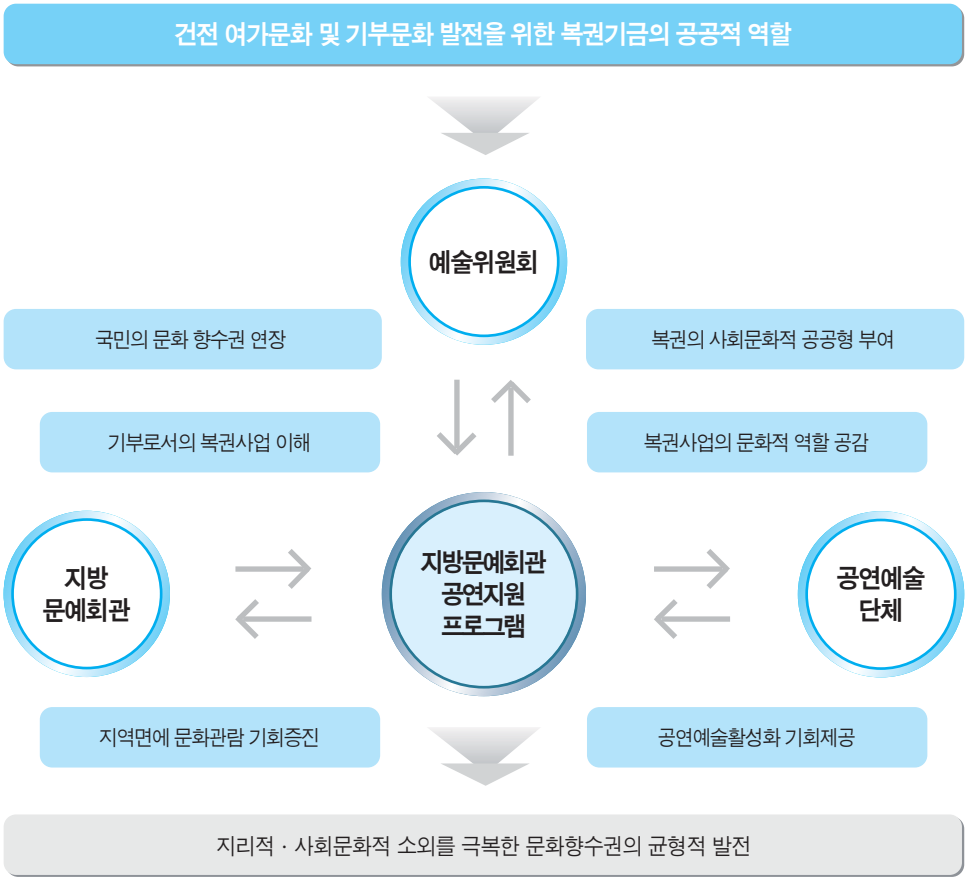
구분	사회복지 시설	임대 주택	군부대	다문화 대상	농산 어촌	교정 시설	기타 시설	합계	비율 (%)
서울	16,978	-	3,536	287	990	4,689	4,870	31,350	5.9
부산	4,470	689	2,729	359	550	2,357	1,750	12,904	2.4
대구	4,363	715	3,060	-	700	972	2,740	12,550	2.3
인천	6,335	2,393	1,726	-	200	5,628	450	16,732	3.1
광주	3,370	800	2,164	671	750	572	250	8,577	1.6
대전	4,956	-	1,800	-	610	2,430	1,000	10,796	2.0
울산	1,896	1,560	2,279	-	130	-	450	6,315	1.2
경기	-	-	-	-	-	2,943	-	2,943	0.6
강원	23,855	19,522	8,181	557	3,430	30,105	10,501	96,151	18.0
충북	5,290	17,117	2,180	429	1,230	21,511	3,651	51,408	9.6
충남	5,955	28,073	2,310	143	1,200	7,287	1,650	46,618	8.7
전북	5,460	28,548	1,940	286	1,030	2,786	1,018	41,068	7.7
전남	9,015	13,718	4,496	-	720	1,786	6,550	36,285	6.8
경북	8,697	29,511	2,853	600	1,520	4,128	1,660	48,969	9.2
경남	12,839	22,901	4,230	214	2,410	6,859	1,500	50,953	9.5
제주	12,665	19,304	3,238	-	1,220	14,036	2,500	52,963	9.9
전체	2,624	2,751	540	-	460	858	1,250	8,483	1.6

또, 2013년에 신규 협력기관을 추가로 발굴(한국철도공사, 안전행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하였으며, 정부 정책적으로 필요한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소외계층을 확대 지원하였다.

(5)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림 3-1-4 공연 나눔: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개념



2013년에는 47억 원의 예산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문예 회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발전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지방 문예회관의 기획 · 운영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표 3-1-19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2013)

구분	지원 비율
광역시 · 도	40%지원
재정자립도 20%이상 지역	50%지원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60%지원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음에도 문예회관 지원확대를 위해 지방 문예 회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횟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관람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우수공연프로그램을 106개 선정하고 프로그램횟수는 861회로 진행되었다. ('12년도 896회)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시행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작품개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28개 기관(30개 프로그램/ 30건)이 참여하였다. 또한 사업신청 및 교부 신청 시 소외계층 초청을 20%이상 명시하도록 하여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3-1-20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성과목표 달성률(2013)

구분	2013 목표	2013 성과	달성률(성과/목표)
지원기관 수	150개관	150개관	100%
프로그램 건수	250건	261건	104.4%
관람객 수	431,422명	434,104명	100.6%
고객만족도	88.3점	88.7점	100.5%

표 3-1-21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예산대비 성과

년도	예산	사업성과(프로그램 횟수)	비용효과(성과/예산)
2012	48억	896회	18.67
2013	47억	861회	18.32

(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 활동 형성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등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2012년 24개 지역에 이어 2013년에는 27개 지역에서 실행된 각 사업에 대해 1개 지역 당 최대 3개년 연속 지원을 통해 주민 자생적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3개년 연속지원이라는 기조 속에서 생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준비기-기반조성기-안정기로 진화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1개 사업 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평가연구 및 사업관리 등 1.8억 원 총 1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총 34,637명(핵심주민 4,711명, 일반주민 29,926명, 문화예술 전문 인력 745명)이 혜택을 받았다. 수혜자 34,637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종합 만족도 조사결과 89.2점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2013)

5) 문화다양성 정책

범정부적인 다문화정책들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및 문화다양성정책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과제 탑승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수의 증대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범국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05년 3월~9월「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유입 외국인의 포함한 다문화 TF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2006년 5월~10월까지는「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이 운영되었고, 2007년부터는 신설된 조직인 다문화정책팀에서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내 다문화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대통령의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과 같이 우리 국민과 이주민 간 의사소통을 위한 '다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적극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주민 이해증진 프로그램'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기존의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결혼 이주자,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 · 문화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래적 의미의 다문화정책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 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는 데에서 타 부처와의 사업과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은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앞서 설명한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관련 사업,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방송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1)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2)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3)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등 총 3개의 큰 카테고리를 문화다양성정책의 핵심 틀로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 ·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사회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공연 · 전시 · 영화 · 도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을 지원하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종사자와 문화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도모하는 사회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러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인식 제고를 통한 증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자체에 대한 보호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예술에 기반 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발굴 ·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와 발전'사업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보호 · 공감 및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전문가적 합의점과 가치를 파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역할, 문화다양성 관점의 문화교류 · 협력 방안 마련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우리 부 협력기관 · 단체(아시아문화전당,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UNESCO 문화예술교육, 문화재 발굴 · 보존 지원, 콘텐츠산업 협력 등의 타 문화권과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와 발전' 전문가패널 세미나(7.4)을 개최하여 공공 · 민간 및 시민사회 관련 단체(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 활성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 '문화와 발전' 의제 관련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포럼(10.16)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특히 2013년 포럼에는 베이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앤디 프랏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찰스 발레란 문화다양성국제연맹 사무총

장 등 국제 사회 문화다양성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동향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국제포럼은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 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의 국제사회 의제 주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2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주요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 주제
Beatrice Kaldun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문화담당관)	UNESCO 문화와 발전 사업 ·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UNESCO's Activities and Future Plan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Andy C. Pratt (영국 런던시티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흐름 및 도전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Peou Hang (캄보디아 압사라청 부국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Strategies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harles Vallerand (문화다양성연대 국제연맹 사무총장)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The Role of Immigra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사진 3-1-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현장 모습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은 내국인의 인식개선 및 개인의 창조성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계층별 · 직군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체계화하고, 방송 · 미디어 ·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 · 제작자 대상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문화콘텐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며,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2012년 개발한 문화기반시설종사자 · 초중등교사 · 언론미디어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연수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행정인력 및 기업종사자 대상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을 추가개발 및 시범연수를 진행(총 635명 참여)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매뉴얼을 추가적으로 제작 ·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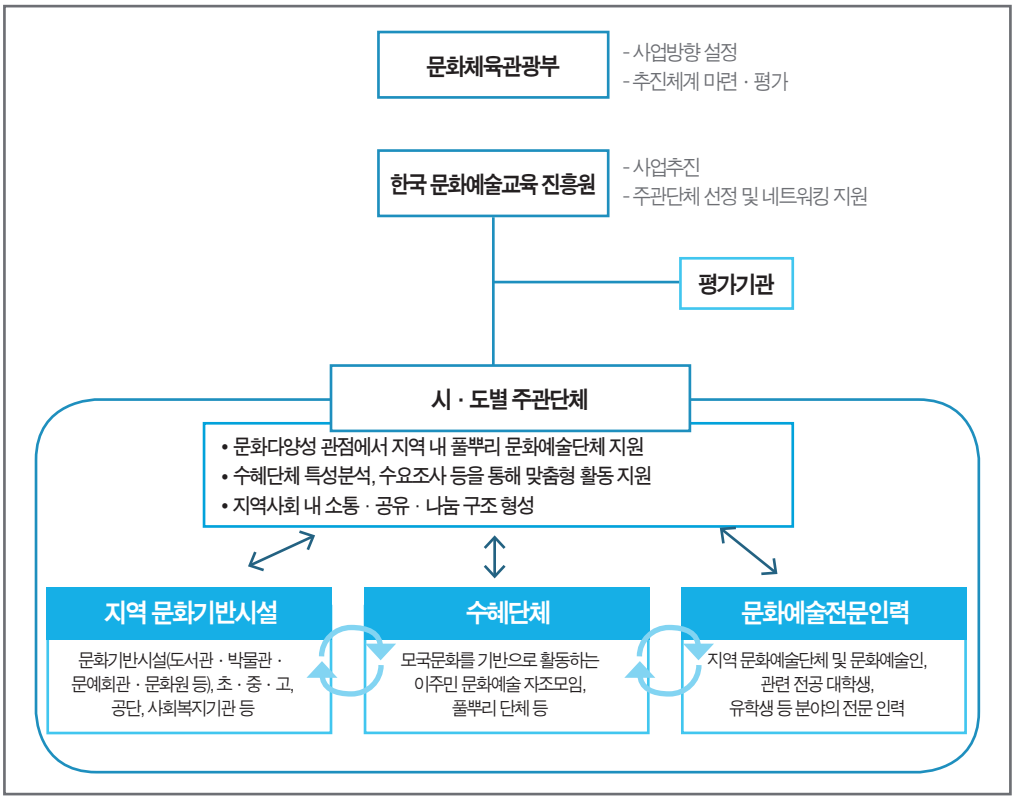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 활용 ·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다양성 관련도서 출판 지원을 2012년 3종에서 2013년 5종으로 확대하고, 홍보동영상 및 세계인의 날 특집 KBS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영상콘텐츠 7편, 홍보동영상 3편 등 총 10편 제작 지원)하는 등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였다.

사진 3-1-3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국내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진행했던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조성'사업을 확장하여 '문화다양성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 6개 지역 대상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국 12개 지역재단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국정과제로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림 3-1-6 2013년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주민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 · 전시 등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해 년도인 2012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성북,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강원,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익산, 전남 등 12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중심의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불어 문화재단 등 지역 공공문화기관이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심기반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에 적합한 사업기획이 되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다. 2013년에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수는 총 138개이며,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24,812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표 3-1-23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대구문화재단)

사업명	쉐어링 라이프 페스티벌
사업대상	이주민 /선주민
사업주요내용	향교 및 서원 등 전통적 문화유적을 이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공연, 체험, 교감 프로그램 진행
사업특징	문화다양성 실행단체간의 네트워크 극대화를 실행하였고, 대구문화재단 내에 문화다양성 사업의 특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실행됨

표 3-1-24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인천문화재단)

사업명	다양성 특강 내이름은 욤비 특강 /세계문학특강-서구와 비서구의 대화를 위하여
사업대상	중학교 재학생 /일반시민
사업주요내용	〈내 이름은 욤비〉의 저자인 욤비 토나가 관내 중학교나 도서관 등으로 직접 찾아가 특강 진행(10회) 한국근대문학관의 특성을 살리고, AALA 문학포럼과 연계해서 진행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문학을 매개로 문화다양성 시민 의식을 확산시킴
사업특징	인천이 가지는 도시적 특성을 사업적으로 풀어내어 실행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더불어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의 폭을 확대시킴

표 3-1-25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주관기관명	우수사례 사업		사업특징
부천문화재단	라운드테이블 유형 선도적 제시	경기라운드	각 지역 내 다문화기관 관련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및 지역에 따른 문화다양성 현안을 살피고 논의를 통한 사업현황 및 현황, 고민을 나눔 문화다양성이슈발굴
성북문화재단	장애인 예술 문화 다양성 영역으로의 제시	소통하는 소리 사업 중 "애이블아트"	에이블 아트 작가를 양성하는 로사이드에서 진행 장애인 미술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청년 매개자 지원 2달여간 진행한 작품을 가지고 최종 전시 및 공간연출
인천문화재단	지역소재의 문화 다양성 사업에의 적절한 활용	다양성 특강	내이름은 욤비의 저자 특강 세계문화특강-서구와 비서구의 대화를 위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문화를 매개로 확산시킨 강의

주관기관명	우수사례 사업		사업특징
대전문화재단	편집위원회 형태의 워킹그룹 형태 제시	우리 多 소식지 발간	이주민 관련 문화예술정보 제공 및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내용 소개(관련 인사 인터뷰 및 지역탐방)
대구문화재단	선주민과 이주민,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와의 축제유형제시	쉐어링라이프 페스티벌	향교 및 서원 등 전통적 문화유적을 이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공연, 체험, 교감 프로그램 진행
강원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기초조사사례	기초조사연구	-춘천:이주예술인기초조사 -원주:문화다양성기초조사 -강릉:문화다양성기초조사 5개의 컨소시엄기관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기초조사방법론 사례를 제시함
부산문화재단	워킹그룹의 액션그룹화 진행	워킹그룹운영	작년 조직되었던 워킹그룹내 멤버들이 동아리운영을 지원하고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액션 그룹화를 진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가족캠프 유형 제시	이주민 가족캠프 차차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으로 선주민의 우선적 범주를 한국계 가족으로 두고 캠프를 진행하였음
제주문화재단	이주예술인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사례	문화이주예술인 조사	문화이주자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문화이주자와 기존예술가와의 협력을 유도
광주문화재단	대상특화 프로그램 개발	- 새날학교 오케스트라운영 - 이주민밴드 - 별별탐험대(새터민)	새날학교의 중도입국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대상특화프로그램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확장시킴
익산문화재단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뮤지개 애듀터 운영	전주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모집, 웹진을 발행 향후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마련
전남문화재단	연극을 통한 문화다양성 매개인력 양성	농촌마을대상 연극교실운영	-극단 호박고구마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있는 연극동아리에서 단체로 발전 -해남연극협회의 경우 흥부전의 필리핀언어번역시나리오의 외부 초청, 필리핀 초청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임

또한, 이러한 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 미디어 소통 채널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문화다양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 외 문화다양성 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공기관 생산 자료에 접근성, 활용성,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기록관리 시스템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관련 기록물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무지개다리 사업 등 연관 사업들의 정보가 아카이브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3-1-4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3)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을 위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체류외국인 통계,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이 실시된 바 있지만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는 본격적인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조사의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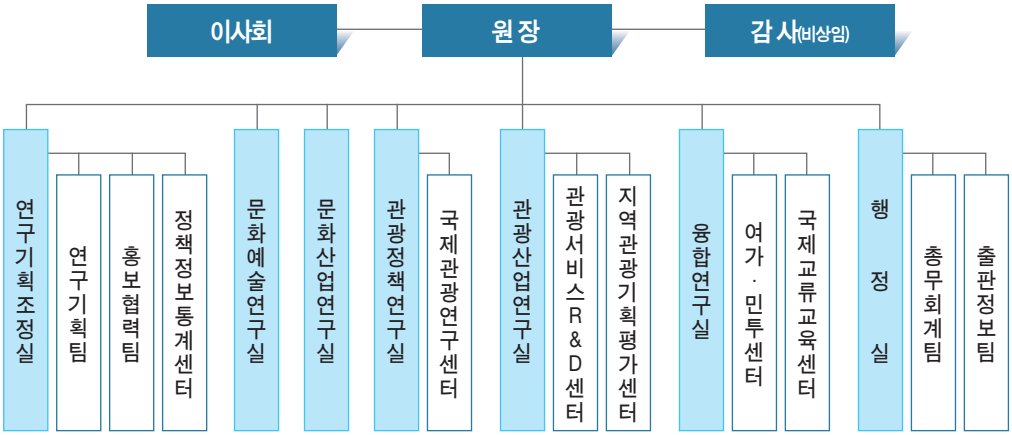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조직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문화 · 관광 분야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출범하였다. 문화 · 관광 분야의 조사 ·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문화 · 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7년 2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관광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 · 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 등이다.

2013년 말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사(비상임) 14명, 임원(상임) 1명, 감사(비상임) 1명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7개실(연구기획조정실, 문화예술연구실, 문화산업연구실, 관광정책연구실, 관광산업연구실, 융합연구실, 행정실)과 6개 센터(정책정보통계센터, 국제관광연구센터, 관광서비스R&D센터,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여가민투센터, 국제교류교육센터), 4개 팀(연구기획팀, 홍보협력팀, 총무회계팀, 출판정보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원은 기관장 포함 총 78명, 2013년 말 재직 인원은 연구직 48명을 포함하여 총 73명이다.

그림 3-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 (2013년)



(2) 문화예술 분야 주요 성과

① 연구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문화 · 관광 정책 조사 · 연구를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문화 · 관광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뢰에 의한 수탁연구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3년 문화 · 관광 분야 기본과제 및 조사 · 특별과제는 67건이 수행되었고, 수탁과제는 112건(2014년 이월과제 24건 포함)이 추진되었다.

표 3-1-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목록 (2013)

과제 종류	과제명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문화관광 융합 과제 포함)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활성화방안 연구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인력 활용방안 연구

과제 종류	과제명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문화관광 융합 과제 포함)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연구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국제문화교류 지원 개선을 위한 조직설계방안 연구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
	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예술 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 방안 연구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지역문화자원 활용 융합모델 개발 연구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 및 과제
	문화.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② 발간 사업

문화 · 관광 정책연구 및 지식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발간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문화정책논총」은 국내 유일의 문화정책 논문집으로 1988년 창간되었으며 2013년 말 기준 제27집 2호까지 발간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문화정책 현장과 학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술적 토대에서 문화정책 방향설정과 대안 제시를 선도하고 있다. 월 1~2회 발간되는 「KCTI 가치와 전망」은 월별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인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조사 · 연구 리포트이다. 2009년 「정책동향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2012년에 「KCTI 가치와 전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3년 12월까지 제29호가 발간되었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 분야 최신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웹진 「문화관광」(www.kcti.re.kr/webzine2)도 매월 발간 중이다.

③ 문화예술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연구원은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지식정보와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정책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사통계 외에도 국내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생산한 문화 관련 보도자료, 기사,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 ·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문화 정책 및 문화 현장의 동향을 널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8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예술지식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1) 국내외 문화정책 정보 및 문화현장 동향을 제공하는 문화정책정보, 2)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사통계(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여가활동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원자료와 결과보고서, 코딩북을 제공하는 문화통계정보, 3)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책정보를 심화시키고 국내외 정책방향을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콜로키움 등이다. 2013년 개최된 오프라인 콜로키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27 문화예술지식정보 오프라인 콜로키움 (2013년)

일시	장소	내용
2.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 DB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
4.13	예술가의 집	신정부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오바마 2기 및 올랑드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28	예술가의 집	신정부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의 역할과 활용 방향)
10.31	예술가의 집	문화복지인력 정책의 진단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여가사를 중심으로)
11.28	예술가의 집	문화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도 진단 (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12.11	문화체육관광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시티즌 오블리주로 (미래문화포럼과 공동 개최)

④ 포럼 및 학술대회

문화정책 연구의 고도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포럼 및 학술대회, 토론회 등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미래문화포럼'이 총 10회 개최되었고, 북한문화 동향분석 및 남북문화교류 방향 제시를 논의하는 '통일문화정책포럼'은 총5회, 여가문화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여가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다. 문화 · 관광 외에 사회 다양한 분야의 원로 및 중견 전문가로 구성된 '금낭화 포럼'(총 8명)을 구성하여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선도적인 연구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모색하였고, 2013년에는 특히 새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제시한 문화융성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연속 기획 · 추진하여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및 방향 제시에 기여하였다.

표 3-1-28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

구분	주요 내용	기간 및 횟수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 정책 연속 토론회	현장에 기반을 둔 문화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토론	5월 2,7,10,16일 (총4회)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종합 토론회	토론회 결과 '새 문화정책' 수립 반영	9월 9,10,13일 (총3회)
문화와 융합 연속 토론회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공동주최)	- 국토 · 환경정책과 문화 - 여성 · 가족의 삶과 문화 - 창조성과 문화 : 과학과 문화 정책의 결합	9월 25-27일 (총3회)
문화융성,국민행복시대의 문화정책 대토론회	새정부 문화정책과제 토론 (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토론회 연계)	11월 22일 (총1회)

이 외에도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국내 주요 학회와 각종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표 3-1-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술대회 공동개최 (2013)

학술대회 및 토론회 명칭	기간	세부내용
[한국문화정책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4.20	"문화융성 특별 대토론회"
[한국행정학회] 2013 춘계 · 동계학술대회 공동개최	4.25-26 12.13-14	(춘계) "스마트 정부와 국가경쟁력" (동계) "박근혜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
제7회 한국유럽학연합 학술대회 공동개최	5.31	"한-EU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정책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6.14	"성장과 분배: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선택"

(5) 기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문화동반자사업(CPI :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분야 인바운드 교류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은 일회적인 문화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 레지던스 사업으로서, 2005년과 2006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연수 초청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동유럽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 말까지 총 82개국에서 776명의 문화, 예술, 문화산업, 관광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참여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제2절 국어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국내외 언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어 정책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언어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 · 외국어가 오남용 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언어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가 남용되는 등 국어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영어 조기교육 등으로 국어에 대한 무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에게 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국내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원주의 언어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셋째, 국제화 · 정보화가 확산되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문화권과의 언어 · 문화 교류 강화와 정보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문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위의 언어정책 요구에 맞추어,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어정책은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으로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1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3-2-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국어정책의 주안점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국어기본법의 이념이 국민들의 국어생활 속에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어사용 환경의 여건은 그리 밝지 못하다.

첫째,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 일상화,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 · 글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둘째, 공공언어에서의 외래어 · 외국어 오남용,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증가로 우리말 체계 왜곡 등 국어사용 환경이 악화되었다.

셋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언어 소외 계층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다언어 · 다문화 사회로 변모 중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대중가요(K-pop) · 드라마와 같은 한류의 확산, 한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각국의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 결혼이민자 · 유학생 등에 의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정부 및 학계의 각종 한글 및 국어 자료 전산화 사업과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으로 국어 문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정비 여건 조성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어사용 환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어문규범 보급을 통한 언어표준화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창조 ·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언어적 소외 계층의 탈소외계층화 복지 정책, 남북 언어 및 재외 동포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가 더욱 충실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성을 높여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외래어 · 전문용어를 다듬어 언어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넷째, 한류 및 경제 성장에 힘입은 한국어 위상 제고의 호기를 맞아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다섯째, 한글박물관 건립(2010년 5월 착공, 2014년 10월 개관 예정)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확산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방형지식대사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언어 · 지식 정보의 효율적 소통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용으로 국어의 전반적 진흥을 도모한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어의 보존 · 발전에 관한 법령 · 제도 정비,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 표준화 정책,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 ·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합리적인 국어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 또한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위하여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 국어정책 수립 기반 조성

국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에 규정된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사용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국어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와 국어 의식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어사용 환경 조사는 계층별, 직업군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국어 능력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8년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을 넘어선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 국어 의식 조사는 언어 사용, 언어 교육, 언어 정책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어사용 환경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군 장병 국어 능력 실태 조사'(2008),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2009),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2010), '다문화가족 국어사용 환경 기초 조사'(2011) 등 국어정책 대상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환경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재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한국어 능력, 한국어에 대한 의식, 한국어 사용 환경 등)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한 5개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 재중 동포, 2013년에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국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의 언어 관련 각종 통계 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의 국어 정책 통계 조사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2011년부터 국민들이 통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국어 정책 통계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 언어생활 기준 마련

국민의 국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어문 규범을 연구 ·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운영 및 외국 주요 인 · 지명 표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시사성 있는 외래어 표기 및 각종 국제 대회에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 등의 용례(10년 36,000항목, 11년 20,000 항목, 12년 15,000항목, 13년 15,000항목)를 구축하고, 구축된 용례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 보급하고 있다. 어문 규범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어문 규범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2010),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2011),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문서 작성 환경에 맞추어 문장 부호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2010), '문장 부호 지침 연구 개발'(2011), 문장 부호 개선 공청회(2012),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장 부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국어심의회에서 논의하였다.

(3)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2008년 인터넷 점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이

점자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는 온라인 점자 강의(한글)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2010년에는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 자료 점역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약점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 · 과학 · 컴퓨터)를 개발하였고 점자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부호 및 특수 문자의 유니코드 점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인 '점사랑'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였으며 점역 · 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를 개발하였다. 2012년에는 2011년에 이어 온라인 점자 강의(음악 · 한글 심화 과정)를 개발하였고, 점자 콜센터의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한글 점자 규정 개정 연구, 한자 점자 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유니코드 점자 실효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영어 점자 교재 개발 등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고시된 점자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수학 · 과학 · 컴퓨터 점자 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음악 점자 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국악 점자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유니코드 점자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였다.

사진 3-2-1 온라인 점자강의 점자세상

*참고자료 : 점자세상(http://www.braillekorea.org/)

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2007년에 이어 2011년까지 꾸준히 수화 교재 〈한국 수화〉를 발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이를 토대로 교육방송(EBS)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2010년에는 수화 사전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정규 학교에서 쓰여야 할 국어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를 추진하여 해당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다. 2011년에는 일상생활 수화 및 경제 용어의 수화를 표준화하여 해당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고, 2012년에는 일상생활 수화 및 정치 용어의 수화를 표준화하여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고, 2009년에 개발한 동영상 수화 웹 사전을 증보하였다. 2013년에는 수어의 체계적 연구 · 보급을 위한 수어 발전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어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상생활 표준 수어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수어 코퍼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와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3-2-2 청각장애인용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2008~2013)

시각장애인	2008년	- 온라인 점자 학습 체계 구축(한글 점자 동영상 제작)
	2009년	- 온라인 통합 점자 학습 사이트(점자세상) 운영
	2010년	- 시각자료 점역 지침 및 약점자 효율화 연구
	2011년	-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 · 과학 · 컴퓨터 점자) 개발 - 점자 콜센터 운영 - 유니코드 점자(부호 및 특수 문자) 규정 마련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점사랑) 개선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 개발
	2012년	- 온라인 점자 강의(음악, 한글 심화) 개발 - 점자 콜센터 운영 - 한글 점자 규정 개정을 위한 실증 연구 - 한자 점자 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유니코드 점자 실효성 및 활용 방안 연구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영어 점자 교재 개발
	2013년	- 한국점자위원회 운영 및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마련 - 유니코드 점자 음성처리 실용화 연구 - 국악 점자 제 ·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수학 · 과학 · 컴퓨터 교재 개발
청각장애인	2008년	- 〈한국 수화(제2권)〉 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의료 수화, 정보통신 수화)〉 발간 - 한국 수화 연수, 한국 수화를 통한 한국어 문장 지도 방법 개발
	2009년	- 〈한국 수화(제3권)〉 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가톨릭, 기독교, 불교 수화)〉 발간 - 표준한국수화(초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 - 수화 동영상 웹사전 개발(10,000단어)
	2010년	- 〈한국 수화(제4권)〉 발간 - 국어 교과용어용 수화 사전 출간 - 한국 수화 사전 스마트폰용 앱 개발
	2011년	- 〈한국 수화(제5권)〉 발간 - 〈일상생활 수화 (4) 표준화 연구〉 발간 - 〈경제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발간
	2012년	- 〈일상생활 수화 (5) 표준화 연구〉 발간 - 〈정치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발간 - 수화 동영상 웹사전 증보(3,057단어)
	2013년	-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한국수어 코퍼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조사 -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신설

「국어기본법」제1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2월 현재 50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어책임관(중앙행정기관 43명,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219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7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명)이 지정되었다.

표 3-2-3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508명	43명	219명	17명	229명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①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등이다.

국어책임관은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공문서 바로 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 교육 과정 개설 운영, 자치법규 등 행정용어 순화, 지역민 대상 한글홍보 및 한글단체 활동 지원,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지역어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어 발전 및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상담을 담당하는 11개의 '국어 상담소'가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28일 같은 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어 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2013년 현재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총 18개소의 국어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표 3-2-4 국어문화원 지정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8	3	1	1	1	1	1	1	1	3	2	2	1

국어문화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어 상담, 국어 위탁 교육, 언어 실태 조사, 언어 사용 환경 개선, 각종 한글 관련 행사(글쓰기, 말하기, 우리말 겨루기), 국어콘텐츠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어문화 향상 프로그램 개발, 국어문화원 백서 및 운영 지침 발간, 전국문화원장 업무협의회,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해외 한국어 보급

(1)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학당' 확산

「국어기본법」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따라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하여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언어 권역 확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3-2-5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명	주요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 한국어 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협의 · 조정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표준교재 등 개발, 보급 : 다문화 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 : 국외 한국어 학습용 한국어 교재 및 지침서 개발, 보급 - 누리 세종학당(온라인학습사이트) 구축 및 운영 - 한국어 교원 양성, 재교육 및 파견 지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부여(근거: 「국어기본법」) : 국외 한국어 교사 재교육 : 한국어교원 국외 파견 - 세종학당 문화교육 등 지원

해외 한국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외교부 등 부처별로 각각 수행되어 온 특징을 가진다. 어문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에서 연구 ·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을 통해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 체류민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외교부는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에게 민족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국어,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6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교육 기관	한국문화원 (한국어교실)	세종학당	한국학교 (정규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민간자생설립)		
설립 현황	23개국 27개	46개국 93개	15개국 30개	17개국 39개	115개국 1,934개		
교육 대상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일시 체류민 재외동포 자녀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외국인, 현지 대학생		
관계 법률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재단법	한국국제 교류재단법	한국국제 협력단법
관련 기관	세종학당재단 ('12년~)		국립국제교육원 ('92년~)		재외동포 재단 ('97년~)	한국국제 교류재단 (KF) ('91년~)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91년~)
추진 목적	어문정책 주무부처로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 지원		재외국민의 평생교육과 동포자녀에 대한 모국 이해 차원의 국어 교육 지원		재외동포에게 민족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국어, 역사, 문화 등 교육	해외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우리나라와 개발도상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

각 부처의 특성에 따른 정책 추진은 대상별 특화된 이점을 가지나, 국외 한국어 교육의 지역별 편중 및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어 보급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 ·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전 세계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 ·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을 출범(2012.10.24.)하였고, 2013년 12월 기준 전 세계 52개국 120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세종학당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표준 교재 〈세종한국어〉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학당의 전략적 확대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해외 현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표 3-2-7 세종학당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 세종학당 수	3개국 13개소	4개국 14개소	6개국 17개소	13개국 23개소	24개국 41개소	36개국 68개소	46개국 93개소
수강자 수(명)	740	2,906	4,301	6,016	9,348	16,590	22,135
문화원 세종학당 수	-	-	-	-	16개국 19개소	19개국 22개소	23개국 27개소
수강자 수(명)	-	-	-	-	9,160	12,203	15,042
합계	740	2,906	4,301	6,016	18,508	28,793	37,177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국어교육 대표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운영한다. 세종학당 운영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과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9년 10월 9일을 기점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단계적 언어 확대에 따라 현재 총 11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교원들은 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은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온라인 교원 양성과정 제공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 3-2-2 누리-세종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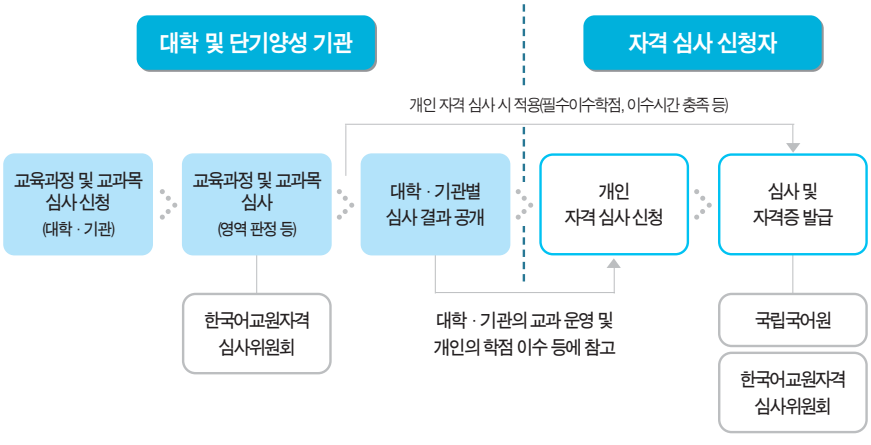
* 참고자료 : 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또한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한국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단계별, 지역별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처럼 정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교원자격제도 및 교원 연수 사업 운영

2005년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2006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제도는 기본적인 교육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과 필수이수시간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2월 31일 기준 총 11,928명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림 3-2-1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심사 체계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http://kteacher.korean.go.kr/)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매년 국외의 8개 내외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과 현지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2009년

〈한국어 교육 진흥 중기사업계획(2010-2014)〉을 수립하였고, 한국어 교육 이론 연구 및 개발,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어 교육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0년부터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 기관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 법무부 ·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원 연수 등을 개최하고 있다.

4) 한글문화큰잔치

그동안 한글날 전후로 산발적으로 행해진 기념행사를 집약적으로 모아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8년부터 한글날 기념식과는 별도로 한글날 전후 일주일을 한글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연, 전시, 체험 및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한글유공자 등 포상, 세종문화상 시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지원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전국 국어문화원 및 한글 관련 단체에서도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3-2-8 역대 한글 주간 개요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간/장소	10.4 ~ 10.11 경복궁 수정전 및 일원	10.6 ~ 10.12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올림픽 파크텔	10.4 ~ 10.10 광화문 일원 및 전국	10.3 ~ 10.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10.5 ~ 10.11 광화문 일원 및 전국	10.7 ~ 10.13 광화문 일원 및 전국
주제	한글, 피어나다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한글, 세상과 어울림	한글로 통하다	한글, 함께 누리다	한글아 놀자
대표 행사	■한글주간 선포식 ■한글 스승전 *한글순회전 (일본,11월)	■한글 공간전 *체험, 축제의 장 마련, UCC공모, 아름다운 한글 설문조사 ■세계한국어 교육자 대회 (제1회)	■글꼴 공모 · 초대전 ■한글누리 어울림마당(공연 등 부대 행사 종합 마당) *제1회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대회	■'문자는 살아 있다'전시 *세계문자의 변천사, 문자 체험 ■한글누리 어울림 마당 (공연 등 부대 행사 종합 마당)	■'톡톡한글, 누림 세상' 전시 *문자표현도구 전시 및 체험 ■한글누리 어울림마당(공연 등 부대 행사 종합 마당)	■ '한글 꽃, 한글 꿈' 전시 *한글을 활용한 작품 체험 전시 ■한글문화큰잔치의 밤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 마당)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디자인						

표 3-2-9 세종문화상,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개요

	세종문화상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주요 내용	○ 목적 :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위업을 계승하고 문화 창달 장려 ○ 대상 :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 부문 :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협력 · 봉사, 문화다양성 5개 부문	○ 목적 : 한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위업을 계승 ○ 대상 : 한글의 진흥과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 ○ 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목적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세계 문해율 향상에 기여 ○ 대상: 개발도상국의 모국어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유네스코 본부에서 시상(공적 개발원조(ODA)사업)
2013년 수상자	○ 한국문화 : 캐슬린 스티븐스 ○ 예술 : 박인자 ○ 학술 : 마크 오랑주 ○ 국제협력 · 봉사 : 차인표, 신애라 ○ 문화다양성 : 다음세대재단	○ 금관 문화훈장 : (故)김형규 ○ 보관 문화훈장 : 로버트 램지 ○ 문화포장 : 이병근 ○ 문화포장 : 김영수 ○ 문화포장 : 발단도르지 수미야바타르 ○ 대통령표창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 대통령표창 : 허선행 ○ 국무총리표창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무총리표창 : 베를린한글학교 ○ 국무총리표창 : 야마시타 마코토	○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국립문맹퇴치국의 '삭사르바랏 미션' ○ 차드공화국 구에라 지역의 모국어 문해 프로그램

5)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2009년 '쉽고 살아있는 사전 편찬' 계획이 대통령 보고된 이후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구축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되었다. 2009년 국립국어원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의 회의를 개최('09.8.26.~'13.2.4.)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 실무 소위원회를 6회 개최('09.9.17.~'11.3.30.)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 · 보완하였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기존 사전의 풀이가 어렵고 기존 사전에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정보가 많이 빠져 있으며 정보 · 지식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풀이를 쉽게 수정하고 신어 및 생활용어, 방언, 전문용어 등 실생활 용어를 대폭 확충하여 이를 위키피디아 사전처럼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자료 감수단 운영 등으로 사전 내용의 질이 관리되는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 만들어 일반 국민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등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5만 항목 규모의 한국어 학습용 기초사전을 만들어 2012년 10월 9일부터 한국어기초사전 사이트(http://krdic.korean.go.kr) 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를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외국어 사전 형태의 다국어사전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의 5개 언어로 대역한 다국어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항목도 활용하되 기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언어 지식의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전략으로 기획되었다.

표 3-2-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현황 및 추진 방향

이전 현황(표준국어대사전, 일반 인터넷 사전 등)		추진 계획
한정된 표준어, 규범 정보 중심		모든 (한)국어 정보의 수집, 축적
실생활 언어 정보 미흡		신어, 방언, 전문어 대폭 확충(구 단위 형태 포함)
전문가 중심 사전 편찬 체제	▶	일반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인터넷 사전 등에 미검증 언어 정보 난립		자료 감수단 구축, 운영
한국어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구축
전문어 설명, 맞춤법 설명 등의 언어와 관련된 부가적인 지식 정보 부족		어휘 역사 정보, 지식 정보, 국어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언어 지식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 지향

2010년~2013년까지 총 125억 원('10년:18.3억 원, '11년:40억 원, '12년:38억 원, '13년: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국어와 한국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수집, 구축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한국어 지식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용화, 상용화하게 되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등을 위한 다국어사전 개발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표 3-2-11 2010년~2013년 추진실적

분야	추진 내용	소요 예산 (백만 원)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 실생활어를 포함한 50만 항목 추가 구축(총 100만 항목) • 생활용어, 신어, 방언 등 16만 항목 확대 구축 • 전문용어 34만 항목 확대 구축 - 쉽고 입체적인 사전을 위한 다각적 정보 구축 • 어휘 역사 정보 5,000항목 구축 • 쉬운 풀이 및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 • 비슷한말, 반대말, 상 · 하위어 등 관련어 정보 3만 항목 정비 구축 • 규범 정보 기획, 설계 및 500항목 시범 구축 •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	6,262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개방형 사전 설계, 서비스 정책 수립 - 어휘 정보 수집, 분석, 추출, 등록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찬 관리, 검색, 활용, 유통 시스템 구축 - 이용자 협업 및 감수 지원 시스템 개발	3,035

분야	추진 내용	소요 예산 (백만 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국어사전 구축	-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용 기초사전 구축(5만 항목) - 한국어기초사전을 대역한 다국어사전 구축 및 언어별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5개어 대역 및 검색 시스템 구축 완료 •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5개어 각 16,800항목 구축	3,198

(2) 국어 및 한글 문화유산의 집대성을 통한 정보화 및 체계화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우리 문화를 만들고 후세에 전할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한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집대성, 보존하고자 2001년부터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글 자료를 수집 · 정리,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 '학술 정보관' 등의 전시관에 한글문화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한글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총 8회의 디지털 한글 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한글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2011년부터는 고전 국역 결과를 중심으로 옛 문헌에 쓰인 한자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옛 문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 구축 사업을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문헌의 이본 및 소장처 정보, 영인본, 역주서, 연구 논저 정보를 구축하여 이들 정보와 함께 문헌 원문 이미지와 원문 입력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 검색 시스템을 디지털 한글 박물관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사진 3-2-3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 '언어 정보 나눔터'

*참고자료 : 디지털 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언어정보나눔터(http://ithub.korean.go.kr)

그리고 2007년에 마무리된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5회의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어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언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수준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해 왔다. 또한 2013년부터는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언어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간 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hub.korean.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6)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국민의 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등을 익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알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원내 국어전문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였다. 또 국어문화학교 교육 과정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을 신설하여, 국어 능력 향상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2013년에는 총 3만 6천여 명이 국어문화학교 교육을 수강하였다. 국어전문교육과정인 정규과정, 특별과정 및 기획과정을 통하여 약 1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서도 약 2만여 명이 교육을 들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우리말 교실' 및 '쏙쏙 국어교실' 운영하여 약 5천3백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우리의 어문규범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에서 '한글 맞춤법', '훈민정음의 이해' 등 총 13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일반 국민 외에도 언어 소외 계층의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어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교재를 발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쏙쏙 국어 교실' 운영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서 123회에 걸쳐 운영하여 이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어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교육 이외의 상담 서비스도 국립국어원 내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국어 관련 상담 업무(전화 상담 98,543건, 온라인 상담 23,199건, 트위터 상담 18,041

건)를 수행하였고 온라인 상담 자료를 정리하여 네이버에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욕설 문화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을 기점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고운 입, 미운 말' 을, 2012년에는 관찰 다큐멘터리 '쉿, 욕 없는 교실 만들기'를 제작 · 방영하였고 디브이디(DVD)로 만들어 전국 각급학교 및 유관단체에 보급하였다. 또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로서 소책자 형태의 교육용 자료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11),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12)을 만들어 역시 전국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모음집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12)를 발간 · 보급하였다. 청소년 언어문화가 저속화된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해 2012년에는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또래문화의 압력, 영화 등 일부 대중매체의 영향, 가정 및 부모의 영향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줄거리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 중 3편을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2) 공공언어 개선 지원 및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할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 즉 공공언어가 아직 난해하고 낯선 한자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행정, 방송, 교과서 및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국어 전문감수단이 600여 건(200자 원고지 약 2.5만 매 분량의 문서 및 용어 6000여 개)의 각종 공문서를 감수하였다. 그리고 방송언어 실태 조사('12.5~9월)를 토대로 '방송의 저 품격 언어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12) 방송언어 종사자와 국민 일반에 방송언어의 실상과 일부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12) 또한 매체언어 개선사업('13)을 통하여 방송언어 종사자에게 방송언어의 실상과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우리말사랑 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13)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난무하는 우리말 파괴현상을 주목하고 언어 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12) 보고서를 발간하여 일선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신문 언어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각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국정 및 검정 교과서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작업에 있어 국어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표기 · 표현을 책임 감수하였다. 그리고 최근 자주 쓰이는 외국어나 외국어 수준의 외래어 중 국민의 언어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어휘를 대상으로 누리꾼들의 제안을 고려하여 순화대상어를 선정하고, 순화어 선정 기준(개념 환기력, 간결성, 조어 방식의 적절성 등)을 마련하여 2004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47개의 어휘를 순화하였다.

그리고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이 시작하게 되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졌지만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 국어의 오 · 남용과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 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화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이 출범(2013.12.18.)하게 되었고, 규범과 일본어투 용어 청산 중심의 정화(순화) 운동을 넘어, 언어의 유희적 속성과 문화 창조력, 디지털 언중의 감성을 고려한 다양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3-2-12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2013.12.18. 출범] www.urimal.kr
* 한글 · 국어, 방송 · 인터넷, 교육 · 청소년, 네이버 · 다음 · 구글 등 1,516개 단체 참여
* 배우 안성기, 디자이너 이상봉, 가수 카라 박규리 · 한승연, 개그맨 김준호, 8개 방송사 아나운서 11인 등 19명 '우리말 수호천사' 로 위촉

안녕! 우리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공용어 번역 관리 체계 부재로 기관별 별도 번역이 추진됨에 따라 번역 및 기준이 불일치하여 공공용어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3년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한식 표준 번역어를 확정하여 보급하였다.

(3) 공공언어 품질 향상 지원 체계 구축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가 국민을 상대로 구사하는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담당케 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우리 언어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기안문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09),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11)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고, 2010년에는 공공기관별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언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인 '공공언어 진단 기준' 을 개발하였다.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이 지표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언어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우수기관 6곳(중앙행정기관 3곳, 지방자치단체 3곳)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연중 보도 자료를 상시 점검하여 국어기본법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에 어긋나는 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강구하여 2011년에는 98건을, 2012년에는 73건, 2013년에는 222건의 개선 권고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각급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언론의 우리말도 정책과제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연 6회 개최하였다.

3 국립국어원

1) 조직 현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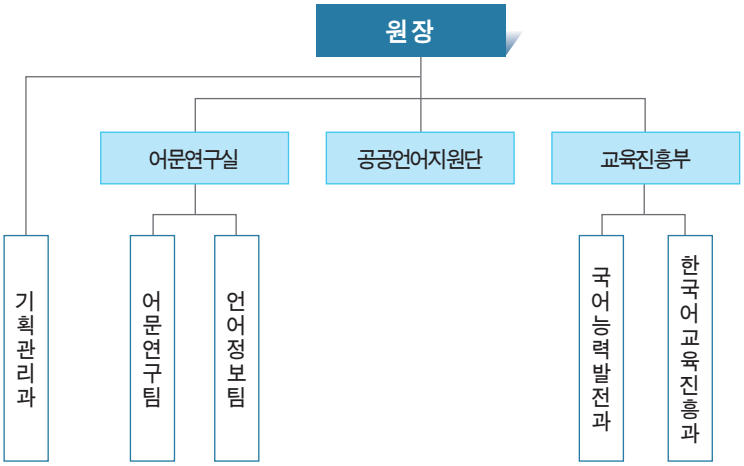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사, 정비하여 언어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정비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국민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 연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원은 1984년 학술원 산하의 임의 기구로 개소한 '국어연구소'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화부 창설과 함께 1991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서울 운니동 청사에서 개원하여 2000년 지금의 서울 방화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4년 업무 범위 조정을 포함한 직제 개정과 함께 지금의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환경 개선과 국민의 소통 능력 강화, 언어 정보 관리 및 사전 편찬,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한국어 교육 수준의 제고와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말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국민과의 국어 상담 창구를 넓혀 나가는 한편 표준국어대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사업을 통하여 표준적인 언어 정보와 다양한 언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공무원, 교사 등 각계각층의 사회인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원 연수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어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개원 당시 1과 3부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2013년 현재 어문연구실에 소속된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교육진흥부에 소속된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와 별도 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공언어지원단, 기획운영과 등 1실 1단 1부 3과 2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은 학예

직 및 별정직 24명, 일반직 16명, 기능직 5명으로 총 45명이다.

그림 3-2-2 국립국어원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누리집(홈페이지) : www.korean.go.kr

2013도 세출예산은 146억 77백만 원으로, 사업비 117억 원, 인건비 26억 원, 기본경비 등 3억 원이다.

(2) 추진 사업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 분석, 국어정보화와 사전 편찬을 통한 언어 정보 체계화, 국민이 실감하는 국어 환경 개선, 국민의 국어 능력 강화,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어문연구실에서는 언어 규범 정비를 통한 의사 소통 환경을 개선하고 한민족 언어 통합 및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어, 외래어 심의 및 용례 구축,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남북 언어 연구 및 교류, 방언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언어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언어 정보 나눔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공공언어지원단에서는 국어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언어 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 용어와 외국어, 외래어 등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 언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으로 국민의 언어 문화 및 언어 의식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교육진흥부에서는 공무원,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일반 과정뿐 아니라 국어책임관, 북한이탈주민, 국어 교사, 대학 강사 등을 위한 특별 과정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고 보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짜장면' 등 흔히 사용하는 비표준어 3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정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10), 런던 올림픽('12) 및 월드컵 축구대회('10), 대구 세계 육상대회('11) 등 주요한 국제 행사 시 외국 사람들의 인명, 지명에 대한 표준 표기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여 표기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 사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규범 위주의 사전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에 신어, 방언 등 언어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여 1단계('10~'12) 작업을 마치고 교정, 교열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 정보화를 위하여 역사 문헌 데이터베이스화, 우리말 기능성 게임대회 및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언어 정보 나눔터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우리말 정보의 체계화와 광범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인데 이러한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약 400여 건의 공공기관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감수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밖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와 국정교과서 감수, 방송 프로그램의 부적절 언어 표현 개선 권고 작업을 통해 한국어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연 18회(2,300여 명)의 정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새터민, 일반인 등을 위한 특별, 기획과정 161회(6,379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350회(31,175명)를 운영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이외에도 온라인 국어문화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등 10개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88군데의 아동들을 지원하여 2,120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았다.

한류 등으로 나날이 그 위상이 커져가고 있는 한국어의 국내외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종학당과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누리-세종학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학당 교재 등 국내외 표준 교육 자료 47종과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19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어 문법 · 표현 및 어휘 내용을 개발하는 등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다.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3년까지 8,811명이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310명, 국외 1,000명에 달하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연수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따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어 정보 통합 지원 체계를 설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대상 및 개설 과정을 다양화하고 한국어 교원의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3-2-4 국립국어원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등 사회 환경 변화로 국민의 문화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수준 및 국민의 문화향수 수준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장기적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지역문화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신한류의 창조 동력으로서 한복, 한지, 한국적 공간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자원이 재조명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우리 전통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을 민족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발전 · 계승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자 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 문화 · 체육 · 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과제로 수요측면에서 생활권 단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을 갖추고자 추진한 대표적인 주요정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지역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자료로 '지역문화 통계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문화체육관광부문의 예산, 시설, 관련 산업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집계 · 분석되어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었다.

둘째,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지역거점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광역권별 특성과 국가적 파급효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경주, 전주와 공주 · 부여에 각각 고유의 역사 ·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 공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넷째,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문화 행정가와 민간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관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현대적 재창조를 시도하고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민족문화정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던 민족문화정책은 2011년 6월 직제개편(2011.6.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의 삶 속에 전통 · 민족문화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과로 이관되었다. 즉, 국어민족문화과를 국어정책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과를 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전통 · 민족문화를 효과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해서 한스타일 사업,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동상 · 영정 심의위원회 운영, 한국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동학농민혁명의 재평가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특히 일상의 삶 속에 민족문화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형 콘텐츠 홍보 강화 및 스토리테마파크 구축과 같이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국민이 민족문화 원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통해 민족 고유의 무릎교육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하였고 전통의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였다.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1)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가.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자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별 운영현황은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시설개소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록된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12. 12. 31 이다.

○ 공공도서관 : 시설규모, 자료현황,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 등록박물관 :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료현황, 관람료, 운영프로그램 등
○ 등록미술관 :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료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 문예회관 :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인력현황, 공연일수, 운영실적 등
○ 지방문화원 : 인력현황, 예산현황, 시설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 참고자료 : 문화의집 및 문화재단 현황
○ 문화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3개 시 · 도에 문화시설의 35.9%가 분포

표 3-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개소)

구분	시 · 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1	서울	299	116	110	32	16	25
	부산	76	31	16	5	10	14
	대구	61	27	14	3	9	8
	인천	78	36	22	4	8	8
	광주	46	17	10	7	7	5
	대전	51	22	16	5	3	5
	울산	29	12	8		4	5
	세종	6	1	3		1	1
	경기	406	184	127	36	28	31
	강원	167	47	74	10	18	18
	충북	111	36	43	7	13	12
	충남	132	50	43	8	15	16
	전북	117	49	34	3	17	14
	전남	162	59	44	18	19	22
	경북	180	62	63	7	25	23
	경남	160	58	55	8	19	20
	제주	101	21	58	18	2	2
	총계	2,182	828	740	172	214	229

구분	시 · 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2	수도권	783(35.9)	336	259	72	52	64
	지방	1,399(64.1)	492	481	99	162	165
	계	2,182(100%)	828	740	171	214	229

나. 지역문화 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의 핵심기반으로 인력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활동여건과 재교육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지역문화 행정인력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지역문화 기획 · 창작 분야 민간 활동가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행정가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인력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지역문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연수와 해외 연수로 이분화 하여 연수 과정의 효과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예비인력 양성과정, 지역화 공간포럼 크게 3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367명이 수료 · 참여하였다. 이처럼 국내 · 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하여 관련 종사자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기획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산어촌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농어촌마을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자 2010년부터 '문화이모작–농어촌마을문화심기'사업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MOU 체결(2010.5.6) 하여 농산어촌 마을 대상으로 농어촌 문화리더과정, 문화이모작 시범마을(강진, 영덕), 문화 배달부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는 인력양성사업인 '문화이모작–농어촌마을문화심기'의 기초이론교육, 심화 기획서 작성 워크숍, 실습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으로 정비되었다.

2012년부터 지역문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여 강원, 충청, 전라, 경상 4개 권역별로 문화이모작 기초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중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문화이모작 집중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작성된 계획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 스스로 생활문화를 발굴 · 발전시킬 수 있는 내발적 구조로 정착되었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생력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3-3-2 문화이모작 운영실적(2013)

사업 명	운영실적	기간	장소	비고
문화이모작 기초과정	강원, 충청, 전라, 경상 4개권역 기초교육과정, 148명 수료 2박3일 교육	2013.4~6	4개 지역	춘천시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이모작 집중과정	심화교육과정, 68명 수료 2박3일 교육	2013.7	경기 용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18개 기획사업 지원 -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 교동 · 효자동,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강릉시 사천해변, 원주시 행구동, 충북 청원군, 영동군 - 충남 서산 지곡면 중앙리 - 전북 김제시 용골마을, 장수군 동동마을, 전남 구례군 난동마을, 순천시 - 경북 칠곡군, 영천시	2013.8~11	18개 지역	-
문화이모작 성과공유포럼	문화이모작 교육과정 성과 결과발표 및 수상 등	2013.12	서울	-

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툴 개발 등을 컨설팅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 · 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 · 평가라는 상향식(Bottom-up) 사업절차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진흥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05년 14개 사업, 2006년 16개 사업, 2007년 20개 사업, 2008년 16개 사업, 2009년 17개 사업, 2010년 15개 사업, 2011년 14개 사업, 2012년 13개 사업, 2013년 1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 평가 결과, 우수 컨설팅 사업 2개를 선정하여 활용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간 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지역의 대학 · 문화재단 · 문화예술전문가(단체) · 지자체 공무원이 컨설팅 팀을 운영하여 6개 시 · 도 13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문화정책개발, 문화시설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수행하였으며, 추진 실적에 따라서 2개의 우수과제를 선

정하였다. 부천시(부천문화재단)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이 최우수 과제로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 송악 창조마을 조성 ·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대학, 문화예술가(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3-3-3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3)

년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규모	138개	14개	16개	20개	16개	17개	15개	14개	13개	13개
예산(백만 원)	4,084	500	500	481	433	470	448	430	429	393

라. 지방문화원 : 지역거점의 역할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지역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사대중화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등 지방문화원 종사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3년 말 현재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다음 〈표 3-5-4〉와 같다.

표 3-3-4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지역	문화원명
서울(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구로, 서초
부산(14)	동래, 북구, 금정, 강서, 연제, 사상, 기장, 부산진, 남구, 수영, 동구, 서구, 영도, 사하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 달성, 수성
인천(8)	중구, 연수, 부평, 서구, 강화, 남구, 남동, 계양

지역	문화원명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울주, 북구
경기(31)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강원(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12)	충주,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충남(16)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천안 동남구, 천안 북구
전북(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2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2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2)	제주, 서귀포
세종(1)	세종
계(229)	

표 3-3-5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5~2013)

(단위: 천원)

년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05 (국고)	시설비	문화원 4	480,000	4개원(홍천, 춘천, 고성, 사천)
	계		480,000	
2006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1,819,000	12개원(춘천, 속초, 철원, 제천, 옥천, 음성, 천안, 여수, 울진, 함안, 고성, 거창)
	계		1,819,000	
2007 (국고)	시설비	문화원 16	2,899,000	16개원(안양, 삼척, 영동, 서천, 청양, 여수, 구례, 보성, 영암, 곡성, 진도, 성주, 영주, 함안, 거창, 진해)
	계		2,899,000	

년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08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109,000	12개원(대전 중구 · 유성, 삼척, 보은, 광양, 담양, 보성, 곡성, 영천, 울릉, 거창, 양산, 창원)
	계		4,109,000	
2009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298,000	12개원(대구 달서, 대전 서구, 군포, 하남, 고양, 춘천, 대천, 보성, 경산, 창원, 양산, 거창)
	계		4,298,000	
2010 (국고)	시설비	문화원 10	5,056,000	10개원(대전 서구, 군포, 고양, 의정부, 삼척, 보령, 영양, 영덕, 사천, 합천)
	계		5,056,000	
2011 (국고)	시설비	문화원 13	6,661,000	13개원(고양, 의정부, 양평, 동해, 영월, 옥천, 영동, 증평, 군산, 영양, 창원, 통영, 합천)
	계		6,661,000	
2012 (국고)	시설비	문화원 10	5,190,000	10개원(동두천, 포천, 동해, 양구, 홍천, 부여, 고창, 완도, 고령, 통영)
	계		5,190,000	
2013 (국고)	시설비	문화원 7	3,515,000	7개원(부천, 홍천, 완도, 고령, 칠곡, 통영, 김해)
	계		3,515,000	

※ 현재 문화원 시설비 국고 보조율 40%임(부지매입비 제외)

향토사는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다. 향토사의 올바른 발굴과 연구, 학습이 있어야만 전통문화의 올바른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 · 계승 · 보존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통해 2007년부터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 11개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 28개 프로그램, 2009년도 46개 프로그램, 2010년과 2011년도 2012년도 53개 프로그램, 2013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진 3-3-1 2013년 향토사대중화사업

성동문화원 '가도가도 왕십리'

청주문화원 '산성을 지켜라 둥둥둥'

출처 : 성동 · 청주 문화원 제공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실버문화학교)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 · 가치 지향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도 51개 프로그램, 2007년도 76개 프로그램, 2008년도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9년도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하여 137개 프로그램을 운영, 2010년도 170개 프로그램, 2011년도 202개 프로그램, 2012년도 341개 프로그램, 2013년도에는 4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진 3-3-2 2013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안성문화원 '실버벽화단'

무안문화원 '시니어풍물패'

정읍문화원 '어르신 다도교실'

원주문화원 '우쿨렐레'

표 3-3-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2005~2013)

년도	기간	사업 수행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2005	2005. 10 ~ 2006. 2	10개 문화원	10개 시범 프로그램	364명
2006	2006. 5 ~ 2007. 1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	1,723명
2007	2007. 4 ~ 2007. 12	76개 문화원	76개 프로그램	2,593명
2008	2008. 4 ~ 2008. 12	100개 문화원	100개 프로그램	3,522명
2009	2009. 4 ~ 2009. 12	137개 문화원	137개 프로그램	4,740명
2010	2010. 5 ~ 2010. 12	134개 문화원	170개 프로그램	5,841명
2011	2011. 3 ~ 2011. 12	149개 문화원	202개 프로그램	7,037명
2012	2012. 3 ~ 2012. 12	198개 문화원	341개 프로그램	11,804명
2013	2013. 3 ~ 2013.12	193개 문화원, 70개 농어촌 마을	449개 프로그램	13,872명

표 3-3-7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2009~2013)

년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권역별 어르신문화 축제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	어르신 문화교류 활성화	총계
		전문 강사	어르신 이수자							
2009	137개	-	-	-	-	-	-	-	-	137개
2010	105개	15개	16개	26개	8개	-	-	-	-	170개
2011	101개	20개	9개	42개	13개	17개	-	-	-	202개

년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권역별 어르신문화 축제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	어르신 문화교류 활성화	총계
		전문 강사	어르신 이수자							
2012	157개	28개	9개	62개	14개	35개	6개	30	-	341개
2013	154개	28개	5개	70개	11개	43개	14개	70개	54개	449개

변화하는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경영과정(초 · 중 · 고급과정)'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장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단계별 교육목표 및 대상이 명확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문화원 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원 간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직급별(원장, 국장)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마.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 지원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47개관), 박물관(11개관), 미술관(8개관), 문예회관(22개관) 등 2013년 문화시설 확충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켰다. 201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2,182개로 인구 100만 명 당 평균 42.8개의 문화시설이 있었다. 지역별 인구 100만 명 당 시설 수를 살펴보면 제주 173개소, 강원 108개소, 전남 8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31개소, 지방 54개소 등으로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인구 100만 명 당 공공문화시설 수

(단위: 명,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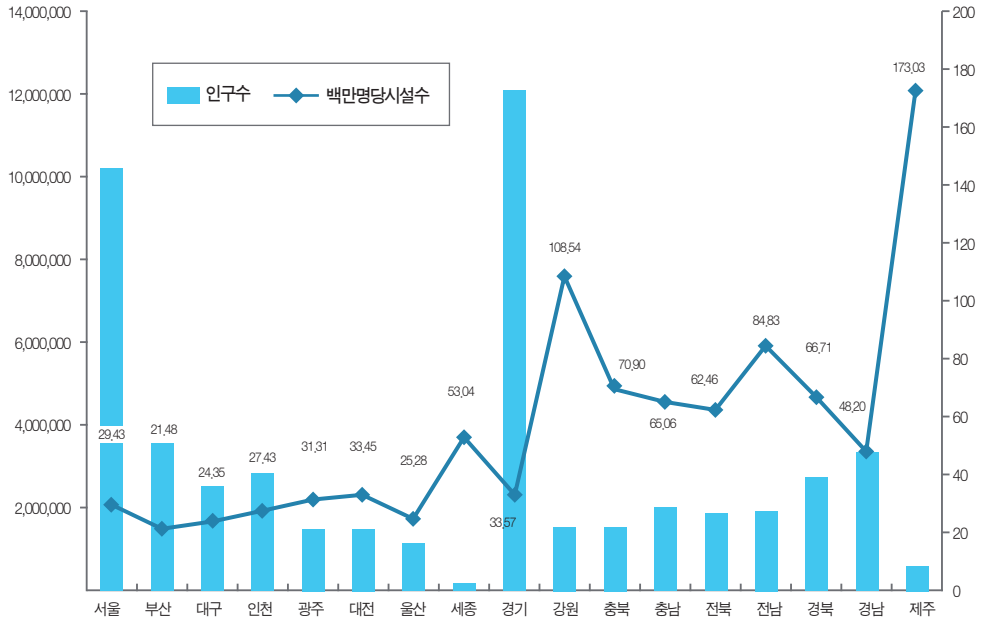


표 3-3-8 지역별 인구수 및 공공문화시설 수

구분	시 · 도	인구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지역1	서울	10,195,318	29.33	11.38	10.79	3.14	1.57	2.45
	부산	3,538,484	21.48	8.76	4.52	1.41	2.83	3.96
	대구	2,505,644	24.35	10.78	5.59	1.20	3.59	3.19
	인천	2,843,981	27.43	12.66	7.74	1.41	2.81	2.81
	광주	1,469,216	31.31	11.57	6.81	4.76	4.76	3.40
	대전	1,524,583	33.45	14.43	10.49	3.28	1.97	3.28
	울산	1,147,256	25.28	10.46	6.97	0.00	3.49	4.36
	세종	113,117	53.04	8.84	26.52	0.00	8.84	8.84
	경기	12,093,299	33.57	15.22	10.50	2.98	2.32	2.56
	강원	1,538,630	108.54	30.55	48.09	6.50	11.70	11.70

구분	시 · 도	인구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지역1	충북	1,565,628	70.90	22.99	27.47	4.47	8.30	7.66
	충남	2,028,777	65.06	24.65	21.20	3.94	7.39	7.89
	전북	1,873,341	62.46	26.16	18.15	1.60	9.07	7.47
	전남	1,909,618	84.83	30.90	23.04	9.43	9.95	11.52
	경북	2,698,353	66.71	22.98	23.35	2.59	9.26	8.52
	경남	3,319,314	48.20	17.47	16.57	2.41	5.72	6.03
	제주	583,713	173.03	35.98	99.36	30.84	3.43	3.43
	총계	50,948,272	42.83	16.25	14.52	3.36	4.20	4.49
지역2	수도권	25,132,598	31.15	13.37	10.31	2.90	2.07	2.55
	지방	25,815,674	54.19	19.06	18.63	3.83	6.28	6.39
	총계	50,948,272	42.83	16.25	14.52	3.36	4.20	4.49

바. 창의적 문화 공간 조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분야 BTL사업을 개선 추진하였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2]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분야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민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수한 공공서비스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3년까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 문화시설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31개 사업(7,375억 원)을 임대형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추진된 10개 사업, 2006년 학교복합화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 모두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2007년에는 부산화명 · 다대도서관, 개봉초등학교복합화 시설 등 5개소가 준공 및 운영되고 있다. 2008년 6개 추진사업 중 학교복합화 3개소가 준공 및 운영되었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협상 완료, 익산복합문화센터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의왕문화예술회관은 협상 진행 중으로 2014년에 협상 완료될 예정이다. 2011년 추진사업인 정관도서관은 2013년에 협약 완료되어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5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최초 단계(한도액 반영)부터 콘텐츠 확보, 규모의 적정성, 활용가능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등 심의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문화시설의 경우 신설보다는 기존시설 리모델링, 유휴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 BTL : 민간이 자금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함.

표 3-3-9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13)

(단위: 억 원, 2013년 12월 말 기준)

년도	사업명	투자액/ 고시액/한도액	고시완료	협약완료	착공	준공
2005	부평문예회관	393	●	●	●	●
	대구시립미술관	557	●	●	●	●
	제주도립미술관	182	●	●	●	●
	인천시립도서관 (미추홀도서관)	215	●	●	●	●
	파주교하도서관	112	●	●	●	●
	강진 문화 복지 종합타운	461	●	●	●	●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197	●	●	●	●
	경주문화예술회관	724	●	●	●	●
	안동문화예술회관	496	●	●	●	●
	제주종합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9	●	●	●	●
2006	울산시립박물관	473	●	●	●	●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148	●	●	●	●
	천안북부도서관 (두정도서관)	136	●	●	●	●
	천안생활체육공원	140	●	●	●	●
	계룡 복합 문예회관	237	●	●	●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28	●	●	●	●
	완도맞춤형 복합 문화센터	168	●	●	●	●
	신도림고등학교 복합화	30	●	●	●	●
	중리초등학교복합화	51	●	●	●	●
2007	부산화명/다대도서관(2개소)	115	●	●	●	●
	아산실내생활체육관	259	●	●	●	●
	천안종합문예회관	674	●	●	●	●
	개봉초등학교 복합화	15	●	●	●	●
200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31	●	●		
	의왕문화예술회관	425	●			
	익산 복합 문화센터	369	●	●	●	
	엄궁 초등 학교복합화	17	●	●	●	●
	신전중학교복합화	43	●	●	●	●
	사남 초등 학교복합화	19	●	●	●	●
2011	정관도서관	101	●	●	●	
계	31개소	7,375				

사.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 ·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온 결과를 반영하듯 지역 공공문화시설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지적받아왔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도 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3년 5월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 · 운영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 · 건립 · 운영 · 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첫째로 인구규모, 인구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현황을 감안한 건립, 둘째로 문화시설의 입안 및 건립계획 수립 시 전통공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있도록 한국적 공간의 적용, 셋째로 건립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넷째로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다.

문화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먼저 기존시설의 용도전환, 연계 및 재활용을 통한 신규시설 투자 억제 및 운영활성화 모색, 둘째로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셋째로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문화시설의 대외 홍보강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 및 자체점검 평가의 시행 등이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우수, 실패사례 및 지자체 평균시설규모 등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관리 · 제어 · 환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2) 지역문화브랜드 육성

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전통시장이 단순한 유통과 구매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소중한 생활문화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곧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퇴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전략을 2008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수원 못골 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선정,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 되도록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작이다.

그림 3-3-2 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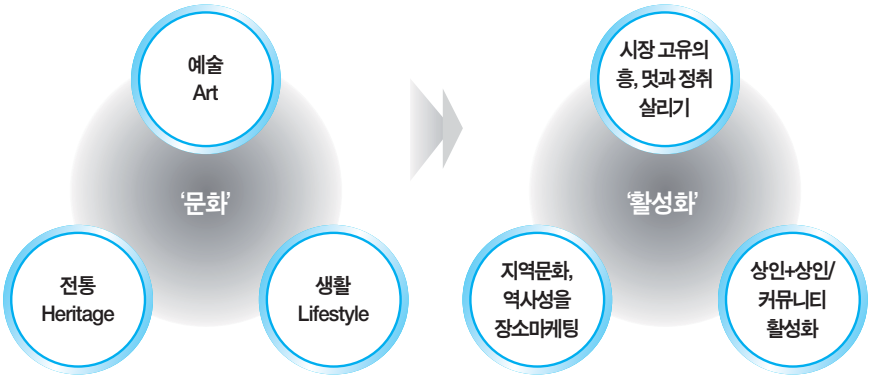


표 3-3-10 수원 못골시장 · 강릉 주문진 시장 문화 프로그램

수원 못골 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 라디오스타 (스토리텔링, 온에어, 미디어 등) ○ 경제 학교, 만 원으로 만드는 요리교실 등) ○ 5村1場축제, 이야기 상점 87, 못골 휴식 터	○ 동해안 풍어제, 상인극단, 옥상극장 ○ 상인, 주민, 고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 홍보마케팅, 주문진의 맛과 멋 등

'08년 첫 시범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선(先) 맞춤형 컨설팅, 후(後) 사업추진」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컨설팅단은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정책방향 자문, 시범시장 선정, 사업진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08년 2개의 시범시장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09년 서울 강북 수유마을시장, 전남 목포 자유 시장, 충남 서천 한산오일장, 대구 중구 방천시장 등 4개 시장을, '10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시장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청과 '09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년 2개 시장을 공동으로 선정 ·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시장 뿐 아니라 5일장, 아트마켓, 시장문화 공동체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여 9개 신규 시장을 선정, 총 22개 시장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문화장터 2개소 및 2010년과 2011년에 선정된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17.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의 마지막 해였던 2013년에는 기존 선정 시장 5개소에 대해 2.5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3-3-11 연도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지원 시장 수	신규	2개	4개	10개	9개	2개	0개	27개
	계속	-	2개	6개	13개	12개	5개	-
	계	2개	6개	16개	22개	14개	5개	27개 (누적65개)
지원 예산		10억	12억	38억	35.85억	17.72억	2.5억	115.17억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 총 75명의 문화 인력이 양성 · 배출되었고, 총 330개의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시스템 정립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재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내 공간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지역'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나갈 수 있다. 지역의 공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축적된 노하우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거리', '마을'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에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데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성과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 유형별 성공적인 모델사례를 분석하여 추진과정과 장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장에 문화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국내외 시장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다른 "사람냄새"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정책모델이 발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문화의 달 행사 개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그 기간 중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여왔으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동 조항이 이관되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러져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느끼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종합 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2004년 광주, 2005년 전주, 2006년 제주, 2007년 부산, 2008년 청주, 2009년 인천, 2010년 목포, 2011년 강릉, 2012년 충남 서천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문화융성시대 원년의 해를 맞아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 개최하였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함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적 면모를 보여 주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진 3-3-3 2013년 문화의 달 행사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http://culturenori.tistory.com)

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2013년 지역특화 문화행사로는 영월 단종문화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계룡 軍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였다.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단종문화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릉에 제향을 올리는 행사로 제례와 놀이, 굿이 갖추어진 전통문화 축제로 가치를 높이고, 2007년 단종 승하 550년 만에 거행한 단종 국장(國葬)을 단종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장(國葬) 재현' 행사로 특성화하였다. 2013년 행사는 4월 26일에서 4월 28일까지 장릉, 동강 둔치 등 영월읍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종의 향기'라는 주제로 단종제향, 충신제향, 조선시대 국장재현,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거리(칡줄 행렬, 칡 줄다리기, 민속예술경연대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로 진행하였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신라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문화축제로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6차례 열렸다. 이 중 5차례는 경주에서 열렸고 2006년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열렸는데, 세계인을 직접 찾아가 우리 문화를 알리는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2013년에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터키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40개국이 참가해 46개의 문화행사가 열렸으며, 누적 방문객 490만 명이라는 기록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 터키에서 '문화한류'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정부가 지원해 온 계룡 軍문화축제는 세계유일의 3군 본부가 위치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 · 예술적 전통 등을 한곳에 모아 우리나라 군대의 문화를 연출한 국내 최대의 군 문화 축제이다. 2013 계룡 軍문화축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계룡시 계룡대 일원에서 개최되어 개 · 폐막식, 군악 · 의장, 퍼레이드, 전시, 체험, 이벤트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계룡 軍문화축제는 民+官+軍의 화합과 한반도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무기장비 전시, 병영체험, 계룡대 투어 등과 아울러 2013년 처음 도입한 서바이벌게임체험 및 3D · 4D 입체영상체험 등을 통해 안보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품권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진 3-3-4 지역특화 문화행사

영월 단종문화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좌)

계룡 軍문화축제

* 출처 : 영월군청 홈페이지 (http://www.yw.go.kr)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http://www.danojefestival.or.kr)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홈페이지(http://www.istanbul-gyeongju.com)

표 3-3-12 2013 지역특화 문화행사 내용

행사명	행사기간	관객인원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5.24 ~ 5.26	260,000여명
대구 공연예술제	2013.10.11 ~ 10.13	452,000여명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연출	2013.4.26 ~ 4.28	200,000명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2013.6.9 ~ 6.16	1,460,000명
영월 동강국제사진전	2013.7.19 ~ 9.22	39,000여명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8.31 ~ 9.22	4,900,000여명
순천정원박람회 남도가무악	2013.4.20 ~ 10.20	69,200여명
계룡 軍문화축제	2013.10.2 ~ 10.6	1,190,000여명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2013.9.11 ~ 9.15	150,000명

라. 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지원

우리사회에서 지역 불균형 현상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뒤떨어진 지역의 문화 환경, 이로 인한 문화적 체험기회 부족 등 지역 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의 난개발은 중소도시와 대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삶의 문화적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듦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가지는 정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 ·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표 3-3-13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 일본(오사카 난파궁 및 나라 평성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개발
- 베네치아 보존 및 신도시 개발, 로마 토르디노나 지역 정비, 영국 역사도시 보존
- 일본 가나자와 시 및 이탈리아 볼로냐 시(창조적 문화도시)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등 지역의 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체적 참여, 이를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창의적 지역문화로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복원 · 활용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 · 운영하여 추진 계획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30년(2006~2035)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06~2010)에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라왕궁 복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종교 유적지 조성, 신라 탐방길 조성 등 선도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단계(2011~2020)에는 1단계 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역사 · 문화 · 관광도시로서 면모로 일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 3단계(2021~2030)에는 10년간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개발하여 역사 · 문화 · 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2031~2035)에는 5년간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가 새롭게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신라탐방길 조성' 등 〈4개 선도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7년 12월 완료하였다. 동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 20억 원, 2007년 40억 원, 2008년 40억 원, 2009년 40억 원, 2010년 62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46억 원, 2013년 38억 원(국비)의 국고가 투입되어 교촌한옥마을과 영지설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유적지간 이동체계 계선과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 조성,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안압지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 3-3-5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교촌한옥마을 조성

영지설화(아사달 아사녀)공원 조성

출처 :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②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과거로부터 '예향(藝鄕)'으로 불리고 있는 전주는 판소리, 한옥, 한지, 한식 등이 발달하였고 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이러한 전주를 전통과 현대

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문화재의 복원이나 개발보다는 정신문화와 한국적인 생활문화의 토대가 되는 무형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한옥마을 등 지역 차원의 자발적인 혁신정책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 전주시 · 민간 전문가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2005. 3~2006. 2)〉을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24명)'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6. 9~2007. 11, 국토연구원)〉를 수행하였으며 동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선도 사업 위주로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선도 사업으로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 한옥마을 체험 콘텐츠 확충, 한 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에 대하여 2006년 30억 원, 2007년 30억 원, 2008년 30억 원, 2009년 50억 원 2010년 50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5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3년 59억 원(국비)이 투입되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 슬로시티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표 3-3-14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ㅇ 비전 :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실현
ㅇ 정책목표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생활문화도시 조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균형발전 도시모델 조성
ㅇ 실행원칙 : 전통문화자원 활성화, 전통문화도시 공간정비
ㅇ 계획기간 : 2007 ~ 2026년(20년간)
ㅇ 투자규모 : 1조 7,109억 원
ㅇ 타당성 조사결과 : B/C 1.09(CVM 포함 경제성 분석)
ㅇ 주요 사업계획

핵심선도사업군	세부산업
한 스타일 진흥사업	• 한 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
	• 한국 음식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한지 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사업
	• 아 · 태 무형문화유산센터 유치사업
	• (한옥마을~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간) 전통가교 설치사업
전통문화 체험 · 교육사업	•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 한옥마을 전통문화콘텐츠 확충사업 : 전통한옥, 부채, 소리, 완판본, 서화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 전통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경관조성사업	• 한옥마을 전통문화 경관개선사업
	• 향교 문화광장 조성사업
	• 야간경관 조성사업

③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 ·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백제의 고도(古都)인 공주와 부여가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고도경관 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주 ·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말에 완료된 이 용역에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공주 · 부여의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기본계획,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 · 단기 사업추진계획,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완성된 연구용역은 중앙부처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의 근거자료로,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적인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용역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도에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선행되어야 할 선도 사업으로서 공주의 「무령왕릉 길 조성」사업과 부여의 「주작대로 정비」사업에 각각 국고 20억 원, 2010년도에는 공주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정비」사업과 부여 「성왕로 경관정비」에 각각 20억 원씩 투입하였다. 2011년 36억 원, 2012년 32억 원, 2013년 29억 원(국비)이 투입되어 공주의 공산성 및 주변유적(정지산 유적, 고나마루) 정비 사업과 부여의 사비고도 공간 회복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마.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2009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27개 지역을 지원하여 34천여 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은 주민과 지역에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과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주민들 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간 협력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생활문화공동체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 보급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확산을 하고자 한다.

표 3-3-15 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현황

구분	지원기간	지역	단체명	사업 명
1	3년차	울산 울주군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소호마을문화학교'
2	3년차	충북 제천시	예술과마을네트워크	한밭들 까마귀 물곶 마을 이야기
3	3년차	전북 완주군	지역문화자원연구회	씽씽쌩쌩,신바람 부는 삼기리!
4	2년차	경남 창원시	경남독립영화협회	진해 중앙동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꽃비 내리는 동네'
5	2년차	부산 금정구	금샘마을공동체	장전-남산 커넥션
6	2년차	경기 광주시	너른고을생협	생활문화축제로 풀어가는 세대공감
7	2년차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8	2년차	경기 성남시	마을공동체 문화로숲	행복봇들 '어울리니 기쁘지 아니한가'
9	2년차	서울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마켓결합형 마을축제를 통한 공감마을만들기
10	2년차	경남 통영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람과 삶	서포루 골목 마을만들기
11	2년차	강원 원주시	성공회원주나눔의집	호맷골 생활문화공동체 상상 프로젝트 "마을에서 세상을 본다"
12	2년차	인천 남구	우각로 문화마을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13	2년차	강원 춘천시	춘천시문화재단	교동 생활문화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14	2년차	경기 안산시	커뮤니티스페이스리트머스	언어를 통한 다문화 학습공동체 만들기: 바벨 디스코스
15	2년차	서울 성북구	함께사는 성북학부모회	성북 커뮤니티스쿨 만들기
16	신규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문화로 솔안(소란)스러운 우리마을, 송내동
17	신규	충북 제천시	간디공동체	청년이 살아 마을이 살다, 선림 마을 공동체 '청살마살'
18	신규	부산 해운대구	희망세상	시끌벅적 우리동네 만들기
19	신규	경기 안산시	감골주민회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 감골은 우리의 고향'
20	신규	대구 수성구	만촌해피타운영협의회	만滿만晩한 느지마루 생활예술 프로젝트
21	신규	대구 남구	사회적기업 꿈꾸는씨어터	대명5동 여우골 예술마을
22	신규	경기 이천시	부래미축제학교	사계절이 행복한 율면 문화공동체 만들기
23	신규	강원 원주시	서곡생태마을	할아버지 어렸을 적엔 이(耳)심(心)전심
24	신규	전북 전주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평화동 주민이 만드는 생활문화장터 '평화마을 장터'

구분	지원기간	지역	단체명	사업 명
25	신규	충남 서산시	솔마당 마을	솔마당, 종순씨가 찍은 춘자씨 그림
26	신규	전남 보성군	보성소리마당	보성소리의 맛 '얼씨구 좋~다' 산정소리 문화단
27	신규	부산 동구	문화공간 빈빈	안창마을, 상상의 창이 열리다

2) 전통 · 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1)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

2011년에 종료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사업은 한국의 고유성에 기반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의 고유문화를 브랜드화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의 6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한국 전통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상위개념으로 한스타일이라는 브랜드명을 개발 · 적용하였다.

6대 분야들 중에서 한글과 한식 분야는 경제발전과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외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지, 한옥, 한복분야는 국내외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대조를 이루는 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였다. 사업추진 첫해인 2005년에는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지역별 포럼을 통해 한스타일 지원전략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스타일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회 및 지자체를 통해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한스타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기존 사업은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 · 복원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세계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아울러 전통문화 관련기능이 정부 내 분산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반면, 한스타일 사업은 이러한 정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단계별로 전통문화의 복원 · 연구에서 국내저변 확대 및 생활화, 상품화 · 산업화 촉진, 해외진출 확대로 바꾸었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0개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계인 한 스타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스타일은 정책비전으로 '세계문화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보존 및 연구지원,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국내 인프라 구축, 선택과 집중, 한류 및 관광산업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2007년도에는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 발표(2007. 2.15)

하고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분야 40대 과제를 발굴 · 추진하였다. 동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간 계획으로서 분야별 산업화, 세계화 수준을 제고하여 2006년 세계 10위인 국가브랜드 가치(산업정책연구원 '국가별 브랜드 가치' 2006.11월)를 2011년 세계 8위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 외적으로 홍보행사에 주력하여 국내적으로 한 스타일 박람회(2008.8), 한복사랑 페스티벌(2008.10)을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에서 한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한스타일 해외 홍보를 위하여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에서 한국스타일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한글, 한식, 한복 등의 위상 제고 및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음식 체험, 한복 패션쇼 등 한국문화를 전파하여 한국문화 기호층을 형성 · 확산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의 한스타일 홍보 및 국내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한국 스타일 박람회(2010.12.)를 개최하고, 한지와 한복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e-디렉토리 발간을 추진하였다. 한스타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한국스타일 박람회는 한국스타일 6대 분야의 상품 및 상품화 경향을 제시하고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행사로 기획된 것으로, 1회 대회는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통에서 미래로, 한브랜드를 세계로'를 주제로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경기도, 전라북도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총 10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41,000명이 입장하였다. 2008년 2회 행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진행되었다. '즐거움의 시작, 한스타일'을 주제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 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전주시가 공동주최하였다. 8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관람객 12,000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패션쇼와 각종 국악공연이 함께 하였으며 6개 분야의 심포지움과 6개의 기획관 전시품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09년 3회 행사는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 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예술 감독을 선임, '지금 · 여기 · 우리'를 주제로 기획관 및 테마관 등을 디자인적으로 보완하여 152업체가 참여하고 14,227명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2010년 4회 행사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 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예술 감독을 선임, '한국적 상상력'을 주제로 전시관 조립부스에 한옥 목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된 박람회를 구성하여 147업체가 참여하고 13,500명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아울러 한스타일 온라인 국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정보화 구축사업(4차)을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6년도에 구축된 영문 누리 집(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을 개편하고 한 스타일 6대 분야의 활동상황 및 관련 전문가의 칼럼과 인터뷰 등의 콘텐츠도 확대하였

으며 한스타일 핵심가치인 건강, 자연, 과학, 품위를 주제로 국 · 영문 e-book을 제작하여 국내 · 외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한복의 경우 한복 관심도 제고 및 한복 산업화 기여를 위한 2010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축제(2010.10.15-16, 창경궁)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새롭게 단장된 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에서 근대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한복패션쇼를 열어 '근대한복'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향후 한복문화를 이끌어갈 신진 인력 양성을 위해 한복디자인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한복 교복 제작 · 보급(8개교) 및 한복의 날 행사 개최로 한복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식의 경우는 해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를 위하여 국가별로 현지화 된 대표 한식 메뉴 20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2007년 중국과 일본지역의 20대 한식 메뉴 개발에 이어 2008년에는 홍콩과 베트남지역의 한식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각각 20대 대표 한식메뉴를 연구 · 개발하였다. 또한 해외 한식당 조리사 및 경영주를 대상으로 현지화 된 20대 한식메뉴 조리 기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연계 추진하였다.

한지 분야는 2007년부터 태권도 단증의 전통 한지화 사업((재)국기원)을 지원하여,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고, 2009년도에도 계속 이어갔다. 또한, 영구기록 보존 매체로서 한지의 우수성과 시장 선점, 산업화 방안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복복화를 추진하였다. 2010에는 전통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한지의 물성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전통한지의 특성과 용도를 집대성하여 한지대전을 발간하였다. 2011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한지상품개발 토너먼트'는 디자이너의 많은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토너먼트에서 개발된 상품은 '2011공예 트렌드 페어'와 프랑스의 '메종 앤 오브제' 등 유명 디자인 페어에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지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 닥과 폐 펄프를 이용한 품질이 떨어지는 한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국산한지 시장 잠식을 극복하고 순수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수록한지의 원천기술 보존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12년 한지 물성에 대한 연구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닥을 이용한 전통한지에 대한 '한지품질인증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한지품질표시제'를 도입 · 운영(20개 업체 참여)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유통구조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한옥 분야는 한옥 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 등 미래 세대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자료실 4곳(서울 구로 개봉독서실, 경기 안산 관산도서관 · 군포 산본 도서관, 전남 여수 현암 도서관)을 선정하고 개보수를 통한 전통 한옥공간으로 개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전통한옥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전통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공공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적 실내공간 시범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국립국악학교,

통영 용남초등학교, 국무총리접견실에 이어 2013년에는 법무부 서울 소년원,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인천 연수구 새마을회관을 시범공간으로 구축하였다.

표 3-3-16 한 스타일 사업 추진경과(2005~2013)

2005. 6	한 브랜드화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12회, 2005. 6~12)
2006. 5	제5차 국가이미지위원회에 한 브랜드 지원전략 보고 - 6대 분야 중 한국학 제외, 한국음악으로 대체
2006. 7 ~	한 브랜드 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 총괄기획/한글/한복 · 한지/한식/한옥 분과 구성 - 분과위원회 주기적 개최(2006년 7회 개최)
2006. 9. 28 ~ 10. 1	한 스타일 박람회 개최(일산 킨텍스) 및 상징물(C.I.) 개발
2006. 12	'한 스타일 전략산업화' 신규유망 서비스업종 선정
2007. 2. 15	〈한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발표(40대 과제 선정, 2007. 2. 15)
2007. 6 ~ 11	한 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중국 상해, 일본 동경,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총 4개소)
2007. 8	한 스타일 상표 서비스 등록 결정(특허청, 한글 · 영문 2건)
2008. 1 ~ 12	한 스타일 분야별 선도 사업 추진(한식, 한복, 한옥, 한지 등)
2008. 6 ~ 11	한 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 총 4개소)
2008. 8.	한 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009. 7.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010. 12.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011.1 ~ 2013.	한 스타일 분야별 선도 사업 추진(한복, 한지, 한국적 공간)

2012년에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의 후속 종합계획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2012년 1월)을 수립 · 발표하고 10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은 K-POP 중심의 한류에서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이 결합되어 폭과 내용을 넓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류 전략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자원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의 주요 후속조치로 한복진흥센터 설립 연구용역('12.11월), 한지 품질표시제 시행('13.4월), 전통문화창조센터 설립 · 운영('13.12월)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3-3-17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 공공 · 민간부문 한국적 공간 조성	○ 공공시설 한국적 공간 가이드라인 개발 ○ 세종시 총리실 집무실, 학교 2개소 등 한국적 공간 시범사업 추진 ○ 인천공항 내 한국식 정원, 정자 조성 ○ 한국적 공간 우수사례 발굴, 선정(~'13년 1월 발표)
○ 한국문화 유전자 발굴 및 확산	○ 2012년에 주목할 10대 문화유전자 선정
○ 현대 디자이너와 전통문화 협업지원	○ 장인-디자이너 선정 및 협업 워크숍 진행 ○ 2012 공예트렌드페어 전시(12.21.~24.)
○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촉진	○ 문화원형 다큐멘터리제작 · 방영(8월) ○ 전통문화 접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공모전 2~7월) ○ 전통문화 스토리테마파크 연계 체험연수(5~10월 중 10회) ○ 한국형 스토리테마파크 구축
○ 문화유산과 첨단기술 접목 R&D 확대	○ 9개과제 55억 원 지원
○ 고택의 관광산업활용 사회적 기업 설립	○ (재)행복전통마을 설립, '13년 안동지역 시범사업 시행
○ 예술교육에 전통문화 분야 확대	○ 한국형 "꿈의 오케스트라" (국악) 운영 ○ 전통문화 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운영 ○ 소외계층 순회 공연 전통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은 K-POP중심의 한류에서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이 결합되어 폭과 내용을 넓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류전략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자원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지역민족문화과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문화원형의 복원 · 보전 · 창달을 위하여 '민족문화 원형 찾기 및 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200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답사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전통연희 사전 개발', '고려거상의 현대적 조명', '디지털 삼국유사 사전 · 박물지', '전통 민속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사이버마을 구축', '한국의 골목길' 등 2009년까지 12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2010년에는 우리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로 제공하는 문화산업국의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이관 받아 사업 명칭을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로 일원화하고 보조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화원

형 발굴을 지향하는 민족문화원형 사업과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원형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누리집 통합 (www.culturecontent.kr)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미개발 및 통시론적 문화원형 콘텐츠화 과제 발굴,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에는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의 활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1년 문화원형 통합포털 구축, 문화원형 콘텐츠 저작권 관계 확인 및 확보사업, 그리고 문화원형 총람집 제작, 문화원형 활용 공모전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원형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 문화원형 홍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문화원형 활용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문화원형 활용 우수 사례집 발간 등 문화원형 홍보 사업을 더욱 폭넓게 추진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문화원형콘텐츠 활용 교사 연수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원형콘텐츠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표 3-3-18 문화원형 콘텐츠 주요 활용사례

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영화	모던보이	서울의 근대공간 복원 디지털콘텐츠 개발	KnJ 엔터테인먼트	조선총독부, 경성역, 남대문 등의 3D 및 엽서콘텐츠(70종) 활용	
	왕의남자	조선후기 한양도성 조선후기 궁궐	(주)이글픽쳐스	관객 1,230만 명	
	신기전	전체과제	KnJ 엔터테인먼트	조선시대 관련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방송	MBC 드라마 '별순검'	조선시대 검안기록을 재구성한 수사기록물	MBC 드라마넷	케이블 사상최초 4%시청 08년 10월 시즌2 방영 다양한 장르로 OSMU	
	MBC 드라마 '주몽'	고대국가의 건국설화 고구려 고분벽화	(주)올리브나인	시청률 46.2% (06. 12. 24 기준)	

사례(작품명)		활용과제	활용기관	활용효과	비고(시각자료)
디자인	섬유디자인 개발	- 단청문양 - 자수문양 - 능화문 - 궁중문양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수출 92만달러 계약 (600만달러 예상)	
전시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한국 디지털 문화원형 展)	- 전체과제	경주세계문화 엑스포2007 조직위원회	총 471,231명 관람	
캐릭터	뿌까, 묘&가	- 자수문양 - 능화문	㈜부즈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총 60만달러 계약체결 - 170여 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활용 - 국외 로열티 수입160억 원	
게임	온라인게임 (RPG) 거상	선사에서 조선까지 해상선박 및 해전	(주)조이온	400만 명(회원수) 중앙대경영학과교제 중앙정보교육센터, 국사편찬위 교제	
포털	네이버 다음	문화원형 백과서비스	NHN(주) (주)Daum	대한민국우수포털에 문화원형백과서비스로 활용확대	

3)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제정 추진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2013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 · 추진,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 및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및 한복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산

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고유의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를 총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한복진흥법도 제정하여 우리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인 한복을 특화된 분야로 육성할 계획이다.

4)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시설 확충 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점차적으로 인간과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선정, 시상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전략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대상 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해당되며, 문화브랜드 소재의 고유성, 지역 대표성, 지역 주민의 참여, 창의성 및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문화브랜드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에는 대상에 성남시 '사랑방문화 클럽'이 우수상에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상에 대구 중구 '근대골목'이 우수상에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이 각각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브랜드 선정은 우수한 문화브랜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및 전통문화브랜드 사업들을 문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4절 국제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국제문화정책은 다양한 주체들이 경계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도록 인적 · 물적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개방된 세계 속에서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동의 증진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문화 간 교류와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문화의 창의성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문화교류에 있어서 콘텐츠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 쌍방향성 확대이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문화, 현대문화, 생활문화까지 교류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기존 서유럽 · 동북아 · 북미 중심의 교류에서 동북유럽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등으로 교류 지역을 다변화하고, 일방적 문화 전파 형식이 아닌 상호 교류를 통해 쌍방향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화 추진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개인, 기관과 단체, 지자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경을 넘어 문화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진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적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간 문화협정 체결과 같은 국가 중심의 문화관계 구축과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스포츠 등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진흥의 일환으로써 국제 활동 및 해외 진출 지원, 공동 창작 및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민간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국제적 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체 간에 공유된 비전과 방향성이 없고,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지원창구 및 매개 기능의 혼선과 비효율, 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인해 지원의 후순위를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기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화교류 활동이 단기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정책의 대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의제화, 법제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 6월에는 문화교류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학계 및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제문화소통포럼을 창립하고,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 교류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창립세미나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문화교류의 기본방향으로 한국문화의 전반으로 확대, 쌍방향성의 강화, 민 · 관 협력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2012년 7월 제2회 포럼에서는 스마트시대, 국제문화소통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글로벌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문화소통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8월에는 문화예술, 미디어홍보, 학술 분과별 논의를 통해 문화교류의 인 바운드와 초청사업을 확대할 필요성,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현지 문화 연구와 지역전문가와 협력 프로그램 마련,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종합적 전략 구사,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별 짓지 않는 디지털문법으로 SNS 등 미디어플랫폼 변화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2013년 1월에 종합토론 성격의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이 개최되었는데, 문화예술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존과 소통의 시대,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각계인사 대담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 그 과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문화교류중심으로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2013년 3월에는 전국 광역시 · 도의 국제문화교류 담당 과장들이 참여한 '국제문화교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11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이 참여한 협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지자체 및 기관별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문화예술,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교류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2013년 5월부터 국제문화교류 분야별(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9개 과정, 201명) 및 연구활동 지원,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의 해외 파견(10개국, 10명) 등 국내 · 외 문화교류를 매개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각 주체별로 분산 수행 중인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개선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2013년 9월~12월, 한국창조산업연구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적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 10월에 길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2013년 10월에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정부 내 협의체 운영, 국회 입법지원 등 법률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재외문화원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1) 재외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추진

가. 재외문화원 증설

문화를 통한 교류 및 문화협력 기능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파리 · 뉴욕 · LA · 동경 문화원 이외에 추가된 러시아, 독일, 중국, 오사카 문화홍보원이 '문화원'으로 개편(2006년)되었으며, 영국, 상해, 베트남, 아르헨티나에 문화원을 신규 설립(2006~2008년)하여 2008년 말까지 총 12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문화교류를 다변화하고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폴란드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3개 지역에는 2008년 9월 문화홍보를 전담할 문화 홍보관을 파견하였고, 문화원 신설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걸쳐 2009년 문화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문화원 업무를 개시하여 2010년 초 정식 개원하였다. 나이지리아 문화원도 2010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5월 개원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 소속으로 문화원 기능을 수행하던 Korus House를 워싱턴 한국문화원으로 개편하였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동유럽 지역과의 문화교류 확대는 물론 중 · 동부유럽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도 한류 열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첨단 IT 정보강국 브랜드와 문화강국 이미지를 접목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와 전통문화를 조화롭게 소

개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하여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동남아, 대양주, 서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스페인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은 문화원 신설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0년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2011년 상반기에 개원하였다. 이후 터키, 헝가리, 멕시코, 인도, 태국, 브라질, 벨기에 문화원을 개원하여 2013년까지 모두 27개의 문화원을 개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에도 문화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문화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3-4-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2013)

구분	일본(동경)	뉴욕	L.A.	프랑스
위치	4-4-10 Yotsuya. Shinjuku, Tokyo	460 Park Avenue 6fh. Fl.New York, N.Y.	55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lifornia	2 Avenue D'Iéna, 75116 Paris
소유형태	소유	임차	소유	소유
규모	8,349㎡	813㎡	2,540m2	809㎡
주요시설	전시장, 공연장, 전통악기실, 세미나실, 도서영상자료실 등	전시실, 도서실, 다목적실, 사랑방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영상실	강의실, 도서관, 다목적홀
구분	**중국(북경)**	**독일**	**러시아**	**오사카**
위치	No.1 Guanghua Xili, Guanghu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34a, Zemlyanoi Val St, Moscow	4th FL. Mindan Bldg. 2-4-2 Nakazaki, Kita-ku, Osaka, Japan
소유형태	소유	임차	임차	임차
규모	6,301㎡	1,337㎡	1,105㎡	501㎡
주요시설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세미나실, 멀티미디어브리핑룸	전시실, 공연장, 강의실, 도서실, 영화관	전시실 도서관, 영상자료실, 강의실, 전통음악교실	전시장, 다목적홀, 도서실, 강의실
구분	**영국**	**베트남**	**상해**	**아르헨티나**
위 치	Unit E&F, Grand Buildings, Northumberland Avenue London	49 Nguyen Du Street, Hai Ba Trung District, Hanoi	Room 501, Huizhi Building, No.396 North Caoxi Rd. Shanghai	Diaz 2884, Cap.Fed. 1425, Buenos Aires
소유형태	임차	임차	소유	임차
규모	907.7㎡	970㎡	2,604㎡	502㎡

주요시설	전시실, 공연장, 다목적홀, 멀티미디어실	영상 · 음악자료실 영화관, 도서관, 전시실, 강의실	도서실, 강의실, 다목적홀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구분	폴란드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워싱턴
위 치	Nordic Park Building, 8 Kruczkowskigo, Warsaw	010000 Nur Saulet-2 Business Center, Imanow St. 12Astana	Rivers State Building, 83 Abuja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소유형태	임차	임차	임차	소유(대사관)
규모	852㎡	918㎡	915㎡	1,018㎡
주요시설	사랑방, 다목적홀, 세미나실, 도서실, 요리강습실	멀티미디어홍보관 다목적홀, 도서관, 상의실, 상설전시관	도서관, 컨퍼런스룸, 강의실, 전시홀, 태권도장	강의실, 전시실
구분	호주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위 치	255 Elizabeth Street	Paseo Castellana 15	32nd St. Bonifacio Glbal City, Taguig city	SCBD LOT 9
소유형태	임차	임차	임차	임차
규모	974㎡	962㎡	955㎡	874㎡
주요시설	다목적홀,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세미나실, 도서실	전시실,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실	강의실, 도서관, 전시실, 다목적홀	다목적홀, 도서관, 강의실, IT SHOW ROOM,
구분	터키	헝가리	멕시코	인도
위 치	Paris Caddesi No. 74 Ankara	Budapest XII. Csorsz u. 49-51	Temistocles No.122, Col. Polanco Reforma, Delegacion Miguel Hidalgo, Mexico D.F. C.P. 11550	A25 Lajpat Nagar IV, Ring Road, NewDelhi
소유형태	임차	임차	임차	임차
규모	1,250㎡	1,168.4㎡	800㎡	1,826㎡
주요시설	태권도장, 공예전시관, 강의실, 공연장, 사랑방	요리 실습실, 강의실, 공연장, 사랑방, 도서실,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요리 실습실, 다목적홀, 도서실, 전시실, 강의실	전시실, 카페, 강의실, 태권도장, 공연장, 도서실
구분	태국	브라질	벨기에	
위 치	219/2 Sukhumvit R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Alameda Barros, 196-Higienópolis, São Paulo	Rue de la Regence 4, 1000 Bruxelles, Belgium	
소유형태	임 차	임 차	임차	
규모	1,351㎡	1,670㎡	13,09㎡	
주요시설	전시실,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실	전시실,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실	전시실,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실	

나. 코리아센터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원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 · 민족문화, 문화산업, 관광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재외문화원을 확대 · 개편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동일 장소에 입주시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코리아센터 설립 ·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착공한 동경코리아센터 신축공사가 2009년 4월 마무리되어 2009년 6월 개원하였다. 최초로 해외에 신축한 동경코리아센터는 신주쿠지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다목적 전시실, 도서실, 사랑방과 전통정원 등을 갖추고 있어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을 이어감은 물론 문화예술, 관광, 문화콘텐츠, 체육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뉴욕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해 2008년 11월 맨하탄 중심가에 나대지를 매입하였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설계현상공모를 추진하여 12월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한류체험관, 강의실 등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강좌 등 복합 문화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을 갖춘 시설을 201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코리아센터는 미국 LA(2006.9), 중국 북경(2007.3), 상해(2007.7), 일본 동경(2009.6)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뉴욕 및 파리 코리아센터를 개원하여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통 · 민족문화의 세계화, 한 스타일 해외진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를 집중 추진하여 기존 문화원 운영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객 지향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설확장과 동시에 코리아센터 운영과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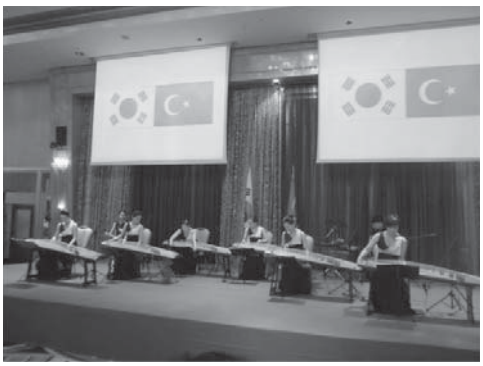
(2) 재외문화원 운영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증진 및 한국문화홍보를 위하여 24개국에 27개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터키한국문화원에서는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계기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및 양국 문화교류 네트워크 기반 형성에 기여했다. 둘째, 수교 계기 고품격 문화 · 학술 행사 개최 시 '광부 · 간호사 파독 50주년(주독일한국문화원)', '정전 60주년(주영국한국문화원)' 등 역사적 계기와 연계하여 행사 의미를 확장하고 시너지를 제고했

다. 셋째, '제3회 K-POP 월드페스티벌' 개최 시 주시드니한국문화원 등 문화원별로 예선을 개최하여 입상자를 국내로 초청, 최종 결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결선 참가자들에게 경복궁 · 인사동 방문 등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 저변확대를 꾀하였다. 넷째, K-Pop, K-드라마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순수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내 한류의 외연 확대 및 지속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섯째, 해외문화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한중연문화축제(주북경한국문화원)', '중남미 K-pop 경연대회(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등 문화원별 추진사업의 특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 3-4-1 재외문화원 운영 성과(2013)



한 – 터 국앙앙상블

MBC 파독공연 대통령 영상 메시지

한-영 수교 130주년 기념 K-Rock 공연

K-pop 월드 페스티벌

3)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 확대

(1)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개최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소통과 교감'의 문화홍보를 강화하고,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교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표 3-4-2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주요 추진실적 총괄표(2013)

사업명	내용	시기	참석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만찬 행사	미국 신진예술가 공연 (피아노, 바이올린), 전시(미디어아트), 테이블 장식 등	5월	행정부와 의회 인사(70명), 한국전참전용사(150명)등 500여명
중국 양국 경제인 오찬 연주회	양국 전통악기 해금과 얼후 협주	6월	산업통상부장관, 양국 경제인 200명
한중우정콘서트 (K-POP 공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EXO 등 8팀 및 중국 2팀	6월	중국일반인 등 약 4,500석
중국 서안 병마용갱 방문	VIP 병마용갱 방문 및 방명록	6월	-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족두리전시, 양국전통악기 공연,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9월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현지 문화예술인사 등 300여명
인도네시아 한-인도 현대미술 교류전	작가 환담회 및 전시(기획전 및 양국 미디어아트 교류전)	10월	양국 문화예술 주요 인사, 양국 전시참여 작가 등 60명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파티	한류팬 6명 환담 및 한류팬 공연관람, 무대 인사말씀	11월	한류팬클럽 봉주르 코레 회원 및 한류팬 600여명
프랑스 오르세박물관 방문	인상파작가, 자연주의 작가 등 오르세 상설관 주요작품	11월	-
제8회 런던 국제 한국 영화제 특별시사회	양국 영화관계자 10명 환담, 영화 시사회 참석 등	11월	한영 주요 영화관계자 및 문화예술 인사 400여명

가. 미국 신진예술가 공연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로 간소하면서 품격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젊은 한국 예술가들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으며, 손열음, 신지아 두 젊은 음악가의 연주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양민하, 최서우, 류호열, 이이남, 문경원 5인의 영상작품은 만찬 전후로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의 현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양민하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심청, 남대문, 겸재 정선의 산수화 등 전통적인 소재의 현대적인 병용에 찬사를 보냈다.

사진 3-4-2 스미소니언박물관 미국 신진예술가 공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 만찬

'일렉트로닉 하이웨이(백남준 작)'

나. 중국 한중경제인 오찬공연

중국 영빈관 조어대에서 개최된 양국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 전통예술인 협주공연을 가졌다.

한 · 중 주요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분간 개최된 공연은 한국 대표 해금 연주자 강은일이 '도라지'와 '밀양'을 연주하고, 중국 유명 얼후 연주자 장존연이 얼후 명곡 '이천영월'을 연주했다. 이어 양 연주자는 한 · 중 대표 민요 '아리랑'과 '모리화' 합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사진 3-4-3 중국 한중경제인 오찬공연

해금연주

한중 민요협주

다. 베트남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아름다운 동행- 멋진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한복과 아오자이 패션쇼는 상대국과 우리 문화예술 관심분야를 함께 구성하여 양국의 문화예술을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경남 랜드마크 컨베션센터에서 열린 동 행사는 '부드럽고 우아한 매력'의 대통령 이미지가 부각되고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 시킨 행보로 평가되며,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무대였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라. 인도네시아 현대미술-미디어 설치작가 교류전

인도네시아 현대미술-미디어 설치작가 교류전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는 한 · 인니 수교 40주년 계기로 양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를 통해 우의와 교류를 증진하고, 생활 현장(쇼핑몰) 속에서의 현대미술 전시를 통해 예술의 일상화 메시지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 행사에는 설치미술 · 미디어아트 작가 19명(한국 14, 인니 5) 24작품이 참여하였다.

마.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드라마 파티의 경우 유럽에서 최근 K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 등 대상국내 관심이 높은 한국문화를 파악하여 이를 행사화하였다.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인 샹젤리제 인근 피에르 가르댕 문화공간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봉주르 코레'측이 사전 앙케이트 조사로 뽑은 인기 드라마 감상, 주제가 배우기, 드라마 퀴즈 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봉주르 코레' 페이스북을 통

해 예약한 참석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에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670석인 극장이 꽉 차는 등 한국드라마의 인기를 오롯이 보여주었다.

바.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시사회

동 시사회는 대한민국의 한류와 영국의 창조산업이 상호 협력으로 이어져 시너지효과를 내기를 희망하며 런던시내 한복판 시네월드 아이마켓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토니 레인스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상영작 '숨박꼭질' 허정 감독과 주연배우 손현주, 양국 문화부장관, 영화 '미션' 등을 제작해 오스카상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을 수상한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푸트넘,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크리스 후지와라 에딘버러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2) 수교 계기 문화행사 개최

국가 간 수교 기념 계기를 활용한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연중 수교기념 행사로 한–독일 수교 130주년, 한–영국 수교 130주년, 한–핀란드 수교 40주년, 한–EU 수교 50주년,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한–인도 수교 40주년,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등 총 7개국과의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추진하였다.

표 3-4-3 2013년 수교 계기 문화행사 추진실적 총괄표

사업 명	내용	시기	보조사업자
ㅇ 한-독일 수교 130주년 행사	ㅇ 개막: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ㅇ 폐막: Jazz Korea-korean-German Jazz Exchange ㅇ 기타: 전시(조각가 임동락), 공연('구텐탁,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비보이, 청배연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월~12월	직접수행 (주독일한국문화원)
ㅇ 한-영국 수교 130주년 행사	ㅇ k-뮤직페스티벌: 국립국악관연학단, 안숙선 명창, 거문고팩토리, 어어부밴드와 PERE UBU(영국밴드) 합동공연, 이승열 밴드와 장기하와 얼굴들 합동공연 ㅇ 전시: 정전 60주년 기념 '어느 노병의 이야기'	6월	직접수행 (주영국한국문화원)
ㅇ 한-핀란드 수교 40주년 행사	ㅇ 난타 공연(4개 도시, 7회공연)	5월~6월	㈜PMC프로덕션

사업 명	내용	시기	보조사업자
ㅇ 한-EU 수교 50주년 행사	ㅇ 벨기에: 아리랑을 주제로 전통무용, 판소리 등과 현지예술가 합동공연 ㅇ 네덜란드: 문굿, 태평무, 탈춤, 삼도농악가락, 판굿 등 ㅇ 독일: 사물놀이팀, 전통무용가와 자브리켄 국립음대 재즈과 교수, 주립무용단 합동공연	11월 ~12월	(사)사물놀이한울림
ㅇ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행사	ㅇ 우리의 전통과 현대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소개하는 종합공연(남해안별신굿, 전통연희, 현대무용, 창작국악, 성악, 태권도, 비보이)	6월~ 7월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ㅇ 한-인도 수교 40주년 행사	ㅇ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현지예술가와의 협연(아리랑 환상곡, 인도영화음악 등 7작품 공연	10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ㅇ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행사	ㅇ 우리의 전통 · 창작음악과 파키스탄 전통음악 협연	11월	(사)공명

가. 한–독일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5월부터 12월까지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9개 도시에서 열렸다. 개막행사는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환타지'로 5월 13일 베를린 포츠담광장 극장에서 열렸으며 폐막행사는 '2013 Jazz Korea–Korean–German Jazz Exchange'로 11.28.부터 12.8.까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9개 도시에서 열렸다. 개막공연 및 폐막 공연 모두 유료공연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럽 내 한국 문화예술의 산업적 진출 가능성 모색 및 문화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개막공연과 폐막공연 이외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이 열려 행사기간 동안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파독 50주년 기념 '구텐탁,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공연(MBC 기획)이 이루어져 파독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사진 3-4-4 한-독일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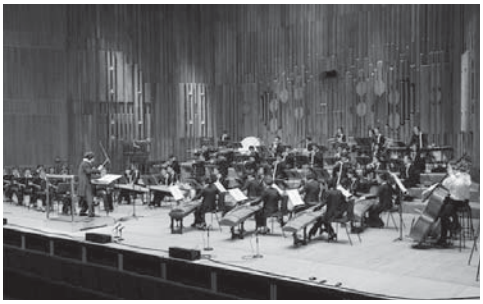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구텐탁,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나. 한-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국-영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런던에서 열렸으며 주요 내용은 'K-뮤직 페스티벌'과 전시로 구성되었다. K-뮤직 페스티벌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안숙선 명창, 거문고팩토리, 어어부밴드와 PERE UBU(영국밴드) 합동공연, 이승열밴드와 장기하와 얼굴들 합동공연으로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런던 바비칸센터, 카도간 홀, 스칼라 클럽 등에서 열렸으며 판소리, 거문고 등 전통음악에서 락 장르까지 다양한 한국음악을 현지에 소개하였다. 전시는 영국 내에서 '잊힌 전쟁'으로 여기지는 6.25 참전용사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작가 21명의 작품 30여 점)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영국 런던 아시아 하우스에서 전시하였으며 BBC 유명 프로그램 'Impact'에서 생방송으로 작가와 큐레이터를 초대해 전시를 소개하는 등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사진 3-4-5 한-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문화행사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K-Rock 공연

다. 한-핀란드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핀란드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핀란드 헬싱키 등에서 열렸다. 이번 문화행사는 '난타' 공연을 한국과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헝가리(2회), 폴란드(3회), 벨기에(1회) 지역과 연계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유럽 내 한국문화 인지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유로공연을 추진하여 전체 관람객의 71%를 유료관객이 차지하였으며 공연과 상통하는 한식을 함께 홍보하여 한식에 대한 관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사진 3-4-6 한- 핀란드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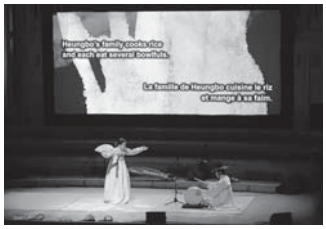
(핀란드) 현지 관객 공연 참여

(벨기에) 공연 관람객

라. 한-EU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EU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서 열렸다. 이번 문화행사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전통음악, 사물놀이 · 판굿 · 탈춤 등 전통연희, 독일 공연단과의 합동공연 등을 개최하였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을 통해 살아있는 콘텐츠로서의 아리랑을 소개하였으며 거리공연 · 현지인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일회성 · 일방적인 문화행사에서 벗어나 현지인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지속적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 3-4-7 한-EU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벨기에) 공연

(네덜란드) 공연

(독일) 현지 예술가 합동공연

마.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문화행사

한-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남해안 별신굿, 전통연희, 창작국악, 태권도, 비보이 등 우리의 전통과 현대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소개하는 종합공연으로 하는 '한국의 해' 축하공연을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 개최하였다.

사진 3-4-8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전통연희-더 광대

남해안별신굿

태권도-징브로컴퍼니

보이-라스트포원

바. 한-인도 수교 40주년 문화행사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인도 현지 예술가와의 협연으로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인도영화음악 등 7작품을 공연하는 문화행사를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3개 도시에서 4회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행사는 국악관현악 뿐 아니라 전통판소리와 사물놀이까지 다양한 한국음악을 선보여 인도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인도영화음악을 매개로하여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행사였다.

사진 3-4-9 한-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대바람소리

신모듬

인도 현지 음악가 협연

판소리-흥보가

사.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문화행사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립예술원극장에서 11월 1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행사는 한국의 전통 · 창작음악과 현지 이슬람 전통음악과의 협연,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UAE 아부다비 연계공연을 통해 이슬람 지역에 한국문화를 소개하여 파키스탄 국영방송 PTV 등 10개 언론사에서 보도와 함께 호평을 받았다.

사진 3-4-10 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판소리

이슬람연주자와 협연

(3) 주요계기별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

가. 터키-이스탄불 한국문화페스티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기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와 양국 문화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스탄불, 앙카라 등 터키 4개 도시에서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시(재터 도예가 김용문 막사발 전시회 등), 공연(한-터 합작연극 등), 영화(한국

유명 감독전), 태권도(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K-POP(한국방문의 해 기념 K-POP 커버댄스 지역 본선 개최), 세미나(한국문화재특별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터키 내 주요 문화예술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였으며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문화교류 촉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진 3-4-11 터키-이스탄불 한국문화페스티벌

한-터 국악앙상블

태권도 시범단 공연

한-터 합동연극

피아노 연주회

(3) 문화예술 해외교류

가.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 · 중 · 일 3국 문화교류 증진방안 논의 및 동북아 문화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한중일 삼국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중국 남통에서 개최된 이래, 제주도에서 2회(2008. 12.24-26), 일본 나라 현에서 제3회(2011. 01.18-20), 중국 상해에서 제4회(2012. 05.04-06), 한국 광주광역시에서 제5회(2013.9.27-28)를 개최하였다.

1, 2, 3차 회의는 3국의 문화교류의 상생의 원칙과 효과, 협력의 가치를 합의하였고, 2012년 4회 상하이 액션플랜(2012년-2014년)은 역대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평화 우호, 평등 호혜, 협력강화, 공동발전'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3년간 문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내용의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2013년 5회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광주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융성시대를 열기 위해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문화예술 교류 협력 강화, 미래 문화세대 육성과 교류지원 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5회 회의에서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한민국은 광주광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취안저우시, 일본국은 요코하마시를 각각 선정하고 부속합의서에 따라 국가별 문화도시 행사 및 국가별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3국의 국립박물관은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3국내 설립된 유네스코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센터 간 전문가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3국이 함께 노력하며 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3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시범 실시된 한중일 예술제를 2014년부터 매년 문화장관회의 개최국가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래 문화세대 육성 및 교류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예술가간 협력을 지원하고 2014년 일본에서 3국 참여 문화예술교육 행사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매년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추진실적도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한 · 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협력 및 문화교류증진을 통하여 양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 · 일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한 · 일 문화교류 사업(양국 전체회의)과 한 · 중 · 일 문화교류사업(한 · 중 · 일 문화교류포럼, 한 · 중 · 일 예술가 교류)을 추진하였다.

표 3-4-4 한 · 일 문화교류회의

【한 · 일 문화교류 회의】
- 「21세기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98.10월) 및 한일정상 회담 합의('99년 3월)에 따라 설립('99년 6월)
- 한국 : 한일문화교류회의 / 일본: 일한문화교류회의 (각11명)
- 목적: 한 · 일 양국간의 문화교류협력 및 문화교류증진을 통하여 양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 · 일 우호관계 구축

제4회 전체회의는 2012년 5월 16일과 17일에 개최되었으며 한일 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언 내용을 논의하고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5월 16일 국립극장에서 한일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작시리즈 첫 번째로 공연 '동행'을 개최하여 한일 전통무용과 발레, 이루마,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연주 등 양국의 문화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약 120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2013년에는 11월 15일에 일본 니가타현에서 개최된 제9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에 참가하여, '지방문화의 진흥과 국제교류 추진'이라는 의제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교류의 성공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 · 중 · 일 예술가 교류의 일환으로 새롭게 청소년 합창 공연(3국 공통노래 작곡)이 있었다.

두 번째를 맞이한 한일문화교류 공연은 12월 15일, 17일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공연에 앞서 이루어진 '한일 여성작가 낭독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정이현 작가, 에쿠니 카오리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을 낭독하고, 관객과의 대담을 통해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한일문화교류 연작시리즈 '연'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합동공연은 평소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펼친 재능 나눔의 문화행사로, 특히 한국의 전통무용과 일본의 전통무용을 함께 소개하는 1부부터 한국의 장구 연주자와 일본의 재즈밴드가 합동연주를 하며 함께 어우러져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2부까지 한일 간 문화교류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다. 한일축제한마당

동 행사는 2009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 동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 양국 교류행사이다. 올해는 'Korea · Japan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경 치요다구 히비야공원에서 열렸으며, 개막식, 한일문화교류공연(전통, 퓨전, 현대무용), K-POP콘서트 등이 진행되었다. 한일관계 긴장 등 여러 장애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이래 최대 관계인 약 50,000명(전년도의 약 2배 수준)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일본

언론에서는 경색된 한일 관계 상황 속에서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개회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아키에 부인, 일본의 왕족으로서 전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다카마도 노미야비 히사코씨가 내빈으로 출석하는 등 일본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동 행사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진 3-4-12 한일축제 한마당

한국 전통무용공연

일본 북공연

라. 문화소통포럼(Cultural Communication & Forum)

2013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문화계 리더 15개국 15명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토론회 및 CCF 문화소통의 밤을 개최하였다. CCF 참가자들은 창덕궁, 가구박물관 등 한국 전통문화 명소 방문, 한식 만찬, 공연 관람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귀국 후 각자 자국에서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발 빠른 추종자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참가자들은 전통과 현대 문화 간의 소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열띤 토론을 하였다. CCF 토론회에는 20명의 토론자와 언론인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CCF Night에는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4)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해외 여론주도층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였다. 2012년에는 초청 규모를 15개국 17명(11년 : 5개국 5명) 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우리 문화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우리 문화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4-5 2013 해외 주요인사 초청 실적

초청인사	직책	초청기간
Arnold Lehman	뉴욕 브룩클린 박물관 관장	5.3
Jose Luis Peixoto	포르투갈 프리랜서 기고가 및 작가	5.4~5.10
Tauqeer Ahmed Nasir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립예술원장	5.12~5.19
Alvaro Percovich Infante	우루과이 사진가협회장	5.26~6.2
Adesewo Jerry Sunday	Arojah Concepts and Theatre 대표	6.23~7.2
Reshetin Andrey	상트 국제얼리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7. 7~7.11
Bassam Mikhael Lahoud	LAU 대학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9.1~9.7
FRANCISCO DE PAULA MARTÍNEZ VELA	활자 인쇄 연구 및 저술가	9.25~9.30
Nour-Eddine SAIL	모로코 영화센터 위원장	9.28~10.5
Godoy/Laura Teresa	에콰도르국립영화관기획국장	10.1~10.7
Peter Caranicas	영화잡지 Variety 부국장	10.1~10.7
마리아 포미아노브스카	크라쿠프음악원 교수	11.2~11.7
Sandy/Reginald Rodgers	피지체육협회 겸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	11.11~11.17
Kezhan Chen	Visual Art @ Temenggong 관장	11.24~11.30

(5) 주한 외국인대상 홍보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문화유적 답사, 전통문화체험(놀이, 음식 문화 등) 및 공연관람 등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주한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켜 자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한국문화 홍보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계층별 · 특성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였다. 특히 "주한 외국인, 조선의 왕을 만나다" 행사의 경우 유학생, 원어민 교사 및 지상사 주재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들려주는 인문학 탐방의 형식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주한 외국인에게 소개하여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표 3-4-6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2013)

대상	기간 및 장소	내용
주한 외국인 대상 이달의 문화행사	3.13~15/올림픽공원	태권도, 타악, 한국무용, 비보잉이 어우러진 공연('탈') 관람
	4.26/창덕궁	창덕궁 주요시설 관람 및 전통공연 감상
	5.23, 5.30, 6.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관람 및 강연
	6.21/정동극장	대표 고전 러브스토리인 '춘향전' 에 아름다운 한국 춤, 국악, 풍물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한국 전통뮤지컬 '미소' 공연 관람
	7.25/롯데시네마	외국어 자막서비스가 지원되는 한국영화 '미스터 고' 관람
	8.29/난타극장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된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 관람
	9.26/한국의 집	전통 한식 만들기 한글 쓰기 체험행사
	10.23/국립극장	한국의 다양한 절기와 세시풍속,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변화무쌍한 춤사위로 표현해내는 '춤, 춘향' 공연 관람
주한 외국인, 조선의 왕을 만나다	10.12/서울, 여주	한글 관련 강연 및 세종대왕 유적지 답사
	11.23~24/수원, 화성	정조 유적지 답사 및 용주사 템플스테이

4) 문화 분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 문화동반자 사업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풍부한 문화적 자원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점 또한 문화에 있다. 여기에 문화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문화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친근하고 발전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를 통해 각 나라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동반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수 사업이다. 분야는 문화정책, 전통 · 현대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으며 대상 국가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각

국이다. 피 초청자는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 · 관광 · 체육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약 6개월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국립문화시설, 산하 ·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받게 된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등 11개 기관이 12개 사업을 통해 57명을 초청했다. 12월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9개 사업 142명을 초청하였으며, 전주 · 경주 및 '아시아 헤르츠 데이: 아시아 문화주파수' 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아리랑 TV 등 매체를 통하여 각 기관의 동반자 전문분야 연수와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사업평가, 각 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정기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의 31개 국가에서 초청된 127명의 문화동반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남미 · 아프리카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를 통한 쌍방향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한류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0개 국가에서 95명을 초청하였고, 2007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국가군을 초청하였다. 또한 전문연수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강화하고 '자국문화정책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동반자적 공존 관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7개 국가에서 74명의 문화동반자들이 초청되었다. 또한 체류기간 중 내국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의 경우 외부공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생 서포터즈를 공모하여 문화동반자와 연결해줌으로써 원활한 한국생활 지원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는 문화동반자 사업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초청대역이었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세 대륙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그 초청대역을 확대하여, 아시아 17개국, 남미 5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동유럽 6개국, 총 37개국에서 70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또한, 2005년 시범사업 때부터의 초청자들의 인력데이터를 정비하여 문화동반자 인력풀 가이드북을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및 동 사업관련 협력 기관들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기 초청된 동반자들이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28개국에서 73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문화동반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운영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의 동반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 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동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기관들(국립극장,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국제무용협회)의 경우, 매년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 및 일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시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31개국에서 66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문화동반자사업 운영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동반자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각 운영기관에서 문화동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하여 경험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동반자들의 전문연수와 결합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자들의 집중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2013년에는 36개국에서 72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여 국내에 6개월간 체류시키면서 문화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통해 장기적이고도 강한 연대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연수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동반자는 귀국 이후에도 자국에서 한국문화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화동반자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화동반자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연수생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문화동반자 동창회를 필리핀과 태국에 조직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표 3-4-7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2013)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13 예산 (백만 원)	인원
문화 관광정책 연구인력 교류 연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문화 관광정책 공동 연구 ㅇ 연구발표, 정기세미나 개최	30	2명
댄스교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ㅇ 한국 무용 및 예술 연수 ㅇ 공동창작 및 공연 등	51	4명
게임콘텐츠심의 선진화 네트워크 구축	게임물등급위원회	ㅇ 심의제도 및 사례 교육 ㅇ 국제컨퍼런스 등 개최	53	2명
한류국가저작권 공공부분 인력 연수	저작권위원회	ㅇ 한국 저작권 실무 교육 ㅇ 저작권 공동연구 등	45	3명
스포츠과학 전문가 교류 연수	체육과학연구원	ㅇ 체육과학연구원 연수 ㅇ 체육 학술대회 · 세미나 등	30	2명
태권도 친선교류 연수	국기원	ㅇ 국기원 지도자연수 및 교류 ㅇ 세계태권도한마당 등 참여	107	11명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13 예산 (백만 원)	인원
무형문화유산(전통공예) 전승자 교류 연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무형문화재보유자 강의 ㅇ 공동 창작 작품제작 전시회	51	3명
제3세계 전통악기 연주자 초청연수	(재)국립극장발전기금	ㅇ 전통악기연주자 연수	241	12명
무형문화유산(탈춤) 전승자 초청 연수	(재)안동축제관광 조직위원회	ㅇ 탈춤 강습, 연수 ㅇ 탈 창작 작품 제작	50	4명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초청연수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ㅇ 지역문화축제기획 ㅇ 세계무형문화축전 총회준비	44	3명
무형문화유산 국제네트워크구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	ㅇ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정보교류 ㅇ 중앙아시아무형문화정보구축	58	4명
해외무예관계자 초청연수	세계무술연맹	ㅇ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 ㅇ 세계무술축제 등 참여	30	3명
문화동반자사업 지원 (사무국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총괄, 온라인네트워크 ㅇ 사업홍보기관 프로그램 지원	205	-
13개 사업	12개 기관		1,000	54

표 3-4-8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2013)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13 예산 (백만 원)	인원
해외도서관 사서교류 연수	국립중앙도서관	ㅇ 주제정보참고서비스 연수 등	76	4
현대미술 전문가교류 연수	국립현대미술관	ㅇ 국립현대미술관 현장 연수 ㅇ 보존수복 전문기술 연수	60	3
전통예술인 국악교류 연수	국립국악원	ㅇ 국악 연수(이론 및 실기) ㅇ 아시아 전통음악 상호교류	52	3
민속박물관 관계자 교류 연수	국립민속박물관	ㅇ 민속 비교 연구 및 발표 ㅇ 기획전/특별전 공동 큐레이팅	70	4
예술분야 교수 연수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학교 강좌 참가 및 특강 ㅇ 분야별 연구, 문화교류페스티벌	70	4
5개 사업	5개 기관		328	18

(2) 해외문화예술봉사단

해외문화예술봉사단은 해외에 전통예술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 · 확산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지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판소리, 사물놀이, 장구, 민요 등 전통문화 예술 강연과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표 3-4-9 문화예술봉사단 사업 실적(2005~2013)

년도	예산액	참가국	참가인원	파견지역	팀원
'05	1억	2개국	10명	스리랑카	이유진 외 4인
				우크라이나	김은정 외 4인
'06	1.2억	3개국	15명	러시아(연해주)	예술단 가람휘
				우크라이나	김주영 외 4인
				아제르바이잔	(사) 사물놀이 한울림
'07	1.2억	3개국	15명	우즈베키스탄	하늘다래팀
				우크라이나	아우름팀
				벨라루스	김효정 외 4인
'08	1.2억	3개국	15명	카자흐스탄	박윤나 외 4인
				우즈베키스탄	소리울팀
				러시아	송정연 외 4인
'10	0.8억	2개국	10명	카자흐스탄	정다운 외 4인
				벨라루스	조유경 외 4인
'11	1.2억	3개국	15명	벨라루스	윤서희 외 4인
				러시아	유태선 외 4인
				카자흐스탄	풍's 팀
'12	1.2억	3개국	15명	터키	신동국 외 4인
				폴란드	최승희 외 4인
				헝가리	문윤경 외 4인
'13	1.2억	3개국	12명	터키	정은정 외 3인
				폴란드	고은빛 외 3인
				헝가리	이미정 외 3인

* '09년은 미실시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산업의 국제연대를 도모하였다. 세부사업 내역은 4가지가 있다.

첫째, 부르키나파소 '문화산업 육성기관 설립지원'으로 음악 산업 기반시설 Reemdoogo센터를 설립 지원하였고, 20명의 사업가들을 선정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음악관련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자료 개발 등을 하였다.

둘째, 라오스 지원 사업인 '라오스 문화산업-창조적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라오스 문화산업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문화산업발전 최우선과제 규명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파악 및 연계를 하였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 부문 중 한 개 이상의 부문을 위한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문화창의산업 지원의 처음단계이므로 문화산업과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제고 워크숍('12.3), 라오스 문화산업부문에 대한 기초연구('12.4~7), 기초연구결과에 관한 공 · 사부문의 전문가 검토, 라오스의 공식 '2005 Convention 위원회' 구성('13.2), 문화산업부문 기초연구결과의 정부 2일간의 워크숍 개최('13.3) 등 문화산업 발전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추진하였다.

셋째, 몽골 지원 사업인 '몽골의 공예산업 강화'이다. 공예분야에 중점을 둔 고유 접근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기관, 학계, NGO,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결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창조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형성지원 등을 하였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프로젝트팀구성 및 각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Consultation meeting) ('12.3), 사업지역인 Orkhon Valley 공예산업부문 연구, 관련 워크숍 및 조사('12.4~'13.3), 문화기반 공예산업제품 디자인 개발관련 7일간의 트레이닝워크숍('13.4), 문화기반 공예산업 제품 개방 및 마케팅에 관한 6일간의 워크숍('13.5), 공예 디자인 및 개발 훈련교재 개발('13.9), 사업관련 지역차원의 공예산업 중요성 인식제고 라운드테이블 개최('13.9) 등을 추진하였다.

넷째, 베트남 지원 사업인 '광남 지역의 공예마을 관광 진흥'이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의 공예마을 관광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였으며, 공예품생산과 관광부분 연결성 강화로 소득창출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검증, 시행과정의 문서화를 하였으며, 지방 관광협회 설립 및 운영 등을 하였다. 사업 기간 중 사업 대상 지역인 Quang Nam지역의 공예산업관련 설문 개발과 조사, 데이터 수집 및 종합자료집 준비 ('12.4~'13.5), 제품개발단계로서 공예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도, 시제품 개발 ('12.7~'13.5), 공예예술가 역량강화 워크숍 수회 개최, 마케팅단계로서 포장 및 상표 재료 개발, 국제기관의 협력 하에 제품 브랜드 부여작업, 베트남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개소 지역과 공예마을 내 공예제품 전시판매점 개설, 사업관련 사항 문서화 등을 추진하였다.

표 3-4-10 유네스코 협력사업

【유네스코 협력사업】
○ (목적)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위한 창조산업개발 지원
○ (방식) 유네스코 신탁기금(fund-in-trust) 기금 출연
○ (근거) 유네스코 개도국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MOU(2006 체결, 2008 수정)
○ 사업 현황
- 1차 사업('07~'10년) : 베트남 전통공예산업 발전,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3억)
- 2차 사업('10~'11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통공예 보존 · 발전(3억)
- 3차 사업('11~'13년) : 부르키나파소 문화산업 육성기관 설립지원, 라오스 · 몽골 · 베트남 창조산업 지속가능성 강화(5억)
- 4차 사업('13~) : 라오스 · 몽골 · 베트남 창조산업 지속가능성 강화(5억)

제5절 도서관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육성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서관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지식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도서관 구현 등을 담은 5년간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 · 발표('08.8월)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1차년도 '09년 시행계획('08.12월)과 2차년도 '10년 시행계획('09.12월), 3차년도 '11년 시행계획('10.12월)과 4차년도 '12년 시행계획('11.12월), 5차년도 '13년 시행계획('12.12월)을 수립 · 시행함으로서 도서관 발전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 · 작은 도서관 건립 ·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가는 한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의 내실화,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 설립 등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도서관 · 문학관에 문학 작가 파견, 우수학술 · 교양도서 보급, 오픈액세스 등 디지털서비스 기반 구축, 다문화와 취약지역 대상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책 읽는 문화 · 독서사회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독서진흥정책은 중요한 문화정책"이라는 전제 아래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 독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독서문화 진흥 1차(2009 ~2013)기본계획'(08.6월)과 '2차(2014~2018)기본계획'(2013.12월)을 수립 · 발표하였고, 이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사회적독서진흥기반조성 ② 생활 속 독서문화정착 ③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④ 함께하는 독서복지구현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도서관정책은 문교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고 이와 함께 도서관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는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1년 4월 8일 도서관정책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이관과 함께 어문출판국 도서출판과에서 도서관 및 국민독서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4일 어문출판국 폐지와 함께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 신설과 함께 생활문화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를 통합하여 문화정책국에 도서관박물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 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조직 개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8588호)을 단행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기능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06년 2월에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역단위의 도서관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006년 4월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면서 도서관이 국가 지식정보센터의 중추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7년 4월 5일 「도서관법」 전면개정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조직을 일부개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제20042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는 한편, 5월 22일 문화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6월 12일에는 대통령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 추진 및 주요사항의 부처간 조정과 통합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업무를 이관 받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도서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2008.12.31)에 따라 1월 1일자로 정책기획과 · 정책조정과 · 제도 개선팀을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진흥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폐지하여 그 업무를 도서관진흥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2009.5.4)에 따라 도서관진흥과를 도서관진흥팀으로 개편하였으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 2012.8.7)에 따라 도서관진흥팀을 도서관진흥과로 개편하였다.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22246호, 2010.30)하여 그간 미디어정책국에서 관장해오던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여 기존 도서관 업무와 함께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연계하여 사업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관련 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도서관 설립 및 육성 지원,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정보화 정책 추진 등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하여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1기(임기: 2007.6.12~2009.6.11)에 한상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3명과 당연위원 9명 등 22명으로 구성 · 운영하였으며, 제2기(임기: 2009.6.12~2011.6.11)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7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7명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11년 6월 11일에 제2기 위원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제3기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차기위원장 위촉한 후, 위원장이 차기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도서관법(2011년 4월 5일 공포)」의 시행시점인 2011년 7월 6일 이후로 위원회 구성일자를 변경하였다. 제3기 위원회(임기: 2011.8.1~2013.7.31)는 제2기의 김봉희 위원장이 연임하고,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4명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소위원회', '대학 · 전문도서관소위원회', '학교도서관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및 사전 심의하는 등 14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도서관정책포럼은 4개 소위원회의 주관으로 2012년에는 4회 개최하였다.

제4기 위원회는 2013년 12월 최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15년 12월까지이다.

표 3-5-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구분	제3기 위원회	제4기 위원회
설치근거	○ 도서관법 제13조	○ 도서관법 제13조
설치목적	○ 도서관정책의 수립 · 심의 · 조정	○ 도서관정책의 수립 · 심의 · 조정
위원구성	○ 24명(당연직 10명, 위촉직 14명)	○ 26명(당연직 11명, 위촉직 15명)
임 기	○ 2년(2011.8.1~2013.7.31)	○ 2년(2013.12.3.~2015.12.2)
위 원 장	○ 김봉희	○ 최은주
부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일반현황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 수

표 3-5-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 1관당 인구 수

(단위: 개관/명)

국가	연도	도서관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한국	2013	865	51,141,463	59,123
미국	2011	8,956	304,283,000	33,975
영국	2012-2013	4,191	63,702,000	15,200
독일	2012	7,979	80,523,700	10,092
일본	2013	3,248	126,660,000	38,996

※ 장서수 : 인쇄자료에 해당(비도서,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제외)

※ 출처 :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11.
영국 – LISU(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Unit)
독일 – 독일 DBS:German Library Statistics
일본 – 일본도서관협회

2) 전국 도서관 수

표 3-5-3 전국 도서관 수

('13.12.31 현재 / 단위: 개관)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서울	2,534	3	123	754	85	1,287	279	3
부산	936	-	31	240	24	615	24	2
대구	672	-	28	178	16	427	21	2
인천	760	-	39	192	11	502	15	1
광주	693	-	17	350	16	300	9	1
대전	570	-	23	181	18	300	47	1
울산	386	-	13	128	4	234	6	1
세종	52	-	1	8	3	39	1	-
경기	3,670	-	194	1,047	81	2,239	102	7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강원	855	-	47	153	23	617	11	4
충북	729	-	38	195	18	461	14	3
충남	1,019	-	55	216	27	709	6	6
전북	960	-	53	152	21	723	9	2
전남	1,167	-	60	205	19	872	7	4
경북	1,261	-	63	206	38	931	15	8
경남	1,367	-	59	311	22	948	23	4
제주	388	-	21	170	4	186	6	1
계	18,019	3	865	4,686	430	11,390	595	50
총계	19,664	병영도서관 1,606개관, 장애인도서관 39개관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표 3-5-4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도서관 수	600	644	703	759	786	828	865
1관당 인구수(명)	82,115	76,926	70,801	66,556	64,547	61,532	59,123
1석당 인구수(명)	176	161	154	158	163	162	157
1인당 책수(책)	1.02	1.11	1.26	1.34	1.43	1.53	1.64
도서(인쇄)수(천책)	50,178	55,227	62,562	67,488	72,475	78,126	83,969
직원수(명)	6,061	6,388	6,785	7,018	7,169	7,382	7,630
사서직원수(명)	2,684	2,891	3,052	3,175	3,320	3,447	3,673
운영예산(천원)	417,438	482,242	605,976	610,044	609,283	694,244	744,952
이용자수(천명)	186,939	204,919	235,212	258,316	270,480	285,406	287,018
이용책수(천권)	90,624	93,600	112,998	119,074	124,033	125,556	130,886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 직원수 및 사서직원수는 정규직원에 한함

표 3-5-5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13.12.31 현재)

시 · 도	도서관수				
	공립		사립	계	1관당 인구수
	지자체	교육청			
서울	22	97	4	123	82,469
부산	14	15	2	31	113,795
대구	12	12	4	28	89,342
인천	8	31	0	39	73,841
광주	5	12	0	17	86,642
대전	2	21	0	23	66,644
울산	4	9	0	13	88,960
세종	1	0	0	1	122,153
경기	11	177	6	194	63,065
강원	22	24	1	47	32,814
충북	15	23	0	38	41,388
충남	19	36	0	55	37,230
전북	18	34	1	53	35,339
전남	21	39	0	60	31,786
경북	28	34	1	63	42,848
경남	24	35	0	59	56,505
제주	6	15	0	21	28,276
계	232	614	19	865	59,123

3 정책현황 및 주요 성과

1) 도서관 및 독서관련 법제도 정비

(1) 법령 개정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의 접근과 이용환경은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으로 급속히 진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접근

권의 급속한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기회보장을 통한 평등권 실현의 장(場)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2011년에는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도서관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재윤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작은 도서관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안(김재윤 의원)을 2009년 1월 19일에, 작은 도서관 지원법 제정안(강창일 의원)을 2009년 1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된 뒤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작은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4월 5일 공포, 7월 6일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국 · 공립 도서관에서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도서관의 조성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에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도서관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였다.

2011년에는 이 밖에도 국회에 도서관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3건 제출되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3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기본계획 수립, 법제 정비,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 · 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장애인의 독서 및 교육 · 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7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수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1년 12월 23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을 도서관법에 반영하고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폐지 및 그 기능을 흡수 ·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 운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하였다. 본 법률안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어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08년 8월 7일에 수립 · 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은 제1차 5개년계획에 해당되며,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방법,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 등을 관계 부처 간 협의 ·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였다.

본 종합계획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①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 도서관 ·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③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목표에 따르는 8대 정책영역과 29개 주요 정책과제, 71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 · 제시하였다.

표 3-5-6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Ⅰ.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1.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2.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3.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인력 확보
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1.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 개선 2. 학교도서관 교수 · 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3.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운영기반 강화 4.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
Ⅲ.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Ⅳ.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	1. 주제 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운영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위상 강화 3. 국회도서관 입법 활동 지원체계 강화 4. 국가 법률정보문화센터로서 법원도서관 육성
Ⅴ. 교육 · 학술 · 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 · 전문도서관 진흥	1. 대학도서관 연구 · 교육활동 지원 강화 2. 대학도서관 지원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지원 강화 3. 전문도서관 경쟁력 및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4.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도서관 활성화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Ⅵ.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1.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기반 마련 3. 도서관 전문 인력의 재교육 강화 4. 도서관 전문 인력의 지속적 충원
Ⅶ.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1.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지식정보서비스 환경 구현 2. 지속가능한 도서관 지식정보 활용기반 조성 3.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서관 구현 4. 효율적인 도서관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Ⅷ.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1. 전국 도서관 협력체제 강화 2.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3. 국제 정보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또한 본 종합계획의 71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 · 도는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심의 · 조정을 거쳐 2009년(제1차년도)부터 5개년 간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1차년도('09년)와 2차년도('10년), 3차년도('11년)와 4차년도('12년), 5차년도('13년)에 확정 · 발표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가 중장기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도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5개년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과제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에 이바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정책영역 부문에 2009년에는 4,354억 원(총 예산의 80.2%), 2010년에는 5,816억 원(총 예산의 80.3%), 2011년에는 5,526억 원(총 예산의 73.8%), 2012년에는 4,334억 원(총 예산의 71.2%)을 중점 투자하는 등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71개 세부추진과제 시행에 대한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총 6,486억 원(국고, 지방비, 민간투자 모두 포함)의 재원이 투입되어 주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분야에 가장 많은 4,648억 원의 재원이 투자되었다.

나.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 6월에 수립 · 발표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은 제1차 5개년계획에 해당되며,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방법, 그리고 역점 단위과제

등을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였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의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국민 독서 활성화'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독서환경 조성 ②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③ 독서운동 전개 ④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한 22개 단위과제와 52개 세부 단위사업을 수립 · 제시하였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의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국민 독서 확산'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사회적 독서진흥기반 조성②생활속 독서문화정착 ③ 책읽는 즐거움의 확산 ④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한 22개 단위과제와 52개 세부 단위사업을 수립 · 제시하였다.

표 3-5-7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 단위과제
1. 독서환경 조성	① 독서진흥 협력체계 구축 ②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③ 학교 독서환경 개선 ④ 책읽는 직장 만들기 ⑤ 우수 독서자료 지원 ⑥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⑦ 독서문화 기반 확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①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②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③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프로그램 보급 ④ 독서정보시스템 구축
3.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① 국민참여형 독서운동전개 ② 다양한 매체를 활통한 국민독서 참여 확산 ③ 지역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 ④ 독서를 통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4.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	① 독서 장애인 독서서비스 확대 ②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화 ③ 병영,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④ 다문화가정의 독서 접근성 제고

또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18〉의 19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

획(안)을 수립하여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도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의 주요성과를 보면, 연령대, 수준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지역과 계층의 차별이 없는 온 · 오프라인 독서교육과 독서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모은 DB를 구축 및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독서활동을 생활화하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독서의 달(9월) 행사 등 계기별 기념행사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영 · 유아 독서운동 '북스타트' 뿐만 아니라 어린이 · 청소년 대상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 '책날개 운동' 등 읽기와 읽히기 운동을 통해 독서흥미를 유발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대활자본 자료 제작', '어르신 책 읽어주기 전문가 양성' 등 통해서 독서활동을 지원하였다. 다문화 자료 수집 및 도서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확충을 통한 문화 향수권 신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OECD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

정부는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근거하여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인구 약 5만 명당 1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교육 · 문화 중심지이며 복합문화정보공간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전 국민의 정보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반회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12개 시 · 도 47개관 388억 원을 지원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중소형, 복합 건물 형태로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기존 타 용도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지원하였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에 총 868개 공공도서관이 (인구 약 5만 9천 명당 1관 수준) 운영 중에 있다.

2008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건립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 · 시공 · 운영 전반에 관련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서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8년 3개관, 2009년 11개관, 2010년 12개관, 2011년 12개관, 2012년 30개관, 2013년 48개관 등 총 116개관을 지원하였다.

(2)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2004년부터 시작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후한 소규모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총 564개관(정부지원 521개관, 기업후원 43개관)을 조성하였다.

표 3-5-8 작은 도서관 조성실적 및 예산액

사업 년도	'04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조성실적 (개관)	25	58	72	69	61	68	60	56	52	521
예산액 (억 원)	25 (복권 기금)	36.5 (복권 기금)	50 (복권 기금)	48.5 (문예 기금)	35 (일반 회계)	33.8 (일반 회계)	34.2 (일반 회계)	28.5 (일반 회계)	28.5 (일반 회계)	320

※ '13년 현재 총 564개관(374.8억 원) : 정부 521개관(320억 원), 기업후원 43개관(54.8억 원)

국비조성 이외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추진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8년부터 민간기업 등의 후원금 유치를 통해 조성되었다. 전국 읍 · 면 · 동 마다 작은 도서관 1개관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은행, STX, 한국수출입은행이 43개관에 54.8억 원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매뉴얼 등 자료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후원에 대한 기업 ·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발전방향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MBC-TV 특집 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 방영하였다.

표 3-5-9 민간기업 후원 현황

(단위: 백만 원/개관)

후원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국민은행	1,000/10	800/6	850/6	800/6	700/5	10006	5,150/39
STX	300/ 3	-	-	-	-	-	300/ 3
한국수출입은행	30/ 1	-	-	-	-	-	30/ 1
계	1,330/14	800/6	850/6	800/6	700/5		5,480/43

(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 사업은 직장인 · 학생 등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자료실을 개방하여 도서관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6년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80개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참여 공공도서관이 364개로 증가하면서 창출 일자리도 1,046명으로 늘어나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표 3-5-10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도서관 수	80	117	253	257	300	357	364
일자리 수	435	400	879	706	832	1,006	1,046
예산(백만 원)	5,675	4,299	6,795	6,441	6,441	8,000	9050

(4)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 지역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처음 시작하여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179개관에 순회사서 각 1명씩을 배치, 총 716개관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였다. 작은 도서관에 파견된 순회사서에게는 장서관리기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작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였다.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 결과 '작은 도서관 운영자' 만족도 81% '이용자' 만족도 75% 등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시청각 어린이도서관 시범 조성 지원

'시청각 영어도서관 시범 조성 지원'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영어 특성화 도서관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 간 독서 · 교육 · 문화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건립 지원 및 기존의 공공도서관, 타 용도 건물이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4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를 통해 공모하였고,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사업의 현실성과 추진 의지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전남 목포시 영어도서관 조성, 경남 밀양시 영어도서관 조성 등의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원 내용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즉 설계비, 리모델링 및 건축 공사비, 시설부대비, 자료구입비 등이고, 지원비율은 총사업비 중 국비 50% 매칭이며, 2개관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시청각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지원을 하였으며, 서울 은평구, 부산 북구, 경북 영주시 3개관에 각 10억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6)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최근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자료 수집이나 정리 · 보존 · 열람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지역의 복합여가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책과 연관된 예술 강좌를 포함해 취미생활 연계교양강좌,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회, 감상회, 연주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서관과의 연관성, 전문성, 예산규모, 인적구성,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한 독서 · 교육 · 문화프로그램을 공모, 총 37,981개의 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하였다. 이는 당초 26,304개로 계획했던 사업추진계획 대비 144퍼센트의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표 3-5-11 2013년 시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프로그램 수	8,238	1,878	1,330	1,526	466	3,288	594	130	8,27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프로그램 수	1,407	1,637	2,049	776	890	2,919	2,173	407	37,981

(7)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2006년 10월「도서관법」개정을 통해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그동안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 체계 속에서 관 종별로 분산 발전해 온 도서관서비스가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 광역시 · 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조정 ·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의 수립 지원,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 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자료의 공동보존 등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서, 해당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 · 도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11년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용증 하나로 해당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부산과 인천 지역 50개 도서관에서 통합도서서비스를 시범운영 하였고, 대구지역의 대구중앙도서관 등 1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2013년에는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제주지역 등 3개 지역에 통합도서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표 3-5-12 시 · 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 지정 현황 (도서관진흥과, 2013.12.31)

시 · 도	지정 및 설립	조례 제정	지방도서관 정보 서비스위원회
서울특별시	'12.9.28 설립 (서울도서관)	'08.11.13	'12.12.18
부산광역시	'08.4.29 지정 (부산시립시민도서관)	'12.7.11	검토중
대구광역시	'11.3.1 지정 (대구중앙도서관)	'09.3.10	검토중
인천광역시	'08.4.1 지정 설립 (명칭변경: 인천시립 → 인천미추홀,'09.6.23)	'09.4.6	'10.4.1
광주광역시	'10.12.21 지정 (광주광역시립도서관)	'07.6.30	'11.11.4
대전광역시	'07.9.20 지정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8.1.4	'08.12.20
울산광역시	'12.12.28 지정 (울산중부도서관)	'10.4.15	검토중
경기도	'12.1.17 지정 (파주교하도서관)	'07.8.6	'09.9.16
강원도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충청북도	검토중	'11.7.8	검토중

시 · 도	지정 및 설립	조례 제정	지방도서관 정보 서비스위원회
충청남도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전라북도	'10.11.22 지정 (전북도청도서관)	'07.11.2	검토중
전라남도	'11.10.20 지정 (전남도립도서관)	'11.10.20	'12.4.23
경상북도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경상남도	검토중	'10.2.11	검토중
제주특별자치도	'08.11.13 설립 (지정변경:우당('07.4.5) →한라도서관)	'08.3.5	검토중

3) 독서문화 진흥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여 평생 독서습관을 기르자'라는 취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독서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 세계 약 15개국에서 실시 중인 북스타트 운동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후원금을 모아 가방과 가이드북을 무상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및 후속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하는 민관협력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타트 운동을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교육 사업을 확대하여 각 지역의 신생아 전원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강화. 청소년 북스타트 운동의 시범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다.

표 3-5-13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아 수 현황 (2013년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62,475명	93,197명	104,125명	104,982명	133,450명	118,700	▲17.9%

표 3-5-14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 (2013년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58개(25%)	88개(37%)	106개(46%)	111개(48%)	129개(56%)	141(60%)	▲28.6%

또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책 읽어주기 관련 문화교육을 이수한 50세 이상의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가 책의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외시설에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진행하였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에게는 은퇴 후 노인의 문화적 여가활동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책을 매개로 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침으로써 각 지역 내 고유의 책 읽어주기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3-5-15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연도별 추진실적

활동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육활동	교육(회)	72	106	89	70	88
	교육생(명)	84	85	209	247	194
봉사활동	방문(회)	278	348	1,831	2,268	1,912
	봉사단(명)	754	1,011	178	193	183
	방문기관(개)	80	107	390	567	451
	수혜대상(명)	7,354	10,500	45,775	50,488	45,137

'대활자본을 이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은 독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장려하고 공공도서관이 자관 구역 내 노인정 등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활자본 22종 22책(총 6,900책)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대활자본을 이용하여 어르신 문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다. 대활자본을 이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출판계와 도서관계에서도 대활자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고, 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어르신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각종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책 읽고 감상 나누기, 마음 치유를 위한 글쓰기 등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 20곳, 수용자 230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장병들의 정서함양 도모 및 향후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50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독서코칭 415회 및 도서 48,500권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병영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1)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2012년 12월 29일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사회 계층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 지침 제정, 서비스 평가 및 컨설팅 제공, 대체자료 수집 · 제작 · 표준제정 · 품질검증,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 보급, 관종별 도서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지식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자료를 대체자료로 제작 · 보급하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도서자료, 자막영상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nlid.nl.go.kr)를 통해 서비스하였다.

표 3-5-16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작종수	460	2,000	3,244	3,355	4,155

이 밖에도 총 58개관 71건에 걸쳐 장애인 대상 국가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물리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나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2개관의 도서관에서 8,726명의 시각 및 중증(1 · 2급) 청각 · 지체 장애인에게 도서무료택배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용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보다 널리 보급하고자 총 649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40,291건에 해당하는 통신요금바우처 제도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2013년 연간 이용자 수가 총 6,548명에 이르렀다. 끝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선 도서관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및 관련 장비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전국 7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총 63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3-5-17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구비 지원 현황

연도	지원분야	지원기관	소요예산 (백만 원)
2009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5개관(부산 시민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등)	60
2010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7개관(서울 월계정보문화도서관, 대구 중앙도서관 등)	70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4개관(강원 춘천평생교육관, 경남 함안도서관 등)	20
2011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16개관(인천 중앙도서관, 충남 두정도서관 등)	130
2012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20개관(충북 진천군립도서관, 전남 담양공공도서관 등)	140
2013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20개관(서울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경남 양산시립도서관 등)	210

나.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였다. 또 이를 계기로 다문화 도서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족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교육 · 치료를 통한 문화차이 해소와 타 문화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5-18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연도	다문화자료실 조성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백만 원)
2009	2개관	김해다문화도서관, 성환읍다문화 도서관	12개관	강동구립성내, 달서다문화 가족, 광주시립산수도서관 등	182
2010	6개관	부산시민, 인천중앙, 한밭도서관 등	16개관	동대문, 안산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346
2011	11개관	은평구립, 영통, 목포공공도서관 등	30개관	고척, 사상, 인천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570
2012	11개관	서울 조원도서관, 정독도서관 등	40개관	은평구립, 부산시민,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600
2013	7개관	부산 남구도서관, 대구서부도서관 등	89개관	은평구립, 부산시민,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700

(2) 취약지역 도서 보급

200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전국의 문화 소외지역 · 계층의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교정시

설 등에 우수 문학도서를 선정 · 보급해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반기별로 40명씩 달리 구성하여 시 57종, 소설 80종, 아동청소년문학 123종, 수필 45종, 평론희곡 10종 등 총 315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도서를 상반기 2,326개, 하반기 2,298개 보급처에 배부하였다.

표 3-5-19 취약지역 도서 보급처 현황(2013)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보급처수	2,326	2,298

표 3-5-20 취약지역 보급 도서 선정종 수(2013)

반기	시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	평론 · 희곡	합계
상반기	24	40	64	19	4	151종(151권)
하반기	33	40	59	26	6	164종(164권)
계	57	80	123	45	10	315종(315권)

(3)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교육 · 문화 환경 개선 및 독서진흥을 위해 2007년 아프리카 가나에 작은 도서관 2개관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8개국에 58개관을 조성하였다.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도서, 서가 등의 도서관 물품, 독서 ·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학습 · 독서능력 향상, 한국의 인지도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5-21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	비고
2007	아프리카 가나	2개관	30,000	복권기금
2008	아프리카 모잠비크	5개관	150,000	문예기금
2009	아프리카 탄자니아	4개관	300,000	관광기금
	아프리카 가나	4개관		관광기금
2010	아프리카 가나	2개관	70,000	관광기금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	비고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개관	500,000	일반회계
2012	가나(5), 에티오피아(2), 탄자니아(3), 몽골(3)	13개관	861,000	일반회계
2013	가나(3), 에티오피아(3), 탄자니아(3), 잠비아(3), 케냐(1)	13개관	860,000	일반회계
계		58개관	2,771,000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1) 디지털콘텐츠 공유 확산

오픈액세스는 고비용, 비효율적 학술정보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료, 저작권 등의 장벽 없이 학술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09년 3월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의 주요 세부성과로는 국가 지식정보의 오픈액세스 정보유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된 한국형 기관 리포지터리인 OAK Repository(Open Access Korea Institutional Repository)의 개발과 보급을 들 수 있다. OAK 리포지터리의 구축으로 국내의 지식자산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국내 기관 리포지터리에 구축되어 있는 논문, 보고서, 특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국내 25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발굴하였고, 미국 의학도서관의 PMC Journal Publishing DTD 3.0 분석을 통해 XML Full-text 워크벤치를 개발하여 학술논문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언어자원과 의미기반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언어자원 생성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콘텐츠의 검색기능을 향상하였다.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공공 연구성과물 공공접근정책 연구를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여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매년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Open Access Week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의 오픈엑세스의 활동과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국내 오픈액세스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OAK 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 기술 등을 포함한 모든 결과물은 5년간(2009~2013)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

최근 도서관 RFID 기술이 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첨단화해 주는 기술로 국내외 도서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RFID 기술은 도서관 소장 장서에 바코드 대신 소형 전자칩을 부착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사서 인력을 보완하고, 장서점검 및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5-1 오픈엑세스 지식정보의 유통 흐름

그림 3-5-2 u-도서관 서비스 지원 환경 구성도

이와 같은 도서관 정보화에 흐름에 발 맞춰 행정안전부의 'u-기반 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RFID 환경하의 도서관리 및 스마트폰 기반의 도서검색, 자동 도서대출/반납,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 등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u-서비스 기금으로 2010년 u-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한 서울시 강북구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한 관내 5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새마을문고를 통합하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역사에 예약 대출기 및 자가 반납기를 설치하여 '강북 u-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한 자료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무인예약대출 서비스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도서관 자료의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조사 내실화

가.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2003년까지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유도하여, 문화기반 시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은 국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2007년 공공 · 대학 · 학교 · 전문 · 병영 · 교도소도서관 등 6개 관종 56개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완된 평가지표로 2008년 처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5개 관종 총 2,319개관이 참여하였다. 이후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총 3,260개관이 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기준은 전년도 도서관 운영 실적이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이 확정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0년부터 서면평가 우수기관인 현장실사 기관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조사('09년 54개관, '10년~'13년 60개관)를 병행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수기관 심의에 반영하였다.

평가포상은 2008년부터 정부 및 장관 표창이 도서관 단체상으로 배정되어 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또한 단체상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되었다. 우수도서관 시상식은 2009년부터 전국 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욱 높였다.

표 3-5-22 지난 3년간 관종 별 도서관 평가 참여 현황

구분	공공	학교	전문	병영	교도소	계
대상기관	786	11,506	595	1,663	50	14,600
2013년 참여기관	786	2,110	63	251	50	3,260
2012년 참여기관	759	2,079	78	160	47	3,123
2011년 참여기관	699	1,707	65	117	46	2,634
참여방법	전수	공모	공모	국방부 추천	전수	

※ 2,319개관('08년), 3,080개관('09년), 2,507개관('10년), 2,634개관('11년), 3,123개관('12년), 3,260개관('13년) 참여

표 3-5-23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2013)

정부표창		
대통령상	공공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예산초등학교(충남)
국무총리상	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전남)
		성남시수정도서관(경기)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인천)
		군포시중앙도서관(경기)
	학교도서관	대전목상초등학교(대전)
		성남동중학교(경기)
		가람초등학교(경기)
	병영도서관	육군부사관학교(전북)
특별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공공도서관	용산도서관('12년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공공 도서관	1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전남)	7	교하도서관(경기)
	2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경북)	8	종로도서관(서울)
	3	성남시중원도서관(경기)	9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제주)
	4	강동구립성내도서관(서울)	10	금산도서관(충남)
	5	강동구립암사도서관(서울)	11	제주시기적의도서관(제주)
	6	제천기적의도서관(충북)	12	아산시립어린이도서관(충남)
학교 도서관	1	대구다사초등학교(대구)	7	소하고등학교(경기)
	2	대구동성초등학교(대구)	8	대천여자고등학교(충남)
	3	인천계양초등학교(인천)	9	송곡여자고등학교(서울)
	4	대전구봉초등학교(대전)	10	인천경원초등학교(인천)
	5	고색초등학교(경기)	11	하안중학교(경기)
	6	영성여자중학교(경기)	12	대구성동초등학교(대구)
병영 도서관	국직	777사령부(경기)		
	육군	제12사단 37연대(강원)		
	해군	전투병과학교(경남)		
	공군	방공포병학교(대구)		
전문 도서관	1	서울연구원(서울)		
	2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교도소 도서관	1	홍성교도소(충남)		

나. 도서관 통계조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은 ① 도서관 전체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 작성, ② 도서관 정책 추진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③ 통계조사 결과공유를 통한 부처간 중복조사 방지 및 통계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08년 8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발' 및 '전국 도서관 통계'의 국가통계로 승인, 2008년(1차년도) '전국도서관통계조사' 실시 및 2009년 2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통'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조사 · 수집된 도서관 통계 정보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도서관통계"의 조사대상은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서관으로, 조사범위는 도서관 기본정보를 포함한 8개 영역(소장자료, 시설 · 설비, 인적자원, 예 · 결산, 이용자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이다. 통계작성은 관종별 도서관 통계담당자가 웹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통계 설문에 응답하는 '보고통계' 형태로 추진되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또한 통계작성의 중복 방지 및 관종별 단위도서관의 업무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도서관 통계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도서관 통계담당자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서관 통계의 품질 제고 및 신뢰도 있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5-24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2013)

조사 대상	대상기관 수	조사 방법	통계 협력기관
1. 국립도서관	3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 공공도서관	865		17개 시 · 도 및 시 · 군 · 구 (시 · 도 교육청 포함)
작은도서관(문고)	4,686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문체부(작은도서관 담당)
장애인도서관	39		국립장애인도서관
교도소도서관	50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법무부
병영도서관	1,606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국방부
3. 대학도서관	430		교육부
4. 학교도서관	11,390		교육부
5. 전문도서관	595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 등
계	19,664		

4 국립중앙도서관

1) 조직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지적 문화유산을 총체적 ·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의 총보고'이다.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인수하여 '국립도서관'으로 개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도에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으로 3부 3관 1연구소 /18과 1팀 1연구소로 개편 ·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 인원은 333명으로 사서직 190명, 행정직 50명, 전산직 22명, 기술직 9명, 방호 · 운전15명, 학예직 12명, 관리운영직군20명, 일반임기제14명, 전문경력나군1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3년 세입예산은 재산수입(토지 · 건물대여)133,914천원, 경상이전수입 6,000천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086천원, 수입대체경비수입 340,413천원 등 총 487,41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금액은 848,769천원으로 예산액과 대비하여 361,356천원(74.1%)이 초과 징수되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837,161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65,382,168천원이다.

2) 주요성과

(1) 국내외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관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납본 및 구입, 기증, 국제교환 등에 의해 국가문헌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수집하여 대국민 이용서비스 제공 및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있다. 또한 납본을 통한 국내 출판물의 총체적 수집 이외에도 납본제도 시행 이전('65)에 발행된 국내자료, 국외 발행 한국관련자료, 국제기구 자료 및 서양서 등 다양한 언어의 자료 역시 구입 및 수집하고 있다. 대국민 도서기증사업 '책다모아' 를 운영하여 미 소장 국가문헌을 확충하고, 국제자료교환을 통하여 각 국의 출판정보,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회색문헌(비 유통 연구자료)등의 다양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증가에 따라,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를 통한 국가차원의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자료의 수집 강화 및 체계 개선을 위하여 납본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법적 납본기간인 출판 후 30일 전후로 차등지급하고 출판유통사(교보문고 등) 및 릴리스(배포)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을 강화하였다. 또한 납본강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납본 홍보문 게재, 납본제도 관련 홍보 브로슈어 배포, 서울국제도서전에 국립중앙도서관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출판사, 잡지사, 유통업계 등을 대상으로 납본 및 관련제도를 홍보하였다.

2011년에는 납본 · 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 종류 · 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제1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문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2010년에 수립하여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따른 세부지침도 작성하여 향후 국가문헌의 일관된 수집계획 및 관리 지침서로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3년도에 납본, 구입, 기증, 교환을 통하여 46만5천 여 책(점)을 수집, 2013년 12월말 현재 937만여 책(점)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점차 희귀해져 가는 고문헌 수집으로 『전북 남원 삼계면 경주김씨가 고문서』 등 고서, 고문서, 고지도 63종 3,792책(점)을 구입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영인 수집으로서 국내는 규장각 소장 『책략』등 923종 2,629책(마이크로 필름 201롤), 사우당 소장 205종 2,843책 (디지털파일 31,516면)수집하였으며, 국외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소장『삼강행실충신도』등 30종 82책(디지털파일12,729면), 미국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예조입안』 등 137종 324책 (디지털파일 43,432면), 캐나다토론토대학교 소장 『여흥민씨간찰』등 287점(디지털파일 923면)을 수집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회색문헌 수집전담팀을 구성하여 국가문헌의 중요 연구자원인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 등으로 대표되는 회색문헌을 71,498책(점)을 수집하였으며, 회색문헌 출판현황 및 수집방안 모색을 위한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수집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납본 인식 확산을 위해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을 수집하여 배포하였으며,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간행물 미납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신속하게 납본하고 ISBN과 CIP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문헌 수집에 공헌한 출판(제작)사와 기증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 · 보존하고 있는 미 행정부 생산 공문서와 NARA 콜렉션(Collection) 중 한국관련 기록자료를 디지털 영인 수집하여 한국 근 · 현대기의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연구를 위한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한국관련 기록자료 189,941면을 수집 · 정리하여 현재 총 28,273건의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와 2,053,776면의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분류 · 목록 등 자료정리 작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 자료정리실적은 국내서 · 중국서 · 일본서 351,072책, 서양서 44,060책, 고문헌 362책, 비도서자료 85,099점 등 총 480,593책(점)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국가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서지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3-5-2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구 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 서	비도서	계
수량(책 · 점)	6,443,686	287,818	76,946	792,328	273,210	1,500,485	9,374,473
점유율(%)	68.7	3.1	0.8	8.5	2.9	16.0	100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우리나라 지적문화유산 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개설된 자료보존센터는 총 7개의 전문 자료보존시설과 국제도서관연맹(IFLA)보존 · 복원분과(PAC)한국센터 사무실을 겸한 자료보존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자료보존 처리 및 전자매체 보존 등 다양한 보존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서고 소장자료 외에 외부환경에 노출된 자료를 곰팡이 · 미생물들의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87,143책을 소독처리하고 1980년 이전자료들의 산성화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탈산처리를 4,300책 실시하였다. 또한 먼지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1900~1945년 이전 출판된 원본자료 중 먼지로 오염된 『불서해설』 등 26,641책의 건식세척을 집중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량 보존처리 외에 귀중본, 유일본 등은 개별적인 전문 보존 ·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1945년 이전자료 중 훼손된 원본자료 318책을 상태점검, 건식세척, 제본복원, 멸실부분 보강 등 복원처리를 통하여 기대수명을 연장하고 귀중서 잡지 '여성' 등 2책은 습식세척, 탈산처리, 재제본, 멸실부분 복원 등 심층 보존 · 복원처리 하였으며, 원본자료 복원처리 외에 마이크로필름 제작, 복제, 수세처리를 실시하여 「한국일보」 등 1,147롤을 제작 · 복제하고 『동광신문」 등 1,554롤을 수세 처리하였다.

IFLA PAC(세계도서관연맹 보존 · 복원분과)한국센터는 2013년에는 자료보존 교육과 협력을 위하여 "사서를 위한 간단한 수선 · 복원 실습" 워크숍과 "자료 보존 · 복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존기술자료집 제5호를 번역 · 발간 배포하였으며 해외 보존기술 조사 · 발표 활동, IFLA PAC 한국센터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가. 디지털 지식정보 콘텐츠 확충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날로그 책자형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보존과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 중 44만권을 원문DB로 구축 ·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의 가치 있는 자료를 웹로봇을 통하여 아카이빙하는 오아시스(OASIS)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 2013년에는 웹자료 83,000건, 웹사이트 20,134건, 총 103,134건의 공개용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634,807건의 공개용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오아시스 및 디브러리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 전자저널과 판매용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자책 8,323책, 전자저널 1,025종 87,380건, 오디오북 78종 613건, 이러닝자료 47종 533건을 수집하였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총 1,722,770건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장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 보존되고, 디브러리 포털을 통하여 관내이용자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수집 온라인 자료 중 학회지의 경우에는 협약 공공도서관에서도 서비스하며, 소외계층 지원 사업 일환으로 전자책 3,714책은 별도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전국 884개 농산어촌 작은 도서관에도 제공하고 있다.

나. 디브러리 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 공간인 "디브러리 포털(www.dibrary.net)"은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25일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공공 · 민간 지식정보기관들과 폭넓게 데이터를 연계하는 협력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디브러리 포털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한 원문DB(44만책),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2,454,853건)를 비롯하여, 국내외 1,358개 기관과 연계한 1억 7천 7백만건 이상의 디지털 지식정보가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특성화 콘텐츠를 제작 ·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서 디브러리 블로그(http://blog.naver.com/dibrary1004)와 트위터(http://twitter.com/dibrary1004)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 정보광장(IC : Information Commons) 운영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공간인 정보 광장은 모든 방문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기 및 자료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 ·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메인 로비로서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광예술판, 디지털 신문대, U터치 테이블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 디지털 정보 및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하3층과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원문자료 및 각종 웹DB, 학술저널, 논문 등 온라인 정보자원을 열람하고, 문서편집을 할 수 있는 디지털열람실과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과 이미지 · 영상자료를 편집 할 수 있

도록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센터가 있는 지하2층이 있다. 이외 영상 · 음향 · UCC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013년 개관일수는 310일이었고, 총 212,907명이 이용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16강좌 85회를 운영하였고 총 수강인원은 2,031명에 이른다.

(3) 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및 다양화

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선진화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5월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고,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 및 고품질화를 촉진하는 실용적인 조사 ·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내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책무를 강화해 오고 있다.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 사업으로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이상 연구용역 4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작은도서관 장서구성실태 현황조사』(이상 자체연구 2건) 등 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연구소에서는 2013년 1월 7일부터 도서관 현장사서, 행정가, 문헌정보학 연구자 등 도서관계 전문가를 주요 독자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World Library)' 소식지를 총 52회 발간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연구소가 발간하던 '도서관연구소 웹진'과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웹진을 개편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발간했던 「도서관연구소 웹진」(도서관연구소)과 「월드라이브러리뉴스=World Library News」(국제교류홍보팀)의 기사를 개편된 월드라이브러리 웹사이트로 모두 이동하여 이용자들이 과거 발간 기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고를 통하여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집인 『도서관』 387호를 발간하였다. 1946년 『관보』로 창간되어 『국립도서관보』를 거쳐 1965년 1월부터 『도서관』으로 표제를 변경하고 논문집으로 발간하던 것을, 2011년부터 현재의 체재와 내용으로 바꾸었다. 본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를 주제로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배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우수 운영사례 및 논문을 심사하여 포상하는 '제7회 도서관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와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시상하였고,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도서관연구소 수행 연구과제 결과발표(2012~2013)'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서관계와의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나.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0월에 구축된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INKSLIB)'는 2013년 12월 현재 32개국 128명의 한국학사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www.nl.go.kr/inkslib/)를 통하여 한국학사서들의 정보교환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다.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본관에 주제별 자료실과 학위논문실, 연속간행물실, 정부간행물실, 고전운영실, 장애인정보누리터 등 총 15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16세 이상(2008. 9. 1부터 시행)이며, 16세 미만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입관을 허용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2013년 도서관 개관일수는 328일이고, 방문이용자는 596,615(1일 평균 1,819명), 온라인이용자(사이버이용자)는 6,152,104명(1일 평균 16,856명)이었다. 또한 낮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 등을 위하여 야간도서관을 18:00 ~ 22: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는 주말에도 야간도서관을 확대 운영하였다. 야간도서관 이용자는 66,409명이며 이용 책 수는 196,910책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웹상(www.nl.go.kr/ask)에서 국민들의 지식 · 학술정보 질의에 대해 사서가 소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협력 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CDRS :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362개 참여도서관이 1,322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4) 전국 도서관 사서 교육 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유일의 사서직 교육훈련 전문기관[3]으로 전국의 각종 도서관 직원을 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상으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서교육훈련 교육과정을 총 78개 과정 91회 운영하였으며, 전국 국 ·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직원 및 사서 10,907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도서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사서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정보취약 관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서교육'을 4개 과정 11회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 외 협력교육(도서관글로벌리더과정, 주제전문사서심화(과학기술)과정)을 실시하여 핵심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문화감성 체험학습, 액션러닝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급증하는 사이버 사서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도서관장서관리', 'KDC6판자료분류', '전문도서관기초', '공공도서관과청소년서비스' 등 총 4개 과정의 모바일(온라인 병행)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26개 과정, 8,180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만족도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현업적용도평가 수준에서 교육성과평가까지 확대 적용하여 사서교육훈련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기본교육과정인 '신임사서기본과정'은 개인학습평가와 분임활동평가, 근무태도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전문교육과정은 근무태도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과정에 따라 현업적용도평가(KDC 및 DDC 자료분류과정 등), 교육성과로 평가(주제전문사서기초과정)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도서관 정보환경이 달라지면서 도서관 직원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서직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5)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 ·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료의 공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교류 · 협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도서관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을 위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의 개발 · 보급, 지식정보 표준화 도구개발 및 국가전자도서관 연계 ·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가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를 정식 운영, 2013년 12월까지 전국 공공도서관 682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해 2013년에는 우수 협력 모델 5개 선정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영국 국립도서관(2013.8.20)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 체코 등 세계 15개국 16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꾸준히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3월 25일~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주관 제21회 아시아 · 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와 2013년 8월16일~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8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주제 '미래의 도서관–무한한 가능성(Future Library : Infinite Possibilities)'에 참석하였다. 특히, 도서관인회의(Korean Caucus)에서는 한국관련 사서들의 단합과 한국 참가자들의 국제 활동을 독려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IFLA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40회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에서는 2012년에 논의된 국립도서관 가이드라인이 작성 중이며,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CDNL과 IFLA의 배포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더불어 각국 대표들은 IFLA가 발표한 동향보고서(IFLA Trend Report)와 미래 도서관에 관한 논의를 통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1963년 외국 국립도서관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각국 주요 국립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91개국 273개 기관과 자료교류를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일반자료교환을 통해 6,690책, 특별교류협정으로 2,343책(점)을 수집하고,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720책을 기탁 받았다. 「국제자료교환 운영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환자료의 현지활용 및 교환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속간행물 100여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료를 수집 · 발송하였다.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도서관, 예일대학 동아시아도서관 등 한국학지원기관(21개국 58개관)에 발송한 한국학지원 자료 12,077책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22,868책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로부터 「규장각, 한국학의 여정」,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등 한국학관련 자료 50종 646책을 기증받아 해외 한국학연구기관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국립 · 공공 · 대학도서관에 한국학자료실을 설치하고 한국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도 델리대학교도서관, 베트남 인문사회대학도서관을 설치기관으로 선정하여 설비비용 지원 및 4,197책(점)을 제공, 기존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15개관 및 재외 한국문화원(세종학당) 7개관 등 총 22개관에 4,683책(점)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6) 전시문화행사 개최 및 홍보

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문학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심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13년에도 조선일보 · 교보문고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캠페인을 펼쳤다. 행사구성은 현장탐방과 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전 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 현장탐방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과 관련된 인문서와 연구성과를 남긴 저자나 필자를 초청하여 탐방 참가자에게는 사전 지식 습득의 기회를, 일반인에게는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전강연 17회, 인문학 현장탐방 18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길 위의 인문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50개의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체적으로 기획한 인문학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였다.

표 3-5-26 2013년 '길 위의 인문학' 현장탐방 일정표

구분	날짜	지 역	주 제	탐 방 장 소
3월	30(토)	서울	겸재정선을 따라가는 250년 전 한양 여행	겸재정선 기념관-창의문-겸재 집터-청풍계-세심대 -겸재 인왕곡 집터-수성동-박노수 가옥-필운대
4월	12(금)~13(토)	경남 하동, 전남 구례	문학이 된 장날, 문화가 된 장날	섬진강-하동장-화개장터- 차 시배지-쌍계사-사성암 -구례장-화엄사
	26(금)~27(토)	경북 경산 · 경주	원효의 길, 화쟁의 길	반룡사-제석사-무열왕릉-분황사-황룡사지-설총묘-경주월성-월정교,요석궁터-오어사
5월	11(금)~12(토)	충남 서천 · 서산	재미있는 가족사	문헌서원-이색묘-이곡묘-무량사-성주산 자연휴양림-해미읍성-개심사-서산 마애삼존석불
	24(금)~25(토)	전남 완도	완도의 장보고 바닷길 - 아시아 해양력의 역사적 상상력 복원	완도 수목원-해신 드라마세트장-장보고기념관-청해진 장도유적지-청산도 슬로길 체험
6월	15(토)	충북 충주	달천에 흐르는 충혼, 장미산에 서린 신화와 전설	정초 선생 묘역-탄금대-충주 박물관-임경업 장군 묘소-풍류산-조령 제3관문
	28(금)~29(토)	강원 정선	아리랑 세상에 울려 퍼지다	거칠현 공원-아라리촌-아우라지-정선아라리 전수관-정선장-소금강-몰운대-화암약수
7월	13(토)	대전	지구를 넘어, 우주로	항공우주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대전시민천문대
	20(토)	강원 평창	기록문화의 보고 오대산 사고	이효석생가,문학관-상원사-오대산 사고-월정사

구분	날짜	지 역	주 제	탐 방 장 소
8월	24(토)	부산	조선의 통신사,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다	초청강사특강-부산진-조선통신사 역사관-영가대-초량 왜관 터 -두모포 왜관 터-좌수영성
9월	7(토)	경기 파주, 서울	동의보감의 저자, 허 준(許 浚)을 찾아서	허준묘소-성혼묘소-구암공원-허준 박물관
	27(금)~28(토)	강원 강릉, 삼척	동해, 바다 인문학의 속살을 찾아서	동해신묘-한송정-허난설헌 생가터-홍장암-경포대-준경묘-공양왕릉-죽서루-동해척주비-해암정
10월	5(토)	경북 안동	향약과 계로 뭉친 조선의 지식인 사회	한국국학진흥원-도산서원 -퇴계종택-퇴계묘소
	12(토)	전북 남원	춘향전과 대중문화	오리정-광한루원-춘향묘
	19(토)	충북 단양	단양팔경을 걷다	도담삼봉,석문-사인암- 중선암-장회나루
	26(토)	경기 광주	한국의 도자문화	광주조선백자도요지-광주분원요지-경기도자박물관-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11월	9(토)	인천 강화	제왕의 유배지 교동도	교동읍성-연산군적거지- 교동향교-초개사-강화읍성북문-연미정
	16(토)	충남 서천	미생물이 이어준 인간과 자연	문헌서원-동자북 마을-한산모시관, 한산 소곡주 양조장-금강 신성리 갈대밭

다. 전시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확대, 대외적 홍보활동 강화 및 폭 넓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기별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전시는 전시콘텐츠로도 구축하여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표 3-5-27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 (2013)

구 분	행 사 명	시 기	주관부서
전시	고전운영실 상시전시	분기별	도서관연구소
	미디어아트 전시	4.8 ~ 6.30	디지털정보이용과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전	7.1 ~ 10.31	도서관연구소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전	9.13 ~ 10.27	자료운영과
현장체험	길 위의 인문학 사전강연	5월~11월(17회)	사서교육 문화과
	작가와 함께 하는 독서 문학기행	6월~11월(10회)	도서관연구소

구 분	행 사 명	시 기	주관부서
강연 강좌 세미나	길 위의 인문학 사전강연	5월~11월(17회)	사서교육 문화과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 강좌	2월~11월(5회)	도서관연구소
	영토 영해 특별 강좌	7월~12월(6회)	도서관연구소
	디지털도서관 전문가 초청 강연	3.26	디지털정보이용과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 사랑 공모전	4.19 ~ 6.7	디지털정보이용과
	디지털도서관심포지엄 I,II	5.22/11.1	디지털정보이용과
	개관68주년 남북통일대비 도서관 국제심포지엄	10.15	도서관연구소
기타 기타	디지털북페스티벌	9.24~9.26	디지털정보이용과
	제3회 장애인독서한마당	9.30	지원협력과

라. 홍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www.nl.go.kr)를 통해 각종 홍보영상물 및 소식, 보도자료, 「오늘의 도서관」 등 발간자료에 게재하여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정전 60주년을 기념한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도서 증정식 및 정전회담 협상록 전량 수집,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전, 영토영해 상설코너 신설,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등 시의적절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의 큰 반향을 얻었다. 이밖에도 디지털북 페스티벌, 터키자료실 개실, 자료보존 실습 워크숍, 개관 68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독도특별강연 등 89건의 사업 관련, 총 304건의 주요 사진자료가 주요 언론에 게재 되었다. 더불어, 도서관 홍보의 일환으로 도서관시설 및 소장자료에 대한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초 · 중 · 고 및 대학생들과 국내 · 외 도서관 전문가, 관련학자, 기타 희망 단체 및 개인에게 도서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운영, 분야별 이용도서 TOP 10 선정, 휴가철 읽기좋은 책 80선 선정, 세계도서관대회 참석, 9월 독서의 달 행사 모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샵, 해외 한국자료실 개실 등 총 120건의 보도 자료를 주요 일간지 및 관련 언론매체에 배포하였다. 특히 배포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신문, 방송, 통신사,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 총 1,263건이 게재되어 도서관의 여러 사업과 행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다.

보도자료 배포는 사전에 준비된 언론 홍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언론 매체와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관련 언론 보도를 극대화 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선행적이고, 예방적인 언론 홍보

활동이다.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주지시킴으로써 도서관의 주요 사업 및 정책, 각종 행사, 도서관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7)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 2012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식후 행사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실 및 장애인정보누리터 등 새로 단장한 시설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장애인 도서관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체자료 제작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도에는 데이지자료 3,259건, 전자점자자료 32건, 전자점자악보 332건, 화면해설영상자료 50건, 수화영상도서자료 281건, 자막삽입도서 201건을 제작하여 총 4,155건을 제작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8,960건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2009년 4월 13일 개실한 장애인정보누리터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1:1 개별 맞춤서비스로 대면낭독, 영상대필, 문서작성 지원 등 다양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안내를 위해 문자 · 영상 전화 안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72명의 자원봉사자가 1,233회에 걸쳐 장애인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대상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지원과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 "책나래" 운영,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바우처제도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 독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용자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인 '손책누리'를 운영하였다. 2013년 9월 독서의 달에는 성장기 장애 아동 · 청소년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서를 함양토록 지원하고자 제6회 장애아동 ·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실제 운영사례를 파악, 적극 홍보 및 현실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제6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자료실 설치 · 운영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장애인자료실 서비스 운영방안, 인력 활용방안, 공간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독서할 수 있는 균등한 독서 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인 독서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3년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 행사'를 장애인 도서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2006년 6월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어린이청소년 연구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어린이담당사서의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의 중심, 정보서비스 모델 창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도에는『무한한 잠재력, 어린이청소년도서관』라는 주제로 제7회 국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심포지엄을 부산한화리조트에서 6월 13일~14일 양일간, 개최(참가자 272명)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어린이 담당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한 · 아시안 사서들의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3년 10월 14부터 30일까지 17일간 동남아시아 10개국 어린이사서 20명을 초청하여『2013 아세안 어린이 담당 사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담당서서 역량 강화를 위한 6개 과정의 워크숍과 4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다. 6월에는 서울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지적능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능력 배양과 지속가능한 독서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책 · 어린이 · 도서관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전국의 사서와 그림책 연구가, 아동문학 및 동화작가, 출판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책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우리 마을로 놀러 올래?』라는 전시주제로 시골과 동네 등 주변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 변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시각적 패널과 그림책을 전시하였다.

또한, 9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라는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 앞으로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되돌아 보고자 '어린이 문화와 삶, 그리고 책'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어린이는 ???」라는 공모를 통해 어린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진흥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을 운영 · 지원(931개관, 24,961명 수료)하고 있다. 독서교실 우수수료자들에게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상을 수여하였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서, 교사, 관계 전문가 등 우수지도자 27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표창하였다.

또한 청소년독서문화프로그램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전국 40개 중 · 고등학교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독서토론, 문학기행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추천한 200종의 도서목록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점령지도로 제작되어 공공도서관

및 전국 중 · 고등학교 도서관 6,000여 개처에 배포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전국 135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보취약 계층 어린이 관련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고 책을 선물하며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하여 여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또한, 농 · 어촌지역과 도서벽지 어린이에게도 다양한 책 읽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교생 150명 이하의 초등학교 80개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사업을 운영하였다. 12,000여 책을 4개월간 연2회 순회대출하고, 꾸러미 도서를 활용하여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집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활동프로그램 자료집 6권』을 개발 · 보급하였고, 작가와의 만남 및 서울탐방을 10회 개최하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문화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 독서콘텐츠를 개발(9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하여 '다문화 동화구연' 홈페이지(http://storytelling. nlcy.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화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중언어 습득에 도움을 주며, 언어 · 문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웹진('어린이청소년연구 e-Partner')을 매월 발간하였고, 업무 성과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록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차보고서 2012~2013』을 발간, 어린이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국내외 도서관의 소식 홍보,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계 동향과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지〈도서관 이야기〉발간하였다. 또한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어린이청소년전문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우수 발간자료를 번역,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어린이분야 『Read to Succeed : Strategies to Engage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Reading for Pleasure(어린이와 청소년을 독서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성공적인 독서진흥 전략)』, (Joy Court, Facet Publishing, 2011)과 청소년분야 『Young Adults Deserve the Best : YALSA's Competencies in Action(청소년 담당사서의 7가지 핵심역량)』(Sarah Flowers, ALA, 2011) 2종을 번역하여 발간하여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선진화 도모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유아 · 어린이 ·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 ·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서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연극으로 읽는 동화』, 『외국문화여행』, 『청소년 진로 독서 특강』 등을 통하여 책 읽기의 즐거움과 흥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부모 대상의 『부

모를 위한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체험형 동화구연' 가상 체험관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공동으로『신비로운 매혹의 섬 인도네시아 : Wonderful INDONESIA』전을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Illustrated Children's Books Denmark : 덴마크 일러스트 동화』,『폴란드 현대 어린이 책 일러스트레이션 : 알록달록 폴란드』,『책으로 남은 아동문학가 5人5色』,『생명의 시작 알과 씨앗전』,『그림책으로 보는 먼나라 이웃나라』,『태양의 나라 멕시코』등의 전시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외,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보도자료 배포와 도서관 취재 · 촬영을 통해 알리고 있다. 2013년에는 언론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총30건을 각종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15건의 취재 · 촬영에 적극적인 협조 결과 기사 총 145건이 게재 등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쳤다.

(9)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은 2006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 계획 연구를 기반으로 2006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복도시에 국립도서관 분관 건립 제안 및 7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의 도시건설지표에 국립도서관이 반영(건교부)되었으며, 11월 '행복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행복청)하여 2007년 7월에 '행복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고시(행복청),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립세종도서관 건립공사(행복청)가 추진되었으며, 2013년 6월 국립세종도서관 준공(준공식 2013. 7.10)하였다. 또한 2013년 7월에 국립세종도서관 시설 인계인수(행복청 → 국립중앙도서관)을 거쳐 국립세종도서관 직제(1관3과)를 신설(2013.9.12.)하였으며, 2013년 12월 12일에 개관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 정책 분야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정부의 정책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 개관 및 디브러리포털 오픈과 함께 전문포털로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운영해 온 정책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한 '정책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15개 부처로 구성되었던 정책정보지원업무협의회를 정부 및 공공기관 70개처로 확대하여 '정책정보공유협의회'로 재구성하였으며, 공직자의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 관외대출서비스, 상용데이터베이스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원문데이터베이스제공 서

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포털 등 외부기관 콘텐츠 509,871건을 연계하여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최신정책자료 등 91,679건의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과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최신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학술지(Web 저널) 20,000여종을 정부기능분류(BRM)를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며,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5월 정책정보포털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정보공유협의회를 2013년 국립세종도서관 개관과 함께 '정책정보협력망'으로 확대운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협력기관들과의 정책자료 종합목록 구축을 위한 정책정보 종합목록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상호대차서비스, 정책자료 수탁보관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부기관 · 공공도서관 ·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업무수행 및 정책활동에 필요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출하는 '기관대출'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9월말까지 25개 기관이 총145회에 걸쳐 310책을 이용하였으며,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기존의 기관대출 서비스를 종료하고, 2014년부터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운영할 정책정보협력망 참여기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입한 해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7개 중앙행정기관에 9종의 웹 DB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자료실(정책연구실 포함)은 정부정책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필요한 정부 · 공공간행물 및 일반자료를 비치하여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 자료실, 일반자료실1, 일반자료실2를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홈페이지(sejong.nl.go.kr)는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포탈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2013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IT인프라(네트워크 환경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서버 및 상용소프트웨어설치, 스토리지 도입 등)를 가장 먼저 구축하였으며, 국립세종도서관이 보유하게 될 소장자료(도서,비도서 및 디지털자료 포함)의 통합자료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책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과 행정기관 공무원, 연구원,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층을 위한 관외대출/반납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식성,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외부 연계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도서관 업무의 공통기능을 공통프레임워크로 구성하여 재활용성을 높이고 표준화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단위시스템은 공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 자료실과 연계한 행정 · 정책자료 종합목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 간 원문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기관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 행정기관의 자료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에 본격 서비스할 예정에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빠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 예약 및 안내 키오스크, 디지털신문대, 독서통장발급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장애인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보조공학기 13종과 촉각도서 등 579책을 비치하였다. 특히 정책전문 도서관으로서 행정기관공무원을 위한 서비스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희망도서를 예약하고 청사에서 도서를 수령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청사 종합매장(6-2지역) 및 공정위(2지역) 로비에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서 즐거운 체험을 통한 흥미와 독서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5세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 대상 "체험형 동화구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본 컨셉인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사람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초등학생 과학교실에 활용하고자 도서관 과학교실〈나만의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세종시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장을마련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세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을 맞이하여 정책도서관으로서의 본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및 목표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부처, 연구기관 등)과의 연대감 강화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 따르는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간행물로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관전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계, 도서관계, 출판계 주요인사, 정부부처 관계자, 주요 언론 기자단, 세종특별자치시민, 학생 등을 초청하여 '모으자, 열다'라는 주제로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 주요행사로는 명사 릴레이 강연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지역주민, 중 · 고생, 인터넷 신청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초청명사의 공연, 저서 사인회 및 소규모 문화공연 및 강연후 개관 전시회 관람 등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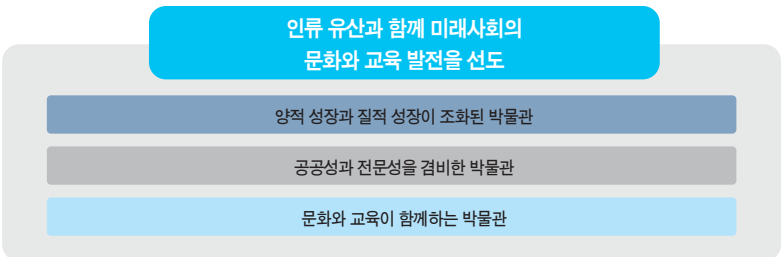
제6절 박물관정책

1 기본방향 및 박물관현황

1) 기본방향

최근 인구 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및 가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박물관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박물관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박물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박물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정책들을 담아 2012년 5월 23일,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림 3-6-1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과 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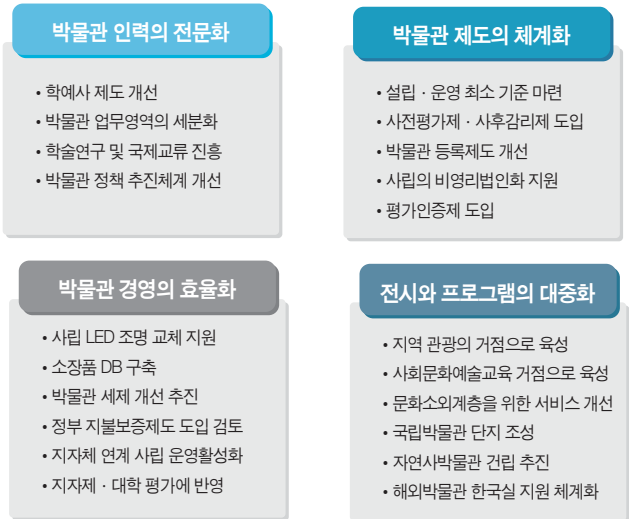


또한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 담긴 박물관 정책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박물관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에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인 박물관과를 설치한 바 있었으나, 1994년에 이를 박물관 및 도서관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도서관박물관과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여 박물관 정책 기능을 이관하였고, 2008년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문화여가정책과로 박물관 정책을 이관하여 현재까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새롭게 복설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는 박물관 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 · 사립박물관 육성 · 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 박물관 분야 전반에 걸쳐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박물관 발전을 견인하

게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공 ·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 등 주요 박물관 정책을 살펴본다.

그림 3-6-2 박물관 정책 4대 추진방향



2) 박물관현황

박물관은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및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전시 ·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운영되는 비영리 · 항구적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꾸준한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2013년 말 현재 총 737관 (국립 35관, 공립 317관, 사립 294관 및 대학 91관)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및 지역별 박물관 현황은 각각 〈표 3-6-1〉, 〈표 3-6-2〉와 같다.

표 3-6-1 연도별 박물관 현황(1999~201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박물관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562	579	630	655	694	743	737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28	27	29	30	30	32	35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238	255	282	289	312	326	317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214	215	234	251	262	289	294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82	82	85	85	90	96	91

표 3-6-2 지역별 박물관현황 (2013)

(2013년 기준)

시 · 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서울시	12	13	67	25	117
부산시	1	5	4	6	16
대구시	1	5	5	3	14
인천시	-	11	11	1	23
광주시	1	4	2	3	10
대전시	-	4	5	5	14
울산시	-	7	1	1	9
세종시	-	2	3	-	5
경기도	3	54	62	10	129
강원도	2	41	28	5	76
충청북도	1	26	7	6	40
충청남도	5	22	14	3	44
전라북도	1	23	6	4	34
전라남도	2	30	13	3	48
경상북도	2	31	14	10	57
경상남도	3	24	11	5	43
제주도	1	15	41	1	58
계	35	317	294	91	737

박물관의 양적 성장과 함께 박물관 소장유물의 다양화로 인해 박물관의 테마와 콘텐츠가 다양화 · 전문화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 박물관은 '유물'을 소장 보존 전시 조사 · 연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 · 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전문박물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도 다양화되었다. 즉, 수집 및 전시 · 보존 등 박물관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와 함께 대중을 위해 체험 · 교육 및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의 추진배경에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다시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과 '건국 60주년' 을 맞아 국민적인 축제행사로 실시되었다.
특히나 문화향수권은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인식이 우선하였다. 이에 따라 관람료가 국민의 문화시설 관람욕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부분을 상설전에 한하여 전면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부여하자는데 있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무료화 시범실시에 따른 관람객 분석 및 파급효과 연구, 2008

2011년은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무료관람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수준 높은 기획전의 지속적인 개최 등으로 국립박물관 기준(중앙 및 지방 11개관) 전체관람객이 전년 대비 2.9%(8,180,522명→8,417,443명, 236,921명 증가)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무료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5개 기관과 국립고궁박물관 · 목포해양유물전시관(문화재청 소관) 및 등대박물관(국토해양부 소관) 등 총 31개관에서 이루어졌다. 무료관람을 실시한 2012년의 박물관 관람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기준 총 9,674,178명으로, 무료화 이전인 2007년의 관람객 총 6,734,776명에 비해 약 43.6% 증가하였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 전시 및 문화향유 증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복합 문화시설 건립 시 50% 지원)를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박물관 시설 확충 중심의 박물관 정책에 따른 건립 후 운영 부진, 공립박물관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설립단계에서부터 인력 운용 및 소장품 수집 계획, 건립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1996년 이래 2013년 말까지 총 133개관에 2,2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012년 말 현재 108관이 개관하고, 25관이 건립 중에 있다.

표 3-6-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단위: 억 원)

지역	지원관 수 /개관 수	국고 지원액									
		계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5 / 4	243.94	68.6	-	-	32.5	32.12	50.19	52.19	8.34	-
부산	6 / 5	74.5	31.0	-	-	5.0	3.5	10.0	-	-	25
대구	1 / 1	36.36	36.36	-	-	-	-	-	-	-	-
인천	11 / 10	111.8	28.5	9.0	17.5	16.7	21.5	18.6	-	-	-
광주	3 / 3	34	25.0	-	-	-	9.0	-	-	-	-
대전	4 /2	37.89	-	-	-	4.7	1.53	-	1.56	17.1	13
경기	19 / 13	344.23	109.95	12.0	62.91	32.39	10.0	34.72	29.06	20.64	32.56
강원	15 / 12	224.6	153.6	1.0	-	-	15.0	30.0	12.3	12.7	-
충북	7 /6	142.49	86.0	12.73	3	0.56	9.0	13.4	12.06	5.74	-
충남	10 / 10	129	117.5	4.5	-	3.0	-	4.0	-	-	-
전북	11 /10	307.1	254.6	12.5	10	-	15.0	5.0	10.0	-	-
전남	10 /9	64.1	51.1	-	1.8	-	2.0	2.0	1.2	-	6
경북	13 / 8	199.4	77.4	12.25	3.0	-	26.15	19.68	9.48	36.14	15.3
경남	12 /11	167.48	70.1	17.63	16.75	3.0	5.0	15.0	35.0	-	5
제주	6 /4	107.6	77.0	-	-	-	-	-	2.6	18	10
합계	133 / 108	2,224.49	1,186.71	81.61	114.96	97.85	149.8	202.59	165.45	118.66	106.86

3)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현재 전체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해당한다. 열악한 재정 · 인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립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기존 학예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교육인력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2013년 동 사업추진을 통해 등록 사립박물관 150개관에 학예인력 180명을 지원하였으며, 120개관에 교육인력 151명을 지원하였다.

표 3-6-4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추진 실적(201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예 인력	지원관 수	85	86	91	77	81	79	150
	지원인원	102	110	105	97	97	107	180
에듀 케이터	지원관 수	-	-	-	-	-	63	120
	지원인원	-	-	-	-	-	74	151

또한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박물관협회를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박물관 활성화 운영 내용은 〈표 3-6-5〉와 같다.

표 3-6-5 (사)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	신청액(천원)
박물관 100번 가기	14,000
운영역량강화	25,550
박물관주간(Museum Week)	17,250
관장 · 학예사 국제행사 참가 및 박물관 · 미술관 단기연수	64,000
홈페이지 보강 및 유지	12,000
한국 대학생 박물관문화시민봉사단	27,200
제7회 한국 박물관 국제학술대회	35,000
지역 박물관 네트워크강화 및 위원회 활성화 세미나	5,000
계	200,000

3 국립중앙박물관

1) 조직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 · 사립박물관의 지원 · 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문화재의 수집 · 보존 · 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 · 관리를 총괄하며, 전통문화의 교육 · 홍보 · 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2개 국립지방박물관이 있으며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는 창경궁에 설치된 제실박물관이 1909년 11월 1일 일반인들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박물관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창경궁 안에 있는 환경전, 명정전과 양화당을 비롯하여 부속 전각 등을 일부 개조하여 전시실로 활용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 병합이 되자 제실박물관은 그 이듬해에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다. 이것이 1938년에 창경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전하면서 〈이왕가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해방 이후에는 〈덕수궁미술관〉이 되었다.

한편 일제는 1915년에 조선총독부의 施政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건물을 활용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지방에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을 두었다.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정부가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이 개관된 것은 근대사회에서 국가의 정통성은 박물관에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은 지방에 경주분관, 부여분관, 공주분관, 개성분관을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박물관 체제로 시작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주요 활동으로 광복과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리를 잡아가던 이러한 시기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국립박물관은 큰 시련을 겪었으나,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유물들을 부산으로 피난시켜 보존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립민족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 흡수 통합되어 남산분관이 되었다. 1953년 휴전 후 국립박물관은 서울 남산분관 자리로 옮겨졌으며 1955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되었다가, 1969년 덕수궁미술관과 통합되었다. 이것은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한 한국의 최초 박물관이 하나의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덕수궁에서 하나로 통합된 국립박물관은 1972년에 다시 경복궁 안에 있는 새 건물(현 국립민속박물관)로 이전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86년에는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수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구 조선총

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용산에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여 2005년 10월 28일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웅장하게 개관하였다.

1909년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을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100년, 그리고 1945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후 6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6차례나 이전하였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산하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하여 12개의 지방 국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3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은 2단 · 1실 · 6과 · 6부 · 3팀, 12개 지방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기획 운영단 104명, 학예연구실 79명, 교육문화교류단 53명, 지방박물관 336명으로 총 572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037억 29백만 원, 관광기금이 28억 1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1,065억 4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8% 증가하였다.

2013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총 3,053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관람객은 2013년 2,906천명으로 2012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15.8% 감소하였으며, 총 관람객 수는 2012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총 관람객 대비 외국인 관람객은 4.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3-6-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07	2,188,072	93,628	2,281,700
2008	2,188,659	94,766	2,283,425
2009	2,634,255	119,399	2,753,654
2010	2,900,053	145,300	3,045,353
2011	3,106,828	132,721	3,239,549
2012	2,954,008	174,542	3,128,550
2013	2,905,776	147,047	3,052,823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2) 주요성과

(1) 유물관리 및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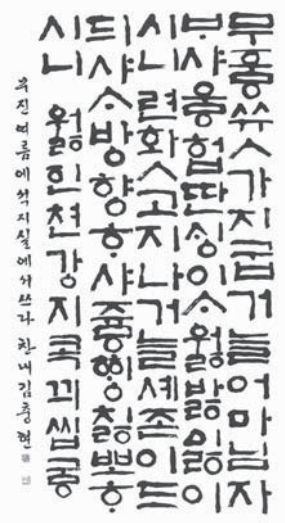
가. 소장품 수집과 등록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및 연구 자료 확충을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총 30건 49점의 문화재를 구입하였다. 대표 구입품으로는 해외에서 환수한 우리 문화재인 〈아미타극락회도〉, 〈백자청화초화문호〉(사진 3-9-2), 그리고 아시아관 전시 문화재 확충을 위한 인도 쿠샨 2세기에 제작된 보살비구상 부조, 중국 당나라 7세기 경에 제작된 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명품 위주의 선별된 중요 문화재 구입 확충 정책에 따라 외국 개인 소장 〈김치인 72세 초상화〉 등을 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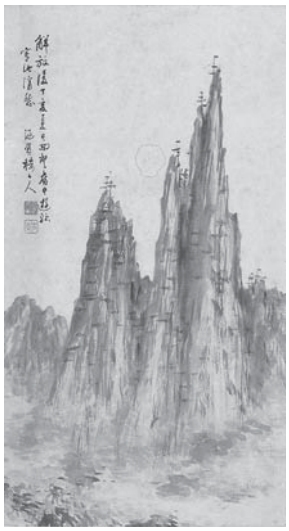
2013년도에는 아시아 관 전시품 확충과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강세황 특별전 및 도교 문화재 특별전 개최를 위한 전시문화재 확보 및 강원 · 충청 지역 소속박물관 전시 특성화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재 및 자료를 구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 및 학술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 거주 개인 소장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개구입에서는 회화, 서예, 전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9건 38점, 국내외 경매를 통해서는 회화, 공예품 3건 3점, 전시부서 및 소속 지방박물관의 추천을 통해서는 회화, 도자, 공예, 역사자료 등 8건 8점을 구입하였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은 명품 위주의 우수한 전시 문화재와 소속기관의 전시 문화재 확충 그리고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경로를 보다 다변화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에는 모두 138점의 문화재를 수증하였다. 신근택 기증유물은 평산신씨 족보(15점)로 1873년 간행되었으며, 목활자본이나 서문은 목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년과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 기증유물은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서예가로 해방 후 한글 서예를 정립한 일중 김충현(1921~2006)의 작품 28점이다. 일중 김충현 선생의 한글 서예 '일중체'는 한글 판본체의 조형에 바탕을 두고 예서의 형태미와 전서, 예서의 필획을 결합한 것이다. 광복 이후부터의 한국 서예의 발전과정 및 성격을 규명할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송윤자 기증유물은 중국 하남성 정요 출토의 백자음각운학문대합 등 3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대합은 12세기대의 유물로 12~13세기 고려에서 유행하는 운학문 청자와 문양의 연관성이 있어 연구대상으로 학술적 가치 높다고 평가된다. 고계본(11점) 및 고순자(90점) 기증유물은 전통과 근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인물로 우리나라 첫 번째 서양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춘곡 고희동(1886~1965)의 유작 및 유품이다. 고계본 기증품은 사계산수도 8폭병풍 등 11점이고, 고순자 기증품은 고희동 서예합작품 등 90점이다. 특히 고순자 기증유물은 고희동의 작품세계와 창작 세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유품들로 아카이브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근대 미술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에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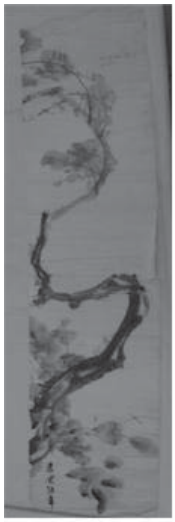
사진 3-6-1 2013년 신규 수증유물



일중 김충현 월인천강지곡



춘곡 고희동필 삼선암도(三仙巖圖)



춘곡 고희동필 화훼도

소장품 등록은 2012년에 이어 장기 미등록유물의 등록에 힘을 기울인 한 해로, 약 9만 4천여 점을 등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제강점기 조사 유물은 금관총 출토 유물을 포함하여 25,030점을 등록하였고, 국가귀속매장문화재는 남양주 호평동 출토 유물을 포함하여 69,829점을 등록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촬영 자료인 유리건판 2,500점과 2010~2013년에 걸쳐 구입 · 기증된 2,331점 등 최근 수집 유물을 등록하여 최신 자료 활용과 소장품 정보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 등록사업은 매년 약 10만점의 유물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유물의 명확하고 신속한 등록과 소장품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진 3-6-2 2013년 신규 구입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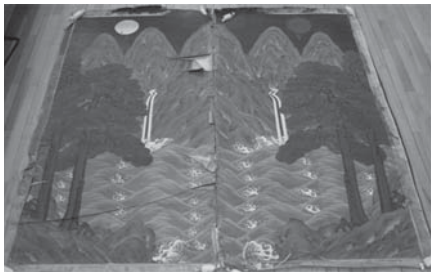
아미타극락회도

백자청화초문호

나. 과학적 보존처리

1976년 2명의 학예원으로 출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분야(당시 보존 기술실)는 현재 14명의 각 재질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기본 역할인 소장 및 전시 유물의 보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존과학부는 일반적인 수리 · 복원를 포함하여 과학적 조사 분석연구에 의한 손상원인 규명과 정밀 보존처리, 재질 성분 분석, 예방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2,983여 점의 소장 및 전시 유물과 발굴매장문화재를 보존처리하여 국내외 상설전시 및 특별전에 필요한 전시유물 확충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요성과 역할 증대에 따라 2013년에는 "보존과학부"로 승격되었다. 이 외에도 국 · 공 · 사립 박물관에 대한 보존처리 기술자문과 전시 및 수장 환경 측정과 함께 보존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등 보존과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3-6-3 덕수2153-1,2,3,4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 보존처리 전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 보존처리 후

2013년에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를 포함하여 1,483여점을 보존처리하였고, 이 중 전시 · 소장품은 1,210여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고고학, 미술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 훈증, 생물학적 피해 조사 등 보존 환경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소속 국립박물관 및 외부기관의 보존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유물 12점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완료하였고,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 업무를 지원하였다.

표 3-6-7 보존처리 현황(2013)

구분	재질	내용	처리완료	비교
전시유물	금속	손기정 선생 기증 청동제 투구 등	107점	270점
	목칠공예	K976 실록상자 등	33점	
	서화/지류	덕수2153-1 일월오봉도 등	86점	
	토기/도자기	백자잔탁, 분청사기희준 등	42점	
	벽화/석재	덕수2645 석제관세음보살좌상 등	2점	
소장유물	금속	금관총출토 금동제소조부삼엽형환두대도 등	379점	940점
	목제	본3887 목제불두(중앙아시아) 등	63점	
	목칠공예	신수1355 목조금박아미타여래좌상 등	11점	
	서화/지류	덕수2507 화성친행도 등	66점	
	토기/도자기	일제강점기 조사등록 유물 토제이배 등	274점	
	벽화/석제	신수15312 석조나한좌상 등	104점	
	직물	상28상자 복식 등	43점	

구분	재질	내용	처리완료	비교
지방박물관 지원	금속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유물 고도(古刀) 등	88점	124점
	목제	국립공주박물관 수촌리 유적 출토 봉상칠기	1점	
	서화/지류	국립대구박물관 곽경흠묘 출토 지류 등	33점	
	직물	국립부여박물관 도문화재자료 120호 유경종묘 출토 관복 등	2점	
공사립지원	목칠공예	서울대박물관 소장 나전함 등	2점	6점
	직물	전쟁기념관 소장 육군장군 하예복 등	4점	
국제사업	금속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마구류 등	126점	143점
	목제	몽골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출토 탄화목 등	3점	
	직물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직물류	14점	
합계	1,483점			

표 3-6-8 분석조사연구 현황(2013)

구분	내용	종류	처리완료	비고
소장품 성분분석	요대(遼代) 금제가면 등	금속 등	75점	110점
외부지원 성분분석	제주박물관 의뢰 도자기 등	도자기 등	35점	
목재 수종 분석	몽골 도르릭나르스유적 출토 목재 등	목재	35점	180점
직물 분석	구입2984 관복 등	직물류	18점	
적외선 조사	중앙아시아벽화 및 소조상 등	벽화 등	20점	
	덕수2153-2,3,4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 등	서화류	5점	
X-선 조사	손기정선생 기증 청동제 투구 등	금속류	82점	
	덕수2153-1 일월오봉도 등	서화류	20점	
합계	290점			

표 3-6-9 환경조사 현황(2013)

구분	기간	내용	처리완료
환경측정	연중	전시 및 수장 공간 온습도 및 유해가스 (SO_2, NO_2, HCHO, CO, CO_2,O_3) 측정	8건
훈증소독	연중	국기귀속, 대여, 구입 유물 훈증	21건

구분	기간	내용	처리완료
수장고 소독	11월	수장고 방제 소독	1건
생물학적 조사	2~11월	수장고 생물피해 예방 조사	4건
공사립박물관 환경측정 지원	연중	안성맞춤박물관, 한글박물관 등	9건
합계	43건		

다. 유적 발굴 · 학술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2013년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적 발굴 및 학술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외에서는 몽골의 흉노 성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국내에서는 경기도 화성 기안동의 제철유적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추후 베트남의 발굴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외 발굴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문화 형성 과정과 교류 관계 규명 및 향후 양 기관 공동전시에서 중요한 자료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국내 발굴은 한성 백제 고고학 연구 및 조사에 있어 중장기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술조사는 우리 관 소장품 및 아시아 지역 유물을 중심으로 도자문화, 조선시대 회화, 목조불상, 요대금속공예품, 중앙아시아 종교유물, 일본 근대미술품,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등에 대한 자료 조사가 진행되어 관련 분야 연구 및 전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 오사카대학과의 '한일 반가사유상 공동조사 연구' 사업 역시 계속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연구자들과 보존과학자들이 공동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성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반가사유상의 제작지 추정 및 새로운 연구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교 문화 전시의 현황과 전망", "표암 강세황", "고려시대 포류수금문 나전향상"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도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표암 강세황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칠공예의 정수인 나전칠기 공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발굴 및 학술조사, 심포지엄 등은 국 · 내외 여러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3-6-4 국내외 유적발굴(2013)

화성 기안동 유적 항공사진

한-몽 공동 학술조사

표 3-6-10 유적 발굴 · 학술조사 현황(2013)

내용	대상	기간	비고
화성 기안동 발굴조사(2차)	화성 기안동 450-17번지 일원 문화유적 발굴조사	3~4월	
한-몽 학술교류	한-몽 공동 학술 발굴 조사	8~9월	
한-베트남 학술교류	한-베트남 공동 학술 지표 조사	10월	
조선시대 묘지명 조사	조선시대 묘지명 56건 203점 조사	6~12월	
외규장각의궤 종합 DB 구축	외규장각 의궤 92책 DB 구축	6~12월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소장 목조불상 조사 연구	5~11월	
도자기 발달사 연구 조사	전라도 및 충청도 일대 출토 도자기 등	6월	
한국미술기원조사(회화)	중국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서화 조사	12월	
한국미술기원조사(도자문화)	중국 북경 일대 기관 소장 도자공예품	12월	
요대 금속공예품 조사연구	요대 금속공예품	12월	
중앙아시아 소장품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종교회화, 조각	1월~12월	
일본근대미술품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공예, 조각	1월~12월	
중국 불교조각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비상, 다라니석당 조사	1월~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정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월~12월	
한 · 일 반가사유상 공동 조사 연구	중국, 미국, 일본에 소재한 반가사유상 등 불교조각	1월~12월	

표 3-6-11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현황(2013)

제목	내용	기간	비고
도교 문화 전시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와 서양 각국에서 개최된 도교 문화 전시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돌아보고, 한국의 도교 문화 전시의 새로운 시각을 모색. 국내외 도교 학자 및 큐레이터 6명의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6.21	심포지엄
표암 강세황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표암 강세황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후기 화단의 경향과 강세황의 작품세계를 재조명. 변영섭 문화재청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강세황의 산수화, 초상화, 사군자화, 그리고 강세황의 위상과 중국사행을 통한 인적 교류 등을 고찰한 총 6편의 연구논문 발표.	7. 5	심포지엄
고려시대 포류수금문 나전향상 연구	아시아뮤지엄연구소와 함께 고려시대 칠기소장품의 하나인 포류수금문 나전향상(蒲柳水禽文 螺鈿香箱)에 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고려 칠공예의 정수를 담은 나전칠기 공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	11.29~30	국제학술 심포지엄

(2) 전시활동

가. 상설전시실 개편

2013년에는 불교조각실, 가야실, 청자실 등에 대한 전시 개편 및 환경 개선이 진행되었다.

불교조각실 대형 불상실은 관람객들이 전시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2013년 1월 21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번 전시 환경 개선은 기존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전시품의 관람을 방해하는 역광 효과를 개선하고자 전시실 전체에 암막스크린과 금속패널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하였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시실 실내의 바닥과 벽, 천정을 단일한 톤으로 통일하여 관람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전시된 불상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개편한 가야실은 2013년 7월 30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크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를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전시는 우수한 제철기술로 탁월한 철제무기와 판갑옷을 만들었던 가야 무사의 강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야의 판갑옷을 종류별로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제작방법에 대한 영상물도 상영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가야의 말갖춤과 토기, 금제 장신구 등 가야 사람들의 모습을 주제별로 전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자실은 전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2013년 11월 26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전시의 내용과 디자인의 두 측면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내용면에서는 고려청자의 역사라는 충

실한 흐름을 바탕으로 주제별 구성을 통해 전성기 청자의 미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디자인면에서는 진열장과 조명 등을 비롯한 전시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청자 특유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품의 수량도 국보 12점, 보물 7점을 포함한 170여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사진 3-6-5 상설전시실

가야실 전시 개편 후 전시실 모습

불교조각실 전시 환경 개선 후 전시실 모습

청자실 전시 개편 후 전시실 모습

청자실 전시 개편 후 전시실 모습

나. 기획전 개최현황

"미국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전은 미술을 통해 미국의 역사, 문화적 변천을 조망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휴스턴미술관, 테라미국미술재단 등 미국 내 주요 미술관들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18세기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회화,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한자리에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미국 문화와 미술에 대한 연속 특강을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과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슬람의 보물-알사바 왕실 콜렉션"전은 쿠웨이트 왕실의 일원인 후사 사바 알-살렘 알-사바 공주 부부가 소장한 알사바 컬렉션 중 엄선된 총 332건 367점의 이슬람 미술품을 소개한 전시로 8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슬람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2013년 한국과 쿠웨이트의 문화협정

체결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전시는 이슬람 문명의 미술 전반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로서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이슬람 문명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전시의 원 기획자인 조반니 쿠라톨라 교수(이탈리아 우디네 대학)의 강연이 2013년 7월 2일에 개최되었다.

"한국의 도교문화–행복으로 가는 길–"전은 한국의 도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는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회화와 공예품, 전적류, 민속품, 그리고 각종 고고발굴품 등 284건 362점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유물들이 망라되어 우리 정신 문화의 한 축이었던 도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전시를 통해 다양한 종교사상과 소통 · 공존했던 도교문화의 모습과, 회화와 공예품 등 일상 속의 유물들에 남은 도교적 기복祈福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3-6-12 2013년 기획전 개최현황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2.5~5.26	미국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휴스턴미술관, 테라미국미술재단 등 미국 내 4개 기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회화 및 공예품 168점을 전시 · 총 104,522명 관람
7. 2 ~ 10. 20	이슬람의 보물 -알사바 왕실 컬렉션	2013년 한국과 쿠웨이트의 문화협정 체결 30주년을 기념하여, 이슬람 문명의 미술 전반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 알사바 컬렉션 중 엄선된 총 332건 367점의 이슬람 미술품 전시 · 총 130,431명 관람
12. 9.~ '14. 3. 2.	한국의 도교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	한국의 도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전시로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회화와 공예품, 전적류, 민속품, 그리고 고고 발굴품 등 엄선된 자료 284건 362점 전시 · 총 98,939명 관람

다. 특별전 · 테마전 개최 현황

고대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싱가포르 혼합문화, 페라나칸』,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 간 예술혼』, 『콩고강–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한국의 큰스님 글씨, 한암과 탄허』, 『초원의 대제국, 흉노–몽골발굴조사 성과전』, 『신중, 불교의 수호신들』, 『고려시대 향로』 등 다양한 특별전과 테마전을 개최하였다.

표 3-6-13 2013년 특별전 · 테마전 개최현황

구분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특별전	3.19~5.19	싱가포르 혼합문화, 페라나칸	동남아시아의 혼합문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조망해본 전시.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페라나칸 박물관소장 미술품 및 인류학 자료 230점 전시.
	6.25~8.25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 간 예술혼	조선후기 대표 화가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송도기행첩》 등 81건 103점 전시.
	10.22~ '14.1.19	콩고강-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중앙아프리카의 문화를 소개한 전시로 열대우림과 대초원을 배경으로 형성된 콩고강 유역의 다양한 예술세계를 '심장 모양 가면', '조상 숭배', '여인상' 등 세 가지 주제로 소개.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 소장품 71점 전시.
테마전	4.16~8.4	한국의 큰스님 글씨, 한암과 탄허	한국 근대기의 고승인 월정사의 한암과 탄허의 삶을 그들의 글씨를 통해 살펴본 서예 전시. 한암, 탄허의 서예 및 간찰, 탁본 등 관련 유물 160여 점 전시.
	4.30~6.19	초원의 대제국, 흉노-몽골발굴조사 성과전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유물 전시를 통해 2009-2011년까지의 한-몽 학술교류 발굴조사의 성과를 조명. 옥벽 등 99건 103점 전시.
	5.14.~9.8.	신중, 불교의 수호신들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마련된 테마전시로, 불교의 세계관에서 부처와 부처의 세계를 수호하는 신들인 신중神衆의 모습을 조명. 신중도 28점을 유형별로 전시.
	12.17~ '14. 2.16	고려시대 향로	고려시대의 향과 향도구, 왕실의 향로, 불교 향로의 3부로 구성하여 고려시대 향로의 다양성과 독자성, 국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청자정형향로 등 40여 점 전시.

라.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 공간이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체험과 학습, 여가활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험전시실을 중심으로 물품보관소, 대기 공간, 도서 공간, 영상실, 유아 공간, 어린이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2,538㎡, 전시실 면적은 1,086㎡이다. 전시실은 "옛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체험식 전시로 구현하여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에는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을 개최하여 조선 시대 회화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실 "구름마루"와 도시락 공간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운영

하고 있다. 2013년에는 20종의 교육활동에 20,13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 447,131명이 어린이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상설전시실 음악영역, 대기공간 개편 등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편의 공간을 개편하여 관람객이 보다 편안하고 유익하게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 3-6-6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모습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모습

어린이날 특별 행사

(3) 교육, 문화행사 및 도서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여가시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성인, 전문인력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성인대상 강좌 프로그램 '박물관 역사문화 교실' 등 18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전시품을 쉽게 이해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시연계 학습지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 · 배포해 유물을 스스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농 · 어촌, 산간지역 및 중 · 소도시의 학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유산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3-6-14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3)

구분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공주	진주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춘천	나주
프로그램 수	18개 과정	20개 과정	30개 과정	22개 과정	22개 과정	22개 과정	25개 과정	21개 과정	19개 과정	23개 과정	21개 과정	20개 과정	1개 과정
총 실행횟수	436회	451회	478회	178회	203회	271회	232회	237회	269회	153회	190회	1,556회	2회
참여인원	151,097	150,025	35,013	62,837	9,087	74,297	47,834	14,470	76,868	81,161	29,949	135,08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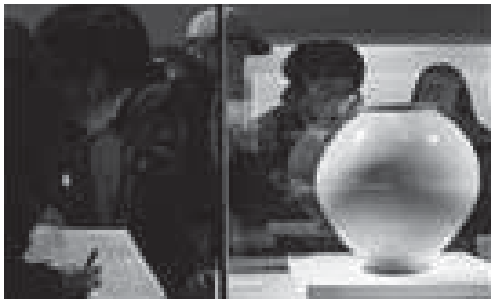
사진 3-6-7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역사문화 교실(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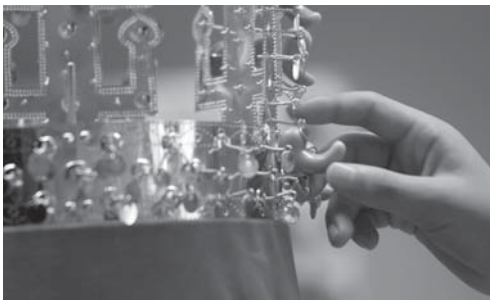
우리가족 주말 박물관 나들이

교육 실습생 교육(전문인력)

한국문화를 느끼다(외국인)



청소년 박물관 탐구반



박물관 우리들의 꿈마루(시각장애인)

문화로 다함께!(다문화 가족)

찾아가는 박물관

한편 박물관의 본래 기능인 전시, 교육 뿐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시와 연계한 기념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방박물관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표 3-6-15 문화행사 현황(2013)

구분		횟수	관람객(명)	구분		횟수	관람객(명)
지역	행사			지역	행사		
중앙	계기별 문화행사	4	6,917	청주	계기별 문화행사	24	27,503
	청소년 문화행사	7	8,300		가족 영화감상	106	10,385
	토요문화한마당	6	15,400		박물관음악회	3	2,159
	전시연계행사	10	3,200		문화단체초청 및 특집공연	7	4,719
	예인축제	5	14,500				
	합 계	32	48,317		합 계	140	44,766
경주	계기별 문화행사	2	4,490	대구	계기별 문화행사	5	12,563
	작은 음악회	2	600		토요 야간개장	56	8,543
					해솔영화관	140	6,653
	합 계	4	5,090		합 계	61	21,106

구분		횟수	관람객(명)	구분		횟수	관람객(명)
지역	행사			지역	행사		
광주	계기별 문화행사	4	11,855	김해	계기별 문화행사	5	19,193
	박물관 음악회	1	270		야간개장연계 문화행사	1	280
	가족영화 감상	169	20,315		토요문화체험행사	34	11,223
	토요 야간개장	12	2,470		가족 영화감상	61	8,320
	합 계	186	34,910		합 계	101	39,016
전주	계기별 문화행사	4	38,699	제주	계기별 문화행사	2	9,403
	토요 야간개장	8	2,604		토요 야간개장	17	8,693
	야간개장 영화상영	16	783				
	합 계	28	42,086		합 계	35	19,622
부여	계기별 문화행사	3	9,785	춘천	계기별 문화행사	35	7,574
	지역민 대상 문화공연	16	7,006		박물관 문화산책 (음악회, 연극, 뮤지컬)	42	9,287
	토요야간개장 공연	26	10,740		박물관 영화관	109	10,900
					토요상설 문화행사	23	3,258
	합 계	45	27,531		합 계	6	31,019
공주	계기별 문화행사	4	10,581	나주	계기별 문화행사	1	200
	야간개장기념 문화행사	29	3,121		야간개장기념 문화행사	-	
	합 계	33	13,702		합 계	1	200
진주	계기별 문화행사	3	25,208		※ 국립나주박물관 '13년 11월 개관		
	야간개장연계 문화행사	42	3,086				
	합 계	33	13,702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내외 박물관과 고고학, 역사, 문화재, 보존과학, 예술, 인류학 등의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추진한 전시의 도록과 연구 ·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전문도서 102,898권, 비도서(CD-ROM, DVD 등) 3,503점을 포함해 총 145,556권(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간 32,115명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표 3-6-16 도서발간 현황(2013)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비고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 자료집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 자료집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유물-천병옥 기증	천병옥 선생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증한 총108건 139점의 유물을 수록한 기증유물 목록집	
논문집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eology(JKAA) 7호	국내 최신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 불교미술 특집 4편, 고고학 논문 2편, 박물관 소장품 관련 논문 1편 수록	영문
논문집	고고학지 19집	고고학 관련 연구 논문 6편 수록	
도록	미국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	기획특별전 '미국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 의 전시도록	국 · 영문1종 국문1종
도록	이슬람의 보물 - 알사바 왕실 컬렉션	기획특별전 "이슬람의 보물-알사바 왕실 컬렉션" 전시도록	
도록	콩고강 :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특별전 '콩고강 :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의 전시 소도록	
도록	Goryeo Celadon	고려청자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개설서 형식 영문 도록	
도록	한국의 도교 문화-행복으로 가는 길	기획특별전 '한국의 도교 문화 - 행복으로 가는 길' (2013.12.10.~2014.3.2.) 전시 도록	
도록	초원의 대제국 흉노	2009~2011년도 한몽학술조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전의 전시내용 수록	
도록	표암 강세황	특별전 '표암 강세황' 전시내용 수록	
도록	신중, 불교의 수호신들	테마전 '신중, 불교의 수호신들' 전시내용 수록	
도록	한국서화유물도록 제21집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시리즈 발간 도록 조선시대의 도성도와 읍지도, 지도의 요소를 띤 실경산수화 수록	
도록	고려시대 향로	테마전 '고려시대 향로' 전시내용 수록	
도록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특별전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전시도록으로 출품유물사진과 해설, 관련 논고 수록	
도록	한국의 큰스님 글씨, 한엄과 탄허	테마전 '한국의 큰스님 글씨, 한엄과 탄허' 전시도록으로 출품유물사진과 해설, 관련 논고 수록	
도록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 전시도록으로 유물 사진과 해설이 있는 어린이용 도록	국문1종 점자1종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비고
도서	박물관 보존과학 이야기	보존과학부에서 발행한 유물보존처리에 관한 도서	
정기 간행물	미술자료 83호	미술부가 매년 발간하는 미술사 관련 학술지 2013년 상반기 발간, 논문 8편 수록	
정기 간행물	미술자료 84호	미술부가 매년 발간하는 미술사 관련 학술지 2013년 하반기 발간, 논문 2편, 자료 2편 수록	
정기 간행물	월간 박물관	디자인팀에서 발간하는 박물관 소식지 2013년 매월 발간	
정기 간행물	National Museum of Korea	디자인팀에서 발간하는 잡지 형식의 영문계간지 2013년 4회 발간	
정기 간행물	박물관 보존과학	보존과학부에서 발행한 소장유물보존처리에 관한 간행물 2013년 하반기 발간	

표 3-6-17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현황

자료구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희귀본	특수자료	합계
수량	102,898권(점)	38,390권(점)	3,503권(점)	428권(점)	337권(점)	145,556권(점)

(4)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등 국제교류

가.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2013년 외국박물관의 한국실 지원은 '선택과 집중'에 입각하여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규 지원 사업으로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에 한국실 전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기념 도자 전시 순회에 대해 논의하였고 세브르 박물관 측 소장품에 대한 학술자문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한국실 전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의 아시아관을 확장 및 개편하여 중국실, 일본실과 대등한 규모의 한국실을 구축하고, 개관 이래로 선보이기 어려웠던 중요 한국 문화재를 대거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미국 휴스턴미술관, 영국박물관, 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에는 한국실 상설 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를 계속하여 한국실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및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2년에 개최되었던 기획특별전 "천하비색 고려청자"의 영문도록을 제작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시 "황금의

나라, 신라"와 브루클린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MBC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우리문화재 국외전시와 해외박물관 한국실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나.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터키 톱카프궁박물관에서 한국의 고대 권력과 왕권을 조명하는 "Majesty and Grace: The Art of Korea"를 개최하였다. 신라 금령총 금관, 백제 산수문전, 고려시대 금동아미타삼존불, 조선시대 백자 용무늬 항아리 등 총 153점의 문화재가 출품된 이 전시는 터키에서 개최된 최초의 한국문화재 전시로, 한국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왕권, 그리고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위엄 있는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과 함께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찬란한 신라문화의 정수가 담긴 우리 문화재를 선보이는 "Silla, Korea's Golden Kingdom"을 개최하였다. 신라의 독특한 황금장식품과 다양한 토기, 로만 글라스, 융성했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등 총 132점이 출품되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특별전시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천년왕국 신라'의 다양한 면모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The Asian Art Museum, Sanfrancisco)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의 화려하고 장엄한 잔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In Grand Style: Celebrations in Korean Art during the Joseon Dynasty)"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 116점의 회화 · 공예 · 복식 등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왕권의 의미와 정조의 화성華城으로의 행차와 향연의 모습, 그리고 궁궐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역할과 조선시대 양반들의 유교적 인생관과 출세관을 미국 사회에 생생하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표 3-6-18 2013년 국외전시 현황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6. 18~9. 29	Majesty and Grace: The Art of Korea	• 금령총 금관, 산수문전 등 153점 출품 • 한국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권력, 왕권 및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의 구현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
10. 29~ '14. 2. 23	Silla, Korea' s Golden Kingdom	• 금동반가사유상, 금관 등 132점 출품 • 신라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특별전시. 신라의 황금문화와 대외교류, 융성했던 불교문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10. 25~ '14. 1. 23	In Gran Style: Celebrations in Korean Art during the Joseon Dynasty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성원행반차도〉 등 총 10개 기관 소장유물 116점 출품 • 조선시대 왕실과 양반의 의례와 잔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회화 · 서적 · 공예품 · 가구 · 복식을 함께 전시

다. 국제교류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23차 세계박물관대회(2013.8/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아시아 · 유럽박물관네트워크(ASEMUS) 집행위원회 정기회의(2013.10/아일랜드 더블린)에 참석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밖에, 아시아 12개국 대표 국립박물관이 이사기관으로 구성된 제4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ANMA) 이사회 및 정기대회에 참석(2013.10.7.~10.9/베트남)하여, 정보 · 인적 · 전시의 3가지 교류를 중심으로 양자 · 다자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박물관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였다.

사진 3-6-8 2013년 국제교류 사업

제4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이사회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관련 주제발표

표 3-6-19 2013년 해외 전문가 초청사업

	기간	성명	소속	내용
1차	9.23~28	레이노 레프커스 (Mr. Reino Liefkes)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유리 · 도자 부장	국립나주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운영 관련 업무자문 및 정보공유
2차	10.14~18	데이비드 로버트슨 (Mr. David Robertson)	영국 DHA Design, Director	우리 관 상설전시실, 청자실 개편 관련 조명시스템 업무자문
3차	11.17~23	조안나 코섹 (Ms. Joanna Kosek)	영국박물관, 회화보존과장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 지류 문화재 보존수복 협력 강화

표 3-6-20 2013년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기간	주제	내용
8.18~8.31 (한국→중국)	중국 戰國時代 燕國 철기, 토기 자료 연구조사 및 2014년 회화 특별전 자료조사	연구주제 발표회, 전문 분야별 관계자 면담, 유물 및 유적 실사, 유관기관 자료조사 등
9.2~9.15 (중국→한국)	한국 고대 도자 발전사 및 도자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표 3-6-21 2013년 한 · 일 학술인적교류사업

기간	주제	내용
8.19~8.31, 11.18~12.1 (한국→일본)	재난 · 재해 관련 지류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각 담당업무 관련 유물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학술발표회, 관계자 면담, 실무자 간 공동조사, 유물, 유적조사, 유관기관 시설 견학 등
11.4~11.17, 11.22~11.30 (일본→한국)		

사진 3-6-9 한일 학술인적교류

한일 학술인적교류 학술발표회(1차 초청)

한일 학술인적교류 유물조사(2차 초청)

사진 3-6-10 2013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2회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한국의 근현대미술사 강의

전통 다도 체험

제 2회 박물관네트워크펠로우십 프로그램(이하 NMK 펠로우십 사업)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NMK 펠로우십 사업은 박물관 중심 교육으로 해외 한국학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 주요 대학원의 한국학 관련 박사 과정 이상의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한국학 전공 교수들의 추천 등을 통해 모두 14명을 선발하였다. 2013년에 선발된 연구자들은 독일, 우크라이나, 호주, 스웨덴, 미국, 중국 등의 다양한 국적과,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영국 런던대학교,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교, 미국 뉴욕대학교, 피츠버그대학교, UCLA 등의 다양한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고고학 및 동양 고고미술사학 등의 전공자들이었다. 참가자들은 7월 1일부터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한국 근현대미술사 특강을 비롯하여, 한국사, 고고학과 불교공예, 건축, 불교조각, 회화, 도자기, 서예, 전통 음악 등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하고 이론 강의와 연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실견하였으며,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의 문화유적도 둘러보았다.

(5) 박물관 협력망 및 인프라구축

가. 박물관 협력 망 구축 및 운영

2013년도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 대표박물관과 박물관 협의회와 함께 협력망 사업 네트워크 및 각 박물관 역량 강화,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연합전시, 지역특성에 맞는 박물관 탐방, 박물관 주간 무료 및 할인 행사, 리플렛 및 포스터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241개 관), 박물관 주간(Museum Week) 운영(행복한 박물관 · 미술관 사진 공모전, 특별 기념공연, 박물관 가는 날 등),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 상 수여(2명), 전국 대표박물관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 박물관 소식 교류 및 지역 박물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박물관 뉴스 사이트[www.museumnews.kr] 운영 등) 및 지자체(강원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사진 3-6-11 2013 박물관 협력망 사업

2013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시상식 모습

2013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 시상 모습

나. 지방지원 및 건축시설관리

지방특성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 박물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고고 · 미술사 중심의 획일적인 상설전시를 각 지역의 역사 · 문화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전시환경 및 전시실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2012년에는 73억 원을 들여 경주 · 전주 · 부여박물관 리노베이션 공사, 김해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청주, 제주 시설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1년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를 토대로 2012년에 지방박물관(광주, 대구, 진주)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2013년에는 경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6-22 2013년 지방박물관 특성화 사업

구분	대상	내용	사업비(단위: 백만 원)
리노베이션	경주박물관	고고관 리노베이션 및 남측부지 확장사업	7,869
	전주박물관	민속실 리노베이션	
	부여박물관	유물전시실 이전 및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시설개보수	청주박물관	박물관 지붕동기화 교체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 보존하고 남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립나주박물관이 2013년 11월 22일에 개관하였다. 박물관 부지면적은 74,243㎡, 연면적은 11,086㎡이며, 옹관 고분으로 대표되는 영산강 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전개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고분과 고대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적과 유물을 발굴 · 보존 ·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 · 수장전시를 도입하였다.

4 국립민속박물관

1) 조직현황

1945년 11월 8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 · 풍속 및 관습의 조사 · 연구, 민속자료의 수집 · 보존 및 전시, 민족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민족박물관'이 창설되어, 1946년 4월 25일 개관(일제강점기 시정기념관 건물)하였다. 그 후 1966년 10월 4일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 민속관'(경복궁 내 수정전), 1975년 4월 11일 '한국 민속박물관'(경복궁 내 구 현대미술관 건물)을 거쳐 1979년 4월 13일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9419호)으로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이었다가 1992년 10월 30일 문화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13752호)되었고, 1993년 2월 17일 현 건물(경복궁 내 선원전)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2003년 2월 17일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물과학과, 어린이박물관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1명(학예직 50명, 행정직 20명, 기타직 21명)이다.

그림 3-6-3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누리집(홈페이지): www.nfm.go.kr

2013년도 세출예산은 220억 87백만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14억 79백만 원으로 인건비 47억 45백만 원, 기본경비 7억 1백만 원, '한국 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등 10개 사업의 주요사업비가 160억 33백만 원이다. 관광기금은 6억 8백만 원으로 외국박물관 한국 민속실 설치 지원 398백만 원,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210백만 원이다.

2013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은 총 2,70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관람객은 2013년 1,605천명으로 2012년 대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내국인 관람객은 2012년 대비 증가하여, 총 관람객 수는 2012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56%를 점유하고 있다.

표 3-6-23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09	850,913	1,018,139	1,869,052
2010	1,116,129	1,129,304	2,245,433
2011	1,092,262	1,263,694	2,355,956
2012	1,021,608	1,618,656	2,640,264
2013	1,100,962	1,604,852	2,705,814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2) 주요성과

(1) 유물관리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년부터 자료수집 범위와 지역을 세계 민족학 자료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집시기 역시 근 · 현대로 그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수집 노력에 힘입어 2013년 소장 자료는 61,194건 112,567점에 달하며, 2009년에 변수 묘 출토 복식자료가 중요민속자료 264호로 지정됨에 따라 총 7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2011년에는 근현대시기를 대표하는 등록문화재 1종을 추가 소장하고 있다.

표 3-6-24 2013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지정번호	명 칭(소장품번호)	수량		지정년도
		건	점	
보물 제1318호	신 · 구법천문도(민속15666)	1	8	2001
보물 제1319호	경진년 대통력(민속22638)	1	1	2001
보물 제1478호	조씨 삼형제 초상(민속15295)	1	1	2006
중요민속자료 제13호	정원용(1738-1873) 유품 적초의(민속4989) 등	31	31	1968
중요민속자료 제230호	산청 전주 최씨 고령 댁 상여(민속15701)	1	1	1996
중요민속자료 제241호	장영직(1861-1944) 유품 주머니(민속11152) 등	41	41	2001
중요민속자료 제264호	변수묘 출토 유물(민속20937-20979, 43577)	44	44	2009
총계	7건	120	127	

표 3-6-25 2013년 등록 문화재 소장 현황

등록번호	명칭(소장품번호)	수량		지정년도
		건	점	
제477호	용탄어수(상)(민속64686) 등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577	1,154	2011
총계	1건	577	1,154	

또한, 2010년에는 급속히 소멸하는 근 · 현대 자료의 확보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연계, 그리고 박물관의 향후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대생활자료 및 민족학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총 817건 1,976점을 구입하였으며, 94명으로부터 총 2,820건 4,774점을 기증받았다.

국가귀속 작업은 표준 유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8년부터 '가등록'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귀속 처리 속도 및 소장 자료의 전시활용도를 높였으며, 2013년에는 '대한제국상업빙표' 등 4,164건 4,860점을 국가자료로 등록하였다. 또한,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낡고 오래된 수장고의 내부 환경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6수장고의 내부개선 및 수장고 이동통로 단열, 15수장고의 고문서류 보관용 목재서랍 격납장 제작 등으로 수장고의 보존 환경을 일신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민속자료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들로, 훼손되거나 오염 · 변색되어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민속박물관은 2002년 보존과학실 설치 이후, 민속자료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환경 개선, 재질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아울러 국내외 민속자료 보존기술 지원 및 보존처리 실무자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민속자료 보존 분야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섬유, 서화, 목재,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보존처리 1,086건 1,364점, 상태조사 2,936건 3,798점을 실시하였으며, 구입 및 기증 자료에 대한 훈증, 수장고 등의 유해생물 모니터링, 방역 등 IPM(종합유해생물관리)를 운영 및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최적의 보존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 · 운영과 관련하여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생물방제법으로 저산소 농도 살충법을 개발하였고 저산소 농도 살충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 · 등록하였다.

(2) 전시

가. 상설전시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은 크게 3개 전시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전시관(한민족생활사)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연대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2전시관(한국인의 일상)은 일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업과 사계절 변화에 맞춰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제3전시관(한국인의 일생)은 조선시대 양반가 사대부들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 의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농암 이현보 가문의 자료 중 '농암 이현보 영정' 등 170여점 바탕으로 가족코너를 개편하였다. 기증전시실에서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의 기증복 74건 117점을 전시하였다. 전시관 출구의 '기증자의 벽'에는 99명의 기증자 명단을 추가하여 기증자 예우 및 활발한 기증 문화를 유도하였다.

나. 기획 및 특별전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를 의미한다. 전시공간으로는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를 위한 2개의 전시관(기획전시실Ⅰ, 기획전시실Ⅱ)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5회의 기획 · 특별전시와 6회의 지역공동기획전, 2회의 해외순회전을 개최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들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표 3-6-26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전시 명	기간	장소	내용	관람인원
〈특별전〉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	'13.4.17~6. 24	기획Ⅰ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통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살펴봄	456,360
자연을 물들이다	'13.4.10~5.20	기획Ⅱ	색연구가 이병찬 기증자료 및 소장자료를 통한 다채로운 색의 세계와 염색작품 소개	301,443
쉼	'13.7.24~9.23	기획Ⅰ	자연과 동화되었던 한국인의 일상에서 '쉼' 을 느껴보는 전시 구현	592,924
종가	'13.12.4 ~ ' 14.3.10	기획Ⅰ	명문 종가의 나눔과 배려 등 생활철학을 종가 사람들이 직접 전시에 참여하여 선정한 자료와 구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520,879
힘찬질주, 말	'13.12.18~ ' 14.2.17	기획Ⅱ	전통과 현대 말의 민속적 상징 소개 및 말 상징의 지속(전이), 변이의 이해를 통한 민속의 변천 전달	375,7
〈지역공동기획전〉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13.4.4~6.3	옛길박물관 (경북)	2012년 개최 '아리랑'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17,520
복, 간절한 염원의 장식	'13.5.10~8.25	경기도자박물관 (경기)	2007년 개최 '수복(壽福), 장수를 바라는 마음'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38,959
흥남에서 거제까지	'13.6.4~7.30	해금강테마박물관 (경남)	2010년 개최 '굳세어라 금순아'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27,000
빛, 어둠을 비추고 마음을 담다	'13.6.4~7.30	안동민속박물관 (경북)	2005년 개최 '빛/Light - 燈, 전통과 근대'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25,925
군자의 덕, 자연에서 배우다	'13.10.18~12.15	안동민속박물관 (경북)	2006년 개최 '민화와 장식병풍'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96,312

전시 명	기간	장소	내용	관람인원
바라고 바라다	'13.12.11~'14.3.28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2007년 개최 '수복(壽福), 장수를 바라는 마음' 특별전을 바탕으로 한 순회전	1,671
〈국제교류전〉				
아리랑로드 해외순회전	'13.5.2~6.12, '13.7.2~7.27	일본 오사카 도쿄	아리랑과 관련된 한국인 · 재일동포들의 인터뷰 영상, 일제강점기~현대까지 각종 아리랑과 관련된 음원 및 생활용품, 역사자료 소개	-

다. 야외전시

관람객들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개관 이후 보다 열린 야외전시장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야외전시장은 '추억의 거리', '인쇄소', '개항기 거리' 등의 근 · 현대 생활사 전시장과 돌탑 · 장승, 물레방아, 연자방아 등을 비롯해 경북 영덕에서 옮겨 다시 지은 전통가옥인 '오촌댁', 전북 부안에서 옮겨 다시 지은 '효자각' 등의 전통마을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3-6-12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박물관 앞마당에 자리한 '오촌댁'

1970년대를 재현한 '추억의 거리'

라.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상설전시 '흥부이야기 속으로'는 고전소설 '흥부전'을 재해석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고, '영상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여, 콘텐츠 활용을 및 보급을 시도하였다. 2013년 새로운 주제로 재개관한 특별전시 '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은 통신의 발달에 따른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와 문화를 이해하고, 민속문화를 기반으로 전통적 가치관의 현대적 재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IT 기술을 활용한 상호 작용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전시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지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통해 월 평균 2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이용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 3-6-13 어린이박물관

흥부이야기 속으로

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

(3) 박물관 교육

1988년 할머니 · 손녀 공예교실로 시작한 박물관 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해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도에는 섭외교육과와 어린이박물관 교육 담당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창의 ·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평가,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2013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영상채널 개국 특강' 등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영상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성인, 어린이 · 가족, 외국인, 소외계층, 전문가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00,5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 3-6-14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연계교육

영상채널 개국기념 특강

표 3-6-27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

분야	교육 명	내 용	교육 횟수	참여인원
성인	성인민속교실	매듭, 닥종이공예, 한복 등 실기강좌	90	125
	영상채널 개국 기념 특강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민속문화 특강	4	25
전문가 교육	초등교원 우리민속연수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학 심화 강좌	10	310
	국제지역 전문가 과정	다양한 국제지역 문화 관련 교육	15	1,080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전국 박물관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유물관리 및 등록 실무 교육	9	305
전문가 교육	한류아카데미 민속심화과정	문화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 심화 강좌	16	576
	예비큐레이터 인턴십 과정	박물관 관련 학과 학생들 대상 실무연수 프로그램	17	280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자원봉사자들 대상 교육	12	662
	관광종사자 교육	관광종사자들 대상 우리 민속 교육	3	96

분야	교육 명	내 용	교육 횟수	참여인원
청소년 교육	1318 박물관 멘토 스쿨	유물관리 체험을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12	254
	Global Weekend, 박물관에서 세계를 만나다	교과연계 세계 생활문화사 체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 고취	11	267
	Global Kitchen, 요리보고 세계보고	다문화 음식을 매개로 배우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12	294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추억행 타임머신	추억의 거리와 연계한 60~70년대 생활사 체험 교육	10	192
	이팔청춘 조선탐험대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와 연계한 한국생활문화사 체험 교육	14	256
	청소년자문단	프로그램 기획 참여 및 자문 활동	18	182
소외계층 교육	오감만족 박물관 나들이	지체 · 청각장애인 대상 민속문화 체험교육	10	227
	점자도 문자도	민화를 소재로 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	8	121
	그림으로 말하기, 민속으로 안아주기	열두띠 동물의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는 체험교육	12	235
	대학생 장애인 서포터즈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80	360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세계의 악기 체험	38	16,332
	친구야, 박물관 가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 상설전시실 관람 및 한지공예, 탈춤 등 전통문화 체험	13	393
	늘 푸른 새싹교실	어린이병원학교 장기입원 환아 및 소아암어린이 대상 전통문화체험 교육	83	604
	우리 민속 우리 몸짓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어린이 대상 전통문화체험 교육	14	454
	마음으로 보는 우리	시각장애어린이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교육	2	116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한국인의 일생의례를 통한 예술치유	27	473
	철따라 철나기	24절기와 세시풍속의 과학적 원리	14	593
외국인 교육	외국인과 함께 하는 우리민속 나눔 교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규방공예, 탈 만들기, 사물놀이 등 우리 민속 문화 체험 교육	20	1,246
	외국인 전통연희교실	한국 체제 외국인들을 위한 중 · 단기 전통연희 프로그램	58	1,899
	세시풍속 체험행사 및 전통요리 체험	외국인 대상 설, 추석 등 세시행사 체험 및 전통요리 만들기 등	4	1,093
	재외한국문화원 문화교육	해외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24	963

분야	교육 명	내 용	교육 횟수	참여인원
가족 교육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	박물관 전시 및 우리 민속 문화의 주제별 이해	48	2,185
	장인을 꿈꾸다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배우는 우리 공예문화	5	179
	세시풍속과 절기음식	절기의 이해 시절 음식 만들기	7	412
	신나는 토요일	만들며 배우는 체험 -한지공예, 짚풀 공예 등	36	1,158
	오촌댁에서 듣는 우리 한옥 이야기	한옥의 건축적 · 과학적 원리 이해	20	641
	별난 박물관 즐겨찾기	주제별 전문 박물관 연계 체험 학습	10	291
	야(夜)~호(好)! 문화 공감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체험과 연계한 박물관 야외 공연 관람	7	2,019
	가자 1박2일, 민속마을로 함께 떠나요	마을 민속 문화 이해	10	384
	우리 옛집을 찾아서	옛집과 사람에 깃든 우리 문화 이해	5	195
	계기별 세시 교육	설, 대보름, 어린이날, 단오, 추석, 동지	7	69,655
어린이 교육	병아리 민속교실	미취학 어린이 대상 눈높이 민속 교육	22	583
	이웃나라 이야기	미취학 어린이 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	23	624
	교과서 속 민속놀이 여행	과거로 떠나는 전래놀이	20	953
	박물관은 살아있다	우리 민속 탐험, 어린이 진로 탐색 프로그램	17	421
	박물관 속 교과발견	일생의례 심화학습	17	457
	우리들의 박물관 학교 (방과후)	소리를 주제로 한 주제별 통합 학습	50	1,026
	박물관에서 놀아요 (방학교육)	방학기간 박물관 학습 및 현장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 이해	55	1,822
	전시연계 교육	상설전시(도깨비 수레)	376	30,092
		특별전시(뱀띠, 염색, 경남)	25	686
		야외전시	10	167
		어린이박물관 전시(흥부, 통신)	18	541
		할머니의 옛 이야기	452	6,083
문화 다양성 교육	열려라! 다문화 꾸러미, 세계의 명절 이야기(방학), 다문화꾸러미 강사교육	꾸무스따 필리핀 - 필리핀꾸러미 체험교육 한국과 베트남의 설 명절 문화 비교 교육 놀이문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	41	1,158
	꾸러미 대여 운영	몽골, 베트남, 필리핀, 한국 꾸러미 대여	160	48,460
기타	행사연계	통신전 개막식, 국회사무처 다문화가정 전통문화교육 등	2	316
총계			2,103	200,521

(4) 공연 및 민속행사

2013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세시행사와 공연을 연중 운영하였다. 먼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세시풍속을 많은 내 · 외국인 관람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흥겨운 축제마당이 되도록 하고자 절기별로 대표적인 민속놀이와 공연, 절식 나누기, 각종 풍습 체험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설, 입춘, 대보름, 단오, 한가위, 동지 행사 등의 세시행사에 90,498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우리 민족의 큰 명절과 절기별 세시풍속들이 지닌 의미를 되새겼고, 전통 민속문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표 3-6-28 2013년도 세시행사 운영 현황

행사명	내 용	행사기간	참여인원
설 · 입춘 행사	복조리 나누기, 설 놀이체험, 절식체험, 입춘첩 나누기 등	2.9.~2.11	30,346
대보름행사	부럼 깨물기, 절식 체험, 소지 올리기 등	2.21	4,370
단오행사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부채 만들기, 단오부적 찍기 등	6.10, 13	630
추석행사	송편 · 가배주 나누기, 아리랑 부르기 경연대회, 추석놀이 등	9.18.~9.22	52,852
동지행사	동지 팥죽고사, 팥죽 나누기	12.18	2,300
합계			90,498

아울러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민속한마당 주말상설공연'은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은 토요상설공연과 일요열린민속무대,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계기별 특별공연으로 나누어지며 2013년에는 총 100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약 37,630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표 3-6-29 2013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구분	횟수	관람인원	장르별				
			기악	성악	무용	풍물	기타
토요상설공연	52	11,980	18	19	7	4	6
일요 열린 민속무대	22	8,430	2		16	7	19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16	5,070	10		1	5	4
계기별 특별공연	10	12,150	6		5	6	10
합계	100	37,630					

(5) 문화교류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에 한국 민속 문화를 알리고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해외 유수의 문화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과 문화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환전시, 공동조사, 유물대여 등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8월에는 중국 농업박물관과 박물관 전문 인력 상호교류, 교환전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3년 11월 19일~20일 양일 간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형유산을 박물관 전시, 조사, 교육의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박물관과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저널 『무형유산』발간과 연계하여, 박물관에서 그간 초점을 맞춘 유형유산 즉 유물 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관습, 사상, 지식 등이 중심이 되는 무형유산을 조사하고 박물관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론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편 2013년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의 5개년 연구교류회의 4차년으로,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학술보고회가 진행되었다. 한국 측 보고회는 10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역과 박물관'을 주제로 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일본 측 보고회는 12월 8일 도쿄에서 '한일 비교민속연구의 새로운 시점'이라는 주제로 양 기관 교류팀원과 외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또,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과는 공동사업으로 한국문화 영상콘텐츠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결혼식 풍속', '한국의 설날' 등 3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6)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운영

2013년도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박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박물관 242개(2013년 12월말 기준)가 가입되어 있다. 2013년 운영되었던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지역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1개 기관), 지역박물관에 국립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보급 · 지원하는 사업(2개 기관), 지역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는 교재 · 교보재의 개발 지원 사업(10개 기관), 지역박물관 소장품 정리 지원 및 디지털정보화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4개 기관), 지역박물관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박물관 실무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교육' 등이 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전국 35개 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100여 명의 박물관 전문 인력의 자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는 소장품 정리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던 기관의 소장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소장품 온라인정보 검색(e-museum)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7) 학술활동

국립민속박물관은 시간적으로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지역적으로는 국내에서 해외까지 우리 민속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술조사와 조사연구보고서, 학술지, 민속사전 발간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향후 '2014년 강원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하여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민북마을)와 삼척시 갈남1리(어촌), 속초시 청호동 일대 실향민촌의 생활상을 조사 · 연구하였다. 조사보고서는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한 학술조사사업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경남지역 두 개 마을의 민속조사보고서 2권과 살림살이보고서 2권, 경남의 민속문화 1권 등 총 5권을 발간하였으며, 도시민속 조사의 하나로 이루어진 '조선소 도시, 거제 조사보고서' 2권을 발간하였다. 경남지역 민속조사 보고서는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의 민속지와 살림살이 조사를 바탕으로 『남해의 보석 물건마을』『조창남 · 김순점 부부의 살림살이』,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노를 저어 갔던 율지, 다리건너 만나다』『성윤용 · 김숙자 부부의 살림살이』가 발간되었다. 또 도시민속 조사 보고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동되는 '기업형 도시공간'인 경남 거제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소도시, 거제』와 『이수범 · 로살리 가족의 살림살이』를 발간하였다.

국외의 경우, 물질문화 현지조사의 하나로 청바지를 주제로 영국, 독일, 미국서부, 인도, 일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류의 생활을 관통하는 물질 중 하나인 청바지를 통해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청바지 관련 유 · 무형 자료는 2014년 '청바지 특별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베트남 소수민족의 혼례풍습 조사를 바탕으로 『베트남 혼례문화』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사보고서 발간 외에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연구팀과 '지역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4년차 학술보고회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사업의 2013년 발간물은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 판소리편』 두 권과 『한국민속신앙사전』영문판 한 권이다.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편에서는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크게 나누어 각각 대표적인 작품들을 500여 편으로 선별하였다. 90명의 집필자들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현지 채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민요 전승 현황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판소리 편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의 전승오가(傳承五歌)만이 아니라 실전(失傳)판소리, 그리고 창작판소리, 단가 등 판소리 장르의 모든 작품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160여개의 표제어와 90여점의 도판이 실려 있고 40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영문판 『한국민속신앙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Beliefs』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정신앙편)에 실려 있는 1,350여개의 표제어 중에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표제어들을 250여개로 간추렸다. 내용도 기존 원고보다 쉽고 간략하게 재집필한 후에 번역하였다. 이 사전은 크게 '제의와 주제자

(Rites and Officiants)', '신격과 신체(Divinities and Sacred Entities)', '제의장소(Ritual Venues)', '제구(Ritual Props)', '제물(Ritual Offerings)'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모든 발간물은 웹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민속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민속학연구 32 · 33호' 두 권의 학술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민속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과 성좌주의시대의 민속학'이라는 주제로 한국민속학자대회, '박물관을 위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국제학술세미나, 말띠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2013년 연구분야는 조사보고서 10권의 조사보고서와 사전 3권, 논문집 2권이 발간되었으며, 기록화 및 조사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와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 3-6-30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2013)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2013년	조사 보고서	• 남해의 보석 물건마을 • 조창남 · 김순점 부부의 살림살이 • 노를 저어 갔던 율지, 다리 건너 만나다 • 성윤용 · · 김숙자 부부의 살림살이 • 경남의 민속문화 • 조선소 도시, 거제 • 이수범 · 로살리 가족의 살림살이 • 베트남의 혼례 문화 • 20세기 어머니 이석희의 삶과 근대이야기 I • 20세기 어머니 이석희의 삶과 근대이야기 II	
	사전 · 웹북	• 한국 민속 문학사전-민요편, 판소리편 각 1권 • 한국민속신앙사전-영문판 1권	
	전시도록 · 사진집	• 아리랑(アリラン)-The Soul of Korea • 종가 • 자연을 물들이다 • 힘찬 질주 말 • 복, 간절한 염원의 장식 • 흥남에서 거제까지 • 빛, 어둠을 비추고 마음을 담다 • 군자의 덕, 자연에서 배우다 • 바라고 바라다 • 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 • 20세기 경남의 가면극과 공예』 기증 사진집(2013년)_발간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2013년	정기간행물 · 학술지	• 창의 · 인성과 박물관 교육-제2회 어린이민속박물관 학술대회 • 박물관과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 • 생활문물연구 29호 • 민속학연구 32, 33 • 민속연보 • 민속소식 •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8호 •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4호, 5호	
	자료집 · 백서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옹기(2013년)_발간	
	교재	• 국제지역전문가과정(아시아 · 중동편, 유럽편, 미주 · 아프리카편) • 2014년 대학생 예비큐레이터과정 • 초등교원 우리 민속 연수 • 제24, 25, 26기 전문인력 양성교육(박물관교육 및 교보재 개발/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전시기획 및 디자인) 3종 • 2013 창의 · 인성 교육을 위한 박물관 교육 교수 · 학습과정안 •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집 • 철따라 철나기-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집 • 샬롬 우즈베키스탄	

(8)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 · 수집 ·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82,071권을 비롯해, 그동안 추진한 민속조사 결과물과 전시를 통해 생산된 자료, 박물관 교육 · 행사를 통해 축적된 사진, 필름, 민속음원, 비도서 등 총 650,688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3년도에 손장연 기증 민속자료 20,831점을 수증 받았으며, 전시, 민속조사 · 연구, 교육 등을 통해 생산된 아카이브 자료 26,011점을 수집하였고, 도서자료는 4,427책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정상박 선생으로부터 수증한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민속조사 아카이브자료들을 정리한 『20세기 경남의 가면극과 공예』기증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생활민속아카이브 이미지 활용을 보여주는 연구, 교육 및 출판 등의 자료복제를 위하여 2013년도 4,178점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속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이용과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6-31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2013.12.31 기준)

종류	자료구분	수 량
도서/비도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	82,071권(점)
아카이브	필름	286,190점
	인화물	51,951점
	디지털이미지	206,790점
	CD/DVD	1,526점
	테이프	6,100점
	LP(레코드)	31점
아카이브	설계도면	255점
	음원	2,583점
	판넬 · 액자	43점
	엽서/스크랩	2,061점
	협약서 등 기타	11,087점
총계	650,688점	

표 3-6-32 2013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구분	기증자	자료내용	수량
아카이브	손장연	고 남강 김태곤 선생 원고, 영상필름, 사진 자료 등	9,569점
	정상박	통영 산덕리 제당 사진 자료 등	303점
	임동권	한국 및 일본 조사 사진, 음성카세트테이프	54점
	이용범	내시(內侍) 묘 관련 영상 필름	5점
	강신표	마을 조사 및 하와이 이주사(移住史) 관련 문서와 사진 자료	5,152점
	2013 평창동계스페셜 올림직조직위원회	가이드 북 등	55점
	히준 카스야	김용구, 박태수 부부 사진	4점
	재일본대한민국단	朝日交流二千年	1점
	이광규	고 이광규 선생의 민속 조사 사진 및 스크랩 자료	3,454점
	최래옥	설화조사 음성카세트테이프 및 조사노트 등	2,044점
도서	2012여수 엑스포	여수엑스포 관련서적 및 DVD	58점
	이광규	민속한 및 인류학 관련서적	68점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조직현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8 ·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립이 공표된 후 2009년부터 건립을 추진, 서울의 국가 상징거리에 위치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립목적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기록 · 전시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한눈에 알게 하는 것이다.

2013년 말 현재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과, 교육홍보협력과, 조사연구과의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45명이다.

그림 3-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도

2013년 세출예산은 115억 6백만 원으로 박물관 건립 예산 등 102억 65백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7.1% 감액되었다. 예산은 박물관 운영경비 6억 96백만 원, 전시 및 자료수집 등 4개 사업의 주요사업비 108억 1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은 총 104만 8천 명으로 개관 첫 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관람객은 15,311명('13년 2월부터 집계)으로 1.5%를 차지하였다.

2) 주요성과

(1) 자료관리

가. 자료 수집 및 등록

대한민국역사물관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임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10년부터 근현대사의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여 2013년 현재 소장자료는

53,118점에 달한다. 자료 수집은 자료공개 구입과 기증으로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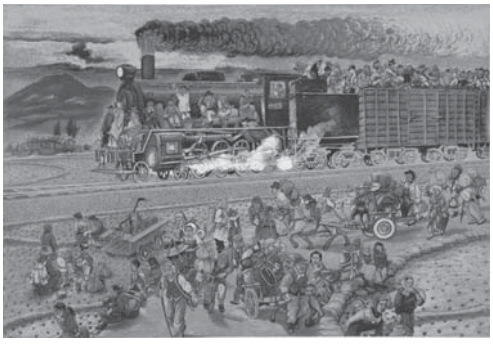
그동안 수집된 주요자료는, 『기미독립선언서』, 『님의 침묵』 초간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와 같은 희귀 자료와 4 · 19 혁명 당시 여고생의 일기, 5 · 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관의 일지와 같은 개인의 기록을 통해 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 파독 광부 · 간호사 관련 자료, 새마을 운동 관련 자료, IT산업 발전사 관련 자료 등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그 성과들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된 기아 경3륜 트럭 T-600, 금성 라디오 A-501 등 현재 4건의 등록문화재를 소장 중이다.

표 3-6-33 2013년 등록문화재 소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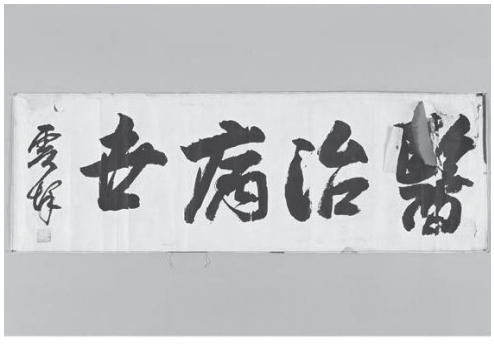
등록번호	명 칭	수량		등록연도
		건	점	
등록문화재 제400호	기아 경3륜 트럭 T-600	1	1	2008
등록문화재 제538-1호	고바우 영감 원화	1	6,496	2013
등록문화재 제559-2호	금성 라디오 A-501	1	1	2013
등록문화재 제561-2호	금성 텔레비전 VD-191	1	1	2013
합계		4	6,499	

2013년에는 한국 대표 시사만화인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영감' 원화 등 9,680점을 구입하고 52명의 기증자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 「醫治病世(의치병세)」 등 2,352점의 자료를 기증 받아 총 12,032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진 3-6-15 2013년 주요 수집자료



김성환 화백 作 〈1.4 후퇴〉



「醫治病世(의치병세)」

특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근현대사의 소중한 자료들을 기증을 통해 수집해오고 있다. 주요 소장자 발굴을 통한 현대사 관련 자료 기획 기증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와 함께 기증자의 생애와 자료에 얽힌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그동안에 박물관에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 147명의 대표자료를 소개하는 기증자료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다』를 발간하였다. 기증자료집은 단순히 기증 자료에 대한 소개를 넘어 기증자의 생애와 기증경위, 기증한 자료에 얽힌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냈다. 또한 이 자료들을 위주로 10월에는 「아름다운 공유」 기증특별전과 기증자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국가귀속 작업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포니 자동차' 등 3,000건 5,777점을 국가자료로 등록하였다.

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개항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들로 훼손되거나 오염 · 변색된 경우가 많다. 또한 섬유, 서화, 목재, 금속, 토 · 도기, 석재 등 고고유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질과 함께 플라스틱 · 페인트와 같은 다양한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므로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관 이래 박물관 수장고 보존환경 개선, 전시 중인 자료의 환경관리, 소장 자료의 보존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질 분석 및 신소재 보존처리 연구 등을 통해 근현대 자료 보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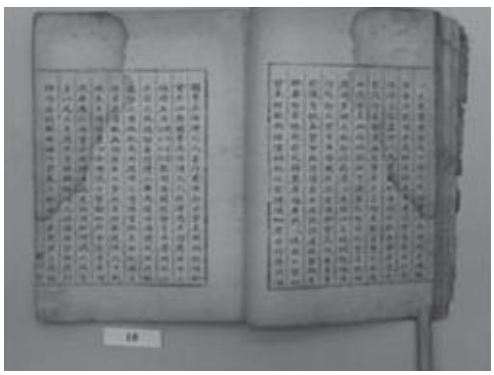
개관 이래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장 자료 보존처리는 총 470건 470점이며, 예방 보존 강화를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실 온습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 6회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장 자료의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충모니터링(IPM), 훈증, 실내공기 질 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용 수장시설 확보를 통해 자료훼손 방지 및 과학적 보존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유물을 재질별, 유형별로 수장 공간을 분리하여 본관 내부 수장고와 외부 수장고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수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가비축토지를 활용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개방형 수장고 및 아카이브정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표 3-6-34 보존처리 현황(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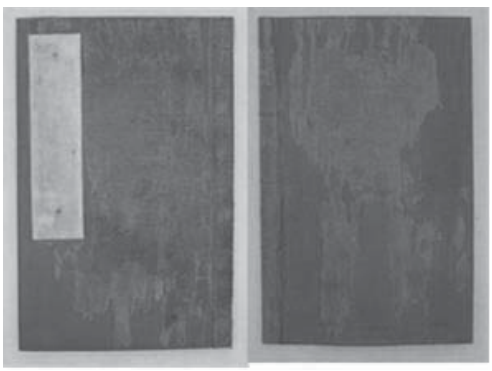
구분	년도	사업명	처리완료
소장유물	2012	전단지(삐라)	321점
	2012	국방부 유해발굴유품	106점
	2012	개관전시자료(금속, 직물)	18점
	2012	개관전시자료(지류)	23점
	2013	기증특별전 전시자료	1점
	2013	조오수호통상조약문 보존처리 및 복제	1점
합계	470점		

사진 3-6-16 조오수호통상조약문 보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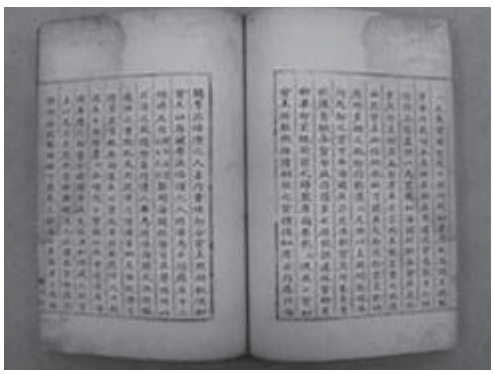
조오수호통상조약문 앞표지 · 뒷표지(보존처리 전)



조오수호통상조약문 내지(보존처리 전)



조오수호통상조약문 앞표지 · 뒷표지(보존처리 후)



조오수호통상조약문 내지(보존처리 후)

표 3-6-35 환경조사 현황(2013)

구분	기간	내용
환경측정	연중	전시 및 수장 공간 온습도 및 유해가스 (SO2, NO2, HCHO, CO, CO2,O3) 측정
훈증소독	연중	수장고 및 자료정리실 훈증
온 · 습도 관리	짝수달	수장고 및 전시실 온습도 데이터 백업
생물학적 조사	분기별	수장고 생물피해 예방 조사

다. 근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사진, 동영상, 음원, 텍스트 등을 수집 · 관리 · 활용하는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매체의 근현대사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정리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2012년 디지털아카이브자료관리시스템(archive.much.go.kr)을 개발하여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모든 소장 자료에 대하여 주제별, 자료유형별, 원본형태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촬영 및 스캔을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 중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 아카이브는 박물관 소장 자료를 비롯하여 학술지, 학회지, 논문 등의 도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DB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근현대사 관련하여 다양한 디지털아카이브자료 수집하여 대국민 자료제공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 전시

가. 상설전시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된 상설전시실로 출발하였다. 2013년은 실질적인 개관 첫해로서, 이미 설치된 상설전시실을 관리, 보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설전시실의 장 가운데 전면 개선이 진행된 곳은 제 3전시실의 새마을 운동 장으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개선이 진행되었다. 새마을 운동 장의 개선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알려진 청도에서 새롭게 확보한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 3전시실 대중문화 전시에서는 영화 간판 공간 아래에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추가하는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상설전시 내용 가운데 학계 및 언론매체에서 언급한

전시 내용들을 확인 후 전시실 개선에 반영하는 작업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다.

전시실 관람환경 개선 작업으로는, 전시실 유지보수용 조명 및 영사용 전구 교체, 전시실 및 복도 의자, 탁자 설치 등이 진행되어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전시 유물자료의 훼손방지 및 보존을 위한 자료 복제 및 교체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개관 당시 타 기관에서 대여해온 유물들을 반환하거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가운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원본 자료의 보호를 위해 진행되었다. 1차로 지류 전시자료를 95건 복제했으며, 2차로 박물관 소장 전시자료 142건 303점의 복제를 진행된 후, 교체 전시가 진행되었다.

나. 기획 및 특별전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3년에 기획 · 특별전시(3회)와 공동기획 및 대관전시(2회)를 개최하였다. 기획 · 특별전시는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 등을 전시주제로 기획한 것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인지되었거나 역사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적 주제를 선택하여 전시하였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해당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개선을 위해서도 참고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선 2013년 4월 5일부터 28일까지 〈한 눈에 보는 식목일〉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식목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개관 100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전시를 위해서는 박물관 역사마당 공간이 활용되었으며,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식목일 풍경, 홍보포스터 등이 전시되었다. 2013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본격적인 첫 번째 기획 · 특별전은 정전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이었다. 2013년 7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된 이 전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후 한반도가 아직까지 정전 체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전시는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기억', '대립, 화해 그리고 평화', '참전국이 본 6.25전쟁', '그 후 60년, 폐허에서 번영으로' 등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유물자료 전시 외에 영상 상영회, 체험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기증특별전 '아름다운 공유'가 진행되었다. 이 전시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 147명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한 1만2천 여 점의 자료 중 2백여 점을 선택하여 전시한 것이었다. 이 전시는 기증자가 전하는 각각의 사연과 대표 자료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자료 전시, 6명의 주요 기증자가 들려주는 삶과 기증 자료에 대한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날 특별전 '한글 꽃, 한글 꿈'이 2013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박물관 앞마당에서 개최되었고, 또한 외부 대관 전시로 〈카툰공감〉 만화공모전 수상 만화작품들이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시되었다.

표 3-6-36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전시 명	기간	장소	내용
〈특별전〉			
'한 눈에 보는 식목일'	'13.4.5~4.28	박물관 역사마당	: 식목일 기념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 현재까지의 시기별 식목일 풍경 및 홍보포스터의 변화과정을 전시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13.7.23~9.29	1층 기획전시실, 역사마당, 역사가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으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60주년 계기, 남북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재조명함
'아름다운 공유'	2013.10.15.~ 2014. 2.9	1층 기획전시실, 역사마당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된 자료 200여점을 선별하여 전시
〈공동전시 및 대관전시〉			
'한글 꽃, 한글 꿈'	'13.10.7~ 10.13	박물관 역사마당	한글날 기념 특별전으로, 설치미술, 체험마당 등을 운영하여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13.11.26~ 12.1	박물관 역사마당	'2013 제 3회 2013 카툰공감 만화공모전' 의 수상작들을 전시

사진 3-6-17 기획 · 특별전 〈한 눈에 보는 식목일〉

'한 눈에 보는 식목일'에 전시된 해방 직후 식목일 기념 포스터

사진 3-6-18 기획 · 특별전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전시 1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전시 2

사진 3-6-19 기증 특별전 〈아름다운 공유〉

〈아름다운 공유〉 개막 행사

〈아름다운 공유〉 전시장 전경

(3) 조사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이다. 박물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근현대사 'Think Tank'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근현대사의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개관 1주년된 박물관으로서 인력 및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현대사 새 자료 발굴 및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해석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하였다. 2013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조사연구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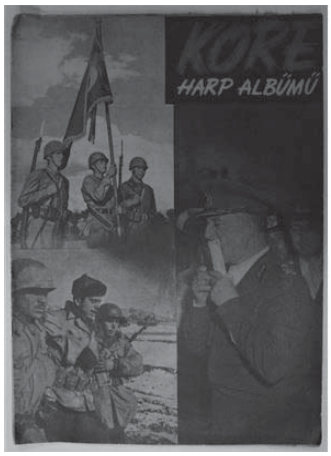
가. 한국 근현대사 연구기반 토대 구축

① 국내외 미공개 자료 발굴 및 소개

터키 소장 6 · 25전쟁 관련 자료(동영상, 문서, 사진, 물품 등) 800여점을 수집 혹은 기증받았다. 한국전 참전 16개국 소장 국내 미공개 자료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미공개 자료 발굴 측면에서 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사진 3-6-20 국내외 미공개 자료 발굴 및 소개

터키 소장 6 · 25전쟁 관련 포스터



터키 소장 6 · 25전쟁 관련 잡지

② 학술연구용역 추진

파독 50년, 정전과 한미동맹 60년, 정부수립 65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40년, 터키 소재 6.25전쟁 자료조사, 각국의 역사논쟁 사례 등 시의성 있는 현대사 쟁점주제를 선정, 집중적인 자료 발굴 및 해석을 통해 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5건)을 추진했다(3~12월). 향후 인력과 재정 측면의 개선 경과에 따라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 연구용역의 비율을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다.

③ 관람객 중심의 상설전시실 개선 방향 도출

학계 및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향후 상설 전시실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역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 상설전시 구성 및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상설전시실 주제 보완 및 기획전시 신규 주제 발굴을 위해 박물관 교육, 과학기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조사연구도 실시하였다(6~12월). 또한 현 상설전시실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4~10월).

나. 한국 근현대사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① 국제 학술교류 활동

세계 각국의 역사논쟁 사례를 주제로 선정하여,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관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12월). 또한 해외 관련 여러 기관과 학술교류를 추진하였다. 2013년 7월에는 터키 TRT(국영 터키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 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 아카이브 등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사진 3-6-21 국제 학술교류 활동

개관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개관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② 국내 학술교류 활동

황용주와 그의 시대, 아웅산 테러리스트, 한반도 분할의 역사 등과 같이, 학계 주요 연구자 초청 최신 저서 또는 연구 관심사에 대한 발표 및 질의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의 현대사 이해 제고하기 위해 〈근현대사 콜로키움〉을 운영했다(총 9회). 또한, 파독 50년, 정전과 한미동맹 60년 등 계기별 특별전 및 학술연구용역사업과 연계, 학술대회 개최로 대중과 공유하는 박물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시 및 학술연구용역 사업과 연계된 학술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총 4회).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근현대사의 다양한 주제를 심층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계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의 기회로 삼고 있다(총 5회). 지난해 공동학술대회 주제는 UN과 한반도, 국외 민족운동의 요람 명동학교, 1963년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의미 등이다.

사진 3-6-22 국내 학술교류 활동

근현대사 콜로키움

학술연구용역사업 학술대회

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 성과의 공개와 보급

일반 국민들의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함양 및 국민통합을 위한 대중 교양서 《현대사교양총서》(7종)와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획 주제 선정, 학계의 다양한 견해 소개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연구 중심 박물관 기능 수행하기 위한, 근현대사 연구 학술 소통지 『현대사광장』(연2회)을 발간하였다. 한편, 일반인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접근성 및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현대사 영상실록 ; 총론 제1편 경제개발편〉 영상을 제작하였다.

사진 3-6-23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의 공개와 보급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7종 발간

〈현대사광장〉 창간호, 2호 발간

표 3-6-37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주요 내용	수행기관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 전시 주제 체계와 그 설명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유물, 사진, 영상과 그 설명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한양대 산학협력단
2	광부 · 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 광부, 간호사의 독일 노동 파견 50년을 맞아, 이들을 통해 해외 노동 이주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을 고찰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
3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 중화학공업화 선언 4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 발달 단계와 구조, 세계경제 속 한국경제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 중화학공업화의 전개와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조명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4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 정부수립 65년을 맞아, 국가 형태와 정부 형태, 관료기구, 강제력 행사 기구, 재정기반, 교육체제, 국제관계망 등 현대국가의 제반 요소를 어떻게 갖추어갖는지를 규명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5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 정착에 미친 한미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을 고찰	고려대 산학협력단
6	터키 소재 한국 현대사 사진 · 동영상 자료 조사	- 정전 60주년을 맞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터키 현지의 각종 아카이브에 보존되어있는 6.25전쟁 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 소재 자료의 신규 발굴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대면 면접, 설문조사, 관람객 관찰 등을 통해 박물관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	(주)글로벌리서치
8	주요 선진국의 역사 논쟁 사례 연구	- 선진 각국의 역사, 문화, 정치 논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현대사 인식 및 교육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함	서울대 산학협력단

표 3-6-38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발간 현황

구분	총서명	집필자	비고
1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2013년 7월 발간
2	런던에서 런던까지 대한민국 올림픽 도전사	나영일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	2013년 7월 발간
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외교통상부 파견근무 판사)	2013년 7월 발간
4	세계의 한인 이주사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2013년 10월 발간
5	산림녹화	배상원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2013년 10월 발간

구분	총서명	집필자	비고
6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이선민 (조선일보 오피니언 부장)	2013년 12월 발간
7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최상오 (전 서울대 BK21 연구교수)	2013년 12월 발간

표 3-6-39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연번	구분	행사명	발표자
1	개관1주년 국제학술대회	세계 각국의 역사논쟁	Alexander Koch (독일역사박물관 관장) 등 8명
2	근현대사 학술콜로키움	구술사로 듣는 한국현대사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장)
3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희경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4		나의 한국사 연구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5		1960년을 묻다	권보드래 (고려대 국문과 교수)
6		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장유정 (단국대 교양과정부교수)
7		지식인의 나라 만들기 - 황용주의 경우	안경환 (서울대 법학과 교수)
8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9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10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1	공동개최 학술대회	한국 정치외교사 교육, 성찰과 과제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 5명
12		UN과 한반도 : 역사와 전망	허동현 (경희대 교수) 등 5명
13		국외 민족운동의 요람 명동학교	서대숙 (전 화와이대 석좌교수) 등 4명
14		근현대 전통예인 심정순가(家)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	이보형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등 5명
15		2013년 대한민국의 정치과정: 정치외교사적 평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4명

연번	구분	행사명	발표자
16	학술연구용역 연계세미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연구용역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
17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김용직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등 6명
18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등 6명
19		광부 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등 6명
20		한국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박기주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 6명

(4) 박물관 교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12월 직후부터 박물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하여 유아에서 성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 개관 직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동반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어린이 ·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연계, 청소년현대사아카데미, 주말가족동반, 주말어린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5개의 과정에 41개 이상의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어린이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과 박물관교육과의 연계이자 학교 교육현장과 연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아를 위한 '태극기 휘날리며',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역사탐험' 등 참여자의 수준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이해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객관적 근현대사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진 3-6-24 유아 · 어린이 교육

학교연계 유아교육 '하늘 높이 태극기'

주말어린이교육 '대한제국뉘우스'

청소년현대사아카데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기반을 두고 '진로'와 '동아시아'라는 2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중학생 프로그램은 '역사와 함께 하는 나의 미래직업'이라는 제목으로, 직업을 통해서 근현대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 프로그램은 현재의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 등을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인식 향상하여 참여자 자기이해의 기회를 도모하였다. 단순히 강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관련 체험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어지는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각 5주간 상 · 하반기에 운영되었다.

사진 3-6-25 청소년 교육

자아성장프로젝트

진로탐색프로젝트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으로 한 "박물관대학" 과정을 비롯하여 교원 · 공무원 연수, 외국인 교육 등 4개 과정에 6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박물관대학의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산책〉은 일반인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문화강좌로 음악, 미술, 영화, 사진, 건축, 체육 등 우리 근현대사의 다양한 모습을 10주간으로 상 · 하반기에 운영되었다 또 다른 박물관대학 강좌인 〈한국현대사 탐구〉는 정치, 경제, 사회사 분야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전문자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산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근현대사에 접근한다. 〈한국현대사 탐구〉는 현재 역사 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소개하는 정통 역사학 강의라 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강연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유적에 대한 답사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흔한 근현대사 도서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상설전시의 내용을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한 전시공간이자 교육공간인 "우리역사 보물창고"는 현장과 인터넷 예약으로 매일 5회 운영되었다. 스스로 탐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한 단체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연 1,722회 54,529명이 '우리역사보물 창고'를 찾았다. "우리역사 보물창고"는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근현대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http://discovery.much.go.kr/)를 운영하여 공간과 시간의 벽을 넘어서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3-6-26 우리역사 보물창고

학교연계_근현대사 스스로 찾아보기
(우리역사 보물창고)

학교연계_근현대사 스스로 찾아보기
(우리역사 보물창고)

표 3-6-40 2013년도 교육 운영 현황

구분	과정명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인원
어린이 · 청소년	학교연계	6	111	3,092
	청소년현대사 아카데미	2	20	524
	주말가족	10	119	2,696
	주말어린이	9	102	1,845
	방학특집	14	54	1,212
	소계	41	406	9,369
성인, 외국인, 교원	박물관대학	3	41	1,536
	교원연수	2	10	80
	공무원연수	1	31	1,894
	외국인교육	1	8	344
	인턴교육	1	4	11
	소계	8	94	3,865
합계		49	406	13,234
우리역사보물창고		1	1,722	54,529

(5) 문화행사

2013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주요 역사 기념일 체험행사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이 근현대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3.1절, 과학의 날(4.21), 어린이 날, 광복절, 총 4차례의 역사기념일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약 29,000여명이 참여하였다.

표 3-6-41 역사기념일 체험행사 현황

기념일	행 사 명	내 용	기간(일수)	참여인원(명)
3 · 1절	제94주년 3 · 1절 기념 - 독립선언서 만들기	기미독립선언서 만들기, 태극기 · 배지 만들기 등	3.1(1)	3,000
과학의 날	과학의 저녁 (Science Evening)	흥남부두의 기적과 선박의 과학	4.21(1)	1,000
어린이날	어린이가 희망이다	가족에게 보내는 우표3 · 1엽서 만들기 등	5.4~5.5(2)	20,000
광복절	광복의 함성 속으로	소원을 담은 태극기, 광복군 배지 만들기	8.15(1)	5,000
합 계			4회	29,000

사진 3-6-27 역사기념일 체험행사

3.1절 체험행사

어린이날 체험행사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복합문화향유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토요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를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총 8회), 하반기에는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총 7회) 매주 토요일 국악 아카펠라, 국악밴드, 해금협주, 가면극, 연희극 등 주로 전통음악과 연희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이며 젊은 층부터 중장년 세대까지 폭넓게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박물관의 특별전 및 개관기념일과 연계한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하였다. 정전 60주년 특별전과 연계하여 재즈와 클래식 콘서트(5.14), 초청강연회, 음악회, 야외 영화상영회 및 영화 이야기콘서트 등(8.1~4, 8.16~17)을 개최하였다. 10월에는 기증특별전 '아름다운 공유'와 연계한 가을 음악회(10.24)를 열었으며, 12월에는 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일반인 현대사 사진 공모전 '일반인들의 사진을 통해 본 우리 현대사'와 미디어예술전 '우리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열고 야외조형물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 3-6-28 문화행사

특별전 연계 음악회

토요문화행사

(6) 교류 및 협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 국내외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 및 기관과의 교류 · 협력 활성화를 통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한국 근현대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유수 근현대사 박물관들의 선진 운영사례를 찾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 국내교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내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3년,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총 33개 기관이 가입을 하였으며, 이 중 '부천교육박물관' 등 10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총 45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DMZ박물관' 등 4개 기관의 전시실 학습지 개발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가입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 기관들 간의 소통과 함께 정보공유도 추진하고 있다.

표 3-6-42 2013년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 기관

연번	설립	박 물 관 명	연번	설립	박 물 관 명
1	공립	안중근의사기념관	17	공립	최용신기념관
2	공립	부천교육박물관	18	공립	한국만화박물관
3	공립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19	사립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연번	설립	박 물 관 명	연번	설립	박 물 관 명
4	사립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20	사립	한국선교역사기념관
5	공립	인천개항박물관	21	사립	서울대학교병원의학박물관
6	공립	대구근대역사관	22	공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7	공립	전쟁기념관	23	공립	서울올림픽기념관
8	사립	증권박물관	24	사립	백범김구기념관
9	사립	배재학당역사박물관	25	사립	신문박물관
10	공립	서울교육박물관	26	사립	만해기념관
11	국립	공군박물관	27	공립	부산근대역사관
12	사립	근현대디자인박물관	28	사립	해금강테마박물관
13	공립	한국족보박물관	29	공립	한국이민사박물관
14	국립	해군사관학교박물관	30	공립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5	사립	한국카메라박물관	31	공립	부천펄벅기념관
16	사립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32	공립	국채보상운동기념관
			33	공립	한국철도박물관

또한 이외에도 국내의 관련 기관들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업무상의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사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였고, Friends of Korea,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공동전시, 자료 기증, 해외한국실 학예인력 파견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3-6-43 2013년 MOU 체결 현황

연번	대상기관	내용
1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연수 지원 등
2	이화여자대학교	학술 및 인적교류 등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등
4	서울여자대학교	학술 및 인적교류 등
5	Friends of Korea	공동전시, 자료 기증 등
6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전시, 해외한국실 학예연구직 파견 등

나. 국제교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해외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 및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박물관의 경쟁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유수의 근현대사 박물관과 인적교류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독일연방역사의 집, 독일역사박물관, 폴란드역사박물관, 아르헨티나 국립역사박물관, 브라질 국립역사박물관 등과 교류 ·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박물관 직원들 간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9월과 11월에 각각 폴란드역사박물관(미하우 콥친스키 연구부장)과 독일연방역사의 집(모니카 뤼터 박사) 직원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초청되어 1달 동안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원 1명도 11월에 폴란드역사박물관에 파견되어 현지 박물관과 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의 박물관 관련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8월에는 국제박물관협의회 브라질 총회에 참석하여 유물위원회(COMCOL), 생활문화위원회(ICME) 등과 연합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 주제는 '박물관 유물의 해석과 활용,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가치'로, 약 50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왕식 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직원 3명이 학술발표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진 3-6-29 2013 ICOM 총회 학술회의 운영

ICOM 학술회의 기조연설

ICOM 학술회의 발표

(7) 박물관 홍보

2012년 12월 26일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관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박물관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매체광고, 박물관 소식지 발간 등 다각도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언론 홍보활동으로 각종 언론의 취재(촬영 및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보도자

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박물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상시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내용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고, 매월 주요 계기별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누리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전문 매체 광고로 외국인을 독자로 하는 5개 잡지에 지면광고를 게재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특별전을 홍보하기 위해 박물관 주변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버스 외부광고와 주변 지하철역 안전문 광고도 시행하였다. 또한 박물관 건물 외벽을 이용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기별로 문화행사, 학술대회 등을 홍보하였다.

이 밖에도,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근현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계간 소식지 발행을 추진하여 9월에 창간호, 12월에 통권 2호를 발간하였다.

표 3-6-44 2013년 홍보 실적

구분	내용	비고
언론홍보	○ 취재(촬영 및 인터뷰) 지원(108건) ○ 기관장 인터뷰(29건) ○ 보도자료 배포(15건) ○ 기자간담회 개최(2회) ○ 언론의 박물관 보도 현황(총 803건)	
온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 활동	○ 누리소통망(SNS) 게시글 현황(총 1,208건) ○ 온라인 행사 개최(11건) ○ 외국인 대상 잡지 광고(5건) ○ 특별전 홍보 버스 · 지하철 광고(2건) ○ 대형 현수막 제작(6건) ○ 박물관 소식지 발간(2회)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국립한글박물관은 국가 대표 콘텐츠로서 한글과 한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8월 준공하였다. 연면적 11,322㎡의 건축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되었으며 2014년 10월 9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건립 기본 방향은 한글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통한 한글의 문화가치의 재발견 및 확산, 한국의 문화상징을 강화하는 한글박물관 운영을 통해 창조적 국가브랜드를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을 콘텐츠로 한 새로운 문화산업, 관광자원으로서의 한글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자료가 축적되고 전승되는 장, 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한글문화가 재창조되고 확산되는 장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건립에 있어서의 운영 계획은, 먼저 건축은 한글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각 층에 형상화하여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전시 계획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 · 체험 · 연구 · 교육을 연계하여 조성 및 운영을 할 것이며, 자료수집은 국가 및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의 고문헌, 생활용구 등을 대상으로 구입, 기증, 이관, 복제, 대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3-7-1 국립한글박물관 상징 표시

2 추진 성과

국립한글박물관은 2010년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2011년 1월 건축 및 전시 설계를 완료하여 그 해 5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였다. 2013년 5월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다. 구체적인 국립한글박물관의 건축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표 3-7-1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안내

구 분	면 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3,684㎡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준비실, 창고, 시청각실
1층	2,838㎡	한글누리(자료실),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실, 수장고, 보존처리실
2층	2,191㎡	상설전시실, 한글상품판매점, 찻집
3층	2,609㎡	기획전시실, 체험전시실, 준비실, 자원봉사실

주 전시 공간인 상설전시실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1446년(세종28년)에 반포된 한글의 보급 · 확산 과정을 교육, 종교, 생활, 예술, 출판 등을 통해 보여 준다. 한글은 이미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문자이므로 단순히 옛 문헌을 통해 한글의 이전 모습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한글 자료와 영상 · 체험 자료를 통하여 한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 기념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준비 중이다. 한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우리 문화의 기틀을 세운 인물인 세종대왕을 개관 기념 첫 번째 특별전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기획전시는 크게 세종대왕의 일대기, 세종시대의 소통과 창조, 세종정신의 한글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이는 한글문화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종정신과 한글문화를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유물에서부터 현대 작가의 작품까지 함께하는 기획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한글 창제원리를 주제로 한 어린이 대상의 '체험전시실'과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배움터' 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글 전문자료실인 '한글누리'는 한글 자료의 검색과 열람 공간이면서 소규모 공연 및 휴먼북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3-7-2 전시공간구성 계획

<table>
<tr><th>전시 주제</th><th colspan="3">“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전시실(2층)</th><th>‘한글놀이터’ 체험전시실(3층)</th><th>한글자료실 (1층)</th></tr>
<tr><td rowspan="8">내용</td><td colspan="3">도입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td><td>도입
한글 창제 이전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td><td rowspan="8">디지털자료 자료 검색 및 정보 공유</td></tr>
<tr><td colspan="3">1 부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td><td>한글 창제 원리
소리와 자연을 담은 한글의 창제원리</td></tr>
<tr><td rowspan="3">2 부
쉽게 익혀 쓰니</td><td>널리 한글을 펴다</td><td>• 누구나 알기 쉬운 한글로
• 외국어 배움을 한글로
• 종교의 세계를 한글로
• 실용 지식을 한글로</td><td rowspan="3">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의 한글 활용</td></tr>
<tr><td>삶 속에 자리를 잡다</td><td>• 한글로 전하는 생각
• 한글로 누리는 일상
• 한글로 쓰는 상상
• 한글로 더하는 흥</td></tr>
<tr><td colspan="2">근대의 물결과 마주하다</td></tr>
<tr><td rowspan="2">3 부
세상에 널리 나아가</td><td colspan="2">새모습으로 거듭나다</td><td rowspan="2">마무리
체험전시를 마무리하는 영상</td></tr>
<tr><td>현재를 살아 가다</td><td>• 한글, 아름다운 한글
• 한글, 우리말의 그릇
• 한글, 정보화 시대의 문자</td></tr>
</table>

국립한글박물관은 기증 · 기탁 ·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1만 여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한글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한글 자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글 자료는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함께 향유하는 한편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표 3-7-3 국립한글박물관 연도별 한글자료 수집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합계
구입	-	-	1,212	2,464
기증	2,268	5,183	129	7,728
합계	2,268	5,183	1,341	10,192
주요자료	정조어필 한글첩, 묘법연화경(초간본), 간이벽온방, 몽산화상법어약록, 곤전어필, 훈민정음운해, 김씨부인상언, 청구영언, 가곡원류, 죽천행록, 용비어천가(순치본), 금강경언해(간경도감본), 박통사신석언해, 첩해신어, 습례국 등			

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지역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이다.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주변에만 머물던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인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문화와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도시나 국가의 성장에서 하위개념이 아니라 중심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범 아시아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분야나 지역별로 접근하는 기존 문화정책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원과 지역의 역량을 전 방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 다양한 단위의 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2/3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회의 대륙이다. 최근 서구중심주의로 인해 저평가되고 소외되었던 아시아의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문화'는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진수를 발굴하고 아시아 국가 간 문화협력과 연대를 평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구심점을 의미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는 '광주'는 시민참여를 통한 개혁의 경험을 가진 도시이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 정신적 기반을 지

니고 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근대화 과정은 아시아 각국 사이에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더불어 남도문화의 집결지 광주의 가사문학, 남종화, 판소리와 같은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 개최로 이미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광주의 이러한 역량과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문화 주체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교류와 소통, 창조가 선 순환하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미향, 예향, 의향, 교육의 도시 광주는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의 장이 되어 아시아 문화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아시아 예술가들의 실험, 창작, 연구,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의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2007년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07.10)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두는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진행하였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법정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5 · 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광주에 내재된 민주 · 인권 · 평화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 억압과 소외가 없는 평화 · 인권의 도시, 열린 소통의 도시,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으로써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동 · 서 문화의 균형과 개방 ·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목표는 '아시아 문화가 교류 · 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인 '아시아 문화교류의 도시',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 · 연구 · 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 · 평화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경제를 구현하는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표 3-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4대 역점 추진과제	
문화발전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 7개 문화권과 문화터 문화방을 잇는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역할을 함. - 국립 아시아 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5개원으로 구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7대문화권' 설정으로 문화도시경관조성, 지역문화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 도시의 문화적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함. - 7대 문화권 과 핵심거점을 설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도시전체에 문화적 흐름확산 및 쾌적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경관과 생태 문화 축을 조성.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문화도시를 구현함. (7대 문화권- 문화전당권, 아시아 문화 교류권, 아시아 신 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 경관 · 생태환경 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예술 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 광주 지역의 예술 진흥 및 문화 · 관광산업을 육성.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 도시를 구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문화권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함. - 전통 · 현대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지원. (임방울국악제, 광주 국제아트 페어, 한 · 중 전통문화교류) - 광주지역의 예술역량을 강화 - 문화 예술 창작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 · 특화된 문화예술을 육성함. - 5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음악, 공예, 디자인,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 기획 · 창작, 제작까지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구축 -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이전 추진 및 시행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또는 문화산업육성 유망지역) -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활용을 통해 관광홍보체계 개선(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컨벤션 산업 지원을 활성화함.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 주체 간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 및 안정적 교류기반 구축. (아시아 각국의 정부기관 및 주요단체와의 연결망 구축. 아시아 문화도시협의체 구축. 국제 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아시아유럽재단(AS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단계별로 강화함.) - 아시아문화교류 전문 인력양성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추진. '문화도시(창조도시)' 전문가 워크숍 및 포럼 등을 통해 문화도시정책 전문과들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 - 시민교육강화 및 문화도시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아시아문화자원의 세계 공동 문화자산화 추진. 아시아 예술가들의 공동창작기회 제공 등 직접 교류기반을 조성함. - 광주에 장기간 체류하는 해외 창작자, 예술가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출입국과 체류. 통관절차 완화 등 제도 개선추진 - 도시마케팅을 통해 광주 브랜드가치 극대화 및 해외 문화원. 관광공사 지사등과 해외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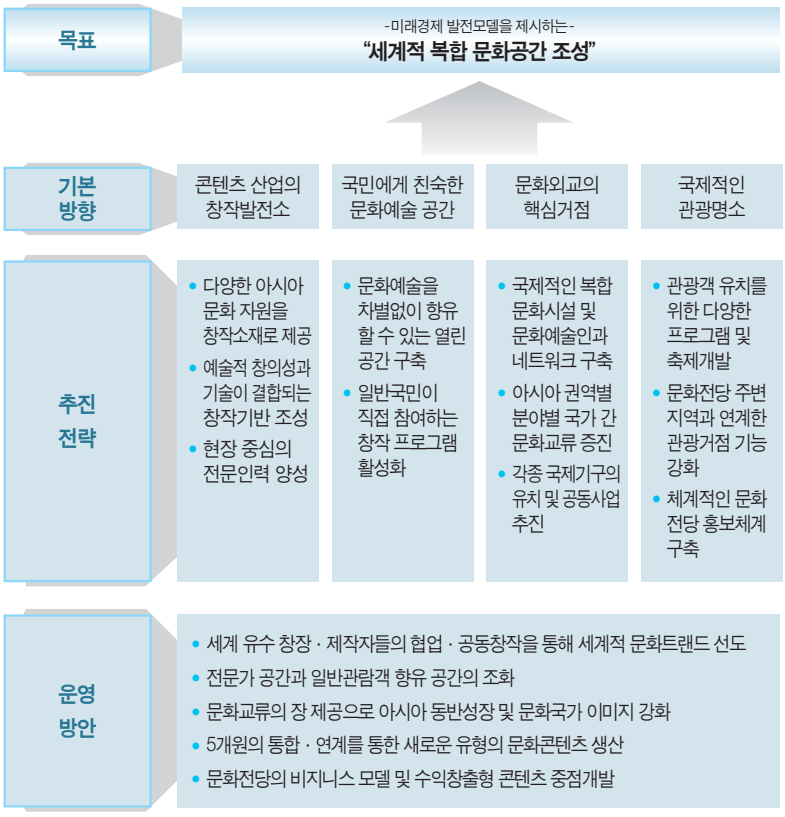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 추진방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발전소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창작 · 마케팅하며, 국제적인 명소인 동시에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문화외교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의 신화, 역사, 음악, 생태 등 콘텐츠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자원에 기반한 스토리뱅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의 이야기 자원을 개발하여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제공하게 된다. 전시 · 공연 · 시각예술 ·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작업을 기획 · 지원하며, 창작자들의 미래형 문화콘텐츠 개발 · 상품화 · 마케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적 창의성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융합문화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의 기획 · 창작 · 기술 분야의 현장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한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을 차별 없이 열린 공간으로 구축,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의 설립을 지향한다.

그림 3-8-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건립 개요 및 세부시설 기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국제건축설계경기에서 당선한 〈빛의 숲〉(설계자: 우규승)이라는 건축물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구)전남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다. 건립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으로 현재 건립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총 5개원이며 각 개원을 중심으로 13개의 시설로 이루어져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의 순환, 연계를 통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핵심거점 시설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 문화기관으로 서고자 하는 건립취지를 갖고 있다.

표 3-8-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원 및 시설 구성

민주평화교류원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방문자서비스센터
아시아문화정보원 -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문화창조원 - 창제작센터, 복합전시관
아시아예술극장 - 대극장, 소극장
어린이문화원 -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 어린이체험관

그림 3-8-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3) 건립 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2003년 1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보고회'에서 전당에 관한 큰 틀이 드러나 문화전당 건립후보지 선정을 거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2004년 11월 긍정적인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왔다. 이후 문화전당 건립부지 선정 발표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8-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주요 공사연도 및 내용
건립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 2005.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 경기' 건축가 우규승〈빛의 숲〉당선 - 2005. 10 ~ 2007. 12 문화전당 건립부지조성 완료(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06. 5 ~ 2007. 4 기본설계용역 수행 - 2006. 12 ~ 2007. 12 실시설계용역 수행 - 2008. 2. 12 전면 책임감리 용역 착수 - 2008. 4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대림산업) - 2008. 6. 10 문화전당 건립 기공식 개최 - 2008. 12. 10 5.18 단체의 (구)전남도청 별관철거 관련농성 시위로 공사 중단 - 2009. 2. 25 문화전당 공사 재개(일부 5.18 단체 천막농성 해제) - 2009. 5. 1 문화전당 기계 설비 공사를 착공 - 2009. 9. 22 (구)전남도청 별관 부분보존 결정 합의 공동 발표 - 2009. 12. 30 (구)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 2010. 12. 23 (구)전남도청 별관 최종 보존방안 발표 - 2010. 12. 30.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안 수용 성명 발표 - 2011. 12 어린이문화원을 제외한 주요 4개원에 대한 골조공사 완료 - 2012. 1 어린이문화원 터파기 공사 및 골조 공사 개시 - 2012. 11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건축, 토목) 착공 - 2012. 12 주요 4개원 외부마감 등 전당 외형 완성(전체 공정률 50.5%) - 2013. 9. 2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 일시정지 - 2013. 12 문화전당 내부마감 · 설비공사 진행, 어린이문화원 골조공사 완료(전체 공정률 79.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이러한 운영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전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각 시설별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운영시에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문화전당은 2007년 10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이후 「종합계획」)을 근거로 문화전당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후, 전당의 목표 및 추진전략, 5개원 구성 및 운영체계와 각원별 운영프로그램 및 세부운영계획, 재정자립도 강화방안 등을 검토 · 보완하여 2012년 1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총괄계획」(이후 「총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전당콘텐츠 종합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7회, 9월) 및 광주 · 서울 지역 세미나(2회, 2013.10월)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에 전당 콘텐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3년 9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하반기 전당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12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공연, 전시 등 각 분야 전당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민주평화 교류원

민주평화 교류원(이하 "교류원")은 문화전당의 교류 · 협력업무를 5개원과 연계하여 핵심적 교류 ·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민주 · 인권 · 평화정신의 예술적 승화를 통해서 아시아와 연대 · 교류 · 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교류원에는 민주 · 인권 · 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 인권평화 기념관, 문화의 전당의 교류 · 협력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그리고 전당 방문자에 대한 방문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자서비스센터가 있다.

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는 2011년 센터 특성화시범사업을 통해 센터 운영방안 설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시아 권역별 · 대상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각국 정부관계자,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시아 창작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회원국 공동 전시 등과 같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 진행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5 · 18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 · 승 · 전 · 결 서사구조에 따라 극장식 이색 감성체험이 가능한 22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작 중이며, 아시아적 기억과 경험을 공유 ·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 · 인권 · 평화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11년 방문자서비스센터 운영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방문자의 목적, 시기, 규모 등 방문자 요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방문자 맞춤형 방문자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2년 방문자서비스센터 온라인 사이트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방문자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의 눈으로 발견하고 재해석한 아시아 문화의 미학, 사고체계, 역사 · 문화적 배경 등을 연구, 조사 · 수집하여 아시아의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 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 · 영역의 아시아 문화자원을 직접 또는 국내외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사 · 수집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정보원에는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아시아문화자원센터가 설립 · 운영된다.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아시아문화자원센터에는 시민들이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열람 ·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라이브러리

파크'가 조성된다. 또한 전당 및 문화도시에서 활동할 창의적인 문화기획자를 양성할 아시아문화아카데미도 운영한다.

2013년에는 전당 개관 대비 아카이브 기반 확대를 위해 아시아 문화자원 수집을 다각화하고, 기존에 수집되었던 문화자원과 전당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수점검 및 정비를 하였다. 또한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의 운영 체계 및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시범과정을 운영하였다.

(3) 문화창조원

문화창조원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시아 문화창조자들의 집'을 목표로 한다. 창조원에서는 랩(Lab)기반의 창작 환경인 창제작센터를 중심으로 예술 · 기술 · 인문학이 내실 있게 융합된 전당 내 · 외의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한다. 또한, 창조원은 복합전시관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콘텐츠들을 전시하고, 학자. 예술가. 기획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창출하는 열린 마당으로 기능한다. 2012년부터는 복합전시관 개관 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및 창 · 제작센터 운영체계의 마련 등 창조원의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4)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허브를 지향하며 아시아 최초로 전아시아 지역의 공동제작–유통 네트워크인 아시아 하이웨이(Asia highway)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여, 아시아의 극장과 페스티벌, 제작자와 예술가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아시아 및 세계 투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예술극장은 무대 위의 완성된 공연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예술형식의 요소들을 결합시킨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한국과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최상의 전문적인 환경에서 새 작품을 창작하도록 지원하는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작품의 제작과 공동제작에도 직접 참여한다. 2013년 현재 아시아 예술극장은 연극과 오페라, 무용, 클래식과 팝, 재즈 음악과 같은 무대작품 그리고 비디오와 비주얼아트, 영화 및 미디어아트 분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어린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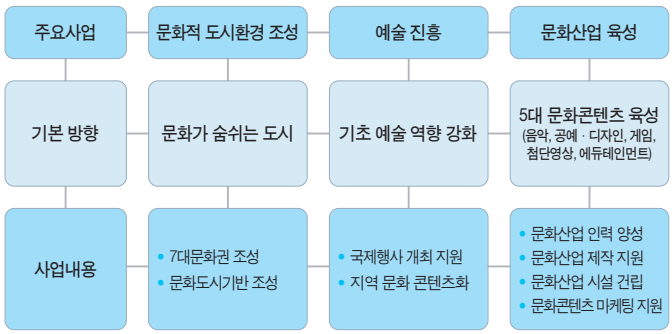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를 위한 미니전당으로서, 문화예술 기반의 통합 교육적 문화체험 및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어린이문화원은 국내와 아

시아를 향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보다 더 큰 꿈을 그리고 있다. 교육보다는 "놀이와 문화", 조작활동보다는 "창작활동"이 중심이 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놀이와 문화,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콘텐츠의 직접적인 제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어린이문화콘텐츠를 전국의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미술관, 그리고 아시아 어린이 문화시설과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어린이 문화발전소"가 되려고 한다. 2012년에는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 · 공간 · 개발조직 등 통합 운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개관 전시콘텐츠인 '(가칭)수와 측정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어린이문화원 공간운영계획안 수립(어린이극장, 교육공간, 어린이 도서관 등) 및 프로그램별 사업계획서수립(축제, 공연, 교육, 교류 등), 어린이문화원 개관전시 기본설계(스포츠체험전 및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 및 기획(초청)전시 후보군 발굴 사업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개관준비를 추진하였다.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하나의 복합문화시설에 의지한 단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가 도시와 시민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 진흥' 사업,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산업 육성' 사업 등이 조성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별된다.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은 각 권역의 특징에 따라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누어 문화전당의 기능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은 문화적으로 재창조된 중소거점을 7대 문화권과 연계하고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을 통해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 진흥'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거나 지역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음악, 공예 ·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조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림 3-8-3 문화도시 환경조성 · 문화산업육성 사업 기본방향 및 내용



(1)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은 '광주도시기본계획 2020'과 연계하여 도시 내 핵심 기능별로 문화권을 설정하는 사업이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문화도시 경관조성, 지역문화자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중소 문화거점과 7대 문화권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으로 인하여 당초 7대 문화권의 권역은 변동하지 않았으나 권역별 사업이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그림 3-8-4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본 방향

표 3-8-4 7대 문화권 사업

문화권	예정대상지	문화거점(프로그램)	
		종합계획 수정 전(2007년)	종합계획 수정 후
아시아인권 문화권 (문화 전당권)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518광장, 충장로, 금남로, 예술이 거리, 서석로 등 구도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예술인공방거리 - 도심캠퍼스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 민주화 물길 · 금남로 인권거리 조성 등
아시아 문화교류권	남구 사직공원, 양림동 일대 (근대역사의 대표적 수용지, 개화기 선교사, 건축, 전통가옥 등 문화유산 풍부)	- 문화예술인, 인권활동가 체류활동 지원센터 - 공방거리(향토예술체험) - 아시아음악타운 - 아시아문화원거리 - 사직공원 문화환경 정비	- 사직공원재생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아시아 음악타운 조성 - 다문화센터 조성 (다문화 음악축제 등) - 아시아예술인 공방촌 조성
아시아 신과학권	광산구 비아동 일대 (과학기술원, 첨단과학단지 등 인근 산학연 연결망 구축 용이)	- 아시아지식연구소 - 아시아의학연구소 - 각종연구, 교육, 의료기관	- 광아트산업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 동서양 의과학(전승의학) 융합연구 및 신기술 개발단지 조성 - 산단아트팩토리
아시아 전승문화권	남구 대촌, 칠석동, 효천역세권 (고싸움 전승관, 남도문화, 테마공원 등 민속놀이 보존, 보전)	- 아시아전승놀이 · 설화테마파크 - 아시아전승문화공연장 - 아시아전승문화아카데미	- 고싸움브랜드 개발 - 아시아전승문화 콘텐츠 개발 - 아시아전승놀이 테마파크 조성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북구 및 동구 무등산, 광주호 광산구 영산강, 황룡강 일대 (대표적 주산, 상징적 산악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태문화공원 - 아시아자연문화연구센터 - 친환경 생태 · 예술시범단지 - 영산강습지생태원 - 의재로 문화의 거리 조성	- 생태문화공원 조성(영산강, 황룡강 합수부) - 광주둘레문화 생태보존 환경 조성 - 무등산권역 브랜드 조성 - 아시아 아트컬쳐파크 조성
교육문화권	서구 마륵동 탄약고 부지 (군사보호시설 50만평인접, 미래교육에 필수적인 생태환경)	- 에듀파크 - 에듀컬쳐시범학교 - 각종 교육, 연구, 문화시설 등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 - 청소년 지식박물관 건립
시각미디어 문화권	북구 중외공원 일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중외공원, 국립광주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 밀집)	- JIMP - 아시아색채문화센터 -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 중외인터렉티브 미디어센터 조성

7대문화권 사업으로는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이 중외공원일대를 문화예술 벨트로 조성하는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무등산 의재로 주변 성촌마을 예술인촌 공방 조성, 수변 공간조성 등에 해당하는 아시아 아트컬쳐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칠석고싸움 테마파크 조성(그린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사직 공원내에 도심조망을 위한 사직공원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전당의 민주 평화교류원과 연계하여 시민, 예술가들의 거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을 주변으로 예술공방 및 레지던시 등을 운영하여 전당주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산"스토리 발굴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자연생태와 문화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예술 진흥

광주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친 이들이 많아 '예향'으로 일컬어지고 이는 '광주국제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등의 개최에 원동력이 되었고 점차 도시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전국화 · 세계화로 예향 광주의 정체성 홍보와 도시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 진흥사업은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설 설치 · 운영, 전통 및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전문예술법인 육성, 문화예술시장 조성 기반구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광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문화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지원, 전통문화 발굴 · 보존, 미술시장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예술진흥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에는 광주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한 · 중 전통문화 교류, 임방울국악제, 광주국제아트페어 개최를 지원하였다.

표 3-8-5 예술진흥사업 주요성과

행사	기간	장소	내용	
2013 한 · 중 전통문화교류	2013.6.26~27	중국 창즈시	한 · 중 전통문화교류의 밤	총 100여명의 공연예술인 참가 3,700여명이 관람
	2013.9.13~14	광주	한 · 중 문화교류의 밤	
제21회 임방울국악제	2013.9.6~9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5곳에서 개최	국악 경연 대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함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행사로 승화하여 국내 대표 국악제로 자리매김함.	

행사	기간	장소	내용
광주국제아트페어 (2013 아트광주)	2013.9.5~8	김대중 컨벤션센터	15개국 102개 화랑의 참가. 해외 유수갤러리 유치로 국제아트페어로서 자리잡게 됨 (광주의 국제적 인지도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3) 문화산업 육성

광주는 음악, 공예 ·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5대 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 등 4개 지역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CG활용프로젝트 제작,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 상품 개발,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제문화 창의 산업전,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 인력양성과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 CGI 센터,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등이 추진되어 개관되었으며,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나머지 사업들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취업지원'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문화콘텐츠분야의 창의적 인력양성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직무역량 교육, CGI아카데미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창의인력 양성, 스토리텔링 창작인력 양성,공예 ·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직무역량 교육

지역기업 및 유치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양성 중장기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애니메이션 · VFX · 게임 · 방송 · 디자인 · 기획 등 총 33개 과정을 개설, 총 498명을 교육하였다. 434명의 수료생 중 326명(75%)이 (주)마로스튜디오, (주)위치스, (주)디지털아이디어, ㈜모팩 스튜디오 등 50여개 지역기업 및 유치기업에 취업함으로서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 지역 최초 콘텐츠 기획 전문과정인 콘텐츠 기획 전문과정을 개설, 2012년 3월에 16명을 배출하였는데, 이과정의 수료생 중 3개 팀(4명)은 기획창작스튜디오(쿠다다와 수박잠수함, 택시드라이버, 요쿠르트 아줌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팀(3명)은 1인 창조기업 센터 및 시니어플라자에 입주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지역 재직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정보 공유,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재직자를 공개 모집하여 과정을 개설하였다. 2009년에는 3D 컨셉아트, 모션그래픽 등 15과정 160명, 2010년에는 영상카메라 레드원의 이해, 애니메이터를 위한 액팅 등 16과정 166명, 2011년에는 3D 입체영상합성, 입체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컬핑 과정 등 17과정 262명, 2012년에는 17개과정 206명, 2013년에는 4K영상제작 실무 등 14개과정 209명에게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및 정보 공유, 인적네트워크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CGI아카데미 전문 인력양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부터 CGI아카데미 전문 인력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CGI 아카데미 설립과 중장기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1~2기에 3D애니메이션 · 영화VFX후반제작 · 3D입체영상제작 · 디지털 색보정 등 4개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에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그래픽과정,과 다양한 그래픽 표현으로 효과적인 영상 연출이 가능하여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션그래픽 과정을 개설하여 미취업자 등에게 우수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기반 산업체에 청년 고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스위스(Swiss) 리그의 개발자인 로버트 히딩거(Robert Hedinger)와 국제 컬러리스트 아카데미(International Colorist Academy, ICA) 총 책임자인 케빈 셔(Kevin Shaw)를 초청하여 실무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아시아 전문 DI 교육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13년에는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83명을 교육하였고 세계적인 타이틀 시퀀스의 거장 카일 쿠퍼 초청 강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③ 차세대 창의인력양성 지원

지역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파견,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예비 인력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대학(고교) 문화콘텐츠 실무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 3D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강사POOL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전문계고 및 대학(교)을 대상으로 학교당 1~2학기 동안의 교육계획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과정을 통하여 강사를 지원한다. 2010년에는 조선대학교 등 5개교 239명, 2011년에는 호남대학교 등 6개교 245명을 지원, 2012년에는 8개교 10과정374명을 지원, 2013년에는 8개교 13개 과정 331명을 지원하여 실무중심의 제작 교육을 통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스토리텔링 전문 인력 양성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스토리를 기획 · 창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공통과정 110명, 심화과정 47명(만화/애니메이션 34명, 게임 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08년에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만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6개월(96시간), 3개 과정, 43명을 배출하였다. 2009년에는 완성도 높고 실제 콘텐츠로 제작 가능한 스토리 창작 인력양성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1개 기본과정과 지역문화자원 스토리텔링(64시간), 디지털 스토리텔링(76시간) 등 2개 고급과정을 운영하였다. 프로젝트 팀 구성, 온 · 오프라인 멘토링 등을 통한 시나리오 개발에 중점을 두어 총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 공간인 온라인 카페 운영 등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0년도는 공모전 응모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그간 꾸준히 과정에 참여했던 기 수료생을 포함하여 과정을 운영한 결과 전국규모 공모전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해이다. 수료생 백선희는 작품 〈꼭도〉로 "2011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수료생 문진영 외 14명이 8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 2011년도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영화 스토리텔링 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설하여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18개의 중단편 시나리오 개발 및 작품집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3작품은 전국 규모 공모전에 당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2년도에는 공모전을 통해 15작품을 선발하여 스토리기획개발과정의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2013년도에는 15작품을 선정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모의피칭 워크숍, 피칭&비즈니스컨설팅을 지원하였고, 매나간다 등 일부 작품은 사업화가 진행중이다.

⑤ 공예 · 디자인 전문인력양성

2010년부터 공예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지식 자원인 공예산업과 디자인과의 융합교육을 통하여 전문 인력양성과 교육 성과물의 상품화를 촉진, 연관 산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공예 · 디자인관련 전공자 및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25명을 선정하여 옥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염색공예, 디자인융합 등 공통과정 교육 20시간, 실무교육 72시간, 현장 실전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각 분야 명장급 현장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편성하여, 예비인력에 대한 전통지식 기술의 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옥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등 총 27종 87점의 공예상품을 제작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산 · 학 연계기업을 통해 섬유공예 과정 작품 7종 30점의 상품을 판매, 각종 전시회, 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3년에는 25명을 교육 17명이 창 · 취업하였고 산 · 학 연계기업을 통한 섬유공예과정 작품 7종 30점 3,000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공예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중 5대 콘텐츠 분야의 공예디자인의 전문 인력양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공예디자인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체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 등 공예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진 3-8-1 2013년 공예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사업 교육 성과물

나.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사업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사업은 시설장비 구축, 프로젝트 제작지원, 프로젝트 마케팅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69억 원(국비 123억 원 · 지방비 46억 원)이 집행되었다.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 〈알록달록 크레용〉, 〈제트 레인져 OVA〉, 〈우당탕탕아이쿠〉제작지원 3건
2차년도 : 〈삼국지–용의 부활〉 제작 지원 1건
3차년도 : 〈극장판–뛰뛰빵빵구조대〉 제작 지원 1건
4차년도 : 〈산타 납치작전〉 제작 지원 1건
5차년도 : 〈쥬로링 동물 탐정단〉, 〈볼츠앤블립 온라인〉 제작 지원 2건,
6차년도 : 〈피쉬 앤 칩스〉, 〈코니블루〉 제작 지원 2건,
7차년도 : 〈우당탕탕아이쿠 시즌2〉, 〈NATRA〉 제작 지원 2건 성과 및 신규 일자리 156명 창출
8차년도 : 〈히어로즈3D〉, 〈쏘울나이트〉 제작지원 2건
9차년도 : 〈디보와 친구들〉, 〈싸일런스오브레전드〉 제작지원 2건이 진행중에 있음.

이와 같이 제작 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마케팅 및 배급 지원도 실시, 〈알록달록 크레용〉은 KBS에 1억 3천만 원, 케이블방송 KCTV에 1억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제트레인저 OVA〉는 KBS와 케이블방송 투니버스에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에 판매하였다. 〈우당탕탕아이쿠 시즌1〉은 EBS신청률 1위를 차지하며 각종 OSMU 부가상품들이 제작되어 2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삼국지–용의 부활〉의 아시아 6개국 개봉 및 배급, 〈산타납치작전〉은 SBS를 통해 방영, 〈쥬로링 동물탐정〉은 KBS2 방영을 통해 5억 원의 수익을, 〈볼츠앤블립〉은 (주)드래곤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되었으며, 〈피쉬 앤 칩스〉는 KBS1에서 방영 되었고, 〈코니블루〉는 자체 퍼블리싱 하였으며, 〈우당탕탕아이쿠 시즌2〉는 EBS, 투니버스, IPTV 등에서 방영되었다. 〈NATRA〉는 본사업 게임 기반 기술 활용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히어로즈3D〉는 2014년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국내 배급사(CJ), 국외 배급사(유니버셜)과 배급계약 협의중이다. 〈쏘울나이트〉는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지역 및 유럽, 북남미 등 8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디보와 친구들〉, 〈싸일런스오브레전드〉는 성실히 프로젝트 제작에 임하고 있다.

다.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상품 발굴지원' 사업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상품 발굴지원' 사업은 광주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문화산업의 원천으로 발굴, 문화예술 특성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상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에는 접수된 16개의 작품 中 〈순지〉, 〈그날 이후〉, 〈빛고을 투어〉 등 3개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독립영화, 3D 애니메이션, 보드형 미니게임으로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12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호남이 준 선물〉, 〈스토리 남도〉, 〈남도의 멋, 세계의 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

2008년에는 11개 작품 중 〈작곡가 정추〉, 〈남도에서 자랑마라〉, 〈민족시인 용아 박용철〉을 선정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여 방송매체 방영을 통하여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였다.

2009년에는 다큐멘터리 등 영상제작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서 탈피하여 브랜드 전략개발 분야와 브랜드상품개발 분야를 나누어 지원하였고, 총 10개 접수 작품 중 브랜드전략개발 부문에서 〈오메아짐〉, 〈아트주〉를 대표문화상품 개발 부문에서 〈샤인시티〉를 선정하여 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샤인시티〉는 광주의 빛을 상징하는 빛의 브랜드로서 광주홍보를 위한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광주광역시 블로그에 연재되었다.

2010년에는 전년도의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표문화상품개발로, 전략개발에서 상품개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오메아짐〉의 경우 5미홍보를 위한 책자와 어플을 개발하였고 프렌차이징을 통해 광주의 맛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아트주〉프로젝트는 사직공원이라는 장소를 활용한 예술동물원 전시체험 공간조성을 위하여 '아시아 아트주 공모전', '사직공원 아트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작가들뿐만 아니라 1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예술체험공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2011년도에는 10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어 〈뮤지컬 화려한 휴가〉, 〈넌버벌 퍼포먼스 MASK〉, 〈무등산 주상절리대〉등 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5.18 소재의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총 30회 공연을 통해 4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며, 〈넌버벌 퍼포먼스 MASK〉 프로젝트는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무언극으로 새로운 장르의 공연상품을 발굴하였고 무언극임에도 불구하고 궁동예술극장 타 공연물대비 높은 관객점유율(85%, 평균 20%)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콘텐츠에 무등산의 사계를 적절히 안배하였으며, 광주의 문화적 유산과 정신,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스토리가 개연성 있게 전개되어 심사 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상파TV를 통해 2012년 5월에 방영이 되었다.

2012년에는 11개 작품이 접수되어 그 중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남도의 맛과 멋〉, 〈유서석록〉, 〈외국인과 어린이를 위한 광주 김치 명인의 한류브랜드 사업〉 등 3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다. 특히 광주 · 전남의 대표브랜드인 김치와 흑산도 홍어, 거문도 갈치 등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남도의 음식문화와 삶의 방식을 다룬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남도의 맛과 멋〉 프로젝트는 2013년 7월 3주간 KBC광주방송에서 3부작 특집다큐로 편성되어 방영되었다.

라.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은 애니메이션분야의 실력 있는 창작자들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제1회 WAF2004 공모전에서 총 180작품이 접수되어 웹 애니메이션 10편이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어 이 중 2편이 제작지원을 받았다. 2005년 제2회 공모전에는 총 70작품이 접수되어 8편의 우수창작콘텐츠가 발굴됐고 이 중 3편이 상품화지원을 받았다. 제3회 공모전에서는 총 61작품이 접수되어 총 11편의 우수콘텐츠가 발굴되었다. 제4회 'WAF 2008 공모전'에는 총 337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 · 일반부에서 웹 애니메이션 6작품과 웹 카툰 4작품 등 총 10개 작품, 청소년부에서 웹 애니메이션 6작품, 웹 카툰 8작품 등 총 1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WAF 2009 공모전'에서는 대학 · 일반부에서는 카툰 94작품, 애니메이션 126작품, 초 · 중 · 고등부에서는 카툰 63작품, 애니메이션 41작품 등 총 324작품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1차 심사를 통해 대학 · 일반부 36작품, 초 · 중 · 고등부 33작품 등 69작품이 본선 진출을 확정되었고, 2차 네티즌 인기투표와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총 25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대학 · 일반부 애니메이션 부문 7명, 대학 · 일반 카툰 부문 4명, 초 · 중 · 고등부 애니메이션 6작품, 초 · 중 · 고등부 카툰 8작품이다.

'WAF2010 공모전'에서는 총 281작품이 접수되어 대학 일반부 웹툰 7편, 애니메이션 8편, 중고등부 9편, 초등부 5편의 우수 창작콘텐츠를 발굴했다.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은 2011년에는 "Window of Asian Animated Film"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국내를 넘어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여 웹 애니메이션 분야의 능력있고 참신한 창작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였다.

'WAAF2011 공모전'에서는 한국에서 109작품, 중국에서 63작품, 일본에서 41작품 등 총 213작품의 애니메이션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총 7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국가별로 중국이 3작품, 일본이 2작품, 한국이 2작품 선정되었다.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공모전 개최뿐 아니라 선정 작에 대한 상품화 및 투자기업과 연계성과를 거뒀다. 특히 2008년 대상 선정 작인 김이걸 감독의 '아기고릴라 둥둥'은 프랑스 AWOL 애니

메이션사와 배급계약을 맺어 유럽진출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케이블(투니버스) 및 EBS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지역 캐릭터 산업 활성화 및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WAF 2008 시상식 및 지역 대학 공동 Job Fair'에는 9개 대학, 20개 기업,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 상담이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에는 수상작의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캐릭터 페어'와 'ACE Fair'에 참가하여 캐릭터 탈인형, 캐릭터 상품 및 피규어를 전시하는 등 선정작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WAF2012 공모전' 에서는 국내 전국 규모로 진행되어 총 102작품이 접수되었다. 그 중 일반부문 4작품, 학생부문 7작품 총 11작품이 선정되었다. 9월에는 광주CGI센터에서 '2012 웹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수상자 및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 및 상영회가 진행되었다.

'WAF2013 공모전'에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174작품이 접수되어 일반부문 6작품, 학생부문 6작품 총 12작품이 선정되었다. 9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WAF2013 제9회 웹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선정작에 대한 시상 및 상영회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 비즈니스 연계지원으로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작품을 선정, 스마트앱 및 뮤직비디오, 캐릭터인형 등을 제작 · 지원하였다.

마.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CT와 IT의 융 · 복합 기술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하여 광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CT · IT의 통합 그리고 융합'이라는 주제로 2006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제2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창조와 산업–CreBiz(Creative+Business)'이라는 주제로 2007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제3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콘텐츠는 진화한다(Contents Evolve)'라는 주제로 2008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제4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문화콘텐츠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었다. 제 5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되었고 제 6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최되었다. 제 7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고 제 8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2013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행사는 방송 ·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전시, Licensing plaza(수출 상담회), 학술행사, 특별 ·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7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 320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총 700만 달러의 구매상담과 60만 달러의 계약을 올렸다.

2007년도에는 국내 · 외 1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83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상담액은 4,478만 5천 달러, 계약 추진액은 831만 5천 달러였다. 〈올인〉, 〈커피 프린스 1호점〉, 〈주몽〉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중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수출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 외 29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99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상담액은 9,100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4,230만 달러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프랑스와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대만 등의 유력 방송사 또는 미디어그룹과 애니메이션, 합작투자, 드라마, 연예프로그램, 다큐멘터리의 공동제작 및 교환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에는 문화콘텐츠 전시회 중에서 국내최초로 국제전시인증(UFI)을 획득하여 전시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유사 전시회 경쟁우위를 확보하였다. 전시 기간 중에는 24개국 292개사가 참여 450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국내 · 외 바이어 202명이 참여한 Licensing Plaza는 1억불 상당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는 35개국 325개사가 참가하여 530부스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바이어 250명이 참가하였으며 2억 1천 2백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40개국 330개사가 530부스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바이어 392명이 참가하여 2억 3천 621만 달러의 수출상담액을 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42개국 341개사가 참여하여 574부스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바이어 419명이 참여하여 상담건수 1,057건, 상담액 2억 5,31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40개국 404개사가 참여하여 649부스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바이어 402명이 참여하여 상담건수 1,623건, 상담액 2억 6,4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바. '문화콘텐츠 기획 ·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

'문화콘텐츠 기획 ·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은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창작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문화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파일럿 프로젝트(개별프로젝트, 공동프로젝트) 제작지원, 예비창업자 지원, 문화콘텐츠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멘토링 등이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프로젝트 총 49개 작품에 50억 5천2백만 원을, 기 제작지원한 프로젝트 중 상업화 가능한 콘텐츠를 공동제작하는 공동프로젝트 총 15개 작품에 1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최종 제작물은 다음과 같다.

표 3-8-6 '문화콘텐츠 기획 ·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의 최종 제작물

제작 지원 년도	최종 제작물
2006	〈단의 이야기〉(애니메이션, 이하 애니) 〈양방향 여행콘텐츠〉(융합형) 〈트리니티〉(애니) 〈헌터즈 거문고〉(애니) 〈헬레네시아 스토리〉(온라인게임)
2007	〈드보르작프로젝트/개미귀신〉(만화) 〈코코롱〉(애니) 〈프랑켄윙클스타인〉 〈뭉키의 호기심 여행〉 〈바나나쉐이크〉 〈레슬봇〉
2008	〈콩콩콩아리〉 〈과학탐정 두기와 친구들〉 〈플라이준〉 〈카카쿠쿠차차 와 판타지바이블〉(만화) 〈요리조리 페스티벌〉(게임)
2009	애니메이션 〈천의얼굴어원〉 〈몬스터볼〉 〈아기고릴라 둥둥〉 〈코시모시〉 만화 〈아일랜드〉 뮤지컬 공연 〈화려한 휴가〉
2010	〈그레이트토이 디비두〉 〈도토리탐정아키〉 〈하늘에서 내려온 친구 뿔라〉 〈페이퍼짱〉(애니) 〈디펜더스〉 〈파인딩메모리〉(게임) 〈실버애로우〉 〈암브로시아〉(만화)
2011	〈양모리〉 〈블링블링토닉스〉 〈두다다다쿠웅〉(애니) 〈핸드서모너 두근두근레아마차〉 〈로스트인아일랜드〉(게임) 〈들꽃요정 바리〉 〈베리타스노바〉(만화)

제작 지원 년도	최종 제작물
2012	〈디스엔젤〉 〈언틀맨〉 〈쿠다다와수박잠수함〉 〈비트의과학탐험대〉(애니) 〈택시드라이버〉 〈다시사는 삶〉(만화)
2013	〈둥기둥기빠빠야〉 〈파이어보츠〉 〈서유기패컬티〉 〈로케츠〉(애니) 〈요쿠르트 아줌마〉(만화) 〈서먼몬스터〉(게임)

사.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된 지역 콘텐츠의 국내외 라이선싱활성화와 지역 문화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크게 지역 문화콘텐츠 공동마케팅과 지역 CT기업 개별마케팅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공동마케팅은 인지도가 낮은 지역 콘텐츠의 프로모션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에 공동관으로 참가하여 기관 차원의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업체가 비즈니스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며, 영세한 지역 업체가 보다 활발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 · 번역 서비스, 법률 및 마케팅 자문, 바이어 정보제공 등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다.

개별마케팅지원은 지역 콘텐츠 업체가 보다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콘텐츠 현지화 지원, 저작권 출원 · 등록 지원, 광고 · 홍보 지원, 매뉴얼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구성하고, 개별 기업의 니즈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안시 MIFA, 미국 국제라이선싱엑스포, 서울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ACE Fair 등 국내외 마켓에 참가하여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문화산업 클러스터인 이마지노브(IMAGINOVE), 중국 심양 동만기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산하 업체 간 비즈니스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까지 카툰커넥션,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국내외 유망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를 통한 공동마케팅 지원 총 28건, 지역 CT기업 개별마케팅 지원으로는 총 118건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지원의 결과로 총 1억9천3백만 달러 상당의 공동제작

및 투자 MOU, 2천6백만 달러 상당의 국내외 라이선싱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3년에는 지역 CT기업이 2013케이블TV 방송대상 작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캐나다국제 필름페스티벌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총 5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영상복합문화관'과 '광주 CGI센터'가 건립되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 ·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상품의 전시 ·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인 '영상복합문화관'은 2007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2010년 2월 개관하였다. '광주CGI센터'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기술인 CGI를 활용한 제작, 마케팅, 판매 및 비즈니스까지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립이 추진되었다. 광주시는 2007년 국비 10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8년 1월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였다. 이어 2008년 6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10월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4월 기한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광주 CGI센터'는 2011년 말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 3월 개관하여 광주지역 문화콘텐츠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 중에 있다. 광주CGI센터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및 지역 대표기업이 입주하여 2012년 한국의 대표적 VFX영화 '타워', 1300만 관객 흥행작 '도둑들'의 후반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피끓는 청춘',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우는 남자' 등의 영화 촬영을 완료하는 등 활발한 제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하고 광범위한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 가운데 약 32.1%를 차지하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MIPCOM, SIGGRAPH 등 투자박람회에 참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통한 투자 유치 활동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유망 문화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하고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2012년9월 190.4억 원 규모로 결성하여 운용 중에 있다. 투자조합은 광주지역 등에서 제작되는 공연 · 예술 · 게임 · 음악 · 애니메이션 · 영화 · 관광 등 문화콘텐츠 및 관광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7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합 결성을 계획 중에 있다.

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교류지역 편중에서 탈피하여 동북 아시아권, 동남 아시아권, 중앙 아시아권, 남 아시아권, 서 아시아권 등 아시아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교류 대상지역의

다변화 · 입체화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에서는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문화교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기구, 정부 및 비정부 기구, 각국의 문화도시, 국제예술단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등을 포함하는 전 방위협력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 및 입체화를 위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및 단체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 역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관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제1회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여 '광주선언문'을 도출, 아시아 문화전당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자원 공유, 문화예술부문 전문역량 강화, 공동 창 ·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협력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3년 9월, 제1회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여 '회의의 사록'을 채택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10개국 간의 문화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 3-8-2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각국과 호혜적 관점에서의 쌍방향교류 사업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주체적, 적극적 동참을 만들고자 아시아 예술가들과의 공동 창 ·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전통음악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남아시아 지역 10개국(ASEAN)과 '08년부터 각국의 전통음악 전문가 및 정부관계관으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음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며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12년에는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의 창단 공연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과는 '09년부터 정부위원과 문화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공모전'을 통해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시나리오를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하여 전당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 · 서남아시아 지역 13개국과는 '아시아 무용 위원회'의 공동 운영으로 아시아 무용 자원 기반의 협력사업인 '(가칭)아시아 무용단'의 창단을 위한 '아시아 무용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 15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창작기관(단체)과 사업중심의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협력망(Asian Arts Space Network)"을 구축하여 공동전시 및 공동 연구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독특한 창작동향을 공유하고, 연례 국제행사를 통해 21세기의 핫이슈를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제안하는 플랫폼을 조성하였다.

국제기구 및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의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 지역 내에 문화예술행사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시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포럼은 세계적 저명인사들을 초청, 학술회의를 통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를 건설하고, 다양한 아시아 문화담론의 장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3아시아문화포럼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화, 기술, 창의성: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였다.

제4장
예술정책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제1절 예술정책 일반
제2절 문학정책
제3절 공연예술정책
제4절 전통예술정책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04

예술정책

제1절 예술정책 일반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문화예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창의성과 다양성의 핵심가치이다. 이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사회경제발전의 중심에 창의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술 그 자체'로서 또는 '개인적 만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 성장기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분야를 정책대상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가치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경쟁을 통해 '예술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외계층 등과도 다함께 누리는 예술로서 환경조성 마련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정책의 방향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법 · 행정적 지원, 인프라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예술정책은 '풍요로운 예술, 함께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갖고 다음과 같은 4대 핵심과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핵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즐겁게 창조하는 예술이다. 상생하는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예술기관의 창작역량을 제고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인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예술인복지법

을 개정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함께 누리는 예술이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 문화예술 자립 기반을 조성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13.11월) 등 공공 문화예술공간을 활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예술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및 시각예술 분야 유통을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예술로 꿈꾸는 미래다. 학교폭력, 소외현상 등 아동 ·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아동 · 청소년의 소통과 공감 능력 ·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지역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넷째, 예술로 더 나은 사회이다. 생활 속 예술 확산을 위해 당인리 발전소를 창작발전소를 조상하는 등 일상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4-1-1 예술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마련

(1)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본격 추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 시행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1월 19일 출범하였다. 2013년도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마련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실상의 첫 번째 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목적은 예술인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창작을 활성화하고, 예술분야 중 특히 상황이 열악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서적 안정 ·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은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사업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② 중견예술인 직업역량강화 교육, ③ 예술매개 갈등 조정자 양성, ④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161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공간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107개 단체, 3,059명을 지원하였으며, 예술창작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총 284명의 예술인을 지원하여 예술인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①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②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③ 활동보조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831명의 예술인을 지원하였다.

(2) 예술인 복지기반 구축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 ·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로, 이상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하였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국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계약 ·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연예술 분야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 계약서 3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하고 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를 제작 · 배포하였다.

더불어 예술인이 프리랜스나 단속적인 방식의 직업 활동에 종사하면서도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노무사 등을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계약, 저작권, 산재보험,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상담컨설팅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1)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개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문화접대비 제도의 본격 시행(2007.9.1)과 더불어 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문화경영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문화로 변화하여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활용한 창의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수요의 확산과 함께 예술단체의 자생력 증진과 연계되어 간접적 창작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경우 전경련 등 9개 경제단체 방문 설명(2007.8월), 중소기업 CEO 대학로 초청 기업과 예술의 만남(2007.9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2007.10월), 고3 및 수능생 대상 수

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2007.11월) 등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전국 시도 홍보 컨설턴트 100인 위촉(2008.1.15)을 시작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인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중소기업CEO 800명 초청 신년음악회(2008.1.4), '문화로 인사합시다' 출범 기념 음악회(2008.5.15)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08년 5월 15일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09년에는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9년 신년음악회(2009.1월)는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중소기업 신년음악회'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제1기 SB문화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여 55명의 중소기업 CEO에게 14주간(2009.9–12월)동안 문화경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디자인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디자인문화경영자과정을 상 · 하반기 운영하였다.(2009.6월 · 11월, 110명). 또한 문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기획보도('중소기업경영, 문화를 만나다', 2009.11월, 3회),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09.5–12월, 21개 중소기업, 4,450명 관람),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 발간(2009.12월), 기업의 기부금 후원을 통한 '문화나눔 세상공감' 사업(2009.12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문화접대비 제도개선 및 문화경영 활성화 포럼 개최(2009.5), 문화경영위원회 운영(2009.11), 중소기업 문화대상 시상(2009.12)등을 통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 및 중소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활성화하였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CEO 대상 SB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2010년 54명, 2011년 33명, 2012년 56명, 2013년 44명),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10년 20개 기업 5150명 관람, 2011년 18개 기업 3,620명 관람, 2012년 14개 기업 1,760명 관람, 2013년 20개 기업 1,891명),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2012년 15개 기업, 2013년 10개 기업),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2010.11.24) 및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연 1권), 중소기업문화대상 시상(연 1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을 '즐거운 예술'과 함께 '신나는 일터'로 만들자는 사업의 시작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현장체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경영 인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지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호 결연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예술에 대한 창작지원과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직접적 · 지속적인 교류활동 지원 및 사업추진조직 간 결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은 분위기 조성 시기로 준비기, 시스템 구축기, 실행기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준비기에는 경제단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참가의사 확인 및 참여유도,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실무 추진조직 구성 및 사전 의견을 조율하였다. 시스템 구축기에는 결연 중재, 상담, 모니터링 관련 세부실행 툴(tool) 개발, 결연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 기업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구축, 구체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누리집(홈페이지) 개발 · 구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보하였다. 실행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발대식 개최,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및 교류사업 본격 실행 등 추진단 출범 및 사업을 실행하였다.

2006년은 확산 단계로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지원 Finding Program을 개발 및 운영하였고, 기업 · 예술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연 건수의 확대와 대기업의 부서별 및 사업장 단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기 위한 발표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 · 확산하였다.

2007년은 정착시기로 기업 · 예술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 발전시켰다. 특히 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국 A&B의 뉴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매칭펀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매칭펀드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에 6억을 투입하였으며, 27건의 결연을 성사시켜 12억(정부지원 6억 원, 중소기업 6억 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였다. 대기업 결연 14건을 포함하면 총 41건 23억 원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지원금액이 각각 27%, 192% 증가한 것이다.

2008년 이후는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진 시기로 결연 카운슬링,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 ·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예술 간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A&B 포럼' 활성화 및 '기업인 문화예술체험 ·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1년에는 '예술을 키우는 사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매칭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기업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힘입어 2008년 대기업 22건 중소기업 41건 등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63건의 결연이 성사되었고, 2009년은 대기업 결연 20건 중소기업 결연 45건 등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총 65건이, 2010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결연 50건이 성사되었다. 중견기업의 참여가 시작된 2011년부터는 증가세가 커져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중견기업 결연 60건, 2012년은 대기업 결연 25건, 중소/중견기업 결연 79건, 2013년은 대기업 결연 30건, 중소기업 결연 9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3) 예술나무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확산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1인 1예술나무키우기', 기업의 메세나활동 활성화를 위한 '1기업 1예술나무키우기', 문화예술분야의 나눔활동 정보 제공 등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술나무 포털(www.artistree.or.kr)을 새롭게 구축('13.12월)하였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예술나무 모바일웹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술나무 포털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부자와 수혜자간의 유기적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확산해 가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지원방식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4] 사업은 전문가를 통해 모금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던 기존의 제한적 심의방식을 탈피하여,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모금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모금대상을 전면 개방하여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문화예술분야 나눔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소액모금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개인의 예술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오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문화를 개인의 소액후원 참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후원참여 접근방식을 통해 예술가 및 소규모 예술단체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플랫폼의 기능을 확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1)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공연예술체의 자체 우수 레파토리 확보 및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2008년 부터 창작산실(舊 창작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연극 · 뮤지컬 · 오페라 · 발레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를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대본, 시범공연, 작품 제작, 재공연 등 단계별로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크라우드 펀딩이란 익명의 다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금 기법으로 예술단체(예술인)이 프로젝트 계획 및 모금목표액을 온라인사이트에 게재하고 일정기간동안 모금 진행을 뜻함.

표 4-1-1 창작산실 추진내역

(단위: 백만 원)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16	377	14	483	14	389	13	320	14	405	22	885
뮤지컬	13	323	13	450	14	529	12	345	10	395	16	730
오페라	-	-	-	-	6	520	7	410	7	430	5	465
발레	-	-	-	-	-	-	11	440	12	430	10	480
합계	29	700	27	933	34	1,438	43	1,515	43	1,660	53	2,560

공연예술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신진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21개 단체에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작뮤지컬의 경쟁력 및 산업화를 위해 2012년부터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창작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국내 재공연분야에 20억 원, 해외진출 지원에 10억 원 총 30억 원을 총 11개 단체(11개 작품)에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예술경영지원 센터를 통해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 및 한국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프랑스, 브라질, 독일, 호주 등 해외 공연예술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리서치 및 우수 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한국-해외 공연예술 간 지속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소외지역의 공연예술 수준 제고를 위해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레파토리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운영 인력 전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1-2 문화소외지역 지원사업 및 성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반회계)	지역	60	50	79	74	78
	문예회관	61	51	8	75	78
	수혜자(명)	53,000	55,000	67,068	65,920	61,103
	참여국립단체	13	12	14	8	15
	예산액(백만 원)	2,000	2,500	3,375	3,035	2,883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문예기금)	지역	103	97	104	124	124
	지원문예회관	120	126	139	163	150
	수혜자(명)	219,815	347,247	386,025	392,202	434,104
	예산액(백만 원)	4,000	4,800	4,800	4,800	4,70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예기금)	지역단체(수혜시설)	1,974	1,604	1,964	2,069	2,127
	참여공연단체	182	160	150	199	198
	공연횟수	1,974	1,604	1,964	2,069	2,127
	수혜자(명)	348,658	354,848	464,031	486,119	535,065
	예산액(백만 원)	6,200	5,800	8,000	9,300	9,530
사랑티켓 (문예기금)	프로그램 수(개)	2,523	2,829	3,146	2,353	2,615
	참여단체 수(개)	715	670	613	509	743
	수혜자(명)	565,432	698,064	467,938	452,827	445,496
	예산액(백만 원)	2,000	2,400	2,400	2,000	1,956
합계	지원지역(누적)	2,137	1,751	2,147	2,267	2,329
	수혜자	1,186,905	1,455,159	1,385,062	1,397,068	1,475,768
	예산액(백만 원)	14,200	15,500	18,575	19,135	19,073

또한 지역의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133억 원을 134개 공연장, 174개 단체에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다문화가정, 중소기업근로자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2,127개 지역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계

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사랑티켓사업을 추진하여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아동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공연 · 전시 관람료 일부를 445,496명에게 지원하였다.

(3) 공연예술 시설 확충 및 안전체계 개선

지역 문화 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공연시설 확충을 위해 1997년부터 문예회관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개관 당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2013년 19개관, 총 127억 원)하고 있다.

표 4-1-3 전국 문예회관 운영현황

('13. 12월 현재 / 단위: 개소)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20	16	8	32	11	11	7	3	4	19	13	17	15	18	24	19	2	1

2012년 말 기준 전국 등록 공연장을 총 826개소로 2011년에 비해 7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운영 및 설립주체가 공공기관인 공연장은 477개소이며 민간인 공연장은 349개소이며, 1,0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은 74개소, 1,000석 미만~300석 이상의 일반공연장은 372개소,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 및 기타 공연장은 373개소다.

표 4-1-4 시도별 공연장 등록현황

(단위: 개소, '12. 12월)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	477	87	23	19	30	11	10	6	102	27	16	33	17	22	29	33	12
민간	349	198	32	26	8	9	13	4	20	3	4	3	-	3	4	6	15
계	826	285	55	45	38	20	23	10	122	30	20	36	17	25	33	39	27

공연예술 시설 확충 이외에 기존 공연 예술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공간(예술가의 집)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등을 운영하여 국립예술단체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예술의전당의 노후화된 토월극장 리모델링, 대학로 예술극장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인 공연장 관람객 및 시설 운영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2012.11.29)하여 공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련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 운영을 통해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무상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매뉴얼 발간 등 공연장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5 소공연장 권역별 안전점검 지원실적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권역	경기	경남	경북	전라/제주	충청/강원
지원건수	24	39	29	40	40

* 대학로 제외, ** 대학로

공연장 무대시설 인력 전문화를 위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를 2000년부터 운영하여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분야별 전문인을 양성하여 2013년 말 현재 누적인원 3,183명을 배출하였다.

4)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채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전제이며, 나아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적 팽창 위주로 형성되어 온 우리의 일상 공간을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디자인과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문화적 ·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가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확장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적 도시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안양 시범도시 선정 이후 양평, 안동, 부산, 익산, 청주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2013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의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 2008년 선정된 5개 대상지(대구, 포천, 아산, 신안, 군산)를 대상으로 '13년까지 추진되었다. '포천 아트밸리'는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사례로서 언론 홍보와 중학교 과학교과서 수록, 연계 관광상품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말공연, 기획전시, 창작체험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으로 개장 이후 2013년 까지 총 방문객이 약 82만 명을 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구 KT&G 별관 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대구예술발전소는 '13년 조성이 완료되어 다양한 전시 개최, 실험적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구도심의 재생 및 문화예술의 창작,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만 조성되던 학교 공간을 문화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개소에 대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쉼터, 갤러리, 동아리방 등으로 조성하였다. 지원하였다. 또한 이용이 저조한 도심 지하보도와 주변의 유휴공간을 음악창작 · 향유 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하였고, 간이역 등 소외지역의 소규모 유휴공간 6개소를 문화쉼터, 갤러리, 동아리방 등으로 조성하여 예술 창작 · 향유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구)서울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2011년 8월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한 '문화역서울284'는 〈여가의 새발견〉, 〈대중의 새발견〉 등의 전시기획전 개최, 공연 · 교육프로그램 진행, 대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 공공디자인 대상, 타이포그래피국제비엔날레 등의 개최를 통해 일상 속의 문화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 확산을 위해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개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젊은건축가상 시상,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문화대상' 선정 · 시상 등을 추진하였다.

(2) 한국 공예의 대중화 · 세계화 · 산업화

공예디자인의 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화 · 대중화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공예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생 대상의 아카데미 교육은 공예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장인기술 교육전수 및 통합이론 수업 등 전문적인 맞춤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예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조사 · 통계 확보를 위해 「공예 현황보고서」, 「디자인 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공예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숍 운영 및 작가 지원, 지역공예컨설팅, 전문공예 페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움직이는 이동식 갤러리인 디자인 큐브전, 매 절기를 우리의 공예 작품을 보여주는 윈도우 전시를 포함, 다양한 기획전시 등을 통해 공예디자인 문화를 확산해 왔다. 2013년 12월에는 제8회 '2013 공예 트렌드페어'를 개최,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마켓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공예 관련 협회 ·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3년 공예 트렌드페어에서는 영국공예청이 'The Value of

British Contemporary Craft'라는 주제의 영상을 선보여 영국 현대 공예의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작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창작공방관이 설치되어 실험적 무대를 통해 공예의 새로운 방향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시장형 공예마을인 북촌, 원료산지형 공예마을인 통영지역 등 지역 특색 및 자원에 맞게 종합지원을 하는 지역공예마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 · 홍보, 웹사이트 구축, 공간 컨설팅, 상품개발, 공예지도개발, 체험키트제작 등 지역공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쳤다.

공예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미국 나전칠기 전시 및 시연행사 등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점에 공예디자인 네크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2013년은 영국 공예청과 새로이 협력을 진행하고 영국의 공예페어 콜렉트(Collect)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정해조 작가의 옻칠 작품이 V&A박물관과 대영박물관에 소장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에도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프랑스 장식박물관 등과 같은 해외 주요 전시공간에서 한국공예전 개최를 계획하여 한국 공예디자인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국악 등 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초 · 중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 인성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비 분담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원 학교 수가 2008년 3,689개교에서 2010년 5,436개교로 크게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전국 초 · 중등학교 11,599개교 가운데 63%에 달하는 7,254개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걸쳐 학교에서 희망하는 예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된 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본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토요동아리활동 등 학교에서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수업을 진행한다. 예술 강사 지원사업과 더불어 2008년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집중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 이내로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

교 육성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내어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1년은 제1기('08~'11)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 지원 마지막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결집한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발표회(행사명: 예술꽃 씨앗학교 어울림 뜨락)를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의지가 뛰어난 16개교를 제2기('11~'14), 10개교를 제3기('12~'15), 4개교를 제4기('13~'15) 예술꽃 씨앗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지원 중이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 · 학습 · 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13년에는 복지기관 지원사업, 범 부처 협력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의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복지기관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5개 분야에 373명의 예술강사를 425개 시설에 파견하였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복지기관에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과 기자재를 참가자 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74명의 예술강사를 336개의 시설에 파견하였다.

둘째, 범 부처 협력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와 협의 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각 부처 및 산하기관과 공동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군부대 180개,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5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치료감호소 10개, 산업단지 9개, 청소년수련시설 46개, 청소년쉼터 및 상담센터 31개 등에 총 418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였고, 11,150여명의 군인, 재소자, 학교 밖 청소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참여하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방학 중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가와 함께 2박 3일의 체험을 함께하는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문화예술계 저명인사와 예술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은 사회 통합과 문화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마을 등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예술 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 · 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여가정책,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3)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2013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 · 사회 예술 강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사회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초중등 교원, 행정인력 등 대상별 연수프로그램을 총 3,972명 대상, 121회, 3,061시수 운영하였다. 특히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규기존강사의 연차별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별 · 단계별 심화 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택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가 오래된 예술강사가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1년 12월30일 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1312호)이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 부칙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3,469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조성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은 복지정책 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부문이 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2013년 3월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장애예술인 창작 기반 구축 및 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의 중심 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2013년 동 과제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고 (구)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국회 증액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예산 53억 원이 '14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3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악, 서양기악, 타악, 대중음악, 대중무용, 한국무용, 연극 등 7개 문화예술분야에 125개 팀이 참여했다. '장애인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 미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미술작품 판로개척을 위해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를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0년부터 한국 · 중국 · 일본의 장애미술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중일 미술교류전'을 개최하여 장애미술가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국제교류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2013년에는 6월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8월 중국 하얼빈, 11월 일본 오사카 전시를 통해 총 160점의 작품이 출품되고, 3,000여명의 장애예술가와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참가하여 장애인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3)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및 문화 접근성 확대

장애인 예술단체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유지원,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장애인문화예술 국제교류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93개 문화예술 단체, 개별 창작자,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장애인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분야에 대해 20여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 5회를 맞는 2013년도에는 축제 주관단체가 보건복지부 등록 법인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DPI)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로 변경되어 따라 장애예술 분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역 순회공연과 필리핀 공연을 지원하였고, 2006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상' 사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장애문화예술가들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음악, 미술, 문학, 대중예술 등 4개 분야에 총 33명의 장애인 문화예술가들을 표창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립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영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선도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8개 시 · 도 16개소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9개 시 · 도 12개소의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수직 리프트, 전시관 경사로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3 주요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1) 설립목적 및 연혁

선진국의 예술교육은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Conservatory) 형태의 예술학교와, 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예술을 탐구하는 예술대학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 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이전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은 미국 주립대학에서와 같이 교양적이고 표준적인 예술교육을 수행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유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를 양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세계적 수준의 실기 능력을 갖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예술종합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림 4-1-2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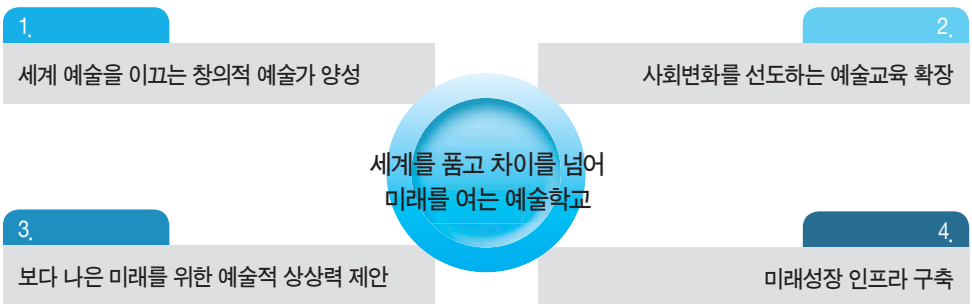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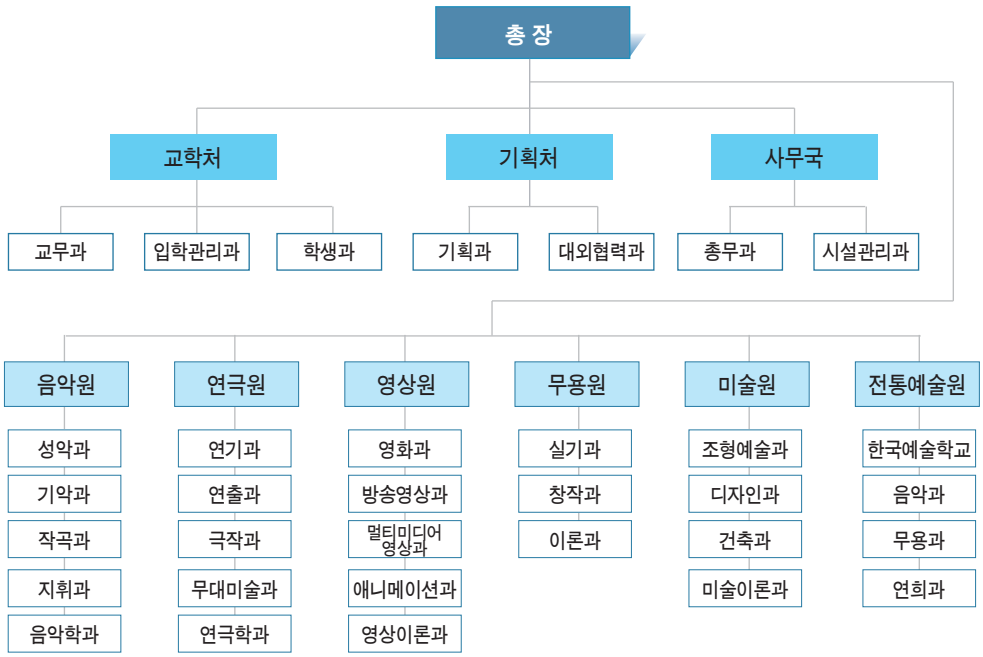


표 4-1-6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 ○ 1990. 6. 25.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 ○ 1991. 12. 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대통령령 13528호)
- ○ 1992. 10. 30. 학교 직제 확정
- ○ 1992. 11. 16. 초대교장 취임(이강숙 교수)
- ○ 1993 ~ 1998. 음악원을 시작으로 총 6개원 개원
  - 1993. 3. 8. 음악원 개원
  - 1994. 3. 3. 연극원 개원
  - 1995. 3. 8. 영상원 개원
  - 1996. 3. 4. 무용원 개원
  - 1997. 3. 3. 미술원 개원
  - 1998. 3. 9. 전통예술원 개원(6개원 체제 완료)
- ○ 2013. 8. 26. 제7대 총장 취임(김봉렬 교수)

(2) 조직 및 예산

그림 4-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 누리집(홈페이지) : www.karts.ac.kr

표 4-1-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3.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계	총장	원장	전임교원	조교	소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259	159	1	6	136	16	100	1	-	2	1	11	62	20	3
현원	239	145	1	6	122	16	94	1	-	3	4	6	57	20	3

* 기성회직: 36/32

표 4-1-8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3.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예술사	정원	2,252	532	340	420	240	380	340	-
	현원	2,883	618	429	603	284	535	378	36
예술전문사	정원	882	281	116	145	100	140	76	24
	현원	1,304	278	191	197	153	220	200	65
계	정원	3,134	813	456	565	340	520	416	24
	현원	4,187	896	620	800	437	755	578	101

* 학생 현원=재적생(재학생+휴학생)

2013년도 세출예산은 42,666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액되었으며, 특히 교육지원 및 운영,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이 확대, 신규사업인 기숙시설 확충 예산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비 25,712백만 원, 인건비 14,070백만 원, 기본경비 2,884백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2,781백만 원이다.

(3)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예술 인력의 양성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타 예술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고유의 입시제도와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조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에는 음악원 · 연극원 · 영상원 · 무용원 · 미술원 · 전통예술원의 6개원을 두고 있다. 각 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장르별 독자성과 전문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탈장르적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장르의 융복합, 디지털화, 글로벌화 등 예술 흐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 설립된 부설 한국예술 영재교육원에서는 현재까지 음악 · 무용 · 전통예술분야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예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과를 바탕으로 맞춤형교육을 추진 중이다.

(4) 전문예술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공간 조성

2006년 10월 석관동에 극장, 전시장, 영화전용관 등 첨단 문화복합시설을 갖춘 제2교사를 완공함으로써 전문예술교육 특성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공간이 빈약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신규 기숙사 확충('신길관', 20실) 및 서초동 교사 증개축에 따른 대체학습장 공사예산의 확보(14년도 40억), 노후시설과 학습장에 대한 개보수, 구성원 및 외부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효율적인 공간환경을 구축하였다.

(5)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 강화

지난 1999년부터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소외지역 · 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공자들이 참여, 문화 취약계층(전국 지역아동센터 초 · 중등 학생) 대상 아트캠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2013년에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민 문화향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 및 한예종 인적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섬&아트 프로젝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봉사', '문화예술교실', '전통예술 나눔'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증장애인,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포용,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6) 주요성과

2013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창의적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추구」, 「학생복지 증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예술 나눔(K-ATRS Sharing) 사업」, 「글로벌 예술활동 확대」, 「예술영재 교육체계 구축 및 육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우수교원 채용 및 교원 인사체계 확립, 2) 교과과정 및 평가지원 체계 개편, 3) 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4) 학생복지 및 대외활동 지원 5) 주요 성과를 집약한 홍보활동 강화 6) 다양한 사회 기여프로그램 운영 7)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8) 효율적인 공간환경 조성 9) 서비스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시행 10) 세계적 예술가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표 4-1-9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년도 세부 추진성과

구분	내용
교무 및 학사 분야	○ 우수교원 채용 및 교원 인사체계 확립 - 전임교원(4명), 비전임교원(16명) 채용, '강의전담교수제' 신설 등 - 전임교원 승진 · 정년보장 · 재임용 심사 평가제도 개선('13.2월, 5월) - 교원 '윤리강령 교원 실천지침' 보완강화('13.6월, 11월) -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13년, 7만원) ○ 교과과정 및 평가 · 지원체계 개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활성화(30개 과목, 설명회 3회) - 실효성 있는 학칙 개정(학사경고자 대상 재입학 기회 부여, 육아휴학 별도 휴학인정 등) - 정확한 강의 피드백을 위한 '강의평가제도' 보완('13.6월) - 졸업사정시스템 개선으로 학점관리 서비스 강화('13.11월) ○ 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담합 방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 구성 · 운영 - 특별전형 및 정원 외 전형자격 심사절차 강화 - 입시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지방수험생 대상 입시설명회) ○ 학생복지 및 대외활동 지원 -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로 학비부담 경감('13년 3,704명) - 학생 개성 및 특성을 배려한 복지활동(심리상담, 보건진료, 장애학생 대상 도우미 지원 등) - '신길관' 기숙사 확충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 구축('13.8월, 20실) - 경력개발 및 취업진로 지원프로그램 제공(특강 · 교육, 취업 · 창업동아리 지원 등) - 예술봉사(7팀) 및 외부기관 연계 봉사활동 실시

구분	내용
대외협력 분야	○ 국내 · 외 교류협력 추진 - 국내 · 외 11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체결(국내 5건, 해외 6건) - 아프리카 청소년 대상 예술교류봉사 사업 실시('13.7~8월, 말라위) - 외교부와 공동으로 '문화꿈나무 사업' 추진, 한예종 봉사단 파견('13.7~10월) - 2014년도 우수 예술인재 선발(AMA, 14명), 문화동반자 초청연수((AMFeK, 4명) - 재외문화원(10개국, 18명), 세종학당(2개국, 2명) 인턴 파견 - 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ALIA) 회원기관 간 교류(이사회,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활동 지원 등 ○ 다양한 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문화행사', '섬&아트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 · 전시 추진(117회) -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봉사' 및 '문화예술교실', '전통예술나눔'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성과를 집약한 홍보활동 강화 - 기획기사 발굴 및 자료배포(77회), 테마가 있는 기자간담회(18회), 홍보매거진 K-ARTS(4회) - 성과홍보 팩트북(1,500부) 발행, 개교 20주년 계기 HD 홍보동영상 제작('13.8월)
교육환경 분야	○ 효율적인 공간환경 조성 - 서초동 교사 증 · 개축 추진 및 대체학습장 마련('14년 공사예산 확보, 40억) - 노후시설 학습장 개보수, 구성원 및 외부근로자 근무환경 개선(23건) ○ 서비스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시행 - 회원제 폐지 등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인증체계 간편화 - 메뉴의 효율적 재배치, 유사 콘텐츠 통합 등 편의성 증대('13.6~11월) -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 따른 총장후보자 선출 관련 학칙 개정(13.7월) 및 하위 규정 제정('13.12월) - 제8대 총장후보 선출부터 직선제 개선(공모제 전환)
세계적 예술가 및 예술영재 발굴	○ 세계적 예술가 배출로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경연대회 다수 입상 등 학생 경쟁력 강화(168명 수상) * 제10회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현대무용 금, 동 / 발레 시니어 클래식 파드되 금2, 동2),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바이올린1위, 첼로1위, 3위), 제3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본선 진출 등 ○ 체계적인 예술영재 육성 기반 구축 - 정규 수업 및 인성 · 창의성 교육과정 운영, 합동공연을 통한 융합교육 실시 등 (전공실기 심화) 마스터클래스 8회, 특강 2회(창의 · 인성교육) 전공 외 실기수업(주1회), '현대무용-미술' 등 타 예술분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 - 2013학년도 대외수상 실적(130회/ 국내 113회, 국외 17회) - 예술영재 교육과정 사례 참고를 위한 국내외 유수 예술교육기관 관계자 방문(터키 예술대학-2월, 중국 언론단체-5월, 인도네시아 언론-5월, 미국 Thomsas Fordham Institute-10월)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설립목적 및 연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변경된 특수법인으로,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 · 운영되고 있다.

1972년 8월 14일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한 이래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의 구 서울대 부지와 본관 건물을 2010년 4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다. 1979년 5월 2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이어 1981년 4월 1일에는 공연예술 종합 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신축 · 개관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27일 무대예술 분야 전문연수 시설인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을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자료관을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구내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 조형예술 및 건축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무대예술 연수회관을 증 · 개축하여 문화예술연수원(현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을 개관하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4관 시설 중 아르코예술극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대학로 예술극장과 통합되면서 새로운 공연예술거점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출범하였다. 또한 아르코예술정보관 역시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독립하였다.

이러한 시설 분리 이외에 서울 서남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 구로구 구로동(신도림)으로 본관을 이전하였고, 기존의 대학로 본관은 상업주의에 밀려 창작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 조직 및 예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이자 최고 의결기구로서 2012년 12월 5일 4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장(1인)과 비상임위원(13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사무처장 및 3본부 10부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 · 조사, 예산,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경영전략본부(정책기획부, 경영인사부), 문예진흥 기금사업의 심의 · 평가 및 분야별 창작 ·

연구 ·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진흥본부(예술지원부, 국제교류부), 홍보, 출판, 전산, 기부금 사업, 복권기금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나눔본부(사업평가부, 문화복지부, 예술나눔부), 감사를 보좌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문예 진흥 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8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시설로는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예술가의 집포함) 등 2개의 문화기반 시설 (館)이 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카스텔로 공원 내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 누리집(홈페이지) : www.arko.or.kr

2013년도 총예산은 4,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63.84% 증가하였다. 자체수입은 245,764백만 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으로 58,121백만 원이 전입되고 2010년도에 예탁한 공자기금 원금 20,000백만 원을 회수하여 전년대비 33.86% 증가하였다.

지출예산은 경상 사업비가 전년대비 0.74%가 감소한 120,465백만 원, 기금운영비는 전년대비 49.60%감소한 12,895백만 원이다.

표 4-1-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9~2013)

(단위: 백만 원)

연 도	예 산
2009	402,460
2010	393,395
2011	269,349
2012	278,390
2013	456,119

(3)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관의 새로운 중장기 비전 수립을 통해 전사적인 전략방향과 각 조직 기능별 추진과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실질적인 기관의 혁신과 제도개선의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제도 개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 방향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표 4-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핵심사업 추진현황(2013)

4개 핵심사업 추진현황(예산 : 120,465백만 원 / 복권기금 포함) 내역(2013)
1.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20,358백만 원)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예술의 창작 · 표현 활동에 대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 ○ 관련사업 - 예술창작지원(13,614백만 원), 예술인력육성(2,044백만 원), 국제예술교류 지원(4,700백만 원)
2. 생활 속 예술 활성화(58,121백만 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외국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 ○ 관련사업 - 소외계층 문화 역량강화(58,121백만 원)
3.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20,560백만 원) ○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전국 규모 행사를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 ○ 관련사업 - 지역문화예술지원(20,56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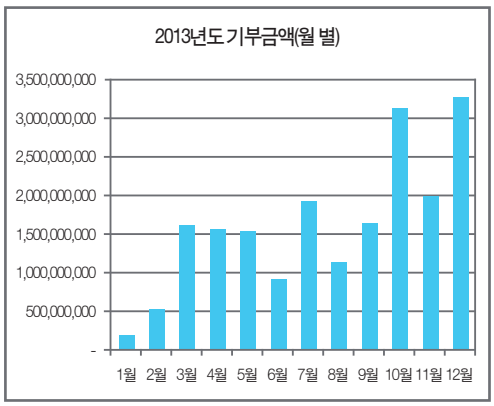
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21,426백만 원)
○ 기부금 사업 등 문화예술 후원활동 전개 및 기초예술정책연구, 문예연감 등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을 통한 예술 활동의 지식 기반 구축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
○ 관련사업
-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20,426백만 원), 공공 미술 사업 운영(1,00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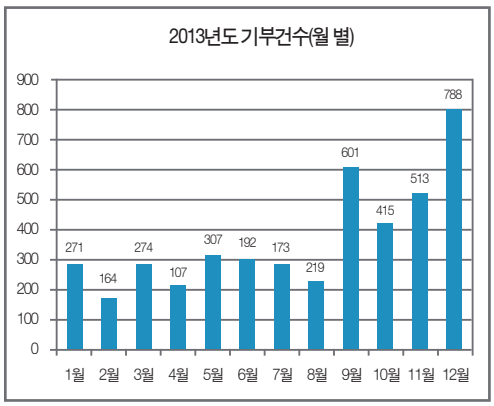
(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2004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500억 원 내외의 모금수입이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연간 1,000억 원 내외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부터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중장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모금 전담 조직인 기금마케팅부를 신설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1일 경륜 · 경정법 개정에 이어 2010년 9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2억 원의 신규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부터는 예술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와 함께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예술나무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에는 최초로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후원주간'을 운영하고 문화예술후원 참여에 대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기부건수는 2012년도 3,469건에서 24.7% 증가한 4,324건으로, 기부액은 2012년도 147억 원에서 32.7% 증가한 195억 원을 유치하여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하였다.

그림 4-1-5 2013년도 기부 건수 및 월별 모금 현황





(5) 지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2010년 지원심의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책임심의위원제도' 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각 장르별 외부 전문가 4인과 사무처의 10년 이상 해당분야 지원업무 경력이 있는 1명으로 구성된 책임 심의 위원단이 1년 동안 각 장르별 지원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 방식의 일관성 확보와 지원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청렴서약서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연중 공모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시 신청 · 상시 심의제도를 국제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연 1회 정기공모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어 다음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연도 중반에 기획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지원받기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성과중심의 사후지원과 예술현장에 대한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간접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본관 건물을 창작지원시설인 '예술가의 집'으로 조성하여, 상업시설에 밀려 창작기반이 취약해진 대학로 일대의 예술가와 단체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였다.

(6) 주요성과 (선도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준수 및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전직원 직무급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였으며 직무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기관의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인력비율을 기존 28% : 72%에서 23% : 77%로 개선하여 사업부서의 인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부권고기준인 26% : 74%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조직의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CDP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선별, 직위/직무공모제 안정적 시행, 직무유형별 교육기관 채널확보 등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201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BEST-HRD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적친화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였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설립목적 및 연혁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은 1980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여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생존권 및 복지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복지에 관한 초기 논의는 최소생계 유지와 사회보장 차원의 공제회 설립 등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예술인복지 모델 검토를 통해 직업 환경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차원의 논의로 발전해 왔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공포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예술 재생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예술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직업 안정성, 지속적 수입, 고용조건 등 경제적 측면은 매우 어려워서 자칫 창작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있는 현실을 타개해 나가게 된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주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4-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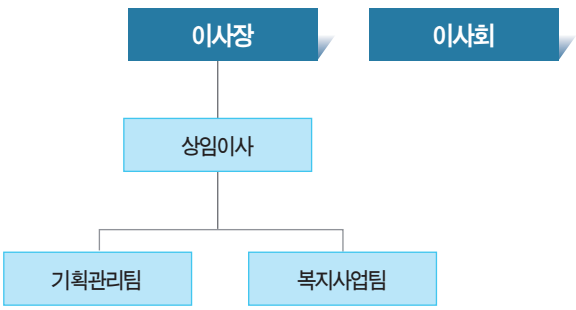
표 4-1-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 2011. 10. 28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2. 8. 1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2. 9. 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 2012. 11. 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 2012. 11. 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012. 11.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2) 조직 및 예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사장(비상임) 1명, 상임이사 1명과 기획관리팀, 복지사업팀의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35명이며, 2013년도 12월 기준 총 16명(정규직 기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경영지원 및 조직운영, 홍보, 사회보장 확대 지원(산재보험 등), 복지실태 조사 · 연구, 예술활동 증명, 상담 · 컨설팅 등 예술인복지 기반 구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팀과, 복지사업의 개발,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직업안정 · 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등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35억 6,200만원으로 약 127억 원이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129억 1,400만 원, 공익사업적립금 6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4,000만 원, 산재보험 사무대행 수수료 800만 원 등이다.

그림 4-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 누리집 : www.kawf.kr

(3)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3년도는 '예술인 복지서비스의 창조적 지원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예술인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술인복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창작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창작지원 사업인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장기적인 예술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 교육사업인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복지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2절 문학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지난 세기 말부터 문학의 사회적 위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매체에 넘겨주었고, 이로 인한 문학 수요자의 이탈과 함께 젊은 문학 수요자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문학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전 정부의 문학진흥 방안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1999년부터 침체된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장기적으로 문학의 자생적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학관 건립 등 문학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셋째, 대외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통한 문학정책의 정책 목표는 창작지원 정책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문학을 향유 ·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문학의 해외전파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진흥 정책을 통해 문학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문학창작 지원 사업은 1999년 이래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원은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방송발전기금, 토토기금, 국고 등으로 다양한데, 문예진흥기금은 창작 및 매개 · 유통 활성화 사업에, 그리고 복권기금은 향수를 촉진하는 사업에 주로 투입되었다. 문학창작 지원 사업에 투입된 문예진흥기금 규모를 보면, 2008년 53억 6,700만 원, 2009년 35억 7,600만 원, 2010년 23억 5,100만 원, 2011년 24억 8,500만 원, 2012년도 23억 7,400만 원, 2013년도 예산액 25억 5,000만 원, 총 187억 300만 원이다. 또한 복권기금은 2008년 32억 7,000만 원, 2009년 24억 1,500만 원, 2010년 18억 원, 2011년 40억 원, 2012년 40억 원, 2013년도 예산액 39억 3,000만 원이다. (2013년도 이후 사업폐지 및 일부사업 이관) 문예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창작프로그램지원('08년 16억 4,400만 원, '09년 · '10년 각 8억 원, '11년 9억 원, '12년 8억 원,

'13년 8억 원)은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20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09년에는 작가 1인당 1,200만 원~3,000만 원씩,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작가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시상금 제도로 변경해 작가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했다.

다음으로 문학단체기관지발간지원('08년 · '09년 · '10년 각 2억 원), 전국의 문학단체에서 발간하는 우수 문예지를 선정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구입 배포하는 사업('09년 10억 원, '10년 5억 원), 문학작품 창작의 모태인 문예지에 수록된 우수 작품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편당 시 · 시조 100만 원, 단편소설 250만 원, 장편소설 500만 원, 동시 50만 원, 동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문예지게재우수작품선정지원('08년 9억 6,000만 원) 등의 사업은 2011년부터는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주요 단체 기관지, 청소년 문예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11년 · '12년 · '13년 7억 원) 그리고 신진예술가의 창작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 ('09년 1,000만 원, '10년 1억 9,000만 원, '11년 2억 4,000만 원, '12년 2억 2800만 원, '13년 2억 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문학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의 작가를 육성하는 청소년문예지발간지원('08년 1억 9,000만 원, '09년 2억 원), 전업문인 문학창작집필실 및 문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예술전용공간지원('08년 1억 7,000만 원, '09년 5억 원, '10년 16억 원, '11년 · '12년 4억 원' · 13년 2억 원), 사이버문학광장운영('08년 · '09년 · '10년 각 3억 원, '11년 5억 원, '12년 6억 5,000만원, '13년 5억 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08년 1억 원, '10년 5,400만 원), 예술정간물 및 조사연구지원('11년 5,700만 원, '12년 4,600만 원, '13년 5,000만 원) 각종 문학국제교류지원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 참가 등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그리고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활동지원('08년 4억 1,400만 원, '09년 1억 4,100만 원, '10년 6,400만 원, '11년 3억 400만원, '12년 2억 400만원, '13년 3억 7400만원)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문학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문학관운영프로그램지원('08년 2억 3,000만 원), 지역문학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문학관협회지원('08년 1억 원), 그리고 특정한 계기를 맞아 긴급 지원하는 계기성사업지원('08년 1억 3,000만 원, '09년 3,300만 원)과 함께, 위탁보조사업으로는 통일문학용어사전발간지원('08년 1억 5,000만 원), 근대문학100주년기념사업('08년 2억 7,000만 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08년 2억 7,000만 원, '09년 3억 원, '10년 · '11년 · '12년 2억 원 · '13년 2억 원) 등을 추진하였다.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전국 공공도서관과 문학관은 안정적인 독서 · 교육 · 문화프로그램 개발, 진행을 위한 작가 확보와 운영 예산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 속에서 다수 지역 문학 작가들 또한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도서관 및 문학관을 지역문화 중심지로 활용하여 문학동아리, 문학 집필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다양한 독서 · 교육 ·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학 작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학프로그램 진행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문학작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작품 창작 환경이 열악한 문학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 동아리 멘토, 문학 집필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작가 참여형 문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문학관들이 해당지역의 소설가, 시인, 수필가 등 문인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에 등록된 작가를 섭외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 80개 공공도서관 · 문학관에 80명의 지역 작가를 파견하였고, 2010년에는 82개 공공도서관 · 문학관에 82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70개 공공도서관 · 문학관에 70명의 작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작가 파견 외에 '09년 70개관, '10년 94개관, '11년 16개관, '12년 16개관 공공도서관에서 시낭송음악회가 개최되었다.

표 4-2-1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실적(2009~2013)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문학작가파견	80개관 80명	82개관 82명	70개관 70명	70개관 70명	70개관 70명	372개관 372명
시낭송음악회	70회	94회	16회	16회	-	196회
예산(적립금)	1,150백만 원	1,000백만 원	700백만 원	700백만 원	670백만 원	4,220백만 원

표 4-2-2 2013년 문학작가 파견사업 참여 도서관(70개관)

no.	지역	선정 도서관	지원작가
1	서울 (22)	강동구립강일도서관	오영진
2		강동구립해공도서관	손현숙
3		강서도서관	이현주(손현주)
4		강서영어도서관	서유미
5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최문자(최미려)
6		거마도서관	김미순(김사이)
7		관악문화관도서관	천희순
8		광진정보도서관	정은미
9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김영
10		노원정보도서관	전선희(전수완)
11		동대문도서관	전은희
12		마포평생학습관아현분관	변혜령
13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	송태영(송기역)
14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백은하
15		성동구립도서관	송승언
16		아리랑정보도서관	김순옥(김광님)
17		용산도서관	전윤호
18		은평구립도서관	전성희
19		정독도서관	김상미
20		종로도서관	정혜원
21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김일영
22		하늘도서관	박수정
23	부산 (2)	금정도서관	송필애(송진)
24		영도도서관	박경효

no.	지역	선정 도서관	지원작가
25	대구 (7)	구수산도서관	이순희(이솔희)
26		달서구립도원도서관	김경숙
27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노명옥(노정완)
28		동구구립안심도서관	차정옥(정옥)
29		새벗도서관	엄창석
30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김기연
31		푸른초장공공도서관	서석행(서지월)
32	광주 (5)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박영덕
33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양인자
34		광주북구일곡도서관	은미희
35		구립 운암도서관	이원화
36		운남어린이도서관	김용태
37	인천 (3)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이성재
38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조정숙(조정인)
39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김선자(김수영)
40	대전 (2)	대전동구가오도서관	조남숙
41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이해완
42	경기 (8)	남양주시화도도서관	이형덕(이시백)
43		반달어린이도서관	문성해
44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제성은
45		성남시수정도서관	김동숙
46		여주군평생학습센터	홍일선
47		평택시립도서관	김미아
48		노작홍사용문학관	조연호
49		잔아문학박물관	김선희(김뜰)
50	강원 (4)	동해시립북삼도서관	구금자
51		속초교육도서관	최동훈
52		원주시립도서관	고진하
53		횡성교육도서관	최보정

no.	지역	선정 도서관	지원작가
54	충북 (2)	청주기적의도서관	함기석
55		충주시립도서관	임남규
56	충남 (1)	충남문학관	김남규
57	전북 (4)	김제시립도서관	김용옥
58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이길상
59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유은희
60		최명희문학관	박예분
61	전남 (5)	목포시립도서관	김양주(김문희)
62		보성공공도서관	김영미(김지요)
63		장흥공공도서관	이소라
64		목포문학관	김희저
65		태백산맥문학관	정형남
66	경북 (1)	이육사문학관	신현랑
67	경남 (3)	김해도서관	송인필
68		마산도서관	이주언
69		창원도서관	김효경
70	제주 (1)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장수명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학의 창작 유통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의 보장과 검열기능의 약화로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나타나는 등 문학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하였다. 이러한 문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이버문학광장'(www.munjang.or.kr) 운영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은 한국문학 기초 자료와 새로운 작품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결합하여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문학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이버문학광장사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해 온 '공모마당'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8개년 간 누적 응모건수가 4만여 건을 기록하였고, 온라인 활동 중에 문단에 등단한 작가도 20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과 발표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두었다. 또한 청소년전용 문

학 사이트인 '글틴'(http://teen.munjang.or.kr)을 통해 '연중온라인글쓰기' 대잔치를 개최, 한국일보사 및 전국 국어교사모임과 함께 '문장 청소년문학상'이라는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대상 문학상을 제정,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문학광장은 특히, 문학 향수자층 확대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독자가 62만여 명에 이르는 '문학집배원(http://letter.munjang.or.kr)'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문예 월간지은 '문장웹진(http://webzine.munjang.or.kr)', 국내 유일의 인터넷 문학라디오 '문장의소리(http://radio.munjang.or.k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한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웹 방식을 벗어나 모바일 서비스 분야(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서비스 등)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4-2-1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사이버문학광장
(http://www.munjang.or.kr)

사업목표	⊙ 국민 문학 향유 기회 증진	⊙ 사이버 창작 활성화	⊙ 청소년의 문학 관심 유발
사업내용	1. 인터넷 문예월간지 〈문장웹진〉 정기 발간 2. 찾아가는 문학 서비스 〈문학집배원〉(시배달 · 문장배달)운영 3.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운영 4. 그 밖에 문학행사, 관련 뉴스 소개	1. 개인 창작 공간 및 발표 기회제공(블로그 운영, 전자책 · POD 출판 지원) 2. 온라인 상시 창작 공모 운영(일반 및 청소년 대상) 3. 문학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1.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문학상(문장 청소년문학상) 제정, 운영 2. 청소년 문예지 모음 등 공공서비스 개발 운영 3.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문학콘텐츠 생산, 서비스 4. 청소년 대상 온/오프 창작 교육(문학특강/문학캠프) 실시
핵심사업	문학도서관 / 문장웹진 / 문장의 소리	문장 블로그 / 창작 공모	청소년문학관 '글틴'

그림 4-2-2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4) 문학관 건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 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유명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2002년부터 문학관 등 건립 지원을 시작하여 지역 유명 문화예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신진 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 무대제공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여왔다. 2002년 4개 시설 33억 원(채동선음악관 9억, 동리목월문학관 12억, 마산문학관 6억, 이효석문학관 6억), 2003년 3개 시설 12억 원(최명희문학관 3억, 이육사문학관 6억, 정지용문학관 3억 원), 2004년 3개 시설 8.7억 원(신동엽문학관 3.7억, 오장환문학관 2.5억, 김정한문학관 2.5억 원), 2005년 5개 시설 14.5억 원(김동명문학관 1.5억, 박인환문학관 2억, 충주문학관 1.5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눌인문학관 5억 원), 2006년 6개 시설 17.4억 원(강화문학관 1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4.2억, 석정문학관 4억, 정채봉기념문학관 1.9억, 박재삼문학관 1.8억 원), 2007년 8개 시설 18.4억 원(강화문학관 0.77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1.61억, 석정문학관 6억, 눌인문학관 2.46억, 정채봉기념문학관 0.87억, 임제백호문학관 2.31억, 김천문학관 3.07억, 박재삼문학관 1.3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이후 문학관 등 건립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4-2-3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단위: 백만 원)

	단 체	내용	지원액	계
2008	강원	여초서예관	200	4개 시설 2,180
	충남	이문구문학관	1,000	
		이응노화백기념관	480	
	전북	석정문학관	500	
2009	대전	대전문학관	540	8개 시설 4,592
	강원	여초서예관	1,300	
	경남	박경리기념관	650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	300	
	전남	복합문학관	266	
		시문학파기념관	306	
	충남	이문구문학관	800	
		이응노화백기념관	430	
2010	대전	대전문학관	227	10개 시설
	강원	여초서예관	1,100	
	충남	이문구문학관	529	
		이응노화백기념관	805	
	전남	시문학파기념관	300	
		백호문학관	200	
		땅끝순례문학관	300	
	경남	박경리기념관	430	
		향파이주홍기념관	270	
		기산박헌봉기념시설	1,500	
2011	대구	대구문학관	1,000	7개 시설 3,820
	충남	신동엽문학관	280	
	전남	시문학파문학관	266	
		백호문학관	574	
		땅끝순례문학관	200	
	경북	소천권태호기념관	500	
		권정생어린이문학관	1,000	

	단 체	내용	지원액	계
2012	대구	대구문학관	1,000	5개 시설 3,196
	전남	땅끝순례문학관	936	
		보길도 고산 윤선도 문학관	200	
	경북	소천 권태호기념관	860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200	
2013	강원	박수근화백 기념관	300	4개 시설 2,342
	충북	조명희문학관	500	
	전남 전남	땅끝순례문학관	842	
		보길도 고산 윤선도 문학관	700	

5) 한국문학번역원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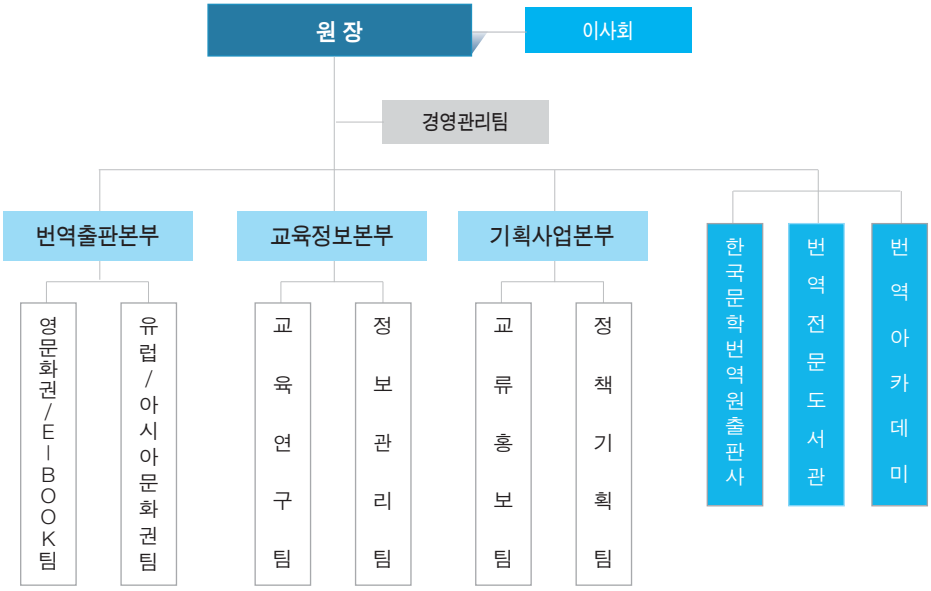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5월 설립)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3월에 출범하였다. 2005년도에 번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인의 사유를 지구촌의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설립 당시 민법에 근거했던 기구의 법적근거를 「문예진흥법」에 마련하여 법정기구로 전환(「문예진흥법」 제38조)되었으며, 2010년 3월 한국문학 외에 간행물의 번역, 출판, 해외진출을 위해 새로운 법적근거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조2) 바탕으로 기관의 업무를 확장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책의 목표를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확보와 고품격 국가 이미지 선양'에 두고 '전통적 문화 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번역 중추기관'이라는 기관의 비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비전은 번역 출판과 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문화 소개 및 홍보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문학, 문화의 위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획득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림 4-2-3 한국문학번역원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조직은 1원장 3본부 7팀 3개 부속기관(경영관리팀, 번역출판본부 아래 영문화권/E-book팀, 유럽 · 아시아문화권팀, 기획사업본부 아래 교류홍보팀, 정책기획팀, 교육정보본부 아래 교육연구팀, 정보관리팀, 부속기관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출판부,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번역아카데미) 3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4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 누리집(홈페이지) : www.klti.or.kr

2013년도 총 예산은 76억 67백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1억 38백만 원과 기본재산, 이자수입 및 임대수익 등을 합친 자체수입 2억 14백만 원,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5백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 54억 29백만 원과 인건비 15억 68백만 원, 경상비 6억 70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현황 및 성과

가. 한국문학의 번역 · 출판 사업

번역 · 출판 지원사업은 우수 번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학작품을 비롯한 인문 · 사회, 아동 분야 한국 도서를 해외에 소개하고, 번역 지원을 받아 완역된 원고를 해외 유명 출판사를 통해 출판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다.

2013년에는 번역지원 공모사업 절차를 개선하였다. 신규 번역지원 및 번역지원 대상도서 신청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번역지원사업 자유공모제 실시로 번역지원 대상도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도 번역지원 신청을 가능케 하여, 응모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표 4-2-4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원건수	69	38	45	46	56	69	98	41	80	110	105	91	82	931

표 4-2-5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단위: 건)

장르별		년도													총계 (2001~201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현대	소설	38	24	26	23	33	29	58	26	44	54	57	57	44	514
	시	19	10	7	10	7	11	14	6	10	13	8	4	14	133
	기타	1	1	2	2	2	-	-	-	1	3	-	-	-	12
아동		-	-	-	-	-	1	-	-	16	18	22	10	6	73
인문 · 사회 (고전)		11 (10)	3 (3)	9 (9)	11 (10)	13 (9)	28 (14)	26 (9)	9 (2)	9 (2)	22 (5)	18 (2)	20 (1)	18 (3)	199 (79)
계		69	38	44	46	55	69	98	41	80	110	105	91	82	931

2013년 기준 한국문학 번역 · 출판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17개 언어권에서 82종을 번역 지원하였고 14개 언어권에서 54종이 해외에서 출간되어,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는 2013년 미 아마존 출판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예지 「Day One」에 배수아 작가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가 게재되고, 미국 해외문학 소개 전문 월간지 「World Literature Today(WLT)」 12월호에 '2013년 주목할 만한 번역도서'로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 지원한 이광수의 「흙」과 혜심의 「무의자 시집」이 선정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와 한국문학총서 10종을 출간하고, 미국 화이트파인 출판사와 한국문학시리즈 출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출판시장에서 파급력이 큰 영어권 시장 진출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체코의 주요 출판사와도 한국문학 컬렉션 출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표 4-2-6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출간지원 현황(2001~2013)

(단위: 건)

장르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고전		4	5	5	6	7	6	7	6	16	10	6	4	3	85
현대	소설	6	25	17	21	34	33	22	26	25	26	31	34	40	340
	시	5	3	9	15	21	15	10	8	8	9	9	11	5	128
	기타	-	-	-	4	2	1	4	-	-	4	1	-	-	16
아동		-	-	-	-	1	-	-	-	-	-	1	3	2	7
인문 · 사회		4	6	8	7	14	13	13	13	19	14	12	7	7	137
계		15	34	34	47	72	62	49	47	52	53	54	59	54	628

나. 교류 · 유통 사업

2013년도 해외교류 사업은 국내외 문학 및 학술행사, 작가 축제 및 레지던스,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해외 문예지의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및 서평 게재 등을 직접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 주요 6대 도시(아르헨티나 4월, 일본 7월, 독일 · 프랑스 · 중국 10월, 미국 11월 개최)에서 진행된 'LTI Korea 포럼'은 한국문학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문학의 현지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세계적 문학 및 출판 중심부와의 네트워크 형성 요구 수렴 및 강화를 통해 한국문학 및 도서의 해외 수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는 16개국 17개 지역에 걸쳐 실시되어, 한국문학 번역작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적인 독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총 11개 언어권의 해외 원어민 번역가 13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 번역작품 연구, 번역 세미나 등을 통한 번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제 11회 한국문학번역상을 4개 언어권 4편의 번역작에 시상하였고, 제 1회 한국문학번역공로상을 3인에게 시상하였다.

표 4-2-7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LTI Korea 포럼'

행사명	기간
아르헨티나 포럼	2013.04.25~05.05
일본 포럼	2013.07.03~07.06
독일 포럼	2013.10.10~10.17

행사명	기간
프랑스 포럼	2013.10.23~10.31
중국 포럼	2013.10.25~10.30
미국 포럼	2013.11.13~11.19

사진 4-2-1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해외교류행사

LTI Korea 포럼(아르헨티나)

LTI Korea 포럼(일본)

LTI Korea 포럼(독일)

LTI Korea 포럼(프랑스)

LTI Korea 포럼(중국)

LTI Korea 포럼(미국)

표 4-2-8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미국 서부	버클리 대학교	2013. 2.~4.	김인숙	먼 길
미국 동부	세종 문학회	2013. 1.~4.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프랑스	프랑스문화원	2013. 5.~10	김언수	캐비닛
독일	본 대학교	2013. 4.~11.	김영하 은희경	김영하 단편선,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2013. 5.~9.	천운영	숨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	2013. 5.~9.	김기택	껌
중국	대련 외국어대학교	2013. 5.~10.	천명관	고래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2013. 4.~9.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일본	와세다 대학교	2013. 4~7.	오정희 이승우	저녁의 게임, 한낮의 시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3. 3.~5.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2013. 4.~10.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 사회과학대학	2013. 6.~10.	이동하	장난감 도시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2013. 4.~10.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폴란드	아 담미츠키 에비츠 대학교	2013. 5.~10.	황석영 김만중	객지, 구운몽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체코	프라하 까렐 대학교	2013. 6.~11.	일연, 김만중 등	삼국유사, 구운몽 외 총 12편의 한국문학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2013. 4~10.	고전 김광규	춘향가, 상행
아르헨티나	Bajo la luna 출판사	2013. 5.~9.	한강	채식주의자

다. 교육 · 연구사업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수준 높은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해 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규과정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총 5개 언어권이 개설되어 번역실습, 한국문학의 이해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원어민 수강생들은 연수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특별과정은 총 7개 언어권(영어, 프랑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이 개설되어, 전일제 수업이 힘든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야간 수업으로 운영된다. 본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보다 심화된 번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심화과정도 총 5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강좌 틈틈이 번역실습 대상작품의 작가를 초청하거나 문학기행을 열어, 번역작품은 물론 한국문학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규과정 5기 총 19명, 특별과정 41명, 심화과정 20명, 총 80명의 차세대 번역가를 배출하였다. 번역아카데미 우수 수료자들에게 전문번역가로서의 경험과 지식 습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번역 아틀리에'는 2013년 4기 총 39명으로 발족하여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 4-2-9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현황

(단위: 명)

과정별	연도별						수료자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과정	16	20	25	24	19	24(합격자)	128
단기과정	20	15	25	(과정 폐지)	(과정 폐지)	(과정 폐지)	60
특별과정	40	45	47	53	55	41	240
심화과정	-	15	22	26	16	20	79
계	76	95	119	103	90	85	483
번역 아틀리에	-	-	15	9	27	22	51
연도별 총계	76	95	134	112	117	107	534

그 외에도 신진 번역가 발굴을 위해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제 12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공모하여 7개 언어권 7명에게 시상, 한국문학 번역가로서의 출발을 격려하였다.

표 4-2-10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본원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 현황 (2003-2013)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원건수	1	-	1	1	3	3	5	2	4	3	2	25

그리고 연구사업으로 제 12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을 개최, '한국문학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외초청인사 5명과 국내인사 5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2013년도 워크숍은 한국문학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크게 '집중'과 '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업계, 작가, 번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써 국내외 종사자의 다양한 시각(출판관계자, 작가, 번역가)에서 양질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 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주요 과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보화 수준과 환경을 진단하여 중장기 전략(ISP)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관 정보화 단계를 1단계: 정보화 기반구축(2010), 2단계: 표준화 · 연계통합(2011~2012), 3단계: 확산 · 고도화(2013~2014)로 계획하고 2013년에는 3단계에 진입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문학번역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독자들이 어디서나 한국문학 관련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세기 한국문학 E-boo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한국문학 및 작가 관련 정보를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특히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7개 언어로 한국문학 콘텐츠 350건을 등재하는 등, 한국문학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도서 및 번역관련 참고서 등을 소장하고 한국문학작품 및 문학작품 해외소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관리 · 제공하는 전문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역할로 번역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신간도서 총 381종 533권을 구입하고, 국내외 번역서 기증 및 행사 지원으로 총 176건 5,232종 5,714권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문학 작가 445명의 성명에 대한 다국어 표기법을 조사하고 작가가 지정한 대표 표기법을 지정, 이를 국내외 도서관에 제공하고 해외에 배포하는 작가 관련 정보 및 자료에도 통일된 작가명을 사용해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증진하였

다. 또한 전 세계 37개 언어권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도서 2,800여종의 서지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수록한 서지책자를 출간 · 배포하여 한국문학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마.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사업

2008년부터 전문적인 출판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도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지원을 대상으로 한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사업에서는 총 7개의 언어권으로 초록번역 413건, 샘플번역 83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작권 수출 협의체 운영하여 국내출판사 대상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국내 출판사들에게 저작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11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시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록번역	485	358	815	245	437	413
샘플번역	315	160	351	128	69	83
PDF 제작	420	130	551	156	-	-

2012년도에는 국내외 150여 곳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고, '2013년 저작권 수출협의회 상반기 간담회 및 아동 · 청소년 문학 수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국내 출판사 20곳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 도서의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출판사에 출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저작권 출판 지원사업에서는 16개국 28개 출판사 52종 54책을 지원하여 해외출판사로부터 한국도서의 지속적인 수입을 유도하고 있다.

표 4-2-12 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시기	국가	출판사	지원도서 종수	지원도서 책수
2008	12	33	67	113
2009	12	38	108	312
2010	11	30	67	104
2011	14	31	91	105
2012	17	41	75	95
2013	16	28	52	54

시기	국가	출판사	지원도서 종수	지원도서 책수
합계	30	122	460	783

저작권 마케팅지원 사업에서는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한 저작권 수출 상담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도서의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도서기획전을 개최하여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볼로냐아동도서전, 동경도서전, 북경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과달라하라도서전 등 5개의 해외도서전에 참가, 한국도서의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도서기획전 및 집중적인 출판섭외 활동을 벌였다.

저작권 수출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한국도서 소개 외국어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를 연 4회 발행, 배포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호부터 22호를 영 · 중문판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출판사, 유관기관, 작가/번역가 등 총 6,600여 곳(국내 3,000여 곳, 해외 3,600여 곳)에 배포하였다. 잡지 발간 후에는 웹진으로 국/영/중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부터는 iPad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계간지 list를 보완하기 위해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plus+list Books from Korea'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 총 12호를 제작, 배포하였다.

사진 4-2-2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Plus+list Books from Korea'

바. 문학한류 기반 구축 사업

대중문화에서 한국 문화예술 중심의 한류 3.0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문학한류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 대표작가 21인의 작품 21종을 영문으로 샘플 번역하여 해외 유수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출판을 유도하였다. 문학 뿐 아니라 국내 6개 문화 · 예술 유관기관이 신청한 12개 영상물 및 14개 공연물의 외국어 자막 번역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한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였다. 또한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E-book 제작 지원을 2013년 신규 도입, 2개 언어권(영어, 불어) 5개 출판사 13개 작품의 전자책 출간을 지원하여 해외 독자의 한국문학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작가 해외 레지던스 파견사업을 통해 한국 작가 5인을 해외 4개 레지던스(미국 아이오와 및 세인트루이스 대학, 스페인 말라가 대학,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대학)에 파견하여 현지 대학 및 출판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시장의 경향을 고려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였으며, 해외 주요 문학축제에 한국 작가를 파견하고 외국 출판 관계자 및 언론인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 쌍방향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사. 해외 출판정보 제공사업

해외출판 정보제공 사업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한국도서 저작권의 해외 수출을 위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 오피아(OPIA, Overseas Publication Information Access)를 발행하였다. (2013.12.31 종료) 오피아 웹진은 600여 곳 이상의 국내 출판 관계자들에 격월간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연 6회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 곳의 해외출판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464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국내 1,200여 곳 이상의 출판 관계자들에게 정기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발송하였다.

제3절 공연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 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그 예술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집단예술에 속하며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보다도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또한, 공연예술은 1회성, 노동 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 비영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 예술은 국민정서함양, 창의력 개발, 문화 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 정책도 종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간접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전문 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 근거마련, 무대 예술전문인력 양성, 사랑티켓 지원확대, 대학로 공연장 임대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대중예술을 자생력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판단했으나 점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중예술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산업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2013년 공연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과 예술 '소비 및 유통'의 관점에서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예술 창작과 소비 · 유통의 양 축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예술단체의 체질 개선, 지역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 강화 및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을 제공하였고,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 예술 향유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1) 지역 공연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예술단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예술 행사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하였다. 상주단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교육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당 연간 5천만~2억 원 내외의 지원금으로 공연장과 상주를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고 공연장 운영경비(지원금의 20% 이내), 단체 운영경비 (지원금의 30% 이내) 및 협력 프로그램 제작경비(지원금의 50% 이상)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 소극장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 · 물적 협력 관계를 조성하여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총 지원예산은 2013년 문예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133억 5천만 원이다. 주요 추진현황은 2009년에 수도권 시범사업으로서 14개 공연장/ 27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 80개 공연장/107개 단체, 2011년에 87개 공연장/109개 단체, 2012년에 133개 공연장/168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34개 공연장/174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그림 4-3-1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표 4-3-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년도	사업효과
공연장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시즌제 정착(공연장 자기색깔 찾기) 기반 마련
상주단체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연습 · 행정 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홍보 · 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매진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주민	○ 우수 공연프로그램 향유 기회 증진

둘째,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였다.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이 14개 행사 64억 8천6백만 원,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 33개 행사 23억3천만 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11개 행사 23억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총 58개 행사 111억 1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공모사업(공연예술 행사 지원 일부 및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전체)의 조기공모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조기공모 등을 통한 공연예술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는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공연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장르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르별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연예술 행사, 국제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표 4-3-2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관광기금)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공연예술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800,000,000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거창국제연극제	350,000,000
	광주광역시	문화도시국제행사	269,000,000
	경상북도	포항스틸페스티벌	500,000,000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무용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서울세계무용제	275,000,000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부산국제무용제	147,000,000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390,000,000
음악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관악페스티벌	900,000,000
	한국음악협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255,000,000
	대구오페라페스티벌조직위원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000,000,000
	국제평화기념사업회	2012년 UN평화음악축제	500,000,000
전통예술	전통예술진흥재단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300,000,000
	동화사	팔공산 산중중터 승시	300,000,000
다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	500,000,000
계			6,486,000,000

표 4-3-3 공연예술행사지원(문예기금)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다원	(사)페스티벌봄	페스티벌 봄 2013	60,000,000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3	50,000,000
무용	(사)창무예술원	제19회 창무국제무용제 in 고양 2013	40,000,000
	(사)한국무용협회	2013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30,000,000
	(사)한국무용협회	2013 대한민국무용대상	70,000,000
	(사)한국발레협회	k-ballet world 〈발레엑스포 서울 2013〉	134,000,000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35,00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제1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00,000,000
	젊은안무자창작공연운영위원회	2013젊은안무자창작공연	35,000,000
	한국발레재단	제6회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56,000,000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연극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2013년 제21회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	120,000,000
	(사)밀양연극촌	밀양국제공연예술제	66,000,000
	(사)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축제	12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5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제10회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8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제17회 전국청소년연극제	80,000,000
	(사)한국연극협회진주지부	제14회 영호남연극제	60,000,000
	김천전국가족연극제	2013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39,000,000
	수원문화재단	제17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32,000,000
	어린이연극잔치운영위원회	제22회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	33,000,000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제12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60,000,000
	재단법인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제2013	89,000,000
	젊은연극제집행위원회	제21회 젊은연극제	36,000,000
	청주공연예술문화센터	제8회 청주공연예술제	20,000,000
음악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13년 신춘문예 단막전	35,000,000
	(사)한국음악협회	제32회 대한민국작곡상	55,000,000
	(재)통영국제음악제	2013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10,000,000
	윤이상평화재단	2013 국제윤이상작곡상 결선연주회 및 시상식	90,000,000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100,000,000
	한국반주음악연구소	세계연가곡 Festival	45,000,000
전통 예술	(사)한국국악협회	제32회 대한민국국악제	50,000,000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제18회 필봉마을굿축제	30,000,000
	중방농악보존회	제4회 전국 풍물굿축제, 전국풍물타악경연대회	20,000,000
계			2,330,000,000

표 4-3-4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문예기금)

분야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음악	강원도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600,000,000
	경상남도	2013 이상근 국제음악제	100,000,000
	부산광역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0,000,000
	경상북도	무섬마을 상설공연, 전시	300,000,000
연극	경상북도	201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공연-플라잉	100,000,000
	대구광역시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00,000,000
	부산광역시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200,000,000
다원예술	충청북도	국제에코아트페스티벌	3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프린지페스티벌	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52회 탐라문화제	100,000,000
전통예술	전라남도	판페라 - 이순신	30,000,000
계			2,300,000,000

셋째,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문예회관은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향수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으로서, 2013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20개관의 문예회관이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문예회관 확충을 위해 최근 5년간 2008년 240억 원(22개), 2009년 204억 원(21개), 2010년 171억 원(20개), 2011년 108억 원(17개), 2012년 125억 원(16개), 2013년 127억원(19개)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청년층의 실무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2013년 전국문예회관의 행정(공연/전시기획, 홍보마케팅 등)분야와 예술(무대장치, 음향, 조명 등)분야에 81명을 배치하여 7억 7천 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노후한 시설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예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총 21개 문예회관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현황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개 문예회관의 기술정보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공연장 기술정보 공유로 공연품질 향상 및 문화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문예회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문예회관 아카데미를 통하여 종사자 2,148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관리자 · 실무자과정, 공연장안전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 인력 교육, 전문과정(관리자, 공연 · 전시기획, 홍보 · 마케팅, 하우스매니저, 문화예술교육과정) 등 10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에서 시행되는 우수공연 및 기획공연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표 4-3-5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6	11	11	8	7	3	4	32	19	13	17	15	18	24	19	2	1	220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146억 원으로 185개 문예회관에 579건의 프로그램을, 2005년에는 94억 원으로 188개 문예회관에 630건의 프로그램을, 2006년에는 94억 원으로 186개 문예회관에 635건의 프로그램을, 2007년에는 70억 원으로 128개 문예회관에 289건의 프로그램을, 2008년에는 31억 원으로 96개 문예회관에 190건의 프로그램을, 2009년에는 40억 원으로 120개 문예회관에 213건의 프로그램을, 2010년에는 48억 원으로 126개 문예회관에 242건의 프로그램을, 2011년에는 48억 원으로 139개 문예회관에 275건의 프로그램을, 2012년에는 48억 원으로 163개 문예회관에 286건의 프로그램을 2013년 47억원으로 150개 문예회관 261건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4-3-6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현황(2004~2013)

(단위: 억 원)

년도	지원액	문예회관 수	프로그램 건수
2004	146	185	579
2005	94	188	630
2006	94	186	635
2007	70	128	289
2008	31	96	190
2009	40	120	213
2010	48	126	242
2011	48	139	275
2012	48	163	286
2013	47	150	261
합계	666	1,481	3,600

(2)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 제공

예술의 창작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창작 지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계의 수요가 높은 예술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대학로 예술가의 집을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술 창작을 위한 국내외 지원 정보 제공 등 정보 유통매개체 역할과 국내외 공연전문가 간의 공연 · 캐스팅정보 교환 등 상시 아트마켓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가의 집을 문화예술계의 각종 세미나, 토론 등 담론의 장소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현상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예술가의 집 내에 명예의 전당 운영으로 한국예술발전에 공헌한 예술인, 예술 후원자 및 예술사 관련 전시를 상시 운영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둘째, 국립발레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국립예술단체 전용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국립예술단체 간 교류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연연습장 운영과 국립예술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인 공연 지원을 위한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7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개요	내용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규모	지하1층, 지상 1층(연면적 6,344㎡), 공연 스튜디오 10개(전용 7개, 공용 3개)
입주단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관리 · 운영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사진 4-3-1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2)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1)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한국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권역별 공연시장 특성과 해외진출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간 협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지 홍보 및 진출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전통예술의 월드뮤직 시장 진출을 위해 영국에서 진행된 워멕스(WOMEX: The World Music Expo)[5]에 국가관을 설치하였으며, '숨', '잠비나이' 가 2013년도 공식쇼케이스로 선정되어 권위 있는 월드뮤직 시장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2013년 7월 유럽의 대표적 무대인 프랑스 파리 여름축제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MOU체결을 통해 한국특집프로그램(Center Stage Korea)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피나 바우쉬'로 불리는 안은미무용단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바리공주", 음악그룹 '비빙'과 전통타악그룹 '노름마치'가 함께 소개되어 전 세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외에도 영국의 에든버러인터네셔널과 브라질 세나현대공연예술제 등 해외 주요 공연예술축제 및 기관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한국특집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한국단체의 해외진출 효과성 배가를 위한 해외순회공연(Touring)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기획자 양성을 위하여 순수공연예술분야 기획자들의 세계 주요공연예술마켓 참가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사진 4-3-2 한국공연예술 해외진출 사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2013 인문정신문화 결산포럼

5) WOMEX: The World Music Expo : 세계최대 월드뮤직 엑스포. 전 세계 90여 개국의 월드 뮤직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최고의 월드뮤직 마켓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음악을 비롯하여 재즈, 포크, 전통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 권역 및 장르별 주요 축제 및 공연장 등 해외 유관 기관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전략적 해외 투어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2) 예술 향유 기반 확충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공간을 확충하였다.

먼저 국립예술자료원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설립한 국립예술자료원은 2003년부터 진행한 한국 근 · 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공연 · 시각 · 문학 · 대중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총 244명의 예술인 구술기록을 확보하였다(2013년 성악가 안형일 등 9명 구술채록). 이를 통하여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예술사 연구의 단절과 공백을 메우는 일에 일조하였다. 2013년도에는 예술분야 신간자료를 구비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공연영상 76편을 직접 제작하였고, 예술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카이브 기능을 정립하였다. 또한, 예술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주요 공공 공연장(세종문화회관,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성남아트센터)의 예술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술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아카이브(ww.cda.or.kr)를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예술의전당 공연장을 확대하였다. 먼저 시설이 노후화된 토월극장을 약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 하여 2013년 1월 공사를 완료하고 2월 재개관 하였다. 리모델링을 통해 극장 활용도가 제고되었는데, 무대공간은 전면 개보수되어 최신의 공연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객석은 기존 2층 671석에서 3층 1,004석으로 확대되었다. 총 공사비는 250억 원이며, CJ 그룹에서 150억 원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음악당에 실내악 전문 공연장인 IBK 챔버홀을 조성하였다. 실내악 공연에 최적화된 600석 규모의 IBK 챔버홀이 문을 열게 됨으로서 음악당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클래식 공연을 위한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명성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총 공사비는 80억 원이며, IBK 기업은행에서 45억 원을 후원하였다.

(3)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

2008년부터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연극 및 뮤지컬, 음악. 오페라, 무용, 그리고, 발레 분야에 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연 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산업으로 단계별로 대본 공모, 시범공연 지원, 우수작품 제작 및 공연 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한다.

표 4-3-8 공연예술 창작기반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16	377	14	483	14	389	13	320	14	405	22	1,000
뮤지컬	13	323	13	450	14	529	12	345	10	395	16	1,000
오페라	-	-	-	-	6	520	7	410	7	430	5	1,000
발레	-	-	-	-	-	-	11	440	11	420	10	700
무용	-	-	-	-	-	-	-	-	-	-	19	600
합계	29	700	27	933	34	1,438	43	1,515	43	1,660	72	4,300

연극 및 뮤지컬 분야는 우수작품 발굴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대본공모, 공연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시범공연지원 공모, 시범공연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우수작품 제작지원, 역대 선정작 중 기 공연작을 대상으로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대본 총 39편, 시범 공연 74편, 우수작품 제작 37편, 우수작품 재공연 21편을 지원하였다.

무용, 발레분야 또한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창작산실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우선 발레분야는 2011년도 대본 1개,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를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도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 2013년에는 시범공연 6편, 우수작품 제작 공연 4편을 지원하였다.

현대무용 분야는 시행 첫 해인 2013년도에 46편의 응모작품 중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지원 3개를 선정하였고, 단순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작품 아이디어 단계부터 공연 실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제작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사후 자생적 유통까지 고려한 공연 관계자 쇼케이스를 다수 개최하는 등 전문적 제작 및 유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무용분야는 2013년 공모를 통해 시범공연 제작을 위한 8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중 심사를 통해 3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총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3개 등 총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창무포스트 극장(시범공연 8개), 아르코 예술극장(우수작품 3개)에서 공연이 추진되었고, 이중 심사를 통해 1개 작품에 대하여는 2014년 재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페라 분야는 우리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한국오페라의 체질을 강화하고 공연예술 전반의 동반 발전을 위해 2010년 이후 4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오페라 창작활동을 최

대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경비를 최소화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 중 80%인 8억 원을 상금과 제작지원금으로 투입, 대본공모 당선작 2편, 우수작품 공모 당선작 2편, 재공연 지원공모 당선작 1편을 선정하였다. 응모작품은 전년 대비 21편에서 30편으로 상승하는 등 창작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3 공연예술 단체 및 기관

1)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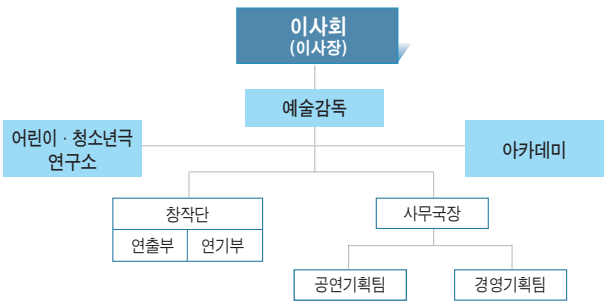
(1) 개관

국립극단은 1950년 1월 신극협의회 설립(국립극장 전속단체)을 시초로,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6월에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 국립극단으로 독립하였다.

국립극단은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의 개관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극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을 위한 연극을 만들어 국민에게 친숙한 극단으로 거듭나고자 우수연극작품 및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작업을 강화하였다

국립극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국 2팀 경영기획팀, 공연기획팀 및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아카데미, 창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예술감독 1명, 직원 7명, 단원 46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2 국립극단 조직도



※ 위치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 누리집(홈페이지) : www.ntck.or.kr

2013년도 총 예산은 6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55억 1,600만 원(전년 대비 5.4% 증가)의 지원금과 공연사업 수입금, 협찬금 등 자체수입 9억 1,900만 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예술사업 26억 3,900만 원, 인건비 24억 2,300만 원, 경상사무비 7억 4,900만 원이다.

국립극단은 한국연극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떠맡으며 그에 펼쳐진 삶의 신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내는 감동, 작은 깨달음으로서의 연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자, 공연사업과 어린이 청소년극 제작 및 어린이 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립극단 공연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연극 예술에 대한 관객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연 리허설북 제작 및 관객학교 운영, 전문예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극단이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에 16m×11m 규모의 기본무대를 중심으로, 기본 200석~400석까지의 객석 운영이 가능한 '백성희 · 장민호극장' 및 10m×13m 규모의 기본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소극장 판' 공연장과 대연습실 및 소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2013년 국립극단은 봄마당축제를 알리는 레퍼터리 공연 '3월의 눈'을 시작으로 총 15작품을 제작 하였다. 그 외 지방공연 16개 지역을 '3월의 눈', '안티고네', '푸른배 이야기', 청소년극 '레슬링 시즌'이 총 24회 공연을 가졌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4회 공연을 하였다.

공연작품에 대한 관객점유율은 총 99%로 유료객석점유율 61%(전년 50%), 무료객석점유율 36%(전년 39%)을 차지하였으며, 관람인원은 전년대비 13% 감소(64,540명→55,870명)하였으나 객석 점유율과 유료객석점유율은 향상되었다.

공연 출연배우는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였으며, 공개오디션은 1차 서류심사, 2차 실연 오디션을 기본으로 진행하였다.(총 10회 2,663명 지원, 125명 선발)

2011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를 설립하여 2013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 청소년연극창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설립 계기를 마련하였다. 레퍼토리 3편 재공연과 청소년극 1편을 제작하여 평균 총객석점유율이 110%를 기록하였다.

반년간지 '연극'(2권)과 작품 연습과 과정을 기록한 리허설북(2권)을 발간하고, 극작수업 강의집(2권)을 발간하였으며, 양질의 공연 프로그램북(16권)을 관객에게 제공하여 연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사진 4-3-3 국립극단 공연

〈3월의눈〉

청소년극 〈레슬링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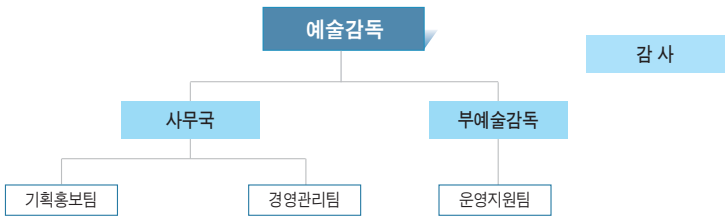
2) 국립발레단

(1) 개관

1962년 창단된 국립발레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 발레단으로 그동안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해적', '신데렐라' 등 러시아 고전발레를 국내에 처음 소개해왔으며 국가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왕자호동'을 제작하는 등 한국적인 창작발레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해외공연과 무용수들의 해외파견을 통해 한국발레를 외국에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고, 한국 발레 대중화에도 앞장서 1997년부터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발레교육을 통한 전문 무용수의 육성을 위해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기획홍보팀, 경영관리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감독 및 사무국장외 직원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3 국립발레단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서예관 4F
※ 누리집(홈페이지) : www.kballet.org

2013년도 총예산은 97억 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국고보조금 71억 400만 원의 지원금과 공연사업 수입금 등 자체수입 26억 1,800만 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예술사업 48억 84,246만 원, 인건비 34억12,754만 원, 경상사무비 13억 25,0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4,672만 원이다.

2013년에는 발레계의 블록버스터 〈라 바야데르〉를 신작으로, 모던발레 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차이콥스키', '롤랑 프티'을 공연하였으며 연말 송년발레 대표작 '호두까기인형'을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또한 '한 · 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갈라'초청공연 및 발레 체험교실과 '제1회 중국국제발레축제 초청공연'을 개최하며 한류확산 및 문화교류증진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국립발레단' 사업으로 공익, 지역순회 및 기획공연과 발레교실을 총 72회 실시하여 문화 소외지역의 갈증 해소와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가. 정기공연(5편 24일 30회 / 43,728명 관람)

발레계의 블록버스터 '라 바야데르'를 신작으로 올려 고정 레파토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모던발레 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차이콥스키', '롤랑 프티'를 통해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단원의 역량확대를 추구하였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고정레퍼토리 '호두까기인형'은 104%의 티켓판매율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송년 발레 레퍼토리로 정착되었다.

사진 4-3-4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라 바야데르'

* 출처 : 국립발레단 http://www.kballet.org/

나. 지방공연 : 공익 및 지역순회공연(40편 70일 72회 / 56,436명 관람)

국립발레단은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발레공연과 발레교실'을 확대하였다. 전막작품으로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클래식 작품 '지젤', '돈키호테' '호두까기인형'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였다. 특히 해설 작품으로 '해설 돈키호테'와 하이라이트를 모은 '해설 갈라 공연'으로 발레인구의 저변확대와 관객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초등학교, 울릉도 및 독도 등에서 시행하며 '찾아가는 발레교실'을 통하여 발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다. 기획공연 등(2편 8일 10회 / 8,461명 관람)

기획공연으로 클래식발레 대표 레퍼토리 '지젤'과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를 공연하였는데, 공연 한 달 전부터 이미 표가 매진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어린이날과 여름방학 기간에 '가족발레'로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라. 해외공연(2편 4일 4회 / 5,590명 관람)

한 · 인도 수교 40주년 기념공연(인도 뉴델리 시리포트극장, 2일 2회 공연)에서 '해설이 있는 갈라'공연을 하였다. 뉴델리 근교 신도시 구르가온에 있는 인도 유일의 발레교습소에 찾아가 발레교실을 시행하며 뜻 깊은 국제교류를 시행하며 국외 공익사업에 공헌하였다. 11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발레축제' 초청작으로 롤랑 프티의 '아를르의 여인'과 '카르멘'을 성황리에 공연하며 한국발레의 우수성과 높아진 위상을 알렸다.

3) 국립오페라단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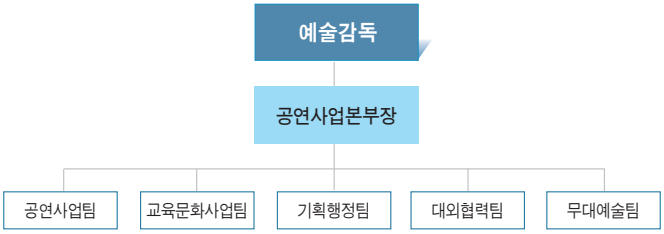
1962년 창단되어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국립오페라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해 오며 국제적 경쟁력의 오페라를 제작하고 고유 레퍼토리화하여 우리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최고 정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품은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오페라 본고장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화함으로써 오페라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오페라를 제작하여 창조적 예술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의 조직은 공연사업본부 내 기획행정팀, 공연사업팀, 교육문화사업팀, 대외협력

팀, 무대예술팀을 두는 1본부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15명, 단원 20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도 총예산은 128억 3,255만원 수준이었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3억 4,500만 원, 자체수입 44억 8,755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인건비 10억 8,953만원, 경상운영비 9억 8,364만원, 공연사업비 74억 5,598만원, 익년도 사업 1억 3,971만원,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6,8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은 'VISION2022 오페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를 경영목표로 하여 국립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 연 총 343회의 공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예술기관으로서 창작오페라를 제작 · 공연하여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여 창작오페라 제작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그림 4-3-4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 누리집(홈페이지) : www.nationalopera.org

국립오페라단은 대 국민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객석기부 및 직접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립예술단체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페라 문화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미래의 한국 오페라를 이끌어 갈 성악 인재를 발굴하는 성악 콩쿠르, 전액 장학금으로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오페라 인재 전문 맞춤 교육인 오페라아카데미, 오페라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열린강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인 국민오페라 합창교실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 단체로서 최초로 전 직원의 연봉제 도입,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조직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효율적 경영화를 이루었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2013년 3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베르디 최후의 작품이자 유일한 희극작품인 오페라 '팔스타프'무대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극적인 스토리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난이도 높은 음악적 구조와 현대적 연출로 작품의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난제였음

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해석과 오픈 무대 전환이라는 새로운 연출 기법으로 작품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연된 작품 중 최고의 〈팔스타프〉라는 호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4월, 베르디가 남긴 27편의 오페라 중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돈카를로'는 베르디 해석에 탁월한 세계적인 명장 〈엘라이저 모신스키〉의 상징적인 연출과 16C 스페인 왕정을 고증한 의상, 극적인 음악적 해석, 뛰어난 출연진의 기량이 황금 비율을 이룬 세계 정상급 무대와 비교해 손상이 없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6월, 국립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발전 방향 키워드를 '발굴과 복원'으로 설정하고, 한국적 스토리텔링과 음악으로 평단과 관객의 사랑을 받은 바 있는 이영조의 '처용'을 새롭게 각색, 연출하여 국내 창작오페라 활성화는 물론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이에 고유 설화를 상징화함에 그치지 않고,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연출함으로써 창작오페라가 갖는 선입견을 탈피했고, 대극장 공연 추진을 통해 국내 창작오페라 활성화의 판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바그너의 마지막 작품이자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최고의 작품인 '파르지팔'을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작으로 국내 초연으로 선보였다. 국내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전회 매진을 기록하는 등 고난이도의 음악적 완성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바그너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 베이스 연광철 등 '바그너 오페라의 성지'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들의 열연으로 한국 오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관객과 언론의 호평을 받아 한국 오페라의 현주소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를 마련하였다.

11월, 오페라 '카르멘'은 2012년 창단 5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선정된 작품으로 2012년 공연 당시 프랑스적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무대 연출과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프랑스 오페라의 진수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전석 매진으로 1회 추가 공연을 실시하는 등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작품이다. 이를 보유 레퍼토리화하여 2012년에 이어 2013년 국립극장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국립오페라단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며, 재공연임에도 불구하고 3회 전석 매진으로 이어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반증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12월, '라보엠'은 2012년 창단 50주년 기념작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으로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연말 시즌 레퍼토리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다. 2012년 4월 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5월 중국 국가대극원, 12월 국립레퍼토리 시즌 작품으로 참가하여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국립오페라단의 활동영역을 국내 및 해외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 재공연시 지휘자 및 주요 출연자를 교체하여 동일 작품 및 프로덕션에 대한 선입견에서 탈피하여 국립오페라단 '라보엠'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시너지를 이루어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1회 추가 공연을 실시해 총 5회의 공연을 성황리에 이끌었다. 또한 연말 '오페라 갈라' 공연에서는 '팔스타프', '돈카를로', '파르지팔' 등

2013년 베르디 ·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와 2014년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텔로' 등 2014년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갈라'형식을 통해 선보임으로써 국립오페라단의 과거와 미래를 한 무대에서 조명하여 3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오페라 잠재관객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지역극장과의 교류를 통해 울산 '처용', 대구 '돈카를로', 천안 '카르멘' 등을 선보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였다. 울산 '처용'은 작품의 본 고장과 연계시켜 역사의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고증에 치우치지 않는 현대적인 연출로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대구 '돈카를로'는 국립오페라단 작품의 완성도와 더불어 최고의 출연진을 통해 작품이 지닌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대중적인 레퍼토리에 치우쳐 있는 지역 오페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내었고, 천안 '카르멘'은 클래식 문화의 수요가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는 작품 선정과 국립오페라단의 완성도 높은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어 향후 오페라 관객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오페라 여행', '우리 마을 오페라 잔치', '기업협력공연', '교정시설 특별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의 지역별 · 계층별 맞춤형 지방공연을 통해 군산, 영흥 목포, 포항, 충주, 청양, 김해, 나주, 안동, 순천, 해남, 양양, 양구, 여수 등 중소 지자체와 교정시설, 군부대, 병원 등에서 11,272여 명의 관객과 만나며 생애 처음으로 오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의 오페라 관객 개발 및 어린이 정서함양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교실 속 오페라 여행'과 '오페라 학교 가는 날'은 각각 101회, 39회를 실시하여 1만2천여 명의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하였다.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552회의 공연을 실시한 어린이 오페라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실로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3~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공연을 실시, 학생과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차세대 오페라 스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성악콩쿠르'와 '국립오페라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재능 있는 젊은 성악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본선 경연에 오케스트라 반주를 도입하여 경연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대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현장감 있는 오페라 교육을 선보이는 '국립오페라 아카데미'는 연습실을 벗어나 외부 공연장에서 종강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콩쿠르와 아카데미를 통해 발굴한 신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국립오페라단의 크고 작은 공연에 출연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밖에 '창작산실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우리 오페라 제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및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사진 4-3-5 문화나눔사업

오페라잔치

오페라여행

교실속 오페라 여행

오페라 학교가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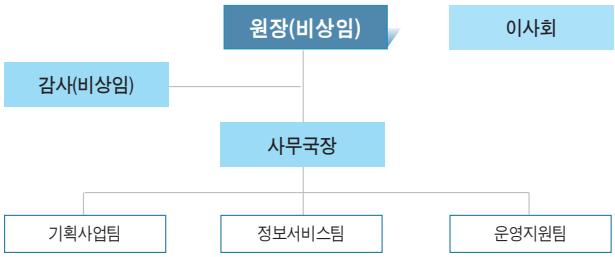
* 출처 : 국립오페라단 http://www.nationalopera.org

4) 국립예술자료원

(1) 개관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에 설립된 예술 자료 전문 기관이다.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극 · 무용 자료 중심의 대학로 분원을 2010년 12월 개원하여 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본원과 대학로 분원의 2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이사장 겸 원장 1인(비상임), 이사 10인(비상임),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진과, 사무국장을 필두로 기획사업팀, 정보서비스팀, 운영지원팀의 1사무국, 3팀의 실무 운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으로 2013년 12월 기준 15명이 재직 중이다.

그림 4-3-5 국립예술자료원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내
※ 누리집(홈페이지) : www.knaa.or.kr

2013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66백만 원, 체육진흥투표권적립금 290백만 원, 자체수입 53백만 원으로 총 2,727백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641백만 원, 경상운영비 927백만 원, 사업비 1,141백만 원이다.

발간된 예술분야 신간자료를 구비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공연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예술인과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1만 건 이상의 예술 자료를 기증받았다. 또한, 9명의 예술인 구술채록을 통하여 예술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러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범국가적인 공동 예술정보저장소인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창작 · 연구 ·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여 예술단체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업은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원을 축적하고 유통하는 채널로 마련되었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은 연구, 창작, 교육, 향유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한 예술분야 단행본 1,266권, 공연 영상 및 음반 등 시청각자료 1,244건, 연속간행물 166종을 구입하였고 '한국학술정보' 'DBpia', 'NAXOS Music Library' 3종의 웹DB를 구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연극(뮤지컬) 59편, 무용 12편, 복합공연 3편, 전통공연 2편 등 총 76편의 공연실황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연별 실물 및 디지털 부가 자료(대본, 포스터, 프로그램 등) 총 708점을 수집하여, 비유통 공연 자료 DB구축을 통한 예술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작품 배치에서 공간 연출로 변화하고 있는 전시 현장의 영상 기록화와 이의 영구적 보존, 이용자 열람을 목적으로 3건의 전시영상이 시범 제작되었다. 또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개인회원,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예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1만 건 이상의 자료를 기증받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공동 사업 개발, 전시 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성남문화재단

등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예술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 강좌도 진행하였다.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서초동 본원의 예술 강좌–19세기 오페라의 두 거장, 베르디와 바그너(상반기), 세기의 라이벌, 브람스와 바그너 (하반기)'와 대학로 분원에서 예술가와 애호가를 대상으로 한 '화요상설상영회', '연극 강좌–연극 읽기', '무용 강좌–인문학적 춤 읽기', '뮤지컬 강좌–뮤지컬 라이브러리', 'SP음반활용 강좌–한국대중음악사' 등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개설하여 작년 총 2,8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으로 성악가 안형일(1927), 미술사가 임영방(1929), 작사가 정두수(1937) 등 원로예술인 9인의 생애 기록을 남겼고, 시중의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하기 어려운 희귀 자료 약 1천 점도 기증받았다. 이 사업은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예술사 연구의 단절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극 · 연희 34명, 무용 66명, 음악 22명, 시각 79명, 문학 28명, 방송 · 영화 15명 등 총 244인의 구술 기록을 축적하였다. 더불어 생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로 콘텐츠를 통합하였고, '구술사와 예술, 오락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제4회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서울」에 패션디자이너 노라노편, 소설가 박완서편, 만담가 김영운편을 연재하는 등 내실을 꾀하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사진 4–3–6 한국 근 · 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 출처 : 국립오페라단 http://www.nationalopera.org

국립예술자료원 서초동 본원은 예술 전 분야의 각종 원본 자료들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학로 분원은 공연예술 현장과 밀착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과 예술향유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극과 무용 분야의 단행본과 영상자

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87,131건의 문헌자료와 213,565건의 공연과 전시에서 활용된 영상, 음반, 팸플릿, 포스터, 사진자료 등을 소장하고 예술 창작, 연구, 교육 사업에 활용할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자도서관시스템을 비롯한 4개의 운영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 관련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3년은 열람실 3개소 평균 290일(서초동 본원 문헌정보실: 287일, 영상음악실: 286일, 대학로 분원: 298일)을 개관하여 55,416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고, 4,3,12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424명이 유료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기록 관리를 위해 개설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를 확대 개편을 통해 활성화하였다. 또한, 공연 및 시각예술 영상의 편리한 감상을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고, 전자도서관 솔루션 도입 및 DA-Arts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합검색을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예술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주요 공공 공연장(세종문화회관,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성남아트센터)의 예술기록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영구 보존하며, 공간의 제한, 재생 조건 등 원 자료의 매체, 물리적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사진 4-3-7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2013년 문화다양성 아카이브(www.cda.or.kr) 구축 사업은 기능 개선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자료 관리를 위한 업로드 기능 개선 등 관리자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언론매체의 뉴스 클리핑 기능을 추가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문화 재단의 SNS 소식을 전하는 소셜 허브를 구현하였다. 더불어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이트 목록을 정리, 향후 수집 대상처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예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최초로 예술분야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에는 대외적 수요가 많은 입문과정에 중점을 두어 '예술기록관리'부문과 '구술채록연구인력'양성 부문 2개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 대상자층을 예술(연계)전공자 및 실무자층으로 좁혀 기획의도를 분명히 하여 성과를 높였다. 또한 자료 관리상의 장르별 특수성이 고려되는 경우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강의를 구분하였으며, 강의내용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습생 4명을 선발하여 이론과 실습 과정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2개 과정 전체 수료생은 60명이며, 전체 수료율은 87%이다.

사진 4-3-8 국립예술자료원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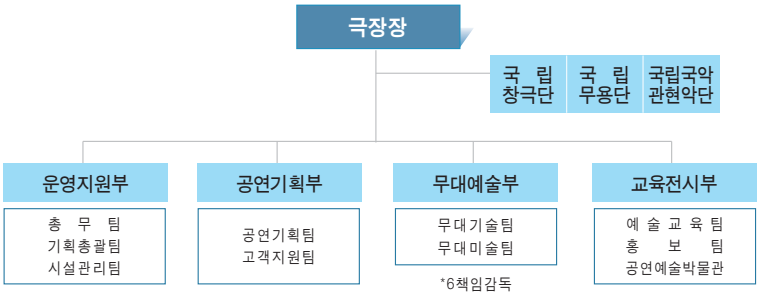
5) 국립중앙극장

(1) 개관

국립중앙극장은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예술의 진흥을 위해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의 창단과 함께 창설되었다. 1962년에는 국립극단(현 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오페라단, 1973년에는 국립발레단 · 국립합창단이 창단되었고 그 해 10월 장충동으로 이전 · 개관하였다. 1995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으로 7개 전속단체가 운영되었으며 2000년에는 오페라단 · 발레단 · 합창단이 재단 법인화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극단이 재단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창극단 · 무용단 · 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로 재정비되었다. 국립중앙극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통해 인사 및 예산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제3기 출범으로 기능위주의 조직개편 및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 책임운영기관 제4기의 출범으로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대비조직 · 인력의 재정비, 공연기획 · 마케팅홍보가 강조된 공연중심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2012년 책임운영기관 제5기 출범으로 자체 공연 제작 기능 강화를 위하여 4부 3전속단체 6책임감독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대표공연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01년 별오름극장 개관, 2004년 해오름극장 전면 새 단장, 2008년 KB청소년 하늘극장을 개관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공연예술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 · 보존을 위한 한국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 개관으로 공연문화 · 예술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조직은 4부 · 3개 전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공무원 93명과 전속단원 212명 총 305명이다.

그림 4-3-6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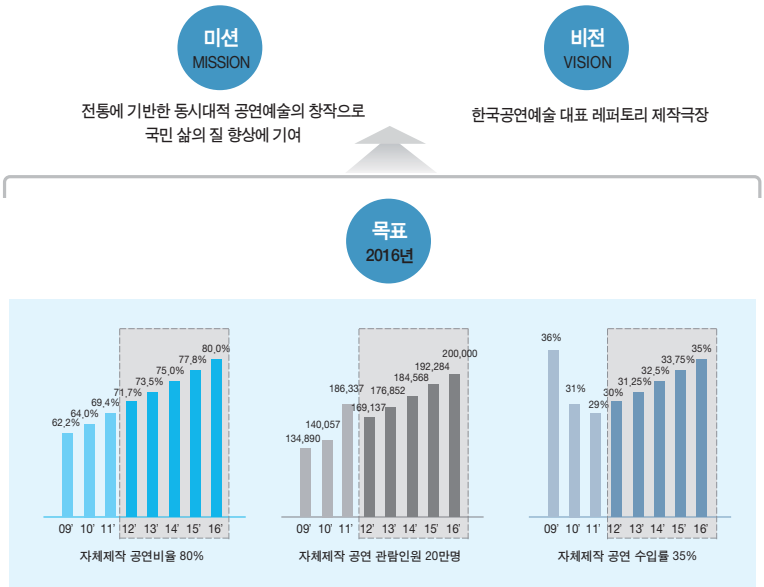
※ 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누리집(홈페이지) : www.ntok.go.kr

2013년도 세입예산은 34억 37백만 원으로 재산수입 15억 50백만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1억 26백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35억 77백만 원으로 공연사업비 등 사업비 273억 12백만 원, 인건비 48억 58백만 원, 기본운영비 14억 4백만 원이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립중앙극장은 국내 최초 공연예술박물관을 개관(2009.12.23)하여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동안 공연예술계에서 꾸준히 요구되어온 숙원사업의 성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연장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공연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공연장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어린이, 주부 등 다양한 층위의 관객개발 및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림 4-3-7 국립중앙극장의 비전 및 주요 사업



전략목표	전략과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제작	1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2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	3 공연제작 시스템 선진화
공연예술의 보급 · 확산	4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	5 전통공연예술 관객 저변 확대	6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 역할 강화
고객감동 서비스 확대	7 복합문화예술공간 재창조	8 VOC(고객의 소리) 관리체계 구축	9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극장 경영의 효율성 강화	10 중장기 사업실행 기반 마련 13 재정 건전성 확보	11 성과중심의 조직 효율성 제고	12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 출처 :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www.ntok.go.kr

국립중앙극장은 2012년부터 시즌제를 도입, 레퍼토리 극장으로 전환하여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2-2013년 첫 시즌 추진에 이어 두 번째 2013-2014시즌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즌제를 안착함과 동시에 국립극장의 위상을 재정립 하였다. 전체 작품수가 55편에서 63편으로 14% 증가하였고, 공연일은 285일에서 319일로 12%증가, 공연 평균 객석점유율이 74.4%에서 82.5%로 11%가 증가하는 등 첫 시즌 대비 공연실적이 대폭 증대 하였고, 첫 시즌 신작 13편중 8편을 대표레퍼토리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시즌 호평을 받은 국립창극단의 〈서편제〉, 〈배비장전〉을 2013-2014시즌에도 레퍼토리로 재공연하여 전년대비 향상된 공연 실적을 달성하였다. 극장의 전속단체를 포함한 7개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발레, 오페라, 연극, 현대무용 등 풍부한 장르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각 단체와 연계기획을 통해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립창극단의 판소리 일곱바탕 복원시리즈 〈배비장전〉, 국립무용단의 안무가초청 프로젝트 안성수 정구호의 〈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린이 음악회 〈땅속두더지 두디〉 등 전속단체별 특화된 공연 및 어린이 · 청소년 대상의 작품을 개발하였고, 2012-2020년까지 전속단체작품 35편, 국가브랜드 작품 5편 등 총 40편의 작품을 개발하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립창극단의 판소리5바탕 창극화 프로젝트 '세계거장시리즈', 국립무용단의 해외안무가초청 프로젝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해외작곡가 협업 프로젝트 등 국제협업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제공연예술협회(ISPA)와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연합회(APPAC) 총회 참가, 서울아트마켓 공동주관을 통해 국제공연예술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다. 국립레퍼토리 시즌 해외 초청작 〈크라이스 앤 위스퍼스〉는 루마니아 출신 세계적 연출가 안드레이 서반의 작품으로 획기적인 작품 해석으로 평단과 관객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객석점유율 100%를 달성하였고 안드레이 서반을 국립창극단 세계거장시리즈 〈춘향가〉 연출자로 섭외하여 장기적 협업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태숙(〈단테의 신곡〉, 〈장화홍련〉), 윤호진(〈서편제〉), 서재형(〈메디아〉) 등의 국내 저명 연출가와 극장의 기획력, 전속단체의 예술성을 결합시켜 연극과 뮤지컬에 집중되던 관객을 극장으로 유입, 연이은 매진 사례를 달성하였고, 국립극장 제3기 국가브랜드 〈단테의 신곡〉을 개발하여 고전 '신곡'을 원작으로 평단과 관객, 언론계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해오름극장 초연 7회 전석 매진, 유료객석점유율 91%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예술성 대중성을 겸비한 예술가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 음악에 대한 공감을 얻고, 젊은 관객을 유입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층을 확보하고자 기획한 국립극장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연관람 외에 관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워크숍', '여우톡', '여우락 스쿨' 등의 축제연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대학생기자단 및 여우락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국악축제 유료관객 100%(전체 객석점유율 121%)의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밖에도 지방공연을 통해 전국 15개 도시 1만여 관객에게 국립단체의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국의 지역 관객과 소통하였으며, 문화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정과제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권리보장과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전통공연예술의 저변확대 및 미래관객 개발 등을 위한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예술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안숙선 창극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성인 대상의 전통예술아카데미(한국무용, 판소리, 타악)'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인 '외국인국악아카데미(판소리, 한국무용)' 등의 실시로 어린이 · 청소년, 일반인

(청장년, 노년)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교수법을 개발하는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상설전시와 더불어 기획전시 〈73. 10. 17 국립극장, 남산시대를 열다〉('13. 7. 23 ~ '14. 2. 28)를 개최하여 약 3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기획전시는 국립극장 남산이전 40주년을 맞이하여 '남산시대'의 의미를 건축사적, 문화사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의의를 갖고 있다.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공연예술전문가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공연예술 주경야독〉(5월~ 12월, 16차) 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문화나눔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공연예술박물관〉 운영을 통해 약 1천여 명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립예술단체로부터 약 1천여 점의 귀중한 공연예술자료를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공연예술박물관 소장자료 3만 8천여 점을 디지털화 하고 온라인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사진 4-3-9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2013

* 출처 :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ntok.go.kr/

6) 국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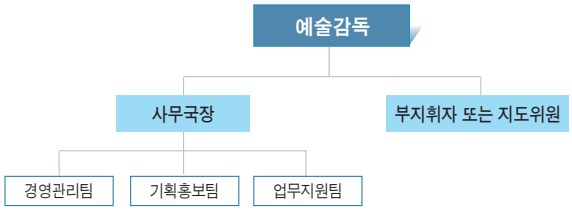
(1) 개관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 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5월에 창단되었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에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으로 독립하였다.

합창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국 3팀 경영관리팀, 기획홍보팀, 업무지원팀 및 부지휘자 또는 지

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7명, 단원 50명을 포함하여 총 5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8 국립합창단 조직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내 서예관 4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nationalchorus.or.kr

2013년도 총 예산은 4,515,88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정도 증가하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3,363,000천 원, 자체수입 1,152,886천 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인건비 2,541,248천 원, 경상운영비 503,514천 원, 사업비 1,260,375천 원, 예비비 210,749천 원이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2013년 국립합창단의 주요 공연으로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5회의 정기연주회와 2회의 신진지휘자 데뷔콘서트, 합창지휘자 경연대회,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 전국골든에이지합창단경연대회 등의 기획공연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을 비롯한 지방공연, 한국합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해외 연주와 다양한 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외부출연 등이 있다.

정기연주회에서는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합창 명곡들을 소개하고 순수한 합창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코자 146회 정기공연에서 바흐의 요한수난곡, 150회 정기공연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연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해외의 저명 지휘자를 초청하여 우리합창단이 가진 잠재적 능력들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의 완성도를 올림은 물론 합창단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 지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국립합창단이 되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코자 진행한 해외저명 지휘자 시리즈를 통해 미국의 149회 정기연주회에서 마이클 샤이비, 150회 정기연주회에서 독일의 빈프리트 톨 등이 지휘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우리의 창작합창곡들을 위촉 · 공모를 통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성 있는 작품들로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데 14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작곡가 11명에 의해 16곡의 가요, 가곡, 민요, 동요들을 편곡하여 연주한 창작합창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공연실황CD와 악보로 제작하여 국내의 합창관계자 및 애호가, 관객들에게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전국의 많은 프로 및 아마추어합창단에서 재공연되고 있다. 제14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리랑의 세계무형문화유산등재를 기념하는 대형 창작칸타타 '송 오브 아리랑'을 위촉하여 대본을 탁계석이, 작곡을 임준희가 맡아 총 400여명이 출연하여 우리 아리랑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인바 있는데 이 역시 공연 이후 다수의 합창단에서 재연하고 있어 우리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합창음악을 이끌어갈 합창지휘자 발굴 프로젝트로 국립합창단과 3개월간의 지휘자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후 각 테마별(남성 · 여성 · 혼성합창곡)로 지휘를 맡아 공식적인 연주회에 데뷔하게 되는 특별한 콘서트인 데뷔콘서트가 6월 27일과 11월 21일 개최되어 4명의 신진지휘자가 공식 데뷔하였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합창계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를 선발하고 합창지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며 국립합창단을 직접 지휘해 봄으로 합창지휘 전공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와 한국합창계의 발전을 위한 합창지휘 인적자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인 제2회 합창지휘경연대회 또한 3월 8일 개최되어 4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속에서 균형 있는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고교시절의 추억을 제공하고 합창이라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정서함양과 사회성 제고 및 예술경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7월 23일 연세대학교대강당에서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예선을 거친 전국의 16개 고교합창단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경연을 펼쳤으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합창과 함께 보람되고 활기찬 단체활동을 통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면서 의미 있는 노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고자 7~8월 전국의 8개 도시에서 예선을 거쳐 10월 10일 국립극장에서 전국 골든에이지(어르신)합창단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하여 18개의 어르신합창단들이 참여하여 경합을 펼친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지방 공연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기대에 부응하고 합창음악 저변을 위해 지역 시 · 군 · 구 등과 함께 공동주최, 초청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의 사업형식으로 한국창작 합창곡, 세계민요, 오페라 합창 등 국립합창단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레퍼토리들로 대구시민회관 재개관 기념공연, 대관령국제음악제 참가를 비롯하여 영덕, 연천, 완주, 계룡, 광양, 홍성 등의 지역을 순회하였다.

세계의 각국들을 순회하며 우수한 우리문화를 알리고 한국합창의 발전된 위상을 드높이고자 개최하는 국립합창단의 2013년 해외공연은 스위스 제네바 UN대표부와 베른의 내셔널극장을 비롯

하여 독일의 유서깊은 공연장인 슈투트가르트의 리더할레, 프링크푸르트의 알테오퍼, 자르뮤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된 딜링엔과 자르브뤼켄 등지에서 개최되었는데 세계의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현지의 많은 음악애호가들과 평론가들,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합창음악의 깊이와 수준을 전해주었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감당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7) 국립현대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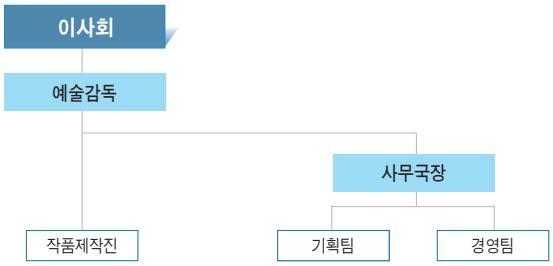
(1) 개관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8월에 창단한 재단법인으로,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활성화하고 현대무용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과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용예술의 창작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현대무용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을 선도하여 지역과 세대, 국경을 넘는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와 활발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민족문화 창달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조직은 1사무국과 1작품제작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기획팀과 경영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7명, 제작단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외 작품 창 · 제작 연구 및 관객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아카데미와 외부 전문 제작인력, 프로젝트 단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7억 5,7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5억 4,700만 원 및 자체수입금 2억 1,0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이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5억 6,477만 원, 경상운영비 5억 2,200만 원, 공연사업비 16억 1,923만 원, 예비비 5,100만 원이다.

2013년 한 해 8편의 신작 초연공연을 제작하였으며, 레퍼토리 공연을 포함 총 12건, 38회의 공연을 통해 13,871명의 국내외 관객에게 현대무용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현대무용의 저변확대 및 작품 창 · 제작을 위한 리서치와 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아카데미사업을 신설하여 일반인을 위한 무용학교, 미디어전시퍼포먼스, 창작네트워킹활성화사업, 출판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림 4-3-9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3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kncd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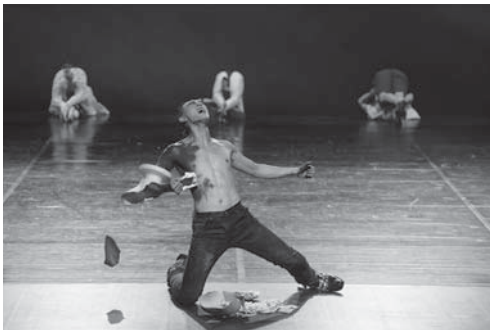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국립현대무용단은 국립예술단체로서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와 경험을 위한 매개체로서 동시대적 춤이 지닌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해는 시즌제 프로그래밍의 도입을 준비하고 체계적인 제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작과 제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순회공연과 해외공연의 확대, 일반인과 함께하는 무용학교 개설 등을 통해 계층과 지역,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현대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 현대무용 창작 및 제작

국립현대무용단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안무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작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였다.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동시대의 감성에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신작공연은 물론 그간 호응을 얻은 레퍼토리의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이 관객들과 만났다. 또한 해외의 안무가 초청공연을 통해 한국 무용수들의 창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적 감성이 어우러진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으로는 허상과 본질에 관한 이솝 우화적 소묘를 그린 예술감독 신작 〈개와 그림자〉, 비쥬얼 씨어터(Visual Theatre) 장르를 개척한 이스라엘 안무가 이디트 헤르만(Idit Herman) 초청작품 〈증발(Into Thin Air)〉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재개관 기념공연작 〈벽오금학〉을 제작하여 새로운 감각의 무대와 다양한 움직임으로 국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사진 4-3-10 국립현대무용단 2013 해외안무가초청공연 〈증발〉



* 출처 : 국립현대 무용단 http://www.kncdc.kr/

나. 타 장르와의 융 · 복합 및 새로운 공연형식의 개발

국립현대무용단은 현대무용 장르 및 극장공간에서 전개되는 공연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과 실험을 통해 무용 언어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객층을 발굴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11분』을 모티브로 재즈 라이브 연주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돋보였던 〈11분〉, 안무가들의 창작 신작에 토크와 해설이 곁들여진 〈댄스살롱〉, 현대무용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춤, 발레, 스트릿댄스 장르의 최고 무용수들의 춤과 이야기가 결합된 렉처 퍼포먼스 〈춤이 말하다〉, '몸과 미디어'를 주제로 춤과 춤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해 탐문하는 미디어 전시 퍼포먼스 〈몸과 미디어 사이〉 등 다양한 기획을 준비해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사진 4-3-11 국립현대무용단 2013 국내안무가초청공연 〈11분〉

* 출처 : 국립현대 무용단 http://www.kncdc.kr/

다. 지역순회공연 및 해외공연

국립현대무용단의 전국을 찾아가는 지역순회공연과 지역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연계교육 프로그램,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성과를 해외에 소개하는 해외공연 등은 공연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전년도 예술감독 신작 〈호시탐탐〉과 함께 2013년 해외안무가초청공연작품 〈증발〉로 강원 춘천, 태백, 경북 김천, 경남 함양, 전남 무안, 전북 부안 등지에서 '지역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순회공연 및 연계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호시탐탐〉으로 독일 뷔츠부르크 '유로파 탄츠(Europa Tanz)' 초청공연, 바트 홈부르크 극장(Bad Hombrug Theatre)의 '2013 댄스라인마인프로젝트' 초청 공연, 베를린에서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7월 취임한 안애순 신임 예술감독의 안무작 〈불쌍〉이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13(Art Summit Indonesia 2013)'에 초청되어 자카르타에서 공연하는 등 활발한 해외공연을 펼쳤다.

라. 담론 연구 및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국립현대무용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창작사업뿐만 아니라 현대무용 공연을 위한 담론 연구, 관객저변 확대와 심화를 위한 매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몸과 일상적 움직임을 재발견하고 춤에 대한 사유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무용학교 3건 21회, 미학자와 인문학자, 아티스트, 안무가 등이 참여하는 강좌와 연구과정을 통해 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담론을 전개하는 『컨템퍼러리 댄스 속 인문학』강좌 및 출판, 현대무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굴하여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카이빙 작업 등을 통해 컨템퍼러리의 이슈와 한국 현대무용의 현주소를 탐색하는 『K-contemporary』 출판, 다양한 장르 창작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통해 창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미디어전시 퍼포먼스 및 창작네트워킹 활성화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표 4-3-9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사업 실적

구분	공연명	건수	횟수	관람객수	객석점유율	비고
국내안무가초청공연	댄스살롱	1	6	1,180명	73.1%	자유소극장
예술감독 신작공연	개와 그림자	1	3	1,251명	62.4%	CJ토월극장
국내안무가초청공연	11분	1	4	1,028명	99.2%	자유소극장
해외안무가초청공연	증발	1	3	1,095명	51.6%	CJ토월극장
기획공연	벽오금학	1	3	1,060명	48.0%	CJ토월극장
송년기획공연	춤이 말하다	1	8	1,989명	95.3%	자유소극장

구분	공연명	건수	횟수	관람객수	객석점유율	비고
지역순회공연	호시탐탐	1	5	2,696명	71.3%	방방곡곡초청
해외초청공연	호시탐탐	1	2	1,250명	82.3%	독일초청
해외초청공연	호시탐탐 갈라	1	1	700명	94.7%	독일초청
해외초청공연	불쌍	1	1	1,000명	83.3%	인도네시아 초청
지역순회공연	증발	1	1	449명	89.8%	방방곡곡초청
창작네트워킹활성화사업	야광	1	1	173명	-	갤러리공연
합계		12	38	13,871명	72.8%	

표 4-3-10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부대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건수	횟수	참여자수	사업내역
아카데미	무용학교	3	21	36명	실기강좌 2건 인문학강좌 1건
	미디어전시퍼포먼스 〈몸과 미디어 사이〉	1	9	651명	퍼포먼스 6회 강연 1회 워크숍 1회 아티스트토크 1회
	출판물 간행	3	-	-	무용저널 1건 강좌강의록 1건 전시자료집 1건

8)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1) 개관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은 2008년 6월 통합운영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여 특성화된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은 해방 이후 문화예술의 산실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인 구 명동국립극장 건물을 1975년 11월에 민간에 매각한 이후 34년 만인 2009년 6월에 복원, 재개관한 역사적인 극장이다. 정동극장은 1908년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으로 문을 열었던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의 복원이념을 담고 1995년 6월 국립중앙극장 분관체제로 설립되었고, 199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은 각 극장의 관리운영 및 공연예술 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문화예술의 국내 · 외 교류사업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은 명동예술극장과 정동극장 2극장장의 책

임운영제로 운영되며, 각 극장별 경영 관리팀, 공연기획팀, 무대 예술팀으로 2극장장 6팀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44명(2극장장 포함)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10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명동예술극장), 서울시 중구 정동길 43(정동극장)
※ 누리집(홈페이지) : www.mdtheater.or.kr(명동예술극장), www.jeongdong.or.kr(정동극장)

2013년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총예산은 194억 99백만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금액은 63억 53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6%이다. 지출예산은 운영비 29.3%, 사업비 58.3%, 차기이월금 11.8%, 예비비 0.6%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11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2013	국고보조금	9,614,271	법인운영	5,706,792
	관광진흥개발기금	2,571,391	-인건비	2,734,785
	지방비	960,600	-경상운영비	2,972,007
	공연사업수입	4,609,997	예비비	119,692
	부대사업수입	281,178	공연사업	4,915,494
	기타수입	196,143	경주브랜드공연사업	3,994,507
	전기이월금	1,265,354	창작팩토리사업	1,617,776
			예술인턴사업	335,288
			전통공연 해외홍보	400,000
			방방곡곡사업	108,982
			차기이월금	2,300,403
	합 계	19,498,934	합 계	19,498,934

(2) 명동예술극장의 주요 추진성과

명동예술극장은 2013년 독자제작공연 5편, 국내 민간극단과 해외 공연단체의 공동제작 및 초청공연 6편 등 총11편의 공연을 제작 · 보급하여 객석점유율 84.5%, 유료객석점유율 74.8%를 달성하여 관객들의 명동예술극장표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공연인 〈Love,Love,Love〉, 〈햄릿〉 두 공연의 객석점유율이 각각 103.7%, 101.5%를 달성하는 등 공연별 관객수가 1만 명을 돌파하여 보다 많은 관객이 극장에서 제작하는 작품을 믿고 찾는 의미 있는 결과와 명동예술극장이 숫자로 세운 목표인 매 공연 서울 인구의 0.1%인 1만명 관객 달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광부화가들〉을 재공연함으로써 우수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시도하여 2014년 지방순회공연을 가진다. 또한 작품선정자문위원회, 공연평가위원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운영하여 극장 작품에 대해 예술성과 대중성, 대중과 연극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공연수입 극대화 실현에 노력하여 개관이후 역대 최다 공연수입(15.6억)을 달성하였다.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극단 컬티즌의 〈에이미〉, 연희단 거리패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을 초청하여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일본 세타가야 퍼블릭씨어터의 〈맥베스〉, 도쿄예술극장 예술감독인 노다 히데키의 〈THE BEE〉의 성공적인 초청공연을 통해 일본 공연단체와의 신뢰있는 협업관계를 구축하였고, 이 후 2014년 도쿄예술극장과의 공동제작 및 2016년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와의 공동제작을 추진하여 우리연극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시작한 생활예술사업은 극장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무료 생활예술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연극관객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는 동 사업의 질적 향상과 공연작품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연극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4-3-12 명동예술극장 생활예술사업 〈명례방 프로젝트〉

생활 예술사업 〈 명례방 프로젝트 〉	
아마추어 배우교실	관객으로 극장을 찾던 사람들이 직접 연극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 (오디션을 거쳐 대본분석, 대본 낭독, 연기, 발성훈련, 움직임 훈련 등 3개월에 걸친 훈련을 받은 후 무대에서 시연)
명동연극교실	• 대중강좌 : 연극의 테두리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는 인문학 강좌 개별 공연과 밀접한 주제를 채택, 공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전문강좌 : 세계 연극계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

생활 예술사업 〈 명례방 프로젝트 〉	
백 스테이지 투어	명동예술극장의 역사와 주요 공연에 대해 이야기 듣고 공연소품과 의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
기타	명동놀이마당, 명동시네마, 15분강의 등 예술을 매개로 극장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함.

사진 4-3-12 명동예술극장 생활예술사업

백스테이지 투어

아마추어배우교실

명동연극교실-최불암 강연

명동놀이마당

* 출처: 명동예술극장 www.mdtheater.or.kr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강연 프로그램 '명동연극교실'과 공연시작 전 15분간 공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15분강의',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직접 연극제작 과정에 참여, 공연을 선보이는 '아마추어배우교실'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이 돋보이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극장과 연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백 스테이지 투어'는 극장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명동놀이마당', '명동시네마'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극장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친밀감을 제고하였다.

명동예술극장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좌석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 중 특히 공연관람 경험이 제한적인 시청각 장애인 초청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서울맹학교 등 5개 기관 384명이 관람하였고 시각장애인 대상 성우 내레이션용 리시버, 청각장애인 대상 한글자막을 제공하여 문화나눔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네이버주식회사와 연간협찬을 통해 만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티켓(좌석등급 구분 없이 1만원에 판매)'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연극관람기회 확대 및 한국연극 미래관객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 4-3-13 명동예술극장 관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자체제작공연	5	115	37,119	77.5%	5	119	45,848	90.5
공동제작 및 초청공연	6	69	20,064	69.4%	6	74	22,960	74.8
생활예술사업	10	78	10,108	-	10	56	8,443	-
대관사업	2	35	8,565	68.9%	-	-	-	-
계	23	297	75,856	75.2%	21	249	77,251	84.5

※대관실적 – 2012년도 국립극단 2작품 대관

(3) 정동극장의 주요 추진성과

정동극장은 전통의 대중화와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 1997년부터 17년간 전통공연의 명맥을 지켜왔다. 1998년 무용, 기악, 풍물 등 장르별 옴니버스형식의 '전통예술무대'로 시작해 2008년 전통공연브랜드 [MISO:미소]를 런칭, 2009년 무용극 〈춘향연가〉를 창작초연하며 서울외신기자클럽 공연작품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 본격 상설공연시스템을 도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관객 10만 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해외관객선정 공연만족도 1위로 꼽히는 등 전통상설공연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국을 찾는 해외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세와 공연콘텐츠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본격화된 정동극장의 전통상설공연사업은 타 공공극장과 구분되는 차별화 전략으로 문화관광시장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동극장은 전통공연제작 · 마케팅 역량을 지역으로 펼쳐 2011년부터 경주브랜드공연 〈신국의 땅, 신라〉를 연중 상설 공연하며 지방 문화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동극장은 고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울 · 경주 상설공연 '객석나눔',

'찾아가는 정동극장'(재능기부), 일반 시민 대상의 '정동문화나들이', '공개오디션', '명동 야외마당', 지역 문화소외지역 대상의 '토요문화학교', '방방곡곡 공연' 등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현하였다.

나아가 정동극장은 전통공연 관객 1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미래 100만 명의 관객을 향한다는 비전으로 기획공연 〈배비장전〉의 해외공연시장 진출, 신진 전통창작예술가 발굴사업 [전통창작발견프로젝트-100만원의 씨앗], 어린이 전통공연 제작, 시민을 위한 야외공연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공연사업을 펼쳐 전통공연 제작극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14 정동극장 관객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상설공연 '미소'	615	106,596	61.9%	621	136,958	78.8%	619	108,501	62.6%
외주공연	20	16,264	-	21	10,002	-	7	4,442	-
해외공연	30	10,693	-	12	4,040	-	32	18,950	-
공익공연	22	6,346	-	30	9,270	-	22	4,874	-
기타	22	4,569	-	15	2,994	-	12	2,765	-
계	709	144,468	-	699	163,263	-	692	139,532	-

※ 기타 : 자체 기획공연, 교육공연(문화특활) 등

표 4-3-15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상설공연 '미소2'	149	26,757	37.9%	303	49,142	34.2%	301	46,412	32.5%
외주공연	3	3,150	-	11	5,757	-	6	3,570	-
해외공연	-	-	-	-	-	-	18	11,822	-
공익공연	59	24,867	-	1	585	-	1	435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기타	3	607	-	5	2,143	-	7	2,461	-
계	214	55,381	-	320	57,627	-	333	64,700	-

※ 기타 : 자체 기획공연, 교육공연(문화특활) 등

사진 4-3-13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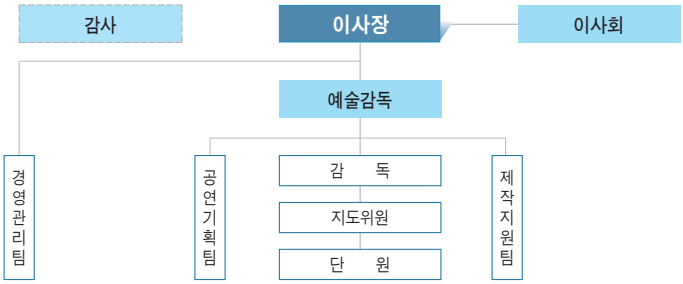
정동극장

9) 서울예술단

(1) 개관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 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 산하단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가무극'이라는 예술형식을 통해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문화콘텐츠를 발굴, 무대화하여 관객들에게 한국적 감성을 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공예술단체로서 지방 및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을 통하여 많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수혜를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연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한 한국적 창작가무극 레퍼토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인재양성, 새로운 관객층 개발 등 한국 공연예술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조직은 예술감독실 1개 실과 공연기획팀, 제작지원팀, 경영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직원 13명, 단원 53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11 서울예술단 조직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순환 로 2406 예술의전당내
※ 누리집(홈페이지) : www.spac.or.kr

2013년도 총예산은 6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 증가하였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0억 8,700만 원의 지원금과 자체수입 19억 3,800만 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사업비 25억 8,240만 원, 인건비 26억 4,805만 원, 경상비 7억 9,455만 원이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전통문화의 가치 발굴 및 현대적 기법을 융합한 근대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를 시작으로 '잃어버린 얼굴 1895', '푸른 눈 박연' 등을 통해 가무극 시리즈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완성도와 인지도를 높여 국내 대표 브랜드로서의 한국 창작 가무극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6월 전통축제 참여, 제22회 순천전국무용제 개막공연, F1영암 코리아 그랑프리 그리드 행사, 홍콩 한국시월문화제 개막공연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사진 4-3-14 한국 창작 가무극 개발

사진 4-3-15 홍콩 한국시월문화제 개막공연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1.18~3.8)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쉽고 재미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예술단은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자 정기공연 전체 객석의 10% 정도를 문화 소외계층 대상의 객석 나눔으로 할당하여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그 수혜대상은 2,333명이다. 서울예술단은 앞으로도 문화나눔 수혜대상을 3D 업종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까지도 확대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와 공공예술단체로서의 문화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4-3-16 서울예술단 주요 추진성과(2013)

구 분	성 과	주 요 내 용
정기공연	3건/27회	○ 우수 작품의 정기공연을 통해 한국적 창작 가무극의 발전 도모 ○ 국민 문화정서 함양에 기여
지방공연	10지역/25회	○ 문화향유권 확대, 창작 가무극 인구 저변 확대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연 실시
해외공연	1건/2회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문화경쟁력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한국적 가무악의 공연 한류 활성화를 위한 공연 실시
특별공연	4건/5회	○ 지역축제 및 국가 주요행사 참가를 통한 공익성 제고
교육진흥	1건/25명	○ 중고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나눔	6건/2,333명	○ 문화소외계층 객석 나눔을 통한 공공예술단체로서의 공공성 강화

10) 예술경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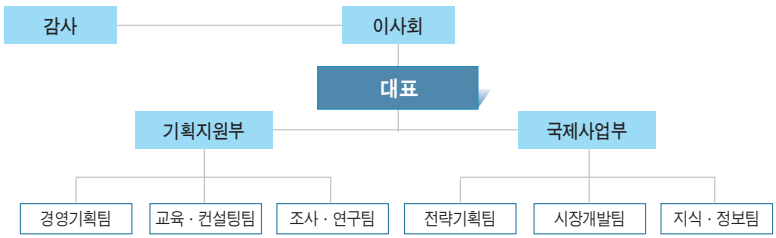
(1) 개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며, 2006년 1월 12일 설립 이래 한국 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예술유통의 활성화,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 · 관리 · 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 매개지원 사업 등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사장 1인(비상임), 대표(상임) 1인, 이사 11인(비상임9 · 당연직2),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2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기획지원부와 국제사업부로 나누어지며 경영기획팀, 교육 · 컨설팅 팀, 조사 · 연구팀. 전략기획팀, 시장개발팀, 지식 · 정보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12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교육동 3층, 12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gokams.or.kr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 '서울아트마켓(PAMS)'을 기반으로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장개발 및 맞춤지원을 주관한다. 유럽, 북미, 중남미 및 아시아 · 오세아니아 등 권역별 주요 공연예술 시장을 발굴하여 공연예술 작품의 해외진출 매개지원을 수행하며 특히 현지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이 적극 선정 · 발굴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교섭성과가 매우 높고, 해외시장에서 후속적인 교류 및 투어 등 교섭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표 4-3-17 공연예술 국제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년도	팸스초이스 선정 작품수					팸스초이스 선정작 년도별 사후 해외진출 성과	
	연극	무용	음악	복합	총계	진출 작품 수	해외 진출 건수
2005	5	2	4	2	13	10	14
2006	9	12	4	4	29	10	14
2007	4	8	3	3	18	26	86
2008	4	5	3	4	16	34	78
2009	4	6	3	2	15	28	106
2010	2	4	4	3	13	29	110
2011	4	4	4	1	13	28	116
2012	3	3	4	3	13	38	125
2013	2	2	4	2	10	41	131
누계	37	46	33	24	140	234	766

표 4-3-18 2010~2013년도 센터스테이지코리아 수혜단체 외화 수입

(단위: 천 원)

진출년도	구분	공연료수입	기타수입	비고
2010	5단체/39회 공연	183,400	-	
2011	9단체/36회 공연	151,560	18,000	티켓수익 분배 등
2012	21개 단체/118회 공연	308,288	179,935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3	16개 단체/63회 공연	309,963	85,984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또한 해외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중장기 플랜의 공연예술 글로벌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연예술 현장의 국제교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표 4-3-19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

권역	특징	진출형태	진출장르
서유럽	- 해외진출 전략국가(영, 프, 독) 포함 권역 - 해외진출 플랫폼 및 마켓 역할을 하는 대표적 축제와 장르별 특화 마켓 개최	특집 및 투어 쇼 케이스	복합, 무용, 음악
동유럽	- 정부의 적극적 예산 투여와 함께 국제적 문화행사 다수 개최 - 공연장, 축제 연계 특집 및 권역 내 투어 가능	특집 및 투어	연극, 음악
북유럽	- 노르딕 국가 네트워크 활용 기금 및 투어 수월	투어	무용, 어린이극
북미	- APAP, CINARS 등 공연예술마켓 개최 - 영미국가(영국 및 호주), 중미(멕시코) 권역과 연계 가능 - 경제위기로 수익창출이 저조하여, 쇼 케이스 또는 현지 지원기관과 연계한 투어가 효과적	쇼 케이스 투어	무용, 음악
중남미	- 유럽 내 스페 인어권 및 북미권역 투어 연계 가능 - 타 권역에 비해 기존 진출 실적이 저조하나 투어 연계 및 공연 수익 진출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개발 필요	투어	복합, 무용, 음악
오세아니아	- 권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권역 내 국가, 국가 내 도시 투어가 용이함	투어	연극, 복합

이상과 같이 한국공연예술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미국 국립공연네트워크(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댄스 인 포 핀란드(Dance info), 유럽 월드뮤직축제포럼(EFWMF),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월드뮤직엑스포(The World Music Expo)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는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제도 활성화 및 예술경영 컨설팅을 주관하고 있는데, 예술경영 컨설팅은 문화예술 기관 · 단체의 설립에서부터 법률, 세무 · 회계, 재원조성, 인사 · 노무, 홍보 · 마케팅, 사회적 기업, 저작권 · 계약, 국제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근 8년간 총 4,280건의 상시 및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민간 지원기관으로 지정,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특화컨설팅을 수행(2011~2012년도)하였으며 2013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표 4-3-20 2006~2013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년도	수시 컨설팅 (온라인, 전문기관 연계 형)	맞춤형 전략 컨설팅 (지역,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	합계
2006	53	14	67
2007	101	15	116
2008	153	100	253
2009	354	83	437
2010	698	138	836
2011	561	320	881
2012	566	380	946
2013	575	169	744
합 계	3,061	1,219	4,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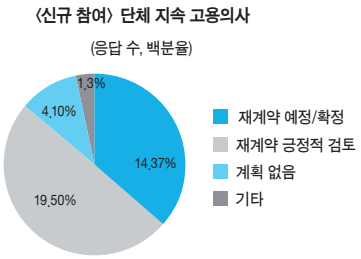
예술기관(단체)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기획 · 경영 전문 인력 배치지원과 예술경영 아카데미를 기획 · 운영한다. 예술현장에서 취약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의 인력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예술현장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이론 융합 형 교육 프로그램(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을 개발하여 최근 7년간 144개 교육과정 개설 및 8,136명의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표 4-3-21 2007~2013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수강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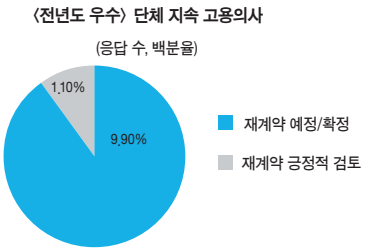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과정 수(개)	5	16	29	28	19	18	29	144
수강자수(명)	375	706	1,802	1,932	1,099	950	1,272	8,136

특히 인력 배치지원 사업(2013년도 56개 단체 대상, 총 63명의 기획경영 인력 인건비 지원)의 경우, 2013년도 현장배치지원 신규참여단체는 87%, 전년도 우수단체는 100%가 배치인력 '재계약 확정' 또는 '긍정적 검토' 등 지원 이후 계속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4-3-13 현장배치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고용 안정 효과(2013)



"응답 단체의 87%에서 인력의 계속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응답 단체의 100%에서 인력의 계속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이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산업 콘텐츠 창작 · 기획 · 제작 전문 인력 대상 한류아카데미 탁(TAK) 정규과정 개발 및 운영, 전통콘텐츠 포럼 개최 등으로 교육 수혜자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 · 관리 · 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연예술분야 통계 및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연 · 전통예술 행사, 시각예술분야사업,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평가 및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정책 기반의 환류를 조성하였다. 국내 유일의 예술경영 전문 웹진 weekly@예술경영,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식정보 온라인 플랫폼 더 아프로(theApro), 현대미술 국제교류 플랫폼 더아트로(theArtro)를 기획 · 운영하며 국 · 영문 뉴스레터 기획 · 발송 및 문화예술 기관 ·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술현장 및 정책적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지식 ·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표 4-3-22 예술경영 및 국제교류 지식 · 정보 제공

매체명	구분	내용	콘텐츠 수집 방법	비고
센터 홈페이지	국영문	센터사업소개, 현장소식 등	수집/생산	수시
웹진	국문	예술경영 이슈, 사례, 정보 제공	수집/생산	매주 목 발행, 평균 3~4건
더아프로	국문	해외 공연계 이슈, 인물, 정보	수집/생산	매월 3주 화, 평균 4건
theApro	영문	한국 공연예술 정보, 인물	수집/생산	매월 1주 화, 평균 4건
더아트로	국문	국내외 시각예술계 이슈, 인물, 정보	수집/생산	매주 화, 평균 4건
theArtro	영문	국내 시각예술계정보, 인물, 이슈	수집/생산	매월 4주 화, 평균 2건
국문 뉴스레터	국문	웹진/더아프로/더아트로 최신기사, 센터, 현장 정보	수집	매주 목

매체명	구분	내용	콘텐츠 수집 방법	비고
KAMS news letter	영문	센터 국제사업 소식, 한국단체 해외 투어 등 소개	수집	매월 1주 화

11)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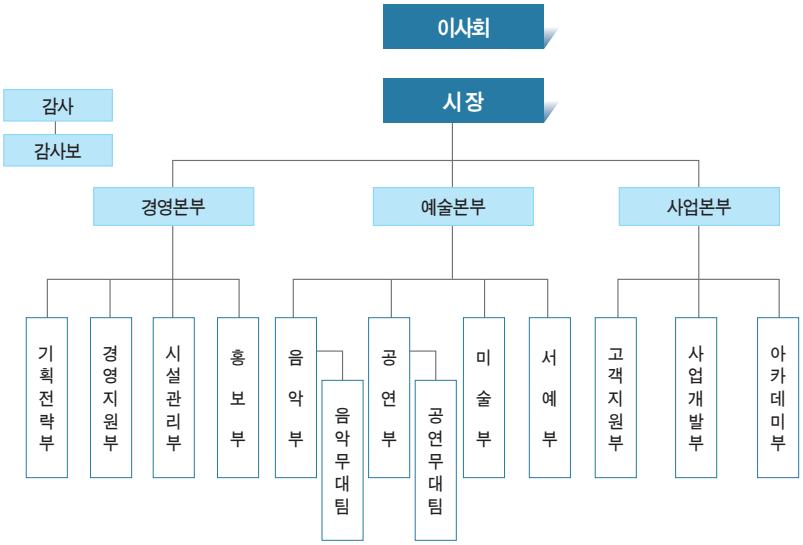
(1) 개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7년 재단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음악당과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993년 오페라하우스 등 전관 개관을 맞으며 국내 최대의 복합 예술 공간이자 최초의 장르별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하였다. 1982년 종합문화센터를 구상한 이래 10년이 넘는 역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예술의전당은 현재 오페라하우스에 위치한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과 음악당에 위치한 콘서트홀, IBK챔버 홀, 리사이틀 홀 등 총 6개 공연장과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등 3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고 2012년 관람객 4천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표 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이사장, 사장,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3본부 11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본부는 기획전략부,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홍보부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본부는 음악부, 공연부, 전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본부는 고객지원부, 사업개발부, 아카데미부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전당은 총 정원 122명으로, 사장 1명, 1급 2명, 2급 7명, 3급 16명, 4급 38명, 5급 31명, 6급 27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2013년도 예산은 4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금이 374억 원으로 예산상 재정자립률은 75.4%이다. 수입예산 중 예술사업(대관, 부대사업 포함)수입은 340억 원으로 68.7%를 차지하며, 지출예산 중 예술사업비(대관, 부대사업 포함)는 170억 원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3-14 예술의전당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 누리집(홈페이지) : www.sac.or.kr

표 4-3-23 예술의전당 예산

(단위: 천 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ㅇ 국고보조금	12,222,000	ㅇ 예술 사업비	7,775,392
ㅇ 예술 사업 수입	11,075,969	- 공연사업	4,460,858
- 공연사업	6,180,804	- 전시사업	1,193,462
- 전시사업	1,219,450	- 교육사업	2,121,072
- 교육사업	3,675,715	ㅇ 부대사업	8,182,476
ㅇ 부대사업	12,914,400	- 부대사업	6,411,646
- 부대사업	10,032,000	- 마케팅사업	1,770,830
- 마케팅사업	2,882,400	ㅇ 관리운영비	2,627,612
ㅇ 대관사업	10,098,837	ㅇ 대관사업비	998,539
ㅇ 임대사업수입	2,512,196	ㅇ 경상운영비	11,623,872
ㅇ 기타수입	806,598	- 인건비	8,421,186
- 이자수입	5,000	- 경상사무비	3,202,686
- 후원금수입	450,000	ㅇ 공간유지비	17,237,347
- 기타수입	351,598	- 시설유지비	11,457,347
		- 시설개보수비	5,780,000
		ㅇ 예비비	1,184,762
합계	49,630,000	합계	49,630,000

예술의전당 총 면적은 166,478㎡이고 건축 연면적은 121,716㎡이다. 이 부지 위에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IBK 챔버홀, 리사이트홀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당이 자리하고 있다. 시각예술을 위한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과 각종 야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신세계 스퀘어와 야외무대, 방문객의 휴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광장으로 옥외공간이 꾸며져 있다. 특히, 2008년 조성된 비타민스테이션은 주 출입구에서부터 각 공간까지 쾌적한 환경의 동선을 제공하며 매표, 종합안내, 미팅포인트, 다양한 식음료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4-3-24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공간내용	규모		비고
오페라하우스 43,870㎡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2,305석 1,004석 350석	공연예술공간 -오페라,발레,무용,연극 등
음악당 19,950㎡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2,523석 600석 354석	관현악, 독주, 실내악 등
한가람미술관 15,744㎡	전시실 강의 실기실	6실 4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서울서예박물관 8,530㎡	전시실 강의 실기실	2개층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11,854㎡	전시실 강의 실기실	3실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국립 예술자료원		자료실
카페 모차르트 243㎡	방시설 및 좌석 100여 석		휴게시설
문화광장 및 기타공간 22,000㎡	음악광장, 미술광장, 계단광장 세계음악분수, 우면지 신세계 야외무대(551m2/1,000석)		야외공연, 행사 음악분수 쇼 휴게공간 등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내 최초의 장르별 전문공연장으로 탄생된 예술의전당은 기존 극장공간 관리차원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연장 주도의 공연기획과 공연제작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철학의 기초위에 1988년 음악당에 이어 1993년 오페라하우스를 성공적으로 개관하였고, 2013년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3년 개관 25주년을 맞아 클래식 음악 부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기획공연들이 음악당 무대에 올랐다.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Festival 25'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대표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린 월드 클래식 스타들을 초청하는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를 개최했다. 개관기념일인 2월 15일 사라 장의 협연 무대를 시작으로 4월에는 독보적인 고운 음색을 자랑하는 신영옥과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장한나,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한 조수미가 무대에 올랐다. 작곡가 한 명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젝트인 〈Great Composer Series-차이콥스키〉, 우리나라 클래식계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콘서트홀 무대에 설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해 준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가 콘서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이 외에도, 실내악 중심의 레퍼토리로 기존 콘서트와는 색다른 무대를 보여준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한 콘서트 오페라 〈리골레토〉와 〈라 트라비아타〉, 예술의전당 대표 기획 프로그램인 〈11시 콘서트〉와 〈토요 콘서트〉, 25회째를 맞은 〈교향악축제〉, 매년 매진행렬을 이어가는 〈제야음악회〉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오페라하우스는 'Festival 25'라는 이름 아래 다채로운 공연들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국립오페라단의 〈돈 카를로〉는 각기 최고 기량의 정상급 무용수와 성악가가 출연한 대작으로 개관 25주년 축하공연의 화려한 서막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과 〈제4회 대한민국 발레축제〉가 무대에 올랐다. 해마다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며 연말 프로그램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1년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월 재개관한 CJ 토월극장에서는 다양한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톨스토이의 원작의 〈부활〉,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게오르그 뷔히너의 걸작 〈당통의 죽음〉, 일본 신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연극〈아시아 온천〉으로 CJ 토월극장의 위상을 연극계에 각인시켰다. 또한 2년 만에 무대에 올린 가족오페라 〈투란도트〉는 중극장 오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유소극장에서는 '한국 근대 리얼리즘 명작선' 연극 〈만선〉과 〈혈맥〉이, 세계 고전명작 체호프의 〈세 자매〉가 무대에 올랐다. 어린이연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 리바이벌 화제작 〈레드〉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새롭게 시도한 신진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NArT 초청공연〉은 차세대 유망 예술인들이 자유소극장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주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한가람미술관은 여러 장르의 현대미술 전시를 통해 재미와 감동,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고자 노력했다. 건축과 회화, 사진을 융합시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인 '조르쥬 루쓰'의 〈공간 · 픽션 · 사진〉전, 국내에서 대규모로 처음 시도된 원화 없는 디지털 명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시크릿뮤지엄〉, 11주년을 맞이한 〈미술과 놀이〉, 상업과 순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응용 재창조한 아

르누보의 대표작가 〈알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등이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을 자극하였다.

서울서예박물관은 서예가 동서양의 추상 · 구상 미술에 끼친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상관성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대미술과 서예 – 그리기와 쓰기의 접점에서〉전은 작가의 국적이나 작품의 연대기적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와 그리기에 대한 작가의 입장, 조형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했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 중 서예의 미학을 흡수하여 현대 추상미술의 맥락에서 풀어낸 작품을 추가하여 서예와 회화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두 예술 장르가 어떻게 영역을 구분하고 기능할지를 모색함으로써 서예 전시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야외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과 〈대한민국 발레축제〉 기념공연, 〈한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와 〈가을밤 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로 야외 무료 공연이 기획되어 예술의전당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미래고객 개발을 위해 공연 · 전시활동뿐 아니라 교육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음악, 미술, 서예 등 예술전반에 대한 영재 육성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의 예술의전당 '아카데미'는 전문 강사들의 알찬 강의내용과 예술의전당 교육 노하우가 어우러져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3년 한 해 약 9천여 명의 수강생을 지도하며 생활예술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담당했다.

표 4-3-25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08~2013)

		공연	전시	행사
2008년	행사내역	21건 143회	7건 239일	1건 23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5건 75회 ○ 음 악 당 : 16건 68회	○ 미술관 : 5건 197일 ○ 서예관 : 2건 42일	○ 옥외 : 1건 23회
2009년	행사내역	22건 144회	18건 726일	○ 옥외 : 14건 35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7건 77회 ○ 음 악 당 : 15건 67회	○ 미술관 : 13건 450일 ○ 서예관 : 5건 276일	○ 옥외 : 1건 23회
2010년	행사내역	22건 152회	15건 938일	○ 옥외 : 2건 16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5건 64회 ○ 음 악 당 : 17건 88회	○ 미술관 : 10건 776일 ○ 서예관 : 5건 162일	
2011년	행사내역	26건 230회	19건 544일	○ 옥외 : 6건 10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9건 94회 ○ 음 악 당 : 17건 136회	○ 미술관 : 13건 414일 ○ 서예관 : 6건 130일	

		공연	전시	행사
2012년	행사내역	28건 237회	22건 828일	○ 옥외 : 21건 28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11건 143회 ○ 음 악 당 : 17건 94회	○ 미술관 : 16건 593일 ○ 서예관 : 6건 235일	
2013년	행사내역	28건 237회	22건 828일	○ 옥외 : 21건 28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11건 143회 ○ 음 악 당 : 17건 94회	○ 미술관 : 16건 593일 ○ 서예관 : 6건 23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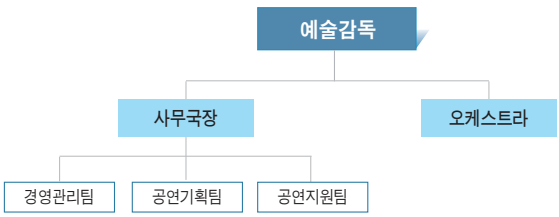
※ 기획행사는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행사와 공동주최 행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미술관 전시 내역은 한가람미술관과 디자인 미술관 전시행사를 합친 수치임.

12)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1) 개관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985년 3월에 창단되었고, 1987년 7월 국립극장 전속교향악단 약정, 1989년 3월 (사)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 2000년 5월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약정체결, 2001년 3월 (재)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여 연간 10회의 자체 연주회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전담하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은 사무국 1국, 3팀(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팀) 및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9명, 단원 100명을 포함하여 총 1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15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내 서예관4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koreansymphony.com

2013년도 총예산은 43억 408만 원 규모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28억 8,750만 원, 자체수입 14억 1,658만 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공연사업비 23억 6,990만 원, 인건비 12억 1,760만 원, 경상운

영비 6억 4,104만 원이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등 수준 높은 연주회 개최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 전담과 문화 나눔을 통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 성과

2013년에는 총 87회의 연주회가 시행되었다.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2회,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 국립발레, 국립합창)의 협연이 43회이며, 자체기획(정기6회, 기획4회, 해외2회) 12회, 방방곡곡 사업을 포함 외부기획 연주 20회로 시행되었다. 총 6회 진행한 정기연주회는 상임지휘자 최희준의 지휘에 따른 대중적 인지도 향상과 시즌 단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각각의 정기연주회가 특색을 갖추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기획으로 꾸준한 고정 관객 개발과 연주 전 렉처콘서트를 통하여 연주의 이해도를 도왔다. 184회는 상임지휘자 최희준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연주, 185회는 최희준 지휘와 소프라노 로미 페트릭 협연, 186회는 크리스티안 에발트 지휘와 첼로 조영창. 비올라 김상진 협연, 187회는 오보에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지휘와 협연, 188회는 최희준 지휘와 피아노 바르단 마미코니안협연, 189회는 최희준 지휘와 바이올린 스테판 피 재키브의 협연으로 진행하였다.

기획연주는 6회를 진행하였다. 미취학 아동 및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키즈 콘서트 2회, 유망주 발굴을 위한 라이징 스타 1회, 송년음악회 및 아시아 투어 해외연주(태국. 싱가포르)를 통하여 해외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재외 국민에겐 자부심을 고취하는 문화 홍보의 역할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으로서 1월 4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예술의전당 대표적 기획공연인 11시 콘서트 8회 연주와 서울 및 지방의 오케스트라의 축제인 교향악 축제, 예술의전당 개관25주년 특별연주 2회 등 기획공연을 전담하며 쌓아온 연주력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총 12회의 연주를 하였다.

또한 국립예술단체 전담 오케스트라로서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우선 수행하고, 원활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국립단체 공연의 성공과 예술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공연 26회 연주(로미오 와 줄리엣 5회, 라 바야데르 7회, 차이코프스키 4회, 호두까기 인형 10회)와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15회 연주(팔스타프 4회, 파르지팔 3회, 라보엠 5회, 갈라 콘서트 3회) 국립합창단의 공연 2회 연주(송 오브 아리랑 1회. 창단40주년 정기연주 1회) 등 총 43회의 국립단체 공연을 연주 하였다,

외부연주는 2월 대통령 취임식 연주. 3월 모테트합창 정기연주. 4월 김희성 오르간연주, 백양 콘서트 연주. 5월 고궁음악회. 6월 마티네 콘서트. 7월 심포닉 시리즈, 10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아이다. 11월 한국 창작음악제, 12월 보건복지부 꿈을 그리는 연주회 등 총 14회의 외부연주를 진행하였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방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관객에게 제공되었던 교향악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공연 6회(함안, 의령, 화순, 서산, 경산, 철원) 와 연계사업 4회를 통하여 지방공연문화 활성화에도 함께하였다. 연계사업은 작은 규모의 실내악 팀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직접악기를 연주하며, 감상하는 작은 음악교실을 열기도 하였다. 국립예술단체 협연 연주의 성공적 연주 및 연주성과 향상을 통해 국립예술단체 전속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식 연주를 통하여 국고 수혜단체로서의 공공성 역할과 고궁음악회. 심포닉 시리즈. 마티네 콘서트. 한국창작 음악제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하여 연주력 향상 및 관객 문화향유 증진에도 열심을 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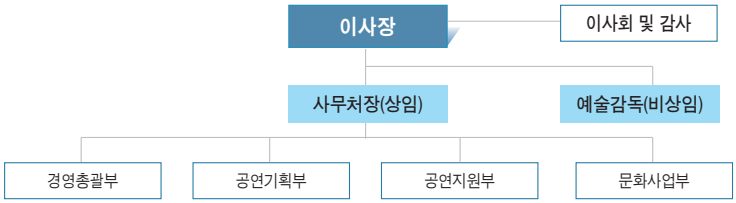
13) 한국공연예술센터

(1) 개관

한국공연예술센터는 1981년 개관한 아르코예술극장과 2009년 개관한 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대학로공연예술센터로 설립된 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7월 전문예술법인, 2011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창의적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동시대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미션으로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인 발굴, 새 개념 공연예술작품육성, 주제별 공연 기획시스템 운영, 지속가능한 우수공연 활성화,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의 5대 중점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해 왔다. 2013년 하반기에는 '창조적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연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품격있는 공연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이라는 비전2018을 새롭게 정립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무용중심으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연극중심으로 운영하여 장르별 공연장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대 중점 목표를 바탕으로 공연 프로그램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지원금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을 지양하면서 타 극장들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대관료 책정으로 매년 90%가 넘는 가동율을 통해 많은 공연예술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공연할 수 있는 최상의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티켓발권 시스템, 홍보 · 마케팅 지원, 공연장 서비스 인력 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을 취하며 공연예술단체의 보다 편리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마로니에 여름축제를 통해 대학로 지역 활성화 노력 등 공연예술센터로서 다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조직은 경영총괄부, 공연기획부, 공연지원부, 문화사업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5명(이사장 포함)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16 한국공연예술센터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 누리집(홈페이지) : www.koreapac.kr

2013년 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 예산은 총 8,000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6,384백만 원이며 자체수입금액은 1,616백만 원이다. 연수단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학로 코미디페스티벌, 소극장임대운영사업을 기타 보조금 사업 2,210백만 원으로 운영하였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한국공연예술센터는 5대 중점 목표를 바탕으로, 공연사업을 제작, 기획, 대관 공연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을 차별화 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작공연은 5대 중점 목표 중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였다.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 발굴을 목표로 '2013 봄 작가, 겨울무대', '2012 봄 작가, 겨울무대 우수작 재공연', '2013 한팩 라이징스타' 3건, 주제별 공연 작품 육성은 '2013 한팩 솔로이스트' 1건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마로니에 여름축제' 2건의 축제 사업 및 관객참여형 교육프로그램 1건(관객이무대에서다), 별도예산 사업 2건(차세대안무가클래스 쇼 케이스, 제3회 대학로코미디페스티벌)을 포함하여 총 9건의 공연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차세대 분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육성사업으로서 센터 내 · 외부 연관사업과 연계 ·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춘 단막극제 – 봄 작가, 겨울무대 – 우수작 재공연 – 공연 단체 레퍼토리화)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31건의 기획공연에 대해 대관료 50% 할인과 일부 단체 제작비 지원 외, 공연장 현장 서비스 인력 지원, 홍보 · 마케팅 지원, 무대 스태프(조명, 음향, 무대)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공연실황촬영지원 등의 '간접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공연 단체의 제작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공연 조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공연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최상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 서비스인력의 정기적 교육실시 및 공연장 현장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연정보 제공에서 예매, 관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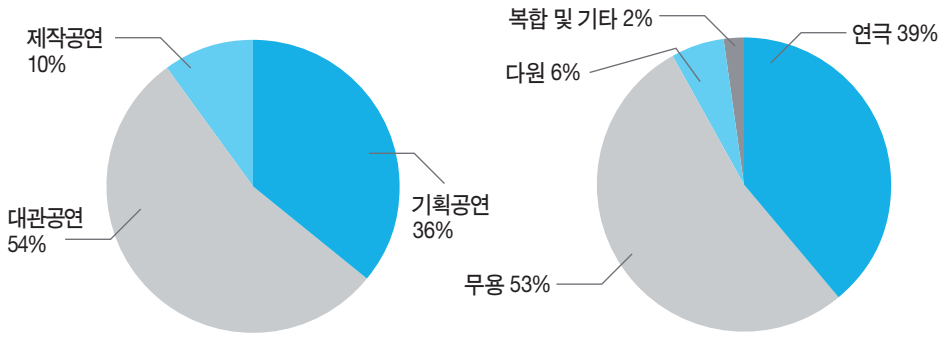
2012년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총 108건(399편)의 연극, 무용, 다원 분야의 공연을 개최하여 기초예술 육성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왔다. 대관 형태별로는 자체제작공연 11건(80편), 기획공연 39건(98편), 대관공연은 58건(221편)이며, 장르별로는 연극 39%, 무용 53%, 다원 6%, 복합 및 기타 2%이다. 2013년에는 총 114건(387편)의 연극, 무용, 다원 분야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대관 형태별로는 자체제작공연 12건(74편), 기획공연 31건(107편), 대관공연은 71건(206편)이며, 장르별로는 연극 28%, 무용 69%, 다원 3% 등이다.

표 4-3-26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실적

구분	자체제작공연		기획공연		대관공연	
	건수	편수	건수	편수	건수	편수
2010년	4	24	49	76	47	215
2011년	9	76	38	73	49	224
2012년	11	80	39	98	58	221
2013년	12	74	31	107	71	206

※ '편수'는 공연 1건당 포함된 세부작품 편수임. 예를 들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건은 36편의 각기 다른 작품을 공연했음.

그림 4-3-17 한국공연예술센터 대관 형태별 · 장르별 비율(건수 기준)



대관 형태별 비율(건수 기준) 장르별 비율(건수 기준)

표 4-3-27 한국공연예술센터 관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제작	80	157	28,812	64%	74	179	31,552	78%
기획	98	346	56,897	69%	107	279	46,076	63%
대관	221	473	89,869	52%	206	510	94,028	65%
계	399	976	175,578	59%	387	968	171,656	66%

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 개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을 위해 1996년 3월에 설립되었다.

무대장치 제작 및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무대예술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03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무대예술센터를 건립하였고, 2007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전국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다. 조직 구성은 1처 3부 1센터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15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3년 예산은 총 24,534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642백만 원, 문예 진흥기금 16,743백만 원, 자체수입금액 1,149백만 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4-3-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조직도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406 예술의전당내 서예관 3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kocaca.or.kr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13년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문화 예술회관 활성화' 부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인력양성 기반 구축 및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10개 과정, 2,148명 지원), 연수단원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70개 기관, 81명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국내 · 외 문화예술회관 정보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6개 문화예술회관 포상),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최로 공연유통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322개 기관 및 단체, 9,329명 참가) 문화예술회관 종합 컨설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21개 기관 컨설팅)와 문화예술회관의 정확한 기술정보를 구축(20개 기관)하였다. 이외에도, 사랑티켓 사업(2,615개 작품, 445,496명)과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9개 기관, 9,162명 관람)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극대화에 기여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 진흥 및 향유기회 확대'부분에서는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861회 공연, 434,104명 관람)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153회 공연, 65,920명 관람)을 통하여 지역민 및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였다. 또한, 2013년에 신규로 실시된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 지원 사업은 19개 문화예술회관이 특성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향유 기회 극대화에 기여하였으며,(81,561명)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감상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76개 문예회관, 24,576명) 한편,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전국의 소외지역과 특별 기획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2,127회 공연, 535,065명이 관람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능 강화를 통하여 7개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별 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7개 지회, 총 10회),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제4절 전통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006년 9월 27일 발표된 '전통예술활성화 방안 비전 2010'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 · 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전통예술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아울러 전통예술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전통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산업화, 전통예술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화 등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창작활성화, 해외 국악보급, 아리랑 세계화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에 52회째를 맞은 한국 민속 예술축제는 반세기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원형이 훼손되거나 지역별 · 장르별로 편중되어 전승되어 온 전통예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자유로운 창작을 통해 전통이 현대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문화예술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쳤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07년에는 전주 학무(무용)와 구례 잔수농악(풍물)이 복원된 후 2008년에 대한민국 전통 연희축제(2008.9.21, 서울 상암동)와 제49회 한국 민속예술축제(2008.10.2, 제주 서귀포시)에서 재현되었다. 2008년 이후 복원되고 재현된 전통예술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형태로 재현하는 사업과 DVD 제작 등 디지털화를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표 4-4-1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 (재현 일자)
2008	인천 부평삼산농악	농악	부평문화원	부평삼산역사박물관('09.2.7)
	성남오리뜰 두레농악 농사풀이 및 농요	민요	한국농악보전협회 성남지회	대한주택공사('09.1.7)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	무용 의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창덕궁 연경당('08.10.6)
	수영 지신밟기	민속 연희	수영고전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사직공원('09.3.13)
	법성포수륙대제	민속 연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영광 법성포 수협공판장 ('8.10.26/ '09.5.28)
2009	봉화 12차 농악 발굴	풍물	봉화 연합 풍물단	봉화읍 체육공원('09.12.18)
	남양주 삼봉 농악	풍물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종합촬영소('09.12.20)
	산청지역일소리	민요	경남문화센터	보고서 및 음반 제작
	연경당 진작례	무용	서울국제교류회	창덕궁 연경당('09.9.28)
	세종조 편경제작	음악	국악문화재단	국립국악원('09.11.11)
	남사당 비나리	음악	민족음악원	민속극장 풍류('09.11.19)
	봉장취 음악	음악	동북아 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09.11.30)
	전주용왕제 복원	의례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 덕진 연못('10.4월 예정)
	삼동 마당밟기 사설 · 가락 · 굿	의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학동 거북공('09.11.13)
2010	한국고대음악	음악	동북아음악연구소	보조서 제작
	영남 삼현육각	음악	한국음악문화협회	국립부산국악원('10.12.10)
	숭의전 제례악 및 일무	의례	숭의전보존회	연천 숭의전('10.10.10)
	북한강 산하의 소리	민요	강원소리진흥회	춘천국악원('1011.20)
	마산오광대	민속 연희	마산오광대 복원추진위원회	마산('10.9.25)
	세종조 편종	음악	연악사,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10.12.16)
	조선시대 지당판	무용 의례	수로문화재단,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10.12.14~24)
	동래 기영회 판놀이	민속 연희	부산민속예술보존회, 국립부산국악원	동래별장('10.11.24)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 (재현 일자)
2011	경서도잡가 10바탕 복원 및 재현 사업	음악	(사)서울소리보존회	남산국악당('11.12.3)
	궁중나례의 복원재현	음악	백석예술대학교	보고서 및 3D 영상제작
	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사업단)	전주 학인당('11.10.2~3)
	농악 명인 박남식 전승의 무굿과 도둑잽이 굿의 복원 및 재현	농악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경기대학교 실내체육관 ('11.7.30)
	려말선초 시가의 음악적 복원	음악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11.11.10)
	한국고대음악의 복원 및 재현 II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단 ('11.11.30)
	경기시나위춤 복원 및 재현	무용	(사)매헌 춤 보존회	남산국악당 ('11.11.27)
	마지막 세습무 채정례의 완판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남도국악원	전남진도군('11.9.28)
	'궁중연례악' 공연에 활용할 순조대 화준 복원	무용 의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1왕조의 꿈 태평서곡 ('11.12.10~18)
2012	구포별신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낙동 문화원	부산 낙동강변 둔치('12.10.7)
	경서도 잡가 10바탕 복원연주2	민요	(사)서울소리보존회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12.12.8)
	순조 기축년 자경 전 야진찬 복원 및 재현	궁중 연례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창경궁 자경전('12.10.3)
	윤선도'어부사시사'복원 및 재현	음악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전남 완도군 보길도 ('12.9.14~17)
	심가 중고제 판소리 가야금병창 복원 및 재현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12.10.20)
	박석고개 사신성황당 당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동국대학교 예술 문화 진흥연구소	은평 소방서 강당('12.12.8)
	고양맹인소놀이	연희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 놀이마당('12.10.20)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 (재현 일자)
2013	동편제 심청가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 예술단	한국의 집 KOUS('13.11.20)
	해남군 우수영 농요 복원 및 재현	농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해남우수영관광지('13.09.28)
	이용우 산이 전승 경기도 동막도당굿 복원 및 재현	무속	(사)경기도산이제도당굿연구회	인천시립박물관('13.09.29)
	남한산성취고수악대 복원 및 재현	음악	광주 광지원 농악 보존회	남한산성 일원('13.9.22)
	솟대쟁이패 복원 및 재현	연희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남산한옥마을('13.10.12)

(2)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 · 창작활동 지원

가.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매년 엄정한 전문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축제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예술분야 전공 학생은 물론 일반인이 평소 연마한 기량을 점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표 4-4-2 연도별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110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20, 장관상 172)	110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9, 장관상 176)	102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7, 장관상 157)	101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6 장관상 157)	110개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6 장관상 170)

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개최

'국악창작곡 개발 –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사업은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사업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2차에 걸친 예선 심사를 통해 10곡 정도를 선발하고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본선 경연을 통해 수상 곡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수상작품은 음반과 DVD로 제작되어 국내 및 해외 예술기

관 등으로 보급된다.

2011년부터는 보다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본선 진출 작을 10곡에서 15곡 내외로 늘리고 콘테스트 형태의 경연을 통해 7작품을 시상하였다. 2012년에는 '아리랑특집'으로 꾸며 아리랑을 소재로 한 자유로운 창작 작품을 모집 · 발굴하였고, 2013년은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로운 국악, 전통 미발표 창작곡으로 모집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소와 대중성을 갖고 있는 팀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표 4-4-3 연도별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 결과

연도	응모작품 수	시상작품 수	대상 수상작
2007	86곡	10곡	퓨전국악프로젝트 樂 〈난감하네〉
2008	123곡	10곡	나리랑 〈새타령〉
2009	77곡	10곡	국악 아카펠라 토리's 〈아부레이수나〉
2010	49곡	9곡	Aux 〈품바〉
2011	52곡	7곡	어쿠스틱앙상블 재비 〈재비모리〉
2012	64곡	7곡	The 메아리 〈메아리랑〉
2013	66곡	7곡	벼리국악단 〈함양양잠가〉

다. '2013 창작 국악 실험무대 – 천차만별 콘서트' 운영

신진 국악단체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에 10주 내외의 기간 동안 화, 수, 금,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전통문화로 특성화를 이룬 북촌의 명소인 북촌창우극장에서 상설공연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내외의 신진국악 단체에 각 2회씩의 단독무대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매 공연마다 만석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 선정 단체에게는 단독실황음반 제작 지원의 특전이 주어지고 해외공연, 전통예술 고궁공연 등을 통해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우수단체인 '고래야'는 2012년 KBS '탑 밴드 2'에서 16강까지 진출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북촌창우극장은 1993년 개관한 객석 100석의 소공연장으로, 연극, 창극, 판소리, 전통 연희 ·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하여 마련된 전통예술 전문 공연장이다. 2013년도에는 프로젝트 '연'과 마카오정부관광청에서 CNY(차이니스 뉴이어 퍼레이드)에 공동으로 참가하였으며 라이트브래인 '서울국제즉흥 춤축제'에서 프랑스 무용단과 합동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표 4-4-4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연도	공연 기간	공연 요일	장 소	지원 단체 수	공연 횟수	관람자 수
2008	10.7~2.20 (10주)	매주 화, 수, 금, 토	북촌창우 극장	20개 단체	40회 공연	3,819명
2009	8.21~11.14 (12주)			24개 단체	48회 공연	4,320명
2010	9.2~11.7 (9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4,320명
2011	7.21~10.4((14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2,634명
2012	9.10~11.2(9주)			13개 단체	26회 공연	1,433명
2013	8.23~10.18			13단체	25회 공연	1,151명

라.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본 사업은 2007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축제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전통연희의 대중화 실현 및 지역공연 확산을 통한 지역관객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상설공연 형태인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08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통으로 문 열고!' 라는 주제와 '온 국민이 살맛나는 한 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전통연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개막제를 포함하여 65개 작품의 공연과 24개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총 13만 명이 관람하였다. 2009년에 3회째를 맞은 '2009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는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뛸 판, 놀 판, 살맛나는 한 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제를 포함하여 120개 단체가 참여하여 공연과 체험, 교육,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쳤다. 창작연희 우수작품으로 5작품,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경연에서는 4종의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상설공연 형태로 바뀐 2010년에는 창작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우수 창작연희작품을 선정해 서울 · 남원 · 부산 국악원에서 공연하였으며,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작연희 우수작품과 우수대본을 선정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공연과 함께 3일에 걸쳐 전통연희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2011연희축제〉를 개최하였다. 상설공연은 기존에 3개 국악원(서울, 남원, 부산)에서 진행되던 것을 문화소외지역(여수, 강릉, 연천)에까지 확대하여 전통연희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해 우수작품과 우수대본을 각 4작품씩 발굴하였다.

2012년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연희의 전승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발굴된 우수 창작연희작품과 전통연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201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별도의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과 개천절 연휴기간인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통(通), 우리의 신명으로 통하고,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하에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53개의 공연단체와 2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1만 명이 관람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에 중단되었던 창작연희 작품공모를 부활하여 연희의 창조적 계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멘토링을 시행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연희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남원, 부산, 진도에서 상설공연을 시행하였다.

표 4-4-5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단위: 회, 명, 개)

연도	시 · 도	장 소	기 간	운영횟수	관람객 수	출연팀 수
2010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개막제)	6.27	1	200	1
		국립국악원 별 맞이터	7.2~10.20	11	5,940	11
		국립국악원 우면당(폐막제)	10.24	1	298	6
		국립국악원 전역(절기공연)	2011.2.16~17	2	1,354	2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6.30~8.18	5	1,950	5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6~8.17	5	3,058	5
	계			25	12,800	중복출연으로 16개 팀 출연

연도	시 · 도	장 소	기 간	운영횟수	관람객 수	출연팀 수
2011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10.19~11.15	5	2,560	6
		국립국악원 우면당	6.10~8.17	3	997	3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5.27	1	400	1
		국립국악원 전역(축제)	9.8~9.10	1	10,000	10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5.14~6.18	4	1,597	4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28~8.25	4	2,190	4
	여수	거북공원	10.6	1	1,300	1
	강릉	단오문화관	11.4	1	530	1
	연천	수레울 아트홀	11.12	1	340	1
	계			21	19,914	중복출연으로 24개 팀 출연
2012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	9.30~10.3	36	110,000	53
	계			36	110,000	53
2013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10.30~11.20	4	1,492
	부산		10.1~10.22	4	2,045	4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0.4~11.15	4	1,422	4
	진도		12.2~12.11	6	1,227	7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4,698	중복출연으로 10개 팀 출연

표 4-4-6 연도별 창작연희 작품공모 경연 결과

연도	응모작품 수	지원작품 수	시상작품 수	대상 수상작
2008	67개작	10개작	3개작	민족예술단 우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이야기'
2009	53개작	9개작	3개작	벽사춤아카데미 'Mr.춘향'
2010	38개작	7개작	3개작	천하제일탈공작소 '추셔요'
2011	38개작	4개작	2개작	창작그룹 노니 '1+1=추락樂남매'
2012	공모 미시행			
2013	24개작	5개작	3개작	연희집단 The 광대 '자라'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1)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가. 한국 민속 예술축제 개최

한국 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정부가 유일하게 직접 주최하는, 전통 민속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이다. 각 시 · 도 대표단의 열과 성을 다한 경연과 시연을 통해 한국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면서, 오늘날 전국의 민속예술인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도)가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 경기도 포천시, 2006년 전라북도 정읍시, 2007년 경상남도 사천시, 2008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50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와 제16회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가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50주년을 맞은 한국 민속예술축제는 기존과 달리 경연대회 없이 각 지역의 대표 민속을 엄선하여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50년간의 회고와 전망을 돌아보는 기념 세미나, 민속예술축제에서 발굴된 명인들의 기념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2009년 16회째를 맞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4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청주 소래 울 두레놀이(충북공업고등학교)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13개 단체상 및 지도상 ·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충남 공주시 고마 나루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는 21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의 '양양군수동골 상여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20개 단체, 입장상 1개 단체, 지도상 ·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한편 시범적으로 '현지민속심사'가 도입되어 각 추진위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총 4개 종목의 현지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1개 종목에 대해 특별상인 국무 총리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제51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세계대백제전' 과 '충남민속한마당' 등과 연계하여 개최되어 한판의 대동 축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5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청남도의 '천안거북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15개 단체, 지도상 ·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2011년 제52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와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2011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시 거북선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는 20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의 '금릉빗 내 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9개 단체, 입장 상 1개 단체, 지도상,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여수엑스포 및 한국 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비축제로 '개 열림 굿'을 사전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특별행사

로 '여수문화예술인의 밤' 과 민속예술축제의 회고와 전망을 위한 난장 토론회 '막걸리와 민속', 민속예술의 분야별 최고 명인들의 무대 '마당 춤 명무 전'이 진행되었다. 한편 '현지민속심사'는 총 6개 종목의 현지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여수백초가장농악 외 2개 종목에 대해 장려상인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 위원장 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5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 '양주들노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4개 단체, 지도상 ·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2012년의 한국 민속예술축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본 대회의 위상을 김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한 화합의대동놀이 전야길놀이 대동한마당 '판'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과 같은 특별행사 구성으로 경북민속예술인의 밤 '치야칭칭나네'와 '굿'을 중심으로 전승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통과 화합의 마당 막걸리와 민속 '굿 is Good'농악의 도시 김천에서 펼쳐지는 팔도 '풍물 명인전'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경연에서는 일반부 총 20개 시 · 도, 청소년부 총 15개 시 · 도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일반부에서는 경남 함안의 "함안농요"가, 청소년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중앙고등학교의 "광주 광지원 농악"이 각각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현지민속심사'는 총 8개의 참가신청 중 5개의 현지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홍천 '겨리소 모는 소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하였고, 남원 '무제(기우제)' 외 2개 종목에는 장려상인 한국 민속예술축제 추진 위원장 상을 시상하였다. 공로상에는 수상작을 발굴 및 추천해 주신 김진순, 조정현, 유명희가 선정되었다. 2012년 한국 민속예술축제의 특징적인 행사는 연변민속예술 초청 공연 "밀강향 퉁소"였다. 연변에서 퉁소연주를 전승하며 민족전통을 지켜오던 퉁소마을 주민 40명을 초청하여 한국 민속예술축제 기간 동안 2회 공연을 선보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2013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 20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안남도의 '향두계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9개 단체, 입장 상 1개 단체, 지도상,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또한 참가팀의 화합을 통한 축제 한마당으로 구성하기 위해 경연 참가팀이 함께 출연하는 연출자 합동공연 '어울마당'을 진행하였으며, 3년 동안 진행한 '현지민속심사'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본 경연에 보다 충실하였다. 또한 단양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전야제 '땅 끝에서 땅 끝으로'가 진행되었고, 특별행사로 김대균 줄타기와 함께하는 충청북도 민속인의 예술마당 '신명나는 곤나비'가 진행 되었다. 그 외 개최지 단양민요 외 한양도당굿, 공주 의당집터 다지기 등의 초청 공연도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3개 시 · 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강강술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2개 단체, 지도상 ·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표 4-4-7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연도	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단체	종목		출연단체	종 목
2008	49	청원현도두레보존회	청원군 현도 두레농요	15	김천 농공고등학교	금릉빗내농악
2009	50	제50회를 맞이하여 경연대회 없이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		16	청주 충북공고	청주 소래울두레놀이
2010	51	입압리민속보존회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	17	천안 병천고	천안 거북놀이
2011	52	금릉빗내농악보존회	금릉빗내농악	18	양주 백석고등학교 4-H회	양주들노래
2012	53	함안농요보존회	함안농요	19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광지원농악
2013	54	평안남도향두계놀이보존회	향두계놀이	20	진도실업고등학교	강강술래

나.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궁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품격 있는 궁중예술의 원형 재현을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3대궁과 종묘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여 우리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4-4-8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장소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2008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고궁에 깃든 우리 춤 우리가락	가을엔 국악을 듣겠어요	전통연희 경복궁에 가다
	기 간	4. 16 ~ 10. 29 (매주 목,7.2~8.27제외)	7.30 ~ 7.31 (중화전)	10.10 ~ 10.26 (즉조당)	10. 30 ~ 10. 31 (흥례문)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국악 관현악, 창작무용, 퓨전음악, 태권도 등	퓨전국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관람인원	6,000명 (회당 150명)	2,400명 (회당 1,200명)	2,000명 (회당 250명)	6,000명 (회당 3,0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2009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국악, 활개 펴다!	영원의 소리, 종묘제례악	전통연희! 경복궁에서 놀다	자경전, 가추예향
	기 간	4. 16 ~ 10. 29 (매주 목, 7.2~8.27 제외)	5.9 ~ 5.31, 9.5~9.27 (매주 토, 일)	10. 16 ~ 10.17	10. 30 ~ 10. 31 (흥례문)	11.13~ 11.14 (자경전)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퓨전국악 등	종묘제례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판소리 등 전통국악 및 문화 체험
	관람인원	6,000명 (회당 150명)	24,000명 (회당 1,500명)	4,000명 (회당 500명)	6,000명 (회당 3,000명)	800명 (회당 200명)
2010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6.6~7.11, 9.4~10.16 (매주 일, 낙선재)	6.13~7.4, 9.18~10.24 (토 · 일, 미술관 앞)	6.6~7.11, 9.5~10.10 (매주 토, 재궁)	5.5, 5.8, 10.3, 10.24, 10.30, 10.31 (토, 수정전)	
	공연 횟수	24회(1일 2회)	14회	11회	6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 등 소규모 명품공연	전통과 퓨전이 함께하는 공연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연향 재현	
	관람인원	8,400명 (회당 350명)	9800명 (회당 700명)	2200명 (회당 200명)	21,000명 (회당 3,500명)	
2011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간	5.8~619, 9.18~10.16 (매주 일, 낙선재)	5.21~6.18, 9.17~10.16 (매주 토, 함녕전, 미술관)	5.7~6.18, 9.17~10.1 (매주 토, 재궁)	6.5~6.19, 9.18~10.7 (매주 일,수정전)	
	공연 횟수	24회	12회	10회	14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 음악과 춤 소규모 명품 공연	퓨전국악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외	
	관람인원	15,400명 (회당 640명)	7,200명 (회당 600명)	5,900명	22,500명 (회당 1,6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 묘	경복궁
2012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간	5.20~6.17 9.2~10.14 (매주 일, 후원, 낙선재)	5.26~6.10 9.15~10.7 (매주 토,일, 함녕전)	5.19~6.23 9.1~9.22 (매주 토, 재궁)	5.19~20 (수정전) 9.15~9.29 (매주 토 수정전)
	공연 횟수	24회	14회	10회	12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 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외
	관람인원	6,930명 (회당 약 288명)	8,200명 (회당 약 590명)	4,600명 (회당 약460명)	52,400명 (회당 약 4,360명)
2013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 묘	경복궁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간	4.18, 5.5~6.9 9.8~10.13 (매주 일, 후원, 낙선재)	5.11~12, 5.25~6.2 9.14~10.6 (매주 토,일, 함녕전)	5.11~6.22 9.7~9.21 (매주 토, 재궁)	5.4~5.5, 5.18~5.19 10.5~10.6 (매주 토,일, 집옥재)
	공연 횟수	25회	14회	10회	12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어린이날 음악회
	관람인원	4,200 (회당 약 175명)	11,200 (회당 약 800명)	4,600 (회당 약 460명)	54,000 (회당 약 4,500명)

다. 아리랑 세계화 사업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한국 전통민요의 대표인 '아리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리랑을 통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한파 아리랑 음반 제작,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아리랑 대공연 개최, 지역 아리랑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4-4-9 연도별 아리랑 세계화 사업 실적

연도	추진주체	사업비	실적
200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억	아리랑 컬쳐코드 분석,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0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3.9억	국제 심포지움 개최,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3,000부 제작, 아리랑 교육용 방송 콘텐츠 제작, 아리랑 다언어(5개국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연도	추진주체	사업비	실적
2010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3.9억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4,000부 제작, 아리랑 악보집(국영문) 2,000부 제작 및 배포
		6억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메인행사 1회(서울광장), 아리랑 특별공연(북촌창우극장), 아리랑 초청강연 (프레지던트 호텔), 아리랑 상설공연 (북촌창우극장)
2011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3.6억	아리랑 국악관현악곡 개발 (5개 단체) 및 악보집 제작,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제작, 지역 아리랑 워크숍 및 공연 개최 (아리랑 한마당/남산국악당), 아리랑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9.8억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 메인공연 2회, 가족극 2회, 체험 및 참여행사 2회, 국제학술대회, 새터민 대상 아리랑 문화체험(강원도 정선)
2013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8.3억	추석특집 아리랑 대공연 개최(KBS홀), 아리랑 교육용 콘텐츠 보급 (10개 초등학교), 아리랑 기획전시(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한류스타 아리랑 앨범 4,000부 제작, 청년 홍보 시범사업 〈청춘아리랑〉 개최, 아리랑 홍보 동영상 1,000부 제작 및 해외 한국문화원 배포

라. 기타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업

2006년에 시작한 '생활음악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은 휴대폰 벨소리 · 통화 연결 음 · 학교 시종음악 · 지하철 안내방송용 신호음악, 명상 · 요가 · 태교음악, 세시풍속 절기음악, 다용도 국악배경음악 등과 같은 생활음악을 개발하고, 이의 대중화를 위하여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악기 과학화 및 악기개량 사업'은 2006년 설립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악기에 대한 음향 및 물성 연구사업, 국악기 개량 및 표준화, 고악기 복원 · 제작 · 연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2010년 이후 추진된 전통예술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전통예술분야 연수단원 지원',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은퇴계층 활용 전통예술 관광자원화', '전통예술 산업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2)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가. 해외 국악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교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해외한국문화원, 교육기관에 강사 및 악기를 지원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4-4-10 연도별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실적

연도	강습실시			국악자료 기증			
	국가 수 (개국)	기관 수 (개)	참가자 수 (명)	국가 수 (개국)	기관 수 (개)	기증 자료 수	
						품목	점수(점)
2009	9	11	454	11	13	국악기, 의상 등	590
2010	5	6	403	4	5	국악기, 의상 등	354
2011	5	6	496	4	5	국악기, 의상 등	363
2012	5	5	237	20	30	시청각 자료	400
2013	10	12	656	6	6	국악기, 의상 등	220

나.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2009년 최초로 우리 전통예술인들의 창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창설, 운영되었다. 연주와 강의, 외국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 등을 폭넓게 심사하여 4명의 젊은 예술가를 선발하였고, 이들은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3개월에서 6개월 간 체류하면서 대학, 문화원 등과 연결하여 국악강습과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예술가들과 교류하여 전통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레지던시 실시기관은 미국 시애틀 Northwest Heritage Resources, 미국 뉴욕 · 뉴저지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adjahmada 대학 등이다.

2010년도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그룹 형태로 예술작업이 이루어지는 전통예술 양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선정 대상에 개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단체를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향후 해외 공동 작업이나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제공하는 기금 직접지원과 함께 현지 국제 전문가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지원방식을 마련하였다. 특히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4개 권역의 주요 레지던시 기관, 아트마켓, 컨퍼런스, 페스티벌, 공연장, 대학 및 전문가와 업무협력합의서(MOU)

를 체결하여 공동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0년에 해외 레지던시 우수프로젝트발굴지원으로는 3개국 3개 도시에 1개 단체 및 개인 2명이, 그리고 해외 협력기관 레지던시 지원으로는 5개국 9개 도시에 5개 단체 및 개인 6명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2011년도 레지던시 사업은 2010년과 동일하게 우수프로젝트와 기관협력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수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모집하여 2011년 말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선발하였다. 현지 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초청장과 협업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서류심사로 선정하였다. 기관협력프로젝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전통예술인과 협업작업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기관을 탐색하여 총 9개의 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미주, 남미 지역에 있는 레지던시 전문기관에 전통예술가를 파견하였다. 일차적인 서류심사는 국내에서 진행하였고,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최종 파견단체 선발 결정은 협력기관의 레지던시 담당자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 2011년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으로 총 7개국, 30명의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통예술인과 협업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외국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협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작업 결과물을 선보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해외 협업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메소드를 얻을 수 있었다.

2012년에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수프로젝트와 기관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기존 MOU 체결 기관을 중심으로 독일 Asian Art Ensemble 등 9개국 12개 기관에 14개 단체(개인) 총 36명을 파견하여 공연, 음반제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도 레지던시는 기존에 우수/기관협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사업을 예술가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기획자/연주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6명이 5개국의 레지던시 기관 또는 연주단체에 장기간 머물면서 공연,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음악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단기간에 전통예술 분야의 취약 부분의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는 미국 L.A에 위치한 Musician Institute에서 음악 산업 및 즉흥연주와 관련된 연수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획자 7명 연주자 9명, 총 16명의 전통예술인이 2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표 4-4-11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연도	파견내용			비고
	국가 수 (개국)	기관수 (개)	참가자 수 (명)	
2009	3	4	4	레지던시, 강사파견 혼합형태
2010	7	8	30	
2011	7	11	30	우수/기관협력프로젝트 분리지원
2012	9	12	36	
2013	5	6	32	예술가개발/연수프로그램 분리지원
2013	8	-	14	해외 예술가 초청 워크숍

다.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전통음악 텍스트 번역사업 추진과 함께 시작된 이 사업은, 2007년에 판소리 5마당(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을 스페인어, 중국어 및 일본어 번역 사업을 필두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전통예술 강습용 교재 뿐 아니라 학술자료, 홍보물 등 다양한 번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도에는 해외에서 강습수요가 가장 많은 국악기(가야금-2009, 사물놀이-2009, 해금-2010, 단소-2010)의 국 · 영문 교재 제작과 함께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학술자료 번역(《작곡가를 위한 현대 가야금 기보법》)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함께 판소리 5마당의 국 · 영문 자막 전산시스템 및 사설 집 제작을 지원했으며, 2011년부터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도서시리즈 중 종묘제례악, 가곡, 처용무, 판소리, 강릉단오제, 종묘제례 등을 영문 번역화 하여 출판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전통예술 및 판소리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3년 3개년 사업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 궁중연례를 정리한 악전(樂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향후 다양한 형태로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표 4-4-12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연도	제작물	내용	비고
2009	단 소	• 단소의 이해 •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일문 500부 일본어 DVD 1,000개
2010	해 금	• 해금 이야기 • 정간보 읽는 법 • 연주자세, 조율법, 주법, 포지션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단 소	• 단소의 이해 •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2010	현대가야금 기보법	• 가야금의 이해 • 가야금 기보법 • 가야금 종류, 장르, 연주법, 악보	국 · 영문 병기 1,200부 (DVD포함)
	수궁가 바디별 전집	• 수궁가 전 대목 국 · 영문 정리, 번역, 주석 작업 • 국 · 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8개 바디 자막 CD 제작
2011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가곡, 종묘제례악 2편	영문번역 및 출판 (2부/각 500부)
	적벽가 바디별 전집	• 적벽가 전 대목 국 · 영문 정리, 번역, 주석 작업 • 국 · 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5개 바디 자막 CD 제작
2012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판소리, 처용무 2편	영문번역 및 출판 (2부/각 500부)
	고서번역	• 악학궤범 번역, 주해삽입, 용어사전 제작	3개년 사업
2013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강릉단오제, 종묘제례	영문번역 및 출판 (2부/각 500부)
	고서번역	• 악학궤범 번역, 주해삽입, 용어사전 제작	3개년 사업

라.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

2013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 방식을 따라 직접 지원방식(항공료 지원)과 간접 지원방식(통합 홍보물 제작, 교육 컨설팅, 국제교류 지식 정보 제공 등)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요실적〉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 9개국 23개 단체 월드뮤직 마켓 및 공연예술마켓 참가지원

– 10개 국제음악 페스티벌 69회 공연 및 부대행사 개최

– 2개국 2개 한국특집 행사 개최

– 월드뮤직 전문가 교류지원 행사 개최(2013년 10월 7일~11일, 5일간)

○ 해외홍보 통합홍보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CD 제작
– iOS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유지보수
– into the light Music of Korea 5집 제작
– 해외 월드뮤직매거진 매체 광고
○ 공연예술 지식정보화 국제교류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콘텐츠 가공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을 위한 국가관 부스 및 프로모션 지원
– 월드뮤직 마켓참가지원: 쇼케이스 2건, 마켓참가지원(개인) 21건
– 페스티벌 참가지원: 10개 단체/개인
–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 11개국 15인 참가, 프로그램 30건 개최
– 해외 국제음악 페스티벌 2개국 2개 한국특집 행사 개최
○ 해외홍보 통합홍보물 제작: into the light 5집 제작,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 공연예술 지식정보화 국제교류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콘텐츠 가공

표 4-4-13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연도	세 부 사 업 명	진출국가	진출행사
2010	예술 경영 지원센터-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 공동투어기금	오스트리아	Festival Glatt & Verkehrt
		벨기에	Sfinks mixed 2010
		체코	Colours of Ostrava
		그리스	The International Petra Festival
		그리스	International Heraklion Festival
		덴마크	Roskildefestival
		스웨덴	Uppsala International Sacred Music Festival
		벨기에	Sfinks mixed 2010
		폴란드	Bravefestival
	NCTA연계 미국포크페스티벌 진출	미국	로웰포크페스티벌
			어메리칸 포크 페스티벌
	RASA세계문화센터 진출	네덜란드	RASA세계문화센터
	월드뮤직마켓 참가지원	덴마크	WOMEX
		호주	AWME
		브라질	Mercado Cultural
		독일	Jazzahead!
		싱가포르	Live! Singapore
	계	13개국	17건 (14개 단체)

연도	세 부 사 업 명	진출국가	진출행사
2011	월드뮤직 마켓 참가지원	미국	sxsw music
		프랑스	babel med music
		독일	Jazzahead
		덴마크	womex
		호주	awme
		브라질	mercado cultural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 투어기금)	네델란드	Theater Diligentia
		덴마크	RoskildeFestival
		폴란드	BraveFestival
		폴란드	SkopjeJazzFestival
		마케도니아	Off-Fest
		네델란드	Music Meeting
		벨기에외 3개국	Sfinks mixed2011
		오스트리아	IMAGO DEI/Krems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영국	WOMAD UK
		스웨덴	Ethno Sweden
	계	13개국	16건(12단체)
2012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한국음악특집)	오스트리아	IMAGO DEI
		폴란드	Jazztopad International Festival
		스웨덴	Ethno Sweden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투어기금)	벨기에	Sfinks mixed2012
		노르웨이	Forde traditional and worldmusic Festival
		스웨덴	Uppsala Konsert & Kongress presents Sacred Music Festival
	월드뮤직마켓참가지원	스페인	MMVV
		그리스	WOMEX
	계	7개국	8건(12단체)

연도	세 부 사 업 명	진출국가	진출행사
2013	월드뮤직 마켓 및 공연예술마켓 참가지원 사업	벨기에	Classical Next
		스웨덴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노르웨이	ISPA
		영국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유럽	Fira Tarrega
		이탈리아	MMVV
		유럽	IETM
		중국	SPAF
		독일	WOMEX
		유럽	MEDIMEX
		미국	NPN)
	계	9개국	11건(23단체)

3 전통예술 단체 및 기관

1) 국립국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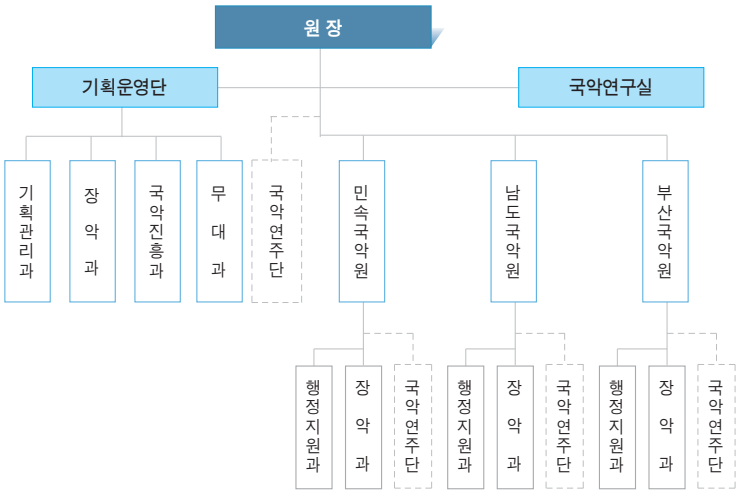
(1) 개관

국립국악원은 국악계의 종가로서 한국 전통음악 원형의 보존과 보급 및 창조적인 전승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51년 부산에서 개원한 이래 1987년 현재의 서울 서초동 청사로 이전하였고, 궁중과 민간에서 향유했던 악가무(樂歌舞)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공연 교육 ·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 전북 남원에 민속국악원을, 2004년 전남 진도에 남도국악원을, 2008년 부산에 부산국악원을 각각 개원하였다.

국립국악원은 우리음악의 원형 재현과 복원을 위한 정통국악공연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민족 음악문화유산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국악학 및 국악기 연구, 국악자료의 온라인 공유와 활용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과 계층은 물론 국내외를 막론한 맞춤형 체험과 교육, 공연을 통해 국민의 생활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조직은 기획운영단에 소속된 기획관리과, 장악과, 국악진흥과, 무대과 및 국악연구실,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1단 1실 4 과 3개 지방국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96명, 연구직 40명, 관리

운영직 27명 등 총 163명이다. 서울의 국악연주단은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4개의 전속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246명이다. 3개 지방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정원은 각각 민속국악원 90명, 남도국악원 50명, 부산국악원 80명이다.

그림 4-4-1 국립국악원 조직도



※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 누리집(홈페이지) : www.gugak.go.kr

2013도 세출예산은 501억 23백만 원으로, 사업비 414억 원, 인건비 77억 원, 기본경비 등 10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13억 73백만 원이다.

(2) 공연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정악단 · 민속악단 · 무용단 · 창작악단 등 4개의 전속 국악연주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악단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며, 민속악단은 민간 공동체 삶의 신명나는 민속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무용단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등 한국 춤의 전 장르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창작악단은 전통음악을 근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음악의 개발과 새로운 한국음악의 양식 창출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 가고 있다. 특히 2008년 개발된 궁중연례악 〈세종조 회례연〉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아리랑을 소재로 한 소리극 〈아리랑〉을 신규 작품으로 개발하였다.

2013년 국립국악원은 세종조회례연〈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2회, 35,302명) 소리극 〈아리랑〉 (5회, 2,354명) 등 두 개의 대표브랜드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이외에도 정기공연 · 상설공연 · 기획공연 · 해외공연 등 자체공연(298회, 123,810명)과 각종 국악단체 및 국악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관공연(178회, 63,737명) 등 총 476회 공연을 187,547명이 관람하였다. 특히 연희풍류극장 개관에 따른 연희, 풍류 상설공연 등으로 국악 관객층 저변을 확대 하였고 '방방곡곡 문화사업', '국악을 국민속으로' 등 문화 소외 지역 계층을 위한 공연을 통해 문화수혜자 향유 확대('12년 71회 → '13년 91회)에 기여 하였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대표브랜드 작품으로 창극 〈흥부와 놀부〉 (2회, 1,150명)를 제작하였고, 국립남도국악원은 대표브랜드 작품인 굿극〈씻금〉을 공연(3회, 957명)하였고, 국립부산국악원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공연(31회, 5,590명)하였다. 국립국악원은 이러한 예술적 자산 및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통음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으로 동시대인과 폭넓게 소통하여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3) 연구

국립국악원은 국악학 학술연구와 국악기 연구, 국악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박물관을 운영하여 국악유물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악연구실에서는 국악학 연구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국악원 논문집 제27~28집〉, 〈한국 음악학자료총서 제47~48집〉, 〈한국음악학 학술총서 제9집〉을 발간하였으며, 국악계 공연 · 단체 · 교육 등의 현황을 조사 · 통계 · 분석하여 국악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악연감 2012〉을 발행하였다. 또한 근현대 국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원로국악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6집~13집〉, 〈북한음악 구술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월북 국악인의 삶과 음악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월북국악인 연구〉를 제작하는 등 총 7종 16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또한 국악 보존 및 전승 · 보급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전승 가곡 26곡을 고음질의 음원으로 남겼으며, '동아시아 음악교류 및 음악고고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회의를 중국 하남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작국악 그리고 퓨전국악'을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국악유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장 자료의 관리, 국악 유물 확보, 소장품 대여 · 복제 · 촬영 등 대외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국악기 음색 특징 분석, 해금 울림통 재료의 음향 특성 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용 국악기 및 연주용 보조기구 제작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악기 산업의 규모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를 수행했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단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대상 단소 제작체험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악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국악 관련 영상 · 음향 · 이미지 · 텍스트 등의 기록물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립국악원이 생산한 기록물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민 · 관 소장의 국악 자료를 망라하여 약 20만 여 점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수집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악아카이브 누리 집(http://archive.gugak.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악아카이브 누리 집을 통해 약 8만 여 점의 자료 정보와 동영상 · 음향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악원에는 연간 70,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악박물관이 있다. 국악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음악편성을 중심으로 국악 역사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는 궁중음악실, 원류음악실, 서민음악실, 선비음악실, 세종음악실, 궁중음악인실, 근현대음악실 등의 상설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세계유수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겨레의 노래, 세계의 노래 아리랑' 특별전시와 '120년 만의 고국 나들이, 미국으로 간 조선악기'라는 제목으로 해외유물 초청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3D 입체영상관'과 '야외체험마당' 등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악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악이 있는 국악박물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진 국악인에게 발표 기회를 열어주고, 관람객에게는 박물관 음악회를 통해 살아있는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추진성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아리랑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소리극 〈아리랑〉을 대표브랜드 작품으로 개발(5회, 2,354명)하였고 2008년에 개발된 궁중연례 악〈세종조 회례연〉(2회,35,302명)공연의 정례화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보존 · 보급 할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대표브랜드작품으로 창극 〈흥부와 놀부〉 (2회, 1,150명)를 개발하여 공연하였고, 국립부산국악원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공연(31회, 5,590명9명)하였다. 2009년에 시작된 '국악을 국민속으로'는 소외계층 및 지역을 찾아가는 친서민 국악공연으로 추진(18회, 5,921명)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 · 인도 수교 40주년 기념공연 등 의 문화교류(총 13회 7,450명)을 통한 국악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온라인 국악교육을 위한 e-국악아카데미(www.egugak.go.kr)는 2008년부터 국악이론 · 단소 · 소금 · 사물놀이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명인이야기 · 피리(상급실기)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현재 총 3855학습내용 559차시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악놀이터'를 개발 보급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호음악 및 한식, 한복 등 한 브랜드와 결합한 생활국악 음원 50곡을 제작 보급한 바 있다. 〈국악원 논문집 제27~28집〉, 〈한국 음악학자료총서 제47~48집〉,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6~13집〉, 〈국악연감

2012〉〈한국음악학 학술총서 제9집〉, 〈월북국악인연구〉, 〈북한음악 구술 자료집〉 등 7종 16권의 연구결과물을 제작 · 발간하여 국악학 연구기반 확대, 근현대 국악사 정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국악원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악 유물을 확보하였으며, 소장품 대여 · 복제 · 촬영 등 대외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국악기 편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악기 음색 특징 분석, 해금 울림통 재료의 음향 특성 연구, 청소년 대상 단소 제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등을 발간함으로써 국악기 연구 성과를 종합 기록하였다.

사진 4-4-1 국립국악원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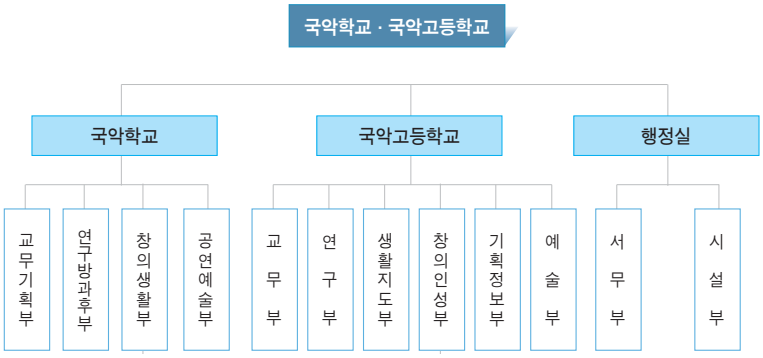
(1) 개관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38호에 의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이 공포되어 문교부 직속학교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중 · 고등학교 6년 과정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6일에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65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1999년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9월 27일 국악학교는 학년 당 3학급(학급인원 35명), 고등학교는 학년 당 5학급(학급인원 30명)으로 인가 받았고, 2002년 3월 7일에는 국악학교 교사동을 신축하여 중 · 고등학교가 건물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국악학교 9학급, 국악고등학교 15학급으로 완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현재 국악고등학교와 국악학교의 2개 학교가 겸임 교장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실이 교육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악고등학교는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창의인성부, 기획정

보부, 예술부의 6개 부서로 구성되고, 국악학교는 교무기획부, 연구방과후부, 창의생활부, 공연예술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실은 서무부와 시설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교장 1명, 교감 2명, 행정실장 1명, 중학교 교원 22명, 고등학교 교원 39명, 행정실 직원 18명으로 정규직 총 83명과 기숙사 5명, 사무보조 4명, 조리원 7명 등 계약직 22명으로 총 105명이며, 국악학교에 311명, 고등학교에 44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림 4-4-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 누리집 (홈페이지) : www.gukak.hs.kr

2013년도 총예산은 114억 55백만 원으로, 사업비 61억 77백만 원, 인건비 41억 14백만, 기본경비 11억 64백만 원이다.

(2) 기본업무

국악고등학교에서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우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선배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수상자 초청공연', 5월 말에 정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무대에 올리는 '목멱 예술제 우리가락'과 '목멱 예술제 우리춤'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자매학교 학생들과 양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나누는 '한 · 중 교류 음악회', 11월 말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악가무(樂歌舞) 일체로 공연하는 '목멱한마당', 12월에는 전통예술교류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리누리예술단공연, 학년말에 지방의 국악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순회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악학교에서는 3월 초에 '신입생 환영 연주회', 12월 말에 종합 예술제인 '소리샘 예술제', 매년 6월 초에는 인근 초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악기를 소개하고 전통음악과 무용을 함께 나누는 '전통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학년은 11월에 중학교과정에서 배운 기량을 국악챌린지

(지방순회공연)를 통하여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자기 연찬을 위해 1986년에 창단한 '목멱악회'의 정기 연주회가 매년 12월에 있으며, 우리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추진성과

2013년 추진된 사업으로는 2012 퇴직교원 정부포상전수식(3.7), 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 오디션(3.8-11), 미국 전통산음악 블루그래스와의 교류공연(3.18), 경기도립국악단 신춘음악회(3.20), 교내실기경연대회 및 오디션(3.20-22), KBS 국악한마당 녹화(3.23), 2013년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입교식(5.4), 종묘대제 일무공연(5.5), 국립국악원 대표브랜드 세종조회례연(5.11-12),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 포상 전수식(5.15), 국군지휘통신부 주관 호국보훈의 달 행사 공연(6.20), 강남구청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 공연(6.21), 고성 DMZ 평화염원 콘서트(6.25),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공연(7.12), KBS 국악한마당 청소년 방학특집 녹화(7.20), 2013년 화천 쪽배축제(7.27), 2013 청소년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9.8~17), 사직대제(9.15), 개포골 국악한마당 공연(10.21), OECD국제교육포럼 축하공연(10.28), 추계종묘대제 일무공연(11.2), 통일시대 가을음악회 공연(11.5), 수서경찰서 초청공연(11.12), 2013년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수료식 및 발표회(11.30), 조선일보사 올해의 스승 시상식 축하공연(12.17), 강남구 신년인사회 공연(14.1.9), 화천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축하공연(14.1.16) 등이다.

교내 중요 행사로 '제18회 2012 국악경연대회 수상자 초청공연(4.11)'을 비롯하여 '제14회 한중교류음악회(북경 중국음악학원부중, 5.6~10)', '개교 58돌 기념 목멱예술제 우리가락(5.30), 우리춤(5.31) 공연', 국악고 주최의 '전국 초 · 중등 무용경연대회(7.26~27)', '제14회 목멱한마당(11.14)', '제27회 목멱악회(12.12)', '제6회 국악챌린지 시도 순회공연(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2.16~18)'을 성황리에 추진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위촉으로 국악예능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예술영재 육성을 위해 서울시 소재 중학교 1, 2학년(단, 예술계 중학교는 제외),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 해 20명 이상의 국악 영재들이 수료하였으며 1년 동안의 학습결과를 수료식과 함께 발표회를 열어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7.30, 11.30). 또한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전통예술 영재 육성을 위한 '소리누리예술단'을 2007년 12월 창단하였으며, 4회의 전국 순회공연과 5회의 해외공연, 1회의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전국에 전통예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총 49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총체적 예술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심화교육을 받음으로써 전통예술의 질 높은 공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13학년도에 국악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신입생환영연주회'(13.3.4), '한빛예술단 HOPE CONCERT' 초청 공연(3.5), '강남 아버지들을 위한 자녀코칭법 연수' 축하 공연(5.22), '레인보우 외국인학교 "Korean Weeks"'(5.27), '전통음악교실'(6.11~6.14),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 우리춤'(9.3), '강남학생 행복축제' 축하 공연(10.26), '개포1 · 4동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잔치' 축하 공연(10.28), '2013 서울교원 음악축제'(11.8, 12),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락과 춤'(11.20), '제21회 소리샘 예술제'(12.26~27), '2013 KBS 국악대상' 축하 연주(12.28) 등이 있다.

표 4-4-14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2013년)

학교별	구분	내용
국악고등학교	공연 및 교류활동	3.7 2012 퇴직교원 정부포상전수식 3.8-11 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 오디션 3.18 미국 전통산음악 블루그래스와의 교류공연 3.20 경기도립국악단 신춘음악회 3.20-22 교내실기경연대회 및 오디션 3.23 KBS 국악한마당 녹화 4.11 제18회 2012년 수상자 초청공연 5.4 2013년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입교식 5.5 종묘대제 일무공연 5.6-10 제14회 한중교류음악회(중국 북경 자매학교) 5.11-12 국립국악원 대표브랜드 세종조회례연 5.1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53주년기념 축하공연 5.15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 포상 전수식 5.30-31 개교58돌 목멱 예술제(우리가락, 우리 춤)공연 6.20 국군지휘통신부 주관 호국보훈의 달 행사 공연 6.21 강남구청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 공연 6.25 고성DMZ 평화염원 콘서트 7.12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공연 7.20 KBS 국악한마당 청소년 방학특집 녹화 7.26-27 국악고 주최 전국 초중등 무용경연대회 7.27 화천 쪽배축제 공연 9.8-17 청소년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서유럽 4개국) 9.15 사직대제 10.21 개포골 국악한마당 공연 10.28 OECD 국제교육포럼 축하공연 11.2 2013년 추계종묘대제 일무 공연 11.5 통일시대 가을음악회 공연 11.12 수서경찰서 초청공연 11.30 2013년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수료식 및 발표회 11.14 제14회 목멱한마당 공연 12.12 제27회 목멱악회 12.16-18 제6회 국악챌린지 시도순회공연 12.17 조선일보사 올해의 스승 시상식 축하공연

학교별	구분	내용
국악학교	공연 및 교류활동	3.4 신입생 환영 연주회(우륵당) 3.5 한빛예술단 HOPE CONCERT 5.22 '강남 아버지들을 위한 자녀코칭법 연수' 축하 공연 5.27 레인보우 외국인학교 "Korean Weeks" 축하 공연 6.11-14 전통음악교실(우륵당, 총 19개 기관, 2,202명 참여) 9.3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 우리춤' 10.26 '개포1 · 4동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잔치' 축하 공연 11.8, 12 '2013 서울교원 음악축제' 참가 11.20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락과 춤' 12.26-27 제21회 소리샘예술제(국립국악원 예악당) 12.28 KBS 국악대상 축하 연주

사진 4-4-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국악고등학교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1) 개관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0608호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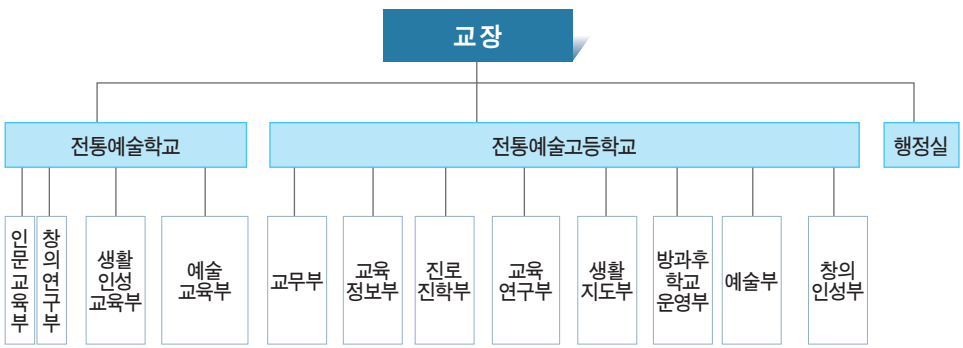
1960년 5월 13일 종로구 관훈동에서 사립인 국악예술학교로 개교하여 1960년 6월 8일 국악예술학교 부설 '관광예술 요원 양성소'(학제 2년의 고등학교 과정)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64년 남산 교사로 이전하였다가 1968년 종로구 운니동으로, 1970년 4월 7일 다시 석관동 교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71년 2월 28일에는 중학교 과정의 국악예술학교를 중단하고, 1971년 9월 30일 고등학

교 과정의 한국국악예술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 2월 28일 재단법인 국악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다. 1983년 5월 30일에는 학교 법인 국악학원으로 조직 변경하고 1984년 12월 17일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10월 29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흥동 교사로 이전하였다.

중학교 과정인 서울국악예술학교는 2000년 4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8월 23일 중학교 과정의 학력 인정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3월 2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 및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국립 학교인 전통예술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로 각각 전환되었으며,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의거 2012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 이관되었다. 현재는 전통예술학교가 학년마다 각 2학급씩 전체 6학급, 전통예술고등학교가 학년마다 각 6학급씩 전체 18학급으로 편제되었으며, 입학 정원은 전통예술학교가 60명, 전통예술고등학교 180명 등 전체 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인 전통예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전통예술고등학교는 각각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1명의 교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교무부, 교육정보부, 교육연구부, 생활지도부, 진로진학부, 예술부, 방과후학교운영부, 창의인성부의 8개 부서와 중학교에는 인문교육부, 창의연구부, 생활인성교육부, 예술교육부의 4개부서로 운영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겸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행정실이 있다. 2013년 본 학교에는 교장 1명, 교감 2명,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31명, 행정실 직원 9명 등 정규직원 5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 6명과 기숙사를 포함한 행정실 소속 계약직 33명이 학교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중학교 3개 학년 각 2학급씩 총 6학급에 172명과, 고등학교는 3개 학년 각 6학급씩 총 18학급에 52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림 4-4-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2번지
※ 누리집 (홈페이지) : www.kugak-am.hs.kr

전통예술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74억 6백만 원으로 인건비가 27억 77백만 원, 사업비가 46억 29백만 원이다.

(2) 기본업무

본교는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 글로벌 문화의 시대에 알맞은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민족예술 전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시작으로 10월 1~2일에는 동해 독도를 소재로 종합 예술제인 '제52회 민족예술 대제전'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1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동아리 한마당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성과 다양성, 개방성이 크게 확대된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 영역별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예술 행사를 4회 이상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봉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 중국, 일본, 유럽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문화 예술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전통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문화사절단 역할과 문화지킴이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추진 성과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인적 예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전공실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술제, 작곡발표회, 음악연극 발표회, 무용발표회, 졸업발표회,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전공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2013년도에 추진한 실적 가운데 우선 학교 주관 행사를 살펴보면, 재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2013 신입생환영연주회(03.14)'를 시작으로 음악연극과 학생들의 정기공연(06.19~20), 모교출신이 중심이 되어 전통예술인들의 큰 잔치로서 치러진 제1회 한류예술축제(5.13~16)그리고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성대하게 치러진 '제52회 민족예술대제전(10.1~2,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용과 정기공연(11. 13), 작곡전공 학생들의 제16회 작곡과 정기발표회(12.9)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학생들의 실기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공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행사를 연계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그밖에 금천구청 주최로 진행된 '학부모 자신만만 아카데미 식전행사 공연(05.28)', 제3회 금천 청

소년 문화존공연(06.15)을 시작으로 '서울국제유스양궁페스타 문화공연(07.07~11)', 광주MBC '우리가락 우리문화'출연(07.09), 오리 이원익기념관 개관식 공연(09.12), 국악관현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10.04) 백제문화제 폐막식 공연(10.06), 2013 광화문 문화마당 가을시즌 '예술의 계단' 출연(10.20),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참가(10.26), 제3회 지영희 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 출연(11.09), 안중근 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음악회출연(11.09), 등에 참가하여 지역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전통공연 예술의 진미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국제교류의 대내외적인 행사는 '1차 한 · 중 청소년 특별교류(06.13~20), 중국 성도시 청뚜국제 청년음악축제 참가(07.24~31), 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한(07.31~08.04), '2차 한 · 중 청소년 특별교류(09.04~11),중국 금범공연단 본교방문 합동 공연(10.31), 몽골 태무진 관현악단 초청 합동연주회(11.04), 태국 보라랏 논타부리학교 본교방문 합동연주(11.07), 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일(11.15~19), 청소년 전통(아리랑)예술단 국외연수 및 공연(12.16~24), 일본 시카리오카 여고 본교방문 합동연주회(12.26)등 국제 행사의 수준 높은 많은 행사에 초청되거나 합동공연을 통하여 우리 전통예술을 보급하는 등 전통공연 예술의 사회적 · 국제적인 위상정립과 보급을 위하여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초 ·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음악영재 교육원은 한국 음악과 음악 연극의 영재를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전통음악과 연희극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며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및 예능영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예술학교에서 2013년도에 추진한 실적 가운데 우선 2013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문화예술활성화 실천학교로 지정되어 우리 춤의 일반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국민건강증진 무용체조 '아리랑체조'를 개발하였다.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으로 개발되어진 아리랑체조는 사라진 우리의 고유 춤 문화를 되찾고 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한국의 가 · 무 · 악의 요소가 충분히 깃들어 있는 우리춤 사위 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하면 온 국민이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세대를 아울러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체육시간이나 노인들의 여가 시간 · 직장인 체육대회 등에 활용 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춤 운동법을 보급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올해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무용 · 연희 전통예술 알리기 공연활동을 추진하였다. 방송댄스, 비보이, 탱고 등 서양 춤 문화가 크게 보급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본교 전통무용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연장 또는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사라져가는 전통무용연희 예술의 저변이 확대시켰다. 먼저 학교 주관 행사를 살펴보면, 재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2013 신입생환영연주회(03.26)'를 시작으로 1년간 교육과정 실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제13회 전통예술제전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12.025)', 전공별 발표회였던 '제2회 음악연극전공 발표회–안네의 일기(07.17)', '제2회 무용전공발표회–우리춤 우리가락 '아리랑체조'(12.05)", '제

2회 현금풍류 거문고 앙상블 정기공연–(11.03)',‘제3회 전통연희예술단 예락 정기연주회 – 겨울이야기(12.24)'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학생들의 실기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공연을 통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한마당(전일제 봉사활동의 일환)(07.11)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지역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전통예술의 진미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인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체험배움터 워크샵(04.24)',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09.07)', ‘故박헌봉 선생님의 岐山 국악당 개관 기념식 공연(09.08)', ‘광명시 오리 이원익기념관(오리서원) (09.12), '금천구민의날(10.15), '제18회 강동선사문화축제'(10.12)등 국내의 수준 높은 행사에 초청되어 전통예술을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악 알리기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 교실'은 2013년 8월1일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18일까지 총 8회 진행이 되었다. 이 공연을 통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 국악기 모양 및 특징을 소개함으로 국악기에 대한 지식을 키워주었고, 초등학생의 진로 · 적성 교육에 기여를 하였다.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우리춤 우리가락 ‘아리랑체조'를 알리기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리랑체조는 대한교육신문(2013.12.19제2051호), MBN뉴스보도자료(2013.12.06), 라디오 국악방송 '김병오의 꿈꾸는 아리랑'(2013.12.09) 등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

표 4-4-15 201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학교별	구분	내용
고등학교	공연활동	03.14 2013 신입생환영연주회(본교 향사기념관) 04.04 빛고을 국악전수관 '목요상설기획공연참가(빛고을국악전수관) 04.27. 국립국악원 연희풍류 공연장 개관기념 공연(국립국악원) 05.13~16 제1회 한류예술축제(기산극장, 향사기념관) 05.28 한국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참가(국립국악원) 05.28 학부모 자신만만 아카데미 식전행사 공연(금천구청) 06.08. 2013 기호유학 인문마당 '행복' 을 노래하다 참가(충남역사문화연구원) 06.11. 한국여성의 전화창립 30주년 축하공연(한국여성의 전화) 06.19~20 음악연극과 정기공연(향사 기념관) 06.15. 2013 제3회 금천청소년문화존 공연(금천구 일원) 06.28. 학교방문순회연주 '우리국악스타일' 공연(구로 아트밸리) 07.07~11. 서울국제유스양궁페스타 문화공연(올림픽 공원) 07.09. 광주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출연(광주MBC) 09.06 퓨전국악콘서트 참가(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09.12. 오리이원익 기념관 개관식 공연(오리 이원익 기념관) 10.01~2 제52회 민족예술대제전(국립국악원 예약당) 10.04. 국악관현악단 창단50주년 기념연주회(국립극장) 10.06. 백제문화제 폐막식 공연참가(부여 구드래 특별공연장) 10.20. 광화문 문화마당 가을시즌 '예술의 계단' 공연참가(세종문화회관) 10.26.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참가(종로 국악로 일원) 11.09 제3회 지영희 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11.09 안중근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음악회(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11.13. 무용과 정기공연(금천구청 금나래 홀) 12.11 움직이는 문화공연 참가(태안 문화원) 12.16~24 청소년 전통(아리랑)예술단 국외연수 및 공연 (체코 프라하 국립음악원)
	국제교류	06.13~20 제1차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중국일원) 07.31.~08.04 일본 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한(향사기념관) 07.24~31. 중국 성도시 청뚜국제청년음악축제 참가(중국 성도시) 09.04.~11 제2차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중국일원) 11.04. 몽골 태무진관현악단 초청 합동연주회(기산극장) 11.07. 태국 보라랏 논타부리학교 본교방문 합동공연(향사기념관) 11.15~19 일본 가고시마 아이라시 축제 참가(일본 아이라시) 12.26. 일본 시카리가오카 여고 본교방문 합동연주회(향사기념관)
	지역 봉사활동	04.13 금천벚꽃축제 참가-관현악,사물고적대,합창-(벚꽃축제특설무대)
	기 타 (예능영재 학급)	04.20 영재학급 학생 선발전형 05.04 영재학급 입학식 07.24-07.31 하계 집중교육기간 07.31 하계발표회 11.08 - 11.14 후반기 집중교육기간 11.14 산출물대회 및 수료식

학교별	구분	내용
전통예술학교	공연 및 교류활동	03.26 신입생환영연주회 06.16 교직원 가족을 위한 대천 효도 캠프 06.22 남부교육청 워크샵 초청공연 07.10 제1,2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7.12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한마당(전일제봉사활동의 일환) 07.13 제3,4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7.16 제5,6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7.17 제7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7.17 제1회 음악연극전공 발표회 '우리동네' 07.19 제1회 무용전공발표회 '우리들의 해바라기 이야기' 07.21 국립극장 여우樂 페스티벌 식전행사 초청 08.18 2012 수원컵 배구대회 식전행사 08.18 제8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21 제9,10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23 제11,12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24 제13,14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27 제15,16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29 제17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8.30 제1회 짱거문고 앙상블 정기공연 '창천' 08.31 제18,19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9.04 제20,21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09.06 제22,23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10.19 제24회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12.04 제12회 전통예술제전 '향사의 꿈, 순풍에 돛달아라' 12.24 제2회 전통연희예술단 예락 정기연주회

사진 4-4-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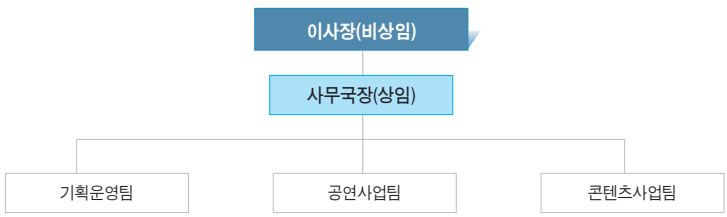
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 개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7년 (재)국악문화재단으로 출발하여 국악강습, 국립국악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국립국악원 후원조직 성격이 강한 (재)국악문화재단의 인적개편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09.7.22자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새롭게 확대 개편되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전통공연예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전통공연예술 인력양성 관련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이사장(비상임) 1명, 사무국장(상임) 1명과 기획 운영팀, 공연사업팀, 콘텐츠사업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4-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內 국악연수관 1층
※ 누리집 (홈페이지) : www.kotpa.org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2013년 예산은 총 110억 원으로 전통 공연 예술 문화학교 운영사업비 5.6억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비가 52억 원, 기금 및 기타보조금사업이 53억 원이다.

(2) 기본업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연간 1500여명에게 전통예술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등 전통예술 원형보존사업과 국제국악연수, 아리랑 세계화 사업 등 총 36개 사업의 전통예술 대중화 · 산업화 ·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토기금을 통해 전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명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추진 성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간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살려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전통예술분야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 예술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고궁공연 관광자원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대궁에서 전통공연 50회 실시),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종묘상설공연10회, 세계무형유산 활용 축제 지원 10개),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잔치(전통마을축제지원 및 홍보 32개 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전통 공연 예술의 전승 및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공모과제 5개 선정 지원), 국제국악연수(해외음악학자 10개국 16명 연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운영(4개 과정, 72개 반 운영), 전국예술고 국악전공생 심화교육(지방예술계고교 국악전공생 33명 심화교육 및 문화체험), 해외문화예술봉사단(한국문화원이 있는 3개국 / 터키, 폴란드, 헝가리에 대학생 12명 봉사단 파견)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전통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는 해외 레지던시(5개국 32명 / 예술가개발프로그램 5개국 16명, 아카데미연수프로그램 1개국 16명 파견 / 해외 예술인 초청 워크숍 7개국 14명 초청), 아리랑세계화(아리랑전시회, KBS 아리랑 대공연, 한류스타 아리랑 음반제작, 아리랑 홍보동영상 제작, 교육용 콘텐츠 보급, 문화융성 녹지원음악회),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사업(전통예술 우수도서 2종 및 악학궤범 영문번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타 전통예술관련 사업으로는 청소년전통예술단 국제연수 및 공연 (국립 국악 · 전통 예술 고등학교 국제연수 /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진행), 꿈의 오케스트라 "한국전통형 엘시스테마" (4개 국악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 관광용 로봇 시범사업(전통문화재현, 패션 마네팅, 안내/해설 로봇 운영),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연희난장", 대한민국아리랑 유네스코 1주년기념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4-4-16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성과(2013)

보조금 사업명	금액 (단위:천원)	비고
아리랑세계화사업	830,000	아리랑대공연(KBS홀), 아리랑교육용콘텐츠보급(10개학교), 한류스타아리랑음반제작(4,000부), 아리랑홍보동영상제작(1,000부), 아리랑기획전시, 청춘아리랑공연 등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100,000	전통예술 우수도서 2종(강릉단오제, 종묘제례), 악학궤범 영문번역(3년간)

보조금 사업명	금액 (단위:천원)	비고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280,000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공모과제(5개) 선정, 지원,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자료제공
전통예술 해외레지던시 사업	400,000	해외 파견 6개국, 32명, 해외 예술인 초청 14명
인도수교 40주년 기념공연	425,000	총 4회 공연 (뉴델리2, 뭄바이, 첸나이) 4,200명 관람
청소년전통예술단 국제연수 및 공연	100,000	서유럽 4개국, 동유럽 2개국 연수 및 공연 / 공연 6회
유네스코등재 기념공연	210,000	유네스코 등재 기념 공연 (총5회 공연), 줄타기,강강술래, 남사당 (국립국악원 예악당), 처용무,가곡,판소리,종묘제례악 (국립국악원 우면당, 예악당)
꿈의 오케스트라 "한국전통형 엘시스테마"	200,000	4개 지역(서울, 남원, 부산, 남도) 초등학생 88명 국악교육, 성과발표회(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문화관광용 로봇 시범사업	1,100,000	전통문화재현 로봇공연(총 140회), 안내해설로봇 3개 처 현장운영(12개월), 패션로봇 4개 브랜드 5개 매장 운영(5개월), 문화관광 로봇영화제 및 포럼개최(영화 5편, 발제 6건)
국제국악연수	50,000	해외 전문음악인, 국악교육자 등을 초청(16명)
전통예술 기획자양성프로젝트	50,000	프로젝트 25명 수료, 수료자 국악방송 ucc공모전 대상 수상, 국립국악원 소식지(국악누리)공연리뷰수록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300,000	시범공연(공모를 통해 10개작 지원 및 심사), 우수공연(시범공연을 통해 선정된 3개 작품 공연/심사, 우수 1개작은 2014 재지원)
전통연희 활성화사업	613,000	창작연희 작품공모(5개작 지원), 창작연희 상설공연(3개 지역, 12회 공연), 창작연희 페스티벌(공모작 5개 작품 공연 및 시상)
창작국악극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창작국악극활성화 세미나 및 창작국악극페스티벌 개최
김치와 김장문화 및 아리랑 대토론회	40,000	발제 7명(김장문화 3명, 아리랑 4명), 자료집 200부 제작
국고보조금(11건) 합계	5,198,000	
아리랑 음반 제작사업	88,598	아리랑 패키지 2,000부 제작, 해외문화홍보원, 세종학당 연계 해외 배포(14개국 한국문화원)
전국 예술고 국악심화교육	100,000	전국 예술계고교 국악전공생 33명 수료(수도권제외), 국악교육, 문화체험, 특강 진행(8월)
고궁공연 관광자원화	900,000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 (5월~10월 7,8월 제외), 경복궁음악회(집옥재 12회), 창덕궁음악회(후원, 낙선재24회), 덕수궁음악회(함녕전 14회)
세계무형유산활용관광자원화	967,000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10회), 세계무형유산 관련 사업 공모(10개 사업지원)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잔치	300,000	민족고유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축제 32개 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전통예술 풍물활성화	400,000	전국 5개 지역(서울 2곳, 순천, 대구, 춘천) 상설공연 100회 진행

보조금 사업명	금액 (단위:천원)	비고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아제르바이잔 공연	150,000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 해외 공연 추진 / 관람인원: 총1,500명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	400,000	아리랑 해외교류 사업 공모(3개 사업 지원)
해외문화예술봉사단	120,000	터키, 폴란드, 헝가리 파견 / 강습 152회, 공연 44회
창작국악극 시상식	300,000	작품상 3개 부문(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개인상 8개 부문(극본상, 연출상, 연주상, 음악상, 작곡상, 남자창우상, 여자창우상, 특별상) 선정 및 수상
은퇴계층 활용 관광자원화	200,000	우리음악이 흐르는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4회 공연), 우리음악이 흐르는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8회 공연)
문화융성 녹지원음악회 “우리맛, 우리멋”	350,000	청와대 녹지원 1회 공연
Baudouin De Jear 거문고 CD제작	5,870	벨기에 작곡가 협업 / 거문고 산조 녹음 및 CD 발매
아리랑 코리아	300,000	KBS홀 1회 공연
기금(14건) 합계	4,581,468	
국악동요제	60,000	국악동요제 개최 (국립국악원), 12개팀 선정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연희난장”	50,000	직거래장터 개설, 민속놀이, 연희 행사 개최 / 17회 (상반기 10회, 하반기 7회 실시, 7개 도, 15개 지자체 참가)
방방곡곡 문화공감	443,169	소외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시설 파견 3개 국악원(서울,민속,남도) 참여, 12개 지역 13회 공연 실시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공연	16,363	국립국악원 제4회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문화예술공연 초청공연 (창작악단48명 참여)
KBS 3D입체영상 복원 의궤 8일간의 축제	17,020	'원랭을묘정리의궤'를 토대로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를 3D 입체영상으로 복원(국립국악원 무용단 및 정악단 촬영 협조)
대한민국 아리랑 유네스코 1주년 기념공연	16,000	대한민국 아리랑 유네스코 1주년 기념 공연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관람인원 410명, 삼척MBC 방송중계)
기타 사업수입	115,267	
기타사업(6건) 합계	717,819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	557,063	4개 과정, 72개반, 1470명 수료 완료
해외문화교류사업 지원	-	일본(이키), 태국(방콕) 강사 및 공연단 파견, 초청공연
자체사업(2건) 합계	557,063	
지원 사업비 총계	11,054,350	

5) (재)국악방송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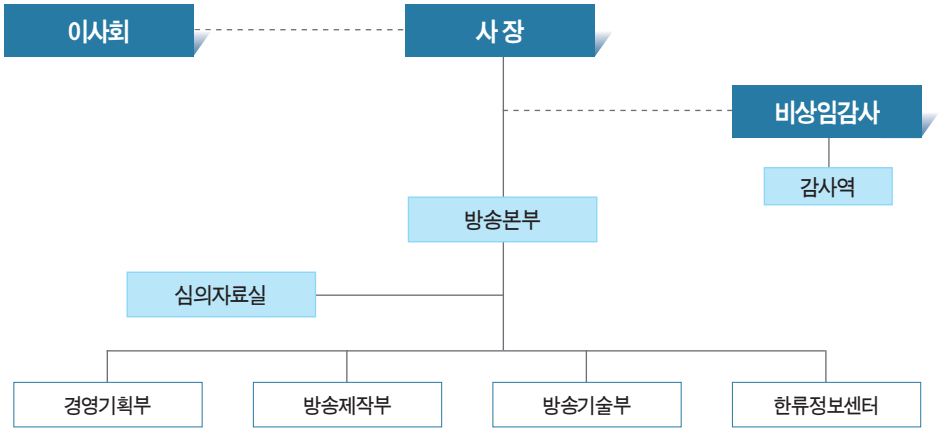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FM방송은, 한국 전통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 · 경기와 전북 남원, 전남 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 전주, 부산, 강릉, 대구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고, 2014년에는 광주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다.

표 4-4-17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명칭	방송구역	주파수	송신소	개국
국악FM방송국	서울, 경기 일원	99.1MHZ	남산서울타워	2001. 3. 2
국악FM남원중계소	전북 남원시 일원	95.9MHZ	남원 교룡산	2001. 6. 1
국악FM남도중계소	전남 진도, 목포, 해남, 강진일원	94.7MHZ	해남 대둔산	2006. 7. 6
국악FM경주중계소	포항 및 경주일원	107.9MHZ	포항 도음산	2010. 4. 7
국악FM전주중계소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완주 일원	95.3MHZ	전주 미륵산	2011.10.27
국악FM부산중계소	부산, 김해, 양산 일원	98.5MHZ	영도 봉래산	2011.11.8
국악FM강릉중계소	강릉 일원	103.3MHZ	강릉 괘방산	2012.12.14
국악FM대구중계소	대구일원	107.5MHZ	대구 앞산	2012.12.30

(재)국악방송은 사장 1명, 방송본부장 1명, 심의자료실, 경영기획부, 방송제작부, 방송기술부, 한류정보센터 등 1본부 1실 3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44명이며, 지역중계소 인력을 포함해 현원은 44명이다.

그림 4-4-5 (재)국악방송 조직도



※ 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 DMS 10~12층
※ 누리집 (홈페이지) : www.gugakfm.co.kr

(재)국악방송의 2013년도 예산은 93억 12백만 원으로, 사업비 71억 37백만 원, 인건비 16억 2백만 원, 경상운영비 5억 73백만 원이다.

(2) 기본업무

(재)국악방송은 전문감상, 공연실황, 청소년 교양, 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해 하루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권역 이외의 국민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www.gugakfm.co.kr)을 통해 실시간방송 및 다시듣기, 다시보기 방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있고, 또한 2012년 말 영상중계차를 도입하여 국악방송의 영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청인구를 확대하고 국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악방송 지역 중계소를 설립하고 있다. 2001년 서울, 경기 및 남원 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남도, 2010년 경주, 2011년 전주, 부산에 이어 2012년 강릉, 대구를 개국함으로써 현재 8개 지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63%에 해당하는 3,005만 명이 라디오를 통해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산과 전주 중계소부터는 자체 제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송출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지역중계

소에는 상주인력이 중계소를 관리하고 방송 송출 및 지역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악방송은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해 광주, 대전, 제주 등 비가청지역에 지역중계소를 설립하여 청취층을 넓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 대중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추진성과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 국민의 문화행복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44명의 인력으로 송 · 중계소 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송권역 확장으로 전 국민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웹 등 뉴미디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영상스튜디오, 2012년 HD 영상중계차를 도입하여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실황중계, 공개방송, 특집다큐 등 국악 및 전통문화의 영상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최상의 방송품질 제공을 위한 방송장비 관리 및 교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미 LA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등 해외 방송사에 국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 교포 및 현지인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음악가를 양성함으로써 국악의 미래를 선도하고 21세기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한류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생생한 국악현장의 전달 및 국내 · 외 한류정보를 방송함으로써 국악한류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대행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수행사업으로는 2013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 2013 서울 국악한마당, 2013 서울 젊은국악축제 등을 수행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으로는 다양한 전통 음악과 창작음악은 물론 국악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교양, 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작해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2013년은 정규프로그램 5,445편과 특집 54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악음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화(2013년 누적 5만8천곡)와 음반 산업화와 민족음악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보존을 위해 전통음악을 녹음(2013년 누적 213개 CD분량)하였다.

표 4-4-18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3년 10월)

시간		프로그램			진행		
시	분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5		김원선의 솔바람 물소리(전주)			김원선		
6		이정일의 좋은 아침, 좋을시고			이정일		
7		은영선의 창호에 드린 햇살(1.2부)		구술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은영선		-
8		08:54★한류정보센터입니다		김호성의 음악박물관			김호성
9		최종민의 국악산책			최종민		
10		이근찬.전소현의 한류만세(1.2부)		한류만세 유자효가 만난사람	이근찬 전소현		유자효
11		10:54★한류정보센터입니다					
12		가야랑의 행복한 하루(1.2부)	이선주의 얼쑤 991(1.2부)		가야랑	이선주	
1		12:54★한류정보센터입니다					
2		이종구.박희은의 상암골 상사디야(1.2부)		김준호 손심심의 오락가락(1.2부) (부산)	이종구 박희은		김준호 손심심
3		14:54★한류정보센터입니다					
4		김병오의 꿈꾸는 아리랑(1.2부)		이상화의 국악이 좋아요	김병오		이상화
5		16:54★한류정보센터입니다		위 훈의 국악은 내 친구			위훈
6		이주향의 맛있는 라디오(1.2부)		박정욱의 국악대간	이주향		박정욱
7	30			노래를 찾아서			
8		김성욱의 FM국악당	한상일의 국악, 한길을 가는 사람들	남상일의 소리소문	김성욱	한상일	남상일
9		책이 좋은 밤(1부.2부)	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		구영희	이금희	
10			국악방송 라디오극장			-	
11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이용식의 아시아 음악여행	황윤기		이용식
12		이진화의 깊은 밤 깊은 소리			이진화		
1							
2		흐르는 음악처럼			김민경		
3							
4							
일 5회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이은경		

표 4-4-19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일자	수상 내역	연출	구성
2010.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국민별감 박춘재')	김성욱	남화정
2010.12	국악방송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10 방송미디어 분야 우수상 수상	국악방송	
2010.12	제18회 불교 언론 문화상(라디오부문 최우수상) (특집 부처님 오신날 '건달바의 노래')	김은하	남화정
2011.02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가곡, 태평을 노래하다')	전성희 김혜경	박근희 유찬숙
2011.09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꿈꾸는 아리랑 특집 '아리랑의 생태학')	김정은	
2011.12	제19회 불교 언론 문화상(라디오부문 최우수상) (2011부처님 오신날 특집 '영산재, 그 향기 누리 가득히')	전성희	
2012.02	이달의PD상(한국PD연합회) (2012설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경계에 선 사람들')	김연주	박길숙
2012.03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한국방송통신위원회) (국악은 내 친구 2012 설특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뿅')	김혜경	오선화
2012.09	제39회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라디오 작품상(한국방송협회) (2012설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경계에 선 사람들')	김연주	박길숙
2012.12	제20회 불교 언론 문화상(조계종 총무원) (2012 석가탄신일 특집방송 음향다큐멘터리 '천년소리 풍경')	김우성	남화정
2012.12	2012 한국방송 비평상((사)한국방송 비평회) (행복한문학)	한지희 박건삼	남애리 유하나
2013.03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념 특집)	김우성	유찬숙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 공예로 구성된 시각예술디자인정책은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시장 신뢰성 제고,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한국 공예의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 미술시장은 1990년대 침체국면이 지속되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미술시장은 지난 2년여의 호황을 뒤로하고 2년간 극심한 침체를 맞았다. 2009년에는 2008년 후반부터 극심해진 미술시장 불경기의 여파가 확산되어 2008년부터는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술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더불어 정부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방침으로 인해 미술시장은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8년부터 정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6,045억 원에서 2012년 말 현재 4,407억 원까지 규모가 줄어 화랑과 경매회사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들어서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과 다르지 않게 회복 국면에 조금씩 들어서게 되었다.

표 4-5-1 국내미술 전시 횟수(2005~2012)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횟 수	8,858	8,924	8,908	10,023	10,495	12,127	12,754	12,507

표 4-5-2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2005~2012)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횟 수	191	261	234	508	376	304	364	419

위와 같은 미술시장의 흐름은 국내 시각예술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미술경매 시장의 활성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세계 미술시장의 호황, 국제적 감각을 갖춘 작가의 등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결과로 미술시

장이 활성화 되었었다. 창작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창작뿐 아니라 유통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결과다. 즉, 양도소득세 폐지, 기업이 미술품 구입 시 손비처리, 미술은행제도 도입, 해외 아트페어 지원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국내 미술의 불안정한 유통구조, 소수 작가와 일부 장르에 집중된 거래, 투기적 거래형태 등의 문제로 국내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6000만 원 이상 생존작가 작품에 대한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처리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랑, 경매, 아트페어 뿐만 아니라 작품 판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술계와 협력하여 2005년도에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공공미술 사업, 국내미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지원 등 정부에서는 작가들의 창작기반 조성, 우리미술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국민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술의 생활화 및 대중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미술관 육성 및 지원, 기획인력 지원, 인턴지원 등 중앙과 지방의 미술에 관한 균형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채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전제이며, 나아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가 시민의 삶에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 일상의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간이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서체 디자인 전시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를 통하여 디자인의 문화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구)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년여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이름인 '문화역 서울 284'로 2011년 8월 개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공예의 경우 단지 보존 · 복원의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예는 국가 및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고유한 미적 가치 그리고 실생활의 기능적 가치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문화예술이자 산업적 가치를 띄고 있는 분야다. 이와 같은 공

예의 특성에 주목한 세계 문화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 문화 정체성의 중추를 이루는 공예와 관련한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예술부문의 하나로 공예를 주목하여, 200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공예전담기관인 (재)한국공예 문화진흥원을 설립 · 운영하였고,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예문화의 대국민 확산, 공예산업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각종 전시 지원사업, 유통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시각예술 정책

(1) 미술은행 제도 운영

가. 목표 및 연혁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FNAC), 독일(IFA) 및 호주(Art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여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작가에게는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 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무적인 기능만 수행하였으나 2009년부터 미술은행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개편을 통해 미술은행 팀이 구성되었다. 미술은행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미술은행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품구입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과 제안형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품 구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작품구입 심사위원회(매 심사별 5명 이내)를 구성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가격심의위원회(매 심사별 5명 이내)에서 구입할 작품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정부미술은행을 발족하여 그동안 각 부처별로 취득 · 관리되었던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구입 · 관리하고 있다.

2008년도에 책정된 미술은행 예산 26억 원 중 작품구입으로 21억 4,550만 원을 활용하였으며, 총 7회(추천제 2회, 공모제 1회, 현장구입 4회)에 걸쳐 작품을 구입하였다. 2009년도 미술은행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삭감된 16억 원으로 이중 12억 5,187만 원으로 총 4회(추천제 1회, 공모제 1회, 현장 구입 제 2회)에 걸쳐 작품을 구입하였다. 2010년도 예산 20억 원 중 구입예산은 15억 8,576만 원으로 총 4회(공모제 1회, 현장 구입 제 3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작품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천제는 폐지되었다. 공모제의 경우 2008년도부터 개인전 개최 인정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터넷 응모 등 편의를 도모한 결과, 응모자 수가 전년(373명) 대비 3배(1,128명)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 현장구입제의 경우 한국 국제 아트 페어(KIAF), 마니프(MANIF) 외에 서울 오픈 아트 페어(SOAF)를 추가하고, 서울 국제 판화 사진 아트 페어(SIPA)를 제외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지방미술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대구 아트 페어, 부산 아트 페어(BIAF)가 추가되었으며 2012년에는 아트광주, 전시주목이 추가되었다. 2013년도 에는 좀 더 역량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작품구입 방법을 공모형과 제안형 등으로 구분하여 작품구입을 하였다.

표 4-5-3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2008~2013)

(단위: 천 원, %)

구분	계	추천제	공모형	제안형									
				소계	아트 에디션 (구 SIPA)	SOAF	아트 광주	KIAF	MANIF	대구 아트 페어	부산 국제 아트 페어	전시 주목 작품	위원 제안
2008	2,104,550 (100.0)	364,000 (17.3)	1,399,750 (66.5)	340,800 (16.2)	34,600	-	-	272,200	34,000	-	-	-	-
2009	1,251,870 (100.0)	374,100 (29.9)	506,350 (40.4)	371,420 (29.7)	-	-	-	274,820	96,600	-	-	-	-
2010	1,585,760 (100.0)	-	940,500 (59.3)	645,260 (40.7)	-	125,650	-	364,410	155,200	-	-	-	-
2011	1,509,850 (100.0)	-	832,000 (55)	677,850 (45)	-	121,000	-	256,500	181,200	46,000	73,150	-	-
2012	1,508,100 (100)	-	652,600 (43)	855,500 (57)	87,000	115,800	48,600	275,700	55,900	58,000	27,000	187,500	-
2013	1,267,800 (86)	-	817,100 (53)	450,700 (33)	-	-	-	79,000	-	-	-	-	371,700

표 4-5-4 연도별 정부미술품 구입 내역 (2012~2013)

(단위: 천 원)

구분	계	추천제	공모형	제 안 형								
				소계	아트 에디션 (구 SIPA)	SOAF	아트 광주	KIAF	MANIF	대구 아트 페어	부산 국제 아트 페어	전시 주목 작품
2012	499,000 (49)	-	-	499,900 (49)	-	-	-	-	-	56,000 (9)	17,900 (5)	426,000 (35)
2013	406,600 (60)	-	183,500 (24)	223,100 (36)	55,600 (16)	36,000 (3)	17,000 (2)	-	47,000 (7)	-	67,500 (8)	-

나. 운영방식

미술작품 구입 대상작가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2013년도부터 1점당 작품구입가격을 5,0000만원(정부미술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작가별 연간 작품 구입가격 한도는 역시 6,000만원(정부미술품 3,000만원)으로 확대하되 이 범위 안에서는 다수 작품 구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르별 작품 구입 비율은 2005년 이래 매년 대여 수요자의 작품 선호도를 반영하였고, 2010년도 역시 전년도 비율에서 일부 조정하여 한국화 25%에서 20%, 서예 · 문인화 5%에서 3%, 서양화 38%에서 49%, 판화 7%에서 5%, 조각 10%, 뉴미디어 및 설치 5%에서 3%, 순수공예 5%에서 3%, 순수사진 5%에서 7%로 변경하였고, 2011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비율로 구입하였다. 2012년~2013년도에는 우수한 작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평면, 입체, 매체 3개의 분야로 구분하되 장르별 예산배정 없이 유연하게 구입하였다.

표 4-5-5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08~2013)

(단위: 점, 천 원)

년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계
2008	493,500 (92)	49,100 (10)	21,100 (5)	908,400 (149)	211,000 (35)	80,900 (21)	107,450 (36)	128,700 (17)	104,400 (24)	2,104,550 (389)
2009	266,900 (40)	0 (0)	21,000 (5)	564,620 (75)	104,300 (15)	51,400 (10)	44,950 (12)	116,100 (13)	82,600 (15)	1,251,870 (185)
2010	320,950 (47)	19,000 (3)	19,000 (3)	827,010 (120)	145,950 (22)	45,100 (10)	47,100 (12)	55,300 (8)	106,350 (22)	1,585,760 (247)
2011	310,800 (51)	0 (0)	8,200 (2)	803,150 (132)	177,900 (30)	27,400 (7)	44,000 (20)	50,000 (8)	88,400 (17)	1,509,850 (267)

년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계
2012	268,300 (58)	4,000 (1)	0 (0)	754,000 (137)	219,000 (6)	39,500 (8)	22,100 (33)	44,000 (7)	157,200 (31)	1,508,100 (281)
2013	213,100 (18)	12,000 (1)	6,500 (1)	807,500 (47)	87,500 (6)	36000 (2)	10000 (2)	10,000 (1)	85,200 (8)	1,267,800 (86)

* ( ) 작품 구입 수

표 4-5-6 연도별 정부미술품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2~2013)

(단위: 점, 천 원)

년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계
2012	73,500 (9)	0	0	260,400 (28)	63,000 (5)	0	0	63,000 (5)	40,000 (2)	499,900 (49)
2013	82,000 (11)	0	7,000 (1)	179,000 (22)	43,000 (5)	4,000 (1)	21,100 (10)	26,000 (3)	44,500 (7)	406,600 (60)

* ( ) 작품 구입 수

미술은행을 통한 구입 작품은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환경 개선과 주민대상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미술관의 기획전, 그리고 한국 미술의 홍보를 위해 재외공관 등에 우선 대여하여 미술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한국 미술의 해외 홍보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대여 여부는 민간 미술품 대여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여료 율은 대여 목적 및 대여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하였으며, 민간의 대여시장이 화랑 · 갤러리의 경우 3~8%, 개인 등의 경우 3~10%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하였다.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 율은 다음과 같다.

표 4-5-7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 율

구분	국내의 기관 등 환경조성		국내기관의 기획전시(비영리목적)	재외공관 등 한국미술의 홍보		
	1~6개월	7-12개월	1~3개월	최초 1년	2년	3년차
대여료 율	1.5%	1.0%	0.5%	0.5%	1.0%	1.0%

※ 대여료는 작품 총 가액(구입가격) x 대여료 율 x 개월 수

다. 성과 및 전망

미술은행 사업은 우수한 작품 수집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작품구입, 구입 심사기능 강화, 공정한 작품가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심의 기능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을 통해 작품구입에 관한 제도를 개선 ·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미술문화 공간에의 대여실적이 2005년 20회에서 2006년 63회, 2007년 72회, 2008년 80회, 2009년 89회, 2010년 99회, 2011년 130회, 2012년145회, 2013년 159건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미술은행 제도는 인천, 전남, 강원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및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4-5-8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2008~2013)

년도	대여횟수 (회)	대여기관수 (개소)	대여 작품 수(점)	대여 작품 총가 액(원)	대여 수익(원)
2008	80	52	1,527	8,109,790,000	168,464,060
2009	89	58	1,093	6,018,740,000	343,850,100
2010	99	68	1,048	5,961,420,000	380,388,400
2011	130	89	1,212	6,933,220,000	385,775,800
2012	145	99	1,362	8,012,440,000	412,513,000
2013	159	104	1,553	9,284,440,000	519,402,200

(2) 공공미술 사업추진

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 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는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문화적 환경의 조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반면 법령상의 미술장식의 개념 및 기능이 물리적인 치장을 의미하는 '장식'에 국한되어 건축물과

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건축주, 작가, 중개인 간 담합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작품이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주, 미술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0년 8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은 협소한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규제적인 측면을 완화하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서버 및 장비 도입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 · 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3천여 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2008년 5,200점, 2009년 2,299점, 2010년에 1,615점, 2011년에 812점, 2012년 635점, 2013년 617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13년 말 현재 총 1만 4,178점에 대한 상세정보가 확보되었다.

표 4-5-9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현황(2006~2013)

(단위: 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진 내용	데이터베이스 포털 구축	3,000	5,200 (누계 8,200)	2,299 (누계 10,499)	1,615 (누계12,114)	812 (누계 12,926)	635 (누계 13,561)	617 (누계 14,178)

나.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정책의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미술은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미술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르인 공공미술은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지역생활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예술을 창조하여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전체에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국민문화 · 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문화 환경개선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2005년도 9차례에 걸쳐 TF 회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2006년에 12억 2,500만 원(복권기금)으로 수행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Art in City 2006)'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최초 사업이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게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욕구를 담아내고 미술가의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실시한 공공 미술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며 다른 사업들(2007년 서울시의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경북 문경시의 공공미술위원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미술전문위원 중심에서 공간, 건축 분야 전문위원이 위촉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도 부분 위원회로 축소 · 개편되었다. 사업구성은 2006년도와 동일하나 그 명칭을 일반 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속사업, 홍보사업으로 하였으며, 2006년도와 같이 복지관들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매체홍보도 함께 한 결과, 서울을 포함하여 115건의 공모가 접수되었고 15개 지역의 마을, 복지관, 노숙자 · 노동자를 위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2009년에는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2009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시행되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추진되었다.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약 10:1의 경쟁률로 전국 21개 지역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을 포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지역작가를 활용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 · 주민 · 지자체의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200여건 이상의 응모 안을 신청 받는 단계부터 장소 사용 등과 관련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 당선된 21곳 중 자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거나 지속사업으로 연장한 사례들이 6곳(완주, 철원, 양평, 공주, 안동, 부산)이나 되는 등 그 관심이 뜨거웠다. 예술 경영 지원센터의 사업 평가 결과 완성된 작품과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작가 66%, 주민 62%로 양측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그 수는 213명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원 금액에 대한 작가들의 만족도는 52%에 그쳐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도 사업효과를 기반으로 한 홍보를 바탕으로, 지방비 매

칭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작가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작가가 장소를 직접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였으나, 2010년도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먼저 공모하고 선정된 장소에 작가가 작품공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는 작가가 단독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노고를 덜어줘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공공미술 사업에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한 지자체들의 사업 관여도를 높여주었다. 아울러 2009년 국고(적립금)만으로 추진했던 것을 2010년에는 국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매칭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2009, 2010년 2년에 거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 사업의 모델처럼 자리 잡으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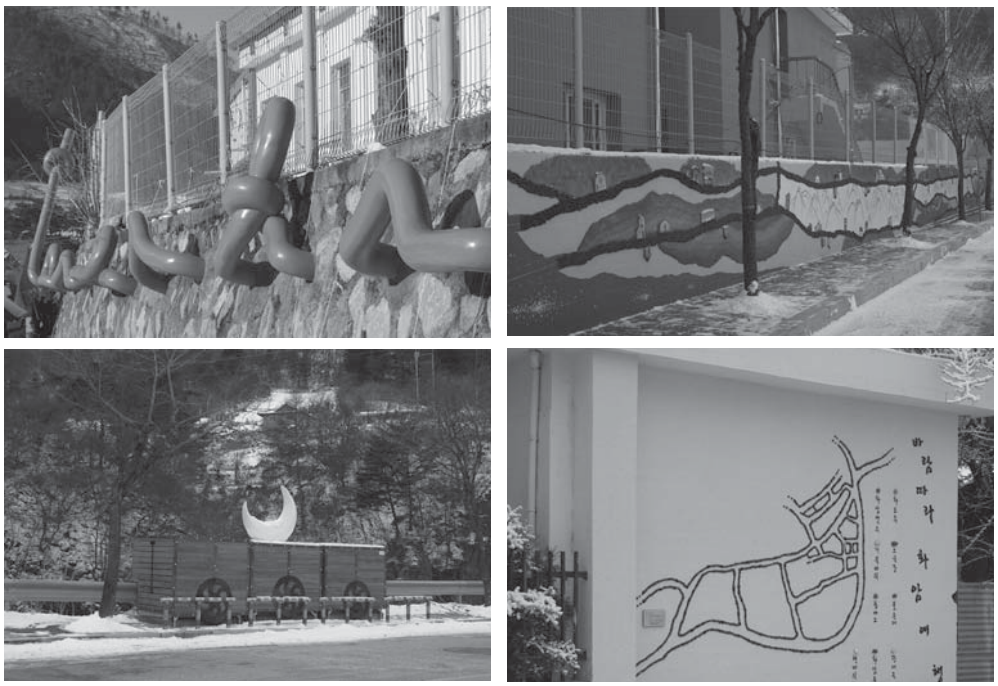
2009년과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문화적 수혜의 전국적 확산, 2011년, 2012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지역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3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미술의 확산을 통해 대중화시킬 수 있는 아트투어프로그램 추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미술 대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4-5-10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명	지역	팀명	주요내용
행복프로젝트	강원도 정선군	-	○정선군 내 '그림바위' 마을선정 - 폐교, 주택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기쁨두배 프로젝트	전남 화순군	시화문화마을팀	화순 남산 내 예술 작품과 숲이 제공하는 힐링체험 공간조성
	충북 음성군	노래하는 공작소	전래동요 발상지라는 잠재된 문화를 공공미술로 승화(동요마을 이야기)
	강원 영월군	에코메이즈	아트미로(2010년)의 유기적인 확대
	제주 서귀포시	아트플랫폼	기 조성된 "유토피아로"를 예술생산과 가치창출의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할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명	지역	팀명	주요내용
예술의정원	부산 수영구	바다를 사랑하는 작가들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해양문학, 해양예술을 통해 스토리텔링화
	전북 순창군	예술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소재로 청렴, 정의정신을 주제로 하여 문화예술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 광복이후 초대 대법원장
	강원 양양군	빈 스페이스	양양의 '연어이야기' 를 소재로 공공미술 작품제작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형상화
	경기 양평군	옥천 작가들	팔당호 주변 '옥천수공원' 을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력있는 공간으로 재창조
	대구 달성군	엔조이컬처	달성군 내 '하리마을' 고유의 생태, 생활도구를 활용, 문화마을 조성
	포항 북구	봉황의 전설	새마을운동의 예술적 재해석을 통한 농촌문화 재정립 및 농촌활성화(폐교 활용 등)
자유제안	경기 남양주시	공공예술 들로화집단	호수공원과 오남리의 차단벽을 天 · 地 · in을 주제로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

사진 4-5-1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강원 정선



* 출처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maeulmisul.org

(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가. 미술행상 활성화 지원

①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지원

(사)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창설하였다. KIAF는 2009년까지 매년 국고 3억여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6년에는 13개국 150개 화랑이 참여하여 총 5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에는 18개국 208개 화랑이 참여하여 총 6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20개국 218개 화랑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참가율을 이루었으나, 2009년에는 16개국 168개 화랑이 참여하여 미술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참가국과 참가화랑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16개국 193개 화랑이 참가하여 미술시장의 회복세를 띄었다. 2011년에는 17개국 192개 화랑이 참여하고 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2012년에는 20개국 181개 화랑, 2013년에는 15개국 183개 화랑이 참여하였으며, 각 행사마다 8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NS를 통한 마케팅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관람객이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본전시외에 부대프로그램과 학술프로그램 및 VIP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표 4-5-11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2003~2013)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화랑 (해외)	참가작가	국고지원
2003	6. 24 - 6. 29	코엑스 인도양홀	30개국	107(30)	340	200
2004	6. 22 - 6. 27	코엑스 인도양홀	13개국	123(40)	600	300
2005	5. 24 - 5. 29	코엑스 인도양홀	11개국	126(40)	499	300
2006	5. 26 - 5. 30	코엑스 태평양홀	13개국	150(51)	700	300
2007	5. 9 - 5. 13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18개국	208(92)	1,300	400
2008	9.19 - 9. 23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20개국	218(102)	1,500	300
2009	9.18 - 9. 22	코엑스 태평양홀, C홀 및 D홀	16개국	168(122)	1,200	300
2010	9. 9 - 9.13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16개국	193(73)	1,450	0
2011	9.22 - 9.26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17개국	192(75)	1,500	0
2012	9.13 - 9.17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20개국	181(61)	1,200	0
2013	10.3 - 10.7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15개국	183(53)	1,500	0

KIAF와 연계하여 개최한 Art Flash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 키네틱아트 작가 · 작품을 보여주는 행사로서 2013년도에는 백남준 특별전을 개최하여 작가의 천재적이고 뛰어난 작품세계와 더불어 백남준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진 4-5-2 2013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 출처 : 한국국제아트페어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kiafstory

② 아트에디션2013 지원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주최, 아트에디션2013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2013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SETEC에서 아트에디션2013이 개최되었다. 2010년 SIPPA에서 Art Edition으로 행사명이 변경된 이후 2011년도에 200여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고 총 12,000여명이 방문하였고 2012년도에는 50개 갤러리, 3만5천명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에는 15개 갤러리 및 관련업체 60개 업체가 참여하여 3만여명이 방문하였다. 아트에디션은 국내외 유일의 복수미술 전문 아트페어로 판화, 사진, 영상 및 조각 작품뿐만 아니라 에디션이 존재하는 모든 복수 미술품을 어우르는 장르 특성화 아트페어이다. 2013년 아트에디션을 개최하면서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임과 동시에 복수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③ 2013 국제미술전 참가지원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해외 유명 아트페어 참가화랑들의 경비를 (사)한국화랑협회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42개 화랑이, 2005년도에는 11개 아트페어에 29개 화랑이, 2006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37개 화랑이, 2007년도에는 21개 아트페어에 50개 화랑이, 2008년도에는 26개 아트페어에 65개 화랑이, 2009년도에는 18개 아트페어에 47개 화랑

이, 2010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50개 화랑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9개 아트페어에 41개 화랑이 참여, 2012년도에는 10개 아트페어 17개 화랑이, 2013년도에는 10개 아트페어, 21개 화랑이 참여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지속 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술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회랑은 해외 미술시장에 국내작가를 소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자 활발히 해외 아트 페어 참가하였다. 2013년 국내 화랑들은 Art Stage Singpore2013(싱가폴), Art13 London(런던), SCOPE New york 2013(뉴욕), Volta New york 2013(뉴욕), Art Beijing 2013(북경), Frize Art Fair NY 2013(뉴욕), Art Basel HK 2013(홍콩), Art toronto 2013(토론토), Art Taipei(대만),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2013(싱가폴)등의 다양한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화랑들의 아시아권 아트페어 참여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권 시장이 충분히 글로벌화 되어 다양한 구매층을 접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비가 저렴한 이점이 있어 미주권 아트페어보다 더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는 '대안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진출 시장의 다원화 및 이로 인한 신규 시장의 개척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RT HK(아트바젤 홍콩)는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와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급부상한 아트페어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금력, 우수한 전시환경, 외환거래의 편의성 등으로 미술품 거래의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ART HK의 성공적인 개최는 향후 세계적인 아트페어의 동아시아권 진출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주변권역의 아트페어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망한 시장인 아시아권 아트페어의 국내화랑 진출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5-12 국제 아트 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13)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국고지원	참 가 아트페어	참가화랑	판매실적		비고
				작품수	금액	
1999	200	5	12(24)	125	958	
2000	200	9	12(20)	97	897	
2001	200	8	12(23)	94	876	
2002	200	8	11(20)	419	1,495	
2003	200	14	29(40)	375	1,945	
2004	200	17	42(68)	472	2,014	
2005	200	11	29(62)	330	2,230	
2006	150	17	37(66)	400	3,500	

연도별	국고지원	참 가 아트페어	참가화랑	판매실적		비고
				작품수	금액	
2007	150	21	50(107)	500	7,000	
2008	200	26	65(143)	550	9,000	
2009	200	18	47(65)	350	6,600	
2010	200	17	50(81)	400	7,600	
2011	180	19	41(69)	380	7,900	
2012	165	10	28(48)	350	7,600	
2013	160	10	28(42)	350	11,000	
합 계	2,805	210	493	5,192	70,615	

※ 참가화랑 수중 ( )안은 중복 참가화랑 숫자임.

④ Korean Art Show 2013 지원 사업

(사)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화랑협회와 KIAF 주관하여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스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14개 갤러리가 참가하여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 4회 Korean Art Show전시가 개최되었다. 2010년에 시작되어 3회를 거듭하는 동안 Korean Art Show는 뉴욕에서 독자적인 페어로 행사를 진행해왔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더욱 효과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2013년에는 새로운 전시 형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기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트페어와의 협업을 통해 별도의 홍보 비용 없이도 많은 관람객과 컬렉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Korean Pavilion이라는 특별 주빈국 형식 도입이 관람객과 컬렉터들로 하여금 한국의 동시대미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3년 Korean Art Show가 열린 휴스턴은 오일과 셰일 가스 등 풍부한 천연 자원과 선박 등 다양한 산업이 집중되어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도시로서 Museum of Fine Art Houston, Asia Society, Contemporary Arts Museum Houston, Menil Collection 등 많은 미술관과 아트센터가 모여 있고, Museum of Fine Art Houston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관이 마련되어 있는 등 아시아 미술은 물론 한국 미술에 특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Korean Art Show는 이러한 지역에 화랑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최초의 대규모 행사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문화와 예술의 저력을 더욱 성공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사진 4-5-3 2013년 Korean Art Show

* 출처 : 휴스턴 지역 한인 신문(위플, 코리아저널)

나. 시각예술 홍보 지원

①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 KAP(Korean Artist Project)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주관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 가상미술관을 구축하여 국내 작가의 작품과 작가이력, 전시기록, 전시장 등의 방대한 자료를 국 · 영문으로 아카이빙하고 해외 무대에 한국작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작가와 전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Korean Artist Project는 웹사이트(www.koreanartistproject.com)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구축(1차 사업)을 201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80개 회원미술관 중심의 참여 작가 30명 내외, 미술관 15개관을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선정하고 2단계 사업 때 40명 내외, 3단계 사업에 40명 내외의 작가를 추가 선정하여 총 100여 명의 작가가 가상미술관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고해상도 작품 이미지 소개 및 이미지 크게 보기 기능, 개별 작품 이미지를 해당 작가의 프로필 자료 카테고리로 연계하여 작품 감상기능, 인터넷상에서 실제 전시를 감상하는 효과를 연출하여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를 2012년 12월 5일에 오픈했다. 홈페이지 내 동영상 섹션에서는 작가인터뷰, 미술관 주요 기획전과 개인전 전시 관련 행사, 국제적인 미술계인사들의 강연 등 콘텐츠를 국 · 영문 버전으로 제작하였고 그 밖의 작가약력, 작품 아카이브, 평론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작품의 이해와 개별 작가의 작품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사진 4-5-4 온라인 가상미술관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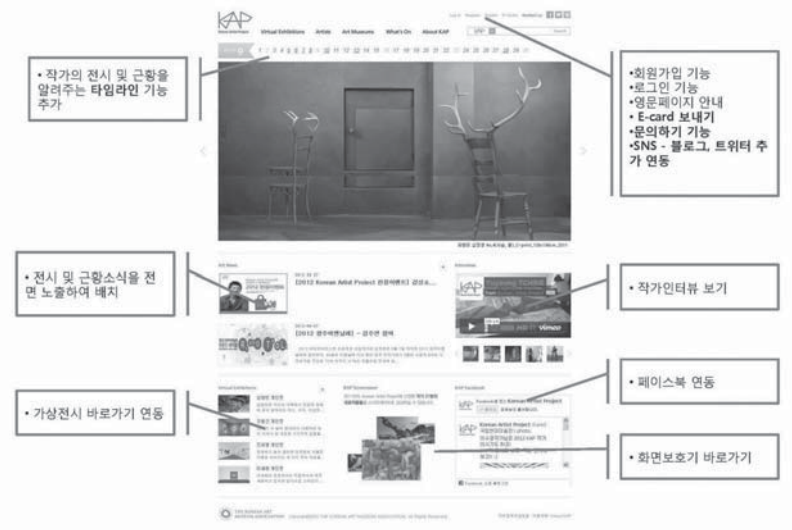


사진 4-5-5 온라인 가상미술관 VR 전시장 예

홍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국내 미술관계자들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미술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하였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하여 일간지, 월간지, 방송, 온라인매체로 보도되었고, 앞으로 협력 포털사이트와 국공립 기관 사이트, 미술관련

온라인 페이지에 배너가 개제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구글 본사와 아시아 지역의 작가들을 소개할 '구글 아트프로젝트2'를 진행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21명 작가 아카이브 및 21개의 가상 전시실 추가 구축 및 What's on, 타임라인 캘린더, E-card, 스크린세이버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용 웹 페이지 개발하였다. 또한 홍보 부문에 집중하여 국내외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의 제휴 (구글 아트프로젝트, 네이버 캐스트), 국내외 미술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2012 홍보대사 하정우 위촉 및 홍보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국내 일간지 22회, 월간지 10회, 온라인 11회 보도되었으며, 해외 온라인상에도 5회 보도되었다. 2013년 주요 실적으로는 21명 작가의 아카이브 및 21개의 가상 전시실을 추가로 구축하고 안드로이드와 IOS체계의 스마트폰에서 KAP 웹사이트의 VR기능이 구현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3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에 미술한류의 대표사례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②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 현대미술의 제반 역량에 비해 해외 홍보역량이 취약하여 해외 미술계 관계자들의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접근성 제약되어 있어 해외 주요국가 정부 및 관련기관의 자국 작가 해외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흐름에 맞춰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해외 진출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더 아트로(www.theartro.kr) 웹사이트를 통한 한국 미술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콘텐츠 기획을 위해 국내 책임 편집위원 1인과 해외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하여 국영문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표 4-5-13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	대상 업무	세부내용
1단계 (2011년)	글로벌 플랫폼 기반 형성	○ 한국현대미술 허브사이트 더 아트로 설계 및 구축 - 콘텐츠 기획 : 한국현대미술의 주요동향, 한국 대표 작가 및 큐레이터 등 소개 • 외부전문 기획위원 구성하여 자체 콘텐츠 기획
2단계 (2012년)	네트워크 구축	○ 더 아트로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시각예술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국내외 매체 제휴 및 협력체결 - 국 영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타깃 층 설정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방향 설정 - 전문적인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자체 콘텐츠 기획 - 더 아트로 콘텐츠를 기반으로 무크지 제작 ○ 국 영문 뉴스레터 발행 - 국문 주 1회, 영문 월 1회 발송 ○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대외 협력체계 구축

단계	대상 업무	세부내용
3단계 (2013년~)	진출 · 교류 활성화	○ 더 아트로 웹사이트 지속 운영 및 홍보 확대 ○ 해외 시각예술 국제교류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작가, 큐레이터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해외미술계 큐레이터 및 관계자 초청 및 리서치 지원 ○ 직접적인 교류채널 확보 및 실질적인 진출 도모 - 한국작가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 교육프로그램 진행

표 4-5-14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콘텐츠 수집 · 가공 · 제공 성과

구분	이용자 현황		콘텐츠 수			필자	뉴스레터			
			기사		발간물		국문		영문	
	홈페이지 방문자수 (IP기준)	홈페이지 접속량	국문	영문			발송 횟수	발송 대상자수	발송 횟수	발송 대상자수
1단계	2,672	19,964	99	30		30	2	17,773	2	27,790
2단계	6,998	37,119	142	48	2	46	20	20,565	5	28,859
3단계	25,004	98,397	234	44	1	60	45	23,795	12	29,181
합계	34,674	155,480	475	122	3	136	67		19	

※ 1단계: 2011.9~2012.6 / 2단계: 2012.7~2012.12 / 3단계: 2013.1~2013.12

(4)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미술진흥의 거점기관화를 목표로 사립미술관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사립미술관에서 미술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합체인 자립형미술관 네트워크(이하 자미 넷)를 결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3년도에는 자미 넷 주최 '자립형미술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진행비 300만 원), 2004년도(3,000만 원)에는 인턴프로그램, '2004년 한국 미술관백서' 발간, '국내 사립미술관 홍보실태 조사 및 성공적인 홍보방안' 발간, 미술관의 날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4년도에 사립박물관 · 미술관 전시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36억 원을 확보하여 25개 미술관 전시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미술관 인턴사원 제도를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재정상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미술관의 육성을 위해 복권기금 포함 13억 8,2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사립미술관 전문 인력 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연계 및 활성화 사업, 미술품 전문 해설사 지원 사업, 특별전시 및 공동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등록 사립미술관에 대한 학예인력 지원 및 인턴 지원 사업, 사립미술관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사업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매년 각각 30명 내외의 학예 전문 인력과 인턴을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술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미술관 전문 온라인 매거진(Art Museum) 발행과 뮤지엄 페스티벌 개최,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계 및 세무 지침서, 운영관리 매뉴얼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 사립미술관 육성 지원 사업

① 뮤지엄 페스티벌

(사) 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소속된 49개 미술관의 전시장, 교육실 및 부대시설에서 유아,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문화소외계층을 상대로 5월 한 달간 'Museum Festival–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전시 개최 및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6년 제 1회 뮤지엄 페스티벌 개최 이후 2013년에는 총 61개관이 참여하여 각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전시를 개최하고, 이와 연계된 예술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471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96,716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Museum Festival'을 전국규모 미술축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시와 연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에듀케이터 및 큐레이터)가 개발 · 진행함으로써 전시품을 매개로 작가–미술관–지역주민 사이의 소통 기회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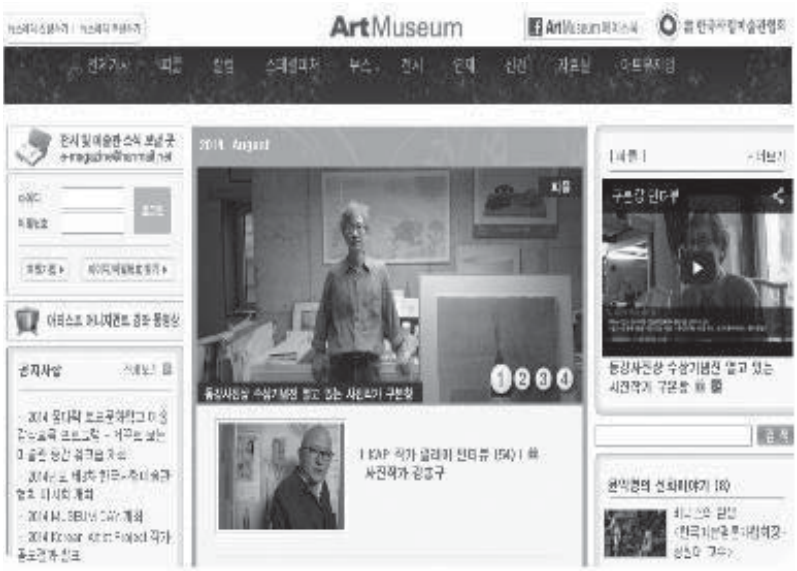
② 온라인매거진

미술관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 사립 미술관협회에서 온라인미술관소식 전용 웹 사이틀(www.artmuseums.kr)를 통해 미술계 인물 및 작가인터뷰, 전시 소개, 전문가 칼럼, 국내외 미술계 소식, 협회소식 등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매거진 Art Museum을 월 2회 (둘째, 넷째 월요일) 지속적으로 국내 미술관 및 미술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으며 미술관관련 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제공 및 의견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은 동영상 서비스 강화, 페이스 북 연동서비스, 이미지 크게 보기 서비스, QR코드 서비스를 활성화, 영국현대미술기행 시리즈 연재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12년 1년 동안 라인 강 일대 네덜란드와 독일의 이색적인 미술관 탐방 연재를 통해 국내 미술관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미술관 컬렉션과 운영방식을 집중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재불 한국예술인 총연합회장이 직접 연재하는 '프랑스 미술, 이래서 강하다' 시리즈를 통해 프랑스 현대미술의 전모(全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11월 뉴스레터 표지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대대적으로 개편, 독자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2011년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결과를 성공적으로 반영하였다. 2013년에는 미술관을 포함한 영국문화예술 관련 주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연계 전시 등을 심층 소개하는 '황정인의 영국문화예술 아카이브' 연재. 미술관 박물관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모범 사례위주로 소개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세계 미술시장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현대미술계의 작가양성 프로그램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중국현대미술 작가양성 프로그램' 연재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 4-5-6 온라인 매거진 Art Museum(www.artmuseums.kr)



나. 인력지원 사업

① 2013 학예인력 지원 사업

한국박물관협회는 2013년 학예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학예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감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미술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밖에도 큐레이터 인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등록 사립박물관 · 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일환으로 큐레이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교환과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직무교육(4.19, 8.27~29., 12.9)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설명회 → 1차 연수(기본) → 한국미술관국제학술대회(협회 주관) → 2차 심화연수(워크숍) → 전문교육(교육아카데미) → 3차 연수(결과보고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심화시켰고 지원인력 대상 근무실적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DB구축 · 업무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직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② 2013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

2013년 등록 사립미술관 55개관에 각 1명씩 중도퇴사자 포함하여 총 60명의 인턴 큐레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미술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직 중인 미술관련 전공자 및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미술관 현장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해소에 기여하였다. 근무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해 출근부, 업무보고서, 근무평가서 및 근무실적을 4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을 선정 하여 동기부여를 하였고, 지원기간 10개월 동안 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내역과 성과를 정리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표 4-5-15 2013년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대상 관 명단

지원 사업 대상 관 명단			
1	가일미술관	29	우민아트센터
2	고은사진미술관	30	우종미술관
3	국윤미술관	31	은암미술관
4	금호미술관	32	의재미술관
5	기산미술관	33	이영미술관
6	남송미술관	34	일현미술관
7	남진미술관	35	자하미술관
8	남철미술관	36	잠월미술관
9	당림미술관	37	정문규미술관
10	대담미술관	38	진주미술관
11	대산미술관	39	코리아나미술관
12	도화헌미술관	40	킴스아트필드
13	돌하르방공원	41	포스코미술관
14	마가미술관	42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15	모란미술관	43	하슬라미술관
16	모산조형미술관	44	한광미술관
17	밀알미술관	45	한국미술관
18	상원미술관	46	한원미술관
19	서호미술관	47	헬로우뮤지움
20	석봉도자기미술관	48	닻미술관

지원 사업 대상 관 명단			
21	선화기독교미술관	49	대림미술관
22	성안미술관	50	무등현대미술관
23	쉐마미술관	51	무릉고서화미술박물관
24	스페이스몸미술관	52	사비나미술관
25	신풍미술관	53	아미미술관
26	아트선재센터	54	영은미술관
27	아트센터나비	55	환기미술관
28	영담한지미술관		

2) 디자인공간문화정책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가.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은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 · 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 · 예술 · 관광 진흥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기존의 대규모 개발 · 건립사업을 지양하고, 근대산업유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한 리모델링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업유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능동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008년 10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대구, 포천, 아산, 신안, 군산)를 선정하여, 2009년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부터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포천의 폐채석장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2011년 조성이 완료된 이후 각종 언론 보도와 중학교 과학교과서 수록, 연계 관광상품 출시 등 사업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말공연, 기획전시, 창작체험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으로 누적 방문객(2013년 말 기준)이 약 82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대구 구 연초제초장 창고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대구예술발전소는 2012년 8월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실험적 프로젝트 '수창동에서', 북 카페인 '만권당 프로젝트'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하여 구도심의 재생 및 문화예술의 창작 및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일제 강점기 근대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군산은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을 근대건축관으로, 일본 제18은행은 근대미술관으로, 무역회사였던 미즈상사, 미곡창고, 적산가옥 등은 미즈카페, 공연장 등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2013년 6월에 개관하였다.

표 4-5-1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전북 군산	일제 강점기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일제강점기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 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소금을 소재로한 문화체험공간 조성 -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 소금공원, 염전경관 조성 등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교육 · 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 관람 · 편의시설 확충
대구	구 KT&G 연초창	예술창작 복합문화공간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KT&G 리모델링, 미디어테크(문화예술자료) -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충남 아산	구 장항선 폐철도 등	공연, 전시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등 - 농협창고(2동) 리모델링

사진 4-5-7 포천 아트밸리

사진 4-5-8 대구 예술발전소

사진 4-5-9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나. 구(舊)서울역사 복합 문화 공간 '문화역 서울 284' 운영지원

구(舊) 서울역사는 1925년 건립된 이후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 ·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하였으며,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부터 일부는 문화관으로, 1997년부터는 철도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 폐쇄되었으며, 2004년 KTX 민자역사가 개통되면서 기차역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적 · 문화적 의미를 살려 구(舊) 서울역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2011년 4월부터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을 위탁받았으며, 2011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으로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7억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77% 증가하였다.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시, 공연, 교육, 광장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구(舊) 서울역사는 다양한 장르가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는 구(舊)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 · 문

화적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중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참여 폭을 넓혔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2013년 전시 관람객 83,861명, 공연 관람객 15,859명, 교육 참가자 512명, 대관프로그램 관람객 65,000여명으로 총 165,0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시는 기획전(여가의 새발견, 대중의 새발견, 근대성의 새발견), 상설전(유연한 역사, 퍼블릭 프로젝트:환대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연은 기획공연(어울마당, 풍물세상, 여가의 새발견, 삐에르빠뜨랑, 아트플랫폼 스페셜 에디션, 경성쌀롱), 정기공연(서울역 문화공작소, 아트플랫폼, 오픈 스테이지, 즉흥상설-고수푸리 등)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기획전과 연계한 문화탐방으로 대중예찬, 여가의 새발견_리바이벌, 근대만담을 개최하였다.

사진 4-5-10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기획전1:여가의 새발견

기회전2:대중의 새발견

정기공연

기획공연

교육프로그램 1

교육프로그램 2

(2)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산

가.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안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기조로 첫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전국 51개 학교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로 변모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원학교 선정→디자인워크숍→설계 및 시공→문화공간 운영의 4단계로 진행된다. 지원학교는 연초에 진행되는 공모절차에 따라 시급성과 필요성, 시설 낙후정도, 시공예산 확보, 학교의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에는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 디자인 전문가를 디자인디렉터로 지정하여 디자인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의 핵심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워크숍의 프로그램을 디자인 이론, 모형만들기 등 체험형 디자인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학교별로 디자인디렉터의 진행 하에 3~5회 추진되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의견 수렴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들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버려져있던 빈 교실과 중앙현관, 층과 층을 잇는 계단참 공간 구석구석에 아이들을 위한 쉼터, 문화예술 활동공간이 만들어졌고, 조용히 바르게 앉아 책을 읽던 도서관은 구석구석에 만들어진 나만의 공간에서, 혹은 서로 짝지어 둘러 앉아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책을 나누는 공감 터로 변화했다.

이러한 학교의 문화적 환경개선을 통해 심미성과 쾌적성이 제고되어 학생, 교사의 학교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조성된 문화공간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4-5-17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학교

지역	학교명	개선 공간
서울	신원초등학교	연결복도
서울	지향초등학교	연결복도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	중앙현관
부산	월평초등학교	도서관
광주	동산초등학교	현관
충남 서산	운산초등학교	구 체조실
충북 음성	남신초등학교	도서관
전남 화순	화순고등학교	외부연결로

사진 4-5-11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전 · 후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서울 지향초등학교	연결복도	문화쉼터
서울 신원초등학교	연결복도	문화쉼터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	중앙현관	문화쉼터
서산 운산초등학교	체조실	복합문화강당
부산 월평초등학교	스마트교실	도서관

나. 문화디자인프로젝트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문화적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이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유휴공간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적 공간 모델 형성 및 공간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지역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에는 논산시 연산역, 충주시 달천역, 보성군 득량역, 김천시 직지사역이 선정되어 연산

역에 간이역체험 · 커뮤니티시장을 위한 공간이, 직지사역에는 전시실 · 소 공연장, 역 광장 체험 공간 등이 조성되었다. 2012년에는 경북 영주 희방사역과 경남 양산 원동역의 외관 개선,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기획 등이 완료되었고, 2013년에 선정된 증평역 등 7개 소규모 유휴공간에 대해서도 문화공간 조성이 추진되었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간이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개선된 공간 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특히 각 지역별 사업총괄기획자(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 협의체 구성, 워크숍 ·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추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5-18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추진현황

년도	대상	사업명
2011	경북 김천 직지사역	옛 추억이 묻어나는 간이역
	전남 보성 득량역	과거 · 현재 · 미래가 공존하는 간이역 전통 문화 공간 조성
	충남 논산 연산역	樂!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 만들기
	충북 충주 달천역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2012	경북 영주 희방사역	죽령 이야기 터, 소백산장 조성
	경남 양산 원동역	원동역 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2013	충북 증평 증평역	주민과 함께 쉬어가는 해바라기로 조성
	경북 봉화 분천역	낙동강 금강송 이야기역 조성
	울산 남구 공업탑지하보도	공업탑지하보도 활성화
	강원 영월 운일분교	신선의 길, 자연을 닮은 문화 나눔터
	전북 진안 (구)마령복지회관	진안고원 농촌 문화발전소 조성
	전남 보성 득량면 역전길	득량면 추억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
	제주 상가리 창고	상가리 서학당 문화곳간

사진 4-5-12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진

양산 원동역

충주 달천역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시작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초기에 주로 가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사업,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이 그 예이다.

주로 가로경관 개선에 중점을 주었던 기존의 개선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2007년부터 지역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4-5-19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요내용(2013)

지역		사업대상	사업 내용
경기 안양 ('07~'12)		안양시 만안구 공공디자인 도시 조성	삼덕공원 디자인 거리 및 상설 문화공간 조성, 가로 시설물 정비, 커뮤니티하우스 건립 등
수변공간	경기 양평 ('09~'12)	한강 아트로드 조성	생태공원 및 예술공원 등 문화공간 조성
	전북 익산 ('09~'13)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옛 선착장 복원, 시민 문화쉼터, 소공원 등 조성
	경북 안동 ('09~'13)	탈춤공원 주변 공공디자인 조성	안동 인도교 및 탈춤공원 주변 문화공간화
	부산 진구 ('09~'12)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	젊음의 거리 등 특화된 디자인 · 예술거리 공간 조성
충북 청주 ('10~'13)		사직공원 공공디자인 조성	디자인 거리 및 문화테마공원 조성

2007년부터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경상북도 안동, 부산광역시 진구, 전라북도 익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디자인 거리 및 문화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 청주가 추가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그 중 경기도 양평의 '한강 아트로드 조성'은 2012년 사업이 완료되어 환경교육특화공원 · 예술공원 조성, 국지도 정비 등을 마친 상태이고, 부산 진구의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2012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어 젊음, 음식 등 거리별로 주제를 정해 도로 · 간판 · 가로등 정비, 조형물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금강체험관 조성, 소달구지길과 산책로, 만남의 터 등이 조성되었으며 경기 안양, 경북 안동, 충북 청주에도 공공디자인의 일환으로 인도교, 공원, 가로 시설물 등이 조성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활력 제고로 이어져 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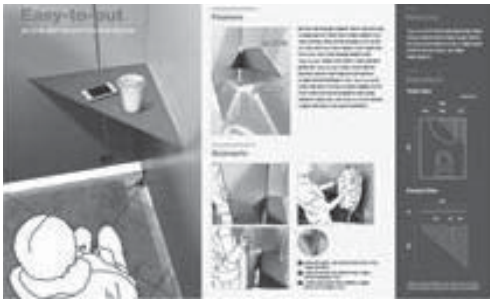
라.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공공디자인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공공 부문의 디자인 개선 사례발굴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고 인식을 확산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3 대한민국공공디자인 대상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는 '우수사례 부문'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아이디어 부문',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부문'으로 나누어 작품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부는 공공디자인 대상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디자인을 통한 문화발전을 고민하는 노력과 성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례를 뛰어넘어 물리적, 무형적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 삶의 활성화에 방향성을 두고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3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사례부문에 버려진 폐광을 예술문화 단지로 소생시킨 강원도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공공디자인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수원시 〈내일을 여는 방〉이, 우수상에는 대구광역시 〈대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가 선정되었다. 디자인아이디어부문 대상으로는 공중 화장실용 접이식 선반디자인으로 〈Easy to put〉이 선정되었다. 〈Easy to put〉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불편을 디자인을 통해서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 4-5-13 2013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우수사례부문(대상)
삼탄아트마인 공공디자인 지역재생 프로젝트
(정선군,(주)솔로몬)



디자인아이디어부문(대상)
Easy-to-put
(권민희 외3인)

마.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햇수로 일곱 번째를 맞는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은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당면한 이슈의 재해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2013년 11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심포지엄은 '디자인이 있는 행복한 삶'라는 주제 하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커뮤니티디자인, 지역(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서비스디자인 등 문화적 관점에서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견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공 문화디자인의 전망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3년 심포지엄 1부에서는 '디자인과 문화'를 주제로 대니 융(홍콩현대문화원 의장), 황순우(바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제2부에서는 '디자인과 삶'을 주제로 수지 매튜스 (시드니 시의회 비즈니스 · 안전 담당관), 벤자민 모저 (스위스 시니어 디자인 팩토리 대표), 안연정 (문화로놀이짱 대표)이 발제하며 이후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연사들은 파괴와 혁신 이전에 비판과 성찰의 문화적 중요성, 문화예술로써 지역의 재생한 사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도시의 야간 환경을 변모시키기 위한 작업들과 공공장소 활용방식, 세대 간 협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가능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을 역설했다.

사진 4-5-14 2013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바.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는 2001년 제1회 서울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1년 제2회 타이포잔치 2011 행사로 부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한글을 비롯한 전세계의 텍스트를 매개로 전문가, 학생, 일반 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슈퍼텍스트(Supertext)'라는 주제로 문자디자인과 문학이라는 영역의 만남을 통해서 디자인의 융복합적 문화성을 제시하고,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대표 작가 58팀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참여 작가 및 작품이 더욱 다양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본 행사에는 현대카드 전용폰트로 유명한 닥터폰트 대표 이호, '안삼열체'를 발표한 한글 서체 디자이너 안삼열, '붕가붕가 레코드'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한 인디록 디자이너 김기조, 더 북 소사이어티, 카를 나브로(프랑스), 마크 오언스(미국), 폴 엘리먼, 존 모건(이하 영국), 모니커(네덜란드), 판친, 샤오마거/청츠(이상 중국), 하마다 다케시, 오하라 다이지로(이상 일본) 등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타이포잔치 2013'은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화역284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서 타이포그래피를 비롯한 디자인문화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디자인 비엔날레로의 브랜드 구축을 통하여 디자인 선진국가로의 문화 국가 위상 제고 및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사진 4-5-15 2013년 타이포잔치 행사 사진

(3)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 제고

가. 건축문화 교류 및 행사

①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감수성 고양,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 까지 서울에서 개최해 오다가 2008부터는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시청광장에서 20여개의 전시행사와 다양한 국내외세미나 및 시민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전시작품수만 340여개가 전시되어 국내 건축분야 최대의 전시가 되었다. 더불어 서울시 주최의 서울건축문화제와 공동개최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 ·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한 이번 행사는 '좋은 건축'이란 주제로 일반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건축에 대한 의문과 해석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좋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과 대중간의 생각의 차이와 간극을 좁히고, 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좋은 건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건축가 대담'을 진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집과 건축, 공간과 도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동네 건축가 오픈 오피스를 통해서는 건축가의 작업공간에서 건축가와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의 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건축대전 일반 공모전은 740여 명이 지원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80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전시하였으며, UIA(국제건축가연맹)의 인준을 받은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을 개최하였다. 그 밖의 전시로는 젊은 건축가들의 독특한 전시형태의 특별전이 개최되었고 '서울 파빌리온 프로젝트'라는 주제특별전은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광장에 임시 조형물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일시적인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은 사회적 행위이며, 그 형태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 전시에 사용된 전시테이블 등의 전시용품을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하여 전시의 질과 미를 높였으며, 전시 종류 후에는 보육시설, 교육단체 등에 기부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사진 4-5-16 201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② 2013 젊은 건축가상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은 2008년 '젊은건축가상'을 제정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 시작한 Les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et des Paysagistes(새롭게 선정되는 젊은 건축가, 조경설계자 앨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45세 이하의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드러난 잠재적 역량,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5인 내외의 건축가를 선정, 시상한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며, 공공프로젝트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새 건축사 협의회, 한국 건축가 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 젊은 건축가상'은 6회째를 맞이하였고, 올해는 신혜원, 김주경 · 최교식, 조장희 · 원유민 · 안현희씨를 포함한 3팀이(6명)이 수상하였다. 12월에 작품 전시회를 갖고 그 기간에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축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진솔한 대화의 기회도 가졌다. 또한 '젊은 건축가상 2013' 작품집을 국 · 영문으로 작품집을 제작하여 기관 ·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년에 비해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작품은 양과 질에서 제 5회 젊은 건축가상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고, 언론계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다. 매년 상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문화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진 4-5-17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작

신혜원, 사직공공프로젝트

김주경, 최교식,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조장희, 원유민, 안현희,
강진 산내들 지역아동센터

③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 상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 단체 및 지자체에게 수여된다.

2013년 5월 8일 공고 이후 6월 21일 까지 전국 지자체, 단체로부터 총 37개의 장소가 접수되었다. 공간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7월 3일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5일에 2차 공개심사와 27일에서 29일까지 3차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6곳의 수상지를 선정하였다. 2013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전시 및 시상식이 있었다. 대상(대통령표창)은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광주광역시),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은 큐빅광장(울산광역시 중구), 두레나눔상(이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참사랑 주민복지센터 및 일원 공간환경 개선(경북 영주시), 거리마당상은 공공미술로 소통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경기 안산시), 누리쉼터상은 해양경관을 고려한 영일대해수욕장 테마공간조성(경북 포항시), 우리사랑상은 동구 우물공동체 '정'(井)다운 마을 만들기(부산광역시 동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4-5-18 2013 제8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표창)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큐빅광장

두레나눔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참사랑 주민복지센터 및 일원 공간환경 개선

거리마당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공공미술로 소통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누리쉼터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해양경관을 고려한 영일대해수욕장 테마공간조성

우리사랑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동구 우물공동체 '정'(井)다운 마을만들기

④ 건축문화진흥 프로젝트 (현대건축교류전)

한국현대건축의 해외 전시는 2007년 건축가 16인, 사진작가 1인의 그룹으로 구성된 'MEGACITY NETWORK : 한국현대건축 유럽전'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 한국 건축문화를 소개하고 건축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3 건축문화진흥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후원하고 (사)새건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건축가들이 전시주제와 참여건축가 선정, 홍보, 제작 및 설치 등을 직접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최초의 한국건축 해외그룹전인 '메가시티 네트워크'전은 2007년 12월 프랑크푸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에서 처음 열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귀국전('09.12.23~'10.3.7.)으로 2년간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전시는 2007년 독일 현지 건축계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이후 베를린의 독일건축센터('08.6~7월), 에스토니아 탈린의 에스토니아건축박물관('09.3~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로니아건축사협회('09.7~9월)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총 168일간의 유럽 순회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건축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2010한국현대건축 아시아전'은 'Emerging Voices in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한국현대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중국의 명문 건축도시대학인 '상해 동지대학교'에서 한국 젊은 건축가 17팀의 36개 작품을 전시하였다. '2011한일건축교류전'은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에서 개최했고, 한국 건축가 17명이 New Horizon in Korean Architecture 라는 주제로 디지털 영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미디어, 입체로 표현한 전시로, 국내라는 한정된 전시영역을 탈피하여 일본에 한국의 건축을 소개하고 일본 건축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한일현대건축교류전'은 '같은 집, 다른 집'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축가 5팀, 일본 건축가 5팀이 서울 토탈미술관에서 2012년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시하였다. 한국건축가와 일본 건축가가 하나의 조를 이루어 전시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한일 양측의 커미셔너는 전시회 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전시 마지막 날에는 전시장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다른 문화로의 여정(Parcours Intercultural)이란 주제로 파리 Paris-Malaquais 건축학교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한국건축가 10팀의 건축 작업에 대하여 파리 말라케 국립건축학교 에서 정식으로 이 전시회와 한국 건축가들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였다. 한국문화원장 및 프랑스의 건축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는 성황리에 마쳤으며, 국내 유명 일간지와 밀라노의 Domus에 전시가 소개되었고, 덴마크 Architectural Magazine B에서 작품집을 제작하였다. 매년 해외 신문 · 잡지 · TV방송 등 20여 차례 이상 한국현대건축이 보도되었고, 전시기간 중 한국영화 등을 상영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한국현대건축에 대한 단행본 (영어, 독어, 불어)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세계의 건축계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한국 공예의 대중화 · 세계화 · 산업화

공예디자인의 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화 · 대중화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공예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생 대상의 아카데미 교육은 공예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장인기술 교육전수 및 통합이론 수업 등 전문적인 맞춤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예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조사 · 통계 확보를 위해 「공

예 현황보고서」, 「디자인 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공예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숍 운영 및 작가 지원, 지역공예컨설팅, 전문공예 페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움직이는 이동식 갤러리인 디자인 큐브전, 매 절기를 우리의 공예 작품을 보여주는 윈도우 전시를 포함, 다양한 기획전시 등을 통해 공예디자인 문화를 확산해 왔다. 2013년 12월에는 제8회 '2013 공예 트렌드페어'를 개최,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마켓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공예 관련 협회 ·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3년 공예 트렌드페어에서는 영국공예청이 'The Value of British Contemporary Craft'라는 주제의 영상을 선보여 영국 현대 공예의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작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창작공방관이 설치되어 실험적 무대를 통해 공예의 새로운 방향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시장형 공예마을인 북촌, 원료산지형 공예마을인 통영지역 등 지역 특색 및 자원에 맞게 종합지원을 하는 지역공예마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 · 홍보, 웹사이트 구축, 공간 컨설팅, 상품개발, 공예지도개발, 체험키트제작 등 지역공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쳤다.

공예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미국 나전칠기 전시 및 시연행사 등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점에 공예디자인 네크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2013년은 영국 공예청과 새로이 협력을 진행하고 영국의 공예페어 콜렉트(Collect)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정해조 작가의 옻칠 작품이 V&A박물관과 대영박물관에 소장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에도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프랑스 장식박물관 등과 같은 해외 주요 전시공간에서 한국공예전 개최를 계획하여 한국 공예디자인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사진 4-5-19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 · 세계화 · 산업화

영국 프리미엄 공예품 페어 'COLLECT' 참가

밀라노 한국공예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3'

3 국립현대미술관

1) 설립목적 및 연혁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의 근 · 현대미술과 국제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수작품들을 소장, 전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술문화의 위상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1969년 8월 23일 직제가 제정 · 공포되어 그 해 10월 20일 경복궁 건물 일부에 개관하여 한국 미술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1970년대 초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과 동시에 미술인구의 점진적인 증가로 미술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기본적인 여건, 즉 상설 및 기획전시장의 확보가 문제시됨에 따라 1973년 7월 5일 덕수궁 내 귀빈실인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덕수궁 석조전이 건물구조나 시설 면에 있어 미술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미술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미술관의 기능이 단지 작품소장,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보급 및 교육기능도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충분한 시설과 공간의 확대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984년 3월 29일 마침내 서울근교 과천시 막계동 문화시설지역 내에 미술관 신축공사를 착공, 1986년 8월 25일에 준공,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8년 12월 1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덕수궁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6년 1월 1일자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성과와 고객서비스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15일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4년여의 건립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12일 국민 · 문화예술계 숙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은 본격적인 3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체계를 맞게 되었다. 이는 동시대미술을 소개하는 도심 속 열린 미술공간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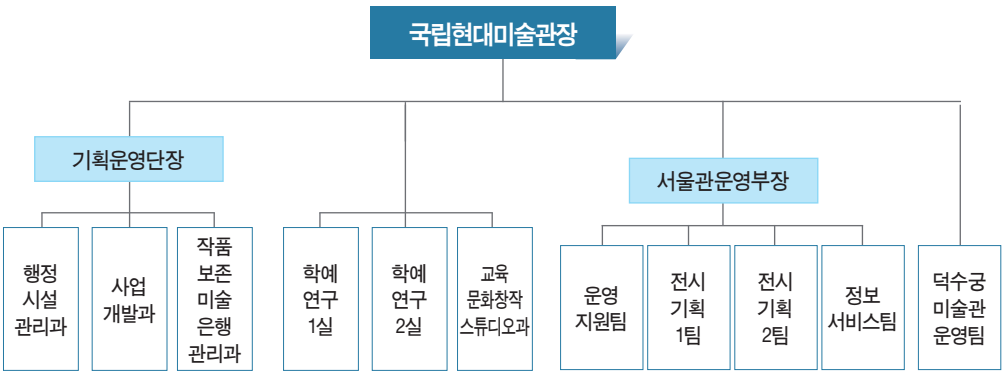
2) 조직 및 예산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미술관으로서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에서 최초 개관 시 관장, 사무장, 서무담당, 운영담당 등 총 8명이 미술관의 관리 · 운영주체였고 역할도 '대한민국 미술전 관람회'(약칭 '국전')의 운영과

전시업무에 불과하였으나, 미술관 조직의 면모는 1986년 8월 과천청사로 신축이전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국 3과 1실 체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과 별도로 서울 도심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12월 덕수궁 분관을 개관하였다. 2004년 11월 18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전시과가 폐지되고 전시기능이 학예연구실로 이관되었으며, 사무국은 미술관정책과, 운영지원과, 교육홍보과의 체제로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조직의 전문성 · 효율성 · 능률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2013년 11월 12일 서울관 개관을 계기로 3관 체제에 맞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1단 1부 2실 9과 · 팀 으로 조직을 개편, 기획운영단에 3과(행정시설관리과, 사업개발과,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서울관운영부에 4팀(운영지원팀, 전시기획1팀, 전시기획2팀, 정보서비스팀), 관장 직속에 학예연구1실, 학예연구2실,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과, 덕수궁미술관운영팀을 두고 있다.

그림 4-5-1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 위치: (과천관)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서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덕수궁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99
※ 누리집(홈페이지) : www.mmca.go.kr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1,436억 5,200만 원으로, 사업비로 1,363억 5,300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72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세입예산은 12억 1,800만 원이고 수납 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입장료수입 5억 7,300만 원, 건물 및 토지대여료 5억 3,90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800만 원, 기타관유물대여료 4억 9,600만 원, 기타잡수입 등 23억 600만 원이다.

3) 추진성과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서울관 개관과 함께 19회의 기획전과 8회의 소장품전이 개최되었다. 17회를 맞이한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한 〈젊은 모색〉전과 원로작가 〈윤명로: 정신의 흔적〉전, 〈올해의 작가상 2013〉을 비롯해 〈데이비드 호크니: 와터 근처의 큰 나무들〉, 〈퐁피두센터 소장품 특별전: 비디오 빈티지 1963~1983〉, 〈인도중국의 현대미술전: 풍경의 귀환〉, 〈프라하 국립미술관 소장품전: 프라하의 추억과 낭만〉, 〈야나기 무네요시〉 등의 해외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최됨과 함께 우리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White&White: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화〉(로마), 〈Who is Alice?〉(베니스), 〈한국 현대판화 50년전〉(마닐라)이 개최되었다. 근대미술특화전시인 〈명화를 만나다: 한국 근대회화100선〉전과 공예와 디자인 분야 특별전으로 〈장식과 환영〉, 〈또 다른 언어〉등이 개최되었으며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NRW 〉전이 진행되었다. 소장품 전시로는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빌 비올라〉, 〈삶 속의 미술〉, 〈사진 특별전: 사진의 눈〉, 〈현대미술과 거대서사Ⅱ〉, 〈권진규, 김정숙 기증작품 특별전〉, 〈미래는 지금이다〉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소장품 특별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미술작품으로 조명해보는 〈자이트가이스트〉전과 7개국 큐레이터의 협력으로 개최된 〈연결_전개〉전, 현장설치 프로젝트로 미디어 부분의 〈장영혜중공업〉, 서도호 작가의 〈한진해운박스 프로젝트-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최우람 작가의 〈기계생명체-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 〉등이 설치되었다. 동시대 문화의 융복합 신미술 프로젝트인 〈알레프 프로젝트〉와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친 서울관 건립과정을 담은 사진전 〈미술관의 탄생〉등이 개관 특별전으로 개최되었다.

전시 외에도 연구 · 학술사업 강화를 통한 체계적 미술사 정립을 위해 근현대 미술연구, 미술관 연구, 소장품 보존연구, 아카이브 연구, 당해년도 전시 또는 작가연구 등 총 39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제5집을 발간하였으며 공사립 미술관 교류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전국미술관장회의 개최, 아시아 미술관 큐레이터 컨퍼런스 개최, 공사립미술관 협력전시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업은 서울관 개관에 따른 3관 체제로의 변화에 부응하고, 각 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마스터플랜」(국립현대미술관, 2012.3.)을 통해 제시 했던 각 관 미술관교육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과천관은 어린이, 가족, 초중등학교 및 학생 등을 주요 수요자로 설정하여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덕수궁관은 서울 도심 속 미술관으로서, 인근 직장인 및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며, 11월 개관 한 서울관은 동시대 미술의 발견과 다양한 관점의 수용, 작가 · 관람객 · 미술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미술관교육으로 각 관의

특성화를 시도했다.

과천관 및 덕수궁관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미술관 교육을 비롯하여 기획 전시연계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학교연계교육 및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은 물론 다문화가족,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만족도 93%)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보면, 기획 · 상설 전시연계 교육은 14개 전시에 대한 53회의 프로그램을 운영, 2,032명의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참여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외에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여 전시와 작품에 대한 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사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미술의 흐름 등을 살펴보는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등은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미술관 컬렉션 상설 강좌〉, 〈ART & LUNCH〉, 〈시니어 미술관교육〉 등을 신설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특화시켰으며 특히 사진을 매개로한 '이미지텔링'을 실제 작품 제작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시니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미술관의 공교육 현장지원을 위한 학교연계교육으로는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미술관 직업 탐방〉, 〈청소년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학교교육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이밖에도 미술관 매개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조적 리더를 위한 문화예술과정〉, 〈미술문화연수〉, 〈인턴십〉, 〈초등교원 미술연수〉, 〈Curators' League〉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서울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서울관 건축공간의 이해를 위한 어린이 가족대상〈미술관 건축탐험〉을 비롯하여 전시와 연계한 동시대 미술의 이해를 위한 〈어린이 창작발전소〉, 〈청소년 미술감상교실〉 〈교사미술연수〉 〈일반인 대상 미술관문화강좌〉 〈일반인 실기(크로키)교실〉 〈시니어미술강좌〉와 문화나눔 교육으로〈함께하는 미술관〉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였으며, 전시연계 교육으로 〈복잡계드로잉 워크숍〉 〈작가와 과학자와의 대화–강연회〉 〈작가와 큐레이터와의 대담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한해 총 141점(구입 91점, 기증 38점, 관리전환 12점)의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한국화, 유화, 조각 · 공예 등 130점의 소장 작품에 대한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포스터' 등 국내 중요 미술작품의 보존처리 지원을 통하여, 미술관의 보존분야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4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1) 개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 ·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 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 · 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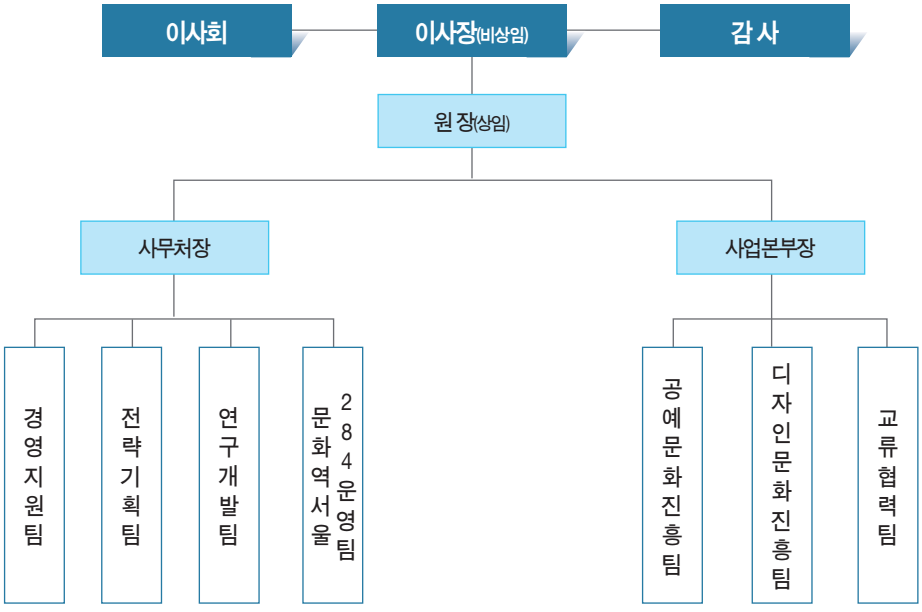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및 디자인 문화발전과 진흥 · 육성을 위하여 1처 1본부 7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사무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집행, 조직 및 대외업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위탁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본부는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및 우수공예품의 유통,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적 공간조성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도 총 예산은 62억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22% 증가하였다. 공예산업 육성 ·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4억8백만 원, 공예디자인 문화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자체수입 2억2천만 원으로 공예 · 디자인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림 4-5-2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미션	한국 공예·디자인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		
비전	대중과 소통하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 구현		
전략 목표	신진 작가 및 장인 디자이너를 위한 창작기반 조성	한국공예·디자인의 국제경쟁력 제고	생활밀착형 공예·디자인 문화 확대
중점 추진 과제	고품격 공예상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그림 4-5-3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 위치: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누리집(홈페이지) : www.kcdf.kr

또한,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운영지원,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 전통문화자원육성사업 등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공예 · 디자인분야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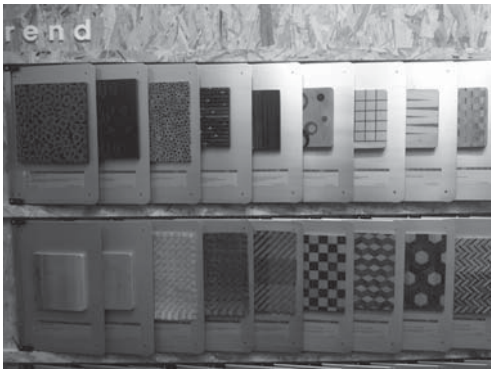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목표는 공예산업과 디자인 문화 육성 · 진흥을 이루기 위하여 공예 · 디자인의 생활화 · 산업화 · 세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예 · 디자인의 가치창출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제고, 생활밀착형 문화 확산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예 ·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전망 및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현황을 기록,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발간(공예백서, 공예 · 디자인 현황보고서) 하였으며, 공예사료의 기록화를 위한 리소스북(한 눈에 보는 소목, 장석, 한지)을 발간하여 공예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우리 전통 공예기술 및 소재의 연구 개발을 위해 목칠공예소재 약 107여 종을 개발 및 Kit로 제작하여 산업자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디자이너, 공예인 및 장인의 협업을 통해 공예 · 디자인 스타상품 10여점을 제작하였다. 공예 ·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공예전문박람회(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하여 공예유통망을 확대하였고, 해외 박람회(영국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에 참가하여 한국 공예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종로구 북촌 및 경남 통영시를 공예마을로 선정하여 생산기반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 공예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사진 4-5-20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공예사료 리소스북

공예백서



목칠공예소재Kit

공예 · 디자인 스타상품 개발

공예트렌드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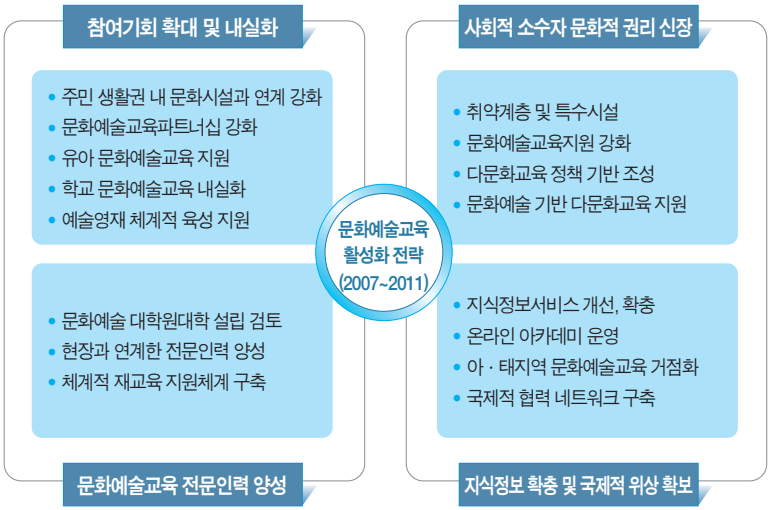
통영전통공예관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의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 왔다.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그림 4-6-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2008년 10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 · 체육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6-1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강사규모와 대상 분야를 확대(디자인, 미디어, 사진 등 추가)하고 강사 활용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재량 ·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예술강사 지원 규모 : 2,200명(2008) → 3,500명(2009) → 5,000명(2012)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분담

이 같은 양 부처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결과, 사업규모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 약 677만 명 학생 중 220만 명이 문화예술교육을 수혜받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및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책적인 사업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 양 부처 간 협력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16개 시 · 도의 92개 시설에서 아동 · 청소년 1,253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시설아동 · 장애인 ·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과 장애인 등 총 1만 5천 명의 성인에게 근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으며, 노인복지회관 등에 계신 어르신 6,400명을 대상으로 노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재의 문화 및 복지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및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와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 · 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여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교과교실의 현대화 등 정책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본 방안은 1)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3)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4)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6)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본 방안은 2010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동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서울 어젠다' 도출 등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성과와 한국 정부의 세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와 기여, 리더십의 결과로서 2011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정식 의제로 상정 및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매년 5월 넷째 주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및 사회 각 기반시설 등에서 점차 교육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인력의 질적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주 토요일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013년에는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토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동 · 청소년 및 그 동반가족 약 3만 명이 문화로 함께하는 토요일을 보내게 되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3년에 이르러 전체 초 · 중등학교 11,599개교의 63%에 달하는 7,254개 학교의 9,669개 교육과정에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표 4-6-2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3~2013)

(단위: 개교, 명)

구분	학교수											강사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4,071	4,090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1,699	1,799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486	1,541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25	766	767
영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1,636	445	-	89	89	113	137	121	300	330	253	253	245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467	1,678	-	-	110	150	248	292	595	801	763	807	851
만화·애니메이션	-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1,061	1,083	-	-	94	100	191	299	452	500	499	467	466
공예	-	-	-	-	-	-	-	115	180	297	378	-	-	-	-	-	-	-	52	87	127	167
사진	-	-	-	-	-	-	-	55	88	155	208	-	-	-	-	-	-	-	27	37	48	66
디자인	-	-	-	-	-	-	-	86	125	184	246	-	-	-	-	-	-	-	39	67	96	124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626	7,698	9,189	8,615	9,357	9,669	1,055	1,231	1,628	1,431	1,764	2,146	3,483	4,156	4,164	4,263	4,485

※ 2010년부터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 예술 강사 지원

※ 2013년 학교 수는 총 7,254개교이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수분야 감안 시 9,669개 교육과정 지원

(2)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집중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냄으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림 4-6-2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성과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	'예술꽃씨앗학교' 는 이제 각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폐교위기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제1기('08~'11)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 지원 마지막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결집한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발표회(행사명: 예술꽃 씨앗학교 어울림 뜨락)를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우수학교 운영 의지가 뛰어난 16개교를 제2기('11~'14), 10개교를 제3기('12~'15), 4개교를 제4기('13~'15) 예술꽃 씨앗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지원 중이다. 2012년은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던 9개 학교의 연구현황에 대한 포럼(행사명: 예술꽃 씨앗학교 주제발표 학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각 예술꽃 씨앗학교의 효과성,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3년에는 1기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종료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기 학교별로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기 실태조사 외에도 2기 및 3기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방문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표 4-6-3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 제1기(2008-2011)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부산 금정구	대도시 (금성산성 내)	금성 초등학교	120명	통합예술교육 (프로젝트형)	- 대도시 내 산성마을 위치 - 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 - 도시학교 부적응으로 전학 온 학생 60% - 부산지역 교사직무 연수 개최 - 지역 내 자발적인 지원 공동체 구성
광주 북구	대도시 (도농복합)	광주지산 초등학교	140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대도시 내 도농복합 -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 (용전들놀음) - 도시에서 전학 오는 학생 수 증가
울산 울주군	읍지역	반천 초등학교	302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수 - 문화 인프라 미흡, 문화예술분야 소외지역 - 반천오케스트라 운영/ 지역 평생교육 운영
강원 속초시	중소도시	대포 초등학교	63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학부모 어업, 관광업 종사 - 국악관현악단 운영/ 색동 바름이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 속초청소년오케스트라단 창설
전남 여수시	중소도시	여수북 초등학교	83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2012 여수박람회에 문화행사 참여 -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전남 순천시	도농복합 (읍)	승주 초등학교	115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승주읍 유일 초등학교(85년 전통) -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학원 전무 - 승주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포항시	도농복합 (면)	송라 초등학교	104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인근지역 예술관련 학원 전무 - 지역문화센터로 발전 - 스쿨밴드, 챔버, 퓨전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봉화군	읍지역	봉화 초등학교	228명	시각 · 미디어 예술교육 (영화)	- 경북 최북단 위치 농 · 산촌지역 - 부산 국제 어린이 영화제 참여 등 다수 입상
경남 남해군	면지역	삼동 초등학교	84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농 · 어촌 복합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10% - 교사 9명중 5명이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 - 챔버 오케스트라, 국악 합주부 운영
제주 서귀포시	도농복합 (읍)	남원 초등학교	387명	시각 · 미디어 예술교육 (영화)	- 영화박물관 소재지 - 지자체에서 마을 문화 활성화 차원, 영화 중심 테마파크 추진

○ 제2기(2011–2014)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전북 완주군	면지역	간중 초등학교	95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2009년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으로 학생 수 증가 - 학원수강 학생 20% 미만
충남 아산시	면지역	거산 초등학교	119명	통합예술교육 (프로젝트형)	- '01년 폐교 대상에서 '05년 본교 승격 - 학부모 소규모 영농형태 축산업, 버섯재배 종사
전북 남원시	중소도시	남원 초등학교	400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인근 민속국립국악원, 남원시립국악원, 농악단 등 근접 - 춘향전, 흥부전 등 서사문학, 문화유산 풍부
경남 통영시	중소도시	남포 초등학교	42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전교생 36%가 보육시설의 아동 - 대표적 문화행사가 열리는 통영에 위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대전 대신 초등학교	85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대전 도심권에 있으나 산중턱에 위치한 6학급 전원학교 - 급식지원대상자40%/ 편부모, 편조부모 19% - 무속인 학부모 상당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동명 초등학교	85명	공연예술교육 (디지털뮤지컬)	- 외곽 농촌학교로 문화적 시설 전무 - 문화 예술 활동 종사 주민 다수
경기 광주시	읍지역	만선 초등학교	104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수도권 인근 소규모 농촌학교(주변 골프장) - 한부모 · 조손가정 34%/ 맞벌이 가정 70%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부산 광역시	대도시 (도심 외)	배영 초등학교	58명	음악예술교육 (농악)	- 17년간 부산농악 전수/ 한 · 일 문화교류 20주년 -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 · 한부모가정이 대다수 - 부산 공항부근 공장지대에 위치 (대중교통수단 없음)
경북 상주시	면지역	백원 초등학교	68명	시각 · 미디어 예술교육 (도 · 공예)	- 시골 농촌학교로 학부모 대다수 농업 종사 - 문화 소외지역으로 온종일학교 운영 - 창의중심 교육과정으로 전교생 증가
강원 춘천시	면지역	서상 초등학교	48명	시각 · 미디어 예술교육 (디자인)	- 농업, 맞벌이 가정 대다수 - 강원애니고,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소재지
제주 제주시	중소도시	영 평 초등학교	142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제주 외곽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 교육복지투자지원 학생 50.8%
경기 양평군	면지역	옥천 초등학교	281명	음악예술교육 (퓨전)	- 면단위 1개 학교로 지역중심센터 역할 - 전원주택 거주하는 예술인 부모가 다수 - 수도권 식수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전형적 농촌지역
강원 인제군	읍지역	인제 남 초등학교	265명	공연예술교육 (음악극)	- 인구가 적고 군인이 많은 지역 - 학급당 20~30% 저소득층
충북 괴산군	면지역	칠성 초등학교	81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인근 명산과 계곡 밀집 - 기초수급자, 의료보호자가 전교생의 33.6%
전남 화순군	면지역	한천 초등학교	54명	공연예술교육 (연극, 영화)	- 전형적 농촌의 도서벽지이며 폐광촌 - 문화적 시설이 전무
전남 해남군	면지역	현산 초등학교	61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대한민국 최남단 땅 끝에 위치 - 바다 인근이나 90%가 농업 종사로 저소득층 다수 - 교육취약 계층 40명, 다문화 가정 12명

○ 제3기(2012–2015)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경남 고성군	면지역	거류 초등학교	132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농어촌 및 신흥 공업지역으로 조선 산업특구 - 예향의 고장으로 고성농요, 고성오광대 등이 유명하며, 해당 분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전남 담양군	면지역	고서 초등학교	138명	공연예술교육 (뮤지컬)	- 가사문학(歌辭文學)이 발달한 지역 - 전교생의 96%가 방과 후 활동에 참여
대전 유성구	도서벽지	남선 초등학교	59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대전 유일의 도서벽지 학교 -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및 ADHD, 발달장애 학생들이 전학 오는 학교 - 연정국악원 연계 국악관현악단 운영
전북 군산시	중소도시	당북 초등학교	170명	음악예술교육 (국악)	- 맞벌이 부부 68%, 전교생의 50%가 특수계층 - 2004년 폐교위기 학교에서 입학을 원하는 학교로 변모 - 교직원의 다양한 연구학회 참여
대구 동구	대도시	대구덕성 초등학교	311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 - 저소득층 20% - 관현악단 운영
부산 금정구	대도시	서명 초등학교	230명	통합예술교육 (총체극)	- 대도시 내 오지에 위치, 철거민 강제 이주 촌이라 불림 - 학부모 경제적 능력이 낮으며 편부모, 편조부모 가정이 다수
서울 강서구	대도시	서울개화 초등학교	242명	통합예술교육 (음악 · 미술)	-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임대아파트로 둘러싸여있음 - 수도권 학교에 비해 전교생 수가 적음 - 지역 및 동문회의 유대관계가 높음
충남 천안시	면지역	성남 초등학교	65명	공연예술교육 (뮤페라)	- 전형적인 농촌학교 - 빈부격차가 크며 45%의 결손가정 - 뮤지컬과 오페라가 합쳐진 공연예술교육 운영
경기 김포시	면지역	수남 초등 학교	55명	통합예술교육 (프로젝트형)	- 지역은 농산어촌이나 학교 인근에는 다수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학부모 모임 구성 - 건축학교, 풍물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
경남 거제시	도서벽지	창호 초등학교	55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조선 산업이 발달한 거제도에 부속되어 있는 가조도라는 섬에 위치한 도서벽지 - 소규모학교 구성에 맞춘 관악3중주 운영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6개 국공립기관과 협력 · 운영한 국공립기관 연계사업과 16개 시 ·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진행된 광역센터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광역센터 연계사업의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기초 이해에 중점을 둔 아우름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사진 등 주제별 · 장르별 특성화 교육을 위한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총 151개 프로그램이 기획 · 운영되었으며, 총 9,886명의 어린이 · 청소년 및 가족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 지역 연계 사업 및 국공립기관 연계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내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더 많은 참여자들이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23개 프로그램이 기획 · 운영되었으며, 총 51,122명의 어린이 · 청소년 및 가족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비생산 여가활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생산 여가활동 36.5%→20.9%, 문화여가활동 28.1%→38.1%) 또한 부모 · 자녀 간의 대화시간이 증가 하는 등 가족 간의 소통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 전 6.9시간 → 참여 후 8.7시간/주)

표 4-6-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2012-2013)

세부사업명	2012년		2013년	
	참여기관수	프로그램수	참여기관수	프로그램수
광역센터 연계 사업	145	145	311	311
국공립기관 연계 사업	6	6	8	24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	1	20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	104	104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	-	12	46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	19	19

세부사업명	2012년		2013년	
	참여기관수	프로그램수	참여기관수	프로그램수
해외기관 협력 프로그램 (뉴욕필하모닉, 독일 리틀아트)	-	-	9	13
건축문화 프로그램	-	-	3	3
미디어문화 프로그램	-	-	22	40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	-	43	43
총 계	151	151	532	623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 · 학습 · 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계층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술 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예술 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 · 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 정책, 여성정책, 여가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 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에 이르러 노인

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노인 · 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 2010년에는 아동 대상 6개 분야, 노인 대상 3개 분야, 장애인 대상 2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관 이용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협력 ·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 분야 외 노인미술, 노인사진, 장애미술, 장애영화 총 4개 분야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 아동에서 성인까지 참여자 대상을 확대(장애영화분야)하였다. 2013년에는 장애인 분야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과 형제, 자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예술가와 연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표 4-6-5 사회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4~2013)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참여자수										강사수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아동	194	201	213	201	220	235	144	144	299	496	7,123	7,694	8,307	7,263	7,836	7,695	4,542	4,360	5,941	10,577	205	233	253	236	260	288	219	234	414	462
노인	-	-	48	59	67	62	84	140	156	169	-	-	916	1,035	1,297	1,240	2,893	2,800	4,890	6,396	-	-	33	43	33	30	74	94	100	118
장애인	-	-	23	20	32	30	48	78	73	96	-	-	285	184	343	310	613	780,	1,060	1,457	-	-	17	18	28	31	45	51	61	67
계	194	201	284	280	319	327	276	362	528	761	7,123	7,694	9,508	8,542	9,476	9,245	8,048	7,940	11,891	18,430	205	233	303	297	321	349	338	379	575	647

표 4-6-6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2013)

(단위: 명)

분야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사진	음악	무용	미술	영화	
강사 수	33	36	29	36	16	38	43	25	24	15	11	13	34	14	6	373

(2)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도 · 환경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계층(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수혜자의 특성상 관련 기관 및 조직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국방부 · 법무부)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6-7 군 ·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3)

(단위: 개소, 명)

구분	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06	'07	'08	'09	'10	'11	'12	'13	'06	'07	'08	'09	'10	'11	'12	'13	'06	'07	'08	'09	'10	'11	'12	'13
지원 단체 수	8	9	39	42	47	91	140	180	5	11	17	9	10	30	48	45		7	7	7	9	9	16	10
수혜 시설 수	10	18	71	82	87	91	140	180	11	11	28	20	20	30	44	42	9	7	8	8	9	9	10	10
수혜인원	400	600	1,727	1,840	1,687	1,865	6,882	3,939	857	940	578	327	320	279	1,018	573	542	1,072	127	146	238	194	608	215
지원예산 (백만 원)	238	190	700	727	593	600	1,073	1,800	139	110	210	193	276	300	585	560	164	100	100	87	86	100	156	140

2006년부터 시작된 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공동체 의식 함양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조절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수행단체를 공모 · 선정한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육 · 해 · 공군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간 30회 교육을 진행하며, 또한 단기간에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하여 군 관계자 및 정훈장교들에게 지원한다. 2013년에는 국방부 예산(535백만 원)을 확보하여 매칭 집행하였으며, 주관단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군 장성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국방대학교와 협력 · 운영하였다.

또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예술적 작업을 통한 재소자 및 소년원학생들의 성취동기 유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정교육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화를 위해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특수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2008년에는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를 특수 분야로 묶고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 시범 지원되었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치료감호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혜시설 관계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체험 과정을 지원하였다.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1년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 9개의 산업단지에 19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연말(11월)에는 산업단지 문화예술 동아리 통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총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가출, 탈학교, 미혼모 청소년 등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연계하여 각 기관별 산하 시설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방학 중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가와 함께 2박 3일의 체험을 함께하는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문화예술계 저명인사와 예술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아동 및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버스를 제작하여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는 예술강사들이 개인의 예술작품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예술성 함양 및 통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 가운데 89%가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友樂部落)'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友樂部落)'은 다양한 아동 ·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체기획으로 운영되었다. '우락부락(友樂部落)'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가는 캠프의 의미를 갖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했지만 2011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캠프 운영 횟수를 4회로 확대, 운영하였다. 웹 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소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아티스트와 놀다'를 핵심 콘셉트로, 단순 예술 경험을 넘어 입체적 · 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방학기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캠프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캠프 참가자(매우 만족 79%, 만족 14%)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13년부터는 지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광역센터와 협력운영방식을 모색하여, 창의예술캠프에 광역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4-6-8 '창의예술캠프' 운영 현황(201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즌1	시즌2	시즌3	시즌4	시즌5	시즌6	시즌7
참가자수	289	121	281	368	373	400	344
프로그램 수	14	10	14	12	12	12	12

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9년에 소프라노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사물놀이 김덕수, 소설가 김훈 등 각 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17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총 100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하고 참여기회를 넓혀 어린이, 청소년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각 분야 문화예술인 100명을 명예교사로 재위촉 및 신규위촉 하고, 사업의 참여 대상도 더욱 세분화 · 타겟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10대 후반과 20대를 위한 명예교사 토크콘서트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요리, 웹툰 등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명예교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과 연계하여 여러 회차에 걸쳐 심도 싶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해당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켰다. 또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일방적인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대화 중심의 소규모 책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와 명예교사 간에 밀도 있는 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SNS에서 활용가능한 콘텐츠(명예교사의 물건을 주제로 한 인터뷰 시리즈 등)를 별도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중들과 공유, 실시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표 4-6-9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운영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명예교사 수	17명	100명	100명	120여명	125명
프로그램 회 차	35회	100회	347회	180회	102회
주 참여대상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20~30대 타깃)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지역주민, 직장인	어린이,청소년, 지역주민, 직장인 등
참여자 수	17,178명	23,131명	34,566명	23,062명	4,099명
내용	• 대 규 모 공 연 관 람 / 강 연 (35회)	• 대규모 공연 관 람 / 강 연 (53회) • 지역 프로그램(47회)	• 대규모 공연관람/강연/토크콘서트(47회) • 지역 프로그램(254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46회)	• 대규모 토크콘서트(22회) • 지역 프로그램(46회) • 직장인 마스터클래스(23회) • 북 콘서트(19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70회)	• 소규모 책이야기 프로그램(30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72회)

표 4-6-10 2013년 명예교사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

	체험 형		책이야기 형
명예교사	캘리그라퍼 강병인	영화감독 이명세	편집장 김원
교육주제	손글씨를 통해 배우는 한글의 아름다움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 제작	자신의 삶을 책으로 제작하여 소규모 출판
교육현장			
참여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

(4)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문화기반 시설 등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7년까지 복권기금(28억 원)을 통해 지역의 노인 · 장애

인 · 취약계층(농산어촌 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2008년 예산을 국고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 신설을 통해 27개 단체 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일반 공모 지원 사업 · 지역거점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역거점전문 컨설팅 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16개 시 · 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다 지역에 밀착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센터 관계자 및 운영단체 간 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간 교류와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4-6-11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06~2013)

(단위: 개소, 명)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지원 단체 수	135	230	292	273	256	264	334	489
프로그램 수	447	323	350	343	444	447	539	640
수혜 인원	7,928	7,672	8,197	6,146	6,622	9,546	10,615	13,945

(5)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13년에 들어 사회적 기업과 시민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을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시민문화공간을 지원하여 생활권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시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였다.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전문 인력 보강이나 공간 구축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 조성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하였다. 사업 지원 외에도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간접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예비 주체 발굴을 위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연계하여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해나가야 할 지점을 도출하고, 정책 포럼을 통해 정책 관계자 대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6)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국형 엘시스테마 모델의 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2010년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3년 전국 30개 기관에서 1,500여 명의 아동 ·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단원들이 상호학습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예술적 · 사회적 면모를 길러 다면적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전문인력 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재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철학에 맞는 교육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 개발하고 있다.

표 4-6-12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2013)

구분	참여기관 수	참여아동 수	참여강사 수
2011	9개소	425명	98명
2012	19개소	979명	191명
2013	30개소	1,521명	325명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및 정책공감 사업

(1) 2013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를 이끌어낸 주도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간 기념행사를 선도적으로 개최, 1주일 간 범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교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세미나 등 38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9,103명의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였다.

가. 행사 성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매개자)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완성도 높은 향유자 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또한 중앙 단위만의 행사에서 탈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요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지역 균형에 이바지했고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박람회, 예술체험 원정대,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픈 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자체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 · 운영하는 등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기획 운영될 수 있었다.

나. 행사 내용

주간행사는 일주일간('13. 5. 19~5. 25)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에게, 말을 걸다', '주변에게, 말을 걸다', '일상에게, 말을 걸다', '서로에게, 말을 걸다', '세상에게, 말을 걸다', '꿈에게, 말을 걸다', '내일에게, 말을 걸다' 의 7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총 387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주간 행사 첫해였던 2012년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대형 이벤트성 프로그램 구성이 많았다면, 2013년은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국민의 삶의 현장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일반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특히, 공식 개막행사 전 '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몸 SNS를 위한 전무후무' 라는 제목으로 식전행사를 개최, 다양한 연령의 일반인 40명이 참여해 각자의 삶이 묻어나는 몸짓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를 상징적으로 전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 속에서 즐길 수 있음을 체험하였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별 워크숍 및 포럼, 예술강사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공헌자 시상 등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을 위한 교육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진 4-6-1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식전행사-시민들의 특별한 공연

개막식-개막강연 (소설가 김영하)

워크숍 박람회

시장에 흐르는 인문과 예술

광화문 거리의 악사들

문화예술교육 포럼

2013년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함께, 일상을 매개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된 예술강사 등 매개자 · 향유자가 함께한 개 · 폐막식,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박람회, 예술강사의 이야기 마당 등은 주간 행사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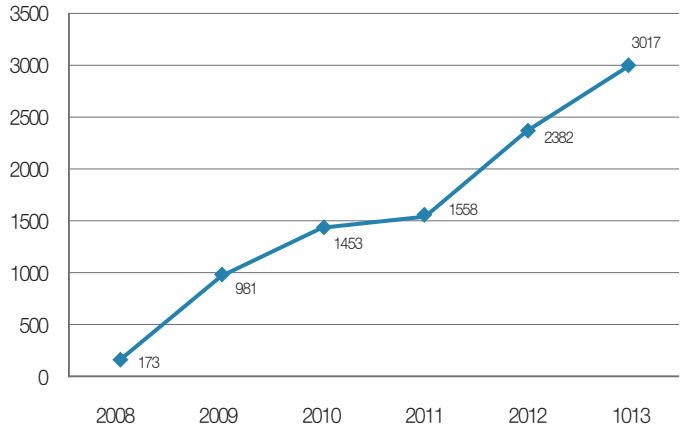
(2)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관계자와 함께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민간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동반성장을 해나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효성 있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일괄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지양하기 시작하여, 2012년 문화예술교육 특별 기획 프로그램 소개, 참여자 소감이 담긴 다양한 사례 노출 등 심층 취재가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여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주요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한 보도율을 향상시켰다. 특히,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이슈와 긴밀히 연결된 기획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는 등 문화, 사회, 교육 전반으로 확장된 홍보 활동을 통해 총 2,382건(2012년 기준)의 언론보도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은 전년도 성과와 기조에 이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최근 주목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조응해 기획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심층보도에 적합한 홍보 소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청춘제 등 주요행사 개최 시 수혜자 및 사업 관계자의 실제 사례 및 소감을 더불어 노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서울신문 8회 연속 기획보도, 꿈의 오케스트라 기획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방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정보교양 프로그램 다수 방영 등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총 3,017건의 언론보도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림 4-6-3 언론보도 실적 (2008~2013)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웹진 '아르떼365'를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자료와 정책사업 안팎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웹진은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23,740명에서 2013년에는 75,136명에 이르렀다. 2013년 기준으로 월 평균 방문 수는 18,452명, 웹진 기사별 페이지뷰는 월 평균 47,198회에 달한다. 언론매체의 지면 등의 한계로 미처 접할 수 없었던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 소식, 연구자료, 현장사례 등을 안팎으로 꼼꼼히 취재하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책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SNS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011 페이스북 및 트위터, 2012년 비메오 및 플리커 등 소셜 미디어 전용채널을 개설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사진 ·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통한 자발적 공유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아르떼365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www.arte365.kr)으로 개편, SNS 채널과의 연동이 쉽도록 개선함으로써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2013년에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도 최적화된 웹진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교육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진 4-6-2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365'(www.arte365.kr)

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2013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 · 사회 예술강사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교원, 행정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인식개선을 위하여 상 · 하반기 기본연수, 심화연수, 문화예술교육 키움, 문화도담 등의 연수프로그램을 총 3,972명 대상, 121개 과정, 3,061시수 운영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 출범한 아르떼 아카데미(AA)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체 연수과정을 통합하여 브랜드화하였고, 교육대상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구성,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1) 학교 · 사회 예술강사 연수 운영

학교 · 사회 예술강사 연수프로그램은 예술강사 활동에 필요한 직무내용(분석, 기획, 운영, 평가)과 핵심역량(예술전문성, 교수역량, 관계 ·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예술 강사로서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잘 '실행'하며,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 ·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교육경력이 쌓인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화단계 연수를 2012년 대비 약 6배 확대 운영하여 오랜 기간 활동하는 예술강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4-6-13 학교 · 사회예술강사 연수 추진 성과표(2013)

연번	구분	연수명	연수일시	시수(H)	참석인원	만족도
1	의무참여연수	상반기 학교 예술강사 기본연수 (8개분야)	'13.1.24~2.27	940	1,401	3.95
2		하반기 학교 예술강사 기본연수 (7개분야)	'13.7.29~8.10	260	604	3.67
3		상반기 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 (7개분야)	'13.2.28~3.4	260	186	3.85
4		하반기 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 (7개분야)	'13.8.8~10	60	119	3.62
5		교육학 온라인 원격연수	'13.8.26~10.13	15	410	
6	선택참여연수	특수교육대상의 이해	'13.06.28~30	20	17	4.1
			'13.08.12~14	20	27	3.9
			'13.08.12~14	20	24	4.4
7		심리극을 활용한 교육대상의 이해	'13.06.28~30	20	17	4.7
			'13.07.19~21	20	38	4.3
			'13.07.19~21	20	32	4.5
8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13.08.12~14	20	26	3.8
			'13.08.12~14	20	27	4.1
9		수업말하기	'13.08.12~14	20	21	4.2
10		수업분석을 활용하여 수업의 달인 되기	'13.08.12~14	20	29	3.9
11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탐구(연극)	'13.08.16~18	20	21	4.1
12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탐구 (만화 · 애니메이션)	'13.08.16~18	20	25	3.9
13		무용교수법의 실제	'13.08.16~17	12	46	4.5
14		실기지도법(국악)	'13.08.19~20	12	65	4.4

연번	구분	연수명	연수일시	시수 (H)	참석 인원	만족도
15	선택 참여 연수	실기지도법(연극-초등)	'13.08.19~20	12	23	3.7
16		실기지도법(연극-중등)	'13.08.19~20	12	17	4.2
17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교수능력 향상	'13.08.22~24	20	10	4.8
18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동영상 제작 실습)	'13.08.22~24	20	32	4.2
			'13.09.06~08	20	31	4.1
19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사회 예술강사 교수역량강화	'13.07.22~24	20	22명	4.7
			'13.07.29~31	20	22명	4.3
20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과정	'13.07.22~24	20	16명	4.6
			'13.07.29~31	20	19명	3.7
21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워크숍	'13.07.25~27	20	21명	4.2
			'13.08.16~18	20	14명	4.2
22		아동상담 & 놀이치료 기법	'13.07.25~27	20	25명	4.4
			'13.08.16~18	20	20명	4.3
23		실기교육 지도법 - 난타	'13.08.05~07	20	25명	4.6
			'13.08.12~14	20	22명	4.6
			'13.08.22~24	20	24명	4.7
			'13.08.26~28	20	24명	4.6
24		소시오(Socio Drama) 드라마 체험을 통한 교육대상 및 현장의 이해	'13.08.05~07	20	22명	4.7
			'13.08.12~14	20	19명	4.2
25		사회 예술강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워크숍	'13.08.05~07	20	13명	4.7
			'13.08.19~21	20	8명	4.6
2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 만들기	'13.08.05~07	20	21명	4.1
			'13.08.19~21	20	13명	4.5
27		커뮤니케이션 스킬	'13.08.19~21	20	10명	4.0
28		프리젠테이션 스킬	'13.08.19~21	20	13명	4.5
			'13.08.19~21	20	14명	4.4
29		노인의 특성과 이해를 통한 상담기법	'13.07.29~31	20	22명	3.9
			'13.08.16~18	20	10명	3.7
30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하는 저작권	'13.08.01~03	20	15명	4.0

연번	구분	연수명	연수일시	시수 (H)	참석 인원	만족도
31	선택 참여 연수	아르떼강사 양성과정 1기 STEP2 (CoP)	'13.6.15~16/ 7.6~7/ 8.19	38	27명	
32		아르떼강사 양성과정 2기 STEP1	'13.8.19~23	40	9명	4.7
		합 계		2,441	3,718	4.25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도록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연수와 교원, 행정인력 등 문화예술교육 주요 관계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성과 실현에 필요한 자질, 경영행정 관리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으로서 선택 연수과정을 기획 · 운영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개발하여 추진한 교육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프로그램,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도담' 등 대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교육만족도 평균 4.1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4-6-1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2013)

연번	구분	연수명	연수일시	시수 (H)	참석 인원	만족도
1	사회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1차 연수	'13.7.1~4	32	34	3.9
2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2차 연수	'13.8.1~4	32	57명	4.0
3		공감과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13.6.28~30	25	12명	4.5
4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 탐구	'13.7.5~6	13	20명	3.9
5		문화예술교육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정산의 의해	'13.8.22~23	10	30명	3.9
6		사회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13.9.2~4	23	29명	3.9

연번	구분	연수명	연수일시	시수 (H)	참석 인원	만족도
7	문화예술 교육 키움	인문키움 '문화예술교육 매체활용 인문학 표현사례 탐구'	'13.6.28~29	11	14명	4.0
8			'13.7.6~7	11	40명	4.2
9			'13.7.8~9	11	24명	3.6
10			'13.8.23~24	11	24명	4.3
11		행정인력 대상 역량키움 '문화예술교육 조직의 지속성장을 꿈꾸다'	'13.7.11~12	12	67명	4.1
12			'13.7.25~26	12	14명	4.2
13		창의키움 '문화예술교육 창의놀이 개발 프로젝트 season2'	'13.7.22~26	40	34명	4.6
14		교원대상 '교과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체험 워크숍'	'13.7.22~23	15	20명	4.52
15			'13.8.8~9	15	33명	4.84
16		기획인력 대상 역량키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만들기' 1차 워크숍	'13.7.8~10	21	41명	4.1
17			'13.8.12~13	11	41명	4.1
18	동아리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CoP, Community of Practice)	'13.8.29~31/ '13.10.12~13/ '13.12.1	36	98명	4.1
19	문화도담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	'13.7.5~7/ '13.8.2~3/ '13.8.28	35	69명	4.3
20	기타	문화부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융합과 문화정책'	'13.6.13~14	10	25명	4.2
21		문화부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현장과 문화정책'	'13.11.14~15	13	26명	4.2
		합 계		399	711	4.17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육자를 배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2013년 1분기 2,223명을 시작으로 4회의 자격교부 심사를 통해 총 3,469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4-6-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현황(2013)

○ 대상별 교부 현황

구분	예술전공졸업자	학교예술강사	사회예술강사	중요무형 문화재 이수자	합계(명)
인원	380	2,576	85	428	3,469

○ 분야별 교부 현황

자격 분야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중요 무형 문화재	합계 (명)
인원	62	1,103	70	287	543	128	50	534	154	110	428	3,469

자격교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중앙자활센터, 지역 복지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총 10회의 설명회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배출 현황, 활용 영역 등을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표 4-6-16 문화예술교육사 권역별 설명회 운영 현황

연번	대 상	일 시	권 역	장 소
1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계자	9월 25일(수)	영남권 북부	대구문예회관 달구벌홀
2		9월 26일(목)	충청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컨벤션홀
3		10월 15일(화)	호남권 북부	전주소리문화의전당
4		10월 16일(수)	호남권 남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		10월 21일(월)	영남권 남부	부산디자인센터
6	자활센터 관계자	10월 22일(화)	서울	여의도 그랜드홀
7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계자	10월 24일(목)	수도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기업 인사담당자	10월 26일(토)	서울	서울 EMDEC
9	자활센터 관계자	11월 5일(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문화예술교육인력	12월 7일(토)	전북 전주	전주소리문화의전당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 진출을 증대시키고 자격제도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연수원, 지역 자활센터 등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발굴했으며, 문화예술교육사협동조합, 극단 창조공감과 같은 신생 단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연구' 및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진로 및 취업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대학,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등에 배포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의 취업에 길을 열었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활용 확산을 도모하였다.

표 4-6-17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현황

연번	기관명	프로그램명	수혜 인원
1	중소기업연수원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과정	660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라온소리 예술캠프	40
3	행복한 우리복지관	행음(幸音)오케스트라	14
4	극단 비천	차! 차! 차!(알차게! 당차게! 올차게!)	50
5	대동문화재단	역사로 두 걸음	15
6	문화예술교육사협동조합	자연의 색으로 소통하다	254
7	대구문화예술창작공간	엄마 아빠는 우리마을 예술가	20
8	청주지역자활센터	마음을 두드려, 흩날리다	10
9	문화소통연대이야기	동화 속 엄마나라	15
10	예술문화교육연구소 아우름	예술로 다시 태어난 작은 가게들	15
11	극단 창조공감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9
12	극단 새벽 부설 교육연구소 '해맞이'	오락실(五樂室)에서 피어나는 예술향기	38
13	CLC 다문화지역 아동센터	움직여라 마음이여, 너와 나의 눈으로	20
합 계			1,16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및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13개 대학 등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관을 다원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4-6-18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 지정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교육 분야
제2013-1호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2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제2013-3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4호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제2013-5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6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무용, 음악, 미술, 만화 · 애니메이션
제2013-7호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디자인, 사진, 공예
제2013-8호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9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사진,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10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제2013-11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 · 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12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제2013-13호	전북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사진, 음악, 영화

(4)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

2000년대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추세에 힘입어,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보함에 있어 국제 사회와 공조함은 물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사례와 성과를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춰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 유네스코 총회 및 2012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 본부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국제사회 내 다수의 문화예술 교육가들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점은 타 국가에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계대회 준비단계에서부터 해외 각국 주요기관 방문 및 행사 참가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인 사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상호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3년에는 국내 · 외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는 〈아 · 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에 참여하여 보다 밀도 깊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호주, 이스라엘, 핀란드의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협력하여 현지 치매노인 대상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표 4-6-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관계자 내방 현황(2013)

연번	내용	일시	협의사항
1	핀란드 피푸 문화센터 부장 필비 쿠이투(Pilvi Kuitu) 외 1명 내방	2013.4.16	사회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및 이주민)대상 소셜 서커스 프로그램 관련 연계사업 및 협력방안 논의
2	문화예술교육 국제연구 네트워크(INRAE) 운영위원 및 유네스코 석좌교수 언스트 바그너(Ernst Wagner) 내방	2013.5.23	예술교육 관련 모두를 위한 교육(EFA)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 연구 방향논의
3	뉴욕현대미술관(MoMA) 교육부서 관계자 메릴 슈왈츠(Meryl Schwartz) 외 1인 내방	2013.6.24	사업소개 및 노인 ·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협력 운영방안 공유
4	영국 창의문화교육진흥원(CCE) 대표이사 폴 콜라드(Paul Collard) 내방	2013.7.1	한국의 학교 · 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전전략 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5	유네스코 본부 리브르빌 지역사무소장(가봉) 알랑 고도누(Alain Godonou) 내방	2013.9.30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류에 대한 학술대회 참석 관련 방한 및 기관장 면담
6	줄리어드 음대(The Julliard School) 예술교육학 교수 에릭 부스(Eric Booth) 내방	2013. 10.6-10.9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면담 및 한국의 사례조사 및 파악
7	시카고한인문화회관 명예회장 강영희 내방	2013.10.24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향후계획 소개 및 2014년 해외 한국문화교육 사업 문의
8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관계자 고창원 외 2인 내방	2013.11.1	해외 한국문화교육 지원사업 관련 논의
9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창의산업부 부학장 브래드 해스만(Brad Haseman) 내방	2013.12.7	2014 제 2차 세계 예술강사 컨퍼런스 주요내용 공유 및 참가요청

①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시하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부터 꾸준히 기획 · 운영해 온 전문가 네트워크 및 콘텐츠 기반의 국제 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10월말~11월말까지 한달 간 총 4회(25~28차)에 걸쳐 치매노인, 비행청소년, 장애학생 등 교육대상별 예술교육 방법론과 노하우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창의적 예술교육 설계방안, 예술강사들 간의 멘토링 시스템 등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총 2회(29, 30차)가 7월과 9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주제와 연관된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하위주제를 함께 다루고 체험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9차는 '무용/동작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개발 및 치유적 효과'를 주제로, 30차는 '아동, 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 핀란드 소셜 서커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서울 워크숍과 함께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지역 참가자의 접근성 및 참여 기회를 높였다.

표 4-6-20 해외 전문가 초청워크숍(2013)

차수	일시/장소	초청기관	초청강사	주제
29차	2013.7.2 서울	(전) 미국 시카고 대학부설 병원 활동치료 감독 및 학교 사회복지사	팸 매귤러스 (Pam Margules)	아동 스트레스 완화 · 분노 조절을 위한 무용 · 동작 프로그램 설계 및 실습
	2013.7.3 서울	호주정부 승인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	릴리안 티오 카플란 (Lillian Thio Kaplan)	노인 · 치매환자 대상 무용 · 동작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실습
	2013.7.4~7.5 제주	이스라엘 창의적 무용 · 동작 치료 전문가	힐다 웬그로웨 (Hilda Wengrower)	무용 · 동작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개발효과 및 행동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 공유
30차	2013.9.9-9.10 서울	핀란드 피푸 문화센터 및 소셜 서커스	필비 쿠이투 (Pilvi Kuitu) 핀란드 피푸 문화센터 이사, 야르모 스콘 (Jarmo Skon) 소셜 서커스 연극감독 겸 예술강사	핀란드 주요 문화예술교육 및 소셜 서커스 교육방법 · 운영사례 공유
	2013.9.12-9.13 대전			핀란드 문화예술 기반 학습 효과성 연구결과 공유 및 서커스 교육실습

② 해외 한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년에 진행된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지인 대상 한국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참가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지에 파견할 국내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선발하여, 국내 · 외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간 교류에 기반한 쌍방향적 소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4-6-21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2013)

지역	협력기관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내용
미국 뉴욕	뉴욕 현대미술관 (MoMA)	'마음을 두드리다 (Knock Project)'	2013. 12.11-12.13	뉴욕 거주(치매) 노인 77명	'달항아리' 라는 한국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현대미술작품을 완성하는 체험형 교육

사진 4-6-3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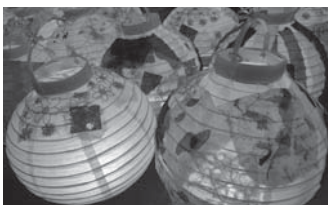
뉴욕 프로그램 교육현장

뉴욕 프로그램 교육현장

뉴욕 프로그램 교육현장

뉴욕 프로그램 교육현장

뉴욕 프로그램 결과물


뉴욕 프로그램 결과물

③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인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의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진

흥원과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시범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기관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의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주최 옵저버토리 오프라인 네트워크 회의(방콕) 및 '아시아 · 태평양 6개 국가(한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홍콩) 예술교육 정책 및 '서울 어젠다' 이행실적 분석 연구에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회원기관 간 다각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4-6-22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웹사이트(APAH) 운영 현황(2013)

웹페이지 개편결과	웹사이트 운영현황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apah.info/ ○ 회원기관 자료업로드 실적(2012) - 총 자료 업로드 건수 : 258건 - 총 5개 주제별 카테고리 중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자료 업로드 최다(총 119건) - 총 6개 회원기관 중 '호주' 자료 업로드 최다(총 119건) ○ 회원기관 자료업로드 실적(2013) - 총 자료 업로드 건수 : 60건 - 총 5개 주제별 카테고리 중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자료 업로드 최다(총 25건) - 총 6개 회원기관 중 '한국' 자료 업로드 최다(총 35건)

표 4-6-23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기관(2012-2013)

국가	기관명	연구분야
뉴질랜드	아츠온라인 (Arts Online) http://artsonline.tki.org.nz	뉴질랜드 예술교육분야 온라인 네트워크
호주	멜번대학교 (Univ. of Melbourne) http://education.unimelb.edu.au	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술교육 전반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국립교육원 예술교육연구센터(UNESCO-NIE CARE) http://www.unesco-care.nie.edu.sg	싱가포르 예술커리큘럼 및 문화적 다양성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스테예프 미술디자인학교 (Almaty School of Fine Arts & Technical Design) http://www.almoca.kz	문화다양성 및 창의교육
중국(홍콩)	홍콩교육원(HKIE) 문화 · 창의예술부 http://www.unescohkied.org	지역문화 및 창의교육

국가	기관명	연구분야
한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ACES) http://eng.arte.or.kr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정책사업 전반

옵저버토리 뉴스레터(Arts Talk)는 아 · 태 지역 주요 문화예술교육 이슈와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행사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영문 뉴스레터로 2013년 10월에 그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표 4-6-24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뉴스레터(Arts Talk) 기획 및 제작(2013)

뉴스레터 창간호 제작결과	뉴스레터 배포현황
	ㅇ 발행건수 : 1건(2013.10.22) - 배포대상자 : 총 66명 ㅇ 주요내용 - 뉴스레터 창간호 배경 및 소개 -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소개 -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성과 공유 - 국가별 우수사례 (호주, 싱가포르) - 국가별 주요 행사 및 소식 안내 ㅇ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6인) - 마리아 루트, 뉴질랜드(아츠온라인) - 루스탐 무자파로브, 카자흐스탄(국가연방 유네스코 클럽) - 팀 커티스, 줄리아 데이비스(유네스코 방콕사무소) - 김자현, 송미령(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네트워크의 성과를 소개하고 아 · 태 지역 국가별우수 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3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내 주요 관계자에게는 해외 주요 정책 동향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유네스코 간의 지속적 네트워크 관리 및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는 자리가 되었다.

표 4-6-25 2013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운영(2013)

일시/장소	주요발제자	참가자	주요내용
2013.10.30/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및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대표 10여명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관계자 132명	○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사업 소개 및 주요성과 발표 ○ 아 · 태지역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결과 발표 ○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 발표(호주, 홍콩, 싱가포르)

사진 4-6-4 2013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현장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말씀

국내외 관계자 네트워킹

질의응답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사업소개 및 주요성과 발표

아태지역 국가별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결과발표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발표(호주 아트플레이(ArtPlay)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 · 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교연구에 참여,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와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의 명의로 '문화예술의 저력 확산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탐구(Releasing the Power of the Arts : Exploring Arts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발간을 지원했다. 이 연구는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6개국(호주,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을 대상으로 2010년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채택된 '서울어젠

다 : 예술교육 발전 목표'의 국가별 이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1) 회원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개요와 2) 서울어젠다의 목표, 전략 및 실천과제 대비 회원기관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주요사업 현황 비교, 3) 다음 단계를 위한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6-26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국가별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보고서 성과(2013)

연구보고서 결과물	연구명	연구기간	참여기관	
	문화예술의 저력 확산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탐구 (Releasing the Power of the Arts : Exploring Arts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2012.08-2013.04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및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서울어젠다' 목표, 전략 및 실천과제 이행현황 분석 등)

④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분석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현 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정책사업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삼고자 제작된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총 5개 국가의 정책적 ·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예술교육 정책배경, 교육시스템 내 문화예술교육 구조 및 정책사업 사례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해외 문화예술교육 자료들이 사례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다국가 간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토대로 정책의 차이점에 대한 전반적 맥락 및 근거를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 4-6-27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분석 개요

1.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요 - 국가별 정책적 배경 · 특성 및 관련 법률 등
2. 의무교육 시스템 - 초/중/고 교육과정 및 관리주체
3. 학교 예술교육 주체 - 교원/외부강사의 자격요건 및 역할분담 등
4. 예술교육 커리큘럼 - 정규교육과정 내/외의 예술교육 분포현황 및 평가
6.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이슈 연관 해당 국가 정책사업 및 사례
7. 추가정보 - 관련 기관 및 연구 · 문헌정보 등

⑤ 문화예술교육ODA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본 목적인 인도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원조 수혜국 문화존중 및 쌍방향적 소통이 강화된 문화예술교육 ODA 실행을 통한 융복한 ODA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2013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ODA사업은 베트남 라오까이성에서 진행되었으며, 초 · 중등학생 대상 현지 문화를 접목한 문화예술교육과 지속가능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교사 및 사범대교수 대상 매개자 교육이 함께 시행되었다.

표 4-6-28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2013)

사업명	사업기간	지역	참가규모		내용
문화예술 교육 ODA	2013.8-2014.2	베트남 라오까이성, 사파현	교육 프로그램	총 3개, 60명 참가 매개자 교육 1회 20명, 수혜자 교육 2회 40명	○ 베트남 라오까이성 사범대 교수 및 학생 대상 매개자 교육 ○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라오까이성 사파현) 초 · 중등학교 수혜자 교육
			교육 결과발표회	총 2회, 1,200여명 참가 사파현 1000명, 하노이 200명	○ 지역주민 및 학교 등 관계자 대상 결과발표회 개최

⑥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 한 · 중 · 일 포럼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 · 중 · 일 3국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재창조 및 상생 · 발전을 위한 창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3국간 문화예술교육 정보 및 자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표 4-6-29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일시/장소	주요발제자	참가자	주요내용
2013.5.22/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 · 중 · 일 문화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10여명	한 · 중 · 일 및 아 · 태지역 기관 · 단체 관계자, 교수, 활동가, 예술가 등 300여명	○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의 위치와 초점 논의(Locus & Focus) ○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 [토론]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통과제와 협력방안'

사진 4-6-5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현장사진

한 · 중 · 일 주요관계자 사전미팅

주요연사 네트워킹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위치와 초점 논의

주요발제자 및 해외연사

토론 및 질의응답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정책 우수사례 공유

나.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①「스마트 문화예술 교육 허브로의 기반」마련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사업 환경을 반영하고, 진흥원 내 각 사이트에서 분산 · 관리되고 있는 콘텐츠, 정보 등 기 구축 운영 사이트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한 통합 포털형태로의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쌍방향 정보 교류를 위한「스마트 문화예술 교육 허브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4-6-4 「스마트 문화예술 교육 허브로의 기반」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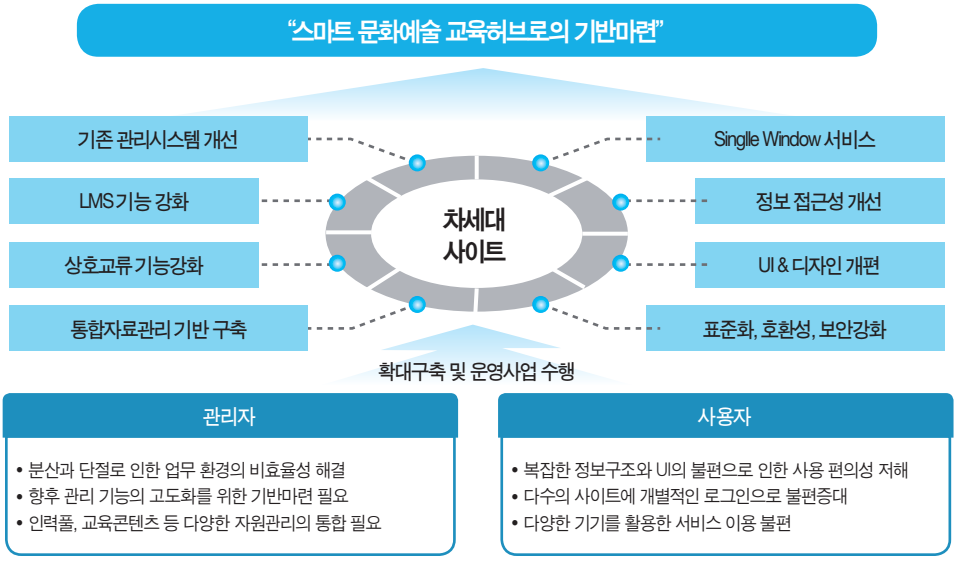


그림 4-6-5 「아르떼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기능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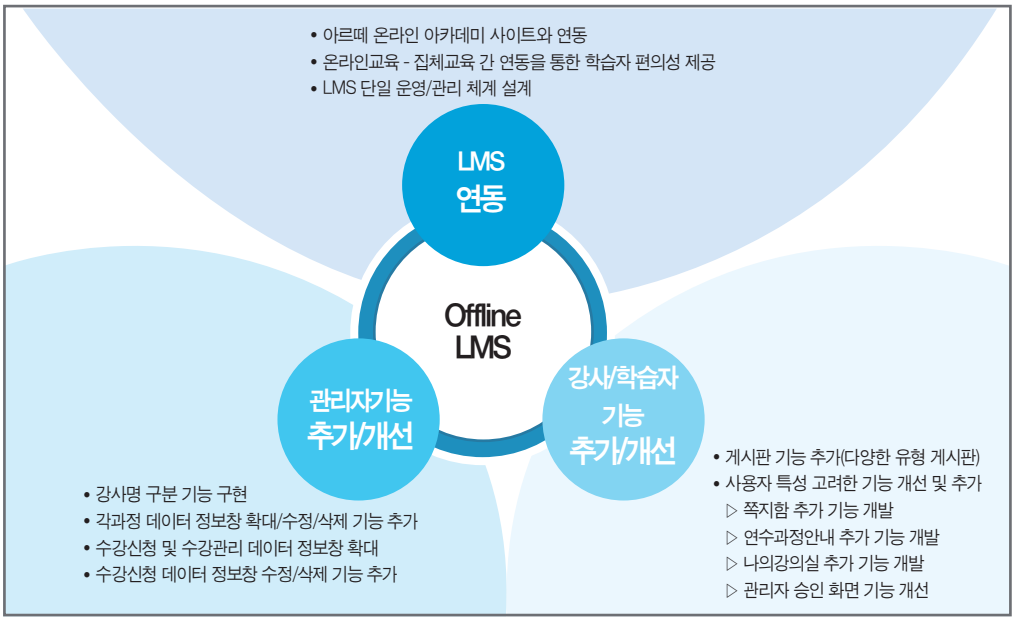


표 4-6-30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입회원수	32,664	46,000	59,173	69,647	78,705	92,721
일일방문자수	4,084	4,300	3,652	4,826	4,873	4,014
만족도조사점수	76.6	76.2	68.8	74.3	80	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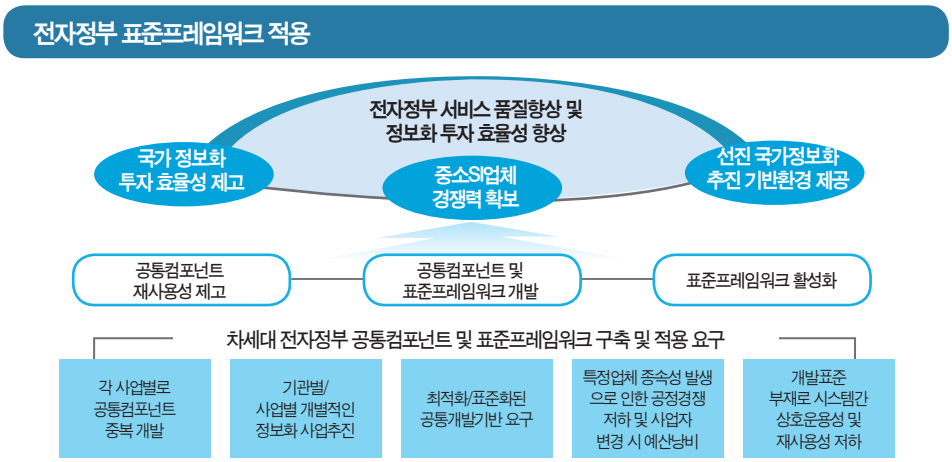
② 시스템 연계를 강화한 「온라인 아카데미 시스템 기능개선」

아르떼 아카데미(AA)는 문화예술 트랜드 및 현장 사례의 맥락의 존적(context-dependent; contextual) 분석으로 핵심 테마를 추출하여 각 대상별 예술기반 창의·인성교육 및 문화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 예비인력에게 필요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동 사업 관련 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였다.

③ 네트워크 형성, 협력을 강화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이트」 운영 환경 개선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이 해당 지역의 오케스트라 교육과 음악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오케스트라 간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동성장 및 전국 단위사업간 네트워크 형성, 협력의 상시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트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4-6-6 「아르떼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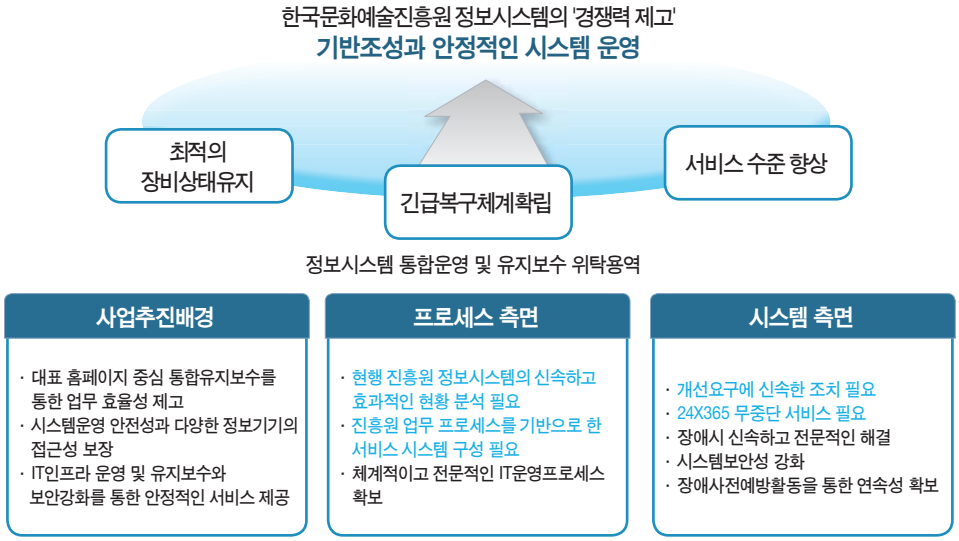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개방형 표준 준수	∨ 오픈 소스 기반의 범용화되고 공개된 기술의 활용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 배제
상용 솔루션 연계	∨ 상용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한 표준을 제시하여 상호운용성 보장
국가적 표준화 지향	∨ 민 · 관 · 학계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수행
변화 유연성	∨ 각 서비스의 모듈화로 교체가 용이하며 인터페이스 기반 연동으로 모듈간 변경영향 최소화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제공	∨ Eclipse 기반의 모델링(UML, ERD), 에디팅, 컴파일링, 디버깅 환경 제공

④ 업무분석을 통한 진흥원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 관련 사업의 산발적 발주 및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 · 유지보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진흥원 정보화 사업의 외주 위탁을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며,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4-6-7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콘텐츠 개발 연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중심적인 교육내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예술강사 사업 관련한 학교 교과 교육과정(기본,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활동)을 분석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8개 분야의 수업을 위한 내용체계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술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악분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는 예술교육 적정시수에 근거하여 예술강사-담당교사 간의 협력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성을 반영하는 지도안을 개발하여 학교 예술강사를 위한 수업 콘텐츠 보급체계 구축 및 지속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4-6-31 콘텐츠 개발 연구(2011년~2013년)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1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2011.05.12-2011.12.31	문화예술교육 10개 분야별 학령기준에 따른 교육내용 및 수준체계 설정
2	콘텐츠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05.16-2011.11.30	진로활동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콘텐츠 개발	예술교육 촉진을 위한 자기진단도구 개발 연구	2011.10.21-2012.01.31	예술강사 핵심역량 정립 및 단계별 설정을 통한 자기진단 가이드 제공
4	콘텐츠 개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2012.08.28-2012.12.31	분야별(연극, 만화/애니, 공예), 수준별(기초/심화), 단계별(초등1,2/3,4/5,6/중등/고등)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5	콘텐츠 개발	예술강사 사업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2013.05.21-2013.08.09	예술강사 관련 기본교과 교과서 및 지도서 분석을 통한 현행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의 기준 제시
6	콘텐츠 개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국악)	2013.10.28-2013.12.31	문화예술교육 적정시수 및 수업비중에 따른 예술강사-담당교사 간 협력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고 현장에 적용가능한 국악분야의 지도안 개발

(2) 기초 및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근거 및 정당성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이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도출하여 사회적 ·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경제적 가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조사 ·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6-32 기초 및 정책 연구(2011년~2013년)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1	기초 연구	문화역량지수 개발 연구	2011.05.12-2011.11.30	문화역량 개념 및 문화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2	기초 연구	문화예술분야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	2011.05.12-2011.11.30	학교 창의성 개념 도출 및 창의성지수 측정도구 개발
3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1.10.21-2012.01.31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도출
4	정책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2011.05.20-2011.11.30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탐색 및 개선점, 향후 발전방안 제시
5	기초 연구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	2012.07.02-2012.12.3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소양 등 문화역량지수를 조사 · 파악하여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특성에 맞춘 정책 발전방안 도출
6	기초 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의 융합적 접근을 위한 기획 연구	2012.07.11-2012.10.31	뇌 과학 기반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의 당위성 및 방향성과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중장기 로드맵 제시
7	기초 연구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2012.7.12-2012.11.30	전국 문화기반시설 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파악하여 문화기반시설 교육사업 분석 및 역할 모델 도출
8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 전략 연구	2012.12.03-2013.02.28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성과 및 한계)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9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2013.08.23-2014.02.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측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검증해보고자 함

(3) 평가 · 통계 연구

2013년에도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효과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및 비운영학교 대상으로 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발전 ·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대상별 분야별로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며,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뇌과학적 방법 및 신경 심리학적 평가 등의 의학적 · 심리학적인 융합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토요문화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 청소년, 가족단위의 문화예술 소양과 또래 · 가족 간의 여가문화 조성 확대 및 소통 증진 등 사

회적 효과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토요문화학교 사업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술강사 교육활동과 운영학교 협조도 평가 등에 대한 매뉴얼 발간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내용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는 교육진흥원의 핵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측정치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특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4-6-33 평가 · 통계 연구(2011년~2013년)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 기간	연구내용
1	평가/통계	2011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1.05.11-2011.11.30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시스템 단계별 성과평가 결과 도출
2	평가/통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꽃씨앗학교)	2011.05.20-2011.12.30	예술꽃씨앗학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효과 측정 도구 개발 및 측정결과 분석
3	평가/통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	2011.05.20-2011.12.30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과학적 측정도구 개발 및 검증
4	평가/통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연구	2012.05.07-2012.11.30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하여 참여학생을 대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검증
5	평가/통계	2012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3.09.30-2014.1.3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시스템 성과평가 결과 도출
6	평가/통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예술꽃씨앗학교	2012.06.01-2013.01.31	2012년 신규 선정된 예술꽃씨앗학교 대상 효과 측정 및 결과 도출
7	평가/통계	예술꽃씨앗학교 효과 분석 매뉴얼 개발 연구	2012.10.08-2013.01.31	예술꽃씨앗학교 특성 및 연차별 로드맵 분석실시하여 효과측정 매뉴얼 및 가이드 개발
8	평가/통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2012.07.03-2012.12.31	토요문화학교 참여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 및 결과 도출
9	평가/통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2.04.25-2012.11.30.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결과 분석, 발전 방안 제시
10	평가/통계	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효과분석 연구	2012.12.10-2013.01.31	위기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 측정 모형 개발 및 측정결과 분석
11	평가/통계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2013.07.11-2013.08.10	예술강사 지원사업 최소 2년 실시학교 대상으로 수요 및 의견 수렴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 기간	연구내용
12	평가/통계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 분석 연구	2013.09.06-2013.12.31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3년 연속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수혜학생, 수혜학교, 사회적 수준 등의 효과 측정 및 결과 도출
13	평가/통계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2013.04.11-2014.02.14	8~11세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설문조사, 임상척도 평가, 뇌 영상학적 검사,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통해 효과성 검증
14	평가/통계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2013.08.23-2014.02.10	토요문화학교 참여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사회적 효과 측정 및 결과 도출
15	평가/통계	2013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3.09.30-2014.1.3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시스템 성과평가 결과 도출

(4) 연구 서비스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연구의 주요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R&D 기반 양적 · 질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영상 및 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뉴스에 게재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주제를 설정,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가.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및 영상보고서

2013년 아르떼 인포그래픽스는 문화예술교육의 기초데이터부터 연구결과, 현장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대내외 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매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SNS활용, 결과자료집 제작 등 R&D기반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시의성 있는 이슈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뉴스 콘텐츠 형식으로 문화예술교육 영상보고서 2건을 제작하여 독자에게 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사진 4-6-6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2012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2013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표 4-6-34 아르떼 영상보고서

구분	연도	제목
1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 노인문화예술교육
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 학교폭력 대비
3		문화예술교육, 소통의 길이 되다
4		문화예술교육, 다시 오르는 삶의 무대
5	2013	'조용한 가족' 에서 '통(通)하는 가족' 으로
6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터, 미디어 아트

나.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사업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접근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추이와 성과, 현재의 동향과 미래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2004년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및 2007년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에 이어,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정책의 밑그림과 비전 및 세부전략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하였다.

표 4-6-35 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2012년~2013년)

구분	주제	일시	장소	참석인원
1	문화예술교육, 창조적 에너지로 학교폭력을 넘어서다	2012.3.21(수)	포스트타워 아트홀	310명
2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묻다	2012.9.27(목)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170명
3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2013.5.24(금)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300명
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2013.12.17(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층 아우름홀	100명

사진 4-6-7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토론회(2013년)

2013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5) 출판사업

문화예술교육 관련 도서의 발간으로 일반 국민 및 관계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총서(아르떼 라이브러리)'를 기획 · 발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해외 우수 도서 3종을, 2013년도에는 1종을 선정하여 번역 · 출판하였다.

표 4-6-36 문화예술교육 총서 성과

구분	도서명 / 사진		도서내용
1	이노베이터의 탄생 - 세상을 바꿀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젊은 혁신가들의 삶,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노베이터, 혁신적 교육 성공사례 등을 추적. 어린 시절 창의적 교육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제시, 공동체 중심 창의적 교육의 필요성 역설
2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 현 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성공적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교육의 출발선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 그랑게(Grange) 초등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 사례 제시
3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 예술교육의 차별적 효과성에 대해 깊이 있는 호소력을 담은 연구서이자 대중서 ○ 예술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다른 과목과 달리 예술이 아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효과성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해명
4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 미국 사회 참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큐레이터, 교육자의 필독서가 된 실천적인 참고서 ○ 사회 참여 예술을 정의하고 개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교육학적 방법론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서 사회 참여 예술을 소개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주요성과 혹은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정리 · 발간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자료집을 제작 · 발간하였다. 2013년에 발간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 모음집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과와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자료와 사례를 수집 · 정리한 자료집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디렉토리북 제작 · 발간은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정보를 사용자가 손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공하였으며, 34,000여개의 콘텐츠 중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 6,800여개를 선별하고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은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종합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를 총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받았다.

2005년 설립 이후 매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책사업의 성과가 높아지면서 사업의 양적 · 질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3본부(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 교육진흥본부) 1실(기획전략실) 11팀(대외협력팀, 학교교육팀, 창의사업팀, 정책연구팀, 사회교육팀, 융합사업팀, 인력양성팀, 국제교류팀, 경영기획팀, 재무회계팀, 정보화팀)의 조직 체계 하에서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예산총액은 억 1,089원으로, 전년도 798억 원에서 290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학교문화예술 활성화 796억 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220억 원 등으로 예산 및 사업이 점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3년도에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365' 운영, 예술 강사 · 문화행정인력 연수 및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3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2005. 02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제1대 김주호 원장 취임
2005.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 공포
2006. 08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법 제10조)
2006. 1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법 제28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운영 실시
2008. 0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CETA' 운영
2008. 07	제2대 이대영 원장 취임 /구로구 신청사 이전
2008. 12	본부 체제 조직 확장(1본부 6팀)
2010. 05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동주관
2011. 07	제3대 박재은 원장 취임
2011. 10	조직 확대 개편(2본부 1실 7팀 1센터)
2012. 05	제1회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2. 08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업무 위탁(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2013. 05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3. 08	청사 확대 이전(마포구) 및 조직 개편(3본부 1실 11팀)

표 4-6-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2013)

구분	내용
1.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	□ 초 · 중 · 고등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확대 ○ 전국 초 · 중 · 고 7,254개교 220만 명 대상,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4,485명 파견, 132만 시수 교육 지원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교육현장 수요확대를 위한 관현악(앙상블), 미디어아트, 문학 창작, 서예문화 교육 시범 실시(관현악(앙상블) 45개, 미디어아트 10개, 문학 창작16개, 서예 문화 15개교 등 총 86개교 선정 및 예술 강사 선발 · 파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12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교 밖 토요일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6개 시 · 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은 물론, 국 · 공립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전국 623개 프로그램 및 51,122명 참여) □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환경 조성 및 집중지원으로 지역 거점학교 육성 - 부산배영초 등 30개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 운영지원 ※ '13년 3년차 16개교, 2년차 10개교, 1년차 4개교/ 수혜자수 : 4,115명

구분	내용
2.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 15개 분야 761개 시설 1,221개 반 18,430명 수혜 ○ 예술강사 오픈 컨퍼런스 '예술강사의 발' 및 노인복지관 청춘제 개최 □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육 · 해 · 공군 180개 부대, 52개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10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 대상 연간 30회 체험 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9개, 청소년수련시설 46개, 청소년쉼터 및 상담센터 31개 대상 연간 20~30회 문화예술교육 및 발표회 개최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 농산어촌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체험 버스를 제작, 총 113개 시설, 120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2,157명 수혜 ○ 방학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장기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캠프 '우락부락' 운영(여름 2회, 344명 참여)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리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단체 공모 · 선정 과정 지원(477개 사업, 598명 예술강사 파견) ○ 지역별 문화환경 고려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광역센터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 사회적기업 및 시민문화공간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사업 지원, 총 12개소 지원, 2,395명 수혜 ○ 예비 주체 발굴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정책 기초 연구 추진 □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 거점기관 30개 선발(연속지원 17개소, 신규지원 13개소) ○ 전국 30개 거점기관에서 소외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 실시 - 참여강사: 총 325명 / - 수혜아동 수: 1,521명 ○ 연속지원 거점기관 소속 아동 715명 대상 연합캠프 '이음캠프' 개최 ○ 꿈의 오케스트라&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개최(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포함 연주자 191명, 관객 1,500여명 참여)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사업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 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재단, 초중등 교원, 방송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분야 교육매개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획 및 운영(13회)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총 3건 추진 - 문화다양성 관련 언론미디어 모니터링 분석 연구 1건, KBS와 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다큐멘터리 제작(1편) 및 사업 현장기록 영상제작(6건),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출판 제작지원(5건)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지원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12개 광역기초문화재단 지원, 138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주민 · 지역주민 총 124,812명 참여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4회 추진(총 179명 참여) 및 사업 현장 컨설팅 및 성과평가 연구 1건 추진 - 문화다양성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및 공감콘서트 '문화다양성 공유공감(共有共感) 행사 추진 (2회, 194명 참여)

구분	내용
3. 2012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전국 16개 시 · 도에서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행사 개최(5.19-25, 전국 384개 프로그램 39,103명 참여, 언론보도 310건) ※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
4. 문화예술 교육전문 인력 양성 · 연수	□ 학교 · 사회 예술강사 연수 운영 ○ 학교 · 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 총 2,720명, 총 1,535시간 교육(만족도 3.8점) ○ 기본연수를 수료한 학교 · 사회 예술강사 대상 선택 심화연수 확대 개설하여 마이크로 티칭 실습, 분야별 우수학습지도안 이해 등 44개 운영 총 998명, 총 906시간 교육(만족도 4.3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 ○ 사회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기획자 대상 연수 총 182명, 총 135시간 교육(만족도 4.1점) ○ 문화예술교육 키움, 문화도담, 아르떼동아리 연수 총 478명, 총 241시간 교육(만족도 4.2점) ○ 문화행정인력 대상 창의적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총 51명, 23시간 교육(만족도 4.2점)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심사 · 자격증 발급업무, 교육기관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등 업무 추진(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13개 지정)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기반 마련(중장기 발전 방안 및 로드맵 구축 연구 외 4건) 및 설명회 개최(관계자 대상 25회, 총 1,707명 참여) ○ 자격증 발급 · 관리를 위한 온라인 자격관리시스템(acei.arte.or.kr) 구축
5.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 365' 운영 ○ 수요자와 지식공유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웹진 '아르떼365'(월 평균 방문 수 18,452명), 모바일 페이지, SNS, 뉴스레터 운영 □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29,30차) 운영 ○ 무용/동작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개발 및 치유적 효과(29차), 아동, 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 핀란드 소셜 서커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30차) (총 참가자:254명, 서울 및 제주, 대전 문화예술재단과 협력운영- 지역참가자 접근성 확대) □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미국 뉴욕 거주 (치매)노인 대상 현대미술관(MoMA) '마음을 두드리다 ' 프로그램 운영(총 참가자: 77명) □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온 · 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사례공유 ○ 옵저버토리 웹사이트(APAH) 운영(국내 자료 · 연구보고서 등 60건 번역 · 탑재) 및 온라인 뉴스레터(Arts Talk) 창간호 발행(2013.10) ○ 2013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및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회원기관 간 네트워킹 회의 개최 ○ 아 · 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국가별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참여 및 보고서 발간 지원 □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 베트남 라오까이성(사파현) 학생 및 예비교사, 사범대 교수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사진) 진행, 지역주민 및 학교 관계자 대상 결과발표회 개최 (총 참가자 : 60명)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 한 · 중 · 일 문화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초청 3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사례, 향후 공통과제 및 협력방안 논의,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관계자 참여(총 300여명)

구분	내용
6.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근거확보를 위한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1건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중심적인 교육내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2건 ○ 학교 ·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조사, 성과평가 연구,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효과 분석 연구 등 6건 □ 문화예술교육 연구결과 서비스화 ○ 아르떼 인포그래픽스 5건, 영상보고서 2건 기획 · 제작을 통한 연구 성과의 온라인 서비스 기능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1회 및 토론회 1회 개최 ○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한 해외도서 번역출판 1종(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집 2종 발간

부록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2013)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록(2013)
3. 문화체육관광 승인통계 목록(2013)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 (2013)

1) 2013년 기본과제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예술정책	노영순, 윤주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 및 과제
	김연진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정광렬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광호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활성화방안 연구
	김혜인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양건열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조현성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허은영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
	양혜원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인력 활용방안 연구
	정정숙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윤소영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연구
	김효정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김규찬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용관	콘텐츠산업의 융합양상과 정책과제
	채지영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
	이강욱, 이성태	2천만 외래객 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광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덕기, 김현주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안희자 (13.09.12~), 심원섭 (~13.09.11)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최자은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방안
	김희수, 신용석	방학분산의 타당성과 도입방향 연구
	박경렬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유지윤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방안 연구
	류광훈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정책
	오훈성, 김향자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 관리 방안
	김성진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
	김상태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
	오훈성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김성진, 박주영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 예술 정책	이원희, 이상열	문화.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
	전병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최경은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박찬욱	지역문화자원 활용 융합모델 개발 연구
	김규찬, 김희수	문화콘텐츠.관광 부문 규제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윤주	크루즈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모델 개발연구
	박영정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효정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교수)	국제문화교류 지원 개선을 위한 조직설계방안 연구
	양건열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
	김연진	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양혜원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혜인	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최경은, 윤주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전병태	예술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 방안 연구
	박찬욱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이용관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 방안 기초연구
	김규찬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정헌일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김덕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최자은	스마트관광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김현주, 안희자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신용석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
	박경열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동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김윤영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박상곤	지역관광에 대한 TV 간접광고의 효과 추정
	김향자	섬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성진, 박주영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연구
	김영준, 김송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가이드라인(안) 연구

2) 2013년 특별과제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 예술 정책	김규찬	문화산업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이원태, 노영순,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김효정	도로 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진흥 방안
	김혜인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용관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 직업발굴 및 도입 검토 연구 (전문가조사 및 자문 부문)

3) 2013년 조사과제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 예술 정책	양혜원, 김혜인	문화예술 지식정보 DB 구축 연구
	이성태	2012년 관광동향 조사
	이성태	2013 관광수요예측
	김홍규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4) 2013년 수탁과제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 예술 정책	정헌일	K-POP 공연장 건립 기본계획
	권태일,최승묵	2012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권태일,최승묵	2012 관광통계 개선사업
	김상태, 박상곤	관광서비스 혁신 R&D 지원 (*2012년 사업)
	이원태	포항 문화비전 2022
	김향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
	김영준	관광특구 제도개선방안 연구
	류정아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이원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김성진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최종평가 연구
	김현주, 이성태, 안희자(샛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박영정	예술의 미래-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전략 연구
	박주영	승마관광 수요예측 및 특성분석 연구
	신용석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
	윤소영	세종학당 운영평가 체계 연구
	박경열	관광지등 조성사업 평가 연구
	김영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
	조현성, 허은영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김효정	공예관광상품개발사업 심층평가
	윤소영	가족변화가 가족문화와 새로운 문화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광호	디자인박물관 건립기본구상 연구
	김영준, 김윤영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문화관광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김윤영, 박상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 심층평가
	이원태	한국실크로드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김연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구상
	김상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상태	당진시 산업관광 거점지구 조성 기본구상 연구

연구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문화 예술 정책	박주영, 김성진	지역 관광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노영순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김효정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조직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조광호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이원희, 최경은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김덕기, 윤주	포천아트밸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연구
	김현주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분석 및 확충방안
	이용관	창조경제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김상태, 박경열	관광측면에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김덕기, 유지윤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종합백서
	정정숙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 기본계획 연구
	김규찬, 정상철(~13.07.31)	2013년 국제영화제평가
	신용석	201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박영정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서울예술단 발전방안 연구
	양혜원, 박경열, 심원섭	2013-2017 국가재정 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양혜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연구
	김혜인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기준 연구
	정상철	불법복제물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김홍규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김향자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계획 수립 용역
	류광훈, 박경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지원
	이용관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윤소영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
	윤소영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예술 세출구조 개혁 연구
	조현성	2013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윤소영	세종학당 운영성과 평가 · 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록 (2013)

1) 2013년 언론보도 목록

연번	표제	게시일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2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은 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2013.12.31.
3	EXO-K, 2NE1, 이승철, 송소희 등이 함께하는 2014 새해맞이 특별생방송 '아리랑 코리아' 공연 개최	2013.12.31.
4	김중만 작가 저작권 기증 66점 개방	2013.12.27.
5	2014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10대 흐름을 말한다	2013.12.26.
6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신임 이사장 임명	2013.12.26.
7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돌파	2013.12.26.
8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시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명칭 공모전 실시	2013.12.24.
9	2013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2013.12.24.
10	문체부,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 완화 추진	2013.12.24.
11	세종학당 52개국 120개소로 확대, 수강생 25% 증가	2013.12.23.
12	들썩들썩, 가족, 연인 등과 함께 즐기는 '미리 크리스마스'	2013.12.20.
13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개방적 협력기구 구축방안 논의	2013.12.19.
14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 위한 문화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2013.12.19.
15	국내 전체 영화 관객 수 사상 최초 2억 명 돌파	2013.12.19.
16	'정부3.0 구현, 문화정보 민간개방과 창조경제 활성화' 설명회 개최	2013.12.18.
17	문화융성 시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따뜻한 발자취를 공유하다	2013.12.18.
18	공유저작물 8만 점 '공유마당' 에 신규 등록	2013.12.18.
19	'타인에 대한 배려' 가 새로운 사회 가치로 나타나	2013.12.18.
20	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나는 일상이 펼쳐진다	2013.12.17.
21	국산 애니메이션 '넛잡' 사상 최대 규모 북미 개봉	2013.12.17.
22	'안녕! 우리말'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 개최	2013.12.17.
23	문체부, 유류할증료 위반 여행사 행정지도 나서	2013.12.17.
24	문체부-미래부, 중국 콘텐츠 시장진출 확대 방안 논의	2013.12.17.
25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시상	2013.12.16.
2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	2013.12.16.
27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7대 이슈	2013.12.16.
28	배우 안성기, 가수 카라 박규리 · 한승연, 디자이너 이상봉 등 우리말 수호천사로 선정	2013.12.16.
29	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2013.12.16.
30	'2013 광고산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2013.12.16.

연번	표제	게시일
31	당신의 일상에 문화가 찾아간다	2013.12.13.
32	U-20 월드컵 유치 등 2013 스포츠 분야 10대 이슈	2013.12.12.
33	창조경제를 빛내는 별들의 이야기 '201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 개최	2013.12.12.
34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도시조성 공사 기공식 개최	2013.12.12.
35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작은 도서관 개관	2013.12.12.
36	올해의 인문학 담론 총정리	2013.12.12.
37	문체부, 게임문화재단을 첫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	2013.12.12.
38	2013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2013.12.12.
39	문체부 장관 종교지도자 예방	2013.12.11.
40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등 2013 관광분야 10대 성과	2013.12.11.
41	효도라도 불법은 곤란합니다	2013.12.11.
42	제8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시상식 개최	2013.12.11.
43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10.
44	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2013.12.10.
45	문화기본법 제정 등 2013 문화융성 원년 문화예술 분야 10대 성과	2013.12.10.
46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 12월 11일 동경 개최	2013.12.10.
47	한중 스마트관광 협력의 시작, 스마트관광 협의회 개최	2013.12.10.
48	관광경찰 출범 50일, '행복한 한국관광' 기초 다져	2013.12.09.
49	문화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소통의 장 열다	2013.12.09.
50	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선정	2013.12.06.
51	대한민국, 2017 FIFA U-20월드컵 유치 성공!	2013.12.06.
52	한-EU 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교류협력 증진 기반 마련	2013.12.05.
53	문체부-미래부, 콘텐츠코리아 랩 공동세미나 개최	2013.12.05.
54	12. 6. 문체부-미래부 '빛마루' 개관행사 개최	2013.12.05.
55	국민의 98.2% "한글, 한국어 사랑해!" … 하지만 세대별로 차이 있어	2013.12.05.
56	아시아 옛이야기들이 다시 태어난다!	2013.12.05.
57	12. 10. 공예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예정책 토론회' 개최	2013.12.05.
58	김중만 작가 사진 66점 저작권 기증	2013.12.05.
59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통해 부적격여행사 22개 퇴출	2013.12.05.
60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추진	2013.12.04.
61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2013.12.04.
62	'2014년도 한국의 전통예술 화보 다이어리' 발간	2013.12.04.
63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에 강수진씨 내정	2013.12.03.
64	제4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2013.12.03.

연번	표제	게시일
65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 · 시행	2013.12.03.
66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 2차 세미나 개최	2013.12.02.
67	전통적 이야기 자원을 창작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안 모색	2013.12.02.
68	IT를 접목한 스포츠산업의 첨단화로 산업 규모 확대	2013.12.02.
69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 정부 지원 박차	2013.12.02.
70	문체부, 호텔등급제 제도개선 본격 나서	2013.11.29.
71	17개 시도, 국민행복 · 창조경제 실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논의	2013.11.29.
72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2013.11.28.
73	'문화적 가치의 전파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통전략'	2013.11.28.
7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콘텐츠 공모	2013.11.28.
75	'2013 청소년 시(詩)낭송축제-우리들의 콘서트' 개최	2013.11.28.
76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입법예고에 따른 제2차 공청회 개최	2013.11.27.
77	바가지요금 등 불법적인 택시 영업, 이제 그만하세요!	2013.11.26.
78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 주거지역 입지 시 규제완화 등으로 호텔분야 투자활성화 기대돼	2013.11.26.
79	문체부, 한국 창작음악의 기초 인프라 조성 및 창작자 활동기반 강화키로	2013.11.26.
80	'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30돌 생일잔치	2013.11.26.
81	유럽의 수도 브뤼셀에 한국문화원 개원	2013.11.26.
82	문체부, 뮤직비디오 및 웹툰 심의제도 개선 위해 현장소통	2013.11.26.
83	울랄라세션의 축하무대와 함께하는 '들썩들썩 페스티벌' 11월 공연	2013.11.26.
84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 활동 기회를 넓혀주다	2013.11.25.
85	유럽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	2013.11.25.
86	'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공개세미나 열려	2013.11.25.
87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3.11.25.
88	인사동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우수 공예품 전시 열려	2013.11.25.
89	문체부, 정부3.0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013.11.25.
90	창조경제시대,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모색	2013.11.22.
91	2014년도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카드 명칭 및 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2013.11.22.
92	재미있고 신기한 근대 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 열려	2013.11.21.
93	문체부장관, '이야기산업'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2013.11.20.
94	'국립예술기관 운영 활성화 협의체' 출범	2013.11.20.
95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국제적 우수사례로 선정돼	2013.11.20.
96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당선작 발표	2013.11.20.
97	메디칼업저버 등 전문신문 발전 유공자에 정부 포상	2013.11.20.
98	문체부, 2013년도 하반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 개최	2013.11.20.

연번	표제	게시일
99	문화융성위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3.11.19.
100	미래 콘텐츠 창조산업을 전망한다 2013 국제콘텐츠콘퍼런스(DICON) 개막	2013.11.19.
101	한국공예, 해외에서 잇단 초청전시 개최	2013.11.18.
102	국내 캠핑 · 등산용품 선두주자 '코베아' ,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2013.11.18.
103	콘텐츠 창업생태계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	2013.11.18.
104	창조경제시대의 기업혁신, 예술에서 길을 찾다	2013.11.18.
105	65세 이상 노인 꾸준히 운동하면 뇌졸중 등 건강위험 1/4까지 줄여	2013.11.18.
106	끝없는 한류 확산, 에티오피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2013.11.15.
107	전문가, 학생들과 함께 '관광인력 국제화 방안' 모색	2013.11.15.
108	김운미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임명	2013.11.15.
109	동네 자투리땅 '작은체육관' 변신, 낙도엔 스포츠버스 운행	2013.11.14.
110	크레인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2013.11.14.
111	문체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14 ~ '18) 수립 발표	2013.11.14.
112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청춘잔치,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개최	2013.11.14.
113	문체부, 중국 문화부와 문화산업 협력 지속 추진 기반 마련	2013.11.14.
114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워크숍' 개최	2013.11.14.
115	'2014~2015 한 · 러 상호방문의 해' 선포 양해각서(MOU) 체결	2013.11.13.
116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420종 선정	2013.11.13.
117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2013.11.13.
118	문체부, 2013년도 소프트웨어 사용 · 관리 우수 중소기업 시상	2013.11.13.
119	지역 언론인의 축제 '2013 지역신문 콘퍼런스' 개최	2013.11.13.
120	행복한 우리 동네 꿈꾸는 생활 예술인들, 한자리에 모여라!	2013.11.12.
121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2013.11.12.
1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故) 신현종 여자양궁 국가대표 감독 유족에게 위로금 전달	2013.11.11.
123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발표	2013.11.11.
124	국회에서 시를 만나다	2013.11.11.
125	마리킴, 심재명 등 '신나는 언니들' 이 청춘에게 말한다!	2013.11.11.
126	공연으로 재해석한 힌두 대서사시 '라마야나'	2013.11.11.
127	조용필, 패티김, 구봉서 등 6인 문화훈장 수훈	2013.11.11.
128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실 없어"	2013.11.08.
129	안건희 이노션 대표 등 광고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2013.11.07.
130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시상식	2013.11.07.
131	주요 한식명 표준 번역 시안, 영어 · 중국어에 이어 일본어안 나와	2013.11.07.
132	한국 · 태국 정부, 저작권 협력 기틀 마련	2013.11.07.
133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 의 길을 따라 살펴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건축과 문화	2013.11.07.

연번	표제	게시일
134	학교폭력예방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3.11.07.
135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인문학 대중화의 길을 찾아서	2013.11.07.
136	“원더풀! 코리아 콘텐츠!”	2013.11.07.
137	한영 문화 ·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3.11.07
138	한국,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 진출	2013.11.05.
139	우리 사회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힘 모아	2013.11.04.
140	예술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 ‘예술가종합지원실’ 개소	2013.11.04.
141	초등학교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 활용 시범수업 첫 공개	2013.11.04.
142	한국-나이지리아 ‘수십 년이 넘은 우정’ 미술교류전 개최	2013.11.04.
143	가을엔 도서관 인문학 나들이를!	2013.11.04.
144	2014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2013.11.01.
145	이창의 매거진하우스 대표 등 잡지 문화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2013.10.31.
146	2013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2013.10.31.
147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2013.10.30.
148	세계 속 한국문화 융성을 위한 문체부-구글 협력 확대	2013.10.30.
149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10.29.
150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3 개최	2013.10.29.
151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역에서 사랑받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	2013.10.29.
152	서울과 광주의 예술가들의 만남	2013.10.29.
153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문화예술교육 들여다보기	2013.10.28.
154	문화융성위원회,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화융성의 우리 맛, 우리 멋-아리랑’ 공연 개최	2013.10.25.
155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2013.10.25.
156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2013.10.24.
157	출근만 하면 늘 행복해지는 기업을 찾습니다	2013.10.24.
158	거리의 음악가들, 무대에 오르다	2013.10.23.
159	한국-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013.10.23.
160	26번째 한국문화원, 브라질 상파울루에 문을 열다	2013.10.22.
161	올해의 최고 도서관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예산초등학교도서관	2013.10.21.
162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제 10. 22. ~ 10. 27. 개최	2013.10.21.
163	관광 자원의 보고, 카리브 지역과 실질적 관광협력 논의	2013.10.21.
164	2013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가수 인순이 선정	2013.10.18.
165	국내 첫 ‘문화예술 후원의 날’ 행사 열린다	2013.10.18.
166	이번 주말 거리에서 한번 놀아볼까?	2013.10.17.
167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2013’ 10월 20일 본선 개최	2013.10.17.

연번	표제	게시일
168	꿈과 기적을 연주해요! 한국 · 베네수엘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개최	2013.10.17.
169	2013 문화의 달 기념식(10. 19.) 개최	2013.10.17.
170	'2013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발표	2013.10.17.
171	아시아예술극장, 즐길 준비 되셨나요?	2013.10.16.
172	패션으로 들썩들썩, 신개념 패션문화축제 패션코드 2013(Fashion KODE 2013) 17일 개막	2013.10.16.
173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충북 보은 개최	2013.10.16.
174	문화도시 · 문화마을 심포지엄 개최	2013.10.16.
175	보는 음악? 듣는 미술?	2013.10.16.
176	신나는 국민 문화예술촌,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로 놀러오세요	2013.10.15.
177	지식정보 소통과 공유로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지원	2013.10.15.
17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말하다	2013.10.14.
179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2013.10.14.
180	인사동, 명동, 이태원에 관광경찰이 뜬다!!	2013.10.14.
181	한복에 미래는 있는가?	2013.10.14.
182	문화의 달 10월, "어르신? 우리는 이렇게 논다!"	2013.10.14.
183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2013.10.14.
184	진종오 선수 등에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이규혁 · 김재범 선수 등에게 체육발전유공자 훈포장 수여	2013.10.14.
185	인문학 열풍, 실체는 있는가?	2013.10.14.
186	10. 16. ~ 17.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콘서트) 열려	2013.10.14.
187	문체부-구글, 국제 콘퍼런스 '빅텐트 서울 2013' 공동 개최	2013.10.14.
188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 정부 승인	2013.10.10.
189	문체부, 10월 문화의 달 맞아 '문화 힐링 30선' 개설	2013.10.10.
190	제27회 '책의 날' 계기,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2013.10.10.
191	2014년도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카드 명칭 공모전 개최	2013.10.10.
192	아시아예술극장 비전설계포럼 '시간의 잠수자, 지금 생각하기'	2013.10.10.
193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락(樂)! 페스티벌 열려	2013.10.10.
194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2013.10.10.
195	'예술인 복지 공개 토론회' 개최	2013.10.10.
196	2014년도 문체부 정보화예산(안) 420억 원 편성	2013.10.10.
197	국제뮤직페어 '뮤콘 서울 2013' 개막	2013.10.10.
198	전국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개시	2013.10.10.
199	'문화예술로 세상과 하나 되는 어울림'	2013.10.08.
200	중국 여유법(旅遊法) 시행 계기, 관광마케팅 대응전략 마련	2013.10.08.
201	가애란 KBS 아나운서,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	2013.10.08.

연번	표제	게시일
202	지방문화원 큰 잔치(문화원의 날 기념식) 10월 10일 개최	2013.10.08.
203	'2013 뉴욕 한인퍼레이드' (10. 6.)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참가	2013.10.08.
204	주한 외국인,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지다	2013.10.08.
205	나마스테, 코리안 뮤직! 한국-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국악공연 개최	2013.10.08.
206	문체부 장관, 백성희 · 오현경 · 임영웅 등 원로 연극인 초청 오찬	2013.10.08.
207	문체부-네이버 문화콘텐츠 공동 협력사업 추진	2013.10.07.
208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2013.10.07.
209	문체부-미래부, 콘텐츠 상생 발전을 위한 첫 결실 맺어	2013.10.07.
210	제567돌 한글날에 한글 발전 유공자 10명 정부 포상	2013.10.07.
211	10월 문화의 달, 문화로 거리를 물들이다	2013.10.07.
212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 등이 참석하는 국제스포츠협력 콘퍼런스 개최	2013.10.07.
213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을 뭐라고 소개할까?	2013.10.07.
214	내 안의 끼와 열정을 보여준다	2013.10.07.
215	한국영화 관객 2년 연속 1억 명 돌파	2013.10.07.
216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2013.10.02.
217	10월 문화의 달, 문화가 일상이 된다	2013.10.02.
218	10월 문화의 달, 우리 함께 문화의 씨앗을 뿌려요	2013.10.02.
219	'한글문화큰잔치' (10. 7. ~ 13.)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2013.10.02.
220	전 세계 174명의 세종학당 친구들, 한글날에 서울에서 만나요	2013.10.02.
221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울산에서 열려	2013.10.02.
222	신명과 흥으로 소통하는 민속예술 대향연	2013.10.02.
223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에 최정철 씨 임명	2013.10.02.
224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 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반 확충	2013.10.01.
225	문화의 달, '청소년 시(詩)낭송축제' 풍성하게 열린다	2013.10.01.
226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2013.10.01.
227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기념해 국민적 문화축제 열린다	2013.09.30.
228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창작국악 경연대회'	2013.09.30.
229	제5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본선 개막	2013.09.30.
230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이야기마당 '한글과 한글문화' 개최	2013.09.30.
231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3.09.30.
232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포럼 개최	2013.09.30.
233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광주공동합의문 채택	2013.09.30.
234	소설가 고(故) 최인호 선생에 대해 은관문화훈장 추서	2013.09.27.
235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월 30일 개막	2013.09.27.

연번	표제	게시일
236	알쏭달쏭한 한글, 한글날?	2013.09.26.
237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예술가의 꿈을 키워라	2013.09.26.
238	'제40회 관광의 날' 관광진흥유공자 정부 포상	2013.09.26.
239	문체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2013.09.25.
240	세계 각국의 우리 민족 고국 방문, 축제 한마당	2013.09.25.
241	동아시아 문화융성 시대를 여는 다양한 교류협력방안 논의	2013.09.25.
242	KBS와 'Three Colors of Korea' 공동제작으로 한류의 매력 소개	2013.09.25.
2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 개최	2013.09.25.
244	중국 국경절(10. 1. ~ 10. 7.) 맞아 관광 접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2013.09.24.
245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 서울 개최 협력	2013.09.24.
246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2013.09.24.
247	제19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및 북콘서트 개최	2013.09.23.
248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와 융합' 연속토론회 개최	2013.09.23.
249	'모란봉악단' 을 통해 본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양상과 남북 대중문화 교류의 미래는?	2013.09.23.
250	어려운 공문서, 이제 그만!	2013.09.23.
251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2013.09.23.
252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2013.09.17.
253	'2013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2013.09.17.
254	광화문광장 시향(詩香)에 물들다	2013.09.16.
255	문화체육관광부, '패션 코드 2013' 개최	2013.09.16.
256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 설립 본격화	2013.09.16.
257	예술의전당 임원(비상임 이사) 임명	2013.09.16.
258	손미나, 황경신 등 '신나는 언니들' 이 청춘에게 말한다	2013.09.16.
259	문체부 · 미래부,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워크숍 공동 개최	2013.09.13.
260	문체부-미래부,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2013.09.12.
261	9월 16일, 장애인 예술 인재 '스페셜 케이(K)' 시상식	2013.09.12.
262	인쇄문화의 날, 문화포장에 이순석 동일정보인쇄(주) 대표	2013.09.12.
263	국가문화유산 정보, 이제 '문화포털' 한곳에서 모두 만나세요	2013.09.11.
264	홍대거리 '씬디(Xindie) 티켓라운지' 드디어 일반에 공개	2013.09.11.
265	컨셉코리아 S/S 2014, 성황리 개최	2013.09.10.
266	아시아송페스티벌 10년, 진정한 음악축제로의 새로운 도약	2013.09.10.
267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2013.09.10.
268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020 하계올림픽 태권도 핵심종목 선정	2013.09.09.
269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2013) 개최	2013.09.09.
270	아시아문화전당 통해 문화협력 강화키로	2013.09.06.

연번	표제	게시일
271	세계문해(文解)의 날, 세종대왕을 기리다	2013.09.06.
272	문체부, 윤학원 · 양방언 · 강익중 · 신대철 등 저명 문화예술인 27명을 명예교사로 추가 위촉	2013.09.05.
273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에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2013.09.05.
274	문체부,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2013.09.05.
275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자	2013.09.05.
276	"미래의 든든한 예술관객으로 성장합니다!" 청소년 토요 예술 감상 프로그램 운영	2013.09.05.
277	9월 5일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 중국 청도에서 개최돼	2013.09.05.
278	문화융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및 전문위원회 출범	2013.09.04.
279	박찬숙, 임오경 등 여성스포츠인들, 한자리에	2013.09.04.
280	문체부 장관 김제시 작은영화관 개관식 참석, 영화 '관상' 시사회도 열려	2013.09.04.
281	세계의 모든 음악,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2013.09.04.
282	9월 5일,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2013.09.04.
283	9월 2일 ~ 30일, 2013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수상자 후보 접수	2013.09.03.
284	아시아 문화 담당 언론인, 아시아 문화를 고민하다	2013.09.03.
285	전국이 문화로 들썩들썩… 국민이 참여하고 만끽한다	2013.09.03.
286	뉴욕패션위크서 '컨셉코리아 S/S 2014' 개최	2013.09.03.
287	대학생 문화융성 광고 공모전 대상은 공희택 · 이정윤 작 '더 풍부해집니다'	2013.09.03.
288	문체부,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발표	2013.09.02.
289	한국적 공간은 한옥과 어떻게 다른가?	2013.09.02.
290	시민들의 일상문화 나누는 '공간을 빌려드립니다'	2013.09.02.
291	21세기 대안적 창작 공간을 모색하다	2013.09.02.
292	독립음악인을 위한 '음악창작소' 구축 본격 착수	2013.08.30.
293	세계 유일의 서체디자인그래픽 비엔날레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3.08.29.
294	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적용 확대	2013.08.29.
295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참석 통해 전략적인 국제 관광협력 기반 마련	2013.08.29.
296	문체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고 내	2013.08.29.
297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 9월 5일 광주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열려	2013.08.29.
298	한류 주역의 양성소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2013.08.28.
299	9월 독서의 달, 책 향기(書香)에 물들다	2013.08.28.
300	2013년 문화다양성 도서출판 총 5건 지원	2013.08.28.
301	9월, 아시아문화의 빛을 발하다	2013.08.27.
302	전국의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키운다	2013.08.27.
303	창조 · 융합 · 개방을 통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창출	2013.08.27.
304	문체부, 현장과 함께하는 '새 예술정책 토론회' 개최	2013.08.27.
305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	2013.08.26.

연번	표제	게시일
306	영화 제작자 김상오, 홍보전문가 김혜원, 감독 변혁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 위원 임명	2013.08.26.
307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김봉렬 교수 임명	2013.08.26.
308	문화의 달 시민 유시시(UCC) 공모전 '문화! 내가 주인공'	2013.08.26.
309	전국 67개 박물관에서 인문학 현장학습 해요	2013.08.26.
310	잠비아 · 짐바브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계기 한국의 국제관광 역량 대폭 강화	2013.08.22.
311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08.22.
312	정부 정책의 모든 것, 이제 '정책브리핑' 에서 만나세요	2013.08.22.
313	'새로운 주역, 한류의 새바람으로'	2013.08.22.
314	막이 오르기 전, 생생한 공연탄생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2013.08.21.
315	2013 부산국제광고제, 22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	2013.08.20.
316	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영상자료원, 정보화 수준 '최우수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종합서비스 구축' , 최우수 정보화사업	2013.08.20.
317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에서 374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2013.08.20.
318	중국 파워블로거 대거 방한, '우린미래(友邻未来)' 다진다	2013.08.16.
319	매주 토요일, 동대문에서 '패션쇼' 열린다	2013.08.14.
320	전국 문화이용권 발급률 93% 돌파로 높은 호응 보여	2013.08.14.
321	부천에서 설국열차 등 '이야기' 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	2013.08.13.
322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 , 청년 인문캠프 개최	2013.08.13.
323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응급대응 체계 구축 요청	2013.08.13.
324	문체부 장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2013.08.13.
325	문화융성위원회, 전국의 문화현장과 만난다	2013.08.12.
326	이주민-새터민-지역주민의 마음과 마음을 문화로 잇는 '무지개다리'	2013.08.12.
327	문체부-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융성 위해 공동 노력키로	2013.08.12.
328	2014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2013.08.12.
329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뉴욕 간다	2013.08.09.
330	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2013.08.08.
331	예술로 물드는 여름방학 이색캠프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져	2013.08.06.
332	연예인 지망생을 위한 유명 연예기획사들의 컨설팅	2013.08.05.
333	박찬숙, 임오경, 김소희 등 여성체육인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강	2013.08.02.
334	학교폭력예방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진행 중	2013.08.02.
335	여름휴가 때 책을 읽으며 마음도 쉬게 하자	2013.08.02.
336	문체부, 2013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2013.08.01.
337	문체부 · 미래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빛마루' 운영협력, 정책협의체 가동 등 협업 강화	2013.08.01.
338	한 · 일 · 영 공동제작 공연 'ONE DAY, MAYBE 언젠가'	2013.08.01.
339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2013.07.31.

연번	표제	게시일
340	지난 7월 방한 관광객 사상 최대인 120만 명 돌파	2013.07.31.
341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2013.07.31.
342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	2013.07.31.
343	문체부,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2013.07.31.
34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2013.07.30.
345	주민참여 지역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 추진	2013.07.30.
346	쪽방촌에도 문화가 넘실 (문체부의 찾아가는 희망무대 '작은방 문화나들이' 행사)	2013.07.30.
347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함께하는 가족 힐링캠프'	2013.07.26.
348	전 세계 농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3소피아농아인올림픽 개막'	2013.07.26.
349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2013.07.26.
350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 사용은 처벌 대상"	2013.07.25.
351	2013년 여름휴가, 책 읽기를 권합니다	2013.07.25.
352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2013.07.24.
353	'주한 외국인들도 '미스터 고' 를 볼 수 있다'	2013.07.24.
354	'월드뮤직, 그 이상의 아시아'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2013.07.24.
355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업 가동"	2013.07.24.
356	'토요일은 도서관에서 책으로 노~올자!'	2013.07.23.
357	'관광분야 국제협력 강화' 를 위한 해법 찾는다	2013.07.23.
358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	2013.07.22.
359	'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2013.07.22.
360	'디지털 문학 터전의 새 주역을 찾습니다'	2013.07.22.
361	'세계의 눈과 함께하는 정전 60년 평화의 길'	2013.07.22.
362	내년 말까지 전국에 '작은영화관' 20개 생긴다	2013.07.22.
363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07.22.
364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문화융성' 구현"	2013.07.19.
365	'한국 문화예술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	2013.07.18.
366	'자전거 여행활성화, 정부 · 민간 함께 나섰다'	2013.07.18.
367	다문화 가족과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소통 캠프	2013.07.18.
368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2013.07.17.
369	'올해부터 지역문화지표 조사 대상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2013.07.17.
370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 9월 개관'	2013.07.16.
371	정부, 골프인 고(故) 구옥희 씨에게 체육훈장(맹호장) 추서	2013.07.16.
372	'방방곡곡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겨볼까?'	2013.07.16.
373	'건전 아케이드게임 5개에 12억 원 지원'	2013.07.16.
374	한국문화의 메신저, '2013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출범	2013.07.16.

연번	표제	게시일
375	‘새로운 한류 주역을 찾습니다’	2013.07.15.
376	‘창조경제와 스포츠산업의 관계, 그 잠재력을 듣다’	2013.07.15.
377	2013 소피아농아인올림픽 국가대표, 출발	2013.07.15.
378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세미나 개최	2013.07.15.
379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 적격자 없어 재추진키로	2013.07.12.
380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에서 유해물질 검출	2013.07.10.
381	전국에 조성된 도보여행길, 체계적 관리 추진	2013.07.10.
382	‘2013 컨셉코리아’ 뉴욕 진출 디자이너 선정	2013.07.09.
383	어르신 출동! 전국 각지에서 문화교류 활동 펼친다	2013.07.09.
384	‘2013 한글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2013.07.09.
385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개최	2013.07.09.
386	문체부 제2차관, 학교폭력 치유 뮤지컬 관람 및 간담을 위해 학교 방문	2013.07.09.
387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정	2013.07.09.
388	문체부, 한국 패션(K-Fashion) 시대를 열어갈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본격 육성	2013.07.08.
389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예술을 즐기다	2013.07.08.
390	도쿄에서 만나는 한국 관광, ‘한일 프렌드십 페스티벌’ 개최	2013.07.08.
391	2013년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 및 제58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선정	2013.07.04.
392	제5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막 (7. 8. 10시)	2013.07.04.
393	세종학당 51개국 117개소로 확대	2013.07.04.
394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2013.07.04.
395	동남아 한류 중심부 방콕에 한국문화원 개원	2013.07.04.
396	(재)국립예술자료원 이사장에 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임명	2013.07.03.
397	지역 대표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슬로건 선정	2013.07.03.
398	문체부, 이란 체육청소년부와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3.07.02.
399	’13년 상반기 영화 관객 수 9,850만 명, 역대 최다	2013.07.02.
400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	2013.07.01.
401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2013.07.01.
402	일본 악재 불구 2013년 상반기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2013.07.01.
403	한국, ‘2013 도쿄국제도서전’ 주제국으로 참여	2013.07.01.
404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에 박계배 호원대 교수 임명	2013.07.01.
405	문체부 박종길 2차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격려	2013.06.28.
406	혼자,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다	2013.06.27.
407	‘2013 대학생 광고 공모전 개최’	2013.06.27.
408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대책	2013.06.26.
409	‘스마일100*(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심포지엄’ 개최	2013.06.26.

연번	표제	게시일
410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21종 선정	2013.06.26.
411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2013.06.26.
412	고용률 70% 달성, 관광 산업이 이끈다	2013.06.26.
413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공연 개최	2013.06.25.
414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전 세계 바이어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다	2013.06.25.
415	열악한 국내 프로야구장 펜스 교체하기로 결정	2013.06.25.
416	한국 건축문화 인재 등용문, '2013젊은 건축가 상' 선정	2013.06.24.
417	문화콘텐츠로 살아나는 아시아 옛이야기	2013.06.24.
418	외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	2013.06.24.
419	밀라노 한국공예 전시의 감동, 국내에서 다시 만나다	2013.06.21.
420	'2013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발대식 개최	2013.06.21.
421	문체부, 에티오피아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 협정 체결"	2013.06.20.
422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6.13~15)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2013.06.20.
423	문체부, 만화 생태계 위해 중소 웹툰 미디어 키운다	2013.06.20.
424	온라인 불법복제물 감시, 장애인 250명 추가 투입!	2013.06.20.
425	"한류 일꾼, 찾아 키운다"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모	2013.06.20.
426	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2013.06.19.
427	문체부, 창조적 중소 광고 산업 육성한다	2013.06.19.
428	문체부, 2013년도 상반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 개최	2013.06.19.
429	문체부, 한국방송(KBS)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강화	2013.06.19.
430	2013년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3.06.18.
431	올 여름휴가에 우리 국민 3조 9천억 원 쓴다	2013.06.18.
432	문체부-프로축구연맹,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3.06.18.
433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본격 추진	2013.06.18.
434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2013.06.17.
435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2013.06.17.
436	한중 간 영화공동제작협정 가서명 체결	2013.06.17.
43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2013.06.14.
438	한영 수교 13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013.06.14.
439	'대한민국 바로 알림이'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 모집	2013.06.14.
440	제28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울산광역시에서 개최	2013.06.13.
441	한민족 문화 유전자 복원, 전통초상화가 작가 양성 사업 추진	2013.06.13.
442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013.06.12.
443	문체부-농식품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잡는다	2013.06.11.

연번	표제	게시일
444	제3회 한 · 중 · 일 장애인미술교류전 개최	2013.06.11.
445	전국 관광안내표지 실태조사 실시	2013.06.11.
446	교육부 · 문체부 장관, '여명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학생 격려	2013.06.11.
447	행복관광, 국민이 제안합니다	2013.06.10.
448	도서관 정책 권역별 토론회 개최	2013.06.10.
449	제6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관광위원회 개최	2013.06.10.
450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에 총 4명 신청	2013.06.10.
451	제1회 정부미술품 전시 개최	2013.06.07.
452	2014 소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다짐 대회 개최	2013.06.07.
453	거리에서 만나는 전통풍물의 멋과 흥	2013.06.07.
454	문화체육관광부, 수상레저 체험교실 연다 강바람 타고 '카누 · 요트와 함께 치유'	2013.06.07.
455	(재)국악방송 사장에 채치성 전(前) 국악방송 본부장 임명	2013.06.07.
456	(재)명동정동극장 정동극장장에 정현욱 극단 '사다리' 대표 임명	2013.06.07.
457	2012년 한국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5위 달성	2013.06.05.
458	문체부장관, 만화가와 여름밤 호프데이 가져	2013.06.05.
459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2013.06.05.
460	'대중의 새 발견, 누가 대중을 상상하는가?'	2013.06.05.
461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06.05.
462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에 안애순 내정	2013.06.04.
463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감독에 이영철, 김성희 위촉	2013.06.04.
464	문체부-미래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3.06.04.
465	문체부, 관광산업 질적 개선방안 모색	2013.06.04.
466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저작위 공동 협력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최	2013.06.03.
467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 시범사업 공모	2013.06.03.
468	한류 나와라 뚝딱	2013.06.03.
469	아시아 최초 세계 관광 윤리 강령 서약식 열려	2013.05.31.
470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실시	2013.05.30.
471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 구성 · 운영	2013.05.30.
472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 '팔로우' 전시회 개최	2013.05.30.
473	재능기부 어르신들, 인사동에서 문화나눔 공연 펼치다	2013.05.30.
474	청소년 연극치료캠프 '응답하라 2033' 개최	2013.05.30.
475	작은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책수다'	2013.05.29.
476	세계무대에서 통한 한국 전통공예 밀라노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3' 전 보고회	2013.05.29.
477	전통문화 관련 정보는 다 모였다	2013.05.29.
478	세계관광기구(UNWTO) 관광 파트너십 콘퍼런스 및 아태 지역 중견공무원 관광정책 연수 개최	2013.05.29.

연번	표제	게시일
4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이영조 전 한예종 교수 임명	2013.05.27.
480	행복한 통일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통일문화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2013.05.27.
481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 추진키로	2013.05.23.
482	한류 등 다큐 제작 방송사 5개 매체 초청	2013.05.23.
483	꿈나무 선수들의 축제,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2013.05.23.
484	태릉선수촌 컬링경기장 증설 공사 추진	2013.05.23.
485	2013 문화융성 콘퍼런스 '문화융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개최	2013.05.23.
486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채용특혜 관련 해임 등 징계 요구	2013.05.22.
48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2013.05.22.
488	'파출소가 돌아왔다' 등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사업 3개 선정	2013.05.22.
489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월 23일 개막	2013.05.21.
490	'2013 한 · 중 · 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2013.05.20.
491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2013.05.20.
492	광주광역시,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2013.05.20.
493	2013년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첫 강의 시작	2013.05.20.
494	세종학당 학습자 96%, "친구에게 세종학당 소개하고 싶다"	2013.05.20.
495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 및 광부 ·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013.05.13.
496	도서관에서 문화 다양성을 만나다.	2013.05.13.
497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2013.05.13.
498	공공도서관 · 문학관에 문학작가가 찾아와요	2013.05.10.
499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 문화융성의 시대로	2013.05.09.
500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공동체 확대 · 한류 확산 국제 포럼 개최	2013.05.09.
501	국산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5호점, 6호점 문 열어	2013.05.09.
502	구봉서 · 금사향 · 최명수 등 원로 대중예술인 초청 오찬	2013.05.08.
503	중국 노동절 · 일본 골든위크 기간 관광 접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결과	2013.05.08.
504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공모	2013.05.08.
505	대한민국 방방곡곡, 함께 누릴 더 좋은 공간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2013.05.08.
506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발족, 첫 회의 개최	2013.05.08.
507	한국 · 베트남 현대미술 교류전 '회화지교' 열려	2013.05.07.
508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첫걸음	2013.05.07.
509	문화체육관광부, '2013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	2013.05.06.
510	우리도 한번 국제회의 유치해볼까?	2013.05.06.
511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2013.05.06.
512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 계획 발표	2013.05.03.
513	주최 단체 지원금 해외수익금 40%(연간 200여억 원) 스포츠 기초종목 등에 지원	2013.05.02.

연번	표제	게시일
514	우리나라,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5년 연속 제외	2013.05.02.
515	5월 5일 어린이날 문화행사 풍성	2013.05.02.
516	문화체육관광부 솔뫼초등학교에 도서 전달	2013.05.02.
517	문체부 장관, '창조경제와 문화' 기조강연	2013.05.02.
518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맞아 관광수용태세 직접 점검	2013.05.02.
5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13.05.02.
520	한국음악(K-Music) 영국 런던을 쏜다	2013.05.01.
521	한국 대중음악(K-POP) 공연장 건립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 업무협약(MOU) 체결	2013.04.30.
522	'2013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최	2013.04.30.
523	농어촌 마을, 사라져 가는 두레문화를 되살린다	2013.04.29.
524	문체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개최	2013.04.26.
525	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에서 길을 찾다	2013.04.26.
526	중국 주요 지역 언론인 11개 매체 12명 초청	2013.04.25.
527	중국 노동절(4. 29. ~ 5. 1.), 일본 골든위크(4. 27 ~ 5. 6.) 맞아 관광 접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2013.04.23.
528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한류잡지 해외진출 지원 잡지 선정	2013.04.23.
529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신문화포럼 개최	2013.04.23.
530	사회 취약계층의 국내관광이 쉬워진다	2013.04.23.
531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 도입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자료 홈페이지 공지	2013.04.22.
532	2013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구 창작팩토리) 공모	2013.04.22.
533	아시아 꿈나무는 아시아문화마루로 모여라	2013.04.22.
534	문체부, '개발도상국 저작권 전문가 역량 강화' 주제로	2013.04.19.
535	문화예술 현장 목소리를 듣는 '문화예술 대토론회' 개최	2013.04.19.
536	창조적 융 · 복합 관광으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모색	2013.04.19.
537	매년 50억 투입,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순차적으로 개 · 보수 실시	2013.04.19.
538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김대곤 전 원광대 부총장 임명	2013.04.19.
539	제51회 체육주간 (4. 21. ~ 27.) '스포츠로 행복충전'	2013.04.18.
540	전국 17개 시도, 관광을 통한 문화융성 공동 추진	2013.04.18.
541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13.04.17.
542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2013.04.16.
543	2013년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공모	2013.04.16.
544	문화체육관광부 노사, 하나 되어 희망 나눔 실천	2013.04.16.
545	예술을 꽃 피워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2013.04.16.
546	한지품질표시제 본격 시행	2013.04.15.
547	'뿌리 깊은 나무' 세종학당에 간다	2013.04.15.

연번	표제	게시일
548	우리 문화의 핵심 자산 '한글과 한국어' 로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2013.04.15.
549	'문화도시 · 문화마을' 포럼 발족	2013.04.15.
550	문체부, '창조경제와 콘텐츠' 주제로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 마련	2013.04.12.
551	제42회 런던도서전 한국관 참가, 출판한류 알린다	2013.04.11.
552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2013.04.10.
553	격조와 흥이 어우러지는 2013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	2013.04.08.
554	수상스포츠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찰청 수상종목 체육단 창단	2013.04.05.
556	2013년 1분기 한국영화 관객 수 '역대 최대'	2013.04.04.
557	간이역 및 유휴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2013.04.04.
558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출범	2013.04.03.
559	시각예술 글로벌 기획 인력 육성 프로젝트 추진	2013.04.03.
560	문체부,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2013.04.03.
561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모	2013.04.03.
562	한국 전통공예, 세계무대로 본격 진출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한국공예전 개최	2013.04.01.
563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정부 청년정책 홍보(PR) 전략 발표회 개최	2013.04.01.
564	'한복의 미래, 입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옷'	2013.04.01.
565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업 추진	2013.04.01.
5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2013.03.29.
567	문화이모작 4개 권역별 교육생 모집	2013.03.29.
568	"문화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2013.03.28.
569	삭막한 학교공간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	2013.03.28.
570	'한복의 미래, 입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옷'	2013.03.27.
571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및 민속축제한마당 개최	2013.03.27.
572	2013년 한류잡지 해외진출지원 사업 공모	2013.03.27.
573	창의 문화가 꽃피는 '2013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콘퍼런스'	2013.03.27.
574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문화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2013.03.26.
575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2013.03.26.
576	'전국 독서 동아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3.03.26.
577	문화부, 부처 간 협업 활성화 통해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	2013.03.25.
578	학교 폭력, 마음을 여는 문화의 가치로 치유한다	2013.03.25.
579	볼로냐 아동도서전 참가, 유럽에 한국 아동도서 출판 한류 심는다	2013.03.22.
580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2013.03.21.
58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2013.03.21.
582	문화로서의 여가의 새 발견	2013.03.21.
583	사진속에 담고 싶은 그 곳, 문화부, 2013년「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25개소 선정	2013.03.21.

연번	표제	게시일
584	한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지품질표시제 공청회' 개최	2013.03.20.
585	문화부, 2013년 패션문화산업 정책 설명회 개최	2013.03.19.
586	도서관 발전 대국민 제안 공모 실시	2013.03.19.
587	우리 유치원에는 이야기 할머니가 찾아와요	2013.03.19.
588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2013.03.18.
589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 발표	2013.03.18.
590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2013.03.18.
591	불법스포츠도박 4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2013.03.15.
592	2013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운영단체 공모	2013.03.15.
593	불법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2013.03.15.
594	예술의전당 사장에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 임명	2013.03.14.
595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조적 음악 한마당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개최	2013.03.14.
596	문화예술사각지대에 예술교육의 꽃을 피웁니다.	2013.03.14.
597	아일랜드 교통관광체육부장관 예방	2013.03.14.
598	문화부, 올해 총 1,893억 원의 콘텐츠펀드 신규 조성	2013.03.14.
599	'프로단체 협의회' 신설 등 자정기능 강화	2013.03.13.
600	문화부 장관, 숭례문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 방문	2013.03.13.
601	고품격 한국적 실내 공간, 품위 있는 한국인	2013.03.13.
60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다	2013.03.13.
603	주한 외국인 대상 '이달의 문화행사' 개최	2013.03.11.
604	'뽀로로, 피에타, 인도 십억 소비자와 만나다'	2013.03.11.
605	최신영화 불법복제 DVD 유통 미리 막았다	2013.03.11.
606	2013년 한국음식관광산업화 사업 공모	2013.03.11.
607	공무원 성명 로마자 표기 '성 이름' 순서로 쓴다	2013.03.08.
608	'12년 스마트콘텐츠 시장 1.9조 원으로 문화콘텐츠 비중이 79%	2013.03.07.
609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3.03.06.
610	게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철저히 근절	2013.03.06.
611	공공기관 보유 문화정보, 한눈에 검색한다	2013.03.05.
612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13.03.05.
613	친구야! 토요일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에 놀러가자	2013.03.04.
614	전국 7,254개 초 · 중 · 고등학교에 예술강사 4,485명 지원	2013.02.28.
615	우리 스포츠 성과,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유한다	2013.02.28.
616	주머니 속에 문화가 쏙~, 문화이용권(바우처) 신청하세요	2013.02.28.
617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는 행정분야 전문용어	2013.02.28.
618	생태관광 인증제 관련 사업자 대상 워크숍 개최	2013.02.27.

연번	표제	게시일
619	영화 '레미제라블' 불법 게시자 집중 수사	2013.02.27.
620	2013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2013.02.26.
621	'무등(無等)에 오르다' 특별기획전 개최	2013.02.26.
622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2013.02.25.
623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월 25일 개막	2013.02.25.
624	'스마트 한류' - 세계 최대 모바일 쇼에서 우리 스마트콘텐츠 우수성 알린다	2013.02.25.
625	'국가대표 기자단'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 6기 발대식	2013.02.21.
626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진솔한 모습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3.02.20.
62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2013.02.19.
628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2013.02.18.
629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우수 콘텐츠잡지 50종 선정	2013.02.14.
630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는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개최	2013.02.14.
631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02.14.
632	스페셜올림픽의 감동을 영원히	2013.02.13.
633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개최	2013.02.13.
634	도서자료 2,013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	2013.02.12.
635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2013.02.12.
636	케이 팝(K-POP) 아레나 공연장 한류월드에 건립 추진키로	2013.02.08.
637	한국의 선율, 패션과 만나다 컨셉코리아 F/W 2013, 성황리 개최	2013.02.08.
638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발표	2013.02.07.
639	설 연휴, 서울역 광장에서 풍물놀이 한마당	2013.02.07.
640	세종 , 그 꿈의 실현 : 제32회 세종문화상 시작을 알림	2013.02.07.
641	'한국적 실내 공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2013.02.05.
642	예술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2013.02.05.
643	여섯 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3.02.05.
644	이어령 명예학당장, 전 세계 한국어 교사와 실시간 화상 특강으로 만난다	2013.02.04.
645	특성화고 학생 대상 '꿈을 향해 쏴라' 문화토크콘서트 개최	2013.02.04.
646	한류문화 진흥 정책보고서,「한류백서」발간	2013.02.04.
647	중국 춘절(2. 9. ~ 2. 15.) 맞아 관광수용태세 집중 점검	2013.02.04.
648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2013.02.04.
649	2015 국제디자인연맹 총회(2015 IDA Congress) 광주 유치 결정	2013.02.01.
650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13.02.01.
65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3.01.31.
652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2013.01.30.
653	문화, 세계와 함께 놀다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개최	2013.01.30.

연번	표제	게시일
654	‘문화로 행복한 우리 동네 이야기’	2013.01.29.
655	2012년 한국영화 평균 수익률 13% 달성	2013.01.28.
656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29일 개막	2013.01.28.
657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간중 위시트리(Wish Tree) 이벤트 개최	2013.01.28.
658	2013년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 발대식	2013.01.28.
659	지역신문 2013년도 우선지원대상사 69개사 선정 확정	2013.01.25.
660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등 계기 세계 유력 올림픽 취재 기자 초청	2013.01.24.
661	영화 디지털온라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2013.01.24.
662	‘한복, 디자인을 만나다’	2013.01.23.
663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한국 대표선수단 출정식’ 개최	2013.01.23.
664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화 환영 및 출발식’ 1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2013.01.22.
665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찾습니다	2013.01.22.
666	‘컨셉코리아 F/W 2013’, 한국의 멋과 흥으로 뉴욕을 춤추게 하다	2013.01.22.
667	음원 콘텐츠 유통에 표준식별코드(UCI) 적용	2013.01.18.
668	‘한국-터키 문화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3.01.18.
669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 1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려	2013.01.18.
670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2013.01.16.
671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성과 공유 포럼, 1월 18일 열려	2013.01.16.
672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2013.01.15.
67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2013.01.15.
674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아십니까?	2013.01.11.
675	제5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 개최	2013.01.11.
67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범정부 차원 지원 의지 천명	2013.01.09.
677	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2013.01.09.
67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건립 추진	2013.01.09.
679	‘2012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3.01.03.
680	희망찬 국민, 더 큰 대한민국 ‘2013 신년음악회’ 개최	2013.01.03.
681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여행 웹사이트 공개	2013.01.02.

2)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해명 보도자료 목록

연번	표제	게시일
1	「문체부 인문국 신설 추진」관련 전자신문 보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12.19.
2	문체부, 시중 노래반주기 삭제 곡목에 '아리랑' 이 들어간 경위 확인, 삭제곡 복원 추진	2013.12.18.
3	문체부,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 연임 방침 결정	2013.12.17.
4	관광경찰 출범 후 길 안내 외에도 49건의 불편사항 처리	2013.11.25.
5	공공기관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 외에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위해 사업비, 운영비에도 사용돼	2013.11.21.
6	한식명칭 번역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없다 문체부 · 농식품부 협력해 한식명 번역 표준안 마련 중	2013.11.20.
7	11/16일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2013.11.16.
8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실 없어"	2013.11.07.
9	정부 광고는 지방신문 포함 신문광고도 계속 증가	2013.10.28.
10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 개방' 되어 있어	2013.10.24.
11	문학나눔사업은 우수도서 지원사업과 통합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	2013.10.23.
12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대상 정해진 바 없어	2013.10.15.
13	" 정부 SW 관리체계 부실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밝힙니다.	2013.10.15.
14	"국립오페라단 공연 연기는 예술의전당 편입과 무관"	2013.10.10.
15	"정부예산 투입하고 텅텅 빈 '빛마루' " 등 '빛마루 예산낭비'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13.10.10.
1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2013.09.23.
17	한국 미술가 프로젝트(Korea Artist Project) 보도(9. 13.)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9.13.
1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초안에 공동보존서고 건립 · 운영계획 있어	2013.08.13.
19	MBC, 연합뉴스 등의 2013.8.11(일) 정부미술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	2013.08.13.
20	문체부는 관광 일자리를 근거 없이 늘린 사실 없어	2013.08.07.
21	8월 1일 자 헤럴드경제 '빙상경기 보면서 베팅하세요' 기사 관련 문체부 입장	2013.08.05.
22	미디어오늘「노무현 NLL 포기,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보도(7.11)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7.12.
23	인조잔디 유해성 매년 점검, 개 · 보수 지원	2013.07.04.
24	「국립세종도서관 10월 개관 물 건너가」보도 (7. 2.)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7.03.
25	공공미술프로젝트(마을벽화) 보도(6. 29.)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7.01.
26	「중국산 돌방석 · 잘 안보이는 간판... 국립미술관 맞아?」관련 보도(7. 1.)에 대한 미술관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3.07.01.
27	"강원 문화바우처 사업 시설부족으로 효과 없다" 보도에 대한 사실 해명	2013.06.28.
28	한예종 직원상조회 보도(6.18/6.20)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6.20.
29	"장애인체육회 소속 코치, 선수 폭행 · 성희롱" 보도(6. 20)에 대한 사실 해명	2013.06.20.
30	"정부, 北에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요청" 보도(6.18)에 대한 사실 해명	2013.06.18.
31	스포츠토토 공영화 사업 추진 보도(6.18)에 대한 사실 해명	2013.06.18.

연번	표제	게시일
32	MBC「돌까지 중국산이 국산 둔갑」관련 보도(6.14) 중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2013.06.17.
33	경향신문 '이동통신 계열사 음원유통 독점' 관련 기사(6. 13.)에 대한 해명	2013.06.13.
34	공연시설 대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연기획사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추진	2013.06.10.
35	'문화융성위원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순수 대통령 자문기구' 로 출범 예정	2013.06.10.
36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2013.05.31.
37	토요스포츠데이 현황 조사 및 개선 추진 중	2013.05.07.
38	성희롱 전력 장애인체육 국가대표감독 재선임 즉시 시정 지시	2013.05.01.
39	대한체육회, 성폭력 징계규정 개정 이미 추진 중	2013.04.30.
40	이명박 전 대통령 올림픽공원 테니스장「특혜」사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치경과	2013.04.24.
41	JTBC「미술관 공사장 피해」관련 보도(4.17)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2013.04.23.
42	'국정과제 중 부처업무보고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들' 보도 중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2013.04.22.
43	파이낸셜 뉴스 'go.kr도 뚫렸다' 보도 관련	2013.04.15.
44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위한 의견수렴 충분히 거쳐	2013.04.15.
45	'서울로 몰리는 외신기자들' 보도에 대한 해외문화홍보원 입장	2013.04.05.
46	'한국 땅' ...독도에 한글로 못박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2013.03.27.
47	서울에도 K팝 전용 공연장 보도 사실과 달라	2013.03.07.
48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일부 보도 해명	2013.02.20.
49	"美, 미국지재권연맹, USTR에 한국 등 5개국 '요주의' 지목"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02.15.
50	" '국립고구려박물관' , 아차산에 세운다" 는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2013.01.24.
51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01.03.

3 문화체육관광 승인통계 목록 (2013)

문화체육관광 승인통계는 총 18종이며, 통계 유형별로는 조사통계 15종, 보고통계 3종이다.

분야별 분류	연번	승인여부	승인연도	형태	조사주기	통계명	작성기관
문화예술	1	승인	2007	조사	1년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	승인	2007	조사	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승인	1991	조사	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승인	1991	조사	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	5	승인	2005	조사	1년	광고산업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6	승인	2008	조사	2년	국민독서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	승인	2008	조사	1년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8	승인	2004	조사	1년	콘텐츠산업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9	승인	2006	보고	매월	정기간행물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10	승인	2008	조사	1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승인	1976	조사	반기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승인	1980	조사	1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승인	1975	보고	매월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승인	1976	보고	매월	호텔업운영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체육	15	승인	1991	조사	2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체육과학연구원
	16	승인	1992	조사	2년	국민체력실태조사	체육과학연구원
	17	승인	2010	조사	1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체육과학연구원
	18	승인	2008	조사	1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대한장애인체육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집필진

- 집필 총괄 :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김나나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서연경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
- 기획 및 편집 : 허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
  석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

2013 문화예술 정책백서 목차	부서	담당자
제1장 2013 문화예술정책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1절 국가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허은영 연구원 김윤경 연구조원 석지훈 연구조원
제2절 2013 문화예술정책	문화체육관광부	각 업무 담당자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등	강권수 주무관/ 유정희 주무관 김현진 주무관/ 성창혁 주무관 신민아 주무관/ 구자환 주무관 우애란 주무관 등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강현수 주무관/ 김진희 사무관 최성훈 주무관/ 조민령 주무관 신경희 주무관/ 강규식 주무관 이문옥 주무관/ 강경철 주무관 조영권 주무관/ 박정후 주무관 이현기 주무관
제 4절 문화예술 재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이우선 주무관
제3장 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제1절 문화정책 일반	문화여가정책과	김나나 사무관/ 최재환 사무관 서연경 주무관/ 김성관 주무관 조영권 주무관/ 박수향 주무관 김현정 주무관
제2절 국어정책	국어정책과	조민령 주무관 등

2013 문화예술 정책백서 목차	부서	담당자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인문정신문화과	김현정 주무관 등
제4절 국제문화정책	국제문화과	김경희 주무관 등
제5절 도서관 정책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정후 주무관 등
제6절 박물관 정책	박물관정책과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허은영 연구원
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강경철 주무관 등
제4장 예술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제1절 예술정책 일반	예술정책과	김진희 사무관 / 이문옥 주무관 최성훈 주무관/ 신경희 주무관 윤아람 주무관/ 강규식 주무관 이지희 주무관/ 엄정남 주무관
제2절 문학정책	예술정책과	장예리 주무관 등
제3절 공연예술정책	공연전통예술과	신경희 주무관/ 오올리 주무관 정현자 주무관/ 류현욱 주무관
제4절 전통예술정책	공연전통예술과	김갑수 주무관 등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시각예술디자인과	박성필 주무관/ 윤아람 주무관 오길환 주무관/ 최미애 주무관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예술교육과	강규식 주무관 등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발행일 | 2014년 9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인쇄처 | 크리홍보 주식회사

ⓒ 2014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정책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발간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